

2014 경기 정도 600년 기념판

경기도 바로알기



수원시·성남시·고양시·부천시·용인시·안산시·안양시·남양주시·의정부시·평택시
시흥시·화성시·광명시·파주시·군포시·광주시·김포시·이천시·구리시·양주시·안성시
포천시·오산시·하남시·의왕시·여주시·동두천시·양평군·과천시·가평군·연천군

경기도 바로알기

京畿 定道 600년의 역사적 의미

경기도가 오늘날과 거의 규모가 같은 행정구역으로 설치된 것은 태종 14년(1414) 1월 18일이므로 금년은 정도(定道) 600년이 되는 해이다. 조선시대 및 8·15 이전과 차이가 있다면 수도 서울의 경역이 크게 넓어지면서 경기도 경역이 축소되고, 남북분단으로 경기 북부지역이 북한땅으로 들어가서 옛날 경역이 더욱 줄었다는 점이다. 조선시대 한양의 행정구역은 도성(都城) 안과 성저십리(城底十里)에 지나지 않았으므로 지금 서울특별시 25구 가운데 종로구, 중구, 용산구, 마포구, 서대문구, 성북구, 동대문구 등 7구를 제외한 나머지는 경기도 땅이었다.

경기도의 행정구역이 이렇게 옛날보다 크게 축소되었지만, 오늘의 경기도는 인구 약 1천 4백 만[인천 포함]으로 한국 전체인구의 약 28%를 차지하고, 경제규모는 서울 다음의 2위를 기록하고 있어 서울과 더불어 한국의 심장장부를 이루고 있다. 경기도의 이러한 막강한 위상은 경기도가 터잡고 있는 지리적 조건과 역사적 전통에 뿌리를 두고 있다.

경기(京畿)는 기전(畿甸)으로도 불리는데, 원래 왕도(王都)에서 500리 또는 1천리 이내 땅으로서 임금이 직접 관할하는 직할지(直轄地)를 가리킨다. 이는 수령을 통해 간접 통치하는 다른 도(道)와 다르다. 경기도에 과전(科田)을 설치하여 벼슬아치에게 수조권을 준 것, 경기감영(京畿監營)을 한성부에 속하는 서대문 밖에 두고,¹⁾ 과거시험을 치를 때 경기도 출신은 서울에 와서 치르도록 한 것, 수도 주변에 여러 유수(留守)²⁾를 두어 2품 경관직(京官職)이 직접 다스리도록 한 것 등이 그것이다. 특히 경기감영을 서울에 둔 것은 경기도가 임금의 직할지로서 서울을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지원하는 광역수도권이라는 것을 말해준다.

정조때에는 유수부를 네 곳으로 확대했는데, 개성을 송도(松都), 강화도를 강도(江都) 또는 심도(沁都)로 불러 '도읍'의 뜻을 부여하고, 화성(華城)을 정조가 건설하면서 임금의 직할지인 탕목읍(湯沐邑)으로 부른 것은 경기도 가운데에서도 특히 네 유수부를 임금의 직할지로 설정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물론 수령이 파견된 군현이 있었지만, 유수부가 있는 지역은 전주를 제외하고는 경기도 뿐이다.³⁾

1) 경기감영은 서대문 밖 지금의 적십자병원 자리에 설치했다가 1896년에 수원으로 옮겼다. 지금 18세기 후반기에 그린 것으로 추정되는 12폭의 장대한 <경기감영도병풍>이 리움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다. 숙종때와 영조때에는 경기감영을 탕춘대(蕩春臺)가 있는 지금의 세검정으로 옮기려는 논의가 있었으나 실현되지 않았다.

2) 네 유수는 송도(松都: 개성), 강도(江都: 강화도), 화성(華城: 수원), 그리고 광주(廣州)를 말한다. 여기서 송도와 강도에 도(都)를 붙인 것과 화성을 정조가 탕목읍(湯沐邑)으로 만든 것이 주목된다.

3) 전주에도 유수부가 있었다.

그런데 경기도지역은 조선왕조 이전에도 한국정치사의 중심지역이었다. 단군(檀君)과 관련된 유적으로 강화도에 삼랑성(三郎城; 정족산성), 마니산 참성단(塹城壇), 고인돌 등이 남아 있고, 마한(馬韓)의 맹주인 목지국(目支國; 辰國)이 인천과 아산만을 연결하는 서해안지역에 세워지고,⁴⁾ 백제의 여러 수도였던 위례성(慰禮城)이 이 지역에 건설되어⁵⁾ 500년간 전성기를 누렸으며, 고구려가 이 지역을 차지하여 한 때 남평양(南平壤)으로 부르고, 신라가 이 지역을 차지하면서 삼국통일의 동력을 얻었다.

개성에서 국제무역상으로 성장한 왕건은 도읍을 개성에 두고 주변지역을 경기도 또는 양광도로 편제하여 475년을 통치하고, 옛날 위례성지역에 남경(南京)을 설치하여 부수도로 삼았다. 고려중기를 정치적으로 지배한 김은부(金殷傅)의 안산김씨(安山金氏), 윤관(尹瓘)의 파평윤씨(坡平尹氏), 이자겸(李資謙)의 인주이씨(仁州李氏) 등 문벌가문이 경기도에 뿌리를 두고 있었다.

이런 전통을 이어받아 조선왕조의 수도가 남경에 건설되고 519년의 장수를 누렸다. 조선시대 경기도에는 왕도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5개처의 행궁(行宮)이 있었다. 북한산성, 강화도, 월미도, 화성, 남한산성 등이 그것이다. 또 경기도에는 왕릉(王陵)을 비롯한 왕족의 능침이 건설되어 임금이 참배행차가 끝날 날이 없었다.

조선시대 대표적인 왕비가문을 형성했던 파평윤씨, 여흥민씨, 풍양조씨, 남양홍씨 등이 경기도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이밖에 광주이씨(廣州李氏), 덕수이씨(德水李氏), 용인이씨(龍仁李氏), 여주이씨(驪州李氏), 수원백씨(水原白氏), 양천허씨(陽川許氏), 광주안씨(廣州安氏), 교하노씨(交河盧氏), 금청강씨(衿川姜氏), 이천서씨(利川徐氏), 평택임씨(平澤林氏), 인천채씨(仁川蔡氏), 한양조씨(漢陽趙氏) 등 명문이 경기도에 본관을 두고 있다. 이밖에 경기도에 본관을 둔 성씨는 대략 대성(大姓)만 50개를 넘는다. 거란과의 전쟁에서 명성을 떨친 강감찬(姜邯贊)과 서희(徐熙)도 경기도 사람이다.

삼국시대 이후로 경기도지역이 정치중심지가 된 것은 무엇보다도 지리적 조건에 연유한다. 첫째, 경기도는 한반도의 중앙에 위치하여 한반도를 통치하는데 가장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조선시대 한반도 고지도를 보면 경기도는 항상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다. 노란색은 오방색(五方色) 가운데 중앙을 상징하는 빛깔이다.

둘째, 한강, 임진강, 예성강, 한탄강 등 여러 강들이 동남북에서 흘러와서 강화해협에서 만나

4) 목지국의 위치는 여러 설이 있다. 충청남도 예산이나 직산, 전라북도 익산설이 그것이다. 그러나 위례성과 인천 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아산만일대에 이르는 서해안지역으로 보는 설이 진실에 가깝다.

5) 백제의 위례성은 한 곳이 아니라 풍납토성, 몽촌토성, 이성산성(하남시), 남한산성(은조사당), 북한산성(하북위례성), 아차산성(하북위례성) 등 여러 곳으로 보인다.

수로교통이 편리하고, 벽란도, 인천, 남양, 평택 등 항구가 서해로 열려 있어 국제적 해상로가 편리하다. 여기에 북한산, 남한산, 관악산, 감악산, 마니산, 송악산, 소요산, 오관산, 성거산, 아차산, 천보산, 용문산, 수리산, 불암산, 도봉산, 백운산, 호명산 등 1천미터 내외의 중량급 산악들이 수도권을 에워싸고 있어서 경관이 수려할 뿐 아니라, 국방상으로도 천혜의 요새지를 이루고 있다. 그래서 경기도를 지배하는 나라가 한반도를 지배하는 전통이 이어지면서 경기도는 선사시대부터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가 되었던 것이다.

문화사로 보면 경기도문화가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한 것이 조선시대이다. 조선시대는 불교가 쇠퇴한 시대이지만, 왕실과 관련된 사찰은 있었으며, 이 사찰들은 서울 외곽의 경기도에 포진하고 있었다. 양주(楊州)의 檜巖寺[태조]와 봉선사(奉先寺; 세조비 정희왕후), 여주(驪州)의 신록사(神勒寺; 태조), 수원(水原)의 용주사(龍珠寺; 정조) 등은 그 대표적 사찰이다. 또 왕실에서 쓰는 최고급 그릇들을 광주의 사옹원분원(司饗院分院)에서 생산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사상사적으로 보면, 경기도는 가장 진취적인 성리학(性理學)과 실학(實學)의 중심지로서 519년 왕조의 정신적 기둥이 되었다. 조선전기에는 개성과 임진강유역이 진취적 성리학의 중심지였다. 개성에서 서경덕(徐敬德)이 나오고, 그 뒤를 이어 송도삼절(松都三絶)로 불리는 차천로(車天輅; 문장), 최립(崔崝; 문장), 한호(韓濩; 글씨) 등이 배출되었으며, 임진강 유역의 파주와 김포 등지에서 양성지(梁誠之), 이이(李珥), 성혼(成渾), 송익필(宋翼弼), 조헌(趙憲) 등이 배출되어 실용적이고 개방적인 성리학이 꽃피었으며, 17세기초에는 그 학풍이 서울로 진입하여 침류대학사(枕流臺學士)로 불리는 실학의 선구자들이 배출되었다. 이수광(李睟光), 한백겸(韓百謙), 유몽인(柳夢寅), 허균(許筠), 신흘(申欽) 등이 그들이다.

침류대학풍이 17세기 후반-18세기에는 한강을 넘어가서 광주, 양주, 수원, 안산일대에 기라성같은 실학자들이 나타났다. 광주에서는 《동사강목》의 저자인 안정복(安鼎福)과 천주교를 신봉한 이가환(李家煥), 이승훈(李承薰), 권철신(權哲身) 형제, 이벽(李穡), 《택리지》의 저자인 이중환(李重煥), 양주에서는 실학의 집대성자인 정약용(丁若鏞)과 《자산어보》의 저자인 정약전(丁若銓), 안산에서는 《성호사설》의 저자인 이익(李瀾), 수원에서는 《천일록》(千一錄)의 저자인 우하영(禹夏永) 등이 그런 인물이다.

한편, 한탄강 유역의 연천에서는 고학(古學)의 선구자인 허목(許穆), 포천에서는 《연경재집》의 저자인 성해응(成海應) 등이 배출되었다. 실학의 선구자인 유형원(柳馨遠)의 무덤은 용인, 이수광의 무덤은 양주, 한백겸의 무덤은 여주에 있다.

조선후기 실학은 영정조에 이르러 국가정책으로 흡수되어 왕조의 중흥을 이룩했는데, 특히 정조(正祖)의 정책은 경기도 남인(南人)의 실학과 서울노론의 북학(北學)을 합쳐 도덕적으로 건장하고 경제군사적으로 강력한 민국(民國)을 건설하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민국의 꿈을 이상적

으로 펼치는 공간으로서 화성(華城)을 건설했다. 정조의 꿈을 정신적으로 생산한 곳이 서울의 구장각(奎章閣)이라면, 그 꿈을 실천한 현장은 바로 화성이었다.

1794년 봄에 착공하여 1796년 가을에 준공한 화성에 담긴 정조의 꿈은 크고 웅장했다. 표면적으로 화성은 사도세자무덤인 현릉원(顯陵園)을 보호한다는 효도를 목적으로 하여 건설되었지만, 그것은 반대세력을 설득하기 위한 명분에 지나지 않았다. 진심은 다른데 있었다.

첫째, 화성은 정조가 생전에 은퇴하여[순조가 15세가 되는 1804년] 어머니 혜경궁(惠慶宮)을 모시고 만년을 보내는 정치도시를 만들려고 했다. 그래서 봉수당(奉壽堂)을 비롯한 짜임새있는 행궁을 건설하고, 6천명에 달하는 국왕직속의 정예부대인 장용영(壯勇營)을 주둔시키고, 이곳을 탕목읍의 자급자족 도시로 건설했다. 서울 주변에는 북쪽에 개성, 동쪽에 광주, 서쪽에 강화 등 세 유수부를 두었는데, 서울 남쪽에 화성[수원]유수가 설치되어 4유수체제가 형성되었다. 그런데, 개성과 강화부 유수는 종2품 참판급이었는데 비하여, 광주와 수원은 정2품이었으므로 판서급에 해당했다. 그런데 서얼은 수원이 광주보다 상위에 있어서, 수원은 한양 다음의 위상을 지닌 정치도시가 되었다. 이렇게 네 유수가 감싸고 있는 수도권을 중국의 천자(天子)가 다스리는 황도(皇都)에 비유했다.

화성에 담긴 정조의 두번째 꿈은 자립적이고 시범적인 경제도시를 만든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화성 주변에 만석거(萬石渠), 축만제(祝萬堤), 만년제(萬年堤), 만안제(萬安堤) 등의 최신식 수리시설을 구축하고, 이를 이용하여 주변에 국영농장인 둔전(屯田)을 경영하고, 여기서 나오는 수입으로 수원부의 경비를 조달하게 했다. 그래서 수원은 이때부터 흉년을 모르는 모범적인 농업도시가 된 것이고, 그 연장선상에서 개화기 이후로 농업시험장과 농림학교[뒤의 농과대학]가 들어서게 된 것이다.

또 수원을 모범적인 상공업도시로 만들기 위해 타지방의 상공인들을 면세와 그밖의 특권을 주어 유치했는데, 이때부터 수원이 상공업도시로 성장하는 발판이 마련되었다. 정조는 수원을 전국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를 만들려는 꿈을 담으려고 했다. 그 꿈이 오늘날 실현되고 있는 것이다.

세 번째로, 화성은 가장 현대적인 성곽도시로 건설되었다는 것도 잘 알려진 사실이다. 왜란 이후로 서울 남방의 방어시설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이 유형원을 비롯한 실학자들의 주장이었는데 정조는 바로 이들의 의견을 수용하여 총포전에 알맞는 현대적인 성곽도시를 만든 것이다. 정조는 중국과 우리나라의 모든 성곽제도를 연구하여 그 장단점을 취합해서 화성을 건설했기 때문에 이는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세계성곽발달사에 하나의 획을 긋는 일이었다.

네 번째로, 정조는 화성을 건설하는 과정에 실학과 북학의 학문적 성과를 활용했다. 거중기와 녹로 등 수많은 건설장비를 새로 만들어 노동력을 크게 절감시켰고, 건설기간을 단축시켰다. 또 장인(匠人)들의 고임(雇賃)을 만나절까지 계산해서 지불하고, 날씨가 더운 날은 공사를 중단하

고, 척서제라는 더위를 먹지 않게 하는 약을 먹이기도 하면서 장인들을 아꼈다. 그 결과 화성은 2년반만에 건설될 수 있었다.

다섯째로, 정조는 화성건설을 마치고나서 1,400여쪽에 달하는 공사보고서를 만들었다. 그것이 저 유명한 《화성성역의궤》다. 이 책은 건설공사에 참여한 6천여명 장인들의 이름과 근무한 날자수, 공사장, 거주지, 품값이 기록되어 있고, 각 건물마다 투입된 건설자재의 수량과 단가, 제조한 장소 등이 기록되어 있다. 이 책은 세계 역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완벽한 토목실명제를 우리가 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비슷한 시기에 건설된 러시아의 상트 페테르부르크와 미국의 워싱턴DC가 이러한 공사보고서를 만들지 못했다는 것과 비교하면 얼마나 자랑스럽고 놀라운 사실인가를 알 수 있다. 아마 오늘날에도 이 정도 수준의 공사보고서는 만들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정조가 1796년 부모의 회갑을 기념하여 화성에 행차하고 돌아온 보고서[원행을묘정리의궤]도 우리를 놀라게 한다. 이 책에는 8일간의 행차기간에 1,800여명의 참여자들이 먹은 음식의 메뉴와 그 음식을 만드는데 소요된 물자, 그리고 그 음식의 제작단가 등까지도 소상하게 기록되어 있어서 그 기록의 치밀성에 감탄을 금할 수 없다. 정조시대의 화성은 왕조 르네상스의 꽃이요, 경기도의 꽃이었다고 할 수 있다.

꿈많은 실학의 군주 정조가 타계한 뒤 19세기 서울의 정치권이 부패한 세도정치로 치달으면서 국운이 기울어가고 있을 때, 경기도에서는 서양과 일본의 침략에 저항하는 의병운동의 정신적 중심지로 떠올랐다. 그 정신적 뿌리는 호란 때 척화파의 선두에 섰던 양주 석실서원(石室書院)의 주인 김상헌(金尙憲)으로 소급되며, 양근의 이항로(李恒老; 華西)와 포천의 최익현(崔益鉉; 勉菴)이 이를 계승하여 의병운동의 정신적 기초를 놓았다. 위정척사로 불리는 이들의 사상은 근대화를 접목시키지 못한 한계는 있지만, 의병운동이 일제시대 항일독립전쟁의 선구가 되었다는 것은 경기도의 자량이 아닐 수 없다.

일제강점기에 평택에서 안재홍(安在鴻) 같은 위대한 신민족주의자(新民族主義者)가 나오고, 제암리에서 격렬한 3·1운동이 일어난 것도 우연한 일은 아니다. 한편, 조선후기 새로운 실천이념을 제시한 양명학(陽明學)이 강화도를 중심으로 일어나고, 양명학자 중에 박은식, 정인보, 이건창 등 많은 민족주의자가 배출되었다는 것은 강화도가 민족운동의 또다른 정신적 근원지였다는 것을 말해준다.

경기문화는 다른 지역과 다른 독자성이 있지만, 그 안에는 또 지역에 따른 특색이 있어서 몇 개의 문화권으로 나눌 수 있을 듯하다. (1) 개성문화권, (2) 강화도문화권, (3) 임진강문화권, (4) 양주와 양평을 중심으로 하는 북한강문화권, (5) 광주, 수원, 여주를 중심으로 하는 남한강문화권, (6) 평택문화권, (7) 한탄강문화권, (8) 여주문화권으로 나눌 수 있지 않을까 한다.

(1) 개성문화권은 고려왕도 유적과 더불어 조선시대 서경덕 및 송도삼절(松都三絶)의 고장이고, (2) 강화문화권은 단군유적, 무신집권시대 유적, 조선시대 산성유적, 두 차례 양요유적 등이 있으며, 정신적으로는 양명학 전통이 강하고, (3) 임진강문화권은 율곡, 성혼, 송익필 등 기호유학의 발상지이며, (4) 북한강문화권은 김상헌, 이항로, 최익현으로 대표되는 위정척사 사상의 본고장이고, (5) 남한강문화권은 실학의 중심지이자 정조의 꿈이 담긴 지역이며, 천주교[서학]의 발상지이고, (6) 평택문화권은 조선왕조를 설계한 정도전(鄭道傳)의 사당과 대한민국의 건국이념을 설계한 안재홍(安在鴻)의 생가가 있는 곳이다. (7) 한탄강문화권은 고학의 선구자인 허목(許穆)이 연천에서, 실학자인 성해응(成海應)이 포천에서 배출되고, 전곡리에는 구석기문화가 있다. (8) 여주문화권은 영릉(英陵; 세종)과 영릉(寧陵; 효종), 명성황후의 생가와 신록사(神勒寺)가 있는 곳이다. 그러나 이러한 분류는 어디까지나 잠정적인 것이고, 그밖에도 다양한 전통문화가 산재해 있다.

경기문화를 다른 도와 비교한다면 독특한 특성을 지녔다고 할 수 있다. 개방적, 포용적, 진취적, 실학적 성향이 강하다는 것이다. 경기도 사람들은 지방의식과 보수성이 상대적으로 약하여 사회통합력과 국제적 감각이 매우 크다. 경기문화의 이런 특성은 미래의 전통으로 소중하게 이어져야 할 것이며, 관광자원으로도 적극적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통일후의 경기도는 명실상부한 한반도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로서 더욱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2014년 2월
서울대 명예교수
한 영 우



京畿 定道 600년 기념관 발간에 즈음하여

준비된 경기도 공직자가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높인다

예로부터 경기도는 지정학적 중심일 뿐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국가의 핵심역할을 수행해온 주요 지역이었습니다. 배타적인 지역성 없이 ‘포용(包容)과 통합(統合)’을 이뤄낸 그야말로 대한민국 5천년 역사가 녹아있는 곳입니다.

오늘날 한반도의 중심, 대한민국의 성장동력 경기도는 21세기 동북아시아의 거점, 통일시대의 전진기지로서 그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의 현실은 희생과 고통의 악순환입니다.

경기도에 대한 복합적 중첩규제는 도민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경기도의 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1,250만 명의 전국 최대 광역자치단체임에도 도민들을 위한 각종 제도와 시설, 환경 등은 낙후되고 턱없이 미비합니다. 도민들의 공공이익을 담당해야 하는 공무원 숫자만 봐도 서울시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우리 경기도 공직자들은 갑절의 노력이 절실합니다.

도민의 공복으로서 헌신과 봉사는 기본자세이며 자질과 능력배양은 필수입니다. 지역 현안의 핵심을 잘 정리해 파악하여 주민에게 알리고 중앙정부에 지역 현장 행정을 정확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기도 공직자들은 경기도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경기도의 역사와 문화, 정치, 경제, 사회 등 과거와 현재를 알아야 합니다.

미래의 경기도는 지금보다 더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며 글로벌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어떤 상황에 놓여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어야 효과적으로 맡은 책무를 다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로의 인구유입이 많은 현실을 감안할 때 도민들이 미처 모르거나 표현하기 어려운 내용까지 우리 공직자들은 면밀히 파악하고 해결해 나가는 역량을 발휘해야 합니다.

『경기도 바로알기』는 이러한 취지에서 만들었습니다. 이 책에는 경기도의 모든 것이 소개 및 설명되어 있습니다. 역사와 문화를 중심에 둔 것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을 때 미래를 위한 올바른 대안과 정책들을 내놓을 수 있어서입니다.

아무쪼록 이 책을 통해 공직자는 물론 도민이 우리 경기도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쌓을 뿐 아니라 긍지와 자부심을 높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직자들이 신념과 열정을 가지고 있으면 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공부하고 준비하며 자신과 사회를 위한 목표와 이상을 가지고 실천해 나갈 때 선진 사회가 이룩될 것입니다.

끝으로 이 책의 내용을 세밀하게 검토해주신 정옥자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님과 김호일 도사편찬위원회 위원장님, 이은순 부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 2월
경기도지사 김 문 수

감수의 글

역사는 선인(先人)들의 삶의 자취이자, 그들 각자가 갖고 있는 고유한 경험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 과거 사람들의 사고와 생활을 배우고 이를 평가하여, 반성하기도 하고 이어가기도 합니다.

독립운동가이자 역사학자인 백암(白巖) 박은식(朴殷植) 선생은 국사(國史)를 그 민족의 혼(정신)이라 하여 국가가 망해도 그 혼이 살아있다면, 즉 역사가 제대로 바로 서 있다면 그 민족은 망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미국의 미래학자인 폴 케네디(Paul M. Kennedy) 예일대 교수도 “오래된 정신·문화유산과 유서 깊은 역사적 배경이 있는 국가들은 흥망의 깊은 수렁에 빠지더라도 언젠가는 다시 부활할 수 있는 ‘힘’을 갖는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그만큼 역사는 중히 여기고 지켜야 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경기도는 예로부터 우리나라의 중심부에 위치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중추를 이루어 왔으며 많은 문화유산이 산재해 있을 뿐만 아니라 훌륭한 인물들을 수 없이 많이 배출한 곳입니다. 또한 국가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분연히 일어나 우리의 영토와 주권을 지키는 데 앞장섰던 충절(忠節)의 고장이기도 합니다.

『경기도 바로알기』는 경기도 공직자들에게 지역의 역사와 문화가 갖는 의미와 내용이 전달될 수 있도록 편찬하고자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경기도가 처한 현실 속에서 이를 잘 극복하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역사·문화적 연결고리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유를 갖도록 꾸며보았습니다. 이 책자를 통해 21세기 더욱 만개할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경기도에 대한 자긍심과 진취적인 역사의식(歷史意識)을 한가득 가슴 속에 품은 공직자 여러분의 활기찬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아울러 이 책을 만드는 데 힘써 주신 많은 분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감수 작업에 기꺼이 참여해 주신 정옥자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은순 도사편찬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2014년 2월
경기도사편찬위원회
위원장 김 호 일



제1부_ 경기도 현황

13



Contents

京畿 定道 600년의
역사적 의미
京畿 定道 600년 기념판
발간에 즈음하여
감수의 글 2



제1장 경기도의 유래와 행정구역 변천

1. 유래	14
2. 행정구역의 변천	15
3. 북한지역 내 경기도 행정구역 변천	17
4. 비무장지대 · 한강하구 · 서해상북방한계선에 대한 이해 ...	19

제2장 경기도 일반 현황

1. 인구 및 공무원 수	22
2. 위치와 면적	23
3. 재정 규모	25
4. 경기도의회	25

제3장 경기도의 위상

1. 역사 · 문화의 중심지	27
2. 경제의 중심지	30

제4장 경기도 발전의 제약요인

1. 경기도 신도시개발 현황과 과제	34
2. 무계획적 개발 사례	40
3. 경기도 공무원 인력 · 시설 현황 비교	45
4. 서울 주변지역과 접경지역으로서 경기도	51

제5장 경기도의 규제실태

1. 수도권 정책	53
2. 수도권정비계획법 관련 규제	64
3. 개발제한구역 관련 규제	77
4.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	83
5. 한강수계 관련 규제	87
6. 농지 관련 규제	97
7. 수도권 규제완화 분야별 주요성과	100

제2부_
경기도 역사

108



제1장 선사시대

- 1. 구석기시대 110
- 2. 신석기시대 114
- 3. 청동기·초기철기시대 118

제2장 고대의 경기도

- 1. 고대사회로의 전환 123
- 2. 경기지역의 둘러싼 삼국의 쟁패 125
- 3. 통일신라와 한산주, 경기도 원형의 탄생 ... 131

제3장 고려시대

- 1. 고려의 탄생과 '경기'의 성립 134
- 2. 외적의 침입과 경기도민의 항쟁 139

제4장 조선시대

- 1. 조선 건국과 경기도의 재편 146
- 2. 양란의 극복과 경기도 151
- 3. 조선후기 경기도의 변화 159

제5장 근대·일제강점기

- 1. 경기도의 개화와 척사운동 170
- 2. 한말의 민족운동 172
- 3. 지방제도 개편과 경기도의 변화 176
- 4. 일제강점기 경기도의 민족독립운동 184

제6장 현대

- 1. 광복과 분단, 6·25전쟁 192
- 2. 민주주의의 시련과 발전 198
- 3. 경제발전과 사회 변화 205
- 4. 지방화·세계화 시대의 경기도 210

제3부_
경기도 문화

215



제1장 경기도의 산하

- 1. 자연환경 216
- 2. 갯벌 220
- 3. 나루 223

제2장 경기도의 문화유산

- 1. 경기도 구석기 유적 229
- 2. 경기도의 고구려 유적 232
- 3. 경기도의 불교문화유산 236
- 4. 경기도의 유교문화유산 244
- 5. 경기도의 성곽 249
- 6. 경기도의 왕릉 258

제3장 경기도의 민속

- 1. 의·식·주 생활 271
- 2. 민속신앙 277
- 3. 세시풍속 282
- 4. 민속놀이 284

제4장 경기도의 도자기

- 1. 도자의 탄생과 경기도 292
- 2. 분청사기 297
- 3. 조선 백자 299

제5장 경기도의 인물

- 1.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고려를 지켜내다(윤관, 최영) ... 306
- 2. 조선을 이끈 청백리의 표상(황희, 이항복, 이덕형) ... 310
- 3. 성리학의 정점에 선 조선의 학자(이이, 허목) 315
- 4. 실학을 구상하고 완성하다(이익, 정약용) 320
- 5. 조선말 외세의 침입에 항거하다(이항로, 최익현) ... 326
- 6. 현대사의 3주역(여운형, 안재홍, 신익희) 330

- 찾아보기 336
- 사진자료 제공 350

경기도 상징물

경기도 브랜드(도기)



경기도의 슬로건

경기도의 슬로건인 Global Inspiration, 세계속의 경기도는 세계 각국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영감들이 끊임없이 교차하는 글로벌 시대에 경기도가 첨단 지식과 기술, 창조적인 생각과 행동으로 동북아 경제시대의 중심이 되고 '세계속의 경기도'가 된다는 의미를 함축적으로 담았습니다.

경기도의 마크

경기도 산하 31개 시·군들의 강력한 네트워크와 팀워크를 상징하는 동시에 21세기 글로벌 시대의 네트워크를 상징합니다. 무한한 성장 가능성과 기회를 찾아 세계를 향해 힘차게 뻗어 나가는 역동적인 모습을 표현하고 있으며, 또한 지역간, 계층간의 갈등을 극복하고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세계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경기도의 상생의 리더십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컬러

주 색상인 경기블루는 첨단 지식과 기술, 창조적인 생각과 혁신적인 행동을 상징하며 스카이 블루톤은 경기도를 향해 열려있는 무한한 가능성과 기회를 의미합니다. 보조색상인 '경기 오렌지'는 경기도민의 따사로운 마음과 화합의 정신을, 경기 그린은 지구 사랑과 환경 사랑의 푸른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캐릭터



캐릭터 로고와 블루링(Blue Ring)의 의미

가운데 중심 원을 두어 간접적으로 지구형상을 표현하면서, 팔, 다리 등이 방사형으로 뻗어 하여 세계로 뻗어가는 경기도를 표현 원은 평면형태의 도형 중 가장 확장가능성이 큰 도형으로, 기업들이 글로벌을 전략적으로 추구할 때 심볼로 원이나 타원형을 사용

- 원과 직선을 유기적으로 연결, 도내 시·군 및 세계 각국이 네트워크를 통해 각각의 개성을 존중하면서 화합하고자 하는 지향점을 표현
- 갈라 Blue는 첨단, 창조, 혁신을 상징하며, 넘어움을 의미하는 기본형의 손 모양에서 세계일류정신을 느낄 수 있도록 표현
- 블루링이라는 네이밍의 Blue는 캐릭터의 갈라를 나타내면서 첨단, 창조, 혁신을 상징하고, Ring은 상생, 조화의 네트워크 고리를 상징함으로써 희망의 네트워크 경기도를 상징

경기도 마스코트



토아

경기도 캐릭터 '토아'는 경기도의 풍요로운 대지와 자랑스런 문화유산인 도자기를 모티브로 개발 되었습니다. 즉, 흙의 근원인 지구와 땅을 나타 내는 한자 地를 토와 也로 풀어서 표기한 것으로 흙을 친근하게 부르라는 의미입니다.

경기도 마스코트



효행이

경기도 캐릭터 '효행이'는 정조대왕의 어린시절을 모티브로 삼아 효(孝)를 행(行)하는 경기도의 모범적인 캐릭터를 상징합니다. '효행이'는 전통적인 복장과 모범적인 행동을 선행함으로써 그 느낌이 배가 되며 경기도민의 올바른 '孝' 문화를 선도하고자 합니다.

도의 꽃



개나리

대량으로 도내에서 자생하며 번식이 용이하여 큰 번영을 뜻하고 친근, 명량, 고귀한 빛을 나타냅니다.

도의 새



비둘기

인류의 영원한 평화를 상징하며 도민 평화를 통한 조국 평화통일의 염원을 담고 있습니다.

도의 나무



은행나무

은행나무의 웅대한 모습은 큰 번영을 뜻하며 양질의 목질과 과실을 맺고 신록과 단풍은 관상수로 손꼽힙니다.

|| 일러두기

- 01 이 책은 경기도 공무원 학습교재로 사용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여 편찬하였다.
- 02 책의 내용은 경기도와 관련된 것에 국한하여 서술하였다.
- 03 본문은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어려운 용어와 고유명사 일부에 한하여 () 안에 한자를 병기하였다.
- 04 이 책은 여러 연구자가 각각 집필한 것으로 체제통일을 기했으나 각 항목별로 용어사용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 05 내용 중 제1부 현황은 가변적인 통계수치가 많으며, 따라서 수시로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준다.



제1부 경기도 현황

제1장 경기도의 유래, 행정구역의 변천 내용, 그리고 비무장지대, 한강하구, NLL 등 남북접경 관련 사항 등을 살펴보았다. 특히 경기라는 이름의 어원과 경기도 지역의 변화 등을 자세히 정리하였으며 그동안 왜곡되거나 잘 알려지지 않았던 한강하구의 중립지역, 해상북방한계선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추가하였다.

제2장 경기도 인구 및 공무원 수, 위치와 면적, 재정규모 등 일반적·필수적 사항을 살펴보았다. 이밖에 경기도의회와 역사와 현황, 현 경기도민의 생활 및 의식수준을 수록하여 공직자들의 업무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3장 경기도의 위상에서는 도가 역사·문화적으로 왜 한반도의 중심으로 성장을 거듭할 수 있었는가에 대해 서술하였다. 한강유역의 중요성, 고려·조선에서의 경기의 성립과 역할, 근대 이후 신학문과 상공업의 발전 등을 주요하게 살펴보았으며, 경제면에서는 현재 경기도의 경제수치와 잠재력, 첨단산업 인프라 및 친환경 1차산업의 현재와 그 위상을 알아보았다.

제4장 경기도 발전의 제약요인에서는 도 발전을 저해하는 각종 주요 요인들을 살펴보았다. 신도시 개발과 문제점, 경기도 각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난개발 사례와 대책을 알아보고, 늘어나는 인구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공무원 인력과 각종 시설의 현황을 객관적으로 제시하고 보완 대책을 수록하였다.

제5장 경기도의 규제실태에서는 도의 성장과 가능성을 붙잡고 있는 각종 규제의 현황과 실태를 살펴보았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을 포함한 중앙정부 수도권정책의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였고, 개발제한구역 관련 규제,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 한강수계 관련 규제 등의 문제점과 비현실성을 지적하였다. 특히 각종 규제로 고통 받는 경기도민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포괄적 인식을 목표로 서술하였으며, 규제의 대표적 사례와 규제완화 성과를 수록하였다.

|제1장|

경기도의 유래와 행정구역 변천



1. 유 래

‘경기’라는 명칭은 995년(고려 성종 14) 개경 주변에 6개의 적현(赤縣)과 7개의 기현(畿縣)을 설치하였는데, 1018년(고려 현종 9)에 적현과 기현을 묶어서 왕도의 외곽지역을 정식으로 경기(京畿)라 부르기 시작하면서 처음 등장하였다. 그러나 당시 경기는 개성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으로 현재의 경기도 지역과는 많이 달랐고 성격 또한 일반 행정구역과는 달랐다.

1069년(고려 문종 23)에 전시과(田柴科)로 지급할 토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양광(楊廣)·교주(交州)·서해도(西海道)로부터 39현을 새로 경기도에 포함하면서, 원래 경기 13현과 합쳐 총 52현 규모로 확대되기도 하였으나 독자적인 행정조직으로서의 도(道)로는 확립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1360년 경기병마도통사, 경기왜인추포부사 등 왜구 방어와 관련된 군사직을 계속 설치하면서 점차 도(道)로서의 위상을 확보하여, 1390년(고려 공양왕 2)에 처음으로 도(道) 단위의 지방행정조직인 경기좌우도를 설치하였다. 당시의 관할 지역은 1069년때의 영역과 비슷한 규모로 총 44현이 속하였으며, 오늘날의 경기도 보다는 조금 북서쪽으로 치우쳐 있었다.

1413년(조선 태종 13) 전국이 8도체제로 나누어지게 되었으며, 1414년 경기좌우도를 ‘경기’라 칭하였다. 1434년(세종 16) 조선 왕도의 주변이 경기도로 확립되면서 대체로 현재의 경기도 지역과 일치하게 되었다.

1895년 5월 8도제를 폐지하고 23부제를 실시하였으며 경기도는 한성부, 인천부, 개성부의 영역에 속하게 되었다가 1896년 8월 13도제 실시에 따라 경기도가 부활되었다.

8도

평안도, 함경도, 황해도, 강원도, 경기도,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13도

경기도, 황해도, 강원도를 제외한 나머지 5개도를 남북으로 나누어 실시한 지방행정제도

알아두기

‘경기’라는 명칭의 유래는?

『주례(周禮)에 의하면 ‘기(畿)’는 ‘천자 거주지인 왕성(王城)을 중심으로 사방 1천리 이내의 땅’을 의미한다. ‘경기’라는 말은 당나라 시대에 왕도의 주변지역을 경현(京縣) 또는 赤縣)과 기현(畿縣)으로 나누어 통치하였던 데서 유래를 찾을 수 있는데 그 범위는 『주례』보다 축소되었다.



2. 행정구역의 변천

1896년 8월 4일 13도제 실시에 따라 3부 34군의 경기도 행정구역을 설치하였다. 일제가 한국을 강점한 1910년 8월 29일 도청을 수원에서 경성부(서울)로 이전하고, 중앙직할이던 한성부를 경성부로 개칭하여 경기도에 편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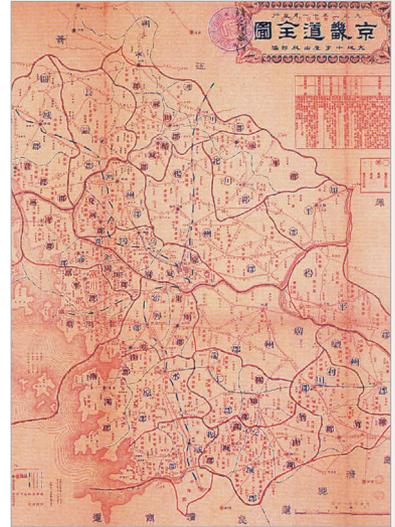
11월 3일 38도선을 경계로 경기도와 황해도를 달리하여 3부 21군 10읍 231면으로 행정구역을 조정하였다. 그리하여 경기도 연천군의 대부분과 가평, 포천, 파주, 장단, 개성, 개풍 등의 일부지역을 북한지역으로 분리하고, 황해도 연백군과 웅진군이 경기도에 편입되었다.

1946년 9월 18일에는 경성부가 서울특별시로 승격하면서 경기도로부터 분리되었으며, 1949년 8월 15일에는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라 인천부, 개성부는 시로 이름이 바뀌었으며, 수원읍이 수원시로 승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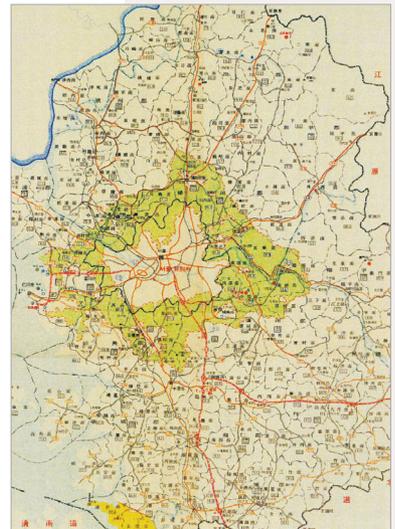
6·25전쟁 이후 1954년 10월 21일, 수복지구임시행정조치법(收復地區臨時行政措置法) 시행으로 연천군 및 포천군의 북부지역은 정식 수복하였으나, 휴전선 이북에 위치한 개성시, 개풍군, 장단군, 웅진군, 연백군의 5개 시·군 중 웅진군의 2개의 면을 제외하고는 되찾지 못하여, 경기도는 2시 19군 8읍 194면을 관할하게 되었다. 1963년 1월 1일에는 양주군 의정부읍이 의정부시로 승격하였고, 1967년 6월 23일 서울특별시에 있던 경기도청이 수원시로 이전하고, 같은 해 7월 1일 의정부시에 경기도 북부출장소를 설치하였으며, 1971년 광주군의 4개면을 중심으로 성남출장소를 설치한 이후 1973년 안양읍이 안양시, 소사읍이 부천시, 성남출장소가 성남시로 각각 승격함으로써 경기도의 행정구역은 6시 18군이 되었다.

1979년 8월 10일 화성군 반월면을 중심으로 시흥군 일부를 합쳐 반월출장소를 설치하였으며, 1980년 4월 1일에는 양주군에서 남양주군을 분리하여 신설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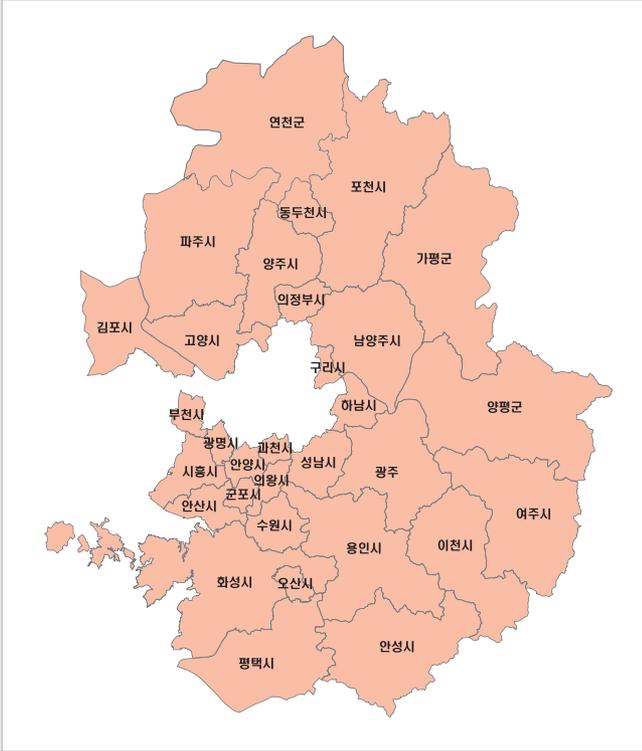
1981년 7월 1일에는 인구증가로 인천시가 직할시로 승격·분리하였으며, 양주군 동두천읍이 동두천시, 평택군 송탄읍이 송탄시, 시흥군 소하읍이 광명시로 각각 승격하였다. 이어 1982년 6월 10일에는 시흥군 과천면에 과천출장소를 설치하고, 1986년에 구리읍, 평택읍, 과천출장소, 반월출장소를 각각 구리시, 평택시, 과천시, 안산시로 승격함으로써 경기도는 12시, 19군을 관할하게 되었다.



| 1914년 경기도 전도 |



| 1975년 경기도 행정지도 |



| 현재의 경기도 행정구역 |

1988년 1월 1일에는 부천시에 남구와 중구를 설치하면서 경기도에서 인천시가 분리한 후 처음으로 경기도에 구(區)가 생겼으며, 같은 해 7월 1일에는 수원시에 장안구와 권선구를 신설하였다.

특히, 1989년 1월 1일에는 남양주시 미금읍을 미금시로, 화성군 오산읍을 오산시로, 시흥군 소래읍, 군자면, 수암면을 시흥시로, 군포읍을 군포시, 의왕읍을 의왕시로, 광주군 동부읍, 서부면, 중부면 성산곡리를 하남시로 하는 등 행정구역을 대폭 개편하였다.

이어 1989년 5월 1일에는 성남시에 수정구와 중원구를 설치하였으며, 1991년 9월 17일 분당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설치하였던 분당출장소를 분당구로, 1992년 2월 1일에는 고양군 전체가 고양시로 승격하면서 경기도 행정구역은 19시 17군이 되었다.

1992년 10월 1일에는 안양시에 설치하였던 만안출장소와 동안출장소를 각각 만안구와 동안구로 승격하고, 1993년 2월 1일 수원시 팔달구를 추가로 설치하였으며, 부천시에도 오정구를 설치하면서 기존의 남구와 중구를 각각 소사구와 원미구로 이름을 바꾸었다.

1995년 1월 1일에는 도농복합형태(都農複合形態)의 시·군 통합을 시작하면서 경기도에서 최초로 미금시와 남양주시를 묶어 남양주시가 들어섰으며, 이어서 1995년 3월 1일에는 김포군 검단면과 강화군 대부면을 제외한 용진군이 인천광역시에 편입하게 되었다. 1995년 5월 10일 송탄시, 평택시, 평택군 등 3개 시·군을 통합하여 평택시를 설치함으로써 경기도는 18시 13군이 되었다.

1996년 3월 1일에는 급격한 도시화가 되어 인구가 늘어난 용인군, 파주군, 이천군을 각각 시로 승격하여 21시 10군이 되었으며, 일산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인구가 크게 늘어난 고양시에 덕양구와 일산구를 설치하여 21시 10군 13구 형태로 변경되었다. 1998년 4월 1일 안성군과 김포군이, 2001년 3월 21일 화성군과 광주군이 각각 도농복합형태의 시로 승격하였다. 2002년 11월 1일에는 안산시에 단원구와 상록구를 설치하고,

2003년 10월 19일 포천군과 양주군이 도농복합시로 승격하였으며, 2003년 11월 24일 수원시 영통구를 설치하면서 경기도는 27시, 4군, 16구로 개편되었다.

또 2005년 4월 8일에는 고양시 일산구를 일산동구와 일산서구로 나누었고, 2005년 10월 31일 용인시에 처인구, 기흥구, 수지구 등 3개 구를 설치하였으며, 2013년 9월 23일 여주군이 도농복합시로 승격하여 28시 3군 20구로 구성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지금까지 행정구역이 개편되는 과정에서의 큰 변화는 일제강점기 경기도에 속했던 서울이 다시 분리되고, 경기도 도청 소재지(所在地)를 서울에서 수원으로 이전한 후, 인천시까지 경기도에서 분리된 점이다.

또한 수도권 지역에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많은 읍 단위가 시로 승격하였다가, 정부가 행정구역 개편을 단행하면서 규모가 작은 시가 다시 인근지역 군과 통합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었으며, 이와 함께 경기도에 있던 강화군과 옹진군이 인천시로 편입한 것 등이 비교적 큰 변화라고 하겠다.

■ 경기도 행정구역 현황 (2013년 12월 31일 현재)

시·군					읍·면·동				출장소*		
계	시	군	(구)		계	읍	면	동	계	시·군	읍·면
			자치	일반							
31	28	3	-	20	550	32	108	410	6	5	1

* 시·군 출장소(5) : 평택(송탄, 안중), 파주(장단), 화성(동부), 남양주(풍양)

* 읍·면 출장소(1) : 남양주 화도읍(동부)

3. 북한지역 내 경기도 행정구역 변천

1945년 광복과 함께 미국, 소련 양군이 각각 남과 북에 군정(軍政)을 실시함에 따라, 경기도는 38선을 기준으로 남북한 지역으로 분할되었다. 이후 6·25전쟁을 겪고 1953년 7월 당시의 군사분계선(軍事分界線)을 기준으로 정전협정(停戰協定)이 체결됨에 따라 현재의 행정구역을 확정하게 되었다.

알아두기 도농복합(都農複合) 형태의 시(市) 도입 배경

1994년 정부가 “지방화, 세계화,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국가는 물론 지방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개정과 함께 도농복합형태의 설치에 관한 법률을 제정 공포함에 따라 등장한 행정구역을 가리킨다. 이것은 생활권과 행정구역을 일치시켜 편리성을 높이고, 한 뿌리였던 시·군을 통합함으로써 지역갈등을 해소하고 주민간의 단결력과 일체감을 증진시키며, 그동안 행정구역의 이원화로 인한 비능률을 최소화 하는데 그 의의가 있었다.

※ 경기도(12) : 용인시, 남양주시, 평택시, 화성시, 파주시, 광주시, 김포시, 이천시, 양주시, 안성시, 포천시, 여주시

1945년 38선 이북 북한군 관할지역으로 변경된 지역은 장단군 5개면, 개풍군 3개면, 연천군 대부분의 지역(11개면)으로, 장단군과 개풍군은 황해도 장풍군으로 통합·변경되고, 연천군은 강원도 지역으로 편입되었다.

휴전협정 이후 6·25전쟁 전 남한지역이었던 개성시, 개풍군, 장단군 일부지역이 북한 관할지역으로 변경되고, 북한 관할지역이었던 연천군의 대부분 지역이 경기도로 환원되었다. 북한내 경기도 지역은 1954년 황해도가 황해남·북도로 분리되면서 종래 경기도 지역인 개성시, 개풍군, 판문군(1952년 신설), 장풍군 지역이 황해북도로 편입되었다.

1955년에는 이들 지역이 황해북도에서 개성직할시로 승격되었다가 2003년 황해북도로 다시 환원되었으며, 2005년에는 개풍군이 개성시로 통합됨에 따라 현재 황해북도 개성시(28동 36리)와 장풍군(1읍 23리)으로 구성되어 있다.

■ 38선 기준 경기도와 6·25전쟁 후 경기도 비교

행정구역명	38선 기준(1949년) 경기도	휴전선 기준(1953년) 경기도
개 성 시	• 17개 동 • 5개 면	⇒ 북한군 관할 지역
장 단 군	- 5개면 38선 이북지역 → 장풍군 통합	⇒ 북한군 관할 지역
개 풍 군	• 11개 면 - 3개면, 38선 이북지역 → 장풍군 통합	⇒ 북한군 관할 지역
연 천 군	• 행정구역 대부분이 38선 이북에 위치 → 북한 강원도 편입 - 적성면 파주군으로, 남면 양주군으로 편입	⇒ 행정구역 수복(8개면)
연 백 군	• 1읍 19면 - 본래 황해도 지역으로 연백군의 38선 이남지역을 경기도로 편입	⇒ 북한군 관할 지역
웅 진 군	• 1읍 12면 - 본래 황해도 지역으로 웅진군의 38선 이남지역을 경기도로 편입	⇒ 행정구역 일부 수복(2개면)



1945년 지도(38선으로 남북분할)
1945년 장단군(5개면), 개풍군(3개면)이 장풍군으로 통합



2005년 현황 |
개성시·판문군 일부를 개성공업지구로 지정(2002년 판문군 폐지)



4. 비무장지대(DMZ) · 한강하구 · 서해상북방한계선(NLL)에 대한 이해

비무장지대(DMZ, Demilitarized Zone)

DMZ는 유엔군 측과 공산군 측(북한군 · 중공군)이 6·25전쟁의 휴전(休戰)에 합의하면서, 남북한 간의 적대적 충돌행위로 인한 전쟁 재발을 막기 위해, 당시 양측의 대치선을 기준으로 만들어 놓은 비무장(非武裝) 완충지대이다.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 전문 제1조에 의거하여, 휴전 당시 유엔군과 공산군 사이의 전투대치선을 기준으로 육지의 군사분계선(MDL)이 설정되고, 군사분계선(MDL)을 기준으로 남북이 각각 2km씩 후퇴하여 비무장지대가 형성되었다.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남방한계선까지의 관할권은 유엔군사령관에게, 북방한계선까지의 관할권은 북한군과 중국군에게 주어졌다.



| 비무장지대 | 연천군 왕징면

경기도 지역의 군사분계선(휴전선)은 파주시 장단면 정동리에서부터 개성 남방의 판문점을 지나 연천군 신서면 도밀리까지 약 86km이며, 강원도 철원 · 김화를 거쳐 동해안 고성군의 명호리까지 이르는 총 249.4km의 길이로 한반도를 가로지르고 있다.

1995년 5월 산림청의 원격탐사(遠隔探査)에 의한 개략 조사결과 비무장지대 총면적은 907.3km²으로, 이는 우리나라 전체면적(22만km²)의 0.45%에 해당되며, 여의도 면적(8.8km²)의 110여 배에 이른다. 이중 경기도가 차지하고 있는 면적은 전체면적의 34.5%인 312.8km² 이고, 나머지 강원도 면적은 65.5%인 594.5km²이다

이 지역 내에서는 군대의 주둔이나 무기의 배치, 군사시설을 설치할 수 없고, 적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사행정이나 구제사업을 위하여 군인이나 민간인이 비무장지대에 들어가려면, 군사정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 결과 비무장지대는 희귀동물(稀貴動物)들의 주요서식지(主要棲息地)가 되었으며, 이를 조사하기 위해 남북한 학술조사단(學術調査團)의 구성을 논의하기도 했다.

민간인 거주지역으로는 남쪽에는 ‘대성동 자유의 마을’, 북쪽에는 ‘평화촌’이 있는데, 이는 1953년 8월의 ‘민간인의 비무장지대 출입에 관한 쌍방 간의 협의’에 의하여 설치되었다.

**한강하구 관련
정전협정 제1조 5항**

“한강하구의 수역으로서 그 한 쪽 강안이 일방의 통제하에 있고 그 다른 한쪽 강안이 다른 일방의 통제하에 있는 곳은 쌍방의 민용선박의 항행에 이를 개방한다. 첨부한 지도에 표시한 부분의 한강하구의 항행규칙은 군사정전위원회가 이를 규정한다. 각방 민용선박이 항행함에 있어서 자기측의 군사 통제 하에 있는 육지에 배를 대는 것은 제한받지 않는다”

한강하구(Han River Estuary)

1953년 체결된 정전협정문에 ‘한강하구’ 라고 표현된 곳은 육지의 비무장지대가 끝나는 파주시 장단면의 사천강 하류와 문산 곡릉천으로부터 강화의 끝섬인 말도까지이다. 본래 이 부분에 대한 지명은 한강하구가 아니라 조상 조(祖)를 써서 ‘조강(祖江)’ 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명칭이 정전협정 문안작성 과정에서 ‘한강하구’로 표기되고, 또 정전협정 이후로 이곳은 군사지역화 되어 이용이 제한되면서 한강하구로 통칭된다.(정전시 교전규칙[2006. 4.29] 1조 9항)

한강하구는 대한민국과 북한간의 정전경계선(停戰境界線) 역할을 하고 있는 비무장지역으로, 경계선은 만조(滿潮)시의 육지와 수면간의 접촉선이다. 유엔사의 민정경찰권(民政警察權)은 북쪽 경계선으로부터 남쪽 100m 내에는 미치지 않고,

북한의 민정경찰권은 한강하구 남쪽경계선으로부터 북쪽 100m 내에는 미치지 않는다.

한강하구는 정전협정에서 ‘쌍방의 민용선박(民用船舶)의 항행(航行)에 이를 개방’ 하게 되어 있다. 또한 여기서 ‘민용선박’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지만, 1953년 10월 3일 군사정전위 제22차 본회의에서 합의된 정전협정 후속합의서, 즉 한강하구에서의 민용선박 항행에 관한 규칙 및 관계사항 4항에서는 ‘민간인’으로 그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정전협정의 민간인에 대한 허용에도 불구하고 한강하구는 사실상 출입이 금지되어 있었다. 한강하구가 50년 이상 군사지역화 되어 함부로 드나들 수 없었던 곳으로 있다가 그 첫 모습을 드러낸 것은 바로 노태우 정부의 ‘평화시’ 제안과



| 비무장지대, 한강하구, 북방한계선 | (GRI 통일·동북아연구센터)

알아두기 한강하구 개발에 대한 경기도의 의지

경기도에서는 한강하구 중립지역의 골재채취사업 추진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한강하구(중립지역) 골재채취사업은 한강하류에서 서해안 입구 약 300km²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 한강 및 임진강 하구 골재 준설시 한강·임진강 홍수위가 약 1m이상 저하되는 등 남북 홍수예방에도 매우 큰 효과가 예상 된다”며 한강하구 골재 준설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한강하구 공동개발을 위한 남북 협의시 경기도의 참여를 건의한 바 있다.

함께 기획된 ‘자유로’ 건설공사 때문이었다. 1991년 이 공사를 위하여 한진해운 소속 바지선이 분단 50년 만에 처음으로 한강하구를 통과하였다.

정전협정 후속합의서인 한강하구에서의 민용선박 항행에 관한 규칙 및 관계사항 6번째에 있는 ‘민간에게 오랫동안 관습적으로 사용하여 온 한강하구 수역 내에 성문화되지 않은 항행 규칙과 습관은 정전협정의 각 항 규정과 본 규칙에 저촉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쌍방 선박이 이를 존중한다’는 것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한강하구에서의 어느 정도의 민간 활동은 가능하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서해상 북방한계선(NLL, Northern Limit Line)

NLL은 1953년 8월 30일 유엔군사령관이 설정한 이후 오늘날까지 남북한이 각각 해상관할권(海上管轄權)을 행사하는 경계선이다. 1991년 남북한이 체결한 남북기본합의서에 ‘남과 북의 해상불가침(海上不可侵) 경계선은 앞으로 계속 협의하기로 한다. 해상불가침구역은 해상 불가침 경계선이 확정될 때까지 쌍방이 지금까지 관할해온 구역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정전협정 제2조 13항에서 서해도서에 관한 규정은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우도 등 국제연합군 사령관 군사통제하에 남겨두는 도서군(島嶼群)을 제외한 기타 모든 섬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의 군사통제하에 둔다. 한국 서해안에 있어서 상기 경계선 이남에 있는 모든 섬들은 국제연합군의 군사통제하에 남겨둔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NLL은 정전협정 당시 유엔군은 남포 앞의 섬과 원산 앞의 섬, 그리고 황해도 연안의 섬까지 해상권을 장악하고 있었으나, 북한의 연안 해상활동을 위해 유엔사에서 북한에 양보하여 설정한 선이다.



1. 인구 및 공무원 수

경기도의 인구는 201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1,255만 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24.1%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구밀도는 1,234명/km², 서울시 인구 1,039만 명 보다 216만 명, 제주·울산·광주·대전·충북·강원·전북 등 7개 시도의 전체인구 987만 명 보다 268만 명이 많다.

연도별 인구증가는 1961년의 272만여 명에서 1970년 329만여 명, 1980년 493만여 명이 되었다. 1981년에는 인천시가 직할시로 승격·분리됨에 따라 1981년에는 396만 명으로 감소했으나, 1990년에는 615만여 명, 1996년에는 778만여 명, 2013년 12월 31일 현재 1,255만 명에 이르렀다.

인구증가의 요인은 1970년대 중반부터 서울에 인접한 성남·안양·부천·수원 등 위성도시(衛星都市)의 인구 유입이며, 1980년대 말 만성적 주택 부족으로 인한 부동산(不動產) 가격 폭등을 해결하기 위해 성남(분당)·고양(일산)·안양(평촌)·부천(중동)·군포(산본) 등의 수도권(首都圈) 신도시(新都市)에 대규모 주택단지를 개발한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

시·군별 인구규모는 수원시가 1,178,509명(9.4%), 고양시 1,001,942명(8.0%), 성남시 995,349명(7.9%)의 순서로 나타났고, 전년도 대비 증가율은 김포시가 8.8%(26,424명)로 가장 많이 증가하였으며, 광주시가 4.1%(11,621명), 의왕시 3.2%(5,020명), 남양주시 3.1%(18,879명) 순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등록수는 314,715명으로 2012년 288,251명 보다 26,464명(9.2%) 증가하였고, 서울시 외국인 등록수(244,410명)보다 70,305명이 많으며, 국적별로는 중국이 169,963명(54%)으로 가장 많고, 베트남 27,688명(8.8%), 타이 13,700명(4.4%), 필리핀 13,505명(4.3%), 캄보디아 11,627명(3.7%) 등으로 나타났다.

■ 주민등록 인구현황 (2013년 12월 31일 기준)

구 분	합 계 (명)	한 국 인	외 국 인
전 국	52,127,386	51,141,463	985,923
경기·서울·인천 합계	25,867,564 (전국의 49.6%)	25,258,057	609,507
경 기 도	12,549,345	12,234,630	314,715
서울특별시	10,388,055	10,143,645	244,410
인천광역시	2,930,164	2,879,782	50,382

※ 자료 : 주민등록인구(안전행정부)+외국인등록인구(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시·군별 외국인 등록수는 안산시가 49,249명으로 가장 많고, 수원시 30,352명, 화성시 27,877명의 순서이다.

2014년 1월1일 기준 도 및 시·군 공무원 수는 46,387명이고 이중 도 공무원은 소방직 6,397명을 포함한 9,802명이며 시·군 공무원은 36,585명이다. 도 일반직 공무원 1인당 주민수는 3,596명으로 전국 1,040명(서울 972명)의 3.5배에 달하며 소방직 공무원 공무원 1인당 주민수는 1,914명(서울 1,560명)으로 전국 평균 1,317명보다 많은 주민을 담당하고 있다. 도내 31개 시·군 공무원 1인당 주민수는 전국 평균 251명보다 84명 많은 335명이다. 경기도 공무원은 공무원 1인당 주민 수 전국 최고, 예산총액대비 총액인건비율 전국 최저로 전국에서 가장 적은 인력으로 인구가 가장 많은 행정수요를 감당하며 광역행정을 수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재의 경기도 조직

3부지사(행정2, 경제1) 실·국 본부(4실 2본부 13국), 실·과·담당관(2실 5관 29담당관 73과 5단), 직속기관(3원 1소방학교 34소방서), 사업소 12, 의회(5담당관, 12전문위원실)

2. 위치와 면적

경기도는 동북아시아에 길게 뻗은 한반도의 서부중앙지역으로서 동경 126°와 127°, 북위 36°와 38° 사이에 위치해 있다. 경기도의 면적은 전국토의 10.2%인 10,172km²이며, 전국 17개 시·도 중 5번째이며, 서울(605.2km²)의 17배 규모이며, 서울시 면적보다 큰 시·군은 7개 시·군(화성, 파주, 포천, 여주, 양평, 가평, 연천)이며, 최대면적 시·군은 양평군(877.8km²)이며, 최소면적 시·군은 구리시(33.3km²)이다. 총 면적 중 수도권정비권역(首都圈整備圈域)은 100%, 군사시설보

호구역(軍事施設保護區域) 23.2%, 팔당상수원특별대책지역(八堂上水源特別對策地域) 제한구역 21.6%, 개발제한구역(開發制限區域) 11.6%를 차지하고 있어 많은 규제를 받고 있다. 북쪽으로는 86km의 휴전선에, 서쪽으로는 413km의 해안선에 접해 있으며 동쪽으로는 강원도, 남쪽으로는 충청남·북도와 인접해 있고 그 중앙에는 서울이 위치하고 있다. 또한 동쪽에서 서쪽으로 흐르는 한강에 의해 남·북으로 나뉘어져 한강 이북은 산간지역(山間地域)이, 한강 이남지역에는 평야지대(平野地帶)가 펼쳐져 있다.



| 경기도 행정구역도 |

■ 경도와 위도의 극점

도	청	단	지 명	극 점	연락거리(km)
동경	127° 0'	동단	양평군 청운면 도원리	동경 127° 51'	동서간 130.0
		서단	안산시 단원구 풍도동 풍도	동경 126° 22'	
북위	37° 16'	남단	안성시 서운면 청룡리	북위 36° 53'	남북간 155.4
		북단	연천군 신서면 도밀리	북위 38° 17'	



3. 재정 규모

예산규모는 2014년 당초예산 기준(총계) 40조 2,961억 원(도 15조 9,906억 원, 시·군 24조 3,055억 원)으로 2013년 대비 1조 6,551억 원(도 4,230억 원, 시·군 1조 2,321억 원) 증가하였다. 2014년도 국가예산은 총수입 369.3조원, 총지출 355.8조원(일반 201.6조, 특별 49.2조, 기금 105조) 수준이다.

도 가용재원은 4,798억 원으로 13년 8,137억 원 대비 3,339억 원 감소하였으며 복지예산은 5조 5,267억 원으로 전체예산대비 34.6%로 13년 31.7%보다 2.9% 증가하였다. 복지예산은 최근 3년간 1조 9천억 원(순수 도비 4천억 원 증가) 증가하였으며, 12년(25.5%) 대비 9.1% 증가하였다.

도 내 시·군 중 최고는 성남시로서 2조 2,310억 원이며, 최저는 과천시로 1,942억 원이다. 재정자립도(財政自立度)는 도가 48.7%, 시·군 평균은 43.6%수준이며 재정자주도(財政自主度)는 도 51.0%, 시·군 평균은 64.0% 수준이다.



4. 경기도의회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 1949년 7월 4일 지방자치법(地方自治法)이 제정·공포되었으나 정치의 불안정과 6·25전쟁으로 지방의회를 구성하지 못하다가 1952년 5월 10일 최초의 시·도의원총선거를 실시하고 지방의회(地方議會)를 구성하였다. 당시 접전지역인 경기도를 비롯한 강원도와 서울특별시는 실시되지 못하여, 타 시·도는 현재 9대인데 비해, 경기도·서울시·강원도는 8대 의회이다.

■ 초대 지방의회 구성현황 (1952년)

구분	계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경기	서울	강원
인원	320명	28	46	46	59	61	60	20	전쟁으로 미구성		

알아두기

2014년 경기도의 재정규모는?

- 예산규모 : 15조 9,906억 원(일반회계 12조 9,292억 원, 특별회계 3조 614억 원)
- 주요 기능별 예산비중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기준)
 일반공공행정 20.65%, 공공질서및안전 0.94%, 교육 14.09%, 문화및관광 1.54%, 환경보호 4.57%, 사회복지 38.06%, 보건 1.41%, 농림해양수산 2.85%, 산업·중소기업 0.47%, 수송및교통 6.09%, 국토및지역개발 3.03%, 과학기술 0.23%, 예비비 0.82% 기타 5.23%



| 경기도 초대 의회(1956) |

초대 경기도의회(京畿道議會)는 1956년 8월 13일 19개 시·군 45개 선거구에서 45명의 의원이 선출되어 1956년 9월 3일 개원(開院)하였다. 제2대 경기도의회는 1960년 12월 12일 19개 시·군 46개 선거구에서 46명의 의원이 선출되어 1960년 12월 22일 개원되었으나 1961년 5월 16일 공포된 정부포고령 제4호에 의거 해산되었다. 제3대 경기도의회는 제2대 경기도의회가 해산된 이래

만 30년이 지난 1991년 6월 20일 36개 시·군 117개 선거구에서 117명의 의원이 선출되어 1991년 7월 8일 개원되었다.

■ 초대 경기도의회 구성현황 (1956년)

구분	계	인천	수원	고양	광주	양주	포천	가평	양평	여주	이천	용인	안성	평택	화성	시흥	부천	김포	강화	파주
인원	45	6	2	1	2	4	3	1	2	2	2	2	2	2	4	2	2	2	2	2



| 현 경기도의회 의사당 전경 |

현 제8대 의회는 2010년 6월 2일 31개 시·군 112개 선거구에서 지역의원 112명이 선출되고, 정당의 득표비율(得票比率)에 따라 선출한 비례대표(比例代表) 12명을 포함한 124명과 교육의원 7명 등 총 131명으로 구성되었으며, 2010년 7월 13일 개원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무보수 명예직이었던 지난 6대까지의 의회와 달리 7대 이후 유급제를 시행하고 있다.

의회 회기(會期)는 정례회(定例會)와 임시회(臨時會)로 운영되며 정례회는 년 2회(7월, 11월) 회기는 65일 이내이고 임시회는 도지사 또는 재적의원 1/3 이상의 요구로 소집하며 매회기는 20일 이내이다. 연간 회의일수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쳐 140일 이내에서 결정한다. 주요 기능으로는 도와 도교육청 행정사무(行政事務) 감사, 예산안(豫算案)과 결산(決算) 심사, 도정질문, 조례안(條例案) 등 기타 안건을 심의하고 처리하는 일을 한다.

경기도의회의 구성

- 기구 : 의장 1, 부의장 2, 상임위원회 11, 특별위원회 1
- 사무처장 1, 담당관 5, 수석전문위원 12, 정원 182



1. 역사 · 문화의 중심지

경기도는 지리적으로 한반도 중앙에 위치하며, 해로와 육로를 이용하여 국토의 남부와 북부를 쉽게 연결할 뿐만 아니라 비옥한 토지와 온화한 기후로 일찍부터 우리 역사의 중심무대가 되었다. 특히, 한강(漢江)과 임진강(臨津江) 등을 끼고 있어 농사짓기가 편리할 뿐만 아니라 교통이 편리하여 선사시대(先史時代)부터 사람이 모여 살았다.

경기도가 정치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 것은 기원전 1세기 무렵 백제가 하남위례성(河南慰禮城)에 도읍하면서부터였다. 한강유역은 고구려 · 백제 · 신라의 삼국 경계지역이었으므로, 이곳을 차지하는 국가가 역사의 주도권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처음 경기도에 정착한 국가는 백제(百濟)였다.

백제는 서해 연안을 따라 소금 산지를 독점하고 중국과의 교통로까지 장악하여, 마한 등 여러 나라들이 개별적으로 누리고 있던 중국과의 교역창구를 독점하게 되었다. 이어 소금을 자체 조달할 수 없었던 중부 내륙지역을 장악하며 한강유역을 중심으로 한 지역연맹체(地域聯盟體)의 맹주가 되었다. 백제는 한강유역을 중심으로 오늘날의 호남지역까지 그 세력을 확대하고 한때 고구려의 평양성까지 공격하는 등 위세를 떨쳤으나 한강유역에서 물러나면서 국세가 위축되기 시작하였다.

5세기 무렵 고구려(高句麗)는 전성기를 맞아 한강유역에 손을 뻗었으며, 이후 삼국이 한강유역에 대한 지배권을 놓고 치열한 쟁탈전을 벌였다. 6세기 중반에 이르러 진흥왕 때 신라(新羅)가 이 지역을 차지하고, 그 기반 위에서 결국 삼국을 통일하였다. 신라는 지리적으로 고구려나 백제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독자적으로 중국과 통교할 수 없었고, 따라서 한강유역의 확보가 중국과의 직항로를 얻기 위한 국가적 과제가 되었다. 7세기 초반 무렵부터 신

초기백제

백제는 고구려 주몽의 아들로 알려진 온조가 남하하여 한강유역의 하남위례성에 정착한 후 마한 소국의 하나로 발전하였다.



| 백제 전성기(4세기) 세력범위 | 국사교과서

라는 이 지역에 한산주(漢山州)를 설치하여 관할하였으며 이어 8세기부터는 예성강(禮成江) 이북지역의 영토를 개발하는 전초기지로 이용하였다.

통일신라말의 혼란으로 신라의 지배체제가 한계를 드러내자 후삼국(後三國)이 건립되어 각축을 벌이기 시작하였다. 결국 궁예 휘하에 있던 송악지방 출신 왕건(王建)이 해상세력을 바탕으로 918년 고려(高麗)를 건국하였다. 신라말 권력에서 소외되었던 경기도 지역 지방세력(호족)들은 왕건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다.

고려왕조는 각 지방세력의 타협 속에서 점차 중앙집권체제를 수립하였으며, 그것을 이끌어간 중심세력은 바로 근기(近畿)지역 출신들이었다.

고려의 '경기'는 천자나 국왕의 근거지·직할지를 뜻하는 왕기의 전통을 이은 것이다. 태조 이래 개경과 그 주변은 왕실의 기반지로서, 또 국왕과 왕실을 보위하는 관료 등 지배층들을 물질적으로 지원하는 곳이었다. 고려가 본격적으로 중국의 경기제를 수용한 것은 국왕 중심의 질서의식이 반영된 통치제도로 만들기 위함이었다. 왕도의 특별구역으로 간주된 고려의 경기는 고려말에 가서야 일반 행정구역이 되었다.

고려시대에는 '경기는 사방의 근본' 이요 '왕의 교화가 우선하는 곳'이라는 등의 말과 함께 자주 세금을 감면한다든가 구휼(救恤)과 같은 구제활동이 빈번했다. 이는 여타의 지방과는 다른 대우를 한다는 측면도 있었지만 경기가 개경과 가까운 지역이었기 때문에 개경에서 벌어지는 각종 공사나 잡역에 동원되는 대가와 그들의 불만을 잠재우려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고려시대 경기도 지역은 우리 민족의 역사와 문화가 구심력 있고 통일적 모습을 갖추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해왔다. 곧 고려는 초기 호족들을 포섭하면서 분립성을 극복하고 통합을 이끌어낸 문화였다.

조선시대(朝鮮時代)에 이르러 경기도는 8도 체제 아래 국왕과 중앙정부가 있는 수도 주위의 근기지역으로 편제되었다. 따라서 중앙정부와 가깝다는 지리적 이점으로 지방 향리나 토호들에 의한 폐단이 적었다. 조선초기 대부분의 사족들은 중앙관료로 출세하고자 하는 지향이 강하여 지방의 서원이나 향교를 근거로 하여 향촌에 머물려고 하지 않았다.

경기도는 도성인 한양을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국왕의 행차와 중앙 관료들의 출입이 잦았고, 왕실이나 중앙관료들의 무덤이 많아 다른 지역보다 역(役)이 많은 편이었다. 그리고 토지 대부분은 과전법(科田法)에 의해 개인 및 특정기관에게 지급되어 경기도 농민들은 여러 가지 불리한 조건에 처해 있었다. 또한 수도를 둘러싸고 있으므로 외적의 침입에 대비한 관방시설이 많았다. 특히 임진왜란

관방(關防)

국경 또는 변방의 방비를 위하여 설치한 요새

과 병자호란을 겪은 후 당시 임금과 신하들은 피난을 경험한 바 있어 한양 주변의 성곽에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축성 등에 많은 인력을 투입했다.

17세기 이후 농업생산력의 발전에 따라 경기도에는 도시근교의 상업적 농업과 수공업이 활성화되었다. 농업과 수공업에서의 상품생산의 활성화는 농촌장시(農村場市)와 포구시장(浦口市場)을 확대 발전시키는 중요한 토대가 되었다. 18세기 중엽에 이르면 경기도내에 101개 시장이 개설되었는데 전국에서 손꼽히는 15개 장시 중 4개(광주의 사평장·송파장, 안성의 읍내장, 교하의 공릉장)가 경기도 지역에 있었다. 또한 포구시장도 한강을 중심으로 발달하였다.

광주 일대는 조선시대 초기부터 사옹원의 분원에서 각종 도자기들을 제작한 곳으로 유명하였다. 또한 조선후기 가장 앞서간 사상적, 기술적 업적이라는 정조대의 화성(華城) 성곽 축조는 조선시대 최대의 건설 공사였다.

조선 영조 때의 이중환(李重煥)은 『택리지(擇里志)』에서 경기도를 “3백 년 동안이나 명성과 문화의 중심 지역이 되어 유풍(儒風)이 크게 떨치고, 학자가 무리 지어 나왔으니 엄연한 하나의 작은 중화(中華)였다”라며, 우리나라 학문의 중심지였다고 평가하였다.

16세기 이후 기호학파는 주로 경기지방의 사림을 중심으로 충청 사림(士林)들이 가세한 가운데 형성되었다. 또한, 18세기 주자학(朱子學)을 극복하려는 양명학 연구가 정제두에 의해 안산(安山)에서, 조선후기의 새로운 학풍으로 특징짓는 실학(實學)은 서울 주변을 둘러싼 안산·수원·광주·남양주 등지에서 발달하였다. 안산의 이익, 광주의 안정복, 남양주의 정약용 등 근기지방을 중심으로 학문 경향을 같이하는 유파가 형성되었으며, 조선후기 사상계를 주도하는 위치에서 우리나라 문화사의 발전을 이끌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19세기 제국주의 세력의 등장 이후 수도와 가장 가까웠던 경기만은 침략의 길목이 되었다. 프랑스와 미국의 침략으로 병인·신미양요가 일어났으며, 이어 일본도 무력시위를 벌인 끝에 1876년 조일수호조규(朝日修好條規)가 체결되었다. 이 조약으로 인천을 개항하였으며 커다란 상품판매 시장인 경기도는 일제가 일찌감치 상권을 차지하는 곳이 되었다.

외세의 침략에 대한 저항은 의병전쟁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의병부대는 단발령



조선관요박물관 | 광주시 실촌면 삼리

기호학파(畿湖學派)

조선시대에, 선조 이후 율곡 이이를 조종(祖宗)으로 하는 주기적(主氣的) 경향의 성리학의 학파. 조헌·김상헌·김장생·송시열·권상하·김창집 등 기호 지방에 살던 서인(西人)들로 이루어졌으며, 이황의 영남학파와 쌍벽을 이루었다.



콜로라도호 | 1871년 신미양요 때 강화도에 침입한 군함

(斷髮令) 공포 직후 최초로 결성된 이천수창의소(利川首倡義所)이다. 이천의병들은 관군과 치열한 전투를 벌인 끝에 첫 전투에서 승리하였으나 결국은 실패하고 말았다.

일제강점 후 무단식민통치에 고통 받고 있던 우리 민족의 불만은 고조되었고 3·1운동에서 폭발적으로 표출되었다. 경기도에서는 1919년 3~4월에 걸쳐 총 283회의 만세시위가 발생하였고 참가인원도 17만여 명에 달하였다.

일제강점기의 경기도는 인구가 많아 소비재의 판매시장이 확대되고, 노동력 공급이 수월하여 경인공업지대가 형

성되었다. 특히 1930년대 후반부터 전시체제로 나아감에 따라 경기도 지역에 공장, 사업소가 집중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살펴본 바와 같이 경기도 역사는 서울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전개되었고, 지리적 변천도 이와 직결되어 이루어졌다. 경기도는 도성에 거주하는 관료들의 생활근거지가 되어 여러 면에서 불이익을 입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서울로 인하여 상업과 수공업이 크게 발전할 수 있었고, 권력에서 소외된 비판적 지식인들에 의해 새로운 학문이 발전하였다.

16세기 이후 성리학계를 주도한 율곡학과(栗谷學派)가 경기도에서 성립 발전하였으며, 보수적인 성리학의 학문체계를 비판하는 양명학, 이익과 정약용으로 이어지는 경세치용(經世致用)학과, 그리고 서양의 과학기술과 사상체계를 뜻하는 서학(西學)까지 발전하였다. 이처럼 경기도에서 다양한 유파의 다양한 학문이 상호 비판하며 발전하였다는 것은 매우 이색적이다.

양명학(陽明學)

중국 명나라의 양명 왕수인(王守仁)이 주창한 유가철학(儒家哲學)의 한 학파. 모든 사람들은 평등하다는 사상 등을 내세워 유교 이념이 지배적인 중국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지식기반 제조업

전자정보기기, 반도체, 메카트로닉스, 정밀화학, 생물산업, 정밀기기, 신소재, 환경, 항공, 우주산업을 포함함(경기개발연구원)



2. 경제의 중심지

경기도는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해 왔으며 첨단 산업의 중심으로서 미래 성장의 동력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 총 사업체의 20.8%(72만개), 경제활동인구의 23.9%(617만명)를 보유한 경기도는 생산, 수출 및 고용 측면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2012년 기준, 경기도의 지역내총생산(GRDP)은 250.9조원(2,226.1억달러)으로 전국 대비 20.8% 비중을 차지하며, 전년 동기 대비 1.5%의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특히 경기도 광업 및 제조업 비중은 전국의 23%로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를 다른 나라 GDP와 비교해 보면 세계 184개국 중 46위에 해당되며 포르투갈, 아일랜드의 GDP수준과 비슷한 규모이다. 2013년 기준 경기도 무역규모는 전국의 17.2%인 2,041억달러로 세계 35위인 헝가리(1,990억달러)와 비슷한 수준이며, 수출규모는 전국의 18.2%인 1,020억달러로 헝가리(1,051억달러), 남아프리카공화국(1,012억달러)과 비슷한 수출 규모이다. 주요 수출 품목으로는 반도체(195.9억달러), 무선통신기기(116.2억달러), 자동차(113.2억달러), 평판디스플레이(42.7억달러)이며, 이들 4개 품목이 경기도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5.9%(467.9억달러)에 달한다. 고용면에서는 취업박람회, 일자리버스 주말 운행, 취업상담사 확대 배치 등을 통해 '13년에 11만명 이상을 취업지원하는 성과를 달성해 '12년 대비 25.6% 이상 증가하였다. 최근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道 지역경제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전국 최초로 노사민정대타협을 선언하며 고용률 70%달성을 위해 모두 한목소리를 냈으며 고용 인프라의 혁신을 위해 다양한 정책 발굴과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고용과 복지 서비스의 통합을 이뤄낸 고용복지종합센터 확대 설치, 산업단지고용환경개선과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을 통한 고용환경개선 사업 등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이런 경기도의 노력으로 2013년 말 기준 취업자수 598.8

만명으로 전년대비 6.5만명의 취업자수 증가를 하였고 고용률은 60.0%로 전년대비 0.5%가 증가하였다. 경기도에는 글로벌 IT, LCD, 반도체, 자동차 등 첨단기업의 생산공장 및 연구소 등이 소재하고 있는데 총투자규모 12조원의 파주디스플레이 클러스터는 세계 대형 LCD패널의 25%를 생산하고 있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전국의 45%의 기업체가 도내에 소재하고 있고, 전국의 70%를 생산하고 있으며, 자동차분야에서도 화성시와 광명시에 소재한 기아자동차와 평택시에 소재한 쌍용자동차가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을 이끌어가고 있다. 아울러 경기도는 세계적인



| 기업투자 MOU 체결식(2013년 7월 18일) | 일본 덴소사와 투자협약 체결



| 판교테크노밸리 조감도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소재



| 판교테크노밸리 조감도(2015년 완공예정) | 경기도 성남시 판교신도시 택지개발사업 지구 내 조성



| 반월국가산업단지의 야경 |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국가산업단지이다.



| 평택항 | 동북아시아 물류 허브, 한양해권의 중심항만으로 부상하고 있다.

첨단지식산업지역으로서 전국의 IT 관련 산업체 중 37.9% 및 인력의 43.2%, BT관련 산업체의 48.7%, NT연구기관과 인력의 64%가 모인 첨단산업지역이다. 경기도는 미래 고부가가치의 원천인 IT·BT·NT 등의 산업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R&D개발에 집중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광고 테크노밸리를 조성하여 첨단산업을 위한 한국나노기술원, 경기바이오센터 경기R&DB센터,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등을 설립하였고, 2015년까지 첨단 R&D의 메카가 될 판교테크노밸리를 66만㎡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안산·시흥을 중심으로 경기테크노파크,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 8개 기관이 위치한 안산사이언스밸리(ASV)도 중소기업 기술혁신 기관으로서 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도 예산중 R&D 관련 투자 예산은 2002년에 943억 원이었으나, 2012년에는 1,223억 원을 투자하였다. 특히, 2008년부터 2013년까지 도내 중소기업의 현장중심 기술개발을 위한 경기도 기술개발사업에 438개의 신규과제를 발굴해 도비 910억원을 지원하여 매출 1,924억원 증가, 신규일자리 1,526명 창출,

465건의 특허출원(등록 149건) 등의 성과를 이루었다. 또한, 기업의 기술경쟁력 및 연구 역량강화를 위해 산·학·연의 공동기술개발 거점으로 12개 지역협력연구센터(GRRC)와 5개 지역혁신센터(RIC) 등을 지정하여 2013년까지 2,299개 중소기업의 참여로 1,219건의 특허출원(등록 561건), 823건의 제품개발 및 856건의 기술이전 등의 성과를 이루었다. 2009년부터는 전국 최초로 중소기업의 시급한 애로사항을 전문가가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해결해 주는 기술닥터 사업을 통해 2013년까지 2,789건의 기업지원을 하여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로 제품개발, 매출증대 등의 성과를 이루었다. 또한 외국인 투자에 있어서는 외국인 전용 임대단지 8개소(239만㎡), 평택항, 국제규모의 전시장인 KINTEX 및 첨단 연구 인력 등의 인프라를 갖추고 한국·중국·일본과 같은 거대 시장을 배후로 둔 매력적인 투자처이다.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하여 민간전문가를 적극 활용하고 다각적인 투자환경 홍보를 통하여 최근 3년 동안 64억 달러의 외국인 직접투자(FDI)가 이

루어지는 성과를 거두었다.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를 만들기 위하여 자금, 기술, 디자인, 판로개척 지원, 규제 개선, 행정절차 간소화 등 기업이 원하는 것을 찾아 해결해 주는 신속한 행정지원 서비스를 하고 있다.

경기도는 주택, 공장, 도로용지 등 도시화가 확대되면서 농경지가 크게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넓은 평야와 경사가 완만한 구릉지가 넓게 펼쳐져 있는 농업지역이다. 경기도의 농산물은 2천5백만 수도권 주민의 먹을거리로 제공되고 있으며, 주민소득 증대와 웰빙(Well-being) 문화의 확산으로 경기도의 팔당댐 위의 남양주와 양평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親環境農産物)은 인기가 높다.

평택·안성·파주·여주·이천 등지에 생산되는 쌀은 고품질 경기미로 수도권은 물론 전국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어 전라미, 경상미, 충청미 등의 평균가격보다 약 10%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 축산업은 2012년 12월 기준, 축산물 생산액 2조 6,304억원으로 전국 축산업생산액 14조 9,909억원의 18%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다. 이는 수도권을 대소비 시장으로 삼아 낙농·양계·양돈업이 도시 주변지역에 많이 입지한 결과이며 낙농, 양계분야 축산업 생산량은 2012년 기준 전국 1위이다. 2013년 말 젓소의 사육두수는 16만 5,298마리로 전국의 39%를 차지하며, 우유생산량과 함께 제 1위이다.

젓소 사육은 화성·이천·용인·양주 등지에서 주로 이뤄진다.

양계는 3,287만여 마리의 닭을 사육하여 전국 생산량의 22%를 차지한다. 양돈은 180만여마리의 돼지를 사육하여 전국의 18%를 점하고 있다. 이와 같이 축산업 발전을 선도하는 경기도의 축산물생산량은 전국 대비, 육류 19%, 우유 40%, 계란 21%를 생산하는 등 전국 축산물 생산량의 4분의 1정도를 차지하는 수도권의 축산물 공급기지 역할을 하고 있다.

■ 가축사육 능가 및 사육두수 (농림부, 『가축통계』, 2013년)

구 분	경 기 도		전 국		대비(A/B)
	호 수	두 수 (A)	호 수	두 수 (B)	
한육우	7,922	279,662	124,218	2,917,929	9.6%
젓 소	2,375	165,298	5,830	424,202	39%
돼 지	974	1,803,257	5,636	9,912,204	18.2%
닭(천수)	646	32,896	3,087	151,337	21.7%



1. 경기도 신도시개발 현황과 과제

개요

영국의 ‘새로운 지역공동체’ 건설로부터 시작된 신도시(新都市) 개념은 산업혁명(産業革命)으로 비롯된 도시문제를 해결하고자 출현 하였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1960년대 초반 국토개발 목적의 공업단지 배후 도시(울산, 구미 등) 건설이나 서울의 과밀문제(過密問題) 해결 목적의 신도시(성남)를 건설하면서 시작되었다. 이는 ‘국토 및 지역개발과 대도시 문제해결’의 두 가지 정책목표를 위해 추진하였다. 경기도의 신도시개발은 지역개발의 목적이라기보다는 주로 서울의 주택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1989~90년 주택 200만호 건설의 일환으로 분당, 일산, 산본, 중동, 평촌 5개 신도시를 건설하면서 본격화 하였다. 그러나 대규모의 신도시를 한꺼번에 건설함으로써 자재 부족과 자재값 폭등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1990년대에는 소규모의 분산적 택지개발과 준농림지(準農林地) 개발이 이루어졌다. 용인 동천·신봉·구성·신갈·보라지구 등이 대표적 사례로 인접한 기존도시기반시설에 편승하여 추진되었다. 주로 경부축(京釜軸)을 중심으로 수도권 남부지역에 집중되었으며 포도송이처럼 개발하여 교통·환경·교육 등 복합적인 문제가 발생하였다.

개발방식도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舊)토지공사, (舊)주택공사 중심의 공공개발

알아두기

신도시 개발방식

- 택지개발촉진법(1980)에 의한 공공개발 방식
 - 한국토지주택공사(舊토지공사·주택공사)와 지자체가 주체가 되어 시행
- 도시개발법(2000)에 의한 합동개발 방식
 - 공공부문, 토지소유자, 조합·민간기업 및 법인 등의 민간부문 합동 시행
- 주택법(1972)에 의한 민간개발 방식
 - 민간 주택건설업자가 시행하는 대지조성사업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1990)에 의한 개발방식
 - 토지공사와 지자체의 산업단지 및 공유수면 매립을 통한 단지개발(수자원공사)

(公共開發) 방식으로 추진됨으로써 대부분의 개발이익이 도로, 환경기초시설 등 사회기반시설 확충에 투자되지 못하고, 사업시행자인 (舊)토지공사, (舊)주택공사에게 귀속 되는 문제를 노출했다. 또한, 이러한 서울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 경기도에 추진된 신도시정책은 인구과밀 억제와 국토 균형발전 명목으로 시행하고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과는 모순된 것으로, 대규모 아파트 건설사업은 수도권정비계획 법 상의 인구집중유발(人口集中誘發)시설에 포함되지 않아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여 왔다.



| 신도시 건설(과천) |

주요 문제점

① 택지개발에 의한 경기도의 인구집중 가속화

경기도의 신도시개발은 서울의 주택가격 안정을 목적으로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 고층아파트 위주로 공급하여 왔으며 인구집중 가속화(加速化)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 수도권 인구가 1995년 20,189천명에서 2013년 25,867천명으로 5,678천 명이 증가하였으나 거의 대부분의 인구가 경기도에 유입됨으로서 신도시 건설이 새로운 신도시의 건설을 초래하는 신도시의 악순환(惡循環)이 이루어져 왔다. 이는 정부의 수도권 집중억제를 위한 수도권 정책과도 상충되는 것이다.

■ 수도권 행정구역 현황 (인구 2013년 12월, 면적 2012년 12월 기준)

구 분	전 국	수도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면 적 (km ²)	100,188	11,818	605	1,041	10,172
인 구 (천명)	52,127	25,867	10,388	2,930	12,549
인구밀도(인/km ²)	520	2,189	17,170	2,814	1,233

※ 자료1) 행정구역면적(국토교통통계누리 지적통계),

자료2) 주민등록인구(안전행정부)+외국인등록인구(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수도권 연도별 인구변화 (2013년 12월 31일 기준, 단위 : 천명)

년도	전국	수도권 인구				
		계	비율(%)	서울	인천	경기
1995	44,609	20,189	45.3	10,231	2,308	7,650
2011	51,435	25,455	49.5	10,575	2,808	12,072
2012	51,881	25,715	49.6	10,442	2,891	12,382
2013	52,127	25,867	49.6	10,388	2,930	12,549

※ 자료 : 주민등록인구(안전행정부)+외국인등록인구(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자족성 미확보 과천 |

② 자족성(自足性) 미확보로 인한 도시환경의 질 저하

자족성(self sufficiency)이라는 것은 도시 내에서 생산과 소비, 주거환경 확보, 거주 등 도시기능이 조화롭게 갖추어지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330만㎡미만 규모의 택지개발은 지구면적의 10%이내에 입지가능 시설을 도시형 공장, 벤처기업 집적시설, 소프트웨어 사용시설에서 추가로 호텔업시설, 문화집회시설, 교육연구시설, 일반업무시설(오피스텔제외) 등으로 확대하였으나 자족기능을 확보하기에는

부족한 형편이다. 결국 침상도시(베드타운)로 전락하고 직주분리(職住分離) 현상으로 인해 서울 의존적인 장거리 통근 통행량(通行量)이 증가하여 교통혼잡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분당, 일산 등 5개 신도시 입주자의 통근시간을 분석한 결과 신도시 이주 전에는 평균 24.7분 걸리던 것이 신도시 이주 후에는 평균 59분이 소요(38% 증가)되었고, 서울로의 통근 통행률(通行率)도 분당지역의 경우 1990년 36%에서 1997년에는 45%로 장거리 통근 통행량이 증가하여 교통혼잡의 주요 원인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분당, 일산, 평촌지역의 제조업 종사자 비율은 각각 1.2%, 2.9%, 4.8%에 불과하여 도 평균인 7.5%에도 못 미치는 등 자족기능 용지가 부족함을 잘 보여주고 있다.



| 구리타워 | 구리시는 자원회수시설을 현대적으로 건립하여 쓰레기를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③ 사회기반시설 및 주민편의시설 부족

하수처리장·쓰레기소각장 등 환경기초시설(環境基礎施設) 및 장묘관리시설(葬墓管理施設) 등이 신도시 계획 시 지구 내에 입지해야 하나 대부분 주변지역의 시설을 활용하거나 확장하는데 그쳤다. 그리하여 추가적인 시설공급 및 유지관리 비용이 해당 지자체에게 전가됨으로써 예산확보의 문제가 발생하며, 사업시행자의 수익성(收益性) 위주의 개발로 인해 해당 지역의 문화·복지·교육시설 등이 부족하게 되는 현상을 초래했다.

알아두기 신도시의 악순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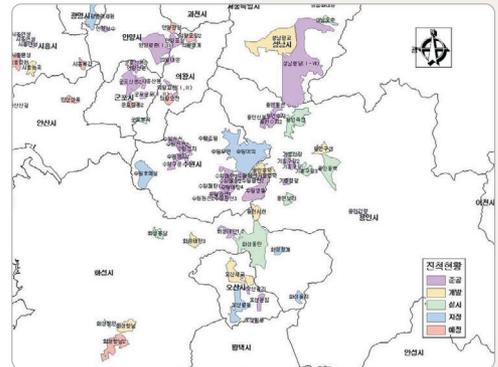
택지공급(주택가격 안정화) → 새로운 인구유입 → 주택수요 부족(가격불안정) → 택지공급 → 신도시건설 → 수도권집중
→ 물가상승/지가양등/교통체증 → 신도시 건설

■ 사회기반시설 및 주민편익시설 현황 (2013년 12월 기준, 330만㎡ 이상)

지구명	면적 (천㎡)	토지이용계획(%)										
		총계	주거	상업 업무	도시 지원	문화 복지	공원 녹지	공급 시설	공공 처리	장묘 시설	차고지	기타
15개지구	145,028	100	30.8	4.3	5.4	1.0	27.2	1.0	0.3	0.0	0.1	29.9
수원광교	11,305	100	18.4	4.4	4.3	0.	43.8	1.6	0.2	-	0.4	26.8
성남판교	8,922	100	26.6	3.1	4.9	0.2	30.0	0.6	0.7	0.2	-	33.7
성남위례	6,775	100	35.5	7.3	2.1	0.9	22.9	1.7	0.3	-	-	29.3
고양삼송	5,070	100	35.1	2.5	7.3	0.4	12.3	0.7	-	-	0.4	41.3
김포한강	10,854	100	33.7	3.9	2.6	1.2	23.6	-	0.5	-	-	34.5
화성동탄	9,035	100	32.1	5.8	10.1	0.8	25.4	1.3	0.1	-	0.1	24.3
화성동탄2	24,014	100	32.0	4.5	5.0	0.2	31.3	0.8	0.2	-	0.1	25.9
파주운정	9,549	100	33.3	3.8	1.6	0.2	31	0.7	0.4	-	0.2	28.8
파주운정3	6,979	100	35.5	3.4	3.5	0.1	29.5	0.8	-	-	0.3	26.9
평택고덕	13,422	100	29.5	6.3	3.3	0.1	25.6	0.6	0.7	-	-	33.9
남양주별내	5,092	100	32.2	2.8	3.1	1.2	20.1	0.6	0.1	-	-	39.9
양주회천	4,134	100	34.0	2.6	5.1	0.1	20.4	-	-	-	-	37.8
양주옥정	7,047	100	39.9	2.9	3.2	0.8	27.0	1.3	-	-	-	24.9
광명시흥	17,367	100	26.1	4.2	12.3	3.2	22.7	1.8	0.1	-	-	29.6
하남미사	5,463	100	32.9	4.2	8.9	6.7	20.7	1.3	0.1	-	-	25.2

④ 도시계획과 개발권한과의 정합성 부재

선진국은 도시계획 및 개발권한이 지방정부의 고유권한으로 되어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도시·군기본계획 및 도시·군관리계획은 지방정부에, 지구(地區)지정 및 개발권한은 중앙정부로 이원화 되어있다. 동탄 신도시의 경우 화성 도시기본계획상은 비도시지역 준농림지역이었으나, 예정지구(豫定地區) 지정 후 도시기본계획에 시가화 예정용지로 사후 변경되는 사례가 발생하였으며, 또한 태안3지구의 경우 지역특성 및 지자체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사업이 장기화 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 소규모 개발 |

알아두기 도시계획·개발에서 정합성(整合性) 부재로 인한 문제점

- 종합적인 공간구조에 대한 마스터플랜 부재 (상위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부족)
- 신도시 개발은 수도권정비계획 및 수도권광역도시계획을 바탕으로 도시기본/관리계획과 조화되어 장래 공간구조 개편을 반영하여야 하나 이를 따르지 못함
- ※ 수도권정비계획은 규제중심, 광역도시계획은 그린벨트 조정수단으로 전략하여 구체적인 개발과 관리방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실정
- 정부는 주택종합계획에 의해 주택/택지공급물량을 설정하고 연차별로 주택/택지를 공급하는 일방적인 목표달성 방식 채택

⑤ 무계획적, 소규모개발로 인한 난개발 초래

용인 서북부는 분당과 세대수가 비슷한 97,100호이나, 평균사업 규모가 소규모(550세대, 3.3만㎡)로 200개소의 개발가능지(開發可能地)를 잠식하는 개발방식이 적용된 결과, 서북부지역 12,231만㎡ 중 나머지 11,570만㎡를 계획적으로 활용하지 못해 토지자원의 낭비를 초래하였다. 또한 지가(地價)가 싼 임야(林野) 위주로 사용한 결과 녹지훼손(綠地毀損), 경관파괴(景觀破壞)를 초래하였고, 토지형상(土地形象)과 분포가 비정형화(非定形化) 되어 도로(광역교통 노선설정)·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설치가 거의 불가능하였다. 그리고 산발적(散發的) 개발로 인해 공공시설 서비스 공급권역 형성이 곤란하게 되어 결국 기존에 설치된 기반시설에 무임승차한 나홀로 아파트 단지가 무질서하게 입지하여 난개발을 조장하였다.

이러한 무계획적 개발로 도보·보행권이 상실되어 노약자, 주부, 어린이들이 통학, 구매활동 등 일상활동에 지장을 받고 있으며, 체계적인 하천정비계획이 결여되어 장마 때 침수 우려 등 재해(災害)에도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⑥ 수도권 교통난 심화

현행 100만㎡이상, 인구 2만 명 이상의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대도시권 광역교통(廣域交通)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광역교통개선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고, 광역교통개선대책 확정 후 개발사업 시행자(舊토지공사·주택공사 등)가 주체가 되어 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건설되는 사업의 유지·관리는 대부분 해당 지방정부 소관으로 시행주체와 관리주체가 다르고, 개발사업 시행자는 해당 시설물에 대한 이해관계가 적어 사업비 증가의 사유로 광역개선대책 수립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신도시 광역교통계획이 주변지역을 포함한 광역적 공간구조와 토지이용계획에

연계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광역교통시설에 대한 확충사업비에 국고부담이 지원되지 않아 결국 분양원가 상승으로 이어지게 됨)하게 되고, 이에 대한 광역교통개선 대책수립의 지연, 보상비 등 사업비 증가로 인해 주요 간선교통(幹線交通) 건설이 지연되거나 입주 전 도로건설 미완료 등으로 인해 교통난이 심화되었다.



| 기반시설 미비로 몸살을 앓고 있는 택지개발지구 |



⑦ 아파트 가격의 급상승

토지매입·택지공급·아파트분양·입주 등의 단계마다 가격이 부풀려지고, 분양가 자율화(1999년)이후 주택건설을 위한 택지는 조성원가(造成原價) 이상의 감정가격으로 공급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실제 발생비용이 아닌 주변 아파트 시세(時勢)에 따라 공급가격(供給價格)을 반영하고 이 결과 아파트 가격이 입주 주변 시세와 동반 상승하거나 그 이상 올라가는 부작용을 낳기도 하였다.

개선 방향

수도권의 [신]주택보급률이 2012년 102.7%로 향상되었으며([중전]주택보급률 기준 1995년 86.0% → 2012년 115.4%, 통계청), 경기도는 2012년 평균 99.3%로 수원, 광명, 평택 등 15개 시군이 100%를 초과하고 있어 주택중심의 신도시건설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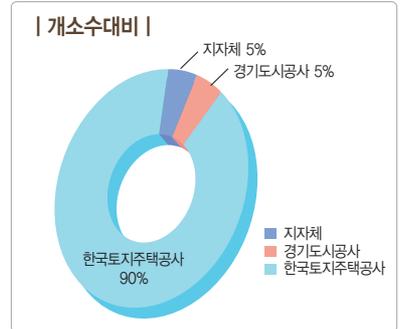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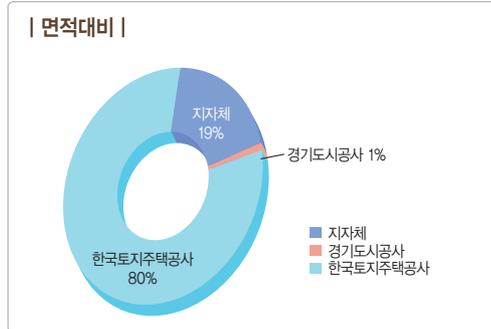
가구원수의 감소(1980년/4.5명→2010년/2.8명, 통계청), 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1인당 평균 주거면적의 증가(2010년 28.5㎡→ 2012년 31.7㎡, 2012년 국토부 주거실태조사결과) 등으로 지속적인 주택공급이 필요하나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여건변화에 대비하여 주택공급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된다.

향후 우리 경기도 신도시는 수도권을 둘러싼 대내·외적 여건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도시개발권한의 지방 위임으로 경기도 종합계획(경기도, 2012), 경기도 주택종합계획(경기도, 2013) 안에서 도시·군기본계획 및 관리계획과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사업방식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 주도에서 지방공사·민간개발 등으로의 사업주체의 다양화 등의 방법을 통해 신도시 구상단계부터 정부·지자체·시행자·지역주민·전문가·관련단체가 참여하는 거버넌스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또, 권역별 광역적으로 사업추진 시기를 고려하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여, 간선시설 비용 국고 공동부담 등의 방법을 통해 주변지역과 연계한 권역별 종합 교통개선 대책을 수립한 후 신도시를 추진할

■ 경기도 지역의 신도시(택지개발) 현황 (2013년 12월 기준)

구 분	지구수(개소)	면 적(천㎡)	세대수(호)	수용인구(인)
합 계	196	343,242	2,035,214	6,358,182
지자체	37	17,511	169,274	634,533
경기도시공사	3	16,054	62,954	163,741
한국토지주택공사	156	309,677	1,802,986	5,559,908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특성을 살린 차별화된 토지이용 계획기법을 도입하여, '살맛나고 정겨운 고품격의 경기도형 명품 신도시 브랜드 창출'이라는 과제를 추진하여야 한다.



2. 무계획적 개발 사례

무계획적 개발(난개발)의 원인



| 지역여건을 무시한 난개발 모습 |

소규모 점적개발로 인한 무계획적인 개발을 우린 주로 '난개발'이란 용어로 이해하고 있다. '난개발(亂開發)'이란 말은 1990년대 중반이후 '준농림지제도(準農林地制度)' 도입에 따른 소규모 아파트 개발로 인해 발생된 문제점을 표현하는 용어로,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한 공공 택지 개발, 주변 자연환경 및 경관과 어울리지 않는 개발, 상수원 보호구역등에 음식점이나 숙박시설이 무질서하게 들어가는 개발, 기존 신도시의 도시기반시설에 기생하여 주변

지역에 무임승차하는 개발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왔다.

난개발이라는 용어를 한마디로 정의 내리기는 어려우나 종합적으로 표현하면, 계획적인 개발과 대비되는 개념으로써 도시기반시설이 잘 갖추어지지 않은 지역에서 장래의 도시환경(인구, 가구, 상수도, 하수도, 학교, 복지·문화시설, 도로, 공원 등)에 대한 종합적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주변지역의 자연환경과 경관의 조화도 이루지 못한 채 개발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또한, 토지이용의 효율성(效率性) 저하는 물론 자연환경 훼손과 도시기반시설 부족 문제를 발생시키는 무분별하고 무계획적인 개발행위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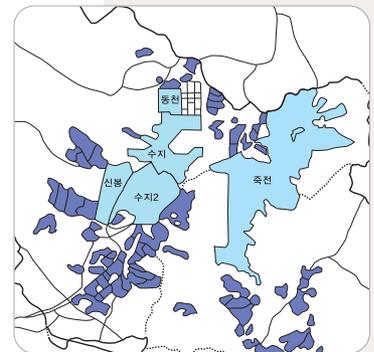
무계획적 개발이 발생하게 된 주요 원인으로서는, 첫째 1994년 준농림제도가 도입되고 토지이용규제가 대폭 완화되면서 민간주택건설이 급증한 데 있다. 1994년부터 2000년까지 경기도 준농림지역의 민간주택건설 현황을 살펴보면 88,000호가 건설·입주 중이었으며 81,000호가 사업신청 중이었다(국토부, 『난개발종합대책』, 2000). 둘째 제1기 신도시(5개)이후 나타난 문제점으로 대규모 신도시보다는 중소규모 위주의 미니신도시 개발이 진행된 데도 그 원인이 있다. 5개 신도시 이후 20만 평 내외의 중소규모 택지개발이 경기도에 1,520만 평, 380,000호 건설 목표로 추진되었다(국토부, 같은 책). 위와 같이 분당 신도시의 5배 규모인 중소규모 주택단지가 도로 등 기반시설이 부족한 채로 무분별하게 건설되는데 반해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마련되지 않아 교통체증(交通滯症), 환경악화(環境惡化) 등 각종 부작용을 초래하였다. 특히 이러한 문제는 주택건설이 집중되어 있는 용인서북부 지역에서 더욱 심각하게 나타났다.

준농림지

준농림지역은 1994년 국토이용관리법을 개정하면서 종전의 10개 용도지역이 도시, 준도시, 준농림, 농림, 자연환경보존지역의 5개 용도지역으로 통합되면서 생겨난 것으로 농업진흥지역외의 농지와 준보전지역의 산지로 구성되어 있다. 지가가 저렴하고 서울에 인접한 비도시지역의 준농림지역을 준도시지역으로 용도변경하여 무계획적이고 마구잡이식으로 개발하면서 난개발의 전원지 역할을 하였다.

용인 서북부지역 사례

서울에 가장 인접한 하남, 남양주, 광명, 시흥지역은 대부분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을 찾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용인 서북부지역은 농지와 산지의 일부분이 개발 가능한 준농림지역으로 변경되어 개발하기 쉬운 여건이 조성되고 경부고속도로 및 국도를 통해 서울에서 1시간 거리에 위치한 지리적 여건과 빼어난 자연경관을 가지고 있어 다른 지역에 비해 개발이 집중되었다. 또한 수지·구갈·신봉·동천·동백·구성·보라지구 등 공공 택지개발지구의 기반시설에 무임승차하려는 민간주택 개발사업이 기승을 부리면서 더욱 난개발을 가속화 시켰다. 그 결과 용인 서북부지역은 용인시 전체 면적의 21%에 불과하지만 용인시 인구의 71%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 용인시 수지구 일대의 택지개발 사업지구 |

■ 공공택지개발사업지구
■ 민간택지개발사업지구

① 민간주택 개발사업에 의한 무계획적 개발 사례

기존 공공 택지개발지구의 기반시설을 그대로 이용하는 무임승차(Free Riding)나 아예 기반시설에 대한 계획 없이 준농림지역으로 바뀐 농지나 산지에 우후죽순(雨後竹筍)처럼 고층 아파트가 점적(點的) 개발로 진행되었다. 주택건설 관련 규정상 일정 규모 이상 아파트를 지을 경우 환경·교통



| 준 농림지역의 나홀로 아파트 |

영향평가를 받아야 하고 학교용지, 공원,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을 설치해야 하나 주택건설업자는 이러한 복잡한 절차와 막대한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회피하기 위해 규정대상 이하로 짓거나 대규모로 건설하면서도 건축허가는 200~300가구씩 나누어 따로 받는 편법(便法)을 사용하였다.

■ 용인서북부지역 민간공통주택사업 (용인시, 1999년 개발당시 기준)

구 분	건 수	사업면적(천㎡)	세 대 수	수용인구(천인)	비 고
계	89	16,242	92,252	286	용인시 전체 : 총119
사업승인	49	2,614	34,150	106	67
사업신청	40	1,764	22,618	70	52
개발예정지	-	11,864	35,484	110	-

② 소규모 공공 택지개발에 의한 무계획적 개발 사례

정부투자기관인 (舊)토지공사나 (舊)주택공사에서 추진했던 용인 서북부지역의 공공 택지개발 또한 대부분 20만 평(70만㎡) 내외의 소규모 주택위주의 개발로 진행되어 도로교통망이 확충되지 않았다. 설상가상(雪上加霜)으로 직장·교육·문화시설이 없거나 턱없이 부족하여 타 지역으로의 통행량을 증가시킴으로써 수도권 남부지역의 교통대란(交通大亂)을 촉발했다. 그리고 광역교통개선에 투입되는 비용을 없애기 위해 대부분의 사업을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대상인 30만 평(100만㎡) 규모 미만으로 진행하여 더욱 심각한 교통난을 초래하였다.

■ 용인 서북부지역 내 택지개발 사업현황 (용인시, 1999년 개발당시 기준)

구 분	지구수	사업면적(천㎡)	수용인구(천명)	비 고
계	18	20,277	425	
준공	2	1,165	47	구갈, 수지
공사중	4	2,060	53	구갈2, 수지2, 영덕, 상갈
지구지정(미착공)	8	11,133	209	구갈3, 신봉, 동천, 신갈, 죽전, 동백, 구성, 보라
지구지정 검토	4	5,919	116	서천, 보정, 영신, 동천2

③ 무계획적 개발로 인한 문제점

종합적인 광역계획이 사전에 마련되지 않고 용인시 도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 민간과 공공부분 모두 중소규모로 각각 따로 개발하여 연계성(連繫性)도 없고 토지이용의 효율성도 떨어졌으며 도시기반시설에 투자되는 재원대책이 마련되지 못하였다.

특히, 도로·철도망 확충 부족과 사업지구 내 자족기능(自足機能) 부족으로 서북부지역과 서울을 연결하는 간선도로는 출·퇴근 시간대를 중심으로 상습 정체구간이 되어 버렸다. 또한 교육·문화시설이 부족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였고 주변 자연경관(自然景觀) 및 미관(美觀)에 조화되지 못한 개발로 산비탈과 논밭이 별경계 속살을 드러내는 등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결과를 낳았다.

■ 성남 분당과 용인 서북부지역의 주거환경 비교 (김현수, 『명품도시 대토론회』 자료)

	비 교	분 당	용 인 서 북 부
밀 도	건폐율	21.4%	17.8%
	용적율	188.4%	209.0%
공공시설	놀이터(평균면적)	1,076.4m ²	824.0m ²
	초등학교(평균거리)	260.5m	296.8m
교 통	지하철역(거리)	870.5m	2,914.8m
	버스정류장(거리)	214.1m	380.2m
	시가화구역내 도로율	19.9%	1.8%
주택가격	매매	4,912,000원/m ²	3,194,000원/m ²
	전세	1,800,000원/m ²	978,700원/m ²

④ 무계획적 개발을 치유하기 위한 노력

용인 서북부지역을 대표되는 무계획적 개발의 사회적문제점이 부각되면서 이를 치유하고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였는데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 번째는 관련법의 개정이다. 초기에는 ‘선계획(先計劃)-후개발(後開發)’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용인시 도시기본계획을 조기에 확정하고 준농림지역에서의 개발여건과 주거지역 관리를 강화하는 단기대책을 마련하였고 그 이후 용도지역 전면개편, 기반시설 설치 부담, 국토관련법 통합(기존 비도시지역은 국토이용관리법, 도시지역은 도시계획법으로 관리) 등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결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이라는 장기대책을 추진하였다. 두 번째는 수도권 남부지역 교통개선대책 수립이다. 이는 경기도의 지속적인 요구에 의해 국토부 주관으로 수차례의 지자체 및 사업시행자간 회의를 거쳐 마련하였으며 용인 서북부지역의 택지개발사업과 민간주택건설사업이 완료되는 2008년을 기준으로 하여, 도로확충방안으로써 용인-서울 등 9개 노선에 2조 4천억 원을, 광역전철망 확충방안으로써 분당선 확충, 신분당선 검토에 1조 4천억 원을 국가, 지자체(경기도, 서울시, 용인시), 택지



| 무계획적 개발 문제점 _ 용인·성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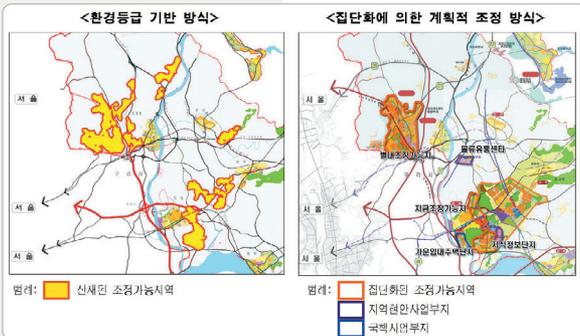
| 광고산에서 바라본 용인 택지개발 전경 |

공사사업자(한국토지주택공사 등)가 분담하여 추진하겠다는 대책이다. 마지막으로 부족한 공원이나 주민편익시설(住民便益施設) 확충이다. 2000년 당시 24개소 2,094천㎡이던 공원을 30개소 9,361천㎡으로 늘리고 63개소의 학교, 9개소의 문화시설(도서관, 박물관 등)을 경기도와 용인시가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확충하는 것이었다.

무계획적 개발의 근본적인 방지대책

과거 1990년대 중반의 준농림지역의 무계획적인 개발은 지금까지 많이 치유되었지만 현재는 다른 형태의 무계획적 개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역의 합리적 조정(산재되어 있는 조정가능지역을 집단화하고 정형화)이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그린벨트 기능을 상실한 지역에 무계획적으로 공장, 물류시설(物流施設) 등이 개별적으로 들어서는 형태의 무계획적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신도시개발지 주변지역의 관리대책이 소홀함을 틈타 난개발이 이루어지고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축사 및 비닐하우스 등 수질오염을 더욱 증가시킬 수 있는 시설물이 무질서하게 입지하여 장래에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울 수도 있다. 모든 형태의 무계획적 개발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도시환경지표에 맞는 개발계획을 도시·군기본계획과 상위계획에 부합토록 수립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도시계획권한을 갖고 있는 지방정부가 도시개발권한을

함께 가질 수 있도록 국가가 갖고 있는 권한을 조속히 지방으로 위임하여야 한다. 그리고 도시기반시설과 주거·직장·교육·문화·복지시설 등을 갖추고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정규모 이상으로 개발하여야 하고 소규모 점(點)적인 개발보다는 주변지역에 대한 관리대책 및 인접한 개발지역을 포함한 광역계획 및 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한 후 단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도시공간은 하나의 유기체(有機體)이며 도시공간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인 토지는 한번 훼손하거나 개발하면 되돌리기가 어렵고 도시민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공공재적(公共財的)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 무계획적 개발 방지대책 |



3. 경기도 공무원 인력·시설 현황 비교

정원관리제도의 변화

1997년부터 운영해오던 중앙통제 정원관리 방식의 표준정원제(標準定員制)에서 2007년부터 지자체가 기구·정원 운영에 수반되는 인건비성 경비의 총액을 기준으로 기구와 정원을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총액인건비제(總額人件費制)로 전환하여 조직관리의 변화를 가져왔다.

표준정원제의 연장이라는 한계성에도 불구하고 정원관리에 비용개념을 도입하였으나, 2008년부터는 자치단체의 무분별한 정원 증원을 막고자 당초 취지에서 벗어나 총액인건비 산정시 조직관리기준 인력으로 정원을 통제하여 오고 있다.

표준정원제에서는 통상적인 정원 규모(행정기구 및 정원조례)만을 판단하였으나 총액인건비제에서는 조례상 정원, 별도정원(교육, 파견), 무기(無期)계약직(상근인력, 청원경찰), 비전임(非專任)계약직 인건비를 모두 포함하고 기구와 관련된 물건비(기관운영·부서운영·정원가산·직책급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와 성과상여금, 개인별로 지급받지 않는 연금부담금, 연금지급금, 국민건강보험금 등도 포함된다. 2010년부터는 자치단체별 인건비 편차 해소와 인건비 산정의 왜곡을 막고자 총액인건비 항목 중 6개(기관운영·부서운영·정원가산·

■ 정원관리제도 비교

구 분	표 준 정 원 제	총 액 인 건 비 제	기 준 인 건 비 제
산정방식	- 유형별 표준정원 산정	- 인건비 범위설정 및 총액 인건비 산정	- 인건비 범위설정 및 기준 인건비 산정
정원책정 및 기준초과	- 표준(보정)정원 기준내 정원 자율 책정 - 상위직급/보정정원 초과정원 책정은 행자부장관 승인	- 행정안전부장관 정원책정 승인권 폐지 - 지방의회 승인	- 정원관리 자율화 - 조직자율권 확대 (기준인건비의 1%~3%)
기구설치	- 기구정원규정에 규정된 기준 이내에서 설치 - 4급 이상 기구설치는 행안부장관 승인	- 부단체장·보조기관 등의 직급기준 등 최소한의 기준유지 - 3급 이상 기구설치 행안부장관 협의	- 변동없음
지방의회/주민통제	- 절차적 미비 및 정보부족으로 실질적인 통제기능 미약	- 조직운영 상황의 공시제·입법예고제 강화 및 재정역량 분석 실시	- 조직 운영상황에 대한 의무적 정보 공개
조직진단	- 조직진단제도의 형식화	- 조직진단지표 개발 및 진단 의무화 - 중앙정부의 정밀 조직 진단 실시	- 무분별한 확대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불이익 부과 - 조직분석 및 진단 강화
관리대상 정원	-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상 정원	-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상 정원 - 별도정원(교육, 해외훈련, 파견) - 무기계약직(상근인력, 청원경찰) - 비전임계약직	- 정원관리제 폐지

직책급업무추진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연금지급금)를 제외하고 산정하였다. 2014년 3월에는 지방자치단체 조직운영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행정수요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준인건비제를 도입하고, 조직 자율권 확대에 따른 책임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따라서, 기구를 증설하거나 별도정원(교육, 파견 등), 임기제공무원 및 무기계약근로자를 증원하게 되면 총 인건비도 증가하게 된다. 또한, 직급별 인건비 편차(偏差)도 있어 업무 난이도에 따라 적절한 정원운용을 하는 것이 효율적인 조직관리라 할 수 있다.

공무원 정원과 행정환경

2014년 1월 1일 기준 도 및 시·군 공무원 수는 46,387명이고 이중 도 공무원은 9,802명(일반직 3,405명 소방직 6,397명)이며 시·군 공무원은 36,585명이다.

경기도의 행정환경(行政環境)을 보면 2003년 10월부터 인구규모로 전국 최대 자치단체가 되었고, 서울시보다 인구는 216만 명이 많고 행정 수비범위(守備範圍)인 면적은 17배나 크다. 31개 시·군 중 50만 명 이상 대도시 9개 시, 중소도시 19개 시, 농촌지역 3개 군 등 도시형 행정환경을 갖추고 있다.

또한 토지이용의 중첩규제와 2,500만 수도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팔당수질 개선, 교통 개선, 신도시 개발 등 규제와 개발, 도·농 복합행정 등 복잡하고 고도화된 ‘초(超)광역 행정’을 수행하고 있다.

타 시·도와 비교

경기도는 전국최대 자치단체이나 도지사의 대우, 정원의 규모, 직위별 직급 기준 등이 표준정원제에 비하여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먼저 경기도지사의 대우를 보면, 장관급인 서울시장에 비해 경기도지사는 타 광역자치단체장과 같은 차관급 상당의 대우를 받고 있다.(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4조 별표12) 서울시장이 장관급 대우를 받아 국무회의에 참석, 각종 국정 현안에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전국 최대 자치단체이며 수도권 2,500만 주민을 위한 초광역 행정 수행, 대한민국 경쟁력의 경제적 원천을 보유하고 있는 경기도의 위상에 걸맞



경기도청 |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3가

도록 경기도지사를 장관급으로 격상(格上)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경기도는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전국 평균의 2.1배이며 일반직 공무원은 전국 평균의 3.5배, 서울시의 3.7배이다. 이는 결국 그만큼 경기도민이 타 시·도 주민에 비해서 행정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적게 받는 구조라고 할 수 있다.

소방직 공무원 또한 1인당 주민수가 서울시보다 1.2배 많으며 소방행정 수비범위(면적)는 서울시의 17배에 달한다. 경기도는 소방직 공무원이 전체 공무원에서 차지하는 비율(65%)이 전국 평균(44%)보다 훨씬 높는데 이는 신도시개발 및 도시화에 따른 기초행정 서비스 제공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며 경기도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정책개발 기능 역할의 일반직 공무원 정원의 확대가 필요하다. 현재의 부족한 인력으로는 법령에 근거한 행정, 관행적인 행정 추진과 대응에 급급할 수밖에 없어 이에 따른 업무과중(業務過重)으로 창의적(創意的)인 행정 추진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 공무원 1인당 주민수 (2014년 1월 1일 현재, 단위 : 명)

시·도	인구수 (천명)	도·시·군 (일반직)		시·도						시·군	
		공무원수	1인당 주민수	일반 + 소방직		일반직		소방직		공무원수	1인당 주민수
				공무원수	1인당 주민수	공무원수	1인당 주민수	공무원수	1인당 주민수		
경기	12,235	39,990	306	9,802	1,249	3,405	3,596	6,397	1,914	36,585	335
전국	51,141	252,973	202	88,019	581	49,183	1,040	38,836	1,317	203,790	251
서울	10,144	41,466	245	16,940	599	10,437	972	6,503	1,560	31,029	327

• 공무원수 : 국가직공무원 포함, 인구수 : 외국인 제외

예산대비 총액인건비 비율 또한 전국 최저로서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예산총액 대비 1.5%(서울 3.2%, 전국 3.0%), 자주재원대비 3.5%(서울 4.8%, 전국 7.3%)로서 전국 대비 심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

■ 총액인건비 비율 (단위 : 억 원, %)

시도별	예산 총액	자주재원(2014년)			총액인건비 (2013년 행정안전부 산정)			총액인건비 비율(%)					
		계	지방세	세외 수입	총액	일 반 인 건 비	소 방 인 건 비	예산총액대비		자주재원대비			
								총액	일반	소방	총액	일반	소방
경기	159,906	70,155	65,819	4,336	6,648	2,573	4,075	4.4	1.5	2.7	10.0	3.5	6.2
전국	1,086,838	451,919	367,431	84,488	206,230	153,210	24,890	5.8	3.0	2.4	13.9	7.3	5.7
서울	244,133	161,536	124,073	37,463	12,920	7,450	4,280	5.5	3.2	1.9	8.3	4.8	2.8

또한, 초광역행정 수행을 하고 있는 경기도의 행정환경에 비해 정책조정 역할의 고위직(高位職)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실·국 수는 19개로 서울시 14개보다 5개 많으나 오히려 3급 이상 고위직은 서울의 53%에 불과하여 불균형적인 인력구조를 보이고 있다. 이는 지방조직의 합리적인 경쟁시스템의 부조화(不調和)를 야기하여 결국 지방자치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다.

■ 실국장 및 부단체장 직급 현황 (단위 : 명, 국가직 포함)

구 분	기 획 조정실장	실국장		정 원				기초부단체장		
		실본부장	국장	1-2급	2-3급	3급	3-4급	2급	3급	4급
경기	고공단 나급	2-3급	3급	-	4	22	1	9	14	8
서울	고공단 가급	1-2급	2-3급	7	20	19	5	6	19	-

경기도 위상강화 및 효율적인 조직관리 방안

경기도는 공무원 1인당 주민 수, 총액인건비 비율, 소방공무원 비율 등 각종 정원 관련 지표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조직을 관리한다고 볼 수 있다. 전국 최대 자치단체로서의 위상에 걸맞게 직위별 직급체계를 단계적으로 개선하여 서울시에 준하는 고위직의 확보 등 지자체간 합리적인 정책경쟁을 위한 우수인력 확보와 적절한 인력관리는 필요할 것으로 본다.

기존 조직에 대한 상시적인 조직진단(組織診斷)으로 기능통합을 적극 추진하여 내부적으로는 행정 칸막이를 제거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민간이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분야는 민간위탁(民間委託)을, 시·군에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에는 시·군으로 과감하게 이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총액인건비제에 맞춰 무기계약직 등이 할 수 있는 일을 적극 발굴하여 업무 난이도에 따라 적절한 정원을 재배치하는 변화 역시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은 작고 강한 조직으로 스피드행정을 추진함으로써 도민에게 양질(良質)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실질적인 자치 조직권 확보를 위해서는 부단체장(副團體長)의 정수(定數)와 직급기준을 제외하고는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제도 개선으로 책임행정 구현과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경찰인력 및 시설 비교

2013년 12월 기준 경기도의 경찰서는 41개, 경찰관 수는 19,255명으로 서울시(25,570명)의 75.3%에 불과하다.

주택 200만 호 건설의 일환으로 분당, 일산, 산본, 중동, 평촌의 5개 신도시를 건설함에 따라 경기도의 인구가 1990년 611만명에서 2013년 1,223만명으로 612만명이 늘어나 도내 경찰인력도 7,475명에서 19,255명으로 약 157% 증가하였다. 그러나 과거부터 워낙 적은 인력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신도시 및 도시개발에 따른 급속한 인구 증가 등 새로운 치안상황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치안력(治安力)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실정이다.

전국 최대의 인구규모를 가진 경기도는 유치원 수에서 서울의 2.4배, 초등학교 수에서 서울의 2배에 달하며 중·고등학교 수 역시 전국 최다이다. 또 국내 거주 외국인(157여만 명)의 30%가 경기도에 거주하여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이며, 동두천, 평택, 의정부, 파주 등에는 미군기지가 집중되어 있다.

이와 같이 경기도의 면적과 인구를 고려한다면 경찰공무원의 확대가 시급하다. 경기도 경찰관 1명이 담당하는 주민 수는 635명으로 전국 평균 485명은 물론 서울시(397명)에 비해 1.6배 이상 많아 치안수요대응 부족을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열악한 치안여건 개선을 위해 신도시 등에 대한 경찰관서의 신설 및 경찰관 정원의 증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09년 4월에는 자치단체 행정구역 내 경찰서가 없던 하남시, 동두천시, 의왕시에 3개의 경찰서가 동시에 개서되었다.

■ 치안관련 기본현황 (2013년 12월 31일 기준)

지 표	경 기 도	서 울
면 적	1,172.03km ² (서울의 16.8배)	605.21km ²
인 구	1,223만명 (서울의 1.2배)	1,014만명
유치원수	2,087개 (서울의 2.4배)	869개
초등학교수	1,187개 (서울의 1.99배)	597개
중·고등학교수	1,044개 (서울의 1.49배)	700개
경찰관수	19,255명 (서울의 75.3% 수준)	25,570명
경찰관 1인당 담당인구수	635명 (서울의 1.6배)	397명(전국 485명)
경찰 1인당 관할 면적	0.53km ² (서울의 26.5배)	0.02km ²



| 경기지방경찰청 |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소방력 확충과 국가재정부담



남양주 소방서 | 남양주시 평내동

도내 소방력 확충 노력으로 전국 최초로 1시(군)1소방서 체제를 갖추고 2010년 파주 적성, 용인 모현 안전센터, 2011년 가평 하면 안전센터, 2014년에는 일산 고봉 안전센터를 개소하면서 총 34개소방서 162개의 안전센터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도내 소방인력은 6,397명(2014.1.1 기준)으로 서울지역 소방인력 6,503명의 98% 수준에 이르고 있으나, 도 면적이 서울의 17배인 점을 고려하면 소방부분의 인력 역시 확충이 필요하다.

소방서 개설, 소방인력 확충 등 소방력(消防力) 보강에 필요한 재원부담을 보면 소방예산의 전부(99%)를 도 예산으로 부담하고 있어 소방재원에 대한 국가 부담비율을 높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14년 소방예산 5,171억 원 중 도의 자주재원(自主財源)인 지역자원시설세는 전체 소방예산의 47.6%인 2,461억 원으로 나머지 비용 거의 전부를 도 일반재원(一般財源)으로 충당하고 있어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 차원에서 소방관서 건립, 인력충원, 소방장비 및 안전장비 보강을 위한 소방관서 지원프로그램(Assistance to Firefighters Grants), 유해화학물질 사고를 대비한 소방대응계획 수립, 훈련, 소방장비보강 등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화재원인 조사분야에 이르기까지 소방업무 전반에 걸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화재예방세 신설, 소방비용을 포함한 담배부가세, 자동차세 등 다양한 세원을 확보하여 소방예산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소방수요의 증가와 소방력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중앙정부에서 노후차량과 특수차량 보강 등 실질적인 소방력 개선에 필요한 국고보조금을 지원하고, 건축물과 선박에 국한된 과세대상을 화재원인물질로 확대하며 소방력 보강을 위한 목적세 성격에 부합하도록 지역자원시설세에서 지방소방세를 분리, 소방재원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 시·도 소방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등 관련 법령 제·개정이 시급한 실정이다.



4. 서울 주변지역과 접경지역으로서 경기도

대학교·문화예술 시설 등을 전국 시·도에 설치하면서 경기도 지역에 배정되어야 할 국립(國立) 대학교나 박물관은 서울의 흡인력(吸引力)으로 인해 경기도에 제대로 설치하지 못하고 있다.

인구와 학생 수에서는 전국 최대의 자치단체임에도 불구하고 국립종합대학은 한경대(안성) 단 한 곳에 불과하며, 전국에서 가장 많은 유적과 유물이 있어도 이를 담아 낼 국립 박물관 하나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국립종합대학, 국립박물관 등의 시설은 지역의 정체성 형성과 자부심 향상에 필수적이라는 점에서도 반드시 유치되어야 할 시설이라 하겠다.



| 경기도박물관 전경 | 용인시 기흥구 상갈동



| 경인교대 제2캠퍼스 |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 경기도의 '유·무 시설' 현황

경기도에 적은 시설	경기도에 많은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립종합대학 : 1개 (전국 32개소) 국립박물관 : 없음(전국 30개소) 북부지역 고속도로 : 3개(전국 32개) <p>※ 영화관 없는 시·군 : 6개 시·군 (하남, 의왕, 과천, 포천, 가평, 연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기피시설(서울시 운영) : 90개소 (장시시설 12, 수용시설 28, 환경시설 4, 교통시설 46) 사격장·훈련장 : 117개소 군용비행장 : 26개소 대대급 이상 군부대 : 661개소

반면 도시기능 유지를 위해 반드시 설치되어야 하지만 자기 지역에 설치하기를 기피하는 시설인 화장장(火葬場)·분뇨처리장(糞尿處理場)·차량기지·수용시설 등은 경기도에 집중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경기도는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접경지역(接境地域)으로 군 사격장과 훈련장, 군 비행장, 군부대 등이 밀집되어 있으며 북부지역 주민들은 수십년간 전쟁과 분단으로 인한 희생과 고통을 감수하고 있다.



철수한 미군부대 | 하남시 하산곡동.
철수한 미군부대의 활용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다만, 2001년 1월 제정된 접경지역 지원법이 2011년 6월에 특별법으로 격상되고, 2011년 7월 접경지역 종합발전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접경초광역권 발전 지원 사업」이 2011년부터 2030년까지 20년간 경기, 인천, 강원도의 접경지역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165개 사업에 총 18.8조 원이 투자될 전망이다. 낙후된 접경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과 접경지역 거주 주민의 복지향상 및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실질적인 재정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경기도민이 지난 60년간 국가안보 등으로 인한 일방적 희생에 대하여 다각적인 보상책 마련이 시급하다 하겠다.

■ 접경지역 현황

- 경기도 접경지역 현황 (2011년) : 7개 시·군 114개 읍·면·동
(비무장지대 내 대성동 마을 포함)
- 7개 시·군 : 동두천시, 고양시, 파주시, 김포시, 양주시, 연천군, 포천시

■ 주한미군 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 면적 현황

- 경기도 주한미군공여구역 및 반환면적 현황
- 주한미군공여구역 : 51개소 211km²(전국 93개소 242km²의 87%)
- 반환면적 : 34개소 173km²(전국 54개소 180km²의 96%)



1. 수도권 정책

수도권 정책 개관

① 수도권 정책 개요

수도권(首都圈)은 우리나라의 서울, 영국의 런던, 프랑스의 파리, 일본의 도쿄 등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한 나라의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중심지를 뜻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토지의 이용 관리 측면에서는 주변 위성도시(衛星都市)와 생활권(生活圈)의 통합이 이루어지고 도시 기능이 확장 또는 광역화(廣域化)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 수도권에 대한 지역적 의미는 국가별로 차이가 있으나, 우리나라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서울특별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변지역인 인천광역시·경기도로 규정하고 있다.

지난 1980년대를 전후하여 본격적인 산업사회로 전환됨에 따라 수도권은 고도 성장의 중심지로서의 국가 성장발전을 주도하여 왔다. 현재 전국 국토면적 11.8%인 수도권에 대한민국 인구의 49.6%가 거주하고 있으며, 또한 2012년 현재 전국 GRDP의 47.1%(경기도 19.7%)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수도권으로의 인구와 산업의 집중과 비수도권의 인구유출 및 산업 미발달에 따라 1982년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제정하여 인구집중유발시설과 대규모개발사업에 대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 수도권 행정구역 현황 (인구 2013년 12월, 면적 2012년 12월 기준)

구분	전국	수도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면적 (km ²)	100,188	11,818	605	1,041	10,172
인구 (천명)	52,127	25,867	10,388	2,930	12,549
인구밀도 (인/km ²)	520	2,189	17,170	2,814	1,233

※ 자료1) 행정구역면적(국토교통통계누리 지적통계)

자료2) 주민등록인구(안전행정부)+외국인등록인구(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GRDP

시·도 등 특정지역에서 1년간 생산된 상품과 서비스의 가치를 시장가격으로 평가한 수치
 GDP(국내총생산) : 국가내에서 '생산' 된 상품의 총합
 GRDP(지역총생산) : 지역내에서 '생산' 된 상품의 총합

② 수도권 규제정책에 발 묶인 경기도

수도권 규제의 목적인 인구집중 억제와 관련, 경기도 면적은 서울의 17배이나, 인구밀도는 14분의 1에 불과한 지역으로 수도권의 과밀은 서울을 중심으로 한 인천, 부천, 광명, 안양 등 주변 몇몇의 도시에 국한되는데도 불구하고 경기도 전역을 인구과밀 지역으로 규제하는 것은 정책의 오류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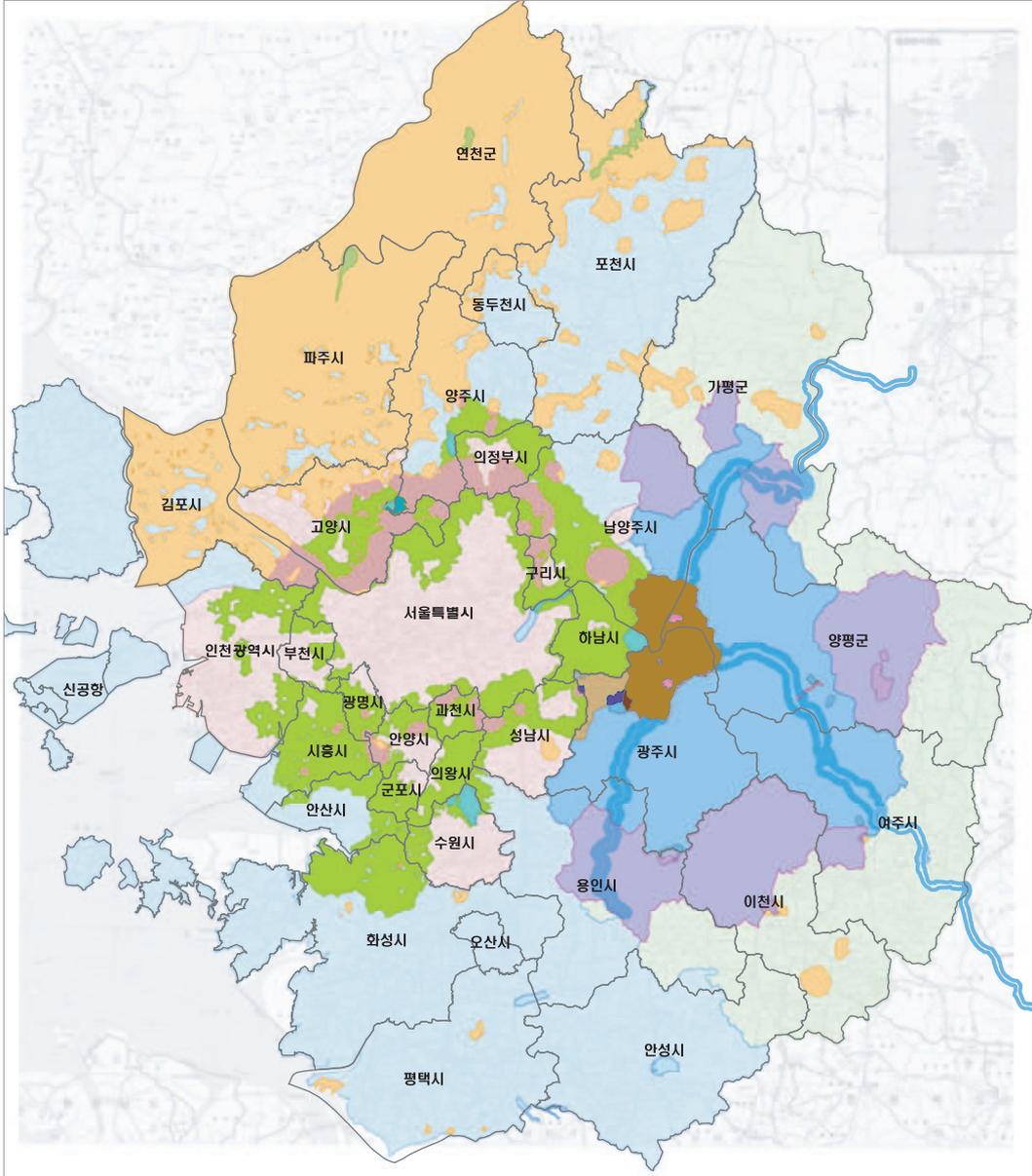
수도권규제정책의 또 다른 목표인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전국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이분법(二分法)으로 구분하여, 수도권은 모두가 잘 사는 곳으로 규제가 필요한 지역으로, 비수도권은 발전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지역이라는 잘못된 가정을 전제로 수도권 문제를 접근하는 것도 문제다.

1982년에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시행 된 지 30년이 경과되었으나, 여건 변화에 대한 주변상황의 고려 없이 수도권의 범위를 획일적으로 관리하고 있어 정책이 현실을 뒷받침 하지 못하고 있다. 각종 지표가 반증하듯 낮은 재정자립도와 인구감소 등 낙후된 군(郡)지역을 수도권에 포함 관리하는 등 불합리한 규제를 일률적으로 적용함에 따라 지역 간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수도권 내 일부지역을 낙후지역(落後地域)으로 전락시키고 있다.

특히, 수십년 동안 지역불균형, 국가안보와 수도권 주민의 맑은 물 공급을 위해 희생해온 경기북부의 접경지역이나 팔당상수원 특별대책지역을 중심으로 한 경기동부 자연보전권역은 생활여건이 전국 평균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낙후지역이다. 이처럼 획일적인 수도권 규제를 적용하여 주민의 일상생활에 엄청난 고통과 함께 지역의 잠재된 역량을 사장(死藏)시키고 있어 지역경제에 막대한 손실과 함께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알아두기 수도권 낙후지역의 실상

- 최근 10여 년간 지역경제 침체로 낙후도 심화
- 재정자립도(2014년 전국평균 45%) : 동두천 17.3%, 연천 19.2%, 가평 18.5%
- 자연보전권역내 공장의 98.5%가 개별입지로 난립되어 있는 실정



범례

- (3)국립역사문화유적지
- (3)국립자연경관지역
- 자연환경보전권역
- (2)3개권역&개발제한구역
- (2)3개권역&군사시설보호구역
- (2)3개권역&상수원보호구역
- (2)자연환경보전권역&달양특별대책1권역
- (2)자연환경보전권역&달양특별대책2권역
- (2)자연환경보전권역&수원구역(기타지역)
- (3)자연환경보전권역&달양특별대책1, 2권역&수원구역
- (3)국립역사문화유적지, 행정관리권역&개발제한구역&군사시설보호구역
- (3)국립자연경관지역, 행정관리권역&상수원보호구역&개발제한구역
- (3)행정관리권역&상수원보호구역&군사시설보호구역
- (3)자연환경보전권역&달양특별대책1권역&개발제한구역
- (3)자연환경보전권역&달양특별대책1권역&군사시설보호구역
- (3)자연환경보전권역&달양특별대책2권역&군사시설보호구역
- (4)행정관리권역&상수원보호구역&개발제한구역&군사시설보호구역
- (4)자연환경보전권역&달양특별대책1권역&개발제한구역&군사시설보호구역
- (4)자연환경보전권역&달양특별대책1권역&상수원보호구역&개발제한구역
- (4)자연환경보전권역&달양특별대책1권역&상수원보호구역&군사시설보호구역
- (5)자연환경보전권역&달양특별대책1권역&상수원보호구역&개발제한구역&군사시설보호구역

* () : 중복규제사항을 합산한 개수



| 경기도 규제도 |

글로벌 경제와 수도권 정책

① 수도권 정책의 평가와 국제경쟁력 약화

현행 수도권 규제정책은 수도권을 규제하면 공장·학교 등의 시설이 지방으로 분산되어 균형발전(均衡發展)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가정에서 출발하였으나, 수도권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을 규제한 결과, 수많은 기업들이 지방이 아닌 해외로 발길을 돌렸다.

2005년 7월 대한상공회의소(大韓商工會議所)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 규제로 지방이전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은 9% 미만이며, 2007년 6월 전국경제인연합회(全經聯) 자료에는 주요 대기업의 33%가 해외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2006년 11월 한국개발연구원(KDI) 보고서에 따르면 수도권 기업의 40%가 향후 10년 이내 해외 이전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WEF(스위스 세계경제포럼)의 2013년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148개국 중 25위로 전년대비 6단계 하락하였다. 국가경쟁력 평가순위가 2007년 11위를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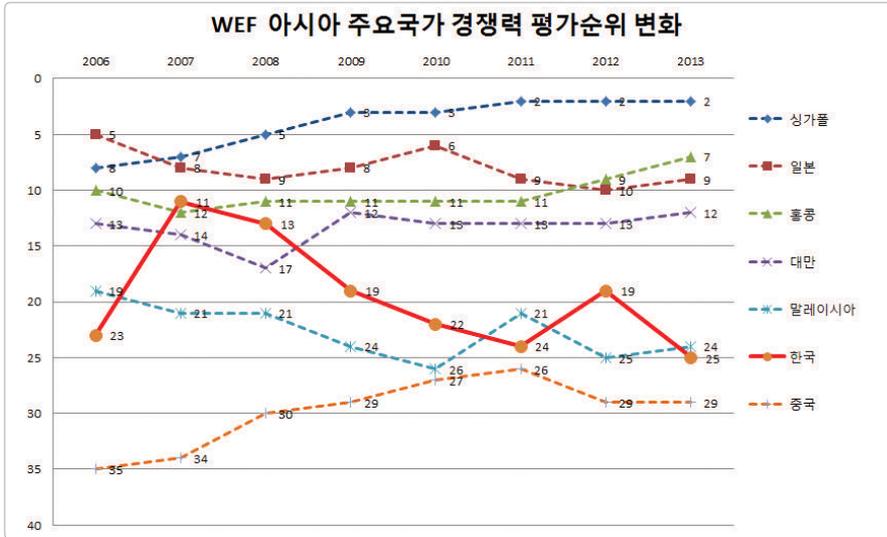
평가항목 중 제도적 요인이 74위로 평가되어 전년대비 12단계 하락함에 따라 전체 국가경쟁력 순위하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으며, 제도적 요인의 세부평가 항목 중 '정부규제 부담'이 80위(전년대비 27위 상승), '법체계의 효율성(규제개선 측면)'이 101위(전년대비 5위 하락)로 평가됨에 따라 우리나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정부의 규제개선이 가장 시급한 과제임을 시사하고 있다.

아시아 주요 국가 중에서는 싱가포르가 2위(12년 2위), 일본이 9위(12년 10위), 홍콩이 7위(12년 9위), 대만이 12위(12년 13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중국의 경우 현재 한국보다 4단계 낮은 29위에 머물고 있으나, 2007년 34위에 비해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같은 기간 동안 14단계나 하락하였다.

싱가폴, 홍콩, 일본, 대만 등이 꾸준히 상위권을 확보하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 WEF 아시아 주요국가 세계경쟁력 평가순위 변화



국가명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싱가폴	8	7	5	3	3	2	2	2
일본	5	8	9	8	6	9	10	9
홍콩	10	12	11	11	11	11	9	7
대만	13	14	17	12	13	13	13	12
말레이시아	19	21	21	24	26	21	25	24
한국	23	11	13	19	22	24	19	25
중국	35	34	30	29	27	26	29	29

※ 출처 : 『WEF 세계경쟁력 평가결과』(06~13) 기획재정부

■ 세계 주요 대도시권 경쟁력 비교 (동아일보 미래전략연구소 메가시티 리전 2009년 6월)

대도시권	면적(km ²)	인구 (만명)	인구밀도 (명/km ²)	1인당GDP (천달러)	경쟁력 순위	대도시권의 범위
뉴욕권	33,725	2,150	637	55.9	1위	뉴욕, 뉴아크, 브릿지 포트 등
런던권	20,590	1,550	752	37.3	2위	런던, 잉글랜드 남부 및 남동부
동경권	13,281	3,440	2,590	32.9	3위	동경시, 사이타마현, 지바현, 가나가와현
파리권	12,001	1,113	927	41.9	6위	파리, 일드프랑스
수도권	11,686	2,344	2,005	19.6	11위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북경권	28,560	2,122	742	6.8	13위	북경시, 텐진

OECD는 2006년 「글로벌 경제시대의 도시경쟁력 보고서」에서 한국의 수도권 규제를 통한 균형정책(均衡政策)을 실효성(實效性)이 없는 것으로 평가하고 정책의 전환을 권고하기도 하였다. 현 시대는 국가가 기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국가와 지역을 선택하는 시대이며, 우리나라의 경쟁 구도는 국내의 '수도권 대 지방'이 아니라 세계의 대도시 간 경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규제 일변도의 경직된 수도권 정책과 반(反)기업적 정책으로는 인구와 산업의 집중 억제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오히려 수도권의 성장잠재력(成長潛能力)을 살리지 못하여 세계 대도시권간의 경쟁에서 뒤처지는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 이제는 현행 성장억제정책을 과감하게 탈피함은 물론, 수도권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국가 성장동력(成長動力)으로 이어 나갈 수 있도록 정책의 전환이 시급한 시점에 와있다.

■ 우리나라 수도권의 경쟁력 지표 (Arthur D. Little, 2005, 국토해양부 용역보고서 결과)

구 분	기업경쟁력	산업인프라	환경쾌적성	사회결속력
한 국	15점	33점	30점	16점
선진 대도시권 평균	26점	47점	52점	19점

② 선진국의 수도권 정책전환 사례

(ㄱ) 일본의 수도권 정책



| 일본 신주쿠 도심부 |

일본은 '잃어버린 10년'으로 상징되는 지난 1990년대의 국가경제 파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균형발전 정책을 폐기하고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글로벌 경쟁시대에는 대도시권의 경쟁력이 국가발전의 원동력'임을 인식하고 수도권 경쟁력 강화 정책과 지방분권정책으로 전환한 것이다. 일본은 2002년 수도권 기성시가지의 공업 등 제한법 등 대도시권 규제를 폐지하고 경제 대도시의 기틀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2002년을 기점으로 기업들의 지속적인 투자증가와 해외투자 기업들의 U턴 현상을 가져 왔다. 공장 착공면적을 살펴보면 2002년 850만㎡에서 2004년 1,250만㎡, 2006년에는 1,570만㎡로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 기업들의 경영환경이 개선되고 있음

을 반증하고 있다. 이는 국가경쟁력의 상승으로 나타났으며, IMD(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 국가경쟁력 순위가 2002년 30위에서 2006년에 17위로 13계단이나 상승하였다.

(L) 영국의 수도권 정책

영국은 IMF 관리체제를 계기로 기존 수도권 규제 철폐를 국가적 과제로 인식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일대 변혁을 꾀했다. 영국의 대도시권 정책은 무엇보다도 ‘경쟁력 강화’가 가장 우선순위에 있으며, 특히, 런던의 경쟁상대인 파리권과의 경쟁에 관심을 갖고 고급 우수인력 양성, 비즈니스 서비스 강화 등에 중점을 두고 진행했다. 기존의 런던권 이외 지역과의 격차 해소 문제에서 대도시권의 경쟁력 강화로 정책의 무게 중심이 옮겨간 것이다.

(C) 프랑스의 수도권 정책

프랑스는 전후 급속한 인구증가와 경제성장, 폭발적인 도시화로 인해 국가 주도로 수도권 집중억제와 국토균형개발 정책을 시행하였으나, 1980년대에 들어서 기존 수도권 억제정책을 포기하고 지방분권과 국제 경쟁력강화정책으로 전환했다. 국가계획을 대신하는 지역계획을 수립, 이를 통해 지역 내 사회적, 경제적, 공간적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전환했다.

③ 경기도 수도권 중첩 규제

수도권에 가해지는 대표적인 규제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규제, 개발제한구역 규제,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 및 한강수계 규제를 들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수도권정비계획법과 환경정책기본법, 한강수계 수질보전(水質保全)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수도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산업집적(産業集積)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과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농지법 등 모두 10여 개의 규제법과 제도가 거미줄처럼 얽혀 기업의 경제활동과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

■ 경기도내 규제지역 현황 (단위 : km²)

규 제 명	면 적	행정구역 대비(%)	전국규제 면적대비(%)	전 국	
수도권정비계획법	10,172.3	100.0	86.1	11,818.3	
- 과밀억제권역	1,169.0	11.5	58.2	2,010.1	
- 성장관리권역	5,172.8	50.9	86.5	5,977.6	
- 자연보전권역	3,830.5	37.6	100.0	3,830.5	
군사시설보호구역	2,396.7	23.6	39.9	6,008	
팔당유역	개발제한구역	1,175.5	11.6	30.6	3,847.7
	특별대책지역	2,096.5	20.6	75.0	2,796.6
	수 변 구 역	145.3	1.4	12.1	1,199.99
	상수원보호구역	151.7	1.5	12.3	1,234.9

※ 자료 : 수도권 권역(2012, 지역정책과), 군사시설보호구역(2012, 군관협력담당관), 개발제한구역(2013, 지역정책과), 팔당특별대책지역·상수원보호구역·수변구역(2012, 팔당수질개선본부)

※ 특별대책지역 및 상수원보호구역 전국면적(환경부, 2010), 수변구역 전국면적(환경부, 2011)

(ㄱ) 수도권정비계획법 규제

인구 및 산업을 적정 수준으로 재정비 분산 배치하고 광역적 관리를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법정계획안을 마련하고자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제정하였는데 이 법률은 수도권정비계획의 수립, 과밀부담금 부과, 인구집중유발 시설의 입지 제한, 총량 규제 등을 도입하였다. 또한 수도권을 과밀억제권역(過密抑制圈域), 성장관리권역(成長管理圈域), 자연보전권역(自然保全圈域)의 3개 권역으로 설정하고 권역별로 산업입지, 대학과 대학원 신설 및 정원 제한, 공공청사 건립 제한, 대규모 개발사업 규모제한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체제의 가장 큰 문제는 행정구역 위주로 획일적으로 짜인 권역제도이다. 과밀억제권역이라도 자연을 보전해야 할 지역이 있고 자연보전권역이라고 해도 개발이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도권의 지역별 여건에 대한 현실적 고려가 없는 권역 설정과 권역별 규제 방식은 태생적 문제를 지니고 있다.

행정편의로 설정된 수도권의 범위와 3대권역 설정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불합리하게 설정된 권역의 조정을 통해 낙후된 지역주민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나아가 권역제도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안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L) 개발제한구역 규제

1971년 1월에 개정된 도시계획법에 근거하여,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생활환경을 확보하는 동시에 보안상 도시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도시 주변지역에 대한 개발제한구역(開發制限區域)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도시외곽지역 개발규제를 법제화(法制化)하였다. 2013년 12월말 현재 경기도의 개발제한구역은 전국 개발제한구역 면적 3,847.7km²의 30.6%인 1,175.5km²에 달하며, 31개 시·군 중 21개 시·군이 지정되어 있다. 이중 GB지정면적이 전체의 50%이상 차지하는 지역이 8개 시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도내 대부분의 개발제한구역들이 시흥시와 하남시의 경우처럼 녹지는 없고 창고만 무성해져 ‘그린 없는 개발제한구역’, ‘창고벨트’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이며, 녹지보전 기능을 이미 상실한 도심지역 내 개발제한구역마저도 공장 등의 입지를 원천적으로 제한함으로써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 불법적인 난개발(亂開發)만 심화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개발제한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개선하는 동시에 친환경적인 개발을 허용하는 등 합리적 규제와 적절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관리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

(C) 군사시설보호 규제

지난 반세기 동안 국가 안보(安保)를 위해 고통을 감내해야만 했던 접경지역(接境地域). 그러나 행정구역에 의한 획일적인 규제로 인해 접경지역을 포함한 경기 북부지역은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는 낙후지역으로 전락한 상태이다. 경기북부지역은 전체 면적의 44%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다. 최전방 지역인 접경지역조차도 행정구역상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공장 신·증설은 물론 대학신설 등이 원천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주민 생활에도 규제가 심하다. 허물어져 가는 노후 주택은 물론 화장실의 보수마저도 군부대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군사훈련 등으로 기물이 파괴되거나 효순·미선이 사고와 같이 안전상의 위협에 노출되는 일도 종종 있다. 이와 같이 2중 3중의 규제로 인하여 날이 갈수록 주민들의 고통만 심화되고 있다.

효순·미선 사고

2002년 6월 13일 발생한 미군 장갑차 여중생 압사사건으로 당시 14세였던 신효순·심미선 양이 6.6미터의 도로를 걸어가던 중 훈련을 위해 이곳을 교차 통과하던 미군의 궤도차량과 전차에 깔려 사망한 사건

(㉔) 한강수계 규제



| 상수원 보호구역 간판 | 상수도 보호구역에는 많은 규제가 있어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한강수계에는 환경정책기본법, 수도법,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에 의해 크고 작은 규제들이 총망라되어 있다. 이렇게 상수원 보호를 위한 직접규제를 가하는 강력한 환경관련 법령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강수계 보전이라는 목적으로 '자연보전권역'을 지정하는 등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규제가 중복되어 있다. 한강수계 지역은 대부분 전국 평균 이하의 낙후지역임을 감안하여 수계보전(水系保全)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역은 수도권의 권역에서 제외 하거나 정비발전지구로 지정함으로써 규제를 완화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 정비발전지구(整備發展地區)로 지정하고 배출기준을 강화하면 수질 오염 우려는 전혀 없다. 수질은 지켜 나가되 불필요한 중복규제는 철폐해야만 하는 것이다.

■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권역별 주요 규제내용

구 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목 적	- 과밀화 방지 - 도시문제 해소	- 이전가능 수용 - 자족기반 확충	- 한강수계 보전 - 주민불편 해소	
인구 (12,093천명)	6,644천명(54.9%)	4,391천명(36.3%)	1,058천명(8.8%)	
면적 (10,172.3km ²)	1,169.0km ² (11.49%)	5,172.8km ² (50.85%)	3,830.5km ² (37.66%)	
해당 시·군 (과밀·성장 각 14개 시·군, 자연보전 8개 시·군)	의정부, 구리, 남양주(일부), 하남, 고양,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광명, 과천, 의왕, 군포, 시흥(반월특수지역 및 반월특수지역해제지역 제외)	동두천, 안산, 오산, 평택, 파주, 남양주(일부), 용인(일부), 연천, 포천, 양주, 김포, 화성, 시흥 (반월특수지역, 반월특수지역 해제지역), 안성(일부)	이천, 남양주(일부), 용인(일부), 가평, 양평, 여주, 광주, 안성(일부)	
공 장 입 지	산업단지 내	신·증설 허용	신·증설 허용	
	대 기 업	공업지역내	- 신·증설 금지 · 기존: 3천m ² 이내 증설 · 첨단: 200%이내 증설 · 현지근린: 1천m ² 이내 신·증설	- 신·증설 금지 · 기존: 기존부지내 증설 · 첨단: 증설 허용 · 현지근린: 5천m ² 이내 신·증설
		기타지역내	- 신·증설 금지 · 기존: 1천m ² 이내 증설 · 첨단: 100%이내 증설 · 현지근린: 1천m ² 이내 신·증설	- 신·증설 금지 · 기존: 3천m ² 이내 증설 · 첨단: 200%이내 증설 · 현지근린: 5천m ² 이내 신·증설
	산업단지 내	신·증설 허용	신·증설 허용	
공장건축총량	공장총량제 물량배정(500m ² 이상 공장, 단 사무실·창고 제외)			
공업지역 지 정	금 지 (위치변경만 심의후 허용)	가 능 (30만m ² 이상 심의후 허용) * 산업단지의 경우 물량배정 (수도권 산업단지 공급계획)	가 능 (3만~6만m ² 이하 심의후 허용) * 별도 물량배정없이 산업단 지 지정 (6만m ² 이하)	
개발사업	- 택 지: 100만m ² 이상 심의 후 허용 - 관광지: 10만m ² 이상 심의 후 허용		<오충제 미시행> 6만m ² 이하 심의허용 <오충제 시행> · 택지(도시) 10만m ² 이상 심의 허용 · (비도시) 10~50만m ² 심의허용 · 관광지-3만m ² 이상 심의 허용 3만m ² 이상 심의 후 허용	
대 학	신 설	금 지 * 산업대학·전문대학(서울제외), 대학원대학, 간호전문대학을 간호 대학으로 신설 및 대학과 전문대 학간 통폐합으로 인한 신·증설· 이전허용(수도권심의)	금 지 * 산업대학·전문대학·대학원 대학·50인 이내 소규모대학 신설 허용, 신설된 지 8년 미만 소규모 대학 증원 및 대학과 전문대학간 통폐합으로 인한 신·증설·이전 허용(수도권 심의)	금 지 * 전문대학·대학원대학·50인 이 내 소규모 대학 신설 및 증원 (신설된 지 8년 미만, 대학과 전문 대학간 통폐합으로 인한 신·증설· 이전허용(수도권심의))
	이 전	부분허용 과밀 ⇒ 과밀(수도권심의), 과밀 ⇒ 서울 금지	부분허용 수도권 ⇒ 성장	부분허용 자연 ⇒ 자연, 전문·대학원대학, 50인 이내 소규모 대학 이전
	증 원	매년 총량으로 규제		
대형 건축	- 판매용 15,000m ² - 업무용 25,000m ² - 복합용 25,000m ²	과밀부담금 부과 (경가지역 제외)	허 용	오염총량제 시행 시·군 입지 허용
연수시설 - 연면적 30,000m ² 이상	금 지	심의 후 허용 (이전·기존 20%내 증축 허용)	심의 후 허용 (오염총량제 시행 시·군)	

* 공장은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의 입지규제 내용임



2. 수도권정비계획법 관련 규제

제정 취지

대한민국의 급속한 경제개발 정책에 따라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수도권(전 국토 면적의 11.8%)에 인구 및 산업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다. 이에 국가안보상의 취약성, 지역 간의 격차유발(隔差誘發)과 교통난, 주택난, 공해, 범죄 등 도시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인구 및 산업을 적정하게 재정비·배치하고 광역적인 차원에서 수도권의 질서 있는 정비를 위한 중앙 정부차원의 법정계획안을 마련하기 위해 1982년 국토의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제정되었으며 1994년 전면 개정을 통해 현 제도의 틀을 갖추게 되었다.

■ 수도권 권역의 변화 : 1차 정비계획 → 2차 정비계획

이전촉진권역	집중규제	→	과밀억제권역	집중억제
제한정비권역	과밀억제		성장관리권역	개발유도
개발유도권역	이전수용		자연보전권역	환경보전
자연보전권역	한강보전			
개발유보권역	특수개발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에서 토지의 이용·개발 등에 있어 다른 법령보다 상위 법률로서 수도권정비계획의 수립, 권역구분 및 권역별 행위제한, 과밀부담금 부과(서울시만 적용), 공장·대학의 총량규제(總量規制)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수정법은 수도권을 과밀억제지역, 성장관리지역, 자연보전권역의 3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권역별로 산업입지, 대학과 대학원 신설 및 정원 제한, 공공청사 건립 제한, 대규모 개발사업 규모 제한 등의 규제를 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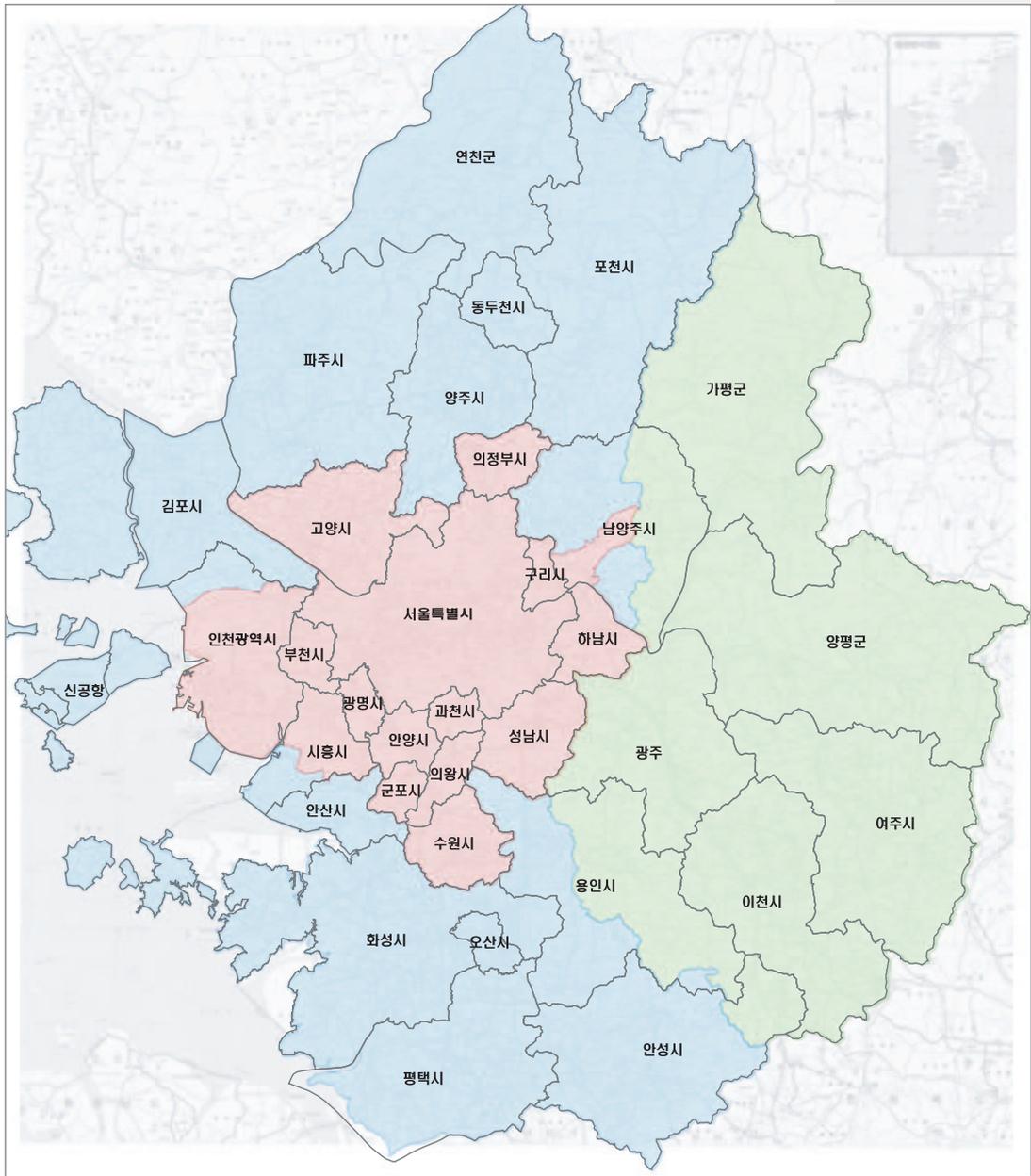
수도권 정비계획법 주요 내용

① 수도권의 '3대권역' 현황

- 과밀억제권역(過密抑制圈域) : 인구·산업의 과도한 집중 또는 집중우려가 있어 이전·정비가 필요한 지역
- 성장관리권역(成長管理圈域) : 과밀억제권역으로 부터 이전하는 인구와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산업의 입지와 도시의 적정개발이 필요한 지역
- 자연보전권역(自然保全圈域) : 한강수계의 수질 및 녹지 등 자연환경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 수도권 정비의 5개권역 |



범례

- 성장관리권역
- 과밀억제권역
- 자연환경보전권역



| 경기도 권역별 규제현황도 |

수도권정비위원회

위원장(국토교통부장관), 위원(각 부처 차관, 서울·인천 부시장, 경기도 부지사, 국토해양부장관 위촉위원 6명) 등 총 18명 구성. 수도권정비위원회 운영·심의 절차

② 수도권 정비계획(법 제2조 제2호, 법 제3~5조)

수도권정비계획은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의 집중을 억제하고 이를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하여 국토기본법에 의한 국토종합계획을 기본으로 하여 수립한 계획으로서 수도권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都市計劃),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토지이용계획·개발계획 등에 우선하며 그 계획의 기본이 된다. 그리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수도권정비계획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토지이용계획, 개발계획 등의 수립·시행을 금지하고 있다.

수도권정비계획의 주요내용을 보면 수도권 정비 목표와 기본 방향, 인구와 산업 등의 배치, 3대권역의 정비, 인구집중유발 시설 및 대규모 개발사업 관리에 관한 사항, 광역적 기반시설과 상하수도 시설 정비, 환경보전, 기타 수도권 정비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으며, 수도권의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 공급면적을 전국 산업단지 면적의 20% 이내로 제한 관리한다는 목표하에 공업용지 공급 물량제(物量制)를 통해 성장관리권역 내 공업용지를 제한적, 선별적으로 공급 관리하고 있다.

수도권정비계획의 수립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계획안을 입안하여 수도권정비위원회(首都圈整備委員會)의 심의를 거치고 국무회의(國務會議)의 심의와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이를 시행한다. 수도권정비계획 수립현황은 아래와 같다.

■ 수도권정비계획 연혁

1984. 07	제1차 수도권정비계획기본계획(1982~1996) 시행
1997. 06	제2차 수도권정비계획(1997~2006) 시행
2006. 07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2006~2020) 시행

※ 수도권내 시·도는 소관별 추진계획을 마련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행

③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입지제한(법 제2조 3호, 법 제7~9조, 법 제19조)

시설별 입지규제 내용을 보면 4년제 대학은 수도권에서 신설·이전을 원칙적으로 금지, 과밀억제권역에서의 이전과 수도권에서 성장관리권역으로 이전은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용하고 있다. 2년제 대학의 경우(산업대학, 전문대학, 대학원대학 등), 권역에 따라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증설, 이전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57쪽 참조)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유형

공공청사(公共廳舍)의 경우 유일하게 3대권역에 동일한 입지규제를 적용하여 공공청사의 신축은 부 단위 중앙행정기관에 한해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용하고 증축·임차 등의 경우에는 동일한 심의 절차를 통해 중앙행정기관, 소속기관을 비롯한 공공법인(公共法人)의 입지를 부분 허용하고 있다.

업무용·판매용·복합용 시설은 수도권의 3대권역 중 경기도 지역만 해당되고 있는 자연보전권역 내 건축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오염총량제 시행지역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지 않으며, 그 외 권역에 대해서는 별도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서울시에서 대규모 시설을 건축할 경우에는 과밀부담금 부과 대상으로 정하고 있고, 과밀부담금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50%, 자치단체 50%로 배분한다.

연수시설(研修施設)에 대한 규제로는 과밀억제권역은 신축 금지, 자연보전권역은 원칙적으로 기존시설에 한해 10% 범위 내 증축의 경우에만 허용하되, 오염총량제 시행지역에 한하여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설·증설을 허용하고, 성장관리권역에서는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한적으로 신설·증설을 허용하고 있다.

알아두기

인구집중유발 시설의 유형

- 학 교 : 대학, 교육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대학원대학, 소규모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급 학교
- 공 장 : 건축물의 연면적(제조시설, 사무실, 창고 제외) 기준 500㎡ 이상
- 공공 청사 : 부·처·청 등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의 청사, 정부 투자·출자·출연 및 개별법에 의해 설립된 공공법인으로 연면적 기준 1,000㎡ 이상
- 업무용시설 : 주용도가 업무용, 연면적이 25,000㎡이상 건축물
- 판매용시설 : 주용도가 판매용, 연면적이 15,000㎡이상 건축물
- 복합용시설 : 주용도가 업무+판매용, 연면적이 25,000㎡이상 건축물
- 연수 시설 : 교육원, 직업훈련소, 자동차관련시설, 연면적이 30,000㎡이상 건축물

④ 대규모개발사업 규제(법 제2조 제4호, 법 제7~9조)

대규모 개발사업의 규제는 수도권정비계획과 연계하여 수도권의 공간개편(空間改編)과 거점 중핵도시(中核都市) 개발을 위한 정책적 방안으로 1990년대 이전까지는 강력한 규제 장치로 활용 되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심의절차를 거치는 의무이행 성격으로 규제의 정도가 부분적으로 완화되었다.

제도시행 초기에는 소수의 국책사업(國策事業)에 한해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통해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되었으나, 노태우 정부의 주택 100만 호 건설계획에 따른 정부 주도 수도권 제1기 신도시(분당, 일산) 건설 등을 계기로 수도권 내 대규모 개발사업이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현재, 대규모 개발사업에서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용하나, 수질 및 환경보전 목적의 자연보전권역에서는 강력히 규제하여 사업유형에 관계없이 3만^m² 미만의 사업에 한하여 허용, 3만^m² 이상~6만^m² 이하는 심의를 거쳐 허용하고, 6만^m²를 초과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원천적으로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오염총량제관리계획 시행지역에서 시행하는 택지조성, 도시개발, 지역종합개발은 도시지역에서 10만^m²이상, 비도시지역에서 10만^m²~50만^m²까지 심의 후 허용하며, 관광지는 3만^m²이상 심의 후 허용한다.

⑤ 공업지역의 관리 및 입지제한(법 제2조 제5호, 법 제7~8조)

공업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업지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地區單位計劃區域) 및 개발진흥지구(開發振興地區)로서 공업용으로 구획되는 면적이 3만^m² 이상인 지역으로 분류한다.

알아두기 대규모 개발사업의 유형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

- 택지 조성사업 : 택지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 대지조성사업, 산업단지 및 특수 지역내 주택지조성사업 등으로 조성면적이 100만^m² 이상인 사업
- 공업용지 조성사업 : 산업단지 개발사업, 특수지역 개발사업, 자유무역지역 조성사업, 중소기업 협동화단지 조성사업, 공장용지 조성사업 등으로 조성면적이 30만^m² 이상인 사업
- 관광지 조성사업 :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사업, 관광시설 조성사업, 유원지 설치사업, 온천시설 설치사업 등으로 조성면적이 10만^m² 이상인 사업
- 도시개발 사업 :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조성면적이 100만^m² 이상인 사업
- 지역종합 개발사업 : 지역종합 개발사업 등으로 조성면적이 100만^m² 이상인 사업

※자연보전권역은 개발규모 등 별도 적용

공업지역의 기본적인 정책목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집중된 산업을 성장관리권역으로 분산 수용한다는 원칙하에 수도권정비계획을 통해 공업용지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과밀억제권역은 공업지역의 신규지정을 금지하고 기존 공업지역의 총 면적을 증가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체지정(代替指定)만을 허용한다. 현재 과밀억제권역에서는 기존 공업지역의 총면적을 증가시키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위치를 변경하여 공업지역을 지정할 수 있으나, 기존 공업지역의 폐지와 신규지정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가능하므로 대체지정이 사실상 곤란한 문제가 있다. 따라서 대체지정지역의 점진적 교체를 위해 일정기간(3~5년) 중복지정을 허용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성장관리권역은 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하는 공장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거나, 공장 밀집 지역의 재정비(再整備), 기타 산업정책상 필요한 경우에 공업용지 공급 총량을 통해 제한적으로 공급하며, 자연보전권역에 대해서는 규모 6만㎡을 초과하는 공업용지 조성사업을 금지하고 있어 공업용지에 대한 관리 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고 있다.

⑥ 총량규제 (법 제18조, 영 제 21~24조)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장 및 학교가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하지 않도록 총 허용량을 정하여 이를 초과하는 신설·증설 또는 용도변경을 제한할 수 있으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총량규제(總量規制)의 내용과 다르게 공장 또는 학교의 신설·증설 또는 용도변경의 허가·인가·승인·협의 등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장에 대한 총량규제로서 공장의 제조시설 및 그 부대시설을 포함한 건축물의 신축·증축 또는 용도변경 연면적을 기준으로 적용하며, 공장 총 허용량의 산출은 과거 3년간의 공장건축량 등을 기초로 산출하여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3년 주기의 시·도별 총 허용량을 결정한다. 수도권 시·도에서는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집행 관리하고 있다. 학교에 대한 총량규제는 대학·교육대학의 입학정원 증원과 입학정원이 50인 이내인 소규모 대학의 신설 허용여부 및 총 학생수의 증원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산업대학·전문대학의 입학정원은 전년도 전국 대학생 입학정원 총 증가수의 10% 이내로 제한하고 대학원대학



| 무의미한 총량규제 때문에 투자기회를 놓친 도내 기업 |

은 매년 300인 이내로 별도 총량을 정하여 그 범위 내에서 대학의 신설·증원을 규제한다. 현재 전국의 총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향후에도 지속될 경우에는 총량 자체가 발생되지 않아 2년제 대학의 신설도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대학규제에 대한 변화와 혁신이 요구된다.

분야별 입지규제의 문제점

① 공장입지 규제

수도권 규제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것은 공장입지(工場立地) 규제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근거하여 공장의 규모별, 입지별 규제를 명시하고 있어, 공장설립이나 공장의 규모(신·증설 규모) 결정, 업종의 선택이나 전환 등 시장변화에 따른 신속적이고 자유로운 기업 활동은 불가능한 실정이다. 또한 규제 형식도 공장의 입지에 따른(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규제 외에 산집법에 의하여 기업의 종류(대기업, 중소기업), 제품의 업종(첨단업종 여부), 기존 공장(2009년 1월 16일 공장등록을 한 공장) 여부에 따라 신·증설 여부가 결정되고 있다. 그러나 규제내용이 복잡하여 이해하기가 어렵고 허용 여부를 개별적인 사례로 결정하기 때문에 기업활동의 예측가능성(豫測可能性)을 저해하고 있다.

산집법상 허용되는 공장이라 하더라도, 환경정책법상의 특별대책지역일 경우 환경 규제가 가해져 공장설립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되는 등 불합리한 중첩적인 규제를 받고 있다. 따라서 수도권 내에서는 시장수요에 따른 자유로운 기업활동이라는 시장경제의 기본원칙이 심각하게 제한 받고 있는 실정이다.

수도권에서 대기업의 공장 신·증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해 왔으나 2009년 1월 16일자 산집법 시행령 개정으로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의 산업단지에는 업종이나 규모에 제한 없이 대기업의 신·증설을 허용하였고 공업지역 및 기타지역에서도 첨단업종 대기업 기존공장의 증설규모를 확대해 주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입지규제가 존재하고 있으며, 특히 자연보전권역에서는 입지규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세계 각국이 외자 유치 및 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국익을 도모하는 글로벌 시대에 우리나라는 기업들을 각종 규제로 묶어 세계와의 경쟁에서 낙오할 위기에 처해 있다. 기업규제 일시철폐(一時撤廢)가 어려울 경우 단계적인 개선을 통해서라도 기업 활동을 보장해 주는 공장 신·증설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상 수도권 공장 신·증설 규제 현황

구 분	대기업		중소기업
	산업단지	제한없음	제한없음
과밀 억제 권역	공업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공장 증설(3,000㎡이내) • 기존공장 기존부지내 증설 • 첨단업종 기존공장건축면적의 200%증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형공장 신설 또는 증설 • 기존공장 증설
	기 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공장 1,000㎡이내 증설 • 도시형공장 첨단업종 신·증설(1,000㎡이내) • 첨단업종 기존공장건축면적의 100%증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형공장 기존공장의 증설 • 도시형공장 첨단업종 신·증설 • 기존공장 증설
성장 관리 권역	산업단지	제한없음	제한없음
	공업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첨단업종 기존공장 증설(제한없음) 	제한없음
자연 보전 권역	기 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첨단업종 기존공장건축면적의 200%증설 • 기존공장 증설(3,000㎡이내) • 기존공장 기존부지내 증설 	제한없음
	산업단지	신·증설금지	도시형공장 신·증설(3,000㎡이내)
	공업지역	첨단업종 신·증설 (1,000㎡이내) 신·증설금지	도시형공장 신·증설(1,000㎡이내)
기타	첨단업종 신·증설 (1,000㎡이내)	도시형공장 기존공장의 증설(3,000㎡이내)	

- 대기업 : 자본금 80억 원이상,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중소기업기본법)
 - ※ 상시근로자수 1,000명이상,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인 경우 포함
- 기존공장 : 2009년 1월 16일 현재 공장등록을 한 공장
 - ※ 관련 법률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공장의 신설 등의 제한)
 - ①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는 공장건축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의 공장(식산산업센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신설·증설 또는 이전하거나 업종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민경제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조성 등을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461개(통계청) 모든 제조업종을 제한 없이 허용
 - ※ 기타 간접적 입지규제 : 취득세, 등록세 3배 증가, 재산세 5배 증가(5년간), 법인세 각종 세액공제 불인정



| 대학 유치가 좌절된 부지 | 이천시

② 대학규제

수도권은 4년제 대학 신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2년제 대학도 제한적으로 허용하기 때문에 수도권에서는 전반적으로 대학의 경쟁력이 점점 약화될 수밖에 없다. 기업 경쟁력 강화의 핵심인 우수인력 양성을 위한 연수시설의 입지마저 규제 대상시설에 포함하여 기업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인재양성의 길이 원천적으로 막혀 있는 상황이다.

경기도내 대학 입학생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수도권 내 대학의 획일적 입지규제로 인해 지방 등 원거리로의 통학이 늘어나고, 이에 따른 교육·교통비 등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비용의 증가는 국가적 손실이 아닐 수 없으며, 특히 소득이 낮은 낙후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

양질의 교육을 받는 것은 국민의 권리이자 국가의 의무로서 국가가 앞장서서 우수한 교육여건을 조성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학교를 인구집중유발 시설에 포함하여 규제하고, 인구 억제와 균형발전의 수단으로 교육의 기회를 제한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정책이다. 따라서 주요거점 지역별로 경쟁력 있는 대학의 설립을 허용하고 더불어 재정 지원도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③ 한강관련 중첩 규제

한강수계는 환경정책기본법, 수도법,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등의 환경 관련 법제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에 의해 크고 작은 규제들이 총망라되어 있다.

상수원 보호를 위한 환경 관련 법령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자연보전 권역을 설정, 중첩규제하고 있어 해당 지역주민들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다. 공업용지 조성사업 규모제한은 환경시설, 기반시설 등이 갖춰진 계획적 개발을 원천 차단함으로써 오히려 수질오염 및 난개발을 가중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 자연보전권역 내 소재 공장의 96.8%(2011년 기준)가 소규모 개별입지이며 이들이 난립하여 주거와 산업환경을 악화시키고, 첨단·청정산업까지 획일적으로 입지를 규제하는 등 자생력을 갖추지도 못한 채 지역경쟁력이 최하위 수준으로 전락하고 있다.

관광산업(觀光産業)은 환경 친화적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국가 전략산업으로 적극 육성하고 있으나, 천혜의 자연경관 등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자연보전권역을 수도권이란 이유만으로 규제하고 있다. 주 5일 근무제 이후, 수도권의 여가 수요는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관광지 조성사업 규모 제한으로 인해 불법·편법에 의한 소규모 여가·관광시설만이 난립하고, 업무용·판매용·복합용 시설의 건축을 금지하여 제대로 된 백화점·대형할인점 등의 주민편의시설마저 전무한 실정이었다. 그러나, 오염총량관리제도 도입을 전제로 관광지와 대형건축물을 허용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이 '09. 1. 16 개정되어 제한적이거나 규제완화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한강수계 지역은 생활여건이 대부분 전국 평균 이하의 낙후지역임을 감안하여 수계보전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오염총량제를 시행하여 엄격한 배출규제를 적용하는 지역은 수도권에서 제외하거나 자연보전권역에서 성장관리권역으로 조정하는 등 수질은 지켜 나가되 불필요한 수도권 중복규제를 철폐하여 지역 균형발전의 길을 하루빨리 열어 주어야 할 것이다.

수도권 정책의 전환방향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가장 큰 문제는 단순하게 행정구역 위주로 획일적으로 짜여 진 권역제도라는 것이다. 과밀억제권역이라도 자연을 보전해야 할 지역이 있고 자연보전 권역이라고 해도 개발이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무엇보다도 수도권의 권역을 합리적인 근거에 의하여 구분하도록 법령에 지정기준과 범위를 명시하는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기업 입지에 대한 관리는 산집법에 기준이 있고, 특히 수도권 내 대기업 공장, 중소기업 등의 신·증설을 제한하는 규정을 동 법에서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에 공장총량제(工場總量制)를 넣어 공장건축과 공업용지를 총량으로 제한하는 중첩규제는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공량총량 규제는 마땅히 폐지되어야 한다. 현행 공장총량제는 수도권 내 공장설립 억제에 목적이거나, 현실은 총량이 부족한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익년도(翌年度) 총량으로 공장 건축에 착수하고 있어 기업 활동의 제약과 투자시기를 놓치게 하여 기업의 경쟁력만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해 왔다.

한편 수도권 내 대학의 입지규제를 비롯한 학생 수 증원을 제한하는 학교의 총량규

제에 대해서도 기존 수도권 시책 차원이 아닌, 국민에게 평등한 교육기회의 제공이라는 형평성 제고 차원으로 정책의 접근 방법을 달리하여야 한다. 수도권 내 대학은 서울을 중심으로 과밀억제권역에 집중되어 수도권 외곽지역에는 희망하는 대학이 적고 오히려 수도권 외곽지역 학생이 과밀지역으로 통학하게 되는 등 교통 혼잡, 교육비 지출 증가 등 사회적 비용증가 요인이 되고 있다.

행정편의(行政便宜)로 설정된 수도권의 범위와 3대권역 설정에 대해 우선적으로 불합리하게 설정된 권역을 조정하여 낙후된 지역주민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나아가 획일적인 권역제도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안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자연보전권역의 경우 환경관련 제도적 장치가 완비된 만큼 상수원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역은 수도권에서 제외하거나 성장관리권역으로 조정함으로써 상대적 낙후지역의 발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지난 30여년 간 지속된 획일적인 규제 일변도의 정책으로 수도권의 과밀지역은 더욱 과밀화된 반면, 수도권 외곽 지역은 점점 낙후하여 수도권 내 지역간 불균형이 위험 수위에 도달하고 있다. 각종 중첩규제에 기인한 인위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수도권, 특히 경기도의 접경지역과 자연보전권역에 대한 규제로 인한 피해를 보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수도권정비계획법 규제가 배제되는 정비발전지구 제도 등을 조속히 도입하고 수도권 낙후지역을 지구지정 범위에 포함시켜서 청정산업(淸淨産業) 유치 등으로 지역 성장거점을 육성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동두천시, 여주시, 연천군, 양평군, 가평군 등은 재정자립도가 전국평균(45%)에도 못 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군사시설보호와 수질보전을 위한 중첩규제를 받는 낙후지역이며 서울과의 통근율이 10%미만으로서 수도권으로 볼 수 없는 지역이므로 이러한 지역은 수도권에서 제외시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인구집중유발시설 및 기업 신·증설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여 지역의 자립경제기반을 확보함으로써 경기도의 균형적인 발전을 유도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21세기는 지방화 시대이다. 근본적으로 지방이 스스로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필요한 자립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정부의 권한을 이양함과 동시에 책임을 부여하는 지방분권형(地方分權型) 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국가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수도권에 대한 적절한 관리방안을 국가가 마련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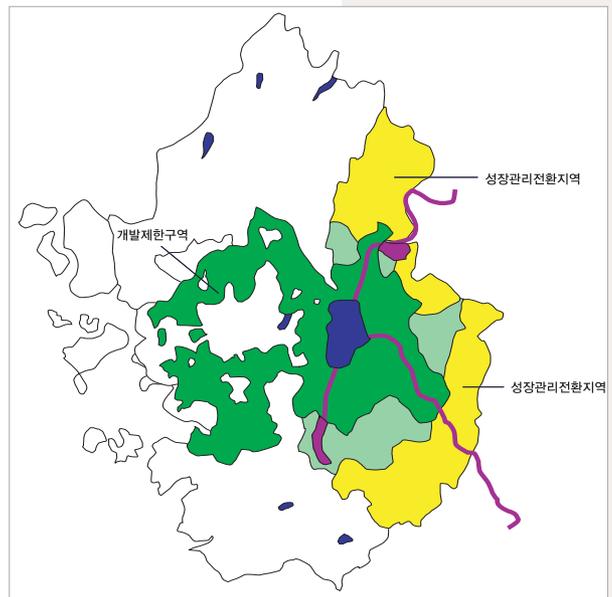
핵심규제의 폐지 등 제도개선 추진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인한 규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행법을 하루빨리 폐지하고,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관리방안을 담은 대체입법(가칭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확실한 방법이다. 대체 법률은 ▶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 ▶ 수도권 범위 재조정(군지역 및 재정자립도 30% 미만 시·군 제외) ▶ 3대 권역제도 폐지(과밀·성장 2권역으로 개편) ▶ 정비발전지구·산업집적육성지구 도입 ▶ 공장 총량제 폐지 ▶ 대학의 신·증설 허용 및 총량제도 폐지 ▶ 대규모 개발사업 규모제한 폐지 및 심의제 도입 ▶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분권형 계획체제 도입 ▶ 광역 거버넌스(governance) 체제구축 등이 필수적으로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수십년 간 지속된 수도권 규제정책을 폐지하는 대체입법을 당장 실현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의 불합리한 조항을 합리적으로 개정하여 국가경쟁력 제고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수도권 규제를 하나 하나 풀어 나가야 할 것이다.

첫째, 접경지역, 자연보전권역 등 수도권의 낙후지역을 정비발전지구에 포함해야 한다. 접경지역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상 특수상황지역으로 지정되어 정부도 특수한 지원조치가 필요한 지역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규제완화와 함께 실질적인 재정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수도권 주민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 설정한 자연보전권역 중 수질 보전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역은 정비발전지구에 포함시켜 낙후지역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생활여건을 마련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기업입지를 저해하는 공장총량제의 폐지와 대학총량 규제 및 대학의 신·증설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 셋째, 특별법 관리지역에 대한 수도권정비계획법 규제 특례를 마련해야 한다. 지역발전특구지역, 경제자유구역,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평택국제화지구 등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특별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역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 규제 적용을 철저히 배제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자연보전권역은 환경 및 수계 관리지역으로 한정하도록 권역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과도하게 설정된 자연보전

거버넌스(governance)

정부의 의미의 변화, 또는 공식적인 업무의 수행방법의 변화를 지칭한다. ‘정부(government)’는 공식적인 권위에 근거한 활동을 지칭하는 반면, ‘거버넌스’는 공유된 목적에 의해 일어나는 활동을 의미한다. 거버넌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중앙정부, 지방정부, 정치적·사회적 단체, NGO, 민간 조직 등의 다양한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네트워크를 강조한다. 정부는 기본적으로 동등한 입장에서 전체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조정자의 입장에 선다.



| 자연보전권역 개편(안) |

권역을 환경 및 수계 관련법에서 관리하는 지역으로 일원화하여 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오충제 도입지역 등 자연보전권역의 과도한 개발사업 규제를 대폭 개선하여야 한다. 소규모 난개발을 예방하고 기반시설이 갖추어진 계획적인 개발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합리적 수준으로 규모제한 규제를 개선하여 낙후지역의 발전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예시) • 공업용지 개발사업 6만㎡ 이하→100만㎡ 이하, 계획적 입지 유도

• 대학의 신·증설 및 이전유도

여섯째,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相生發展) 전략을 마련, 시행하는 것이다.

수도권 규제로 인한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첨예한 대립과 반목은 국가발전에 도움을 주지 못하므로 이를 조속히 해결하여야 한다.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 방안을 마련하여 지방도 수도권의 동반자로서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광역권 경계 지역을 중심으로 시·도 협력사업 발굴 및 공동 추진 또는 상생발전 협력사업을 위한 일정규모의 기금 또는 자원 조성 등이 그 방안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3. 개발제한구역 관련 규제

개발제한구역(Green Belt) 제도의 연혁

개발제한구역(開發制限區域) 제도는 20세기 영국의 런던지역설계보고서에서 폭 3~4km의 녹지를 런던 교외에 설정하는 것을 런던시의회에서 받아들여 1935년 4월 1일부터 실시하였다. 처음에는 법적인 규제력은 없었으나 토지주에 대한 보상과 이용제한을 위해 1938년 의회의 의결을 거쳐 그린벨트법이 제정되었다.

우리나라의 개발제한구역(開發制限區域)은 1960년대 이후 도시로의 인구집중 현상과 도시의 연담화(連擔化, onurbation) 등의 도시문제가 발생하자 도시의 평면적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1971년 도시계획법을 개정하여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1971년부터 1977년까지 8차례에 걸쳐 전국 14개 도시권역에 지정하였다.

이후, 2000년 1월 28일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어 개발제한구역의 조정(해제)이 이루어져왔다.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지정현황

2013년 12월말 현재 경기도의 개발제한구역은 31개 시·군 중 21개 시·군이 지정되어 있으며, 전국 개발제한구역 면적 3,847.7km²의 30.6%인 1,175.5km²에 달한다. 또한 서울,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면적 1,397.9km²의 84%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군별 면적비율로 살펴보면 21개 시·군 중 8개 시가 행정구역면적의 50% 이상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었다. (70% 이상, 의왕 86.4%, 과천 85.4%, 하남 77.4%, 의정부 71.1%)

■ 전국 및 수도권 대비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면적 비율 (2013년 12월 31일 기준)

전국 개발 제한구역(km ²)	수도권 개발제한구역(km ²)				경기도 면적비율(%)		개발제한구역 지정일
	합 계	서울	인천	경기도	전국대비	수도권대비	
3,847.7	1,397.9	149.7	72.8	1,175.5	30.6	84	1971.7.30 ~1977.4.18

연담화

중심도시의 팽창과 시가지의 확산으로 인하여 주변 중소도시의 시가지와 서로 달라붙어 거대도시가 형성되는 현상

현행제도의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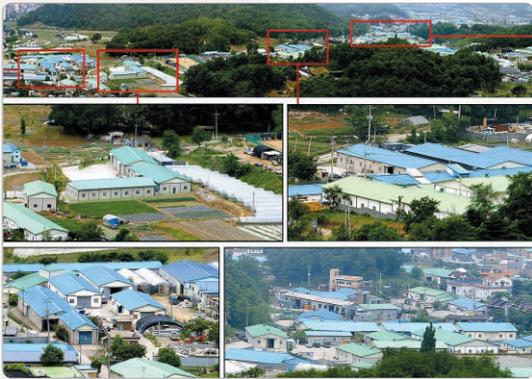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연담화(連擔化, conurbation) 예방과 환경보전을 목적으로 현재까지 지정, 관리되고 있으나 계속된 제도보완 및 구역해제에도 불구하고, 관리한다는 목적 이외에는 별다른 변화 없이 유지되어 오고 있다. 이로 인해 관리 및 이용에 있어 많은 문제점을 보여 왔다.

특히 변화하고 있는 국토공간구조(國土空間構造)와 조화를 이루지도 못하고 국민의 이해와 요구도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개발제한구역은 엄격한 규제대상으로 관리되어 왔으나, 관리계획에 따라 합법적으로 입지하는 공공시설과 불법시설이 난립하는 등 관리의 허점을 많이 노출하였다. 또한 획일적인 단속위주의 규제를 통해 녹지보전(綠地保全)이라는 본래의 취지는 상실하고 정작 개발제한구역의 녹지(그린)는 점차 사라져가고 있는 현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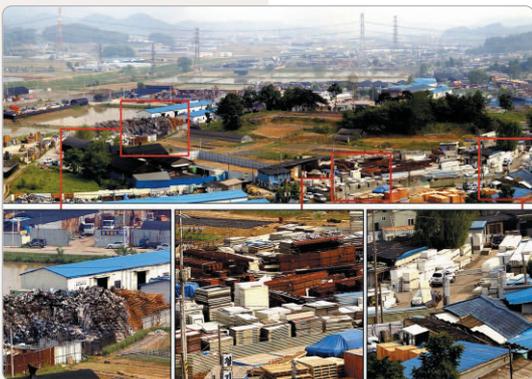
경기도 또한 이러한 문제점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행정구역 면적이 전국토의 10%이나, 전국 개발제한구역 면적 3,847.7km²의 30.6%인 1,175.5km²에 달하는 실정으로 과천·의왕시는 지역의 85%이상이, 하남·시흥·군포·의정부·구리시는 지역의 60%이상이 묶여 있다. 행정구역면적에 비해 과도하게 지정됨으로서 많은 문제점을 양산해 오고 있는 것이다.

경기도의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는 2013년 한해만 1,160건에 이르며 철거나 원상복구는 전체의 86.1% 수준인 999건으로 161건이 미조치 되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불법으로 건립된 건축물이 49건이며 토지형질 및 용도 변경 등이 112건에 이른다. 이런 여파로 개발제한구역에서는 녹지를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 대신 창고만이 들어차 있을 뿐이다. 하남시와 남양주시등 서울권과 가까워 물류센터 등을 조성하기에 적합한 여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개발을 추진할 수 없게 되자, 농업용 창고나 축사를 무단 용도 변경하여 편법적으로 물류유통 창고로 활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는 도심지역 내 공장 및 물류창고(物流倉庫), 야적장



| 개발제한구역 실태 | 축사로 훼손이 극심한 지역(하남)



| 개발제한구역 실태 | 장장 3km가 야적장으로 형질변경(시흥)

(野積場)의 입지가 제한되자 교통접근이 쉬운 개발제한구역 내 집단화된 축사(畜舍), 버섯재배사 등을 불법 용도변경하여 물류창고나 공장으로 사용하고, 농지·임야를 불법으로 전용하여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편법이 자행되어진 결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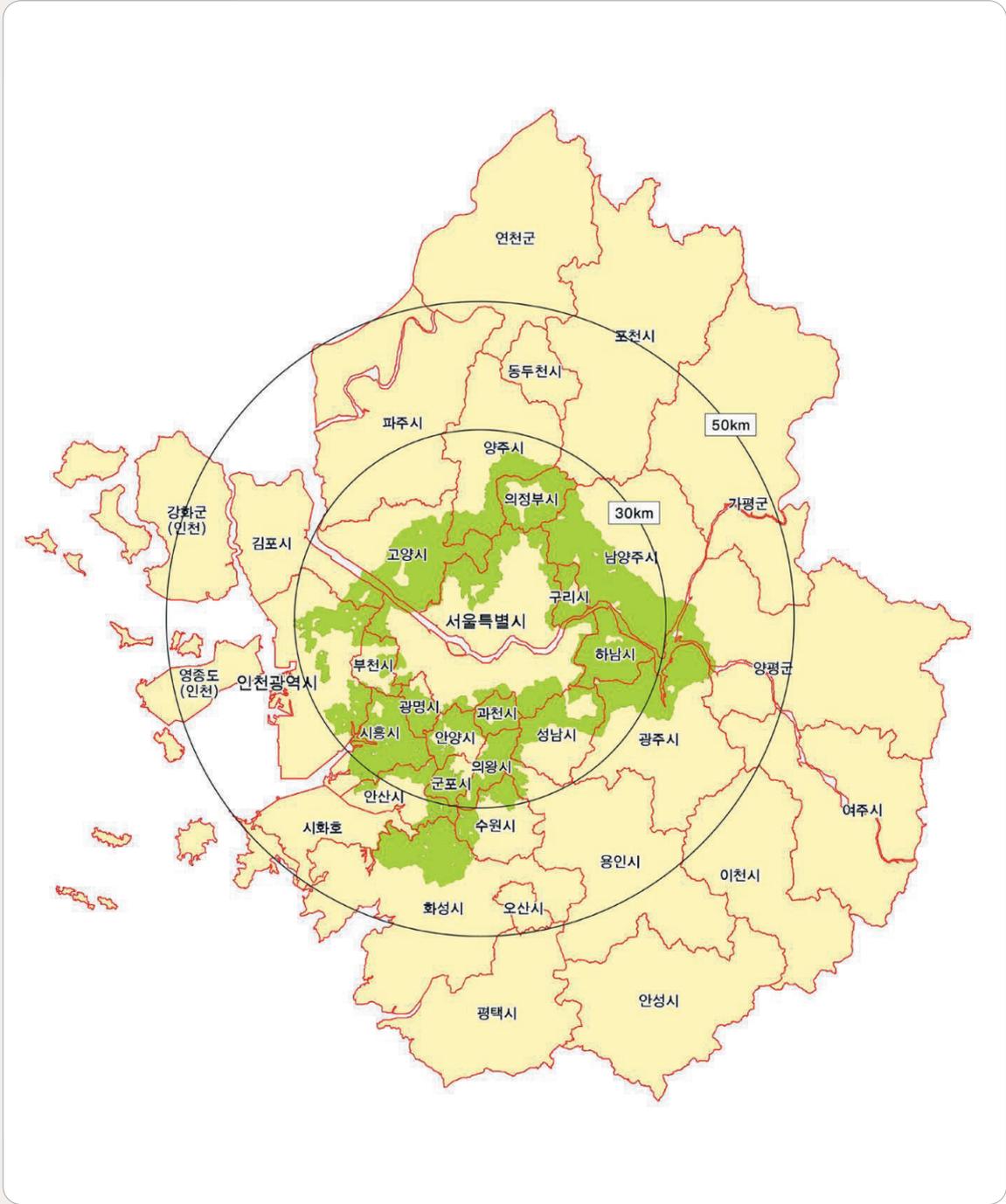
그런 반면 불법행위 단속 인원은 줄어들고 있다. 단속 정원경찰이 1997년 275명에서 2013년 60명으로 감소하였다. 시·군 당 10명이나 줄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한번 이행강제금(履行強制金)을 내면 불법을 면제받았다고 생각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경기개발연구원이 조사한 결과, 구역 주민의 38.5%만이 불법이라고 인식하고, 관리공무원도 63.2%가 불법이라고 답할 정도다. 이런 현실을 반영하듯 창고는 임대료에 이행강제금을 포함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렇듯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전환됨에도 적절한 제도개선 등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보다는 불법행위에 대한 반복적인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등 공권력에 의한 규제일변 관리정책만을 되풀이하여 범법자(犯法者)를 양산하고, 주민에 대한 지원책이 미미해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불법 시설이 생기는 원인 중의 하나는 주민지원사업 및 토지매수 규모가 적기 때문이다. 최근 3년간(10~12년) 전국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4,607억원 중 2,433억원(53%)을 경기도에서 징수했는데 그 기간동안 주민지원사업 등으로 지원받은 국고보조금은 22%인 996억원에 불과하여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우선 공원 등 친환경(親環境) 등의 설치가 용이하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권한을 도지사에게 위임하도록 하고, 구역을 훼손지역과 보존지역으로 세분화하여 엄격히 관리하며, 훼손된 지역의 경우 거주민(居住民)에게 이용 기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정비·복원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토지 매수율이 낮은 것도 문제다. 2013년까지 전국 1,265필지가 매수되었으며 그 중 경기지역은 465필지로 약39%만이 매수되었다. 주민지원사업이 인지도 및 만족도 등에서 기대에 못 미쳐 주민체감효과(住民體感效果)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렇듯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전환됨에도 적절한 제도개선 등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보다는 불법행위에 대한 반복적인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등 공권력에 의한 규제일변 관리정책만을 되풀이하여 범법자(犯法者)를 양산하고, 주민에 대한 지원책이 미미해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도내 대부분의 개발제한구역들이 과천시와 하남시의 경우처럼 녹지는 없고 창고만 들어서 있는 실정이며, 녹지보전 기능을 이미 잃어버린 밀집 도심지역 내 개발제



|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지도 |

한구역마저도 공장 등의 입지를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기업들이나 지역 주민들은 “이름뿐인 그린벨트를 차라리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불만의 소리를 높이고 있다.

1999년부터 개발제한구역 지정의 실효성이 낮은 지역에 대한 해제가 이뤄졌지만 이것 또한 여전히 문제를 안고 있다. 집단 취락지구(聚落地區)를 우선적으로 해제해 주다보니 축사 등의 건축으로 훼손이 극심한 지역을 제외시킴으로써 형평성의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된 것이다. 개발제한구역이 과다 지정된 시·군에 대해 공간정책적인 측면에 대한 고려가 미흡했기 때문이다. 또한 이로 인해 도시기반 및 자족시설 개발용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지는 현상마저 초래했다.

국토개발에 있어 도시계획권과 개발권한의 정합성의 부재도 새로운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국민임대주택 및 보금자리주택의 저렴한 아파트를 공급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사업을 진행했다. 각종 개발활동 제한으로 편법이 판을 치는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해도 개발제한 규제를 개선해 주지 않다가, 주택건설사업 추진 시에는 해당 지자체와는 관계없이 국책사업(國策事業)으로 추진해 버린 것이다.

지자체와는 별도로 국책사업이 진행되는 바람에 지자체는 아파트 건설에 따른 부담만을 안게 되었다. 아파트건설은 중앙정부에서 하지만 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반 시설 등을 갖추는 데 들어가는 사회복지비, 기반시설 조성비, 유지관리비 등은 결국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 그린 없는 그린벨트 지역 | 과천시 과천동 · 주암동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방안

그동안 개발제한구역에 대해 무조건 개발을 제한하는 식의 획일적인 단속은 이렇듯 많은 문제점을 불러 일으켰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그 피해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이렇듯 개발제한구역내 주민 및 기업인 등을 비롯한 경제활동을 하는 모든 사람들의 피해 및 문제점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동안 경기도는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경제활동과 관련한 제한사항을 면밀한 조사 등을 통하여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 중앙정부에 수십차례 건의하는 한편, 현지실정을 설명하고 줄기찬 협의와 설득을 통하여 개발제한구역 관계법령의 개정의 큰 역할을 해왔다. 특

BTL 방식

건설-이전-임대(Build-Transfer-Lease)를 뜻하는 것으로 정부가 선정한 분야에서 민간사업자가 시설을 건설한 뒤 정부에 소유권을 넘겨 20~30년간 정부로부터 임대료와 부대사업 수입을 받는 사업방식

히, '09.8.7. 개정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규칙의 경우 20여건 이상의 개발제한구역내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 및 건의를 통하여 17건 이상의 법령개정 성과를 이루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개선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개발제한구역은 아직도 개선해야 할 많은 과제들이 남아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발제한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개선하는 동시에 친환경적인 개발을 허용하는 등의 합리적 규제와 적절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관리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

광역시계획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물량으로 불법 창고, 공장 등을 정비, 집단화하여 개발제한구역을 주민의 여가공간, 쾌적한 주거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해제취락의 정비를 유도하고 개발제한구역내 주민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거주하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정비 재원의 원활한 조달을 위해 우선해제지역을 포함할 경우 최소한의 수익시설(공동주택 및 상업시설 등) 입지를 허용하여야 한다. 만약 정비권역에 수익시설사업이 없고 정부의 재원확보가 어려울 경우 민자유치(BTL)방식을 이용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불법 용도변경 건축물에 대하여도 매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확대하여 매도 장려 등 적극적인 불법 해소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관리계획체제를 도시기본계획 등과 연계하여 구역 내 주요지표와 관리전략을 제시하는 종합적인 정책계획으로 전환하여야 할 것이다. 우선 승인권한을 국토교통부장관에서 도지사에게 위임하도록 하고, 구역을 훼손지역과 보존지역으로 세분화하여 엄격히 관리하고, 이용기회 제공을 통한 정비·복원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4.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

현황

군사시설보호구역(軍事施設保護區域)은 크게는 국가안보를 위해, 작게는 해당 군사기지의 작전임무를 위하여 지역에 소재한 기지 및 기지주변의 토지이용제한을 위해 설정된 지역이다. 중요 군사시설 보호, 작전환경의 보장 및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을 근거로 설정되어 있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의해 군사분계선으로부터 25km 내의 지역과 기타 지역의 경우 군사시설 최외곽 경계선으로부터 500m까지의 범위 내에서 설정할 수 있으며, 고도의 군사활동 보장이 요구되는 군사분계선(軍事分界線) 인접지역과 기타 중요한 군용시설(軍用施設)의 기능보전이 요구되는 구역에 설치한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으로 구분되어 있다. 전국 군사시설보호구역은 6,009km²로 전국행정구역 면적의 6%에 해당하며, 경기·강원·인천에 집중되어 있다. 현재 경기도내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27개 시·군 2,397km²로서 도 전체면적의 23%(강원도 2,784km², 도 전체면적의 16%)에 해당되며, 경기북부지역은 전체면적 4,266km²의 45.2%인 1,930 km² 면적이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특히 연천(98%, 661km²), 파주(91%, 610km²), 김포(81% 224km²) 지역은 80% 이상이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경기도에는 여단급 이상 군부대가 총 50개(북부 32), 사격·훈련장 117개소(북부 93) 135km², 군용비행장 26개소(북부 17)가 위치하고 있다.

문제점

군사시설보호구역 설정은 군사작전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이다. 그러나 국방과 안보라는 국가 전체의 편익을 위해 필요한 부담을 담당하는데 있어서, 규제지역 지자체와 주민들에게만 부담시키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으므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다.

지역개발 규제, 재산가치 하락 등 수십년 간 국가안보를 위해 묵묵히 희생해 온 경기북부지역 주민과 지자체에게 더 이상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해서는 안 될 것이다.



| 마을옆 포사격 모습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규정에 의하면 보호구역은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으로 구분하며, 통제보호구역은 군사작전에 민감한 지역으로 일체의 민간 개발활동이 불가하며, 제한보호구역 내에서는 지역개발과 관련하여 사전에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과 협의를 거쳐야 하는 등 주민생활의 편익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수도권정비계획법 보다 강력한 규제를 담고 있다.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개발이 억제될 뿐 아니라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시설(SOC)을 설치하는 데에도 제한을 받으며, 심지어 노후화된 주택을 개·보수할 때에도 관할 부대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경기북부지역은 광범위한 지역이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각종 개발이나 투자유치도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또한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접적지역이라는 점도 투자 기피현상을 초래하여 경기도 내에서도 남북간의 지역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특히 파주와 연천의 경우,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전체 면적의 90%가 넘고 있어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어렵다.

그러나 경기도의 꾸준한 문제제기로 2008년「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개정을 통해 일부 규제가 완화되어 2009년 이후 군협의 민원건수가 50% 이상 감소하였으며, 경기도-3군사령부 간 주기적인 ‘정책협의회’와 군전문가로 구성된 ‘민군정책팀’을 운영하여 對軍 협의를 강화함으로써 상당부분의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를 완화해 가고 있다.

■ 군사시설보호구역 제도변화

구 분	1972.12.26 군사시설보호법 제정	1981년 개정	1993년 개정	1997년 개정	2007.1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통합
통제보호	27km 이내 (통제·제한 구분 없음)	20km 이내	20km 이내	15km 이내	10km 이내
제한보호		27km 이내	25km 이내	25km 이내	25km 이내

알아두기 지역개발 관련 군과 협의해야할 사항

- 도로·철도·교량·운하·터널·수로 등과 그 부속공작물의 설치 또는 변경
- 하천 또는 해면의 매립과 준설 및 항만의 축조 또는 변경
- 제한보호구역 내에서의 주택, 기타 구조물의 신축 또는 증축
- 통신시설의 설치 및 사용
- 광물·토석 또는 토사의 채취
- 조림 또는 임목의 벌채
- 토지의 개간 또는 토지형질의 변경

일부 규제사항 완화에도 불구하고 경기북부의 낙후정도는 전국 평균과 비교하면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2006년 기준 1인당 지역총생산액은 1,168만 원으로 전국 평균 1,855만 원의 63%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1,000인 이상 사업체의 수는 타 9개 도 평균이 15개이지만 경기북부는 4개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한 고속도로연장 38km, 국가 산업단지 2개 등에서 보듯이 전국평균 혹은 9개 도 평균에 현저히 적은 저발전(低發展)의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지역의 지역발전 제한이나 주민의 개인 재산권행사 제한 등의 불이익을 보상할 수 있는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 군 협의 민원처리 현황 (2006년~2013년)

연도별	계	동의	조건부 동의	부동의	기타(회송, 취하 등)
계	37,658	18,071	10,330	6,285	2,972
2006년	6,817	3,562	1,223	1,473	559
2007년	6,818	3,898	1,246	1,186	488
2008년	7,293	3,498	1,943	1,351	501
2009년	3,711	1,651	1,128	544	388
2010년	3,596	1,536	1,282	466	312
2011년	3,109	1,111	1,097	557	344
2012년	3,059	1,200	1,323	355	181
2013년	3,255	1,615	1,088	353	199

개선 방향

경기도의 경우 서울과 접해 있는 이유로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제한 및 개발제한구역 뿐만 아니라 군사시설보호라는 2중, 3중의 개발 제한에 묶여 규제에 따른 피해가 가중되고 있음에도 지원과 보상은 매우 부족한 형편이다. 예를 들면 군산 직도사격장의 경우 9개 사업에 3,342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나 포천 영평사격장의 경우 직도사격장보다 130배 더 큰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지원은 전혀 없고 규제만 잔뜩 쌓여있다. 이처럼 최전방 접경지역으로서 국가안보의 최일선에서 60여 년간 희생을 감내해온 지역에 대하여 국가 차원의 지원이 너무나 미흡한 상황이며, 국가안보상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존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면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원과 보상을 충분히 해주어야 한다. 경기북부지역에 산재한 각종 군 시설 및 훈련장 등으로 인한 소음, 진동, 비산먼지 따위는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



| 전북 군산 직도사격장 |

■ 경기 포천 영평 사격장과 전북 군산 직도 사격장 비교표

구 분	영평사격장	직도사격장
위 치	경기도 포천시 영증면 영평리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말도리
면 적	4,093,456평 (* 직도사격장의 130배)	31,376평
용 도	미군전용 사격장(1950~)	한미공동 사격장(1971~)
정부지원	없음	3,000억 원(2006 발표)
입지여건	사격장 입구 및 사격장 주위에 영평초교 및 주택가 밀집	군산시 서쪽 끝단에서 59km 떨어진 무인도



| 포천 영평사격장 | 항공사진

전투기 사격장 주변 또는 포 사격장과 탄착지(彈着地) 중간에 위치한 마을의 경우에는 오폭(誤爆), 유탄(流彈) 등의 위험에도 노출되어 있다

한 예로 2006년 10월 포천시 승진사격장에서 훈련 중이던 F-15 전투기의 연습탄이 민가에 떨어져 주택과 차량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처럼 지역주민들의 재산피해는 물론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이 수시로 일어나고 있다.

2008년 법 개정을 통해 일부 완화가 되었으나 일률적인 벨트개념의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인해 아직까지 불필요한 지역까지 보호구역으로 설정되어 지역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재산권과 인명까지 위협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사보호구역 내 주민 및 지자체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는, 첫째 군사시설보호구역 범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지역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고, 둘째 오랜 세월 동안 유·무형의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최전방 접경지역 주민들에 대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지원 및 합당한 보상이 반드시 실시되어야 한다.

또한 군사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사업을 통하여 균형적인 발전과 삶의 질을 증진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 헬기 저공비행 피해 |



| 전투기 오폐수 주택 피해 |



| 도로변 토사 유출 |

5. 한강수계 관련 규제

현황

강원도 태백시 검룡소에서 발원한 남한강과 금강산 옥적봉에서 발원한 북한강이 합류되는 지점에 위치한 팔당댐은 수도권 전역의 전력 및 용수 공급과 홍수 예방을 위해 1966년 6월 공사를 착공하여 1973년 12월 완공되었다. 현재 팔당호는 2,500만 수도권 주민의 식수원으로, 상수원보호를 위해 팔당상류지역은 환경정책기본법 등 다수의 법령으로 규제를 받고 있다.

한강수계에는 환경정책기본법, 수도법,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에 의한 크고 작은 규제들이 총망라되어 있다.

이렇듯 많은 환경관련 법령을 통해 상수원을 보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에 또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자연보전권역에 의한 규제가 중첩되어 있다. 특히 환경관련 규제들은 지극히 구체적이고 세세한 경우까지 규정하고 있어서 규제의 강도가 매우 심한 편이다.

팔당호의 수질보전을 위해 제정된 환경관련 법들은 행위제한 내용을 내포하고 있어 지역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제약하고 있다. 또한 국가균형발전 및 인구과밀억제를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은 팔당



| 팔당호 전경 |

7개 시·군을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하여 지역의 계획개발이 거의 불가능한 실정으로 난개발을 야기해 오히려 수질관리에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으며, 개발여력이 없어 수도권에 입지하고 있음에도 재정자립도 및 인구밀도가 전국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한강수계지역 주민에게 수도권 주민의 식수원 공급지역으로서 수십년 간 지속된 일방적인 규제의 불편을 더 이상 요구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시대착오적 이분법(二分法) 논리로는 국제 경제전쟁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처해있다. 수질보전을 위해서는 획일적이고 중첩된 규제정책으로부터 탈피하여 합리적인 환경정책을 마련해야 하며, 특히 상수원관리지역에 대한 규제의 틀을 새로이 마련해야 하는 시기가 되었다.

규제 연혁

1973년 조성된 팔당호가 수도권 광역상수원(廣域上水源)으로 사용되면서 수질보전을 위한 규제가 대폭 강화되어 왔다.



① 개발제한구역 지정 : 1972년 8월 25일

우리나라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호하여 도시민의 생활환경을 확보하는 동시에 보안상 도시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팔당유역은 351.67km²(남양주시, 광주시, 양평군, 용인시 일부지역)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건축 및 용도 변경, 도시계획사업 시행 등에 제한을 받고 있다.

알아두기 한강수계지역 낙후 지표

- 재정자립도(2014년 전국평균 45%) : 양평 20.6%, 가평 18.5%, 여주 33.1%
- 인구밀도(2013년 전국 평균 520명/km²) : 가평 73, 양평 119, 여주 183

② 팔당호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 1975년 7월 9일

수도법에 의해 팔당댐 상류 취수구 주변지역인 하남시, 남양주시, 광주시, 양평군 등 4개 시·군 158.8km²가 수도권 광역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다.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수질오염을 초래할 수 있는 각종 행위를 금지하고, 공장, 숙박시설, 음식점 등의 입지를 금지하고 있고, 농가주택과 주민공동시설 등 원거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건축물에 한해서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입지를 허용하고 있다.



| 팔당 취수지 | 하남시

③ 수도권정비계획법 자연보전권역 지정 : 1982년 12월 31일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 용인, 이천, 광주, 여주, 양평, 남양주, 가평 등 7개 시·군과 안성시 등 총 3,720km²를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자연보전권역에서는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증설 및 대규모 개발사업 등을 제한하고 있다.

④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전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시설 설치 제한지역 및 대상시설 지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강수계 11개 시·군(1990.4.2.) 및 임진강수계 4개시·군(1996.12.16.) 총 14개 시·군 4,490km²를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으로 지정·관리하고 있다.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에서는 폐수배출시설 중 특정수질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의 입지를 금지하고 있다.

※ 특정수질 유해물질 : 구리, 카드뮴, 유기인, 납, 비소, 수은, 페놀, 벤젠, 크롬 등 28종

※ 포천시는 한강 및 임진강 수계에 걸쳐 있음(임진강 수계에 포함된 철원군 제외)

⑤ 환경정책기본법 팔당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 1990년 7월 19일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에 의거해 환경부장관이 수도권의 식수공급원인 팔당 광역 상수원의 수질 보전을 위하여 용인, 남양주, 이천, 광주, 여주, 양평, 가평 등 7개 시·군 2,096km²를 팔당호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 특별대책지역 I 권역

과 Ⅱ 권역으로 구분해 지정·관리하고 있다.

특별대책지역 내에는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1일 200㎡ 이상인 폐수배출 시설의 입지를 제한하고 있으며, 음식점 등 오수배출시설은 할당받은 수질오염총량 범위 내에서 허용하고 있다.

- I 권역 : 팔당상수원 수질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거리(유달률 1/2 이상인 지역)
- II 권역 : 팔당상수원 수질에 간접 영향을 미치는 거리(유달률 1/3 이상 ~ 1/2 미만인 지역)

⑥ 한강수계 상수원수지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변구역 지정

: 1999년 9월 30일

145.323km²를 수변구역(水邊區域)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다. 수변지역은 팔당호, 남·북한강, 경안천의 양안 중 ‘특별대책지역 내에는 하천·호소의 경계로부터 1 km 이내, 특별대책지역 외의 지역은 500m 이내 지역’이 해당된다.

수변구역에서는 수질오염시설(폐수배출시설, 가축분뇨배출시설, 식품접객업, 숙박업, 목욕장업, 관광숙박업, 공동주택 등)의 신규 설치를 제한하거나 기존 개인하수처리시설(식품접객업 등)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⑦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건설교통부, 환경부 통합고시)

: 2005년 12월 16일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에 의해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개별공장입지의 선정기준 및 환경기준을 정하여 개별공장의 입지를 제한하고 있다.

자연환경보전지역, 생태계보전지역, 문화재보호구역, 접도구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취수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7킬로미터 초과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인 지역에서, 취수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7킬로미터 초과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10킬로미터 이내인 지역에서, 취수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7킬로미터 초과 15킬로미터 이내인 지역인 경우에는 개별공장입지의 지정승인을 할 수 있다.

다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및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유독물영업의 등록을 하거나 같은 법 제

34조에 따른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장은 제외한다.

특정대기·수질유해물질 배출업종, 연간 대기오염 물질 발생량의 합이 10톤 이상인 사업장, 금속의 용융(熔融)·제련(製鍊) 등 처리시설, 석유정제(精製) 및 석유화학 제품 제조시설, 1일 평균 폐수배출량이 500m³ 이상인 사업장, 염색시설, 가죽 및 모피제조시설 등에 대해서도 개별공장의 입지지정 승인이 금지된다.

⑧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골프장의 입지 기준 및 환경보전 등에 관한 규정으로 규제

골프장 사업계획지가 △광역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20km 이내, 일반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10km 이내, 취수장(상수원 보호구역 미고시지역의 경우)의 상류 방향으로 유하거리 15km 이내인 지역과 그 하류방향으로 유하거리 1km 이내인 지역에 위치하거나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특별대책지역 I 권역 내에 위치하는 경우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제한하고 있다. 다만 II 권역의 경우 오염총량계획에 반영할 경우 입지할 수 있다.

■ 팔당유역 규제 면적 (2014년 1월 1일 현재)

시·군	전체면적 (km ²)	규제면적(km ²)					
		자연보전 권역	특별대책 지역	수변 구역	상수원 보호구역	개발제한 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계	4,271.48	3,720.11	2,096.51	145.323	151.715	351.67	106.91
용인시	591.38	303.12	207.34	24.213	-	3.60	9.11
이천시	461.31	461.31	233.02	-	-	-	20.84
광주시	430.99	430.99	430.96	9.611	83.626	104.36	7.64
여주시	608.37	608.37	247.62	44.190	-	-	2.97
양평군	877.81	877.81	591.76	32.967	25.712	17.14	12.09
남양주시	458.06	194.95	194.92	8.094	42.377	226.57	27.03
가평군	843.56	843.56	190.89	26.248	-	-	27.23

※ 하남 7.1km² 상수원보호구역은 팔당댐 하류에 있어 제외

※ 팔당유역 7개 시·군 총규제실면적 3,962.55km² (자연보전권역 + 남양주시 개발제한구역 + 군사시설 보호구역중 남양주시 진접읍 진벌리 4.06km² + 진접읍 내각리 1.94km²)

주요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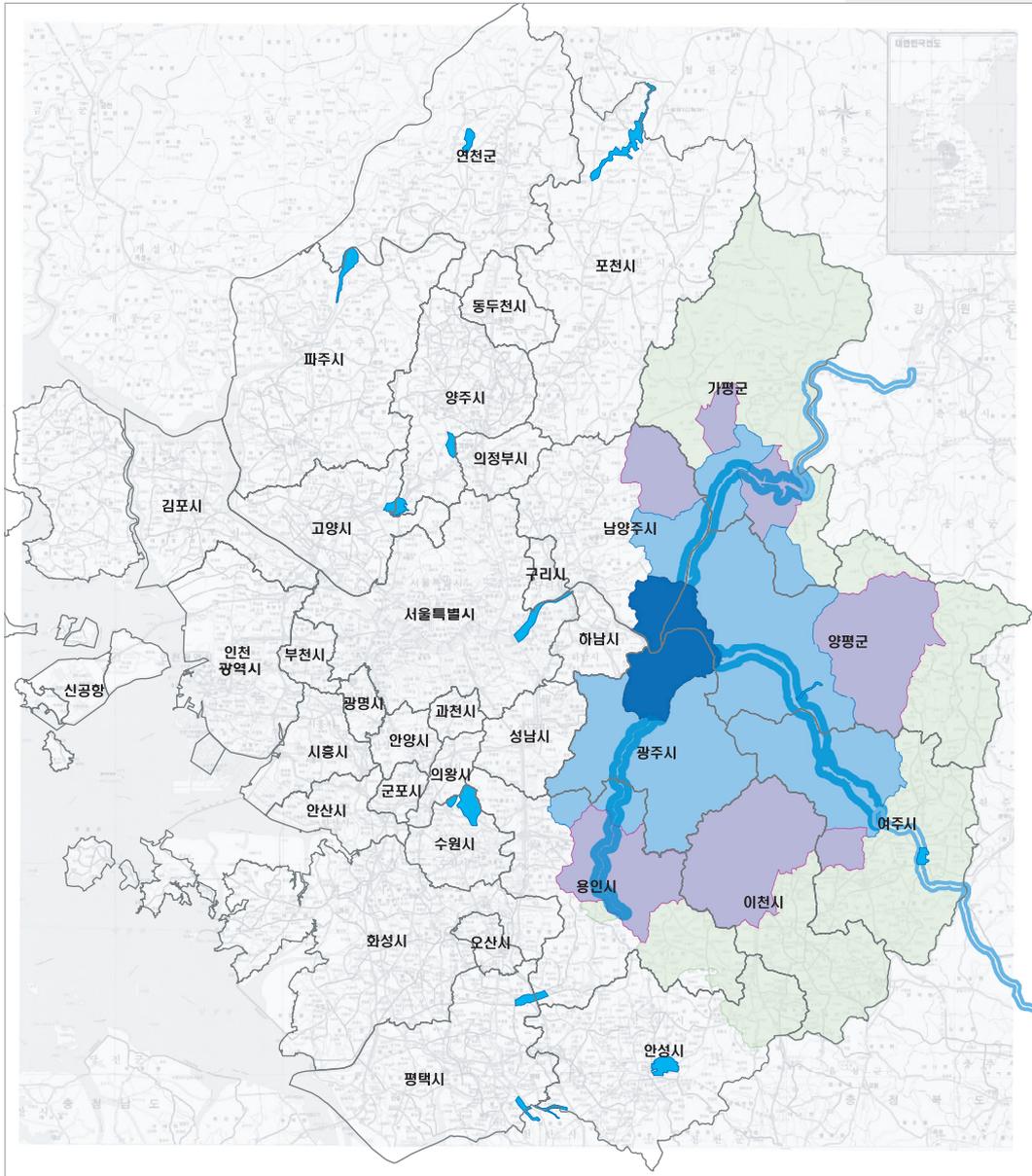
① 자연보전권역과 환경규제와의 중복성과 비합리적 차별규제

1990년 환경정책기본법이 제정될 당시 이미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는 자연보전 권역을 지정하고 있었는데 이때 환경정책기본법상의 특별대책지역과 자연보전 권역의 중복규제를 우려하여 자연보전권역을 해제하자는 움직임이 있었다. 그러나 환경부의 반대에 부딪쳐 자연보전권역이 존치하게 됨으로써 현재까지 중복 규제의 피해를 받고 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상 3개권역을 지정하여 권역별로 개발사업과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설치를 제한하고 있으나, 이는 수도권 각 시·군의 과밀수준, 발전 정도 및 주민의 생활환경 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규제로 수도권 안에서의 불균형을 초래하였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자연보전권역을 지정하여 개발 행위를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고시를 통해 수질보전특별대책 지역을 지정해 개발 행위를 중복 제한하고 있다.

자연보전권역의 주된 지정목적은 한강수계의 수질 및 녹지 등 보전을 목적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환경정책기본법 및 고시에 의한 특별대책지역도 팔당 상수원 수질보전을 목적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수도권정비계획법과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특별대책지역 지정 범위는 동일한 목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면서도 범위가 서로 달라서 불합리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같은 한강수계임에도 경기도만 규제하기 때문에 경기도 외의 한강수계인 접도지역과 격차가 날로 심화되어 주민들의 불만과 피해의식만 커지고 있다.



범례

- 팔당특별대책1권역
- 팔당특별대책2권역
- 팔당특별대책1권역&상수원보호구역
- 상수원보호구역
- 수변구역(기타지역)
- 수변구역(특별대책지역)
- 자연환경보전권역

축척 : 1/500,000
 0 3 6 12 18 Kilometers



팔당유역 7개 시·군 규제 현황도 |
 용인, 이천, 광주, 여주, 양평, 남양주, 가평

■ 경기도와 강원도의 규제 비교 (2012년 기준)

구 분	경기도 가평	강원도 춘천
인구수 (천 명)	59	273
지방세 징수 (백만원)	59,431	73,126
5인 이상 제조업체수 (개)	70	2,568

수 계	경기도(규제)	타 도(미규제)
홍천강	양평 일원	강원 홍천 일원
북한강	가평, 양평, 남양주 일원	강원 춘천, 화천 등 일원
섬 강	여주, 양평 일원	강원 원주 일원
청미천	이천 일원	충북 음성 일원
남한강	광주, 양평, 여주, 이천 일원	충북 음성, 충주, 제천, 단양 등 일원, 강원 원주 일원

- 명성천, 산음천(양평)은 홍천강에서 합류하여 북한강 유입
⇒ 명성·산음천은 규제, 홍천강은 비규제
- 부평·석곡천(여주)은 섬강에서 합류하여 남한강으로 유입
⇒ 부평·석곡천은 규제, 섬강은 비규제
- 팔당댐에서 유하거리 80km 이상 되는 가평(북면), 여주(강천, 이천장호원), 안성(일죽) 등은 규제, 유하거리 50km에 불과한 강원 춘천, 홍천군은 제외
- 한강수계에 포함되지 않는 용인시 원삼면 고당리, 문촌리와 안성시 삼죽면 내강리를 자연보전권역에 편입



| 무분별하게 세워진 공장 | 광주시 초월면



| 계획적으로 세워진 동화첨단의료산업단지 |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또한 체계적으로 수질 관리가 가능한 대규모 관공시설이나 첨단공장 등의 입지마저도 원천적으로 제한하기 때문에 오히려 난개발(亂開發)만 조장하는 결과를 낳았다. 입지한 대부분의 공장이 소규모이며 96.8%가 개별입지로 난립해 있는 상황

이다.

용인·남양주·이천·광주·여주시, 양평·가평군 7개 시·군내 자연보전권역 면적은 경기도 전체의 37.7%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인구는 8.6%에 불과하다.

이처럼 수도권의 과밀화와 무관한데도 불구하고 이 지역들에 대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규제를 예외 없이 적용하여 낙후지역의 발전 기회를 제약하고 있다. 각 지역의 낙후는 곧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키고 더 나아가 국가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② 수질오염총량관리제와 환경규제와의 중복성

한강수계는 수질오염총량관리제(水質汚染總量管理制)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해 동일한 목적의 특별대책지역 등 중복규제가 지속되고 있다. 이는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지역의 행위 제한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대책지역을 지정하여 중복규제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의 경우이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시행하는 시·군은 특별대책지역 내 행위제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내용을 개선하여 불필요한 중복 규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강수계지역에는 건축면적 500㎡ 이상 공장의 신·증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수많은 기업들은 면적 제한과 다양한 환경적 제한에 걸려서 공장 신·증설을 포기하고 있다. 이처럼 중복규제로 인해 수질보전은 커녕 소규모 공장이 난립하여 자연환경 훼손이 심하고 지역의 난개발만을 조장하고 있는 현실이다.

③ 팔당호 수질관리 일원화

발전전용 댐인 팔당댐은 한국수력원자력(주) 소유임에도 댐의 물이 소양강댐과 충주댐의 조절용수(調節用水)로 유지된다는 이유만으로 댐 유지관리에 전혀 책임이



| 팔당상수도 보호구역 |
과도한 중첩규제로 수질악화 및 난개발을 초래하고 있다.

없는 수자원공사에서 한강수계의 댐 용수 사용료를 징수(약 1,195억 원, 2010년)하고 있다. 팔당 수질개선은 경기도가 하고 물 값은 수질개선 책임이 없는 수자원공사에서 전액 징수하며, 특히 팔당호 보호를 위해 직접 피해를 보고 있는 팔당지역 지자체에서도 물 값(47.93원/톤, 2013년)을 내고 있는 불합리한 체계이다.

도에서는 팔당호 수질관리를 도정의 역점사업으로 추진, 환경공영제 실시, 하수처리장 증설, 수질정화 습지조성, 가축분뇨 수거지원 등 수질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BOD, 2000년 1.5ppm → 2011년~2013년 1.1ppm)

개선방향

이처럼 중복규제의 목적은 환경 및 수질보전이지만 정작 수질개선의 효과는 거의 없다. 무조건 기업의 활동을 제한하고 공장의 신·증설을 규제하는 것은 본래의 취지인 수질보전에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은 것이다.

획일적인 입지 제한 위주의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첨단업종이나 친환경산업에 한해서는 업종 및 지역에 관계없이 공장의 신·증설이 가능하도록 허용해야 한다. 비합리적인 규제로 점점 낙후되어 가는 현실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국토의 균형발전(均衡發展)이라는 큰 흐름에도 역행하는 것이다.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여 지역 경제와 주민들의 생활에 필요한 시설은 허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상수원 보호에도 훨씬 더 효과적인 것이다.

그동안 중앙정부의 과도한 규제정책은 지역경제와 주민들의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했을 뿐 결과적으로 수질보전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는 의문이다.

반면에 경기도에서는 ‘팔당호 수질개선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대대적인 수질개선사업을 추진한 결과 팔당호의 수질이 상당히 개선되는 효과를 거두었다. 이처럼 실질적인 수질보전을 위해서는 무조건 규제만 할 것이 아니라 수질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정부의 일방적인 규제 위주의 수질정책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일이 급선무라 할 것이다.



6. 농지 관련 규제

농지규제 현황

농업진흥지역(農業振興地域)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보전함으로써 국민식량생산에 필요한 우량농지의 확보 및 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공장용지 등 비농업적 토지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종전의 필지별 보전방식인 절대·상대농지 제도를 권역별 보전방식으로 개편코자 1992년 도입하였다. 농업진흥지역에서는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 관련된 토지이용행위와 국방·군사시설, 하천, 제방 및 도로, 철도, 상하수도, 운하, 통신선로 등 극히 일부 공공시설에만 허용하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도시지역이 32.7%로 전국도시지역 비율 17.5%보다 15.2%가 많으나 농업진흥지역 지정비율은 61.4%로서 전국지정 비율 59.6%보다 1.8% 더 많이 지정되어 있는 실정이다(2012년). 또한 농지를 타목적으로 이용하는 농지전용면적이 5년간 21,514ha로서 전국 85,633ha의 25.1%를 차지하는 등 전국에서 가장 많이 전용되고 있으므로 택지개발·산업단지 조성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나 도시지역 확산에 따른 개발 용지 확보를 위해서는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 농업진흥지역 해제 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기업의 투자 촉진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농지규제 완화는 반드시 필요하며 이러한 농지규제 완화는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이다.

토지현황

■ 국토이용 상황 (2012년, 단위 : 천ha)

구 분	국토면적	경지면적		도시지역	
		면적	비율	면적	비율
전 국	10,018	1,729	17.2%	1,758	17.5%
경기도	1,017	182	17.8%	333	32.7%

■ 농업진흥지역 현황 (2012년, 단위 : ha)

구 분	경지면적	진흥지역면적	비율
전 국	1,729,982	1,031,851	59.6%
경기도	182,537	112,150	61.4%

농지전용 현황

■ 농지전용 시기별 변동 (단위 : 천ha)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전 국	18,215	22,680	18,732	13,329	12,677
경기도	4,651	4,682	6,259	2,476	3,446
전국대비(%)	25.5	20.6	33.4	18.5	27.1



| 도내의 한 휴경지 | 경제활동 등에 활용되지 못하고 잡초만 무성하다.

문제점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는 타 목적으로의 전용을 제한하고 있어 미래의 개발이익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 농지 가격보다 낮게 형성되고 재산가치(財産價値)의 실현도 어렵다. 따라서 이를 소유한 농민 입장에서는 농업진흥지역 제도가 농민을 더욱 빈곤하게 만드는 규제정책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한미 FTA협상 타결 등으로 산업용지, 개발용지 등이 부족한 상황에서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이용 제한 및 산업단지 조성시 수도권지역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제외규정(다만, '10. 1. 1~'11. 12. 31. 2년간은 한시적으로 감면조치) 등은 건전한 투자활동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또한 농업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6년 기준으로 3%로 축소되고, 농지의 산업적·도시적 이용 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나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규제는 여전하여 농지의 효율적인 활용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국토의 환경보전과 안정적인 식량공급을 위한 우량농지(優良農地)의 확보는 반드시 필요하다. 휴경(休耕)·방치·유실(流失)되는 농지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규제 일변도의 농지정책은 오히려 농업의 경쟁력까지 약화시키고 있다.

개선방안

안정적인 식량공급을 위한 우량농지의 확보와 보전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휴경, 방치, 유실되는 농지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규제 일변도의 농지정책은 오히려 농업의 경쟁력까지 약화시키고 있다. 경기도에서는 1992년 농업진흥지역 지정 이후 상당기간이 경과하여 도로·철도 및 택지, 산업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로 집단화기준 등 농업진흥지역 지정기준에 맞지 않는 지역에 대하여 '07~'08년에 20,988ha(6천 3백만 평)의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였다. 그러나 이는 대부분 도로·철도 등 건설로 분리된 3ha 이하의 자투리 토지를 대상으로 해제한 것이므로 이를 10ha로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경지정리(耕地整理)가 되어 있지 않은 농지는 그 경계가 사실상 도로나 하천 등으로 대부분 분리되어 있음에도 농업진흥지역으로 관리하여 개발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 실정으므로 장기적으로는 경지정리 및 수리시설 등 농업 SOC가 완비된 우량농지만을 농업진흥지역으로 보전해야 할 것이다.

SOC

Social Overhead Capital의 약자. 생산활동이 이루어지기 위해 필요한 사회적 기반을 말함



7. 수도권 규제완화 분야별 주요성과

경기도는 '95년 민선자치 시행이후 최대의 숙원사업을 불합리한 수도권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어 왔다. 민선 5기에 들어와서는 도정의 최우선 과제로 채택하여 추진한 결과, 기업, GB, 군사, 농지, 환경 등 각 분야에서 획기적인 규제개혁 성과가 나타났으나, 아직도 개선되어야 할 과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

I. 수도권 규제 대폭 개선

■ 성장관리권역과 과밀억제권역에서 기업 입지 허용 확대

- 산업단지 내 - 461개 전업종 신·증설, 이전 전면 허용
 - 공업용지조성사업 공업지역까지 확대 허용 (53개 지구 11,501천㎡)
 - ※ (기존) 성장권역 외투 25개 첨단 신·증설(한시), 산업단지 외 허용범위
- 산업단지 외 - 숲첨단 최고 200%까지, 기존부지內 무제한 증설 허용
 - ※ (기존) 과밀 1,000㎡, 성장 3,000㎡이내, 14개 첨단 100%, 코리아페어차일드 면적제한으로 중국 투자(8,000만불)
- 2013년까지 Case by Case 형태로 일부 투자기업 증설 허용
 - ⇒ 한미약품 등 20개 업체, 이중 LG전자 투자시기 일실로 포기

■ 오염 총량제 도입을 조건으로 자연보전권역 규제 완화

- 관광지조성사업 : 6만㎡ 이내 ⇒ 규모 제한 폐지
 - ※ (기존) 3만~6만㎡ 수도권심의 후 허용, 레고 독일 투자('02년, 2억불)
- 대형건축물 : 신·증설 금지 ⇒ 전면 허용
 - ※ (기존) 판매용 15천㎡, 업무용·복합용 25천㎡, 신세계 첼시 분리 개설
- 택지개발사업 등 : 6만㎡ 초과 금지 ⇒ 10만㎡ 미만 금지
 - ⇒ 소규모 개발로 인한 난개발 방지, 대규모 개발로 인한 체계적인 폐수 관리
- 서해안 유입 하천 성장권역으로 조정 : 용인(원삼), 안성(삼죽) 3개리 8.47km²
- 연수시설 : 기존 연면적 10% 범위내 ⇒ 과밀(3만㎡이하 허용), 성장(3만㎡이상 심의후 허용), 자연(오총제시행 시·군 3만㎡이상 심의후 허용)

■ 공장총량 및 공업용지물량·산업단지 등 제도개선

- 산업단지 내 '복합용지' 제도 도입('14. 1. 14)
 - ⇒ 산업시설용도 및 지원시설 용도 등을 하나의 용지에 일부·전부 설치 가능

- 계획관리지역 건폐율·용적률 완화로 중소기업 애로 해소
 - ⇒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경우 지자체 조례로 정한 법정 건폐율·용적률의 125% 이내에서 각각 완화 적용(기업체 22천여개 수혜 예상)
- 자연보전권역 내 창고, 사무실 공장총량에서 제외
 - ⇒ 가설건축물, 노천 등에 제품을 적재하던 기업들의 어려움 해소
- 공장총량 적용대상 축소 : 200㎡ 이상 ⇒ 500㎡ 이상
 - ⇒ 500㎡ 미만 소규모 영세공장들의 자유로운 투자 활동 보장
 - ※ 2008년도 기준 등록공장의 55.5%가 500㎡이하 공장(이중 58%가 200㎡ 이상)
- 공업용지물량 특별공급제도 도입으로 안정적 전략사업 추진 확보, 공업용지물량 없이 자유롭게 공업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개선
 - ⇒ 평택 주한미군이전지역, 경제자유구역, 주한미군반환공여구역 등
- 산업단지조성 인·허가 기간 단축 최장 3년 6개월 단축
 - ⇒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설치,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운영

■ 주한미군이전·주한미군공여·반환공여 주변지역 특례 확대

- 주한미군공여·반환공여주변지역의 허용업종 확대, 특례 강화
 - ('06.9) 61개 업종 → ('08.6) 낙농유 1개 업종 추가
 - ('08.12) 119개 업종
 - ※ 서울우유 이전문제 해결(2,000억 원 투자효과 기대)
 - 관광단지 조성 인·허가 등 의제사항 추가, 종합계획 사업 국비 지원 근거 마련 등
- 평택 주한미군기지 이전지역에 대한 특례·지원 강화
 - 평택기업 지방이전시 지원배제,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 산업단지 국비지원 확대, 각종 공사에 지역 업체 배려(50억 미만)

추가 개선과제

- ⇒ 자연보전권역 규제의 합리적 개선, 접경·낙후지역(연천, 강화, 옹진) 수도권 제외, 정비발전지구 도입, 불합리한 자연보전권역 재조정
- ⇒ 근본적으로는 수도권 규제를 폐지하고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체계로 전환

II.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한시적 규제 유예』

■ 기존 공장·연구소 등 증설 확대 등 공장입지 규제 완화

- 연접규제 폐지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인 경우 심의를 거쳐 허용
- 보전지역내 기존공장 건폐율을 계획관리지역 수준으로 확대(20% → 40%)
- 3,353개 공장 증축 가능(도시녹지+보전·생산관리 3,224, 농림지역 119, 자연환경보전지역 10)
※ 한시적 규제유예 적용기간 2년간 추가 연장('11. 7. 6 → '13. 7. 6)
- 계획관리지역내 기존공장·연구소의 건폐율 상향 확대(40% → 50%)
- 자연녹지지역내 기존공장·연구소의 건폐율 상향 확대(20% → 40%)
- 군사시설보호구역내 산업단지의 개별공장, 군부대 협의를 지자체가 대행
- 군부대 협의기간 단축으로 허가기간 축소 및 산업투자 촉진
(7개 단지 582개업체)

■ 골프장 등 관광사업 및 주택건설사업 규제 완화

- 관광단지가 포함된 산업단지실시계획 승인時 관광단지 인·허가 의제 처리
- 절차간소화, 사업기간 단축, 및 금융부담 절감 등으로 민간투자 촉진
- 오염총량제 시행 특별대책지역 및 취수원보호구역 취수지점 상류방향 7km
이외 지역 골프장 및 골프장 내 숙박시설 설치 허용
- 아파트형 공장 의무임대비율 2년간 유예(수도권 10% → 0%)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後 2년내 공사 미착수時, 승인취소 2년간 유예
- 부동산개발업 등록시 전문인력 인정범위 확대(기사 → 기사, 산업기사)

■ 각종 부담금 등 기업부담 및 생계형 주민생활 부담 완화

- 경제자유구역내 농지보전부담금 50% 감면 유예
- 창업제조업에 대한 부담금(대체초지조성비 등 10개) 면제시한 연장
- 재해 등으로 인한 사업위기 기업에 대해 대기배출 초과과과금 징수유예
기간 연장(1년→2년) 및 분할납부 횟수 조정(6회→12회)
- 대기 3종 사업장은 대기총량관리제 대상에서 제외
- 중소기업의 단전시기(연체 2개월) 탄력 운영(신용도 및 채권확보 고려)
- 중소 제조기업에 대한 국유재산 임대료율 인하(5% → 2~3%)
- 개발제한구역 내 단순 생계형 불법 건축물·토지형질변경 행위에 대해
이행강제금 1/2범위 내에서 감경 및 부과時期 유예

추가 개선과제

- ⇒ 기존공장의 업종 허용 확대, 추가적으로 시급을 요하는 개선 과제를 지속 발굴하여 개선
- ⇒ 개별기업 애로사항에 현답 강화로 신속한 현안해결 방안 강구

Ⅲ. 상수원보호구역 등 환경규제 개선

- 상수원 취수지점 7km 이외 폐수 非발생 공장입지 허용
 - (기존) 광역(20km)·지방(10km)상수도, 취수장 15km 이내 금지
- 한센촌 염색단지 폐수 배출시설 규제의 획기적 개선
 - 무허가지역 산업단지 및 특정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신·증설 허용
 - 포천 신평3지구, 연천 청산지구('11. 3. 5 지정 조건)
 - 기존 염색전용 산업단지 특정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신·증설 허용
 - 양주 김준산단, 포천 양문산단, 동두천 동두천산단
 - 집단화단지의 특정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신·증설 허용
 - 포천 신평염색집단화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 배출허용기준으로 별도조례 제정조건)
- 특별대책지역內 무방류 설치조건으로 구리배출 허용('08. 3. 6)
- 특별대책지역內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설치시 구리 등 3종 물질 입지 허용('10. 1. 29)
 - * 3종 : 구리 및 그 화합물, 디클로로메탄, 1, 1-디클로로에틸렌
 - 이천 하이닉스 공장 등 구리공정 전환으로 공장증설 허용

추가 개선과제

- ⇒ 특정폐기물의 합리적 배출기준을 마련
- ⇒ 오염총량제 실시에 따라 발생하는 2차적 규제 집중 발굴 개선
- ⇒ 환경 관련 규제를 환경 관련 법령으로 통합·일원화 (국토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산업입지통합지침 등)

IV. GB·군사시설보호구역·농지·산지규제 개선

■ 개발제한구역(GB) 규제 완화

- GB의 합리적인 조정을 통한 도민의 재산권 보호('13. 12)
 - GB 해제면적 126.6km²(분당신도시의 6.5배)
- GB내 음식점 부설주차장 규모 확대('13.12)
 - 부설주차장 규모를 현실에 맞게 개선(200m²→300m²)
- GB내 기존대지내 증축시 보전부담금 완화('13.5)
 -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 기존대지 안에서의 증축시 50% 감면
- GB내 주민지원사업 확대 및 농축수산물 증축 기준 조정('08.11)
 -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해 소득증대 지원사업 확대
 - ※ 공동작업장, 공동창고, 화훼마을, 주말농장 등 설치·정비와 부대사업
 - 축사관리실 면적 완화(10m²→33m²), 농수산물 보관창고 면적 완화(100m²→150m²)
- GB지정 이전입지 공장의 재산세 등 조세부담 완화('08. 2)
 - GB지정 前부터 사용하는 공장용 토지의 재산세 증가 및 종부세 대상 제외
 - ※ 재산세 32개 기업 9억여원, 종부세 1개 기업(광명 기아자동차) 14억여원 감세 혜택
- GB내 기존공장 증설 확대 허용('08. 11)
 - GB지정 이전 설치공장의 증축을 지정당시 기존시설 연면적만큼 확대
 - GB지정 이전 설치된 수출 공장의 증설 확대(기존면적의 50% 추가 증축)
⇒ 기아차 광명공장 등 18개 기업 5,583억 원 투자, 2,700개 일자리 창출 가능
- GB내 시설입지대상 확대 및 해제범위 확대('09. 6, '09. 10)
 - 궁도장·사격장·승마장·양궁장·씨름장을 생활체육시설에 추가 입지 허용
 - 개발제한구역내 소규모 단절토지 해제범위 확대(3천→1만m², 150,356m²)
 - 개발제한구역내 경계선 관통대지 1천m² 미만까지 해제 가능

■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군사규제 완화

- 군사시설보호구역 축소 조정으로 군사시설 주변지역 도민불편 해소
 - 민통선 범위 : 군사분계선 이남 15km → 10km 이내
 - 통제보호구역 : 500m → 300m, 제한보호구역 : 1km → 500m
 -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개정 ('08. 9. 22 개정 시행)

- 주민생활에 밀접한 용도의 건축물 군협의 제외
 - 바닥면적 85㎡ 이내 증·개축 또는 재축
 - 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등에서의 3층미만, 연면적 200㎡미만인 건축
 -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개정('08. 9. 22 개정 시행)
- 40여 년간 막혀 있던 화성호·시화호 등 철책선·군초소 철거('08.5월)
 - 철책선 35km(화성호 2.0km, 시화호 2.7km, 화성·안산시 해안 29.9km)
 - 軍초소 97동(화성호 2, 시화호 14, 화성·안산시 해안 81)
 - ※ 경기국제보트쇼, 코리아 매치컵 세계요트대회 성공적 개최에 크게 기여
- 軍협의 기준 합리화, 협의절차 간소화 등('10.4.23 개정)
 - 軍협의 시 과도한 조건부동의를 방지하기 위한 세부규정 마련
 - 군사시설 보호구역 관련 협의기준 공개 및 부동의 사유 구체화
 - 관할부대 심의위원회에 시·군 관계자 참여
- 군용비행장 고도제한 완화('10. 5월) 등
 - 수원비상활주로 비행안전구역 해제('13.12.31) : 8.06km²
 - 고도제한 완화('13. 12. 30) : 이천 85.17km², 포천 5.61km²(12m→65m)
 - 성남·수원 고도제한 완화 : 45m이하 → 성남 193m, 수원 140m
- 낙석, 용치 등 군사장애물 개선을 통한 교통사고 및 수해 예방
 - 도-3군사령부 군사장애물 개선 협약체결('13. 12. 13)
 - ※ 2013년 실적 : 용치 10개소, 2014년 계획 : 용치 14개소, 낙석 8개소

■ 농지 및 산지 규제의 합리적 개선

- 불합리한 농업진흥지역 대폭 축소(249.9km², 분당 12.6배)
 - 농업보호구역중 수질오염 우려가 미미한 지역 : 142km²(여의도 49배, '08.12)
 - 도로·철도 등으로 분리된 3ha이하 자투리 토지 : 104.9km²('07.6)
- 농업진흥구역내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설치허용('13.12~'15.12)
 - 농업인 소득증대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촉진을 위해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설치허용
- 농업진흥지역내 농수산물가공 면적제한 완화('08.6)
 -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부지면적을 3천→1만㎡미만 확대로 시설규모화

- 각종 농지관련 규제 완화
 - 농업진흥지역 해제時 그에 상응하는 지역 대체지정제도 폐지('08.3)
 - 농기계보관시설, 태양광설비 농업보호구역 설치
- 산지전용지의 건축물 높이제한 완화 - 건축물 기준높이 삭제('08.9)
 - 스카이라인, 주변 수목 높이 등을 고려하여 높이 제한 최소화
- 산지개발시 연접개발 제한 완화 등 산지관리제도 개선('08.7)
 - 공장 증·개축과 660㎡미만 未적용, 연접개발제한 거리축소(500m→250m)
 - 개발행위 허가대상 토지 진입 연결도로에 너비 6m이상의 농어촌도로 포함

추가 개선과제

- ⇒ 화성호·시화호 등 서해안 간척지 등의 활용도 확대 추진
- ⇒ 비행장, 사격장 등 군사시설로 인한 주민피해 최소화 방안 검토
- ⇒ 비닐·창고벨트화 된 GB를 계획적 도시관리 차원에서 활용 검토

V. 지방분권 강화 차원에서 중앙 행정권역의 지방이양

■ 행정내부절차 간소화로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도민불편 해소

- 투·융자사업 심사 하한기준액 상향
 - 시·도 20억 원 → 40억 원, 시·군·구 10억 원 → 20억 원
-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규제범위 축소(300m → 200m)

■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확대

- 100만㎡ 이상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중앙의 사전승인권 폐지
 - 국토부 장관 사전 승인 절차를 사전협의로 변경('09. 12)
- 자연녹지·계획관리지역의 3만㎡이상 농지전용허가권 도지사 위임('08. 6)
- 20만㎡ 이상 택지개발사업 승인권한 지방이양 ('09. 12)
- 구제역 검사시료 채취 및 정밀검사 기능 ('11. 2. 23)

추가 개선과제

- ⇒ 지방 분권 강화 차원에서 중앙권한 위임사항 발굴 (교육분야, 산업 및 경제분야, 자치행정 분야, 도시계획 분야 등)
- ⇒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 및 자치경찰제 실시
- ⇒ 8개 특별행정기관 지방 이양
- ⇒ 자치조직권, 도시계획고권 강화, 도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등



제2부 경기도 역사

제1장 선사시대는 아시아 구석기 유적연구의 새로운 발판이 된 연천전곡리 구석기 유적을 중심으로 경기도 땅에 살았던 선사시대 사람들의 생활상을 서술하였다. 신석기시대와 청동기시대에서는 점차 삶의 근거지들을 확대하는 조상들의 면모를 유적 중심으로 설명하였다.

제2장 경기지역이 철기문화의 영향으로 고대사회로 전환하기 시작하고, 이후 마한의 일원이었던 백제가 고대국가로 발전하는 과정을 살펴 보았다. 한강유역을 둘러싸고 백제에서 고구려, 그리고 신라로 이어지는 삼국간의 쟁패를 통해 이 지역의 지리적 중요성을 확인 하였다. 아울러 나당전쟁의 주 무대였던 매소성 등을 알아보고 통일신라기의 변화도 탐색하였다.

제3장 고려시대에서는 후삼국을 통일한 고려의 경기 지방세력에 대해 알아보고, 처음 등장한 '경기'의 성립과 변화를 자세히 고찰하였다. 뒤에서는 이민족의 침입에 맞선 경기도민의 항쟁을 수록하였다.

제4장 조선시대에서는 서울을 개성에서 한양으로 옮기게 된 과정과 조선 전기 경기도 행정구역의 재편을 서술하였다. 각종 행정직제와 그 역할을 알아보고 당시도민들의 생활상도 살펴보았다. 또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중 경기도에서 일어난 큰 전투와 국가수호를 위해 몸 바친 경기도도민들의 불굴의 투쟁을 기록하였다. 조선 후기 상업의 중심지로 급격히 성장한 경기도의 풍경을 묘사하였으며, 세계문화유산인 화성신도시의 건설과 그 의의를 살펴보았다. 끝으로 실학이라는 개혁사상의 분거지로서 경기도가 갖는 의미를 서술하였다.

제5장 근대와 일제강점기에서는 개화와 척사의 갈림길에서 경기도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각 세력들의 다툼, 외세와의 대결 등을 서술하고, 일제에 대항하는 민족운동으로서의 의병항쟁도 살펴보았다. 그리고 경술국치(庚戌國恥) 이후 일제에 의해 전개된 토지조사사업과 행정구역개편 등의 내용과 의미를 알아보았다. 3·1운동을 정후하여 항일민족운동이 활발히 벌어졌던 경기도의 상황을 자세히 서술하였고 1920년대 이후 지속되는 각계각층의 민족운동도 함께 다루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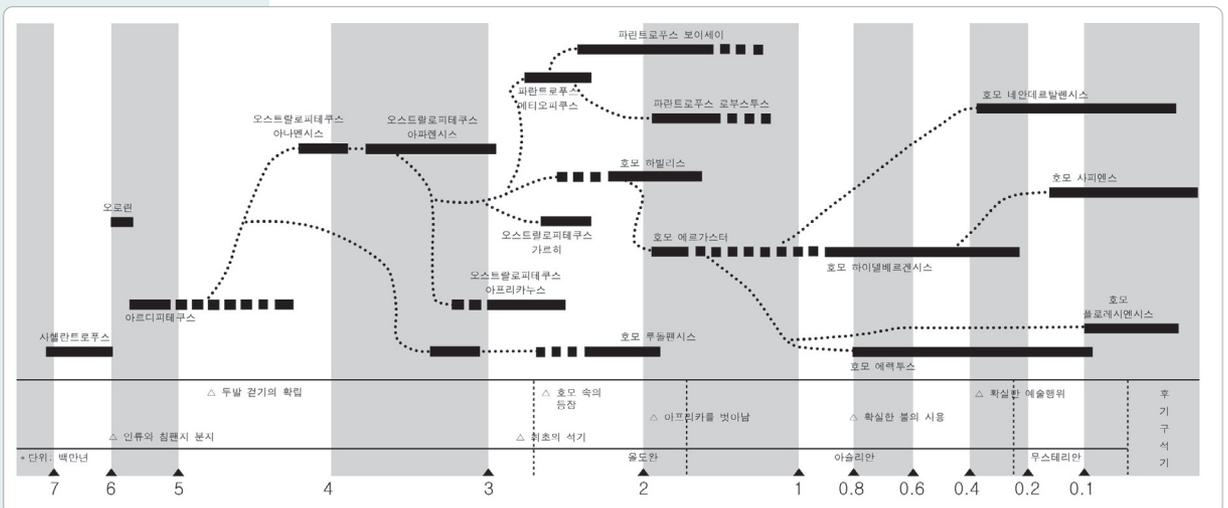
제6장 현대에서는 8·15광복 이후의 민족국가수립운동과 좌우대립, 그리고 정부수립, 6·25전쟁에 이르는 과정을 다뤘고 전후(戰後) 현재까지의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시련과 발전, 경제성장의 명암, 사회의 변화양상을 경기도를 바탕으로 서술하였다. 끝으로 21세기 경기도의 미래 발전전략과 전망을 수록하였다.

| 제1장 선사시대

1. 구석기시대

구석기시대(舊石器時代) 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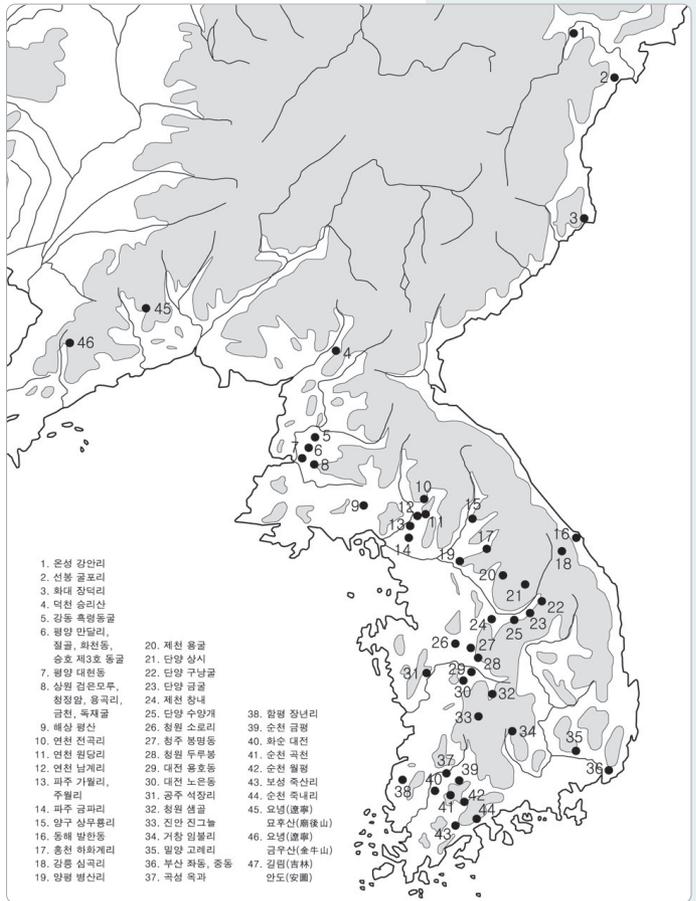
좁은 의미의 구석기시대는 돌을 때려서 만든 타제석기(打製石器)를 사용하던 시대를 말하며, 그 이후에 돌을 갈아서 만든 마제석기(磨製石器)를 사용하던 시대를 신석기시대로 구분한다. 구석기시대란 생물분류학에서 유인원과 구별해서 사람으로 분류되는 고인류가 처음 등장한 때부터 1만 2천 년 전 무렵 플라이스토세(홍적세)가 끝날 때까지에 이르는 긴 시간대에 걸친 인류문화의 원초단계를 가리킨다. 인류의 조상은 두발걷기를 하며 다른 유인원과 상이한 진화의 길을 걷기 시작했는데, 700만 년 전 무렵에서부터 450만 년 전 무렵 사이에 초보적 단계의 두발 걷기를 하며 살던 사헬란트로푸스 등과 같은 고인류들이 살았고, 400만 년 전에 등장한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사람의 고유한 신체적 특징과 구조를 완성시켜 나갔다. 최초의 사람(Homo)속(屬)으로 분류되는 호모 하빌리스는 플라이스토세의 시작과



| 인류 진화와 구석기시대 문화 진화 |

더불어 250만 년 전에 출현하였으며 이 때부터 돌로 도구를 만들기 시작했다. 호모속은 현저히 커진 두뇌용량으로 인해 이전보다 발달한 지능과 도구 제작 능력을 갖추게 되었으며, 그 결과, 호모 에렉투스 단계에서 인류는 180만 년 전 아프리카를 벗어나 유라시아 각지로 퍼져나갔다. 현대인의 직접적인 조상인 호모 사피엔스는 20~15만 년 전 아프리카에서 등장하였다. 이후 진화를 거치며 고도의 지능과 언어, 상징행위 같은 새로운 차원의 문화를 갖게 되면서 늦어도 6~5만 년 전부터 아프리카를 벗어나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되었다.

한반도에서는 1930년대에 두만강가의 동관진(현 강안리)에서 구석기로 보이는 유물이 발견되었으나, 본격적인 연구는 북한지역에서 함경남도 웅기 굴포리유적이, 남한지역에서 1964년 공주 석장리유적이 발굴되면서 시작되었다. 현재까지 발견된 구석기 유적은 1,000곳이 넘는다. 가장 오래되었다고 주장되는 유적으로는 상원 검은모루동굴, 단양 금굴, 석장리 하부층, 전곡리 하부층 등이 있다. 이 유적들의 나이에 대해서는 30만 년 이상, 심지어 100만 년 전의 플라이스토세 전기(약260-78만 년 전) 혹은 중기(78-13만 년 전)라고 주장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는 확실하지 않다. 남한지역에서 발굴된 유적은 호모사피엔스사피엔스, 즉 현생인류의 등장으로 시작된 4만 년 전 이후의 후기구석기시대에 해당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다만, 파주 장산리유적의 경우, 지질학적인 특징, 유적 형성과정의 검토를 비롯한 자연과학적 연대측정 결과 등을 통해 20만 년 전 이전의 연대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연천 전곡리 유적은 20만 년 전, 또는 10만 년 전 경으로 보는 등 견해가 나뉘어져 있다. 그렇지만, 인접한 중국에서 100만 년 전의 유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우리나라에서도 그만큼 올라가는 유적이 발견될 가능성은 높다.



한반도의 주요 구석기유적 |

구석기시대에 사람들은 처음에는 자갈을 다른 돌에 내던지거나 돌끼리 부딪쳐 깨뜨리는 식으로 석기를 만들었다. 이른 시기의 석기 중에 대형 석기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사실은 석영이나 규암 등 석기 제작에 쓰인 원석의 한계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그러한 석재로도 점차 소형 석기를 잘 만들게 되었고 거친 원석에서 떼어낸 박편을 가공한 석기도 늘어났다. 후기 구석기시대에는 반암, 혼펠스, 규질혈암, 유문암이나 흑요석과 같은 양질의 석재를 이용해 돌날이나 스페찌르개와 같은 특징적인 유물을 만들었으며, 구석기시대가 끝날 즈음에는 아주 작은 크기의 돌날을 그대로 쓰거나 이를 가공한 석기가 보급되었다. 즉 구석기시대 도구는 거친 재질의 암석을 원료로 한 대형 석기가 주를 이루었으나, 긴 시간이 흐르며 기술이 발달하면서 점차 작고 정교하며 규격화되고 다양해졌다.

한편, 동아시아에서는 최초로 연천 전곡리유적에서 발견된 아슐리안형 주먹도끼는 그 이후 남한 지역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그 형태와 제작 기법은 원석을 몇 차례 때려 만든 것부터 정교하게 전면을 가공한 것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발견 당시 주먹도끼는 아프리카와 유럽이 발전된 형태의 아슐리안형 주먹도끼를 사용하는 문화권이며, 동아시아는 찍개문화권이라는 소위 ‘모비우스의 가설’을 반박하는 증거로 크게 부각되었다. 그러나 한반도를 비롯한 동아시아의 주먹도끼는 소위 ‘전형적 아슐리안’ 주먹도끼와 형태적으로 다른 점이 있고 유물의 공반관계와 연대에 있어서도 상이한 양상이다. 따라서 이의 평가는 동아시아뿐 아니라 세계 구석기시대 인류문화사 연구에서 중요한 연구과제로 남아 있다.

구석기시대 사람은 생계자원으로 동물성 단백질보다는 채집활동을 통해 식물자원을 더 많이 이용했다. 초기 고인류는 동물성 단백질을 사냥으로 얻기보다는 보통 다른 짐승이 먹고 버린 사체에 붙은 고기를 뜯어먹었을 텐데, 호모속의 등장 이후 사냥은 점차 중요해져 후기 구석기시대 유럽에서는 산양이나 순록과 같이 집단적으로 계절이동하는 동물을 집중적으로 사냥하거나 매머드 같은 대형 포유동물을 잡아먹기도 했다. 한반도에서 발견된 구석기시대의 생계경제와 관련된 증거는 많지 않은데, 단양 구남굴에서 출토된 사슴뼈는 후기 구석기시대 사냥의 증거라고 해석되었다.

구석기시대의 생활이 끊임없는 이동을 필요로 했던 만큼, 당시의 주거 형태는 돌이나 나무를 이용한 임시 야영지 같은 형태이거나 동굴이나 바위그늘을 이용했다. 대전 용호동이나 장흥 신북유적에서는 화덕자리가 발견되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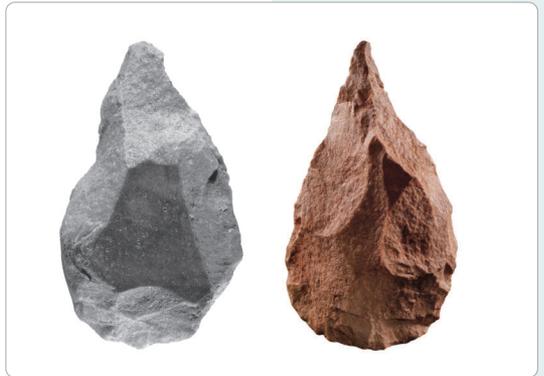
경기도의 구석기시대 유적

연천 전곡리 선사유적은 1978년 4월 동두천 미군기지에 근무하고 있던 그렉 보웬이 한탄강변에서 구석기 유물 네 점을 수습하면서 알려진 유적이다. 대학에서 고고학을 전공했던 보웬은 서울대학교의 고고학자인 김원용 교수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그 해 여러 차례에 걸쳐 광범위한 지표 조사가 실시되었다. 이를 통해 이른바 '아슐리안형 주먹도끼'의 발견이 학계에 알려지고 1979년에 발굴조사가 이루어지면서 유적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어 같은 해 10월에 사적 268호로 지정되었다. 당시까지 세계의 구석기 고고학계에서는 미국 하버드 대학의 모비우스 교수의 '구석기 이원론', 즉 인도를 경계로 서쪽지역인 유럽이나 아프리카 지역은 발달된 형태의 석기인 '아슐리안형 주먹도끼'를 사용했으며, 동쪽지역인 동아시아지역은 이전부터 이어져 온 단순한 형태인 '찍개'를 사용했다는 견해가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그런데 연천 전곡리유적에서 아슐리안형 주먹도끼가 나오면서 세계 구석기 연구의 중요한 가설인 모비우스 이론이 틀렸다는 것이 밝혀지게 되었다.

전곡리유적은 현재까지 20차례 정도의 발굴조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수천점의 구석기 유물이 수습되었고,



| 연천 전곡리 구석기 유적 |



| 주먹도끼 | 연천 전곡리유적(좌) 및 파주 가월리유적(우)

알아두기 우리나라의 구석기시대의 연원(淵源)

1978년 연천 전곡리 한탄강변의 용암대지에서 구석기 유적이 발견되어 우리나라 구석기 연구는 큰 전환점을 맞게 되었다. 경기도 임진강 유역에서는 새로운 유적이 계속 발견되었는데, 연천 남계리·원당리, 파주 금파리·장파리·주월리·가월리 및 장산리 등지에서 발굴이 이루어졌다. 더불어 지난 10여 년 동안 전국 각지에서 조사가 꾸준히 이루어져 구석기시대에 대해 보다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에서 구석기시대 연구는 초보적인 수준인데, 심지어 개개 유적의 연대나 만들어진 배경과 환경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자료가 빈약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구석기 유적으로는 소수의 석기만이 발견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한반도에 언제부터 사람이 살고 있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도 확실한 대답을 주기 어렵다. 그렇지만 인류가 아프리카를 벗어나 세계 각지로 진출하기 시작한 것은 170~180만 년 전부터이며, 이ух한 중국에서는 100만 년이나 이보다도 더 나이 많은 유적도 발견되었다. 그런 만큼, 다만 아직 발견되지 않았을 뿐 한반도에도 것처럼 오래 전에 이 땅에 살던 옛사람의 흔적이 숨어 있을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겠다.

한국고고학에서 구석기 연구의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할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전국리유적이 알려진 이후 비슷한 조건에서 형성된 구석기 유적이 임진강·한탄강 유역에서 많이 찾아졌는데, 파주 주월리·가월리·장산리, 연천 남계리유적을 포함하여 50여 곳에서 구석기시대 유물이 수습되고 있다.

한강유역에는 파주 운정지구, 고양 덕이동, 김포 장기동, 인천 원당, 남양주 호평동, 양평 병산리, 여주 연양리유적 등이 알려져 있으며, 이 밖에 의정부 민락동, 광주 삼리, 용인 평창리·동백리, 화성 구문천리, 안성 공도유적 등도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

2. 신석기시대

신석기시대(新石器時代) 개관

기원전 10,000 년 경 추운 빙하기가 끝나고 지구의 기후가 오늘날과 같이 따뜻해지면서 구석기시대에서 신석기시대로 바뀌었다. 19세기에 만들어진 신석기시대 개념은 구석기시대의 타제석기에 이어서 새로운 마제석기(磨製石器)를 사용한 시대를 의미했다. 이것이 20세기 전반 영국의 고든 차일드가 구석기시대는 수렵채집사회로, 신석기시대는 농경과 목축으로 대표되는 식량생산의 개시를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여기에 정주마을, 토기, 마제석기가 함께 등장하는 것으로 정의했으

며, 이를 “신석기 혁명”으로 불렀다. 그러나 신석기시대 정의는 지역에 따라 다른 기준을 따르고 있는데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에서는 식량생산에 앞선 토기의 등장을 신석기시대 시작의 지표로 삼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른 시기의 신석기시대 유적이 확인된 곳은 기원전 10,000년에서 8,000년 사이로 편년되는 제주도 고산리유적이다. 여기에서는 식물 줄기 등 섬유질이 혼입된 흙으로 빚은 민무늬토기와 덧무늬토기(隆起文土器), 그리고 구석기시대 타제석기인 세석기(細石器)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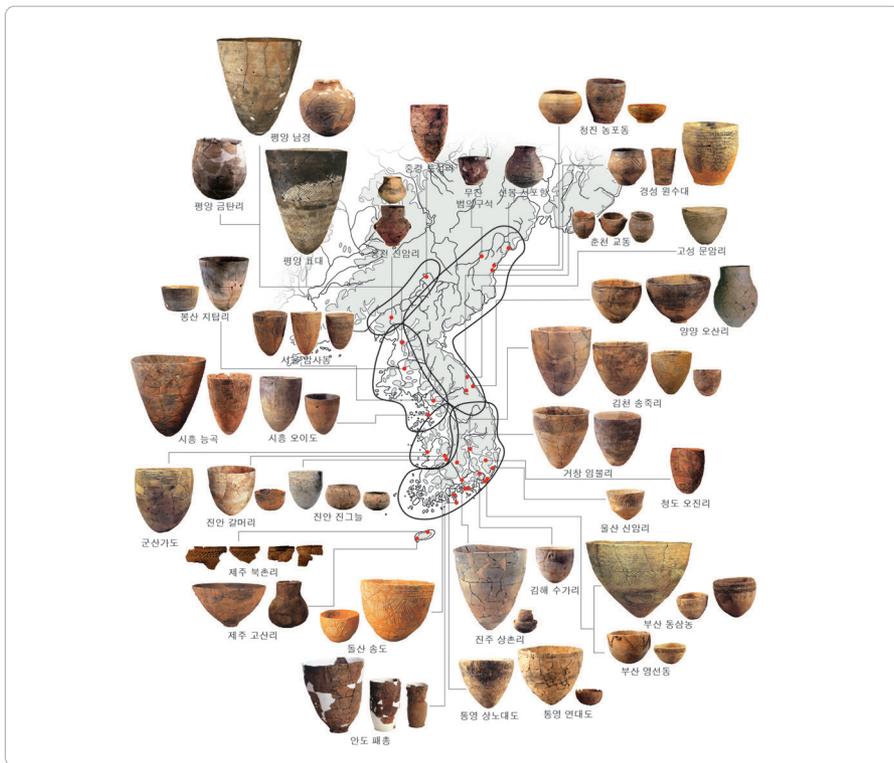
전통을 이어받은 석창이나 석촉이 다량 나왔다. 최근 이 유적에서 수십기의 집자리가 발굴되어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제주도 이외의 한반도에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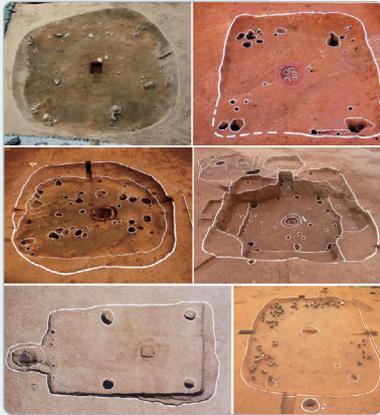
| 제주도 고산리 신석기유적의 토기와 화살촉 |

기원전 6,000년 경으로 연대가 밝혀진 유적들이 남해안과 동해안에서 확인되어 상당한 시기 차를 보이고 있다. 다만, 인접한 중국과 러시아 연해주, 일본 규슈 등지의 기원전 10,000년을 상회하는 신석기시대 유적에서도 고산리유적과 유사한 양상이 확인되는 점에서 앞으로 한반도에서도 비슷한 시기의 유적이 발견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반도의 신석기시대 토기 문화는 부산 동삼동유적, 울산 신암리유적 등 남해안과 양양 오산리유적, 고성 문암리유적 등 동해안지역에서 덧무늬토기가 유행한 이후에 빗살무늬토기가 북한의 대동강유역을 비롯해서 남한 각지로 확산된다. 빗살무늬토기는 서북한지역의 궁산리유적, 지탑리유적, 그리고 남한지역의 서울 암사동유적, 하남 미사리유적, 김해 수가리유적 등이 널리 알려져 있다.

신석기시대의 유적은 집자리가 중심을 이루는 마을유적과 해안가나 섬에서 확인되는 조개더미유적이 대부분이다. 마을유적은 서울 암사동을 비롯하여 인천 운서동, 하남 미사리, 안산 신길동, 화성 석교리, 양양 오산리, 고성 철통리유적 등 중부지역에서 많이 확인되고 있다. 집자리 내부 바닥에는 화덕자리와 기둥구멍 정도만이 남아 있다. 화덕은 조명·난방·취사 기능을 하며 돌을 돌리거나 구덩이 형태를 취하며 일반적으로 집자리 중앙부에 위치한다.



| 신석기시대 주요 유적과 토기의 분포 |



| 신석기시대 집자리 각종 |



| 창녕 비봉리 신석기유적의 배와 노 |

패총, 즉 조개더미 유적은 남해안에서는 덧무늬토기 단계에, 서해안에서는 빗살무늬토기 단계에 등장하지만, 그 수가 급증하는 것은 후기에 들어서다. 서해안 패총 대부분과 일부 남해안 패총은 소규모로서 거의 전적으로 굴 껍질로 구성되어 있으며, 유물도 극히 드물다. 이러한 유적은 정주 마을과는 그 기능적 성격이 다른 유적으로서, 소위 한정행위장소 혹은 일시적 거주 지점이라 부를 수 있는 단기 사용 유적으로 보는 견해가 많다. 이에 비해 대부분의 남해안 패총은 규모도 크며, 패각층에는 각종 유물과 사슴이나 멧돼지, 어류를 비롯한 동물 유체가 다량 포함되어 있고 때로는 집자리와 무덤, 야외 화덕도 발견되고 있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사용된 생활 근거지로서의 성격을 보여주고 있다.

신석기인들은 주로 채집과 수렵·어로를 통해 생계를 해결했으며, 농경의 비중은 높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육지에서는 도토리·가래·밤과 같은 나무 열매나 풀뿌리 등을 채집하였으며, 멧돼지·사슴·고라니·야생비둘기·까마귀·독수리 등 다양한 종류의 짐승들과 새들을 잡아 먹었고, 강이나 바다에서는 굴·소라와 같은 조개를 비롯하여 각종 물고기, 심지어 복어나 고래, 상어도 식용되었다. 이 시대의 농경활동의 증거는 기원전 3,500년 무렵부터 조와 기장과 같은 탄화곡물(炭化穀物), 그리고 밭을 가는 굴지구(掘地具)인 보습이나 수확구인 낫 등의 발굴조사 양상을 통해 알 수 있게 되었다. 최근 부산 동삼동 패총의 기원전 5,000년 경의 덧무늬토기 표면에서 기장의 압흔(壓痕)이 검출되어 농경의 시작을 더 올려 볼 수 있게 되었다. 또한 2012년도에 고성 문암리 유적에서는 기원전 3,000년 경으로 추정되는 이랑과 고랑을 갖춘 밭이

발굴되었는데, 동아시아에서는 최초로 확인된 신석기시대 밭이어서 매우 중요하다.

한반도의 신석기시대 사람들이 인접 지역과 교류한 증거도 드러나고 있다. 남해안에서는 일본의 조몽토기와 흑요석이 나왔고, 반대로 일본의 큐슈에서는 빗살무늬토기와 결합식낫시바늘, 그리고 조개팔찌 등 남해안 신석기인들이 사용한 물건들이 확인되었다. 대한해협을 사이에 둔 양 지역의 교류에는 배가 이용되었을 것인데, 창녕 비봉리유적이나 울진 죽변리유적에서 발굴된 것과 같은 통나무로 만든 배와 노가 그것을 증명한다. 두 유적의 연대는 기원전 5,700년 경에 해당한다. 이

밖에 전국적으로 확인되는 흑요석이나 결상이식(缺狀耳飾)은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 동북지역이나, 러시아의 연해주 등지와도 교류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한편으론 사람들의 이동 경로를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신석기시대의 예술품이나 치레걸이로서, 울산 신암리유적에서는 여성을 상징하는 토우(土偶)가, 양양 오산리유적에서는 흙으로 빚은 사람 얼굴 조각품이 나왔으며, 부산 동삼동이나 창녕 비봉리유적에서는 사슴과 멧돼지를 새긴 토기도 나왔다.

무덤이 발굴된 예는 많지 않지만, 주로 남해안의 패총 유적에서 확인되었다. 최근 여수 안도, 부산 가덕도 장항 유적 등에서 집단 무덤이 발견된 예도 있는데, 투박조개로 만든 팔찌가 장착된 채로 묻힌 경우도 있다.



신석기시대 예술품 각종 |

1. 울산 신암리유적, 2·5. 양양 오산리유적,
3. 부산 동삼동패총, 4. 통영 연대도패총,
6. 창녕 비봉리유적, 7. 선봉 서포항유적

경기도의 신석기시대 유적

경기도에서 조사된 신석기시대 유적은 집자리 유적과 조개더미 유적으로 구분되며, 현재까지 알려진 유적은 유물산포지를 포함하여 150여 개소에 이른다. 유적들은 내륙 강변의 충적대지와 강의 지류, 해안가, 섬 지역에 분포하는데, 최근에는 내륙 깊숙한 얕은 구릉에서도 신석기시대 집자리가 발견되어 경기도 전역에 걸쳐 신석기시대 유적이 분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을유적으로는 하남 미사동, 안산 신길동, 시흥 능곡동, 연천 삼거리, 화성 석교리, 용인 농서동유적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신길동, 능곡동, 석교리유적은 집자리가 20기 이상 발굴되어 신석기시대 마을의 양상과 사회상을 연구하는 데 귀중한 자료이다.

서해안의 해안가나 섬에서 확인된 조개더미 유적은 어패류를 채취한 후 일차가공을 한 후 생선뼈나 조개껍질 등을 버려 남겨지게 된 일종의 쓰레기터이다. 남해안의 조개더미는 대체로 인간이 장기간 거주하던 마을 부근에 위치하는 데 반해, 서해안 및 도서, 특히 경기도만 이남의 조개더미 유적에서 발견된 집자리는 극히 드물며, 대체로 단기간 이용된 야외 화덕만이 발견되고 있는 점에서 볼 때, 멀리 떨어진 마을 유적으로부터 일시적으로 방문하여 형성된 단기 캠프로 보고 있다. 경기도지역에는 황해도와 연결한 백령도, 연평도부터 남으로 덕적군도 이남까지 크고 작은 많은 섬들이 분포하는데, 대부분의 섬에서 신석기시대 조개더미가 발견되고 있다. 시흥 오이도 조



시흥 능곡동 신석기유적 |

주거지, 빗살무늬토기, 갈돌·갈판

개더미를 비롯하여 안산 대부도 흠곶, 대연평도 까치산, 소연평도, 용유도 을왕동 유적 등이 있다.

한편, 남양주 호평동 지새울유적에서는 저장용 구덩이에서 다량의 도토리가 나왔다. 가을에 채집한 도토리는 식량 획득이 어려워지는 겨울에서 봄까지 장기간 보관하면서 먹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식용자원으로서의 도토리의 기능과 그 저장방식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3. 청동기 · 초기철기시대

청동기(靑銅器) · 초기철기시대(初期鐵器時代) 개관

청동기시대는 덴마크의 톰센이 제안한 석기 · 청동기 · 철기시대로 구성된 삼시대 체계 중의 한 시대로 신대륙에서는 사용되지 않지만 구대륙에서는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시대 개념이다. 광석에서 구리를 추출한 후 주석, 아연, 납 등 몇 가지 다른 금속과 배합하여 청동기를 주조하는 기술은 고도의 숙련도와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한다. 그러므로 단순히 석기만을 사용하던 사회에서는 볼 수 없었던 직업의 전문화, 교역의 발달, 계층사회의 발전을 가져오는 혁신적인 변화가 있게 된다.

우리나라의 청동기시대는 민무늬토기와 마제석기가 보편적으로 이용되고 청동기를 제작 사용한 시기로서, 고인돌과 같은 정형화된 모제(墓制)가 등장하고 농경을 주요 생계경제로 하면서 사회복합도가 한 층 높아진 시대를 가리킨다. 공간적으로는 한반도 전역이 포함될 뿐만 아니라 라오닝(遼寧)지역을 비롯한 중국 동북지역, 그리고 그와 인접한 지역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역사적으로는 문헌의 내용과 고인돌, 비파형동검, 미송리형토기를 근거로 한반도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古朝鮮)의 형성과 발전이 이루어지는 시기로서 매우 중요하다. 청동기시대의 시간적 범위는 상한 연대를 기원전 1500년으로, 하한 연대를 기원전 400년 또는 300년으로 보는 견해가 많다.

남한에서 가장 이른 시기의 청동기문화는 민무늬토기의 일종인 덧띠 새김무늬토기를 생활용기로 사용하던 단계에 해당한다. 이 시기의 사람



청동기시대 민무늬토기 각종



청동기시대 발과 논

위 : 진주 대평리유적 / 아래 : 밀양 금천리유적

들은 강변의 충적지에 마을을 조성하고 밭농사를 통해 생계를 유지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아직까지 청동기와 무덤은 발굴된 바 없다. 이어서 겹아가리에 짧은 빗금무늬를 새긴 토기와 구멍무늬토기가 성행한 시기가 되면, 비파형동검을 비롯한 청동기와 마제석검(磨製石劍)이 제작 사용되며, 무덤이 조성되기 시작한다. 집자리의 형태는 장방형 또는 세장방형 평면을 띠는 대형이며, 생계경제는 화전(火田)을 포함한 밭농사가 중심을 이루었던 것으로 보인다. 청동기시대의 늦은 시기는 방형 또는 원형의 소형 집자리와 외반구연(外反口緣)토기, 삼각형돌갈, 일단병식석검(一段柄式石劍), 홈자귀 등이 유행하는 단계이다. 전 시기부터 나타난 고인돌, 돌널무덤을 비롯하여 움무덤, 독무덤 등 다양한 종류의 무덤이 많이 만들어지며, 비파형동검, 청동창, 청동도끼와 같은 청동기 또는 거푸집이 출토되면서 청동기 제작이 가속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논농사가 확대되면서 경제적 부의 집중과 사회복합도가 증가하게 된다. 이에 수반하여 마을을 도랑으로 둘러 환호(環濠)나 목책(木柵)과 같은 방어시설을 갖춘 대형 마을이 나타나면서 개인 간 또는 집단 간의 사회적 관계가 심화된다. 한편, 암각화나 입석(立石)이 있는 곳, 물가, 또는 마을 안과 밖의 다양한 공간에서 의례행위가 행해졌다.

청동기시대에 이어지는 초기철기시대는 중국 동북지역에 자리 잡았던 전국시대(戰國時代) 연(燕)나라의 영향으로 철제 도끼나 끌과 같은 주조 철기(鑄造鐵器)가 보급되면서

새로운 철기 문화가 형성된 시대를 말한다. 한국 고고학에서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청동기 문화가 성행한 반면 철기 문화의 발달 정도가 매우 미약하다는 점에서 ‘철기시대’가 아닌 ‘초기철기시대’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철기 이외에도 세형동검(細形銅劍)을 비롯하여 점토띠를 아가리에 붙인 점토대토기(粘土帶土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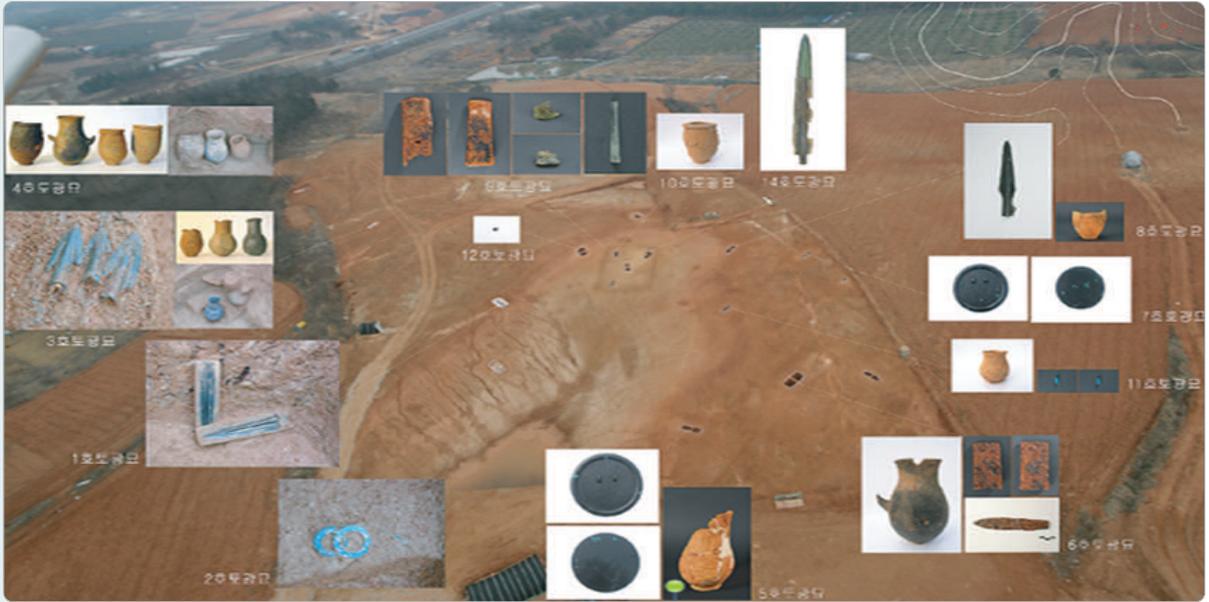
| 거주공간을 도랑으로 둘러 환호(環濠)마을 | 울산 검단리유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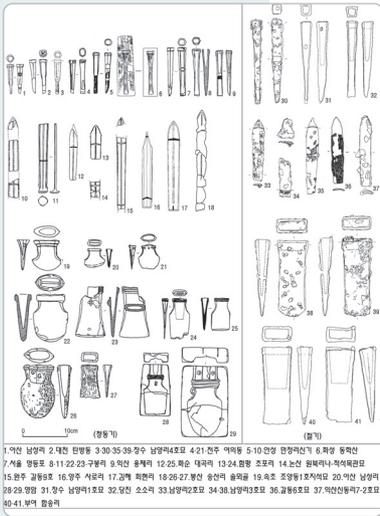
| 청동기시대 돌널무덤과 부장품 | 부여 송국리유적



| 아산 남성리 초기철기시대 돌무지 널무덤에서 나온 청동 무기·의기·공구·옥장신구 |



완주 갈동 초기철기시대 분묘 유적



초기철기시대 청동·철 공구류

흑색마연토기(黑色磨研土器), 돌무지널무덤(積石木棺墓)등과 같은 일련의 물질문화가 유행한 시대이다. 시간적으로는 청동기시대가 막을 내리는 기원전 400년 또는 300년 경부터 한군현(漢郡縣)의 영향으로 단조철기(鍛造鐵器)가 대량 보급되는 본격적인 철기시대, 즉 원삼국시대(原三國時代)가 시작되는 기원전 1세기까지로 보는 견해가 많다. 이 시대는 역사적으로 고조선이 위만조선으로 이행하는 단계이며, 동시에 그 주변 지역에도 부여와 옥저, 삼한 등의 여러 정치 집단이 형성되는 시기에 해당한다.

남한지역의 초기철기문화는 구연부의 단면이 원형인 점토대토기와 삼각형인 점토대토기를 기준으로 시기구분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른 시기인 전기에는 철기에 비해 청동제 무기와 의기류(儀器類)가 더욱 성행하였으며, 늦은 시기인 후기에는 철도끼를 비롯한 철끌, 철새기개, 철낫 등 농·공구류가 발전하였다. 이와 같은 철제 농기구의 보급과 확대는 농업 생산성의 확대는 물론 사회 내·외적으로 계급 분화를 더욱 촉진시켰다.

경기도의 청동기시대 유적

경기도의 청동기시대 유적은 주로 천변의 충적지와 산지 또는 구릉에 입지한다.

유적의 종류는 주거지 유적과 고인돌을 주체로 하는 분묘 유적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평택 토진리·수월암리유적이거나 안성 만정리유적과 같이 주거공간과 분묘공간이 함께 확인된 마을유적은 매우 드물다. 이와 같은 유적은 한강본류를 비롯하여, 북한강, 남한강, 임진강, 한탄강, 탄천, 진위천, 안성천 등 하천 본류와 지류의 수계망 주변에 분포한다. 하남 미사리유적은 남한에서 가장 이른 시기의 청동기시대 유적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여주 혼암리, 가평 대성리, 수원 금곡동, 화성 동학산·천천리·반송동, 오산 내삼미동, 평택 소사동유적 등은 경기도를 대표하는 마을 유적이다.

고인돌은 서울, 인천을 포함하여 경기지역에서 총 1,200여기가 존재했던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경기도박물관의 2007년도 보고에 의하면 960여기가 확인되었다. 이 가운데 개석식(蓋石式) 고인돌이 74%로 가장 많으며, 탁자식이 25%를 차지한다. 한반도에서 개석식 고인돌이 가장 많이 확인되는 가운데, 북방식으로 불리는 탁자식은 북한과 경기지역이, 남방식으로 불리는 바둑판식은 전라지역이 각각 높은 분포밀도를 보이고 있다. 강화도의 고인돌은 전라도의 고창, 화순지역과 함께 2000년 유네스코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안성 만정리 신기유적에는 고인돌 1기와 그 주변에 규모가 작은 4기의 돌널무덤이 부채꼴 형태로 배치되어 있었는데, 고인돌과 관련된 인물은 돌널무덤의 피장자보다 위계가 높았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돌널무덤에서는 다량의 목탄과 인골편이 수습되어 화장(火葬)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며, 광주 역동, 평택 토진리, 안산 선부동 유적 등에서도 화장묘가 확인되었다. 화장묘는 경기 이외의 남한지역에서는 조사가 많지 않은 데 반해, 중국 요동반도나 서북한지역에서 자주 확인되는 점에서 이 지역들 사이의 관련성이 주목된다.



| 화성 천천리 청동기유적의 주거지·토기·석기 |



| 강화 부근리 탁자식 고인돌 |



| 안성 반제리 초기철기 마을 유적 |



| 안성 만정리 신기유적 널무덤에서 나온 석촉·청동촉·철촉 |

경기도의 초기철기시대 유적

초기철기시대 이른 시기의 유적은 부천 고강동, 화성 동학산, 수원 울전동, 오산 가장동, 안성 반제리, 안성 망이산 유적 등 비교적 높은 산지에 고지성(高地性) 마을을 형성한 점이 특징이다. 이 유적들 가운데 일부는 도랑을 파서 둘러싼 환호(環濠)와 자연바위, 구덩이 등 의례(儀禮)행위와 관련된 시설들이 주목받고 있다. 반면에 철기가 공반되는 늦은 시기의 유적은 시흥 오이도유적과 같은 서해안지역, 또는 안성 만정리유적과 같이 내륙의 구릉에서 발견되고 있어 대조를 이루고 있다.

안성 만정리 신기유적의 무덤에서는 석기, 청동기, 철기가 함께 나왔는데 모두 화살촉이다. 초기철기시대의 무덤에서 청동기와 철기가 부장(副葬)된 예는 종종 있지만, 이와 같이 재질을 달리하는 석기와 청동기, 그리고 철기가 화살촉의 형태로 같이 출토된 예는 처음이다. 화살촉이라는 무기가 지닌 의미와 석기-청동기-철기라는 전통과 기술의 발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이다.



1. 고대사회로의 전환

삼국시대의 여명, 경기지역의 변화

경기도 지역에서 고대사회로의 전환은 새로운 철기 문화가 유입되기 시작한 소위 초기철기시대부터 차츰 이루어졌다. 안성 반제리, 남양주 수석리 등과 같이 비교적 높은 구릉에 환호로 둘러 쌓인 마을 유적에서는 이전과는 달리 내부에 화덕이 설치된 타원 또는 네모난 모양의 평면 형태를 하고 있는 가옥이 만들어졌다. 무덤의 경우 지석묘와 석관묘가 사라지고 목관묘가 그 자리를 대신하였다. 더불어 점토대토기와 흑도장경호, 두형토기 등과 세형동검이 사용되어 이전과는 다른 문화적 양상을 보인다.

이후 고조선이 한(漢)과의 전쟁에서 패망하고, 서북한 지역에 본격적으로 중국 문화가 들어오기 시작하였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문화의 영향은 점차 경기도 지역에도 미쳤을 것으로 여겨지지만, 최근 가평 대성리유적과 같이 출토철기를 통해 낙랑의 영향 이전에 조성된 문화를 기반으로 한 유적도 확인되어 당시 경기지역의 변화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필요하게 되었다.



| 경기지역 출토 초기철기시대 각종 토기 |



오산 수청동 유적 주구토광묘군

『삼국지』등 중국 문헌을 통해 볼 때 당시 경기 지역에는 마한(馬韓)의 소국들이 일정 규모 수준의 정치체로 자리를 잡고 성장하고 있었다. 현재 이들 소국의 면모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자료는 아직 많지 않지만, 하남 미사리, 남양주 장현리, 화성 발안리 등에서 일부 마을유적이 조사되면서 대략적인 양상을 알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2세기 무렵이 되면 조성된 집자리에서 확인되는 높은 화재율은 당시 집단 간 알력이 커지는 사회의 변화상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이러한 변화는 고분에서도 나타나는데, 한강 이남 지역에서는 새롭게 매장 주체부 주위에 도랑(周溝)을 두른 주구토광묘가 조영되기 시작하였다. 여기에는 오산 수청동, 용인 상갈동 등 경기 남부 지역에서 확인되는 구 지표면 아래로 묘광을 파 매장 주체부를 만들고 그 주위에 도랑을 두른 형태를 띠고 있다. 이외는 달리 김포 운양동·마송리와 인천 동양동 등 경기 서부지역에서 확인되는 네 면에 도랑을 두르고 이 과정에서 나온 흙으로 구 지표면 위에 성토부를 만든 후 그 안에 매장 주체부를 마련하는 분구묘도 확인되고 있다.

반면 임진강과 한강 중상류 유역에서는 3세기를 전후하여 강안 사구에 군집을 이루지 않고 단독으로 축조되는 적석분구묘가 조영되었다. 무덤 구조는 자연 사구의 상면부를 정지한 다음 강돌을 얇게 쌓아 적석층을 만들었는데, 매장주체부인 중심부는 7~8겹 가량 두껍게 돌을 쌓고 주변부에는 1~2겹 가량 쌓았다. 이렇게 당시 경기 지역에는 문화적으로 새로운 계보를 가지고 있는 세력들이 각각의 영역

에서 성장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같은 시기를 내용을 전하는 『삼국사기』에는 기원전 18년 고구려에서 남하한 온조와 비류가 한강 유역에 정착하여 세운 십제(十濟)를 바탕으로 백제가 건국되었다고 한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마한의 소국 중 하나인 백제국(百濟國)으로 이해되는데, 이 백제가 마한이라는 틀에서 벗어나 역사의 전면에 나서는 것은 3세기대 벌어진 대규모의 전쟁과 관련이 있다.

3세기 초 서북한 지역의 한 군현 세력은 마한의 신지와 읍차에게 각각 읍군(邑君)과 읍장(邑長)의 인수를 주는 정책을 통해 마한 세력의 통합을 방해하고 있었다. 그런데 246년에 중국 위나라가 진한 8국의 관할을 대방군에서 낙랑군으로 바꾸는 조치를 내리자, 중국 군현과 인접해 있던 신분고국(臣濱沽國)을 중심으로 한 마한 북부의 세력들이 이에 반발하여 대방군의 기리영(岐離營, 지금의 황해도 평산)을 공격하였다. 이 과정에서 마한 북부 세력은 거의 멸망의 상황에 이르고, 이들 세력을 대신하여 한강 하류에 있던 백제국이 이 지역의 새로운 강자로 떠오르게 된다. 이때 비로소 마한의 소국 중 하나인 백제국에서 삼국의 하나인 백제로 발전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문헌자료를 통해 일반적으로 백제의 국가적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하는 고이왕의 시대(234~286)이다.



2. 경기지역의 둘러싼 삼국의 쟁패

백제의 중심지로서의 경기지역

한강유역을 중심으로 성장하였던 백제는 고이왕(古爾王)대에 북으로는 낙랑(樂浪)과 말갈(靺鞨), 동남쪽으로는 신라(新羅)로 대표되는 진한(辰韓)의 여러 나라들과 군사적 충돌을 하면서 세력을 크게 확대하였다. 더불어 당시 왕자였던 책계왕을 대방군 공주와 결혼시키는 등 적극적인 외교정책을 통해 중국 군현과의 관계도 새롭게 설정하였다.

그 결과 270~280년대에는 서진(西晉)과의 대외교섭을 주관하는 마한의 대표자인 '마한주(馬韓主)' 내지 '마한왕(馬韓王)'이라는 위상을 갖게 되었다. 이는 이전 마한(馬韓) 여러 나라들이 개별적으로 누리고 있던 중국과의 교역창구에 대한 독점으로 이어졌다. 고이왕은 주변 세력들을 아울러 북으로는 예성강(禮成江), 동으로는 춘천(春川), 남으로는 안성(安城)·성환(成歡), 서로는 서해에 이르는 지역을



| 화성 마하리유적 대형 토광묘 |

영역으로 확보하였다.

그리고 좌장(左將)을 설치해 병마권(兵馬權)을 장악하고, 좌평을 설치하여 귀족회의를 주관하게 함으로써 왕의 위치를 한 단계 격상시켰으며, 금령(禁令)을 선포하고 솔계(率系) 관등과 덕계(德系) 관등을 토대로 하는 관제를 만들어 지배체제의 확립을 도모하였다. 이로써 백제는 고대국가로서의 토대를 갖추게 되었다.

이와 함께 백제의 중앙은 지방에 대한 지배구조를 구축해 나갔다. 우선 백제 왕도(王都)에 집중된 사방의 물자로 왕실의 경제적 기반을 확립하고, 또 물자를 호족들에게 나눠줌으로써 왕권의 범위는 확대되어 나갔다. 이는 발굴성과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3세기 후반 백제양식의 토기는 경기도 일원으로 확대되었으며, 4세기 중·후반에는 충청도 일원까지 확산되었다. 더불어 백제 중앙에서 지방세력에게 사여한 것으로 여겨지는 금동관, 금동신, 대금구 등의 착장형 위세품과 중국 도자기 등이 함께 발견되고 있어 이 무렵의 이 지역이 백제의 지방으로 편제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백제 중앙세력의 고분군은 도성 유적인 풍납토성과 몽촌토성에 인접한 서울 강남 석촌동·가락동 일원에서 조사된 토광묘, 즈석(葦石)봉토분, 기단식적석총 등을 주요 묘제로 하고 있다. 반면 지방의 경우에는 기존의 묘제가 지속되는 가운데 여러 변화도 함께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화성 마하리유적과 같이 대형 토광묘가 나타나고 이후 다시 수혈식석곽묘로 전환되는 경우다.

나아가 최근 들어서는 횡혈식석실분(橫穴式石室墳)도 하남 광암동, 성남 판교동, 화성 마하리, 원주 법천리 등 여러 곳에서 발굴되었다. 화성 마하리 석실분의 경우

에는 4세기 후반에 출현한 것으로 이해된다. 최근에는 이렇게 지방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오는 횡혈식 석실분이 백제 중앙에서도 수용되었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한편 성남 판교동의 장방형 석실분은 석실 벽이 밖으로 배가 부른 형태로 서북한 지방 전실묘와 관련성에 대해서도 주목된다.

4세기 후반부터 본격화된 백제의 광범위한 영역 확대과정은 고구려(高句麗)와의 전쟁을 불러오게 되었다. 백제의 진출방향이 북쪽의 대방군(帶方郡) 옛 땅으로 정해지면서



| 성남 판교동 횡혈식 석실분 |

369년 9월에 고구려 고국원왕(故國原王)이 백제를 공격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백제 근구수(近仇首) 태자가 치양에 진격하여 고구려 군대를 대파하였다. 이어 371년 근초고왕(近肖古王)은 근구수 태자와 함께 정예 병력 3만 명을 거느리고 고구려 평양성까지 진격하여 고국원왕을 전사시켰다. 이를 통해 백제의 영역은 수곡성(水谷城: 황해도 신계)에 이르렀다.

그러나 5세기에 고구려가 평양성으로 천도하자 공수의 전환이 이루어졌다. 백제는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신라와 화친 교섭을 통한 나제동맹(羅濟同盟)을 체결하였다. 나아가 개로왕(蓋鹵王)은 왕족 중심의 지배체제를 통하여 강력한 대왕권(大王權)을 확립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구려의 군사적 압박은 북연(北燕)이 멸망한 이후 더욱 가속화 되어 예성강과 임진강 유역에서 30여 년 동안 지속되었다. 이에 왕의 아우인 곤지를 왜(倭)에 파견하여 왜군의 동원을 도모하기도 하고 북중국의 북위(北魏)에 사신을 파견하여 지원을 요청하기도 하였지만, 475년에 단행된 고구려 장수왕(長壽王)의 기습적인 공격으로 왕도인 한성은 함락되고 개로왕은 피살되었다. 이로 인해 백제는 웅진으로 천도하고 경기지역에는 새롭게 고구려가 등장하게 된다.

고구려의 경기지역 지배, 고구려지명의 유래

문헌자료를 통해 볼 때 475년 고구려 장수왕의 침공으로 인해 백제의 왕도인 한성이 함락됨으로써 도읍을 웅진, 지금의 공주로 옮기게 되고, 경기지역은 더 이상 백제의 중심지로 남을 수 없었다. 이 보다 앞서 백제는 고구려의 남진을 대비하여 신라와 화친관계를 맺었지만, 한성의 함락을 막지는 못하였다. 『삼국사기』지리지 한주조(漢州條)에는 현재 한강하류유역과 경기남부로 비정되는 여러 군현이 본래 고구려의 군 또는 현이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를 바탕으로 이후 551년 백제가 신라와 연합하여 한강유역을 공략하기 까지 약 76년간 경기지역은 고구려의 세력 아래 놓인 것으로 이해하기도 한다.

그런데 같은 『삼국사기』백제본기에는 한성이 함락된 이후에도 한강 이북 지역으로 여겨지는 지역이 나오며, 그곳에서 고구려와 접전을 벌이고 있는 기사가 나오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한강유역을 중심으로 한 경기지역이 지속적으로 고구려 지배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백제가 이 지역을 다시 영유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기도 한다. 즉 장수왕에게 수도를 빼앗기고 일시 남쪽으로 밀리기는 했지만 동성



| 연천 호로그루성지 |



| 연천 호로그루성지 출토 와당편 |



| 용인 보정리 고구려 석실분 |

왕 또는 무녕왕대에 걸쳐서 한강유역을 회복했다가 성왕 7년 오곡지원(五谷之原)에서의 패배로 한강유역을 고구려에게 다시 빼앗겼으며 성왕 29년(551)에 백제가 다시 찾았다는 것이다.

이 두 가지 견해는 475년에서 551년 사이 경기도의 역사를 전혀 다른 양상으로 복원하게 된다. 이러한 문헌자료가 가지고 있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최근 조사되고 있는 고고학적 성과를 보면 경기지역에서 고구려의 영향력은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경기지역에는 임진강유역과 한강유역에 고구려의 관방유적이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다. 우선 임진강유역에는 여러 곳의 고구려 관방유적이 존재하는데, 특히 강의 북편에 위치한 호로그루성지와 당포성지, 무등리성지, 은대리성지 등에서 다수의 고구려토기편과 기와편이 확인되었다. 여기에서 발견되고 있다. 한강유역에서도 구의동유적과 아차산 일대의 고구려 보루 유적 그리고 몽촌토성내 고구려 유적이 확인되었다. 특히 구의동과 아차산 일대의 유적은 구릉

의 정상부나 산 능선상의 봉우리에 입지하고 있으며, 출토유물과 유구의 양상을 통해 군사요새로 추정된다. 이러한 고구려의 관방유적은 475~551년 사이 고구려가 경기지역을 영유하고 있었던 것을 잘 보여준다.

물론 이들 유적이 대부분 한강 이북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한강 이남에 백제군이 지속적으로 주둔하고 있었던 것으로 이해되기도 하지만, 화성 등에서 발굴조사된 고구려 석실분을 통해 『삼국사기』지리지에 보이는 고구려계 균현 기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즉 새롭게 조사된 성남 판교동 고분, 용인 보정동 고분, 화성 청계리 고분 등은 상부구조를 확인된 경우 모두 말각조정이 된 천장가구구조와 연도를 갖추고 있어 고구려계의 횡혈식 석실분으로 이해된다. 이를 이전에 조사된 여주, 연천 등의 고구려계 고분과 연결하여 이해할 때 경기지역 북

부 뿐 아니라 남부에서도 고구려 문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었음을 잘 보여준다. 이들 고분의 조영시기는 대체로 5세기 후반에서 6세기 초반으로 이해되는데, 이는 475년 고구려의 한성 공략 이후에도 상당 기간 경기 남부지역이 고구려의 영향 아래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신라의 영역화 과정, 신주에서 한산주까지

백제 성왕은 고구려에 빼앗긴 경기 지역을 탈환하기 위해 신라·가야와 동맹을 이루어 연합군을 결성하고, 551년 북진하였다. 우선 백제는 고구려의 남평양을 공격하였다. 이때 백제는 한강 하류의 6군을 회복하고, 신라는 고현(高峴:철령)이남 죽령(竹嶺)이북의 10개 군을 점령했다. 이를 통해 경기 지역은 475년 빼앗긴 후 76년 만에 다시 백제의 영토가 되었다.

백제와 신라의 동맹은 553년 한강 상류지역을 장악하고 있던 신라의 한강 하류 지역에 대한 점령으로 파기되었다. 임진강유역을 포함한 경기지역 전역을 장악한 신라는 곧바로 이곳에 신주(新州)를 설치하였다. 당시 신라는 상주(上州)·하주(下州) 등과 같은 소백산맥 영역 안에 소재하였던 기존의 주(州)에 더하여 경기지역을 새롭게 편입된 주로 확정하였던 것이다. 이때 설치된 신주의 주치(州治)는 현재 하남시 춘궁동 이성산성(二聖山城)일원이나 그 인근의 교산동 토성 일대로 비정되고 있다. 한편 이와 함께 서해를 통한 대중국 외교의 관문이라고 생각되는 당성(唐城)[당항성(黨項城)]도 신라가 차지함으로써 내륙과 해안이 하나로 합쳐진 경기 남서부지역 대부분을 신라의 영역화 할 수 있게 되었다. 이후 진흥왕 16년(555년)에는 왕이 직접 북한산을 순행(巡幸)하였는데, 북한산 순수비에 그 내용이 전하고 있다.

그런데 새롭게 신라의 영역이 되었던 경기지역의 상황은 당시 상황에 따라 급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557년(진흥왕 18)에 신라는 한강 이남에 설치하였던 신주를 폐하고 한강 이북의 지금의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북한산주(北漢山州)를 신설하였다. 이는 고구려의 한강 유역 진출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오히려 561년 백제가 신라의 국경을 공격하는 상황이 되자 568년(진흥왕 29) 북한산주를 대신하여 경기도 이천에 남천주(南川州)가 설치되었다. 이후 603년 고구려가 북한산성을 침입하자 진평왕은 군사 1만명을 직접 이끌고 한수(漢水)를 건너 북한산성을 구원했다. 다음해 진평왕은 남천주를 폐지하고 북한산주를 다시 설치하였다.



백제 · 고구려 · 신라의 흔적이 공존하는 용인 마북동유적 전경 |

이와 같이 당시 상황은 비록 신라가 한강을 중심으로 한 경기지역을 영유하고 있었지만 전쟁의 추이에 따라 주치가 이동을 거듭할 정도로 혼란한 상황이었다고 할 수 있다. 아차산성에서 출토된 ‘북한(北漢) · 한산(漢山)’ 명 기와편이나, 이성산성에서 출토된 ‘무진년(戊辰年)’ 명 목간에 기록된 ‘남한성(南漢城)’은 이 지역 명칭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유물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643년(선덕왕 12) 11월에 백제 의자왕(義慈王)은 고구려와 화친관계를 맺고 신라와 당나라를 해로(海路)로 연결시켜주는 요충지인 당항성(黨項城)을 공격하였다. 이를 통해 신라와 당나라간의 연결 통로를 차단시키려고 했던 것이다. 신라는 당나라에 사신을 보내 구원을 요청하였는데, 이에 의자왕은 곧 군대를 철수하였다.



화성 당성 북문지 발굴 당시 전경 |

이후 660년 당나라군과의 연합을 통해 백제를 멸망시킨 신라는 다시 고구려와의 접경인 경기지역에 군사력을 집중하였다. 661년(무열왕 8)에는 고구려는 말갈과 함께 경기도 여주의 술천성(述川城)을 공격하고, 다시 북한산성을 공격했지만 모두 승리하지 못했다. 이후 662년(문무왕 2)에는 남천주가 다시 설치되고, 664년에는 그 명칭이 한산주(漢山州)로 바뀌었는데, 이때 한산주 도독에 임명된 이는 아찬(阿飡) 관등의 김군관(金軍官)이었다. 이해 김군관은 한산주의 군대를 이끌고 일선주군, 그리고 웅진도독부군과 함께 고구려의 돌사성(突沙城)을 함락시켰다. 이와 같이 고구려와 국경을 접하고 있던 한산주는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에 위치해 신라의 삼국통일에 지대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670년 신라의 삼국통일 후 최초로 지방행정구역의 통폐합이 단행되면서 남한산주로 고쳐 부르게 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신라는 672년(문무왕 12)에 한산주에 주장성(晝長城)을 축조하였다. 이 주장성은 경기도 광주의 남한산성으로 추정되는데, 당의 공격에 맞서는데 일정한 역할을 하기 위해 쌓은 것으로 이해된다. 실제로 신라 군대는 이 무렵 한산주 관내인 지금의 임진강 일부 구간인 칠중하와 한강 하류인 왕봉하 전투에서 당나라 군대를 격멸하였다. 그리고 칠중성(七重城:과주)과 매소성(買肖城:양주) 그리고 아달성(阿達城) 등지에서 격전을 치렀다.



3. 통일신라와 한산주, 경기도 원형의 탄생

백제와 고구려를 평정하고 당나라 세력을 몰아낸 후 신 문왕대에는 드디어 전국이 9주 5소경으로 편제가 대략 매듭지어졌다. 9주 중 규모가 가장 큰 한산주는 지금의 경기도를 중심으로 충청북도와 황해도를 포함한다. 한산주는 757년에 명칭을 한주로 개명하였으나, 이후로도 한산주의 명칭은 계속 사용되었다. 개편 당시 한산주는 27개의 속군과 46개의 속현, 그리고 1개의 소경을 관장하였다. 한산주에는 남천정(南川停)과 골내근정(骨乃斤停)의 두 군단을 비롯하여 한산주서(漢山州誓) · 만보당(萬步幢)이 배치되어 있었다. 장관으로 도독(都督), 차관으로 주조(州助, 일명 州輔), 그 밑에 장사(長史, 일명 司馬)를 각각 1인씩 두었다.



한남 이성산성 대형건물지

이보다 앞서 718년(성덕왕 17)에는 발해의 위협에 대비하여 한산주의 북쪽 변경에 대한 축성을 통해 예성강 이북지역으로 진출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당시 잦은 자연재해로 인해 농민들은 몰락하고, 국가 재정은 점차 감소하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루어진 패강지역을 포함한 북방지역의 개척과도 맥을 같이 하는

알아두기 당나라 대군을 물리친 매소(초)성 전투

신라 문무왕 15년(675) 9월 신라군이 경기도 양주 매소성에 주둔해 있던 당군 주력 20만을 격퇴시킨 전투이다. 신라와 함께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킨 당은 이후에도 철군하지 않고 백제와 고구려 영토를 직접 지배하고자 하는 등 계속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675년 2월 당나라 장수 유인궤(劉仁軌)는 칠중성(七重城)을 함락시키고 매소성을 점령한 후 이근행(李謹行)으로 하여금 의정부 방면으로 남하하는 전진기지로 삼게 하였다.

이에 앞서 신라는 3차례에 걸쳐 매소성을 공격한 바 있으나 번번이 패배하여 신라군이 매소성을 정면공격한다는 것은 승산이 없는 일로 보였다. 그렇다고 해서 병력 수에서 열세한 신라가 매소성을 포위하여 외부와 고립시킬 수 있는 형편도 아니었다. 당군의 20만에 달하는 병력은 매소성에만 주둔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주변의 상당히 넓은 지역에 분산되어 포진하고 있었던 것이다. 당군이 촘촘히 포진해 있는 그곳으로 신라군이 진입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그러나 신라에게도 당군을 꺾을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었다. 당군은 임진강의 수로를 통해 본국으로부터 물자를 보급 받고 있었는데, 신라가 임진강에서 당 보급선을 차단하면 되는 것이다. 신라는 임진강 하구에 위치한 천성(泉城)에 함대를 집결시키고 당 보급함대를 기다렸다. 675년 9월 당나라 장수 설인궤(薛仁貴)의 함대가 밀물을 타고 임진강 입구에 밀려들어왔다. 그것은 전쟁물자를 가득 실은 보급선들이었다. 물론 이를 호위하기 위한 전함들도 있었다. 그러나 보급선을 대동한 당군의 함대는 기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당의 전함들이 먼저 천성을 포위 공격하려고 하자 신라군이 여기에 대한 반격에 나서 승리를 거두어 당군의 사기를 크게 저하시켰다.

이후 보급로가 차단된 당군은 신라군이 매소성을 공격하자 별 저항도 없이 말 30,380필과 상당한 병기를 버리고 도주했다고 한다. 매소성전투는 신라가 당나라에게 결정적 타격을 주고 나당전쟁을 승리로 장식한 육지전쟁 가운데 최대의 성과였다는 면에서 중요하다. 당군의 병력은 『삼국사기』에는 20만 명이라 했지만 중국측 사서를 참조하면 4만 명으로 추측된다.

것이다. 더불어 하남 천왕사지·안양 중초사지·여주 원향사지 등 새롭게 조사된 절터를 통해 당시 발전된 신라 왕경의 문화가 한산주 곳곳에서 확대 재생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본래 고구려의 당성군에서 경덕왕때 당은군(唐恩郡)으로 개칭하였는데, 829년(흥덕왕 4)에는 여기에 진이 설치되면서 당성진(唐城鎭)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진(鎭)’은 국토방위에 중요한 곳을 선정하여 군대를 주둔시켜서 요새화한 일정한 지역으로 지금의 강화도에 설치한 ‘혈구진(穴口鎭)’과 더불어 경기지역 서부의 전략적 비중을 잘 보여준다.

이러한 공간적 변화과정과는 별개로 경기지역은 정치적인 상황에 연루되기도 하였다. 신라는 8세기 후반 혜공왕대부터 중앙에서는 대공의 난 등 귀족들의 권력투쟁이 일어나고 지방에서는 도적이 생기고 민심이 이반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822년(헌덕왕 14)에는 김주원의 아들인 김헌창(金憲昌)이 일으킨 통일신라 최대의 내란으로 인해 신라 중앙은 크게 혼란에 빠지게 되었다. 이때 한산주 관내의 중원경(中原京)이 반란군 진영으로 넘어가기는 하였지만 한산주는 잘 수비하여 그 피해를 입지 않았다. 이후 825년(헌덕왕 17)에는 김헌창의 아들 김범문(金梵文)이 여주 고달산의 도적 수신(壽神) 등 1백여 명과 함께 남평양성에 도읍을 세우려고 북한산



| 여주 원향사지 출토 귀면막새편 |

주를 공격하였다. 그러나 한산주 도독 총명(聰明)이 군대를 출동시켜 이들을 물리쳤다.

9세기 후반 신라 쇠망의 모습은 한산주 관내에서도 나타났다. 여기서도 장군과 성주를 지칭하는 호족들이 활거하였는데, 대표적인 인물로 죽주[안성]의 기훤(箕萱)을 들 수 있다. 이와는 별도로 고구려의 부활을 자임한 궁예(弓裔)는 충주를 비롯한 남한강 상류지역을 장악한 북원경(北原京:강원도 원주)의 대호족인 양길(梁吉)과 격돌하였다.

890년대부터 새롭게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던 패서지역의 호족은 895년을 기점으로 궁예의 휘하에 들어오게 되고, 896년에는 송악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왕건도 합세하자 한강 하구를 중심으로 한산주 대부분을 장악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남한강유역만 장악하고 있던 양길로서는 수로를 온전하게 이용할 수 없었고, 한강유역의 지배권이 양분되자 양자가 격돌되었다. 결국 899년(효공왕 3) 비뇌성(非惱城: 안성 죽주산성)전투에서 궁예가 양길의 군대를 크게 격파하고 한강 수로를 독점하는 전략상의 대승을 거두었다. 900년(효공왕4)에 궁예는 다시금 광주(廣州)·충주(忠州)·당성(當城)·청주(淸州: 충북 괴산군 청천면)·괴양(槐壤: 충북 괴산) 등의 고을을 쳐서 모두 평정시켰다. 한강을 대동맥으로 하는 한산주 영역에 대한 지배권을 궁예가 확보한 것이다.

궁예는 초창기에는 부하들과 동고동락하면서 인심을 많이 얻었고 처음 이름이 범명인 선종(善宗)이라 한 것과 미륵을 섬기는 그의 태도에서 당시 사람들은 그를 도탄에 빠진 중생을 구제하는 미륵의 화신으로 추앙하고 많이 따랐다고 한다. 그러나 이후에 ‘큰 동방의 나라’를 뜻하는 마진(摩震)이나 태봉(泰封)과 같은 국호로 연이어 바꾸거나 철원 도성에 화려한 궁궐을 짓는 등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였다. 또 종교에 의지하여 이전 신라의 국왕보다 오히려 더 강력하고 절대적인 권력을 사용하려하자 이에 위협을 느낀 왕건(王建)세력에 의해 결국 제거되고 말았다.

| 제3장 | 고려시대



1. 고려의 탄생과 '경기'의 성립

고려(高麗) 건국과 후삼국(後三國) 통일

6세기 중반 한강유역을 차지한 신라(新羅)는 이를 바탕으로 더욱 강성해질 수 있었고, 백제(百濟)와 고구려(高句麗)를 멸망시킨데 이어 한반도를 차지하려던 당(唐)을 물리치고 삼국을 통일하였다. 이후 1백여 년은 그야말로 태평성세였다. 그러나 8세기 후반 혜공왕(惠恭王) 때부터 귀족들 간에 왕권 다툼이 치열해지고, 지방에서는 생활이 곤궁해진 농민들이 초적(草賊)이 되어 전국 곳곳에서 활동하는 등 극심한 혼란기에 접어들었다. 이에 따라 지방의 유력자인 촌주(村主)들은 스스로 자위대를 조직하여 도적이거나 반란세력에 맞서 자기 고장을 지키는 수밖에 없었다.

또 중앙에서 부임한 지방관들도 혼란한 시대상황에서 중앙의 권력이 지방까지 미치지 못하게 되자, 자립으로 성을 쌓고 자신의 세력권이 미치는 범위를 거의 독립적으로 지배하였다. 이들을 성주(城主) 또는 장군(將軍)이라 하였는데, 신라말 고려초에 활동한 호족(豪族)의 대다수는 바로 이들이었다. 이처럼 중앙의 통제력이 미치지 못하게 되면서 신라 하대 지방사회는 촌주, 초적, 농민반란군, 지방관 출신 등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당시 대표적인 지방세력인 촌주는 수원의 최서천(崔徐遷)·최승규(崔承珪), 김포 일대의 허선문(許宣文), 안성의 박적오(朴赤烏)·박기오(朴奇梧) 등이 있고, 초적·반란군은 상주의 원종(元宗)과 애노(哀奴), 안성의 기훤(箕萱), 원주의 양길(梁吉), 강릉·명주의 궁예(弓裔) 등이 있었다. 또한 해상세력이 출신으로 개성의 왕건(王建)과, 지방관 출신으로 광주(光州)의 견훤(甄萱) 등이 활동하였다.

이중 가장 빠르게 세력을 결집하여 나라를 세운 것은 견훤이었다. 그는 서해안을 지키는 장교 출신으로 892년에

초적

초야(草野)의 적이라는 뜻으로 난민(亂民)을 일컫는 말. 우리나라 역사에서 초적이 크게 활동한 시기는 신라시대인 9세기 말과 고려시대인 12세기 후반기이다.



| 견훤산성 | 경북 상주시 화북면

무진주(光州)를 점령하고 왕위에 올랐으나, 처음에는 신라의 벼슬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러다가 900년에는 완산주(전주)에 도읍을 정하고, 백제를 계승한다는 뜻에서 나라 이름을 후백제(後百濟)라 하였다. 그는 신라의 기존 군대를 정비하여 활용했기 때문에 비교적 쉽게 강력한 군사력을 갖추 수 있었다.

한편 헌안왕(憲安王)의 서자로 태어난 궁예는 왕권경쟁에서 희생되자 반란의 뜻을 품고 891년에 안성의 기회를 찾았다. 그러나 기회가 자신을 대접해주지 않는 데 불만을 품고 이듬해 양길의 부하로 들어갔다.

그 뒤 강릉·명주·인제·화천·철원 등을 점령하여 세력이 강대해지자 양길과 결별하고 독립하였으며, 곧바로 임진강 연안으로 진출하여 송악·장단·김포·강화 지역까지 복속시키거나 투항을 유도하였다. 이어 양길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여 충청권까지 세력을 넓힌 궁예는 901년에 스스로 왕이라 칭하고, 나라 이름을 후고구려(後高句麗)라 하여 고구려 부흥과 신라 타도를 표방하였다. 이렇듯 영원할 것만 같던 천년왕국 신라는 통일한 지 2백여 년 만에 다시 3국으로 정립되어 후삼국시대(後三國時代)가 펼쳐지게 된 것이다.

후삼국 중 후고구려 세력이 가장 강성하였다. 궁예는 부하들과 동고동락하면서 인심을 얻었고, 미륵불을 자처함으로써 당시 사람들은 궁예를 중생 구제의 화신으로 추앙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기록에 따르면 궁예는 매우 미신적인 불교를 믿었던 것으로 보인다. 자신을 미륵불(彌勒佛)이라 칭하면서 머리에 금책을 쓰고 방포를 입었으며, 두 아들을 청광보살(靑光菩薩)·신광보살(神光菩薩)이라 불렀다. 또한 외출할 때는 항상 백마를 타고 말머리와 꼬리를 비단으로 장식하였으며, 소년·소녀들에게 깃발·천개·향·꽃을 들고 앞에서 인도하게 하고 비구승들에게는 범패를 부르고 염불하면서 뒤를 따르게 하였다. 또한 그는 성격이 포악하고 의심이 많아 부인과 두 아들을 죽이는가 하면, 남의 마음을 꿰뚫어볼 수 있는 '관심법(觀心法)'을 터득하였다고 하면서 신하들을 위협하거나 살해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알아두기 고려의 후삼국 통일 의의

고려의 후삼국 통일은 단순히 다른 두 나라를 누르고 승리를 거두었다는 것을 넘어 이를 계기로 우리 민족이 완전하게 정치적·사회적·문화적 통합을 이루게 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 후삼국의 혼란을 수습하고 통일 왕조를 수립한 고려는 우리 역사에서 다음과 같은 의의를 지닌다.

통일 신라 말기부터 성장한 지방 세력이 고려 왕조의 새로운 지배 세력으로 등장하였다. 고려 건국의 주역은 왕건을 포함한 지방 세력이었다. 고려는 고구려·백제·신라의 다양한 문화를 융합하여 개방성과 다양성을 특징으로 하는 새로운 민족 문화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신라의 삼국통일이 민족 통일의 출발점이라면, 고려의 후삼국 통일은 옛 삼국 출신의 다양한 세력과 발해인까지 포용한 실질적인 민족 통일의 완성이었다.



왕건 영정

뿐만 아니라 도성에 화려한 궁궐을 짓기 위해 과중한 세금을 거두어들였으며, 노역이 끊이지 않아 백성의 원망과 비난을 받게 되었다. 결국 궁예는 폭정을 일삼다가 홍유(洪濡)·배현경(裴玄慶)·신승겸(申崇謙)·복지겸(卜智謙) 등의 지지를 얻은 왕건세력에 의해 제거되고 말았다.

918년 정권을 장악한 왕건세력은 이듬해 도읍을 철원에서 송악(개성)으로 옮기고, 국호를 고려라 정하였다. 또 궁예의 실정을 교훈삼아 민심을 모으고 안정시키는 데 힘을 쏟았다. 우선 백성들에게 과중한 세금 대신 법에 맞도록 세금을 거두겠다고 선언하고, 호족들에게는 '보답을 후하게 하고 자신을 낮추어 대하는 정책'으로 그들을 끌어들이고자 하였다.

또한 지방 호족의 딸을 자신의 왕비로 맞는 혼인정책을 추진하여 호족과 유대를 꾀하였다. 그리하여 왕건은 모두 29명의 부인과 혼인하여 왕권 안정과 세력 확대를 도모하였으며, 신라에 대해서도 궁예와는 달리 우호적인 태도를 취하였다.

이어 935년 신라 경순왕(敬順王)이 고려에 귀부(歸附)함으로써 고려는 명실공히 신라의 전통과 권위를 계승하게 되었고, 936년에는 내분에 휩싸인 후백제를 멸하여 마침내 후삼국 통일을 달성하였다. 이로써 후삼국시대는 30여 년간 유지되다가 마감하였고, 한반도의 중심에는 고려라는 통일국가가 역사의 주인공으로 등장하였다.

경기(京畿)의 성립과 변화

고려 건국과 후삼국 통일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 우선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중심무대가 한반도 남동쪽(경주)에 치우쳐 있다가 중부지역인 개경으로 옮겨졌다. 이에 따라 모든 생산과 소비활동이 개경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인구 또한 급속히 증가하였다. 개경(開京)이 고려의 수도가 된 것은 군사적·지리적 요인도 중요하였지만 무엇보다 왕건의 고향으로서 왕건세력의 근거지라는 점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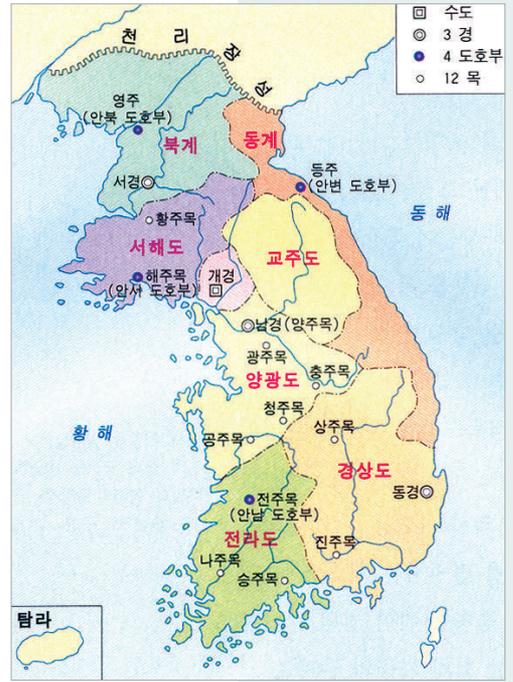
성종(成宗) 초에 이르러 지방의 행정조직도 정비되어 전국을 5도(道)와 양계(兩界), 경기로 나누고 그 안에 3경(京), 4도호부(都護府), 8목(牧)을 비롯하여 군(郡)·현(縣)·진(鎭)을 두었다. 예로부터 국왕이 거주하는 수도는 일반 지방과는 특별한 지위에 있었다. 중국의 『주례(周禮)』에서는 도성에서 사방 1천 리의 영토를 왕기(王畿 : 왕도 부근의 땅)라 하여 황제가 직접 통치하고, 그 바깥 지역을 제후들이 영토

를 받아 다스리는 것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시대가 흐르면서 왕기 또는 기내(畿內)의 개념은 그 지역적 범위가 축소되어 도성의 안과 도성 밖 인근지역을 뜻하게 되었다. 역사를 통하여 기내 지역은 도읍이 제구실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하기 위해 설정한 지역으로서 일반지방과는 구별되는 특별한 위상을 가지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삼국시대에 이미 국왕의 근거지로서 왕기라는 개념이 사용되었다. 따라서 개경을 수도로 정한 왕건도 역시 관례대로 개경과 그 배후지역을 설정하여 통치하였을 것으로 짐작되지만 그 지역을 직접 ‘왕기’라고 부르지는 않았다. 그 뒤 성종대에 문물제도를 중국식으로 정비하고 중앙집권체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경기제(京畿制)’의 개념이 도입되었다.

경기제는 왕기제도를 본뜬 것으로 당 나라에서 도성 안을 경현(京縣, 또는 赤縣)이라 하고, 도성 밖을 기현(畿縣)으로 구분하여 다스렸던 데에서 비롯되었다. 고려는 이를 모방하여 995년(성종 14)에 수도인 개경을 개성부(開城府)로 개편하고 그 주변에 6개의 경현과 7개의 기현을 특별행정구역으로 설치함으로써 경기제의 단초를 열었다.

이어 1018년(현종 9)에는 기존의 개성부를 폐지하는 대신 개성현령과 장단현령을 설치하여 각각 3개·7개의 고을을 관장하게 하고, 이 지역을 공식적으로 ‘경기’라 부르게 되었다. 이때를 경기제 시행 원년으로 볼 수 있다. 당시 경기지역을 구성했던 12개 고을은 개성(開城)·정주(貞州)·덕수(德水)·강음(江陰)·장단(長湍)·송림(松林)·임진(臨津)·토산(兔山)·임강(臨江)·적성(積城)·파평(坡平)·마전(麻田) 등으로 오늘날 개성시와 황해도 금천군·개풍군·장단군, 경기도 파주시·연천군의 일부에 해당하는 지역이었다. 이후 경기지역은 1062년(문종 16)에 서해도(西海道 : 황해도)의 우봉(牛峯 : 현 황해도 금천군)을 흡수하였고, 7년 후에는 주변의 39개 현이 경기에 속하게 되어 경기지역은 모두 52개 고을로 확장되었다. 그러나 이때의 경기지역 확대는 관리들에게 지급할 토지를 확보하기 위한 일시적인 조치로 보이며, 곧 본래대로 환원되었다. 또한 1232년(고종 19) 몽골의 침입으로 도읍을 개성에서 강화(江華)로 옮겨 환도(還都)하는 1270년까지 38년 동안에는 경기제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였다.



고려의 행정구역 | 국사교과서

과전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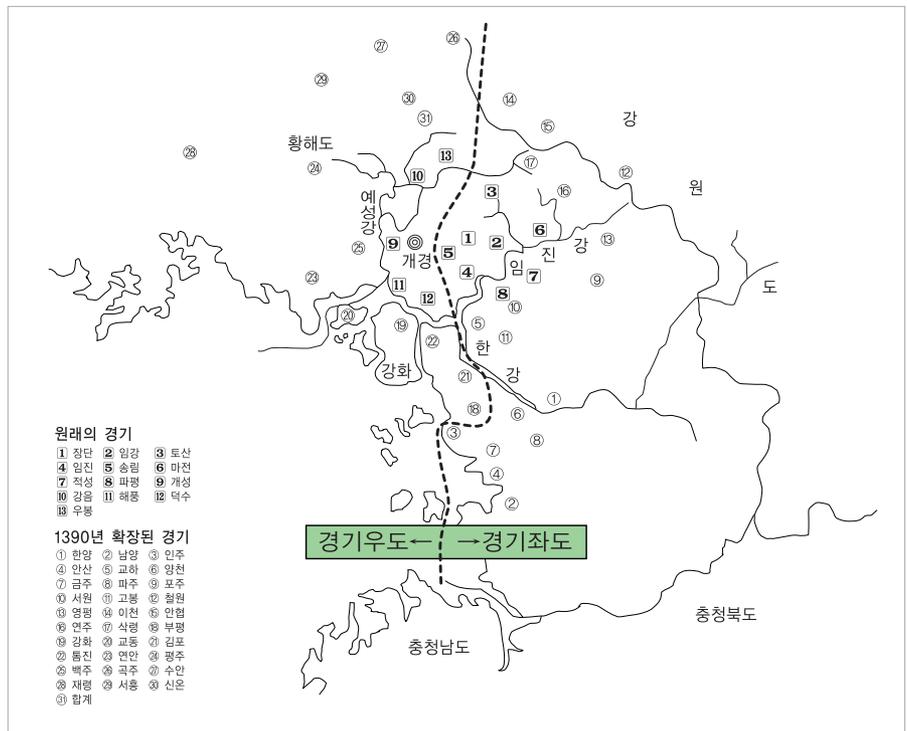
1391년(고려 공양왕 3)에, 귀족들의 대토지 소유에 따른 국가재정의 고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성계를 비롯한 조준 등 신진 사대부들이 주동이 되어 실시한 토지 제도, 토지의 국유화를 원칙으로 공전(公田)을 확대하고 사전(私田)의 분급은 일정한 제한을 두었으며, 조선초기 양반 관료 사회의 경제 기반을 이루었다.

한편 고려 말에 이르게 되면 경기지역이 하나의 도(道)로 정착하게 된다. 즉 1390년(공양왕 2)에 경기지역을 13개 현에서 44개 현으로 확장하여 경기좌도(京畿左道)와 경기우도(京畿右道)로 분리하고, 각기 도관찰출척사(都觀察黜陟使 : 오늘날의 도지사)를 파견한 것이다. 당시 경기의 확대는 과전법(科田法) 실시를 앞두고 취해진 조치로서 일종의 토지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과전법에서는 경기에 한하여 과전을 지급한다는 원칙이 있었으므로 경기지역의 확대는 필수불가결한 일이었다고 할 수 있다. 당시 경기좌우도에 소속된 군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경기좌우도에 소속된 군현

구 분	군현수	군 현 명	비 고
경기 좌도	25	장단·임강·토산·임진·송림·마전·적성·파평	원래 경기지역
		한양·남양·인주·안산·교하·양천·금주·과주·포주·서원·고봉	양광도(충청도)에서 편입
		철원·영평·이천·안협·연주·석빙	고주도(강원도)에서 편입
경기 우도	19	개성·강음·해풍·덕수·우봉	원래 경기지역
		부평·강화·고동·김포·통진	양광도에서 편입
		연안·평주·백주·곡주·수안·재령·서흥·신은·협계	서해도(황해도)에서 편입

※ 자료 : 『고려사』 권56, 지리지 1 왕경 개성부



| 원래의 경기와 고려말 확장된 경기도 영역 |

이같이 고려 말에 확립된 경기좌우도의 지역적 경계를 오늘날 행정구역 기준으로 보면 안산 이북의 경기도와, 강원도 철원, 황해도 남부지역에 해당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때 경기의 영역을 확대하고 도관찰출척사를 파견함으로써 경기는 기존의 특수한 행정구역으로 구분되어 통치되던 단계에서 명실상부한 ‘경기도(京畿道)’로 자리매김되기에 이르렀다. 이는 경기가 고려왕조의 기본 행정구역이었던 5도양계의 도(道)나 계(界)보다 하위에 있던 부(府 : 개성부)에서 그 지위가 한층 격상되었음을 의미한다. 고려말에 확립된 경기도는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현재 경기도의 행정구역에 비하면 다소 북서쪽에 위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외적의 침입과 경기도민의 항쟁

고려시대(高麗時代)는 유달리 외침이 많았던 시기이다. 고려왕조(918~1392) 동안 중국 북부대륙에서는 거란·여진(女眞)·몽골·홍건적(紅巾賊) 등이 일어나 중국을 압박하며 한반도까지 영향을 미쳤고, 바다에서는 해적의 무리인 왜구(倭寇)가 날뛰었다. 이에 따라 고려에서는 이들의 침략을 받아 때로는 강화(講和)정책으로 때로는 적극적인 항전(抗戰)으로 나라와 민족을 지키고자 노력하였다.

이 중 여진족은 내륙까지 침입하지 못하였고, 거란·홍건적의 경우는 몇 차례에 그쳤으며, 왜구의 노략질 또한 국지적인 양상을 띠었다. 이에 반해 몽골은 30여 년이라는 장기간의 침입으로 한반도 전역에 걸쳐 고려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따라서 고려시대 외침에 대한 경기도민의 항쟁은 주로 몽골과의 전쟁에서 이루어졌다.



| 강민첨 영정 | 거란의 침입을 물리쳤다.

거란의 침입과 경기도

거란은 5세기부터 요하(遼河) 상류에서 유목생활을 하던 민족으로 당(唐)나라 말의 혼란을 틈 타 강대한 세력으로 성장하였다. 이들은 요(遼)나라를 세운 뒤 926년에는 발해(渤海)를 멸망시켰고, 세력을 넓혀 고려까지 압박하였다.

고려 역시 고구려의 옛 땅을 되찾기 위하여 건국 초기부



| 낙성대 안국사 | 강감찬을 모시는 사당이다.

우리 역사상 3대첩

을지문덕(乙支文德)의 살수대첩(薩水大捷), 강감찬의 귀주대첩, 이순신(李舜臣)의 한산도대첩(閑山島大捷)을 말한다.

터 북진정책을 추진하였기 때문에 거란과의 충돌을 피할 수 없었다. 더구나 고려는 처음부터 거란을 야만족이라 여겼으며, 거란이 파견한 사신을 유배 보내고 선물로 준 낙타를 굶어죽게 하는 등 철저히 배타적이었다.

이에 거란은 압록강 유역을 확보한 뒤 993년에 소손녕(蕭遜寧)이 80만 대군을 이끌고 고려에 침입하여 옛 고구려 영토를 내놓고, 송나라와의 관계를 끊을 것을 요구하였다. 고려에서는 즉각 중군사(中軍使) 서희(徐熙, 942~998)가 소손녕을 찾아가 담판을 벌인 끝에 이들을 설득시켜 압록강의 동쪽 지역인 강동(江東) 6주(흥화진·용주·철주·통주·구주·곽주)가 고구려의 옛 땅이라 하여 확보하는 성과를 올렸다.

이어 1009년에는 서북면도순검사(西北面都巡檢使)로 있던 강조(康兆)가 정변을 일으켜 목종(穆宗)을 죽이고 현종을 옹립하자 그의 죄를 묻는다는 구실을 붙여 거란의 성종이 직접 40만 대군을 이끌고 재차 침입하였다. 거란군에게 개경이 함락되고 왕은 광주(廣州)로 피신하였지만 경기도내에서 거란과 항쟁한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또한 1018년에는 거란의 소매압(蕭排押)이 강동 6주의 반환을 요구하며 3차 침입을 감행하였다. 거란군은 개경 부근까지 육박하였으나 강민첨(姜民瞻)에게 쫓겨 후퇴하였고, 1019년 귀주에서 강감찬(姜邯贊)에게 크게 패하여 10만 대군은 전멸되다시피 하였다. 이것이 귀주대첩(龜州大捷)이다.

알아두기 서희의 외교 담판

- 소손녕 : “그대 나라는 신라 땅에서 일어났소. 고구려 땅은 우리의 소유인데 그대 나라가 침식하였고 또 우리와 국경을 맞닿았는데 바다를 넘어 송(宋)을 섬기고 있소. 그 때문에 오늘의 출병이 있게 된 것이니 만일 땅을 떼어서 바치고 조빙(朝聘)을 닦으면 무사할 수 있을 것이오.”
- 서희 : “아니오, 우리나라는 곧 고구려의 땅이오, 그러므로 국호를 고려라 하고 평양에 도읍하였으니 만일 영토의 경계로 따진다면 그대 나라의 동경이 모두 우리 경내에 있거늘 어찌 침식이라 하리오. 그리고 압록강의 내외도 또한 우리 경내인데 지금 여진이 가로막고 있어 바다를 건너는 것보다 더 심하오. …… 만일 여진을 내쫓고 우리 옛 땅을 돌려보내어 도로를 통하게 하면 감히 조빙을 닦지 않으리오.”

서희는 뛰어난 외교가였다. 그는 크게 불리한 처지에서 벌인 담판에서 오히려 영토를 넓힐 기회를 찾아냈다. 926년 발해를 병탄하자, 거란(요)은 접경하게 된 고려에 사신을 보냈다. 그러나 태조는 거란이 화친할 나라가 못 된다고 여겼다. 발해와 맹약을 맺었다가 갑자기 쳐서 멸망시킨 나라이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사신 30명을 섬으로 귀양 보내고 그들이 선물로 가져온 낙타 50마리는 모두 굶겨 죽였다. 그러나 거란이 쳐들어오자 고려조정은 위기에 몰렸다. 이런 어려운 처지에서 서희가 큰 외교적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국제 정세를 잘 읽었기 때문이다. 979년 송이 중국을 통일한 뒤, 거란과 송은 줄곧 치열한 싸움을 벌였다. 서희는 그래서 거란이 고려의 정복에 큰 힘을 쏟기 어려우며 고려를 견제하는 것으로 만족하리라고 판단했던 것이다.

한편 13세기 들어 거란은 몽골 세력의 공격을 받고 남으로 쫓겨오는 과정에서 고려를 침입하기도 하였다.

거란은 1216년 12월 개경 근방까지 내려왔는데, 고려군은 지평에서 이들을 물리치고 말 1천 필을 빼앗았으며, 대장군 임보(任輔)는 노예를 동원하여 양근·지평 싸움에서 승리하였다. 이어 원주·춘천 등지의 거란군을 추격한 끝에 제천에서 격파하고 이들을 동북지방으로 몰아내는 데 성공하였다.

몽골의 침입과 경기도민의 항쟁

몽골 세력의 흥성과 대륙 지배권 장악으로 고려의 대외관계에도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오랫동안 부족 단위를 유목생활을 하던 몽골족은 13세기 초에 칭기즈칸(成吉思汗)이 나타나 여러 부족을 아우르고 통일국가를 형성하면서 강성해졌고, 이어 대대적인 정복사업을 전개하여 영토를 확장하였다. 이 과정에서 몽골은 1231년부터 1259년까지 크게 여섯 차례에 걸쳐 고려에 침입하였다.

고려와 몽골의 첫 접촉은 1219년에 이루어졌으며, 몽골군에 쫓겨 강동성(江東城)으로 들어온 거란족을 고려·몽골군이 협공하여 물리친 사건이 계기였다. 이후 몽골군은 자신들이 거란족을 토벌해 주었다는 구실로 고려에 막대한 공물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몽골 사신 착고예(著古與)가 귀국하는 길에 국경지대에서 피살당한 사건이 일어나자 몽골은 이를 트집 잡아 고려에 침입하였다.

1231년 8월 몽골의 장군 살리타이(撒禮塔)는 대군을 이끌고 내려와 4개월 만에 개경을 포위하였다. 수도가 함락될 위기에 놓이자 고려는 몽골과 강화를 제의하였고, 몽골군은 철군하는 대신 개경과 지방에 72명의 다루가치(達魯花赤)를 두었다. 이후 몽골은 고려에 대해 공물뿐만 아니라 군사 조달, 인질 파견, 공장(工匠) 징발 등 무리한 요구를 하였으며, 다루가치를 통하여 고려의 내정을 간섭하고자 하였다. 이에 당시 고려의 무신집권자인 최우(崔瑀)는 몽골군이 해전(海戰)에 약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수도를 강화도로 옮기고 주민을 산성과 섬으로 피신시킨 후 몽골과의 전쟁에 대비하였다.

이처럼 고려의 반몽의식(反蒙意識)이 높아지는 가운데 몽골군은 재차 고려를 침입하였다. 이때 몽골군의 주력부대는 개경을 거쳐 남경을 점령하고, 이어 광주에 이르렀다. 광주는 경상도 방면으로 가는 길목에 위치하여 군사상 요충지였다. 몽골군은 일장산성(日長山城 : 남한산성)을 겹겹으로 포위하고 공격하였으나, 광주



1 처인성 전투지 | 용인시 남사면 아곡리



1 죽주산성 성벽 | 안성시 죽주면 매산리

안무사(廣州安撫使) 이세화(李世華)의 지휘 아래 일치단결한 광주민들의 저항에 부딪혀 전사자만 널 뿐이었다. 광주 공격이 여의치 않자 몽골군은 이를 포기하고 용인의 처인성(處仁城)으로 내려갔다.

처인성은 나지막한 구릉에 위치한 작은 토성으로 군사가 주둔하지 않았고, 관리도 없었다. 따라서 처인성 전투를 수행한 것은 관군이 아니었다. 몽골군이 쳐들어오자 성 주위에 사는 백성과 천민들이 자진 입성하여 몽골군과 맞섰고, 승려 김윤후(金允侯)의 지휘 아래 적장 살리타이를 살해하는 전과를 올렸다. 몽골군의 우두머리를 살해한 처인성전투야말로 대몽항쟁 중 고려군이 거둔 가장 큰 승리라고 할 수 있다. 처인성전투에서 치명적인 타격을 입은 몽골군은 결국 철군하였다.

고려에 대한 2차 침입이 실패로 돌아간 후 몽골은 1234년 금(金)나라를 멸망시키고 향후 정벌계획을 새로 수립하고 정복활동을 재개하였다. 이때 고려에 대한 침략도 다시 추진되었는데, 2차 침입 때 고려에게 당한 패배를 보복하고자 어느 때보다 대대적인 공세를 가하였다. 탕꾸

[唐古]가 지휘하는 몽골군은 1236년 6월에 압록강을 건너 8월에는 경기·충청지방까지 내려왔다. 몽골군은 안성의 죽주산성(竹州山城)에 이르러 항복을 권유하였으나, 고려군은 이에 불응하고 전투태세에 돌입하였다. 죽주전투는 15일 동안 전개되었는데, 다른 지역의 전투와는 달리 관군과 백성들이 합심하여 이루어낸 승리였다. 전투를 지휘한 방호별감(防護別監) 송문주(宋文胄)는 일찍이 평북 귀주에 있으면서 몽골군과 전쟁을 치른 경험이 있어서 그들의 공격방법을 알아차리고 미리 대처할 수 있었다. 몽골군이 포로 성을 부수며 덤빌 때는 고려군도 포로 응사하였고, 불을 지르며 공격해오자 준비해 두었던 진흙으로 불을 끄는 한편 그 틈을 노려 성문을 열고 몽골군을 급습함으로써 대승을 거두었던 것이다. 이밖에 몽골의 3차 침입시 지평(砥平 : 양평)에서는 야별초(夜別抄)가 지평현 사람들과 함께 밤에 몽골군을 사로잡거나 살해하고, 말과 나귀를 빼앗아 바치는 등 전형적인 유격전을 벌이기도 하였다.

야별초

고려시대에, 무신정권의 사병(私兵)으로서 최우가 설치한 군대. 처음에는 도둑을 단속하였으나 뒤에 기능과 인원이 늘어 좌별초와 우별초로 나뉘었다가 신의군을 합하여 삼별초를 이루었다.

이후에도 몽골은 여러 차례 고려에 침입하였다. 그러나 1256년 대부도(大阜島 : 남양) 별초(別抄)가 인천 소래산에서 몽골군 1백여 명을 격파하였다는 기록 외에 경기도내 전투는 찾을 수 없다. 즉 몽골 침략기에 경기도에서의 항쟁은 주로 전반기(1차~3차)에 이루어졌고, 후반기(4차~6차)에는 이렇다 할 전투가 벌어지지 않았다는 특징을 나타낸다.

이처럼 몽골의 30년간에 걸친 침략으로 고려는 무참히 짓밟혔다. 기록에 따르면 1254년 한 해 동안 몽골군에게 사로잡힌 사람은 20만 명이 넘으며, 죽음을 당한 사람은 셀 수조차 없을 정도였다. 이렇듯 몽골군이 지나가는 곳마다 고려 영토는 초토화되었고, 황룡사(皇龍寺) 탑 등 문화재의 손실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피해도 컸다.

몽골군의 주요 공격로는 압록강을 건너 서경(평양)·개경(개성)·남경(서울)·광주(廣州)·충주를 거쳐 경상도 지방으로 가는 길이였다. 따라서 경기도는 고려의 도읍일 뿐만

아니라 몽골군이 남침하는 데 그 길목에 위치했던 만큼 많은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으며, 반면 각지에서 몽골군과 싸워 크고 작은 승리를 거두기도 하였던 것이다.

고려는 몽골과 강화를 맺자는 주화파(主和派)가 정권을 잡고 최씨 정권이 무너지면서 전쟁은 끝이 났다. 이처럼 고려 정부가 강화에서 개경으로 환도하자 대몽항쟁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삼별초(三別抄)가 반기를 들어 진도와 제주도로 근거지를 옮기면서 항쟁을 계속하였으나 결국 여원연합군(麗元聯合軍)에 의해 멸망하고 말았다.



! 황룡사지! 경북 경주시 구황동. 몽고의 침입으로 불타 그 터만 남아있다.

알아두기 신명(神明) 송문주의 활약

몽골군의 침입을 예상하고 죽주 백성들과 함께 산성에 오른 송문주는 1차로 백성들에게 강한 자신감을 심어줬다. 이미 몽골군의 1차 침입이 있었을 때 이미 송문주가 몽골군을 격퇴했던 경험이 있음을 알고 있는 죽주 백성들도 용기백배, 그의 지시에 따라 전투를 준비했다. 송문주는 몽골의 전술을 간파하고 있었다. 1차로 대포로 성곽을 공격하고 2차로 기름에 불을 지피며 성곽 안으로 날려버리는 것이었다.

송문주와 죽주 백성들은 산성 입구에서 몽골군의 항복 권유를 코웃음으로 날려버리고 곳곳에 진흙을 모아뒀다. 몽골군의 화공(火攻)시 즉각 불을 끌 준비를 모두 갖춰놓았다. 더불어 송문주는 몽골군이 공격하다 지친 틈을 이용해 성문을 열고 나가 몽골군을 처참하게 쓰러뜨렸다. 지금까지의 몽골군과의 전투가 성곽 안에서 대응하는 전투였다면 송문주가 이끌었던 전투는 아예 군사를 이끌고 나가 그들을 제압한 것이었다. 몽골군으로서는 3차의 침입 이래 처음 당하는 수모였다.

『고려사』 송문주 열전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 "...송문주가 귀주에 있으면서 몽골군이 성을 공격하는 방법을 잘 알아 그 계획을 미리 맞추지 못한 것이 없었다. 그리하여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오늘은 적이 반드시 어떤 기계를 설치할 것이니, 우리는 어떤 기구를 준비하여 응전해야 한다' 하였는데, 적이 이르면 과연 그의 말과 같았다. 성 안 사람들이 모두 그를 가리켜 신명(神明)이라 하였다."

홍건적의 침입과 경기도

홍건적은 원(元)나라 말기에 하북성 일대에서 일어난 반란군으로 머리에 붉은 두건을 돌렸다 하여 붉은 이름이며, 홍두적(紅頭賊)·홍적(紅賊)이라고도 하였다. 홍건적은 공민왕(恭愍王)대인 1359년과 1361년 두 차례 고려에 침입하였다.

1359년 12월 모거경(毛居敬)이 4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내려와 의주·정주·평양을 함락시켰으나, 안우(安祐)·이방실(李芳實)·김득배(金得培) 등의 활약으로 적을 물리쳤다. 홍건적의 1차 침입은 평안도 이북 지역에서 벌어졌으므로 경기도에는 전쟁의 피해가 없었다.

홍건적의 2차 침입은 1361년 10월에 일어났으며, 11월에는 개경이 함락되었다. 도읍이 함락되고 임금이 피란길에 오르자 양주·광주·수원 등 30여 고을에서는 소문만 듣고 홍건적에 항복하였다. 그러나 안성에서는 적에게 항복하는 체하고 연회를 베풀어서 적을 취하게 한 뒤 괴수 6명을 죽임으로써 적의 진출을 막았고, 나중에 고을이 군(郡)으로 승격되는 표창을 받았다. 강화에서도 거짓 항복하여 적에게 향응을 베풀다가 기회를 노려 적을 죽이는 등 적극적으로 대항하기도 하였다. 홍건적은 개경에 머물면서 온갖 만행을 저질렀으며, 개경뿐만 아니라 여러 지방을 다니며 약탈을 자행하였다. 따라서 경기도민의 처참한 상황은 말로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심하였다.

한편 임금이 복주(福州 : 안동)까지 피하는 상황에서 이듬해 1월 안우·이방실·김득배·정세운(鄭世雲)·최영(崔瑩)·이성계(李成桂) 등이 전열을 가다듬고 개경을 포위하였다. 이어 적의 방비가 소홀해진 틈을 타 맹렬히 공격한 끝에 대승을 거두고 개경을 수복하였다. 이때 홍건적은 10만 명에 달하는 전사자를 내고 달아났으며, 이로써 두 차례에 걸친 홍건적의 침입은 마무리되었다.

왜구의 침입과 경기도

왜구란 한반도와 중국의 해안에서 약탈을 하던 일본의 해적을 말한다. 그들의 근거지는 주로 대마도(對馬島)였고, 고려와 몽골 연합군의 일본 정벌과 자국 내 내란으로 인해 몰락한 자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수십 척에서 수백 척에 이르기까지 불특정 다수로 선단을 조직하여 활동하였기 때문에 이들의 약탈을 막는 일은 쉽지 않았다.

왜구가 고려에 처음 나타난 것은 13세기 초였으나, 본격적인 침입은 1350년 이

후에 이루어졌다. 이들의 침구 목적은 주로 미곡 약탈이었기 때문에 곡창지대인 전라·충청지역이 주요 대상지였다. 그러나 세력이 강화되면서 경기지역까지 약탈의 대상이 되었다. 경기도는 전국의 미곡 운반선이 집결하는 곳이었으므로 강화도를 비롯한 해안 지역에 왜구가 자주 출몰하였던 것이다. 1351년 8월 자연도(紫燕島 : 영종도)와 삼목도(三木島)에 왜구가 나타나 오두막집을 불태운 것을 시작으로 경기도에 대한 왜구의 침입은 고려가 멸망할 때까지 계속되었다.

이들은 처음에는 쌀을 약탈 대상으로 삼았으나, 점차 사람까지 잡아가는 것으로 변화하였다. 지역적으로는 주로 강화도 인근이 목표대상이었지만, 왜구의 세력이 강할 때에는 한양은 물론 가평까지 침입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고려의 전함까지 빼앗아 약탈에 이용하였으며, 고려군을 속이기 위해 염탐꾼이나 포로를 시켜 첩보활동을 벌이기도 하였다. 그런데 경기도 연안을 노략질하는 왜구의 활동은 매우 빈번했던 것에 비해 논의 떨 만한 승전기록은 찾아볼 수 없다. 겨우 왜구 몇 명을 사로잡거나 살해했다는 기록이 있을 뿐이다. 이렇듯 왜구의 계속되는 노략질에 고려 정부는 속수무책이었고, 그 만큼 백성들은 심한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제4장| 조선시대



1. 조선 건국과 경기도의 재편

조선(朝鮮) 건국과 한양(漢陽)으로 도읍

몽골과 30년에 걸친 전쟁 끝에 강화를 맺은 고려(高麗)는 이후 80여 년간 몽골(뒤에 원나라)의 간섭을 받게 되었다. 임금은 원나라 공주와 혼인해야 하였고, 원의 부마국(駙馬國)이 된 고려는 자주성에 심각한 손상을 입었다. 심지어 임금의 자리마저 원나라에 의해 결정되었다. 하지만 당시 세계 제국이었던 몽골의 정책이 정복지를 철저히 파괴하고 복속했던 것과는 달리 고려를 부마국 체제로 인정한 것은 획기적인 것이었다. 원의 간섭으로 임금이 자주 바뀌면서 고려사회는 정치·사회·경제적으로 매우 혼란하였다. 게다가 원의 세력을 배경으로 하는 권문세족(權門勢族)들은 백성의 토지를 빼앗아 자신의 농장으로 삼거나 백성을 자신의 노비로 만드는 등 여러 가지 폐단(弊端)을 일으켰다.

한편 고려후기에 이르러 고려의 지식층들은 중국으로부터 새로운 유학인 성리학을 받아들였다. 과거(科擧)를 통해 새로운 정치세력으로 등장한 부류를 신진사대부(新進士大夫)라 하는데, 이들은 당시 고려가 처한 현실에 비판적인 태도를 지녔다.

14세기 중반에 원이 점차 쇠퇴하기 시작함에 따라 고려 사회에는 개혁의 기운이 크게 일어났다. 때맞추어 공민왕(恭愍王)은 원의 간섭에서 벗어나기 위한 반원정책(反元政策)을 추진하였다. 먼저 고려의 정치를 간섭하던 정동행성(征東行省)을 없애고, 철령(鐵嶺) 이북의 영토를 회복하였다. 그리고 고구려의 옛 땅을 되찾기 위해 요동지방을 공략하였는가 하면 몽골식 생활풍습도 금지하였다. 또한 승려 신돈(辛旽)을 등용하여 권문세족이 불법으로 탈점(奪占)한 토지를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었으며, 농장의 노비들도 해방시켰다. 공민왕의 개혁 조치는 한 때 백성들의 환영을 받았으나, 권문세족의 반발에 부딪혀 결국 실패하고 말았다.

이후 1388년 6월에 일어난 위화도회군(威化島回軍)으로 고려말의 정치상황은 크게 바뀌었다. 대륙 정벌의 명을 받고 요동을 향해 출정하였던 이성계는 압록강

정동행성

고려 충렬왕 때 원나라가 고려의 개경에 둔 관아. 원나라의 세조가 일본을 정벌하려고 개경에 정동행중서성을 설치하였다가 일본 정벌 계획을 그만둔 뒤로는 이것으로 고치고, 원나라의 관리를 두어 고려의 내정을 감시하고 간섭하게 하였다.

의 위화도에서 갑자기 군사를 개경으로 돌렸다. 이성계(李成桂, 1335~1408)의 주도 아래 신진사대부 세력은 가장 강력한 정적인 최영(崔瑩)을 제거하고 우왕(禡王)을 폐위시키는 등, 점차 왕조 교체를 위한 기반을 조성해나갔다. 이어 이성계 세력에 맞서 마지막까지 고려왕조를 유지하려고 노력했던 정몽주(鄭夢周)가 살해되자 고려는 급속히 몰락하게 되었다.

1392년 7월 17일 조선왕조가 개국하고, 이성계(태조)가 왕위에 올랐다. 태조는 곧바로 한양으로 도읍을 옮길 것을 명하였다. 개성은 풍수상으로 지덕(地德)이 쇠하였다고 보았기 때문에 새로운 도읍을 건설하여 새 왕조의 면모를 일신하겠다는 의도였다. 그러나 오랫동안 개성에 자리를 잡은 사대부와 관리의 반대에 부딪혀 수도 이전계획은 곧바로 실현되지 못하였다. 또 계룡산 일대가 새로운 도읍 후보지로 거론되기도 하였으나, ‘도읍지는 나라의 한 가운데 있어야 하는데 남쪽에 치우쳐 있으며, 풍수상으로도 좋지 않다’는 이유로 채택되지 않았다. 이밖에도 무악(毋岳), 개성 동쪽 불일사와 선고개 등이 수도 후보지로 거론되었지만, 태조가 1394년에 직접 한양의 옛 궁궐터를 살펴보고 도읍지로 결정함으로써 3년 동안의 논의를 끝마쳤다.

이후 도읍 건설에 대한 책임은 정도전(鄭道傳, 1342~1398) 등에게 일임되었고, 이들은 한양에 파견되어 종묘·사직·궁궐·시장·도로 등의 터를 잡고 공사를 시작하였다. 그리고 도읍을 결정한 지 3개월 만에 전격적으로 도읍을 한양으로 옮겼다. 일단 객사를 임시 궁궐로 삼고 공사를 진행한 끝에 이듬해 경복궁(景福宮)과 종묘가 완공되자 한양 천도를 공식 발표하였다. 이어 1396년 1월부터는 도성 축조공사에 착수하였다. 태조는 국가의 울타리로서 적의 공격을 막고 민생을 보호할 수 있는 도성을 중요시하였으며, 실제로 도성을 쌓는 현장을 수시로 순찰하였다.

도성은 경복궁을 에워싸고 있는 백악산·타락산·목멱산·인왕산을 연결하되 자연조건을 최대한 활용하여 축조되었으며, 전국에서 12만여 명의 백성들이 동원되었다. 이후 왕권 계승을 둘러싸고 두 차례 왕자의 난을 겪으면서 잠시 개경으로 환도한 적도 있었으나, 1405년(태종 5) 재천도(再遷都)를 단행함으로써 한양은 조선왕조의 도읍지로 정착되었다.



| 경복궁 근정전 | 조선시대의 법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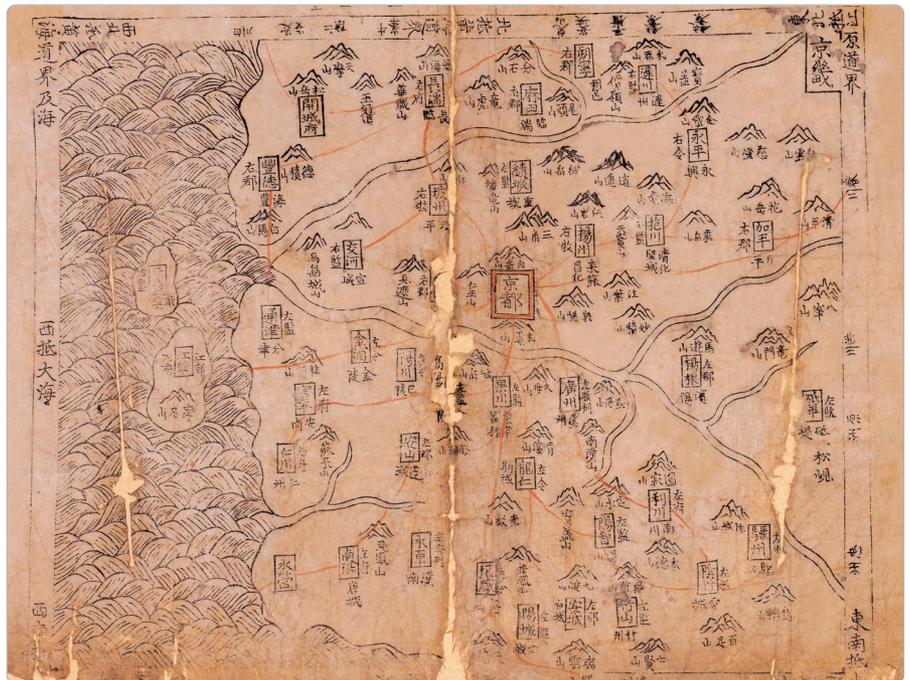


| 종묘 정전 | 조선시대 역대 왕과 왕비 등의 신주를 모신 건물이다.

조선전기 경기도의 재편

고려는 지방을 5도양계(五道兩界)로 나누어 통치하였다. 5도는 양광도(楊廣道·경기·충청)·경상도·전라도·교주도(交州道·강원)·서海道(西海道·황해)를, 양계는 동계(東界·함경)·북계(北界·평안)를 말한다. 이러한 5도양계 체제는 위화도회군 이후 이성계 세력이 정권을 장악하면서부터 점차 8도제(八道制)로 정비되기 시작하였다. 8도의 이름이 정착되는 과정을 보면, 전라도·경상도는 이미 고려시대에 정해졌고, 충청도·황해도·강원도는 태조대에, 평안도·함경도·경기도는 태종 연간에 각각 이름이 붙여지거나 바뀌었다.

조선 건국과 함께 개성에서 한양으로 도읍을 옮김에 따라 경기도 권역의 개편작업도 불가피하였다. 도읍이 남쪽으로 내려오게 되면서 경기도의 평산(平山)·백천[白川]·곡산(谷山)·수안(遂安)·재령(載寧)·서흥(瑞興)·신은(新恩)·협계(俠溪)는 한양에서 거리가 멀다는 이유로 황해도에 이속되고, 그 대신 양광도의 광주·수원·양근(楊根)·용구(龍駒)·처인(處仁)·이천(利川)·천녕(川寧)·지평(砥平)이 새롭게 경기도에 소속되었다. 광주와 수원에서 관할하던 군현은 경기좌도에, 양주·부평·철원·연안에서 관할하던 군현은 경기우도로 소속되었고, 태



동국지도(東國地圖)의 경기도 | 임진왜란 이전인 16세기에 편찬된 목판본 도별지도첩의 경기도 지도이다.(서울대학교 규장각)

조 7년(1398)에는 충청도의 진위(振威)가 경기좌도에 편입되었다. 1402년(태종 2)에는 경기 좌·우도를 합쳐 경기좌우도성(京畿左右道省)이라 하고, 관찰사와 도사(都事)를 두어 통치하였다. 또 태종 13년에는 다시 도성으로부터 거리를 참작하여 연안(延安)·우봉(牛峰)·강음(江陰)·토산(兔山)을 황해도에 이속시키고 이천(伊川)을 강원도에 귀속시키는 반면, 충청도의 여흥(驪興)·안성(安城)·양지(陽智)·음죽(陰竹)과 강원도의 가평(加平)을 경기도에 내속시켰다.

1414년(태종 14) 1월 18일 경기지역의 권역을 경기좌우도로 나누지 않고 ‘경기’라 하였으며, 감영은 도에서 가장 큰 고을인 수원에 두었다가 나중에 광주로 옮겼다. 그뿐 아니라 세종대에는 백성들의 부역 부담을 감안하여 경기도 소속의 철원(鐵原)·안협(安峽)을 강원도로 옮기고, 충청도의 죽산을 경기도에 소속시키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여러 차례 권역에 대한 조정 결과 경기도는 조선왕조의 수도인 한양을 중심으로 크고 작은 군현이 한강과 임진강을 중심으로 분포하게 되었다. 즉 8도 체제 아래 경기도는 국왕과 중앙 정부가 있는 수도의 주변지역을 담당하는 도(道)로 편제된 것이다.

도(道)의 최고 책임자는 관찰사(觀察使 : 감사)였다. 관찰사는 도의 행정·사법·군사의 전권을 행사하였으며, 소속 군·현의 수령을 감독하는 권한을 가졌다. 임기는 360일로 제한되었으며, 자기 출신지역에는 임명되지 못하였다. 또한 관찰사는 일정한 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관할 지역을 돌아다니며 감시하게 되어 있었다.

경기도는 국왕이나 집권세력이 중요시하던 지역이었으므로 관찰사 임명에 신중을 기하였다. 즉 관찰사는 종2품의 가선대부로 임명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경기도는 그보다 높은 품계를 가진 인물 중에서 임명하는 경우가 많았다. 조선시대 기본 법전인 『경국대전(經國大典)』에 따르면 경기관찰사는 4개의 목(牧)과 7개의 도호부(都護府), 7개의 군(郡), 19개의 현(縣) 등 37개 고을을 다스렸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목(4) : 광주·여주·파주·양주
- 도호부(7) : 수원·강화·부평·남양·이천·인천·장단
- 군(7) : 양근·풍덕·안산·삭녕·안성·마전·고양
- 현(19) : 용인·진위·영평·양천·김포·지평·포천·적성·과천·금천·교동·통진·교하·연천·음죽·양성·양지·가평·죽산



조선 행정구역도 | 국사교과서

도호부

고려·조선시대에 군(郡) 위에 둔 지방 관아. 1406년(태종 6) 도호부를 종3품관으로 하여 정3품관인 대도호부와 목의 아래에 두었다. 1415년에는 1,000호 이상 되는 지역을 도호부로 규정하여 해당되는 군을 도호부로 승격시켰다. 이후 계속 증가하다가 1894년(고종 31)에 모두 군으로 통일되었다.



강릉 칠사당 | 조선시대 관청건물로 수령칠사의 이름에서 유래하고 있다.

한편 관찰사 밑에 있는 지방관을 수령(守令)이라고 하였는데, 고을의 이름에 따라 부윤(府尹)·목사(牧使)·(대)도호부사(都護府使)·군수(郡守)·현령(縣令)·현감(縣監) 등으로 불렸다. 이들 수령에는 부·목·군·현의 행정적인 계통과, 대도호부·도호부 등의 군사적인 계통으로 나뉘었다. 수령 중에 가장 높은 것은 관찰사와 격이 같은 종2품의 부윤(府尹)이었는데, 부윤은 대체로 관찰사가 겸하였다. 경기도의 경우 한양부와 개성부가 경기도에서 분리되어 중앙직에 편입되었기 때문에 광주목이 광주부로 승격되는 1577년(선조 10) 이전에는 부윤이 없었다.

수령은 실제 행정실무를 담당했던 지방 향리(鄕吏)의 도움을 받아 백성들을 직접 다스리는 위치에 있었으므로 수령 선발은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졌다. 수령이 힘써 할 일곱 가지 주된 임무를 수령칠사(守令七事)라 하였는데, 농업 장려, 호구(戶口) 확보, 세금 징수, 교육 진흥, 군사행정의 수비, 부역(賦役)의 균등, 송사(訟事)의 간결 등이었다. 이 가운데 세금 징수는 국가 재정과 직접 연결되는 문제였기 때문에 수령의 임무 가운데 가장 중요하였다. 관찰사가 수령의 성적을 조사하고 점수를 매겨 중앙에 보고하면, 이를 토대로 수령의 승진·파면이 결정되었다.

그리고 조선시대 일반 백성(양인)들은 국가에 대해 군역과 요역의 의무를 가지고 있었다. 『경국대전』에는 1년에 6일 이상 요역에 동원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였지만 경기도는 예외였다. 경기도는 수도인 한양에 인접한 지역이기 때문에 국가에 일이 있을 때에는 우선적으로 징발(徵發)되곤 하였다. 따라서 경기도에 거주하는 백성들은 다른 도민보다 더 많은 잡역(雜役)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다.

이상과 같이 경기도는 서울과 가까이 위치하였던 관계로 다른 7도와는 다른 특징을 갖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즉 경기도는 중앙 정부와 가깝다는 지리적 이점으로 지방 향리(鄕吏)나 토호(土豪)들에 의한 폐단은 적었으나, 경기도내 사족(士族)들은 중앙 관리로 출세하고자 하는 성향이 강하였으므로 향촌에 기반을 갖추는 세력이 드물었다.

또한 경기도는 임금의 행차나 고위관리들의 출입이 빈번하였기 때문에 다른 도보다 요역이나 공물 진상 등 잡역이 많았다. 뿐만 아니라 한양으로 도읍을 옮기면서 수도 방어가 절실한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개성·강화·광주·수원을 유수부(留守府)로 만들어 경기도에서 분리시킴으로써 경기도의 도세(道勢) 약화를 가져오기도 하였다.

유수부

고려와 조선시대에 옛 도읍지나 행행지 및 군사적인 요지에 설치되었던 행정기관. 중국 당·송의 제도를 원용한 것으로, 조선시대 초기에는 옛 도읍지인 개성과 후기에 수도 외곽을 방어하기 위한 군사행정 차원에서 강화, 광주, 수원 등지에 설치되었다.



2. 양란의 극복과 경기도

왜란(倭亂)과 경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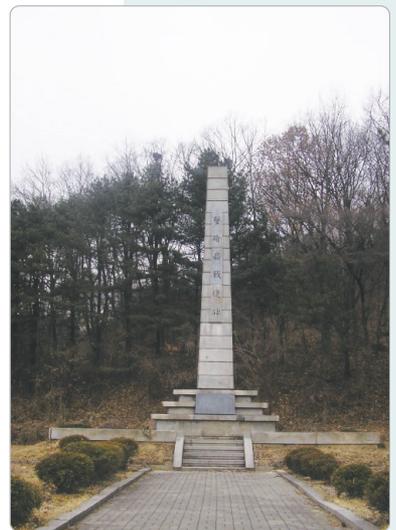
전국시대(戰國時代) 일본을 통일한 토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는 20만 대군을 이끌고 조선(朝鮮)을 침략해 왔다. 이를 임진왜란(壬辰倭亂)이라 한다. 곧 1592년(선조 25) 4월 13일 부산 앞바다에는 700여 척에 달하는 병선이 들이닥쳤다. 왜군들이 ‘명나라를 정벌하려 하니 길을 비켜달라’는 이른바 정명가도(征明假道)를 핑계 삼아 조선을 침입한 것이다. 부산첨사 정발(鄭撥), 동래부사 송상현(宋象賢)이 왜군에 맞서 끝까지 저항하였지만 패하였고, 이후 왜군은 별다른 저항 없이 양산-밀양-청도-대구-선산-상주로 치고 올라왔다.

건국 후 2백 년 동안 태평했던 조선으로서는 전쟁에 대한 대비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당황한 조선 조정에서는 도순변사(都巡邊使) 신립(申晳), 순변사 이일(李鎰), 종사관(從事官) 김여물(金汝叻) 등을 급히 보내어 서울로 올라오는 길목을 지키게 하였다. 그러나 충주 탄금대(彈琴臺)에서 배수진을 치고 왜군과 전투를 벌인 끝에 패함으로써 선조(宣祖, 1552~1608)는 피란 길에 오르고 백성들은 불안과 공포에 휩싸이게 되었다.

왜란 중 경기도내에서도 크고 작은 전투가 벌어졌다. 왜군은 세 갈래로 나누어 북상하였는데, 1번대의 지휘를 맡은 고니시 유키나가[小西行長]는 4월 30일에 이미 충주에서 여주로 진출하였다. 이때 강원도조방장 원호(元豪)는 여주 북쪽에 진을 치고 남한강을 지키려고 하였으나, 강원도감사의 부름을 받고 돌아가는 바람에 왜적들은 쉽게 강을 건너 서울로 향하였다. 또 2번대 가토 키요마사[加藤清正]는 충주에서 서쪽으로 방향을 잡고 음성·죽산·용인을 거쳐 한강변에 이르렀다.

반면 한강변을 지키던 도원수(都元帥) 김명원(金命元)과 부원수 신각(申恪)은, 조총을 쏘며 공격해오는 왜군의 위세에 놀려 변변히 전투 한번 치르지 못하고 달아나버렸다. 한강 방어선을 포기한 후 김명원은 임진강 방면으로 퇴각하였지만, 신각은 양주로 물러나 흩어진 군사들을 모으고 전열을 가다듬었다.

신각은 함경도남병사 이훈(李渾), 인천부사 이시언(李時言)과 합동작전으로 해유령(蟹踰嶺) 근처에 매복해 있다가 왜군을 급습하여 70여 명을 무



해유령 전첩비 | 양주시 백석읍 연곡리

찢렸다. 이 해유령전투는 왜란 발발 후 경기지역에서 거둔 첫 번째 승리였으며, 조선 전체로서도 추풍령전투 승리에 이은 두 번째 쾌거였다.

왜군은 5월 2일 1번대가 동대문을 통하여 서울로 들어온 뒤 적의 후속부대가 계속 해서 모두 입성하였다. 그달 중순경에는 총지휘관 우키타 히데이에[宇喜多秀家]가 서울에 도착하여 이후 북진 계획을 의논하였다. 이 계획에 따라 가토 키요마사가 이끄는 2번대는 함경도 방면으로 진격하기로 하고, 서울에서 파주를 거쳐 임진진(臨津鎭)에 도착하였다. 그러나 임진강의 물살이 급한 데다 조선군이 모든 배를 강 북쪽 언덕에 올려놓았기 때문에 쉽게 강을 건너지 못하였다.

조선 측에서는 도원수 김명원과 경기감사 권징(權徵) 등이 왜군과 대치한 상태에서 왜적들이 지친 듯하니 급히 치는 것이 좋겠다고 왕에게 보고하였다. 이에 선조는 북방을 지키던 도순찰사(都巡察使) 한응인(韓應寅)을 내려 보내면서 빨리 진격할 것을 명하였다. 그러던 중 왜적이 강가에 설치한 막사를 불태우고 거짓으로 퇴각하는 척하였다. 조선군은 이들의 간계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강을 건너 공격하다가 곧바로 왜군의 반격을 받았다. 그리하여 조선군 5천여 명 중 방어사(防禦使) 신할(申喆)과 조방장(助防將) 유극량(劉克良)을 포함한 4천여 명이 적에게 죽음을 당하거나 물에 빠져죽는 등 크게 패하고 말았다.

한편 서울이 함락된 뒤 이를 수복하고자 전라도순찰사 이광(李洸)이 4만의 병력을 이끌고 북상하기 시작하였다. 이들은 6월 4일 용인에 이르러 북두문산(北斗門山)에 있는 왜적의 진지를 공격하여 불태웠고, 다음날에는 용인현 북쪽에 있는 문소산(文小山)의 적을 공격하였다. 왜적의 형세가 그리 크지 않아 곧바로 공격하였으나, 왜군은 적극적으로 대항하지 않고 구원을 요청하며 지연작전을 폈다. 서울에 있던 구원병이 도착하자 왜군은 일제히 고함을 지르며 조총을 쏘아댔고, 조선

알아두기 해유령전투와 신각

해유령전투는 1592년 5월 16일에 벌어진 전투로 임진왜란 당시 경기지역에서 최초의 승리를 안겨주었다. 5월 2일 왜군은 한강을 건너 도성에 들어와 약탈과 방화를 자행하였고, 당시 한강을 방어하던 도원수 김명원이 퇴각하여 임진강에 가 있었으므로 부원수 신각은 수성대장 이양원을 따라 양주 방면으로 후퇴하였다. 5월 중순, 신각의 군대는 왜군의 약탈 지역이 양주까지 이를 것으로 보고 왜군의 통행로를 탐색하다가 그들이 해유령을 넘어간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조선군은 왜군의 동태를 살피면서 적 이 매복지점에 접근하기를 기다리다가 함경도병마사 이훈의 원군과 합세하여 기습공격을 감행, 왜군을 크게 무찔렀다.

그러나 임진강에 가 있던 김명원은 신각이 명령을 따르지 않고 이양원을 따라 도망쳤다는 내용의 장계를 올렸는데, 당시 우의정 유홍은 그 내용을 그대로 믿고 참형을 명하였다. 이 날 오후 양주에서 다시 첩보가 도착하자 왕이 그를 죽이지 말라고 선전관을 뒤따라 보냈으나 이미 처형된 뒤였다.

군은 사기가 떨어져 혼비백산하였다. 이광은 군사들을 수습하여 광교산(光敎山)에 진을 치고 충청도·경상도에서 올라온 병력과 합류하였다. 그런데 6일 아침에 군사들이 식사하려는 순간 왜적이 기습을 감행하자 조선군은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한 채 무기와 군량을 남겨두고 도망하였다. 간신히 살아남은 병사들은 각기 전라도·충청도·경상도로 철수하는 등 모두 흩어지고 말았다.

용인에서의 싸움 이후 불과 며칠 만에 여주 남한강 유역에서도 전투가 벌어졌다. 여주목사 겸 강원도조방장 원호는 원주에 주둔하고 있던 왜적들이 남한강 유역에 자주 나타나 약탈을 자행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이천부사 변응성(邊應星)과 동시에 합동작전을 펼 것을 논의하였다. 변응성은 안개가 자욱한 날을 택하여 배에 군사들을 태운 다음 덮개를 씌워 화물선처럼 가장하고 마탄(馬灘)을 향하여 출발하도록 하였다.

왜적들은 좋은 약탈감을 발견하고 강 언덕에서 배를 기다리고 있다가 강가에 정박하도록 명령하였다. 그러나 배 안에서 전투태세를 갖추고 있던 조선 병사들의 급습을 받고 순식간에 수십 명이 목숨을 잃었고, 나머지 군사들도 황급히 달아났지만 뒤쫓아 오는 조선 군사들에 의해 거의 섬멸되었다.

이어 조선군은 마을 안에 있던 왜적들에게 방비할 틈을 주지 않고 공격함으로써 적의 근거지를 완전 소탕하였다. 이처럼 왜군이 마탄전투에서 크게 패하자 서울에서 원주로 통하는 보급선이 끊어지게 되었고, 후방과의 연락도 어렵게 되었다. 이 전투 결과 여주·이천 등지의 백성들은 왜군의 약탈과 방화·살인 등 전쟁피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 원호전승기념비 |

알아두기 의병장 홍계남의 활약

어느 날 홍언수가 죽산에 있던 왜적의 기습을 받아 전사하였고, 적들이 그 시신을 가지고 간 것을 알고 홍계남은 크게 분노하여 군사를 이끌고 안성으로 향하였다. 홍계남은 그는 성문 밖에 이르러 '너희가 나의 아버지를 죽였으니 나 또한 너희들 손에 죽고자 한다'고 외쳤다. 이때 왜적들은 홍계남의 용맹을 익히 알고 있던 터라 그를 사로잡기 위해 홍언수의 시신을 성 밖에 던져주고 홍계남이 가까이 오자 사방에서 포위하고 공격하였다. 그러나 홍계남은 아버지를 한쪽 어깨에 멘 채 한 손으로 칼을 휘두르며 포위를 뚫었다. 그는 진중으로 돌아와 아버지를 막사 안에 안치하고 다시 돌아가 추격해오던 적들을 단번에 무찔렀다. 그 뒤에도 홍계남은 높은 지대 위에 성루를 쌓고 적의 침입에 대비하였으며, 수시로 양성·안성·용인·진위·직산 등 여러 고을의 왜적을 공격하여 그들을 공포에 떨게 하였다. 왜적들은 마을에 들어와 약탈을 일삼다가도 홍계남이 왔다는 말만 들어도 겁을 내고 도망쳤다고 한다.

의병을 일으켜 왜군과 대적한 경우로는 안성의 홍계남(洪季男)이 대표적이다. 홍계남은 왜란이 발발하자 아버지 홍언수(洪彦秀)와 함께 의병을 일으켜 공을 세우고 경기조방장이 되었다.

임진왜란 동안 경기도에서 거둔 가장 큰 전과는 권율(權慄)의 행주대첩이라 할 수 있다. 용인전투에도 참여했던 권율은 패전 이후 광주(光州)로 내려가 의용군을 모집하고 서울을 탈환하고자 다시 북진하였다. 금산군 이치(梨峙)전투에서 왜적을 크게 무찔러 전라도관찰사가 되었고, 계속 북상하여 오산의 독산성(禿山城)에 주둔하였다.

독산성은 해발 200m에 불과한 낮은 성이지만 사방이 평지여서 주위를 쉽게 조망할 수 있는 요충지였다. 왜군은 성 안에 물이 부족할 것으로 보고 성을 포위한 채 지연작전으로 항복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권율은 기지를 발휘, 물이 부족하지 않는 것처럼 하여 왜군을 물러가게 하였다.

이후 권율은 행주산성으로 병력을 이동시키고 본격적인 서울 탈환작전에 돌입하였다. 이 무렵 명나라의 이여송(李如松) 제독이 이끄는 군사는 개성에 머물고 있었고, 조선군 도원수 김명원은 파주에, 의병장 김천일(金千鎰) 부대는 강화에, 충청도 순찰사 허옥(許頊)의 군사는 통진의 문수산성(文殊山城)에 각각 진을 치고 있었다. 반면 왜군은 조명연합군(朝明聯合軍)과 싸우기 전에 행주산성(幸州山城)에 주둔한 권율부터 제압해야 유리하다는 판단을 하였다.

알아두기 독산성과 세마대

독산성은 오산시 지곳리에 있는 산성으로 둘레 약 3,600m, 지정면적 33,997㎡, 현재 석축 약 400m가 남아 있고 4개의 성문이 있다. 사적 제140호로 일명 독성산성(禿城山城)이라고도 한다. 축성연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전략상의 요충지로 중요한 곳이다.

기록에 의하면 원래 백제가 쌓았던 성으로 통일신라와 고려를 거치면서 임진왜란 때까지 계속 이용되었다. 1593년(선조 26) 7월에 전라도관찰사 겸 순변사였던 권율이 근왕병(勤王兵) 2만 명을 모집하여 북상하다가 이 성에 진을 치고 왜적을 물리쳤던 곳으로 유명하다.

그러나 물[井泉]의 부족이 대군의 주둔을 어렵게 하여, 이 산성의 가장 큰 결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물의 부족은 세마대(洗馬臺)의 전설을 낳았다.

1593년 권율 장군이 주둔하고 있을 때 가토 키요마사[加藤清正]가 이끈 왜군이 이 벌거숭이산에 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물 한 지게를 산위로 올려 보내 조롱하였다. 그러나 권율은 물이 풍부한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백마를 산위로 끌어올려 흰 쌀을 말에 끼얹어 목욕시키는 시늉을 하였다. 이를 본 왜군은 산꼭대기에서 물로 말을 씻을 정도로 물이 풍부하다고 오판하고 퇴각하였다고 한다.

1595년 포루(砲樓)의 시설이 갖추어지고 1597년 2월에는 왜병의 조종을 방어하기 위하여 평평한 집을 성벽 안에 짓고 석차(石車)와 포차(拋車 : 투석용으로 쓰던 차)를 배치하고 성 밖에는 목책을 세우려고 계획하였다.

임진왜란이 끝나고 이 성의 중요성이 강조되자 1602년(선조 35) 변응성(邊應星)이 수축하고, 1796년(정조 20) 화성의 축조와 함께 개축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당시 성의 둘레는 1,800보(步)이며 4문이 있었다. 이 세마대는 1957년에 복원되었다.

1593년 2월 왜군은 3만 대군을 동원하여 행주산성을 겹겹이 포위하고 공격하였다. 이에 성 안에서는 관민이 힘을 합쳐 하루 종일 8~9차례에 달하는 왜군의 공격을 모두 막아내었다. 행주산성 싸움에서 대패한 왜군은 사기가 떨어져 곧바로 도성에서 철수하였고, 조명연합군은 쉽게 수도인 한양을 탈환할 수 있었다. 무려 10배가 넘는 왜군 병력을 물리친 행주대첩은 이순신(李舜臣)의 한산도대첩, 김시민(金時敏)의 진주성대첩과 함께 임진왜란 3대 대첩으로 평가되고 있다.

호란(胡亂)과 경기도

7년에 걸친 임진왜란과 정유재란(丁酉再亂)은 조선·명·일본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특히 전쟁이 벌어졌던 조선은 국토가 황폐화되고 백성들의 생활은 도탄에 빠지게 되는 등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 일본 역시 무리한 전쟁의 수행으로 국력을 소진하여 피해가 컸다. 또 조선에 구원병을 파견하였던 명나라도 국력이 급격히 약해졌다.

이때 중국에서는 여진족이 후금(後金)을 세우고 명나라와 조선을 위협하였고, 이에 광해군(光海君)은 명이 쇠퇴하고 후금이 발흥하는 국제정세에 맞추어 중립외교를 지향하였다. 반면 1623년에 인조반정(仁祖反正)으로 권력을 잡은 서인 세력은 후금을 배척하고 명을 받드는 ‘친명배금정책(親明排金政策)’을 추진함으로써 청나라를 자극하였다.

그리하여 후금은 1627년 1월 조선 침략(정묘호란)을 감행하여 황해도까지 내려왔고, 인조는 강화도로 도읍을 옮기고 항전을 계속하였다. 그러나 조선과 후금은 서로 전쟁을 일찍 종결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화의(和議)를 모색한 끝에 전쟁은 2개월 만에 끝나게 되었다. 후금은 명과의 전쟁을 준비해야 하였고 군수품 조달도 어려운 데다가 조선 의병의 공격을 받는 등 전쟁에 대한 부담이 컸고, 조선으로서는 전쟁을 계속 수행할 힘이 없었기 때문이다.

정묘호란(丁卯胡亂)의 결과 후금은 이후 압록강을 넘어서지 않을 것, 조선은 후금에 각종 물자를 제공할 것, 양국은 형제국의 관계를 설정할 것 등을 조건으로 강화가 성립되었다. 그러나 이후 조선 측에서는 후금의 위압에 눌려 형제국이라는 굴욕적인 강화를 맺은 데 대한 비난이 높았고, 많은 액수의 물자를 조달해야 하는 것도 경제적으로 무거운 부담이었다. 그리하여 명나라와 관계를 강



조종암 | 가평군 하면 대보리. 임진왜란 때 명나라가 도와준 은혜와 청나라에게 받은 수도(병자호란)를 잊지 말자는 뜻을 바위에 새겼다.

화시키고 후금을 견제하려는 움직임은 지속되었다.

이후 후금은 내몽고지역의 여러 부족을 정복하여 만주 전역을 차지할 만큼 세력이 강대해졌고, 나라 이름을 청(淸)으로 고쳤다. 그러면서 조선에 대해서는 종래의 형제국 관계를 넘어 임금과 신하국의 관계로 바꿀 것, 물자도 증액하여 바칠 것, 조선의 왕자와 척화파 대신을 볼모로 보낼 것 등을 요구하였다. 조선에서는 이를 완강히 거절하였고, 청나라는 1636년 12월 다시 조선을 침략하였다(병자호란).

청나라 군사는 조선의 맹장 임경업(林慶業)이 지키는 백마산성(白馬山城)을 피하여 압록강을 건넌 지 5일 만에 평양·개성을 지나 서울에 육박하였다. 이에 인조는 서둘러 종묘·사직에 안치되어 있던 신주와 왕자·세자빈·세손 등을 강화도로 피신하게 하였다. 인조도 밤을 틈 타 신하들과 함께 강화도로 가려 했으나, 이미 청나라 군대에 의해 길이 끊기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광주(南漢山城)으로 피해 들어가게 되었다.



| 남한산성 동문 |



| 남한산성 행궁 | 근래에 새로 복원하였다.

남한산성은 지형이 험하여 적을 방어하기에는 매우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었으나, 평야지대에 있어 적이 성을 포위한 경우에는 외부와 연락이 안 되어 고립될 수도 있었다. 또 당시 성 안에는 군사 13,000여 명과 50일분의 식량이 준비되어 있을 뿐이었다. 인조는 이들 병력을 중심으로 성을 나누어 지키도록 하고 전국에 근왕병을 모집하는 한편 명에 구원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파악한 청은 산성을 포위하고 대치만 한 채 전면적인 공격을 감행하지 않았다.

반면 조선군은 어영부사(御營副使) 원두표(元斗杓), 훈련대장 신경진(申景禛) 등이 간간이 출전하여 청나라 병사를 살해하기도 하였으나, 본격적인 전투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이렇듯 지리한 소모전은 산성에 고립된 조선군에 불리할 수밖에 없었다. 성 안의 식량은 점점 떨어지고, 지방에서 산성으로 진군하던 군사들은 힘없이 패퇴하였으며, 명나라에서도 국내 사정으로 구원병을 보낼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다. 게다가 청은 이듬해 1월 22일에 강화도를 함락하고 원손과 세자빈 강씨, 두 왕자 등을 포로로 잡았다는 소식을 남한산성에 전하며 항복할 것을 요구하였다.

남한산성에서는 싸움을 계속하자는 척화파(斥和派)와 화의를 하자는 강화파(講和派)가 대립하였으나 결국 인조는 1월 30일 45일 간의 농성을 풀고 삼전도(三田渡)에서 청나라에 항복하였다. 이로써 조선은 청과 군신관계를 맺고 명과 단절할 것, 청의 연호를 사용할 것, 매년 조공을 바칠 것, 성(城)을 고치거나 쌓지 말 것 등 굴욕적인 조건을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소현세자(昭顯世子)와 봉림대군(鳳林大君)을 비롯하여 홍익한·윤집·오달제 등 강경한 척화론자들을 인질로 데려갔는데, 이들은 그곳에서 죽임을 당하거나 8년 동안 억류생활을 한 뒤 귀국하기도 하였다.

양란(兩亂)의 영향과 경기도

17세기를 전후하여 불과 반세기 만에 두 차례의 커다란 전쟁을 겪은 조선의 피해는 실로 엄청난 것이었다. 임진왜란은 7년에 걸친 전쟁이었던 만큼 그 피해 또한 컸다. 인명피해는 말할 것도 없고, 조선왕조의 법궁인 경복궁(景福宮)을 비롯하여 수많은 문화재가 소실되거나 약탈당하였다. 또 전국의 토지가 황폐화됨에 따라 백성들의 생활은 도탄에 빠지게 되었다. 전쟁 전 170만 결에 달하던 토지가 전쟁 후에 54만 결로 줄어든 것만 보아도 그 피해 정도를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경기도는 도성(한양)의 인근에 위치한 지역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전쟁의 피해가 컸다.

왜란이 끝난 뒤 조선은 피해복구에 많은 힘을 기울였다. 먼저 황폐화된 토지를 복구하고 농민들의 세금부담을 줄이고자 양전사업과 대동법을 시행하였다. 즉 양전사업(量田事業)으로 토지의 소유실태를 정확히 조사하여 실제 소유자에게 세금을 물게 하였고, 대동법(大同法)을 실시하여 각지의 특산물로 바치던 공물을 쌀로 통일함으로써 농민의 부담을 덜어주었다. 이러한 대동법은 1608년(광해군 1)에 경기지방을 중심으로 처음 실시한 이후 점차 전국적으로 시행되었다.

대동법 실시로 농민들의 부담은 줄어들었고, 그 효과는 농업과 상공업의 발전으로 이어졌다. 또한 토지가 감소되고 생산량이 줄어들게 되자 정부에서는 부족한 재정을 보충하기 위해 납속책(納粟策)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납속책은 국가가 곡물이나 돈을 받고 일정한 혜택을 주는 정책으로 신분을 해방시키는 면천(免賤), 각종 의무를 면제해주는 면역(免役), 벼슬을 내리는 수직(授職) 등의 형태가 있었다. 그 결과 여러 가지 역이 면제되고 노비는 해방되었으며 서자(庶子)들도 관직 진출



| 삼전도비 | 서울시 송파구 석촌동

양전사업

고려, 조선 시대에 조세 수입원의 정확한 집계를 위하여 실시한 토지 조사 사업. 원래 20년마다 한 번씩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전국에 걸쳐 세밀한 양전을 하는 것은 막대한 비용이 드는 번거로운 일이었을 뿐 아니라 필요성도 적어 조선시대 500여 년 동안 전국적 규모의 양전은 4차례 이루어졌을 뿐이며, 도 단위의 양전이 행해지거나, 필요에 따라서 지역별로 양전을 했다.

이 가능해지는 등 신분제도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두 차례에 걸친 호란은 비교적 단기간에 그친 전쟁이라 물적인 피해는 왜란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았다. 그렇지만 오랑캐로 여겼던 청에게 굴욕적인 항복을 함으로써 민족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게 되었다. 이후 조선에서는 청에 대한 반감이 더욱 고조되었고, 효종(孝宗, 1619~1659)이 즉위한 후 북벌론으로 구체화되었다. 효종은 청에 인질로 잡혀가 8년 동안 고초를 겪고 돌아온 후 북벌(北伐)을 계획하고, 본격적으로 군비확장·진법연구·무기개량·산성수축 등에 착수하였다.



남한산성 수어장대 | 군사들을 지휘하던 곳이다.

남한산성을 중심으로 한 군사기구인 수어청(守禦廳)을 재 정비하고 어영청(御營廳)의 군비강화도 꾀하였다. 또 기병 위주의 청에 대비하고자 금군(禁軍)을 전원 기병화하는 동시에 정원도 증가시켰으며, 왕이 직접 군사들의 기예를 시험하여 합격자를 뽑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제주도에 표류한 벨테브레(Weltevree, 박연)를 훈련도감(訓練都監)에 소속시켜 조총·화포 등 새로운 무기를 제작하게 하는 등 북벌정책을 강력히 추진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북벌계획은 청이 날로 강성해지는 상황에서 좀처럼 기회를 잡을 수 없었던 데다 민

생 안정을 우선으로 하자는 반대론에 막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효종이 즉위 10년 만에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북벌계획은 좌절되고 말았다.

한편, 북벌론의 연장선상에서 수도권 방어체계를 위해 군제를 개편하였고, 산성을 보수·수축하려는 노력이 계속되었다. 청나라의 재침에 대비하여 남한산성의 성곽을 보수하고, 산성 안에 상당한 무기와 식량을 비축해 두었다. 또 수어사의 직급을 정2품으로 격상시키고 광주목사에게 수어부사를 겸하도록 지휘체계를 재편하였다. 현종대에 이르러서는 도성을 강화·수원·남한산성을 축으로 하여 방어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산성을 다시 정비하였다. 또 강화도에 기존의 수군 외에 육군의 정원을 증가시켰고, 수원에는 마군 10초, 보군 30초 등 총 4,000명의 병력으로 편성하여 기동성을 갖추게 하였다.

이어 숙종대에는 남한산성의 한봉성(漢峰城) 신축을 추진하였고, 산성의 봉암(峰巖)과 한봉에 돈대 축조도 계획하였다. 또 한봉성의 포루 두 개를 증축하였으며, 수어사 민진후(閔鎭厚)가 신남성(新南城)을 신축하는 등 수도권 방어체계를 강화하였다.



3. 조선후기 경기도의 변화

상공업 및 장시의 발달

조선왕조는 농업을 근본으로 하는 국가였다. 반면 상공업·수공업 등은 관청이나 백성들이 필요로 하는 물품만 생산할 정도로 정부의 통제를 받았다. 그러나 양란을 겪은 이후 조선의 산업은 크게 변화하였다. 17세기 이후 농업생산력의 발전에 따라 점차 농업·수공업에서 상품 생산이 발달하기 시작한 것이다. 우선 도시 근교의 농가에서는 주곡 생산보다는 주로 채소나 과일을 생산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였다.

특용작물인 미나리·무·가지·오이·고추 등 채소를 생산하면 벼·보리농사를 짓는 것에 비해 많은 이익이 생겼기 때문이다. 또한 농촌지역에서도 부업의 단계를 넘어 특정 물품을 전문적으로 생산하여 상품화하였는데, 경기도의 특산물로는 개성의 인삼, 고양의 세면포(細綿布), 강화의 돛자리 등이 있다. 이렇듯 양란 이후 농업 형태는 자급자족을 위한 생산이 아니라 시장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상업적 농업'으로 발전하고 있었다.

한편 조선후기에는 관영으로 운영되던 수공업체제가 무너지면서 민간 수공업도 발전하였다. 민간 수공업자들은 뛰어난 기술로 질이 좋은 상품을 생산하여 도시민에게 공급하였으며, 유기·철기·자기 등 특정 제품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마을이 발달하기도 하였다. 이중 안성의 유기(鑰器 : 낫그릇)는 '안성맞춤'이라는 용어를 탄생시킬 만큼 전국적으로 이름이 높았으며, 광주 사옹원의 분원(分院)에서 생산되는 도자기 또한 전국에서 가장 유명하였다.

이와 같이 농업 및 수공업의 발달로 인한 상품생산의 발전은 곧바로 유통시장의 확대로 이어졌다. 15세기 이후 삼남(三南)지역을 중심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던 장시(場市)가 양란을 계기로 경기지역까지 확대되었다. 국가에서는 본래 경기도에 장시 설립을 금하였는데, 그것은 경기지역에 장시를 허가하면 서울로 들어오는 물자가 줄어들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란을 치르면서 경기지역에 농산물이 유통되는 장시가 보편화되어 갔고, 왜란 이후에는 황해도·평안도까지 장시가 확대되었다.

그리하여 18세기 중엽에 이르면 우리나라에 1천 개 이상의 장시가 서게 되었고, 처음에는 10일장으로 운영되던 것이 점차 5일장으로 굳어졌다. 경기지역에서도 사

평 · 광진 · 누원 · 송우 · 검암 · 송파 · 수원 · 안산 · 장호원 등을 비롯하여 총 101개에 달하는 장시가 개설되었다. 또한 전국에서 가장 큰 15개의 시장 중 경기도에서는 광주 사평장(沙坪場)과 송파장(松坡場), 안성 읍내장(邑內場), 교하 공릉장(恭陵場)이 포함되었다. 이는 경기지역의 상품유통이 매우 활발하였음을 말해준다.



| 이포나루 1970년대 모습 | 여주군 금사면 이포리

반면, 지방에서는 포구(浦口) · 나루터가 물품 소비와 교환 매개지로서 장시의 기능을 수행하였다. 종래 포구는 각종 어물과 소금의 유통, 군사상 방어, 세곡(稅穀) 운송을 주된 기능으로 하였으나, 점차 상품유통의 중심지로 발달하게 된 것이다. 오늘날 경기도내 한강 · 임진강 유역에는 모두 16곳의 포구와 55곳의 나루터가 자리 잡고 있다. 이중 파주에 21곳이 몰려 있는 것을 비롯하여 연천(11) · 가평(7) · 여주(6) · 남양주(6) · 양평(5) · 김포(4) · 고양(3) · 광주(3) · 하남(2) · 이천(2) · 구리(1) 등에 분포해 있다.



| 이포나루 표석 |

조선후기 도내에서 가장 번성했던 포구는 한강 상류의 백어촌(白厓村 : 여주)이며, 이 밖에 여주 이포나루와 연천 징파나루, 장단 고랑포에도 대규모 상선이 모여들어 매매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한강과 임진강을 끼고 있는 경기도가 전국 장시의 중심지로 발전한 것이다.

이때 경기도에서 활발한 활동을 벌인 대표적인 상인으로 경강상인과 개성상인이 있다. 경강(京江)은 한강 일대를 말하며, 서울과 지방을 연결하는 교통의 중심지로서 전국에서 징수한 세금과 모든 생산물이 집결되는 곳이다. 경강상인들은 선박을 이용하여 전라 · 경상 · 평안 · 황해도 등지에서 세금으로 거둬들인 세곡을 운송하면서 부를 축적하였고, 점차 곡물 · 생선 · 신발 · 인삼 · 목재 · 그릇 · 담배 · 소금 · 철물 등을 매매하여 이익을 독점하였다.

개성상인은 송도를 거점으로 하였기 때문에 송상(松商)이라 불렸으며, 이미 조선 초기부터 조직화되어 활동하였다. 이처럼 개성상인이 일찍이 성장할 수 있었던 요인으로는 도성과 가까우면서도 쉽게 중국으로 진출할 수 있는 지리적 요인과 함께 조선왕조 개창 이후 학문과 벼슬을 버리고 상업에 종사하는 부류가 늘어났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개성상인들은 전국에 송방(松房)이라는 지점을 설치하고 상품의 원료 생산지에 사람을 파견하여 상품가격을 미리 지불하는 등 전국을 대상으로 상업활동을 펼쳤다. 또한 자신들만의 독특한 회계방식을 고안하여 업무를 처리하였

는데, 이들이 남긴 송도사개문서(松都四介文書)는 세계 최초의 복식부기 형태로서 의의를 가진다. 조선후기 상공업·수공업의 발달과 시장의 확대로 자본주의의 개념이 싹트는 가운데 상업도시의 성장도 눈에 띄게 나타났다. 즉 17세기 이후 정치·경제·행정·문화의 중심지인 서울이 급속하게 상업도시로 전환되면서 경기 지역에서는 송파장·누원점과 같이 상품유통의 거점지와, 서울의 배후지역으로서 개성과 수원 등이 상업도시로 성장하였다. 특히 개성은 한양-평양-의주-중국을 잇는 중간에 위치하여 일찍부터 상업도시로 발전하였고, 정조 때 계획도시로 건설된 수원은 노량진-수원에 새로운 길이 개설됨으로써 도시화가 더욱 촉진되었다.

화성(華城) 신도시 건설

조선후기 경기도의 주목할 만한 변화 중 하나는 정조(正祖, 1752~1800)의 화성 신도시 건설이다. 1776년에 즉위한 정조는 왕권이 어느 정도 강화되자 뒤주에서 무참히 죽은 아버지 사도세자(思悼世子)를 위해 장헌세자(莊獻世子)로 존호를 올리고, 그의 무덤도 가장 좋은 명당자리로 옮기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1789년에 양주 배봉산(拜峰山 : 현 서울시 동대문구)에 있던 사도세자의 묘를 당대 제일의 풍수가 윤선도(尹善道)가 명당자리로 손꼽았던 수원으로 옮기고 현릉원(顯陵園 : 뒤에 융릉)이라 이름하였다. 당시 이곳에 있던 관아와 백성들은 팔달산 동쪽 기슭으로 옮겨 살게 하였다.

이듬해에는 수원에 성을 쌓고 참호를 설치하여 유사시에 대비하자는 상소가 이어졌다. 수원이 군사적 요충지일 뿐 아니라 사도세자의 원침이 있기 때문에 읍성(邑城) 건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주장은 이미 1세기 전에 유형원(柳馨遠)에 의해 제기된 바 있었다. 그는 수원의 읍치(邑治)를 평야로 옮길 것과, 백성들이 평상시에는 생산에 힘쓰고 전쟁 때는 곧바로 무장하여 싸울 수 있도록 읍성을 건설해야 한다고 피력하였다.

정조는 유형원의 주장을 옳게 여기고 수원의 이름을 화성으로 바꾸는 동시에 고을의 격도 부(府)에서 유수(留守)로 올렸으며, 자신이 총애하는 채제공(蔡濟恭, 1720~1799)을 초대 화성유수(華城留守)로 임명하여 성곽 축성을 추진하고자 하였다. 이어 전국 각지의 성곽에 관한 자료를 분석 검토함으로써 삼국시대 이후 조선중기까지의 모든 성곽의 장점을 반영하여 '완벽한' 성곽을 건설할 채비를 갖추었다. 정조는 직접



채제공 묘 |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수원에 행차하여 성터를 정하고 표지를 세우는 등 성곽 건설에 적극적이었다. 이때 정약용은 화성 축성방략(築城方略)에 대한 기본 지침서로 『성설(城說)』을 지어 정조에게 올렸다. 여기에는 성의 규모, 재료, 호참, 기초 쌓기, 돌 뜨기, 길 닦기, 수레 만들기, 성벽에 관한 일 등 여덟 가지 지침이 들어 있다.



| 거중기 모형 | 경기도박물관



| 화서문 | 수원시 장안구 장안동



| 방화수류정 |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정조는 웅성(甕城)·포루(砲壘)·현안(懸眼)·누조(漏槽)와 거중기(擧重器) 등에 대해서도 강구하라고 명하였고, 정약용은 곧바로 구체적 설계에 들어갔다. 그리하여 무거운 것을 쉽게 들어 올릴 수 있는 거중기를 고안해 내었고, 좌우로 움직일 수 있어서 돌을 나르는 데 유용한 유형거(游衡車)라는 독특한 수레도 만들었다. 또한 전국 각지에서 뛰어난 명장들과 풍부한 노동자층을 모집하고, 수원의 숙지산(孰知山)과 여기산(麗妓山) 등지에서 석재를 마련하는 한편, 벽돌은 광주에서 구워내어 공사현장으로 운반해 왔다. 이렇듯 화성 건설에 필요한 인력과 재료를 확보한 뒤 체제 공을 총지휘자로 하고, 유수 조심태(趙心泰)를 책임자에 임명하여 공사를 전담하게 하였다.

화성 축성 공사는 1794년 2월 28일에 시작되어 2년 7개월만인 1796년 9월 10일에 마무리되었다. 그동안 석수·야장·목수·미장이·기와장이·화공 등 22개 분야에서 전국의 기술자들과 노동자가 동원되었고, 재료로 석재 20만 개, 벽돌 70만 장, 기와 53만 장, 목재 26,000그루 등이 소요되었다. 일반 백성을 부역으로 동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인원 38만여 명에 달하는 노동자에 대하여는 직종에 따라 차등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였다. 이같은 화성 건설공사 결과 창룡문(蒼龍門)·화서문(華西門)·팔달문(八達門)·장안문(長安門) 등 4대문을 비롯하여 적의 공격에 대비한 방어시설과 공격시설 50여 개를 갖추게 되었다.

시설물로는 문을 보호하는 적대(敵臺), 적을 시선을 피해 은밀히 드나드는 암문(暗門), 개천 위에 세운 수문(水門), 물이 빠지는 은구(隱溝), 군사를 지휘하던 장대(將臺), 여

러 개의 화살을 동시에 발사하는 노대(弩臺), 총포를 쏠 수 있는 공심돈(空心墩), 대포를 쏘는 포루(砲樓), 성곽의 모서리마다 세운 각루(角樓), 망을 보는 포루(鋪樓), 성벽에서 튀어나온 치(雉), 적의 침입상황을 불 또는 연기로 알리는 봉돈(烽墩) 등이 있다. 또 화성의 성곽 규모를 보면 길이는 약 5.7km이고, 성벽의 높이는 4~6m, 여장(女牆)의 높이는 1.2m이다. 또 성벽 4m마다 1개의 타(垛)를 두었으며 1타에는 3개의 총구멍이 있다. 이러한 시설물들은 방어와 공격을 위한 군사적 목적에서 만들어진 것이지만 이 시설물에는 자연과 어우러진 건축미학적 아름다움이 깃들여 있다. 특히 인공 연못 용연(龍淵)과 그 위 언덕에 날아갈 듯 자리 잡은 방화수류정(訪花隨柳亭)은 화성 제일의 경관으로 꼽힌다.

정조는 자신의 재위기간에 13차례 용릉과 화성을 방문하였다. 이때 머물던 곳이 화성행궁(華城行宮)으로 평상시에는 수령이 집무하는 관아로 사용되었다. 행궁은 수원의 읍치를 옮긴 1789년 7월에 건설하기 시작하여 1790년 5월 약 340여 칸이 완성되었으며, 그 후 대대적인 증축 및 확장 공사를 벌여 576칸의 건물이 되었다. 이는 조선왕조의 행궁 중 최대 규모이다.

행궁에는 정당(正堂)인 봉수당(奉壽堂)을 비롯하여 침전(寢殿)인 장락당(長樂堂), 장락당 출입문인 경룡관(景龍館), 행궁의 내당인 복내당(福內堂), 화성유수의 거처인 동시에 정조가 거둥하여 신하를 접견하던 유여택(維與宅), 휴식처인 노래당(老來堂), 활을 쏘던 득중정(得中亭), 각종 행사용 건물인 낙남헌(洛南軒) 등의 건물이 배치되었고, 정문인 신평루(新豐樓)를 비롯하여 좌익문(左翼門)·중앙문(中陽門) 등의 문루를 설치하였다. 이외에도 외정리소·비장청·서리청·집사청·남북군영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행궁에서는 1795년 윤2월에 혜경궁홍씨(惠慶宮洪氏)의 회갑연이 8일간 열리기도 하였다. 이후 행궁은 회갑잔치뿐 아니라 양로연, 과거시험 등 다양한 공연예술과 행사가 치러진 중심무대로 쓰였다.

정조는 화성 건설과 관련하여 수원에 여러 가지 특혜를 베풀기도 하였다. 특별히 과거시험을 치러 관리를 등용하는 기회를 주었고, 양란 때 공을 세운 우성전(禹性傳)·김준룡(金俊龍) 등 수원 출신을 포상하였다. 또 수원 주민들에게 10년 동안 세금을 면제해 주었고, 환곡(還穀)과 군역(軍役)도 탕감해 주는 등 새로운 읍치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뿐만 아니

행궁

임금이 국도(國都)의 왕궁 밖에서 머물던 별궁. 피서(避暑)·피한(避寒)·요양을 위해 짓거나 경승지(景勝地)에 짓기도 하였지만, 통치력의 효과적인 파급을 위해 지방의 요지에 행궁을 지어 돌아가면서 머물기도 하였다.



| 화성행궁 신평루 |

둔전

변경이나 군사 요지에 주둔한 군대의 군량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치한 토지. 군인이 직접 경작하는 경우와 농민에게 경작시켜 수확량의 일부를 거두어 가는 두 가지 경우가 있었다.



| 축만제(서호) | 수원시 화서동 · 서둔동 일원



| 화성성역의궤 |



| 화성 성곽 | 장안문과 화서문 사이

라 저수지와 둔전(屯田)을 건설하여 농업진흥을 꾀하였는데, 수원 북쪽에 만석거(萬石渠 : 일왕저수지)를 만들어 관개시설을 갖추고 인근에 넓은 논을 조성하여 선진적인 농법으로 운영하게 하였다. 이어 용주사 앞에 만년제(萬年堤)를 조성하였고, 여기서 앞에는 화성에서 가장 큰 규모의 축만제(祝萬堤 : 서호)를 축조하였다.

화성은 단지 성곽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행궁·상가·민가·도로·저수지·둔전 등 도시 전체의 시설물을 포함한다. 화성 신도시 건설은 10년에 걸쳐 완성한다는 계획을 세울 만큼 대규모 공사였다. 이 중 화성 신도시 건설의 백미는 단연 성곽으로서 화성 축성이라 할 수 있다. 화성의 성곽은 자연지형을 그대로 이용하였는데, 서쪽은 팔달산에 의지하여 산성의 형태를 유지하고, 동쪽과 동북쪽은 낮은 구릉을 활용하였으며, 북쪽과 남쪽은 평지에 성을 쌓았다. 50여 개의 시설물 또한 용도가 각기 다르고, 돌·벽돌·나무 등을 조화롭게 사용함으로써 건축미가 독특하면서 아름답다. 결국 화성은 당대 제일의 건축가와 예술가 그리고 18세기 조선의 과학적 지식과 기술이 총동원되어 만들어진 조선 건축예술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아름다움으로 화성은 세계적 문화재로서 존재 가치를 인정받아 화성은 1997년 12월에 유네스코에서 선정하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또한 화성 축성에 관한 보고서 『화성성역의궤(華城城役儀軌)』와 혜경궁홍씨의 회갑잔치를 기록한 『원행음묘정리의궤(園幸乙卯整理儀軌)』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록되었다.

개혁사상의 근거지 경기도

조선후기는 경제·사회·문화면에서 전반적으로 근대의 싹이 트고 있는 가운데 사상계에도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던 시기이다. 윤휴(尹鑄)와 박세당(朴世堂)은 조선의 지배이념인 성리학(性理學)을 비판하기 시작하였고, 정제두(鄭齊斗)는 중국의 양명학(陽明學)을 적극 수용하여 강화학과(江

華學派)를 형성하기도 하였다. 이렇듯 조선후기의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새로운 사회에 맞는 개혁이 요구되었고, 이러한 움직임 속에 실학(實學)이 태동하였다.

실학의 생성은 조선후기 양반사회의 모순 극복과, 명분론에 입각한 성리학에 대한 비판과 그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대두한 학문과 사회개혁론이었다. 게다가 이 시기 전래된 서학(西學)과 청(淸)의 학문적 영향 등 외부요인도 작용하였다. 17세기 이후 중국에서 들어온 서적들은 수학·천문학·농학 등 과학기술 계통의 서적과 천주교 교리서들이었다.



정제두 묘 | 인천시 강화군 양도면

또한 청나라 초기의 새로운 학풍과 고증학(考證學)에 반영된 현실개혁의식도 조선의 진보적 사상가들의 학문 연구에 커다란 자극제가 되었던 것이다. 이들은 점차 중국이 세상의 중심이 아니며 지구가 둥글고 스스로 회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론을 위한 이론(성리학)이 아니라 실제 생활에 쓸모 있는 학문을 연구하는 인식을 가지게 되었다.

실학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에 지금까지도 이렇게 주목을 받고 있을까? 물론 실학은 발생과 발전 과정 속에서 학자에 따라 제각기 지표나 연구 분야가 달랐고, 여러 학파가 형성되는 등 단일화된 체계는 아니었다. 곧 실학은 농업 중심의 개혁론, 상공업 중심의 개혁론, 국학 연구 등을 중심으로 확산되었다. 그러나 그 이념과 정신에서는 다음과 같은 공통점이 존재한다.

① 실용(實用)정신이다. 기존의 주자학(朱子學)이 등한시하였던 이용(利用)·후생(厚生) 문제에 관심을 보임으로써 현실사회와 유리되지 않는 학문관(學問觀)·현실관(現實觀)을 전개하였다. ② 실증(實證)정신이다. 성리학의 형이상학적 관념론에

알아두기 화이론적(華夷論的) 세계관과 소화의식(小華意識)

정통 성리학의 세계질서관. 세계는 화(華)와 이(夷)로 갈라져, 전자만이 문화·가치이고, 후자는 야만이었다. '화'의 핵심은 세계의 지리적 중심이기도 한 중화(中華)로서 중국 민족의 배타적 독점물이다. 조선은 그 축소또는 근사치로서의 소화(小華)이다. '이'는 일본·베트남·거란·여진·몽골·흉노 등이며, 그중 일본·베트남은 상대적으로 '화'에 가까운 존재이다. 그밖에 서양은 '이'도 못 되는 금수(禽獸)이다 이 차별적 가치 질서 속에서 조선의 성리학자와 양반 유생은 중화에 대해서 열등의식을 가지지만, 그 밖의 '이'나 금수에 대해서는 심한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열등과 우월의 이중구조적 세계관이 소화의식(小華意識)이었다.

화(華) → 소화(小華) → 이(夷) → 금수(禽獸)
중국 → 조선 → 일본, 베트남, 거란, 여진, 몽골, 흉노 → 서양

서 벗어나 객관적인 현실문제를 실증을 통해 고찰하였으며, 경서고증(經書考證)뿐 아니라 역사·지리·제도 등 학문하는 방법에서는 근대적·과학적인 연구 태도를 지녔다. ③ 비판(批判)정신이다. 주자학의 전통적인 권위에서 탈피하여 자유로운 학문탐구를 존중하고, 학문적 폐쇄성이나 현실사회의 모순에 대한 과감한 비판과 함께 대안(代案)으로서 새로운 개혁론(改革論)을 제기하였다. ④ 개방(開放)정신이다. 종래의 주자학 일변도에서 양명학(陽明學)·고증학(考證學)뿐 아니라 불교·노장사상(老莊思想) 및 서학(西學)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학문적 관심과 함께 선진문물을 적극 수용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실학의 4가지 근본정신은 현대에 이르러서도 그 가치를 충분히 인정받고 있다. 이것은 우리의 새로운 미래를 제시할 수 있는 지침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조선후기에 새로운 학풍으로 등장한 실학은 농업·상공업·토지제도·신분제도 등 당시 사회가 직면한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개혁사상으로 나타났다. 농업 중심의 개혁론을 제시한 실학자를 경세치용(經世致用)학파로 하며 이들은 토지제도의 개혁을 중요하게 여겼고, 유형원·이익·정약용으로 이어진다. 상공업의 진흥과 기술의 혁신을 주장한 실학자를 이용후생(利用厚生)학파, 또는 북학파라 하며, 유수원·홍대용·박지원·박제가가 대표적 인물이다. 특히 실학을 주도한 학자들을 근기학파(近畿學派)라 하는데, 이는 서울과 가까운 경기도를 중심으로 실학이 생성, 발전함으로써 이 지역이 조선후기 개혁사상의 근거지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당시 경기도 지역에는 많은 실학자들이 살고 있었으며, 이 중 대표적인 인물로 안산의 이익, 수원의 우하영, 남양주의 정약용을 들 수 있다. 이들은 대표적인 중농주의 실학자들이었다.



유형원 묘 |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석천리

이익(李瀾, 1681~1763)은 안산 첨성촌(현 안산시 일동)에서 살면서 학문연구에 매진하여 실학 중흥의 조(祖)로 불린다. 그는 형이 장희빈(張禧嬪)을 편드는 글을 올렸다가 죽음을 당하자 벼슬에 뜻을 버리고 평생을 학문 연구에 매진하였다. 그는 양란을 겪고 난 뒤의 사회 변동과 역사에 대한 인식을 올바르게 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천문·역산·지리학 등 서학에도 관심을 가졌다. 또한 천주교 서적들을 두루 읽고 서양 문물을 직접 접하기도 하면서 그때까지 내려온 중국 중심의 세계관에서 벗어나 실용적인 면에 중점

을 두는 학문을 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이익은 직접 농사를 짓는 입장에서 농촌경제·농업경영에 초점을 두고 토지제도의 개혁을 주장하였다.

실학의 선구자 유형원이 농민들이 토지를 균등하게 소유케 하자는 균전론(均田論)을 주장한 데 비해, 이익은 소작농의 보호·육성이라는 측면에서 토지 소유의 상한선을 정하여 농장 확대를 제도적으로 막자는 한전론(限田論)을 주장하였다.

이익은 올바른 정치를 위해서는 토지를 제대로 분배해야 한다고 보았으며, 몇몇 사람이 대부분의 땅을 독차지하면 국가와 백성이 어렵게 된다고 생각하였다. 또한 그는 양반사회와 관료제도의 잘못된 점도 지적하였다. 고질화된 봉당(朋黨)의 폐해를 없애고 나라를 안정시키려면 인재 등용방법을 고쳐야 하며, 생업에 종사하지 않고 사치한 소비생활을 하는 양반들의 생활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익은 노비를 점진적으로 해방시키고 인간이 모두 평등하게 살아야 한다고 부르짖었다. 즉 인간은 타고나면서부터 관작이나 부귀를 지니는 것은 아니며 모두가 빈천하기 때문에 양반들도 농사를 짓고 상업에 종사하는 등 생산활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이밖에도 이익은 정치기구 개편, 군사제도의 전반적인 쇄신, 외교의 중요성 등에 대해서도 획기적인 개혁안을 내놓았다. 물론 이익의 학문은 정통적인 유학 위에서 마련된 것이지만 그의 신분관·인간관·직업관 등은 자주적이고 실용적인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그의 가르침은 안정복·권철신·윤동규·신후담·정약전·정약용 등으로 이어져 실제생활에 쓰일 수 있는 학문으로 세상을 다스리자는 경세치용학파를 형성하였다.

우하영(禹夏永, 1741~1812)은 수원 어량천에서 13두락의 논을 직접 경작한 농부이며, 동시에 이익의 실학적 전통을 계승한 실학자였다. 그는 자신의 체험과 전국 답사를 통해 각 지방의 농업 관행을 토대로 농업문제 전반에 걸쳐 폭넓은 개혁론을 펼쳤다. 또한 상공업 진흥론을 적극 주장하고, 광산개발의 민영화와 민간자본에 의한 운영을 주장하는 등 상공업과 광업문제에도 관심을 가졌다.

그는 고금의 저서들을 인용하며 온갖 개혁안을 제시하였는데, ‘천 가지 생각에 하나는 쓸 만한 것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여 자신의 저서에 『천일록(千一錄)』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우하영은 몰락한 사족으로 생활하는 가운데 사회현실에 대해 개혁안을 제시함으로써 실천적인 지식인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정약용(丁若鏞, 1762~1836)은 조선후기 대표적인 개혁사상가이며 실학을 집대성한 대학자이다. 그는 화성 건설에 공헌하여 정조의 두터운 신임을 받았으나, 당

균전론

관리들의 토지 겸병과 농장 확대의 폐해를 없애고 토지를 균등하게 분배하기 위하여 제기한 토지개혁론. 한 집에 필요한 기준량을 정하여 그에 상당한 논밭을 한정하고, 1호(戶)에 영업전을 줄 것, 제한된 영업전 이외의 논밭은 자유 매매를 허가할 것, 영업전의 매매 행위가 있을 때에는 처벌할 것 따위를 내세웠다.

한전론

논밭의 개인 소유를 한정하자던 전제 개혁론. 일정한 기준의 영업전을 가지게 하고 그 이상의 땅의 매매는 허용되지 않는 제한된 토지 안에서는 매매를 금한다는 내용이다.

시 이단으로 여기던 천주교를 신봉함으로써 유배되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그의 학문적 성과는 18년에 걸친 전라도 강진의 유배기간에 완성되었다.

그는 당시 조선사회가 처한 현실에 대한 개혁안을 정리하여 『경세유표(經世遺表)』·『흠흠신서(欽欽新書)』·『목민심서(牧民心書)』 등에 수록하였다. 특히 토지



| 여지도(輿地圖)의 경기도 | 세계지도·조선지도·중국지도 등으로 구성된 지도첩에 실린 경기도 지도이다. 18세기 후반에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서울대학교 규장각)

제도의 개혁안으로는 농지의 공동소유·공동경작·공동분배를 내용으로 하는 여전제(閔田制)를 주장하였다. 뿐만 아니라 정치기구의 전면적 개혁, 지방행정 쇄신, 노비제 혁파, 기술교육 증시, 화폐유통의 활성화, 사대주의 탈피 등을 강조하여 구체적인 역사인식을 강조하는 등 사회·경제·문화의 광범한 분야에 걸쳐 제도 개편을 주장하였다. 그는 당시 조선사회에 강력히 제시되고 있던 개혁 의지를 집대성했을 뿐 아니라 개혁의 당위성을 명백히 제시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여전제

한 마을을 단위로 하여 토지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공동으로 경작하여 그 수확량을 노동량에 따라 분배하는 일종의 공동농장 제도

알아두기 실학의 주요내용

① 민족의식의 성립

실학은 중국 중심의 화이론적(華夷論的) 세계관을 부정함으로써 존명사대주의(尊明事大主義)와 북벌론(北伐論)의 기만성을 폭로했다. 또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했다. 이는 당시 과학적 지식이 발달하면서 등장한 지구구체설·지구자전설을 바탕으로 하였다. 이로써 각 민족·국가의 독자성·독립성, 문화의 개성이 확인되었고, 따라서 조선은 개성적·독자적인 민족·국가로 인식되었다. 이러한 민족적 자각은 국학연구의 확대로 이어져 조선 역사·지리·어문(語文)·금석학·농학 연구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② 민본주의(民本主義) 사상의 발전

조선의 통치이념이었던 민본주의는 통치자가 민(民)에 대하여 덕정(德政)을 함으로써 통치의 정당성을 찾는 것이었다. 여기에서 민은 주체적 존재가 아닌 통치행위의 객체적인 대상, 즉 일방적 복종의 의무자일 뿐이었다. 이에 반해 정약용은 통치권력 발생의 원천은 민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정치는 '아래부터 위로' 실시되는 것이 순리이며 민은 천자(天子), 즉 통치권자를 바꿀 수 있다고 했다. 정약용은 종래의 민본주의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통치권 소재(所在)의 주체로서 민을 확인했다. 민이 정치권력 행사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했으나 종래의 민본주의를 '주권재민(主權在民)'의 민본주의로 발전시켰다고 할 수 있다.

③ 봉건적 신분제도에 대한 비판

실학자들은 대부분 양반의 특권을 폐지할 것을 주장했다. 유수원(柳壽垣)은 그의 저서 『우서』에서 놓고먹는 유식양반(遊食兩班)의 폐절을 주장했고, 정약용의 여전제(閔田制)에 의하면 양반이라는 신분의 특권 자체가 없어지게 되며, 박지원(朴趾源)은 양반을 사회의 발전에 현실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지식인으로 전환시키려 했고, 박제가(朴齊家)는 유식양반을 상업에 종사시킬 것을 주장했다. 또한 대부분의 실학자들이 노비제도의 궁극적인 철폐를 지향했으며, 현실적인 방안으로서는 노비 세습제의 폐지, 조비 선상입역(選上立役)의 폐지, 신공(身貢)의 감면 등 점진적인 철폐 안을 제시했다.

④ 지주전호제(地主佃戶制)의 비판

지주전호제에 대해서도 대부분의 실학자들은 부정적이었다. 지주전호제는 농업의 생산력 발전을 저해하고, 농민의 몰락과 이탈을 조장하며, 수확물의 반을 가만히 앉아서 얻어내는 비인도적인 것이라며 부정했다. 궁극적으로는 지주전호제의 철폐를 지향하지만, 우선 현실적인 방안으로서 이익의 한전론(限田論)과 정약용의 정전론(井田論)이 있었고, 지주전호제를 크게 개선하는 방안인 유흥원(柳馨遠)의 균전론(均田論), 지주전호제의 전면철폐를 주장하는 정약용의 여전제가 있었다.

⑤ 상공업에 대한 적극적 인식

실학자들은 정통적 성리학자들의 차별적인 사농공상관(士農工商觀)을 부정하고, 상업활동을 윤리적·가치적으로 정당화했다. 상공업 활동의 가치가 농업, 나아가서는 사(士)와도 동등하다고 강조했다. 박제가는 더 나아가 한 나라의 산업 발전에서는 상공업이 가장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했으며, 무역에 의해서는 은을 축적하여 국부(國富)를 도모할 수 있다고 했다(이용후생학파). 유수원은 전국적 단일시장권화를 전제로 한 대상인(大商人) 육성을 주장했으며, 박제가도 같은 전제 하에 차(車)의 사용, 상품규격 통일에 의한 대량생산을 제창했다.



1. 경기도의 개화와 척사운동

외세 침략의 길목 경기도



| 양현수 공적비 | 강화군 길상면 정족산성 앞에 있다.

19세기 제국주의의 등장 이후 경기만은 침략의 길목이 되었다. 1866년 프랑스는 선교사가 차단된 것을 구실로 삼아 조선 침략을 개시했다.(병인양요) 해군 함대를 강화도에 상륙시켜 구장각에 있던 각종 서적과 문화재를 약탈하였다. 이에 조선 정부는 한강 연안의 수비를 강화하였고, 양현수 부대는 삼랑성(三郎城, 정족산성)에서 프랑스군을 격파하였다. 미국도 대동강 연안을 올라간 제네럴 셔먼호가 약탈을 하자 이에 분노한 평양의 관민이 배를 불태워 버린 사건을 빌미로 1871년 강화도에 침입하여(신미양요), 강화

도 광성보에서 격렬한 전투를 벌였다. 한때 미군은 광성보를 점령하였으나, 조선 군인의 강력한 저항으로 스스로 물러났다.

일본은 1873년 한국을 정벌한다는 악명 높은 ‘정한론(征韓論)’을 들고 나와 전쟁 준비를 강하게 밀어붙였다. 일본은 조선을 위협하고자 1875년 5월 25일 운요호[雲揚號]를 부산에 침입시켰다. 이후 9월 19일에는 인천의 월미도 근처에 나타났다가 20일에는 강화도 근처에서 정박했다. 이들은 ‘먹을 물을 찾는다’는 구실 하에 20여 명이 초지진 포대 근처까지 침입했다.

이때 조선의 수비군인들은 자위적 포 사격을 하자 일본군은 기다렸다는 듯이 보복사격을 가했다. 초지진의 우리 해안 포병들도 더욱 맹렬한 포격으로 대응했다. 강력한 우리 포병들의 공격에 놀란 일본군들은 황급히 도망치면서



| 초지진 | 인천시 강화군 길상면

방비가 허술했던 정산도와 영종도를 무차별 공격하고 군대를 상륙시켜 살육·약탈·파괴·방화 등 온갖 만행을 저질렀다.

이후 일본 군함들은 1876년 1월 23일에 부산항을 떠나 25일에 경기도 남양부도리도 근처로 왔다. 강화도를 중심으로 한 주변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온갖 정보를 수집했으며 1월 29일에는 강화부 초지진 근처에 침입했다. 일본군들이 서울의 코앞인 강화도에서 무력시위를 벌이는 가운데 1876년 2월 27일 조일수호조규(朝日修好條規, 강화도조약)가 체결되었다.

이 조약은 일본에게는 치외법권과 해안 측량권 등 특권을 주고 조선 정부에게는 일방적인 의무만을 규정한 철저한 불평등 조약이다. 이 불평등 조약이 체결된 후 미국·영국·독일·프랑스·러시아·이탈리아·청 등과 같은 외세가 조선과 조약을 맺고 들어오기 시작하였다. 이들 조약 역시 최혜국대우(最惠國待遇)를 규정한 불평등 조약이었다.

또한 이 조약에 따라 1876년 부산, 1879년 원산, 1880년 인천을 개항하였으며 인천은 서울과 지리적으로 가깝고 경기도라는 커다란 상품판매 시장이 있어 일제 침략자들이 일찌감치 상권을 차지하는 곳이 되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통상조약을 맺으면서 조선의 쌀과 금·은 등이 빠져나가게 되었다. 또한 서구의 면방직 제품 수입으로 조선 상품판매시장을 독점했다.

위정척사운동(衛正斥邪運動)

조선후기 경기도 지역은 서울과 함께 새로운 학술과 문물의 수용이 다른 지역에 비해 아주 빨랐다. 따라서 조선후기에 서학을 수용하여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려고 한 근기(近畿) 남인계열의 진보적 지식인과 이에 대한 탄압을 가한 정치세력의 갈등이 가장 먼저 경기도 지역에서 나타났다. 즉 1801년(순조 1)에 당시 집권 보수 정치세력은 신유사옥(辛酉邪獄)을 일으켜 진보적 지식인을 숙청하거나 유배를 보내 새로운 사조와 학풍의 싹을 자르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이가환(李家煥)·권철신(權哲身)·정약용(丁若鏞) 등 지식인들은 희생이 되거나 유배에 처해졌다.

19세기 후반에 들어서면서 일본과 서양의 침략이 노골화되자, “바른 것을 지키

치외법권

다른 나라의 영토 안에 있으면서도 그 나라 국내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국제법에서의 권리

최혜국대우

통상, 항해 조약 등에서 한 나라가 가장 유리한 대우를 상대국에도 부여하는 것



| 천진암 | 광주시 퇴촌면 우산리. 초기 가톨릭 신자였던 이벽과 권철신 등이 가톨릭 교리를 강론하던 곳이다

「조선책략」

1880년경 일본 주재 청국공사관 참찬관(參贊官)인 황운선(黃遵憲)이 지은 책. 러시아의 남하정책에 대비하기 위한 조선·일본·청 등 동양 3국의 외교정책에 대해 서술하였다.

단발령

1895년(고종 32) 11월에 을미개혁의 일환으로 상투 풍속을 없애고 머리를 짧게 깎도록 한 명령

고[衛正] 그릇된 것을 배척하자[斥邪]”는 ‘위정척사’ 운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다. ‘바른 것’은 물론 조선왕조의 기본이념인 성리학이고 ‘그릇된 것’은 서양의 문물과 사상이었다. 이러한 척사운동은 몇 단계를 거치면서 전개되었다. 우선 1866년(고종 3) 병인양요가 발생하자 이항로(李恒老)·기정진(奇正鎭) 등이 상소를 올려 척사운동을 선도하였다. 다음으로는 1876년(고종 13) 강화도조약을 체결하려하자 경기도, 강원도 유생들이 척사운동을 강하게 전개하였으며, 개화정책과 김홍집이 가져온 『조선책략』에 반대하는 신사척사운동(辛巳斥邪運動)이 1881년(고종 18) 영남, 경기, 강원, 전라, 충청 등 5도의 유생이 연합하여 전개하였다.

1876년 개항 당시 경기도 지역의 척사운동은 서양의 제국주의 침략세력에 대응하여 전개한 반제국주의 투쟁이었을 뿐만 아니라, 국내의 실세한 정치세력의 도전이나 개항을 주도한 정치세력을 비판하는 정치적 성격을 띤 운동이었다. 이러한 정치적 성격을 띤 운동은 1881년 당파를 초월하여 재야 유림세력(儒林勢力)이 연합하여 서양 제국주의세력을 격퇴시키려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 경기도 지역의 척사운동은 을미사변 이후에는 의병운동으로 발전, 승화되어 나갔다. 19세기 말 20세기 초의 최익현과 유인석의 의병활동은 1880년대까지의 경기도 지역의 척사운동이 국가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기위해 새로운 모습으로 발전해 나간 것이다.



2. 한말의 민족운동

한말의 척사와 의병운동(義兵運動)

한말의 척사운동은 1890년대에 들어서면서 동학농민운동, 청일전쟁, 갑오개혁(甲午改革), 을미사변(乙未事變) 등의 사건을 겪으면서 이에 실력행사로 대응하기 시작하였다. 곧 의병운동은 을미사변을 전후한 전기 의병의 봉기는 경기도를 시작으로 전국으로 확산되어 갔다.

의병활동의 효시는 1894년 여름 안승우(安承禹)가 지평(砥平)에서 일제가 무력을 사용하여 경복궁에 불법 난입한 사건에 대한 반발로 일어난 것이다. 이 활동은 모병(募兵)을 위한 것으로 결국 중단되었지만, 한말의병 중 최초의 사례로 보인다.

1895년 10월의 을미사변과 이어 단발령(斷髮令)이 공포되자 김하락(金河洛)·구연영(具然英) 등이 이천에서 의병 모집에 나서 경기도 연합의병진의 성격을 갖는 ‘이천수창의소(利川首倡義所)’를 결성하였다. 이들은 남한산성(南漢山城)을 중심

으로 하여 근방의 의병진들이 연합하여 수원을 점령한 뒤, 남한산성 의병진과 인근의 의병진과 함께 남한산성 주변의 관군과 일본군을 격파하고 삼남지방의 의병과 합세하여 서울로 진격하려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은 1896년 3월 22일 남한산성 의병진의 함락으로 중단되고 말았다.

을미사변을 전후에 봉기한 경기의병의 특징은 뚜렷한 사상·이념적 기반이 결여된 근왕사상(勤王思想)에 기반한 의병이라는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관군과 일본군에게 타격을 입은 뒤에도 다시 거병하였고, 강력한 무장력을 갖추고, 조직적인 군사훈련을 시행하였으며, 강한 결집력을 발휘하며 활동범위를 다른 지역까지 확산하였다.

성리학적 사회에서 충의정신은 보편적 관념에 불과하고 의병의 속성 또한 근왕적 성격을 기본적으로 내포하는 것으로 볼 때 초기의병은 뚜렷한 사상이념적 기반이 결여된 근왕사상에 기반한 의병이라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천의병이 근왕사상적 의병이었다는 것은 나중의 제천 의병진에 가담한 심상희(沈相禧)가 국왕의 선유(宣諭)를 받고 즉각 의병을 해산, 유인석(柳麟錫)으로부터 책망까지 들은 사실에서도 확인된다. 곧 당시 의병은 친일 개화파 정권이 추진하는 개화정책을 단지 '왜화(倭化)' 또는 '망국(亡國)'으로서 인식, 민족과 국가를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구하고자 전개한 반침략·반개화 의병이었다고 하겠다.

어쨌든 초기의병은 이와 같은 사상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반제국주의 항일의병이란 측면에서 일정하게 역사발전의 의미를 갖는 것이다. 경기지역 의병운동의 주류는 갑오농민봉기(甲午農民蜂起) 이른바 '갑오변란'에 반발하여 의병항쟁 준비작업으로 지평에서 모병활동을 전개한 안승우의 경우와 을미사변, 단발령 공포에 대한 반발로 봉기, 남한산성에서 항전한 김하락·구연영 등의 경우, 그리고 역시

근왕사상

임금이나 왕실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는 인식이나 사고



이 을미의병 봉기 기념탑 | 양평군 지제면 지평리, 1895년 명성황후의 시해사건과 단발령에 분격한 유생들이 일으킨 의병이다.

알아두기 김백선과 '양반 불경죄'

을미의병 당시 유인석 휘하에서 용맹을 떨치고 있던 경기도 양평의 평민 출신 의병장 김백선이 치열한 격전 끝에 일본군을 격퇴하는 전과를 올렸으나 본부의 유생 출신 안승우가 원병을 보내지 않아 결국 중과부적으로 패주하고 말았다. 김백선이 칼을 뽑아들고 안승우에게 대들자 유인석은 오히려 전공을 세운 김백선의 목을 베고 말았다.(1896) 상놈 주제에 양반에게 불경죄를 범했다는 것이다.

지평의병의 주역이었던 김백선은 평민 장수로서 의병의 지휘부를 이루고 있는 유생들과의 신분적 갈등이나 전투방식에 많은 불화가 있었다. 김백선의 처형 사건은 신분간의 갈등과 관련하여 을미의병의 한계로 평가받았고 후기의병기로 가면서 이것을 교훈으로 대부분의 의병장은 평민으로 구성되었다.

을미사변에 항거하여 지평에서 거병하여 제천의병의 모체가 되었던 안승우·이춘영(李春永)·이필희(李弼熙) 등의 활동을 들 수 있다. 따라서 갑오의병과 을미의병이 그 중심인데, 그 사상이념적 기반은 근왕사상과 위정척사론에 근거하고 있다. 1896년 1월 척사유생들은 1895년 8월 을미사변과 11월 단발령을 계기로 의병을 일으켰다.

전기 의병은 이 두 사건이 직접적인 도화선이 되었지만 그 밑바닥에는 친일 갑오정권이 실시한 일련의 개혁에 깊은 불만과 반발이 깔려 있었다.

유교적 봉건사상이 뿌리 깊었던 척사 유생들은 단발령을 곧 '단발=개화=일본화'로 인식하여 조선을 오랑캐로 만드는 짓이라고 반발하였다. 이들은 개화정책을 떠나가는 갑오정권과 이들을 뒤에서 지원하는 일본을 물리치고 성리학적 질서를 되돌아가기를 바랐다.

이와 같이 전기 의병에 있어서 경기지역 의병운동의 사상이념적 기반은 단발령 이후 남한산성에서 항전한 김하락 등의 경우에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근왕사상적 측면도 있으나, 이항로의 문인을 중심으로 그의 척사위정론(斥邪衛正論)에 영향 받은 바가 컸다. 이처럼 척사위정론은 조선시대의 지배이념인 주자학사상과 그 질서를 지키고 반(反)주자학적 체계를 이단시하여 부정하는 사상적 체계로서, 근대에 들어와서는 서양과 일본이 일체적으로 그 배척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다.

애국계몽운동(愛國啓蒙運動)

우리 민족은 항일 민족운동으로 의병운동과 함께 애국계몽운동을 전개하였다. 애국계몽운동의 주도자들은 서구의 신학문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신지식층과 개신유학자들로 하나의 지식인군을 형성하면서 시작되었다. 여기에 대한제국의 권력구조로부터 배제되어 있던 구 독립협회(獨立協會) 계열의 전직관료와 망명정치인들, 그리고 대한제국의 특권세력과 외국자본의 침투로 자기 기반을 침식당하고 있던 소상인·소생산자들이 이에 가담하였다. 이들은 무장투쟁을 반대하고 애국계몽운동 단체를 조직하여 학교의 설립, 신문잡지의 발간 산업의 진흥을 통하여 실력을 양성하여 자강(自強)을 이루는 것이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이라 믿었다. 특히, 국가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국채보상운동(國債報償運動)을 전개하였다.

이 운동은 다양한 사회세력이 계몽운동 내에 혼재하면서 국권회복이라는 단일한 목표를 추구할 수 있었던 것은 국가존립과 관련한 당대 위기상황 속에서 가능한

독립협회

1896년(건양 1) 7월에 서재필, 이상재, 윤치호 등이 우리나라의 자주독립과 내정 개혁을 위하여 조직한 정치 단체. 『독립신문』을 발간하고 독립문을 건립하였으며, 1898년에 만민공동회를 개최하고 시국에 대한 6개조의 개혁안을 결의하여 황제에게 주청하는 등의 활동을 펴다가 1899년 해산되었다.

것이였다. 이들은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이를 타개하고 국권을 회복하고자 한 민족운동이었으며, 아울러 신흥부르주아세력을 주축으로 당대의 시대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던 근대국민국가(近代國民國家) 수립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반봉건(反封建) 근대화운동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운동노선과 방법은 당시 또 하나의 국권회복운동(國權回復運動)으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던 의병운동을 불법으로 간주함으로써 민족운동의 통합 가능성을 상실했다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었다. 이리하여 한말 국권회복운동은 동일한 목표를 추구하면서도 추진주체와 운동노선의 상이에 의해 식민지 강점 이전까지 애국계몽운동과 의병운동이라는 두 개의 방향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

일제강점 전후의 의병운동

일제의 야욕이 노골화 되는 을사늑약(乙巳勒約) 체결 전후시기에 나타난 후기경기의병은 일제의 식민지화에 저항하여 국권 회복을 1차적 목적으로 하는 반일 민족운동이면서 자주적인 근대국가를 수립하려던 반봉건 항쟁으로 발전하였다. 이념적으로는 투쟁 과정에서 점차 양반 유생들의 척사적(斥邪的) 또는 근왕주의를 극복하여 갔다.

1904년 러일전쟁 이래 일제의 군사적·경제적 침략이 노골화되는 가운데 유생이나 지식인 등이 아니라 이전에 반봉건 반침략 항쟁을 이끌어 오던 농민 무장집단이 의병으로 전환해 간 경우가 대다수였다. 양반 유생들도 민중들의 항일운동에 영향을 받아 의병항쟁에 참여하였다.

경기도의 의병은 1907년 8월 군대해산을 계기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여 치열한 항일투쟁을 전개하였다. 서울에서 강제 해산에 반대한 군인들이 항전을 개시한 이래 원주 진위대, 이어 수원 진위대, 강화 분견대가 주민 600명과 연합하여 무장 봉기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전국적인 항일의병이 확산되었다. 각 지역에서 의병이 봉기하자 일제는 대규모의 일본군을 투입하여 공격하였으나, 의병들은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계속 항일활동을 전개하였다. 1908년 왕성하던 의병활동은 일제의 이른바 '남한 대토벌 작전'에 의해 난관에 봉착하였다. 근대식 무기로 무장한



독립문 | 서울시 서대문구 현저동. 독립협회가 한국의 영구독립을 위해 세웠다.

군대해산

1907년 8월 1일 일제에 의해 한국 군대가 해산된 사건. 7월 14일에 정미(丁未) 7조약을 체결하면서 동시에 이완용과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는 비밀 각서를 조인·교환하였는데, 이 비밀각서에 의해 8월 1일에서 9월 3일에 걸쳐 조선군대를 해산하였다.

일본 정규군의 잔인한 초토화(焦土化) 작전으로 의병은 활동근거지를 잃게 되었고 특히 전라·경상·충청지방의 피해가 막심하였다. 1909년부터 1910년 말까지 의병활동의 명색을 이어간 곳은 겨우 경기와 강원지방이었다. 일제측 통계로 보면 1909년 경기도 지역은 의병 3,453명, 교전 횟수는 165회로 나타나 있다.

경기도의 척사운동은 의병운동으로 발전하여 일제의 식민지화에 저항하여 국권 회복을 일차적 목적으로 하는 반일 민족운동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자주적인 근대국가를 수립하려던 반봉건 항쟁으로 발전하였다. 이념적으로는 투쟁과정에서 점차 양반 유생들의 근왕주의를 극복하여 민중적(民衆的) 민족주의(民族主義)를 지향해 갔다. 개화파와 척사파가 서로 협력하고 화합하는 자세를 통해 민족의 자주적 독립을 달성하는 것이 당시 우리 민족에게 주어진 역사적 과제였다. 그러한 과제는 의병운동과 동학농민운동, 애국계몽운동을 거쳐 1919년 3·1운동에 의해 달성되었다.

3. 지방제도 개편과 경기도의 변화

경기도 행정구역의 재편(再編)

1910년 조선을 강점한 일제는 종래 자치적인 지역 운영의 관행을 대신하여 면(面)을 말단 행정 단위로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지방사회에 대한 직접적인 지배를 실현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일제는 총독부를 개칭하기 하루 전날인 9월 30일자로 칙령 357호 「조선총독부지방관관제(朝鮮總督府地方官官制)」를 공포하여 우선 지방행정 단위를 도(道)·부(府)·군(郡)·면(面)으



| 조선총독부 | 일제가 1910년 조선을 강점하고 세운 통치기관

알아두기 1914년 일제의 지방행정구역 개편의 의도

1914년에 시행된 부제(府制)는 종래의 일본인 거주지제도를 철폐하고 그 대신 만든 제도로서 기존의 12개의 부를 그대로 존속시키되 부(府)의 영역을 축소하고 외국거류지는 모두 지방행정구역인 부에 편입하는 조치이다. 형식상 자치제를 표방한 예산과 조례에 관하여 부윤이 권한을 갖는 일종의 재정단체라는 것 이외의 큰 의미는 없다.

실질적으로 중요한 군·면의 통폐합 조치에서 총독부는 군보다 면의 역할을 주목하여 면을 통하여 지방행정을 장악코자 하였다. 종전 317군에서 97개 군을 감축하고 4,322면에서 1,800개 면을 감축하여 대대적인 지역조직의 통폐합을 추진하였다. 일제는 인원감축으로 인한 인사권의 힘을 바탕으로 기존 자치조직의 기반을 무너뜨리고 단번에 지방조직을 장악할 수 있게 되었다. 일제는 이러한 통폐합의 결과 행정의 집중과 인원감축을 통하여 많은 경비를 절약하였다고 하였으나, 그보다도 일제의 지방조직 장악과 그 지배력을 확고히 하는데 주목적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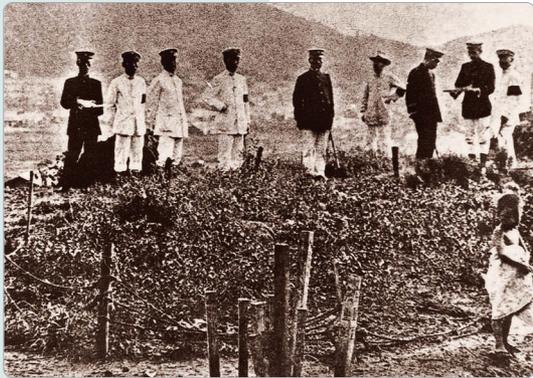
로 하고, 13도 12부 317군 4,408면으로 이루어지는 지방행정체계의 대강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수부(首府)인 한성부(漢城府)도 제2급 행정단위로 격하되어 경성부(京城府)로 이름을 바꾼 후 인천부와 함께 경기도 관할로 편제되었다. 아울러 종래 재무계통과 행정계통의 이분화, 조선인에 대한 행정과 거류 일본인에 대한 행정의 이분화라는 과도적 행정체계를 일원화함으로써 제도 정비의 기본 골격을 갖추었다. 이어 1910년 10월 1일 총독부령 제8호 「면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말단 지방행정기구로서 면의 지위를 확정하였다. 먼저 면 이외에 사(社)·방(坊)·부(府)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던 것을 모두 면으로 통일하였다. 그리고 면회(面會)의 추천으로 임명되던 면장을 도장관(道長官)이 임명하는 관리로 바꾸고 행정기관으로 법제화하였다.

■ 1910년대 경기도 각 부·군의 행정구역과 면 및 동리 수

부 군 명	부군청소재지	관 할 구 역	면수	동정리수
경성부	경성		0	186
인천부	인천		0	46
고양군	경성	고양군 일원, 경성부 서강면, 은평면, 연희면 및 서부, 용산면, 송신면, 인창면, 한지면, 두모면 중 경성부에 속하지 않는 지역, 양주군 고양주면	12	155
부천군	관청리	부평군 일원, 인천부 구읍면, 서면, 남촌면, 조동면, 신현면, 전반면, 주안면, 황등천면, 영종면, 용유면, 덕적면, 다소면 내 인천부에 속하지 않는 지역, 강화군 신도, 시도, 모도, 장봉도, 남양군 영흥면, 대부면	15	160
시흥군	영등포	시흥군 일원, 과천군 일원, 안산군(월곡면, 북방면, 성곶면 제외) 일원	9	83
수원군	수원	수원군 남부면, 북부면, 일용면, 형석면, 송동면, 매곡면, 상봉면, 용북면, 안평면, 산성면, 문시면, 남곡면, 갈담면, 공향면, 장주면, 대촌면, 동북면, 아탄면, 청호면, 초평면, 정림면, 남면, 상출면, 양간면, 감미면, 왕륜면, 성곶면, 남양군(영흥면, 대부면 제외) 일원, 광주군 의곡면, 안산군 월곡면, 북방면	21	279
진위군	평택	진위군 일원, 수원군 종덕면, 율북면, 수북면, 사진면, 서신리면, 청룡면, 숙성면, 오정면, 언북면, 포내면, 현암면, 안외면, 승량면, 가사면, 광덕면, 충청남도 평택군 일원	11	128
안성군	안성	죽산면(원일면, 근삼면, 원삼면, 근일이면, 남면 내 가척리, 동주리 제외), 안성군 일원, 양성군 일원	12	170
용인군	김량장	용인군 일원, 양지군 일원, 죽산면 원일면, 근삼면, 원삼면, 근일이면	12	115
이천군	이천	이천군 일원, 음죽군(동면 내 노평리 일부, 하울면 내 총곡리 일부, 상울면 팔성리 일부와 석교촌 일부 제외) 일원, 충청북도 음성군 법왕면 석원리 일부, 두의면 용산리	11	132
김포군	김포	김포군 일원, 통진군 일원, 양천군 일원	9	88
강화군	강화	강화군(신도, 시도, 모도, 장봉도 제외) 일원, 교동군 일원	14	96
파주군	문산	파주군 일원, 교하군 일원	11	84
개성군	개성	개성군 일원, 풍덕군 일원	16	104
포천군	포천	영평군 일원, 포천군 일원	13	88
연천군	연천	연천군 일원, 식녕군(내문면, 인목면, 마장면 제외) 일원, 적성군 일원, 마전군 일원, 양주군 영근면	13	111

토지조사사업

일제가 우리나라의 토지를 빼앗기 위하여 벌인 대규모의 조사 사업.



토지조사사업 | 1910년부터 준비하여 1912년에서 1918년까지 7년간 시행하였다.

■ 1910년대 경기도 각 부·군의 행정구역과 면 및 동리 수

부 군 명	부군청소재지	관 할 구 역	면수	동정리수
광주군	광주	광주군(의곡면, 양륜면 제외) 일원, 양평군 남종면	16	183
양평군	양평	양평군(남종면 제외) 일원	12	112
양주군	양주	양주군(영근면, 고양주면 제외) 일원	16	148
가평군	가평	가평군 일원	6	47
여주군	여주	여주군 일원	10	159
장단군	장단	장단군 일원	10	67

※ 자료 : 越智唯七, 『新舊對照 朝鮮全道府郡面洞里名稱一覽』, 1917

일제는 경제수탈을 위한 토지조사사업(土地調査事業) 및 지방행정의 재정적 안정화를 위해 각 행정단위를 통폐합하고 그 구역을 확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했다. 무엇보다도 경계조차 불분명한 동리(洞里)의 구획을 명확하게 하고 면·군을 통폐합하기 위해서는 준비기간이 필요했다. 이를 위해 일제는 조사작업에 착수하여 읍지를 모으고, 지도 작성에 필요한 측량 작업을 실시하였다. 그리하여 1912년 3월 부령 제20호로 「과세지견취도(課稅地見取圖) 작성의 건」을 발표하고 같은 해 4월 1일부터 그 해 연말까지 총 257개 부·군, 3,492개 면, 49,587개 동리에 이르는 지도를 완성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일제는 1914년 3월 1일부터 전국적인 행정구역 개편을 단행하였다. 경기도의 면과 동리는 1916년에 이르러 총 249면 2,741동리로 조정되었다. 이 시기 개편된 경기도 각 부·군의 행정구역과 면 및 동리 수는 왼쪽 표와 같다.

1914년부터 1916년까지 단행된 경기도 행정구역 통폐합은 이후 큰 변화 없이 유지되다가 1930년대에 이르러 약간의 변동은 겪게 된다. 1930년 12월 부제 개정으로 개성군이 개성부로 승격하고, 개성부의 관할구역을 제외한 개성군 일원을 개풍군(開豐郡)으로 조정하였다. 아울러 같은 해 12월 면제를 읍면제로 개정하는 조치에 따라 종래 41개 지정면(指定面)이 읍으로 승격되었고, 읍의 수도 증가하여 1945년까지 전국적으로 124개 읍으로 늘어났다.

경기도에서도 1931년 지정면이던 수원군 수원면과 시흥군 영등포면의 읍 승격을 시작으로 1945년까지 안성군 안성읍, 평택군 평택읍, 이천군 이천읍, 양주군 의정부읍, 부천군 소사읍, 이천군 장호원읍, 여주군 여주읍 등이 읍으로 승격하였다.

결국 일제강점기 행정구역 통폐합은 총독부가 내세운 지리적 불균등을 해소하고 행정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목적과는 달리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채 행정구역을 임의로 강제하였다는 점과 지방 실정을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행정을 복잡하게 만드는 비합리적인 요소가 많았다. 이처럼 생활권이나 교통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으로 인해 1920년대에는 면내에서 면장의 선임 문제나 면사무소 위치 문제로 갈등이 야기되었다. 특히 생활과 생산의 터인 동리의 경우 몇 개의 옛 동리를 행정촌락으로 분할·통합함으로써 생활공간과 행정구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이 시기 면·동·리 소유재산의 귀속처(歸屬處)를 둘러싼 분쟁과 저항으로 나타난다.

또한 일제는 행정구역을 통폐합하면서 동리의 유래나 고유명칭을 무시하고 편의적이고 일률적인 명칭으로 행정지명을 변경하였다. 지명의 한자가 어렵다는 이유로 다른 한자로 대체하여 지명의 역사적 의미를 훼손하거나, 방위 및 일련번호를 기준으로 지명으로 삼기도 하였다. 예컨대 오산의 경우 큰 자라가 많아 오산(鰲山)이라 불리던 것을 쓰기 번거롭다는 이유로 ‘까마귀 오(烏)’로 대체하였다. 또한 뒷산의 모양이 거북이처럼 생겨 거북매 또는 구산으로 불리던 고양의 구산(龜山)도 같은 이유로 구산(九山)으로 바뀌어 그 유래를 알 수 없게 되었다. 방위나 일련번호를 기준으로 지명을 삼은 사례로는 죽산군과 안성군을 통합하면서 죽산군 지역을 죽일면·죽이면·죽삼면(1915년 일죽면·이죽면·삼죽면으로 개칭) 등으로 명명한 경우를 들 수 있다. 그 밖에 용인의 남사면이나 내사면처럼 네 개의 면을 통폐합하면서 등장한 지명들도 행정 편의주의의 일환이었다.

면제(面制)의 수립과 지방행정의 변화

① 면제의 시행과 면 운영

일제의 행정구역 통폐합 조치는 단순히 지역을 통폐합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통

알아두기 일제강점기 행정구역 개편의 모순

“일본의 정촌 구역은 토지·민정 등을 고려하여 인민의 대표자가 모여 의견을 잘 교환한 뒤에 만들었기 때문에 꽤 잘 되었다. 그러나 조선은 이와는 완전히 반대로 인민의 의향 따위는 조금도 헤아리지 않고 관리들이 마음대로 책상에서 경계선을 그었기 때문에 많은 문제를 낳았다. 대개는 하천을 경계로 삼았고, 산악이나 교통은 전혀 고려하지 않아 면의 중앙에 산봉우리가 있거나 산 정상에 중심이 마을이 분리되기도 하였다. 또한 이런 방식의 경계 획정은 교통 문제를 고려할 수 없어 지역민간의 교통도 매우 불편하게 되었다.”(양주군청 일본인 관리 北畱良弘의 지적, 『조선지방행정』 15-3, 35-41쪽)

감부 이래 추진해 왔던 지방행정기관, 특히 중앙권력을 농촌으로 침투시키는 데 주요한 매개체인 면의 행정력을 강화하는 데에 큰 의미가 있었다. 이와 함께 면 행정을 담당할 면 운영층도 새로운 인물로 교체되어 갔다. 이는 일제가 통폐합 과정을 통해 면장의 자질을 개선하고 지방통치정책에 협조적인 인물로 충당하기 위한 전면적인 개편에 따른 것이었다.

운영층은 전체적으로 서당 등에서 전통교육을 받은 인물이 76%를 차지해 절대적인 다수를 점하고 나머지 24% 정도가 신식교육을 받은 인물이었다. 이렇듯 일제는 병합 초기부터 문제로 지적되어 온 면장의 자질 개선과 면리원 확보에 행정사무 능력을 갖춘 구한국 관리와 신식 교육을 습득한 인물을 대거 기용함으로써 면 기능 강화를 위한 인적 기반을 확보할 수 있었다. 면의 구역과 규모를 정비하고 면 운영층의 인적 기반을 확보한 일제는 면 운영의 정책방향을 법제화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1917년 10월부터 시행된 제령(制令) 제1호 「면제」와 부령(府令) 제34호 「면제시행규칙」은 그간 일제가 추진해온 면의 행정력 강화를 제도적으로 완비하려는 1910년대 지방통치제도 정비과정의 귀결점이었다.



수암면사무소 | 안산시 상록구 수암동. 일제강점기의 면사무소 건물로 사진은 1959년에 찍은 것이다.

면제 시행이 가져온 행정상의 변화는 다음과 같다. ① 면이 모든 사무의 주체가 됨으로써 종래 동리에서 경영하던 사업도 면에 귀속되어 사실상 동리는 면 아래의 최하급 행정구획 이상의 의미를 갖지 못하게 되었다. 이와 동시에 동리장(洞里長)은 무급의 명예직인 구장(區長)으로 대체되었고, 재산도 면으로 귀속되었다. ② 면은 사업주체로서 사용료와 수수료를 징수하고, 특별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었다. ③ 면장의 권한이 강화되어 지방행정의 책임자로서 그 독립적 기능이 확대되었다. ④ 일본인이 다수 거주하는 면을 지정면(指定面)으로 특설하고 지정면에는 상담역을 두도록 하였다. 이는 일본인 거주지와 조선인 거주지에 대해 행정적 차별을 두겠다는 의도였다. ⑤ 면 사무 증가와 면의 사업경영 능력 인정에 따라 종래 폐지했던 회계원을 다시 설치하되 면서기 중에서 임명하도록 하였다. ⑥ 면의 사무가 다른 면과의 이해에 관련될 경우 인접 면과 공동으로 처리할 수 있는 면 조합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결론적으로 면제의 시행으로 면은 도-군-면이라는 행정계열에서 국가의 최하급

행정기관이면서 동시에 자체의 공공사무를 가진 공공단체라는 이중적 성격을 갖게 되었다. 이에 따라 면장도 도장관이 임명하는 국가의 보조기관이자 면장 수당을 면민의 부담으로 받는 공공단체로서 면 사무의 담당자이기도 하였다.

② 1920~1930년대 면 행정의 정비와 강화

면제를 통해 면 행정의 법제화를 수립한 일제는 다음 순서로 면 행정을 담당할 면리원(面吏員)을 확보하고 이들의 행정업무 능력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1920년대에 이르면 면당 평균 2~3명에 불과하던 면서기의 수가 면당 5~6명으로 증원되었다.

면리원을 확충하는 것만으로 면 행정이 강화되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일제는 면리원의 행정업무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면리원 교육을 실시하였다. 1920년대에는 주로 '지방개량강습회(地方改良講習會)'라는 이름으로 추진되었는데, 내용은 시정방침, 지방행정 일반, 각종 산업에서부터 법령·금융·교육·위생 등은 물론 현대사상의 조류에 이르기까지 지방통치에 필요한 모든 것을 망라하고 있었다.

면 행정은 1930년대에 들어 제도적 보완과 함께 운영의 측면에서도 더욱 체계적으로 확립되었다. 우선 1917년에 제정되었던 「면제」와 「면시행규칙」을 1930년 12월 「읍면제」와 「읍면제시행규칙」으로 개정하고 이듬해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를 통해 종래 '지정면'을 '읍'으로 승격하고, 보통면의 경우라도 시가지가 일정한 규모로 발전하고 일본인 거주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을 점차 읍으로 승격해 갔다. 이로써 경기도에서도 지정면이던 수원면과 영등포면이 읍으로 승격하였고, 안성면을 비롯한 6개 면이 읍으로 승격하였다.

지방의회 구성과 자치제(自治制)의 실상

일제가 지방자치를 표방하고 이를 구체화한 것은 1914년 1월 총독부령 제2호로 공포한 부제(府制)였다. 동년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부제」의 주요 골자는 집행기관인 부윤을 총독이 임명하고 12개 부에 부윤의 자문기관으로 부협의회를 설치하되 협의회원은 각 도장관이 임명한다는 것이었다. 이때 협의회원은 6~16인으로 조선인과 일본인을 반반의 비율로 임명했으며 협의회 의장은 부윤이었다. 그리고 1917년 6월 칙령 제1호로 면제를 시행하면서 23개 면을 지정면으로 정하고 면장의 자문기관으로 상당역을 두었다. 따라서 1910년대에는 지방자치가 부분적으로

문화정치

3·1운동 이후 식민통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추진한 일제의 조선통치 방침. 헌병경찰제도를 보통경찰제도로 바꾸는 등 외견상 유희적인 정책을 구사하면서 조선의 민족적 저항을 둔화시켜 식민지통치체제를 안정화하고자 하였다.

기류

다른 지방이나 남의 집에 일시적으로 머물러 살 또는 본적지 이외의 일정한 곳에 주소나 거소를 두는 일

표방되기는 했지만 그 대상지역이 일본인 밀집 거주지였고 기구도 도장관이 임명하여 구성된 자문기구에 불과하였다.

3·1운동 이후 새로 부임해온 사이토[齋藤實] 총독은 ‘문화정치(文化政治)’를 표방하고 1920년 7월 민심수습책의 일환으로 지방제도를 개정했다. 개정된 주요 내용을 보면 부에는 부행정의 자문기관으로 부협의회를 두고 부협의회원을 주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하도록 하였다. 면에는 면장의 자문기관으로 면협의회를 두되 지정면에 한해 부협의회와 마찬가지로 보통면은 군수 또는 도사(島司)가 임명하는 것으로 하였다. 한편 도에는 도지사의 자문기관으로 도평의회(道評議會)를 두도록 하였는데, 도평의회원의 3분의 2는 각 부·면협의회원의 선거로 후보자를 추천하면 이들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고 나머지 3분의 1은 도지사가 직접 임명하는 방식이었다. 이렇게 달라진 지방제도는 도평의회와 부·면협의회가 모두 자문기관이라는 점에서는 이전과 다르지 않았지만 부와 지정면협의회에 한해 주민이 직접 선출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었다. 특히 면협의회에는 2,500여 면에 선거든 임명이든 8~14명의 협의회원을 두도록 하고 있어 면 행정에 3만여 명의 인물이 간접적으로나마 ‘참여’ 하는 효과를 보게 되었다.

한편, 면협의회의 경우에는 선거·피선거·피임명권의 범위를 면부과금 5원 이상 납부자로 제한하였다. 그런데 이 조건에 해당하는 인물이 극히 소수에 불과하여 대상자가 정원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자 납부 하한액을 하향 조정하여 면부과금 3원을 납부하는 층까지 대상을 확대하기도 하였다.

일제강점 말기 지방행정의 변화

일제가 1931년 만주사변을 일으키고, 이어 1937년 중일전쟁을 개시하면서 한반도는 전시체제로 변화하였다. 당시 읍면에 부과된 가장 중요한 임무는 인적·물적 동원의 원활한 수행이었다. 직접적인 동원업무는 물론 동원의 기반을 조성하는 업무도 많이 시행되는데, 이 업무의 대부분은 최종적으로 부읍면 등 가장 말단에 위치한 행정기관에서 실시되었다. 전시하에서 부과된 동원업무는 평상시 수행하던 업무와 구별하여 이른바 ‘시국업무(時局業務)’라 불렸다. 지원병·징병·징용의 확대실시와 식량·군수물자의 공출을 비롯한 직접적인 동원업무와 호적·기류(寄留) 관계 업무, 생산력확충계획 등의 부대 업무 모두가 여기에 포함된다. 날이 갈수록 강화되는 동원의 강도는 당연히 ‘시국업무’의 지속적인 증가를 동반

했다. 이 모든 업무들의 최종적 실행기관으로서 읍면이 떠맡아야 될 부담은 이전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였던 것이다.

폭증하는 '시국업무'를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해서는 읍면의 행정력을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과제로 대두된다. 그 중에서도 직원의 증원과 교육의 강화가 우선적으로 요구되었다. 그리하여 1930년대 후반부터 읍면서기의 증원이 이루어진다. 대개의 읍면은 재정형편이 매우 빈약했기 때문에 총독부에서는 국고와 도비에서 필요 경비의 일부를 지속적으로 보조해 주어야 했다. 이 결과 통계가 확인되는 1943년의 읍면리원 수는 1937년에 비해 읍면 당 4명 가까이 증원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1943년 중반 이후의 증가현황은 자료의 부족으로 자세히 알 수 없지만, 당시가 읍면행정의 정비·강화에 총독부가 본격적으로 착수한 시점이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읍면리원의 수는 다시 대폭 증가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서기나 기수 등의 이원(吏員) 외에도 40년대 들어서면서 촉탁, 고원(雇員), 소사 등의 일반 직원과 명예직으로 이원인 구장 역시 대폭 증원되었다. 따라서 읍면 사무를 실제로 담당하는 직원들의 수는 30년대 후반에 비해 2배 이상 증가되었다.

전시하에서 현실적으로 읍면이 부담하는 역할이 급속하게 증대하고, 따라서 행정력을 획기적으로 정비·강화하는 것이 필요했지만 현실적인 여건상 그 대책은 미흡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하나의 방향만은 명확했다. 총독부로서는 조선민중에 대한 전면적인 강제동원에 앞서 예상되는 반발과 저항을 최대한 무마하고, 나아가 원활한 강제동원을 집행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던 것이다.



| 강제공출된 금속류 |

알아두기 일제하 경기도 사회경제구조의 변화

경기도의 인구규모는 1910년 142만 3,051명에서 1940년 283만 4,404명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특히 1930년대에 대폭 늘어났는데 이것은 식민지 공업화에 따른 경인공업지역 형성이 주요한 원인이었다. 경기도는 서울과 개항장 인천을 잇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일찍부터 공업지대가 조성되었다. 비록 1930년대 함경남도를 중심으로 북부지역의 중화학공업화가 진행됨에 따라 그 비중은 낮아졌지만, 일제강점기 내내 우리나라에서 가장 성숙한 그리고 부문 간의 균형을 갖춘 대표적인 공업지대였다. 경인공업지역이 형성될 수 있었던 입지의 조건을 살펴보면, 첫째 서울에 인구가 집중함에 따라 공업제품, 특히 소비재의 판매시장이 형성·확대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인구의 증가는 동시에 노동력 공급을 수반하는 것이기도 하다. 둘째 교통의 요충지로서 경부·경의·경원선 등 전국으로 뻗는 주요 간선철도가 통과하였기 때문에 다른 공업지대와의 결합이 용이하였다. 셋째 행정적인 요인을 지적할 수 있다. 기업 설립이나 자재의 배급, 자금의 조달 등 기업경영에 필수적인 사항의 대부분은 행정당국(총독부)과의 절충이 필요하였다.

따라서 총독부의 주요 행정기관이 집중되어 있었던 서울 및 그 주변 지역은 공업이 입지하기 좋은 조건이었다. 특히 1930년대 후반 이후 전시통제가 강화됨에 따라 이러한 필요성은 한층 커져 경성 및 경기도 지역에 공장, 사업소가 집중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1939년 경기도에 위치하고 있는 공장 수는 조선 전체의 22.4%에 해당하는 1,559개소였다.



4. 일제강점기 경기도의 민족독립운동

일제강점 이전의 항쟁

경기도 항일운동(抗日運動)의 특징은 서울에서 전개된 운동과 밀접했을 뿐만 아니라 서울을 중심으로 한 식민정책의 변화에 민감했다는 사실이다. 다른 지방으로 통하는 교통은 모두 경기도를 통과하였고, 서해안이나 임진강, 북한강, 남한강의 수로가 발달하였기 때문에 서울이나 경기지역 상호간의 연결이나 정보교환이 용이했다. 또한 중앙의 소식을 가장 빨리 접할 수 있는 현실적 여건 때문에 경기지방에서는 어느 지방보다도 항일운동이 빨리 일어났다.

19세기 중엽에 시작된 경기도 지역의 척사운동(斥邪運動)은 개항과 개화(開化)의 흐름에 대항하여 강렬하게 지속적으로 전개되었다. 특히 개항 이후의 개화와 척사의 대립과 갈등에서 드러난 문제는 민족의 주체를 잃지 않아야 하는데 척사든 개화든 그 어느 쪽도 완전한 방책이 되지는 못하였다. 개화파와 척사파가 서로 협력하고 화합하는 자세를 통해 민족의 자주적 독립을 달성하는 것이 당시 우리 민족에게 주어진 역사적 과제였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의병운동(義兵運動)과 동학운동(東學運動), 애국계몽운동(愛國啓蒙運動)을 거치면서 발전하였다.

1910년대의 항일운동



서당풍경 | 일제강점기

일제의 강점 이후 국내에 잠적한 의병들은 비밀결사(秘密結社)를 조직하여 독립운동을 계속하였고, 또 사립학교의 교사, 서당 훈장, 머슴 등으로 변신하여 민족교육을 통한 독립의지의 고취와 토지조사사업 반대 투쟁 등을 격화시키면서 민족적 역량을 높여나갔다. 따라서 의병의 항일 무장투쟁을 통한 민족역량의 성숙과 의병적 전통은 3·1운동을 혁명적인 대중운동으로 발전시켜간 밑거름이 되었던 것이다.

또한 1916년 개성의 한영서원과 호수돈여학교에서는 비밀리에 『영웅의 모범』이라고 하는 애국 찬가집(唱歌集)을 만들어 학생들에게 배포하여 민족의식을 고취시켰다. 이와 함께 전통적 교육기관인 서당(書堂)에서도 민족교육이 이루어졌다. 일본이 강점하면서 사립학교의 규제를 강화하자 뜻있는

많은 인사들이 설립이 손쉬운 서원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민족의식을 불어넣었다. 그러자 총독부는 서당규칙까지 만들면서 이마저도 통제하기에 이르렀다. 서당에서의 민족교육은 3·1운동 중 전국 각지에서 흔히 있었던 서당 훈장과 생도가 3·1운동을 추진·전개하는 주체적 역량이 되기도 하였다.

3·1운동

① 3·1운동의 발발

1910년대부터 꾸준히 진행된 일제의 식민지 수탈정책 결과 조선인 대부분이 몰락하였다. 조선인들의 분노는 갈수록 커졌다. 또한 1919년 2월 고종(高宗, 1852~1919)이 서거하자 고종의 독살설이 널리 퍼져나갔다. 여기에 당시 국제정세가 가미되어 전 민족적 항일운동인 3·1운동이 일어났다. 곧 1917년 러시아혁명 이후 수립된 신생 소비에트공화국이 자국 내 소수민족에 대해 민족자결(民族自決)의 원칙을 선언하였고, 1918년 1월 윌슨(Wilson, T.W.) 미국대통령이 민족자결주의를 제창하였다. 윌슨의 민족자결주의는 제1차 세계대전 패전국 식민지를 처리하는 데 적용되는 원칙이었다. 따라서 승전국에 속하는 일본의 식민지였던 조선은 적용대상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민족운동 지도자들은 여기에 크게 고무되었다.



3·1 독립선언 기념탑 | 서울시 종로구 종로2가 탑골공원

1919년 3월 1일 서울을 비롯하여 평양·진남포·안주(安州)·의주(義州)·선천(宣川)·원산(元山) 등지에서 발발한 3·1운동은 요원의 불길처럼 번져가며 전국적이며 거족적인 독립 시위운동으로 발전하여 갔다. 경기도의 3·1운동도 학생과 농민, 천도교인, 기독교인 등이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 그리고 양주·여주에서는 승려가, 안성에서는 시천교(侍天敎)인이, 그리고 수원·안성에서는 기생(妓生)들이 앞장서기도 하였다. 또한, 경기도는 식민지하 조선 경제의 중심지인 경성부를 둘러싸고 있고 항구도시 인천을 끼고 있다는 지리적 조건으로 인해, 상업과 공업이 발달하였으므로 중소상인과 노동자가 많았다. 이들도 다수 시위에 참여하였다.

3·1운동의 선도적 역할을 한 학생들은 전국 어디에서나 공통적으로 핵심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각 지역의 운동 양상을 보면 각 동리의 구장(區長, 이장)은 30~40명씩의 동리 주민을 직접 인솔하거나 통문을 돌려 주민을 모으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당시의 향촌 사회가 전통적인 면리제의 전통 하에 일정한 지식과 소양을 갖춘 이장이 말단 실무를 관장하며 마을의 여론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였기 때문이다.

경기도의 3·1운동은 다른 지방과는 달리 처음부터 약 2개월 동안 끊이지 않고 끈기 있게 운동이 전개되었으며 전국 어느 지역보다 격렬했고 많은 희생자를 냈다. 처음에는 평화적인 만세시위로 전개된 경기지방의 3·1독립운동은 3월 하순에 들어서면서 점차 무력시위로 변해 갔다. 그 이유는 일제 군경의 무자비한 진압 방식으로 시위대의 감정이 격화되었으며 시위군중의 무차별 체포·투옥은 시위대를 흥분시키기에 충분했다. 군중들이 체포된 사람의 석방을 요구하며 일제 통치기관에서 시위 중 일제의 무기 사용으로 사상자가 발생하자 시위의 양상이 변화하였다. 더욱이 시위 군중에 대한 일본 군경의 발포는 군중을 극도로 자극하여 경찰서 뿐만 아니라 면사무소, 우편소 등 일제 식민통치기관이 습격·파괴·방화되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군중이 일제의 군경에 의하여 희생당하였다.

② 주요지역의 항쟁

3월 1일 개성의 한영서원(韓英書院) 학생들이 계획하여 3일부터 7일까지 근 일주일간 대대적인 시위가 전개되었고, 수원에서도 3월 1일 화홍문(華虹門)에서 일어난 시위를 시작으로 만세시위가 전개되었다. 경기도내에서 3월 상순에 일어난 지역을 들면 3월 3일 고양군 동막에서, 5~6일에는 강화군 부내에서, 7일에는 인천에서 일어났으며, 9일에는 고양군 한지면에서, 10일에는 양평군 문호와 파주군 교하에서 독립만세시위가 일어났다. 3월 중순 이후에 들어서자 시위 지역이 차츰 전 도내로 파급되었다. 평택, 안성, 파주 교하, 양주 와부, 가평 북면 등의 시위를 시작으로 하순에 이르러서는 고양·시흥·광주·양주·부천·김포·수원·용인·안성·인천·양평·가평·포천으로 확산되었으며 4월에는 진위·여주·연천·장단으로 파급됨으로써 도내 20여 개 군 중 시위가 일어나지 않는 곳이 없었다.

운동이 확산되면서 고립·분산적으로 진행되던 시위는 면 단위, 군(郡) 단위 연대시위로 발전하였다. 농촌사회에서의 시위는 대부분 리(里) 단위로 군중이 동원되고 진행되었다. 그러나 3월 하순~4월 상순에 접어들면서 점차 다른 양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4월 1~2일에는 안성군 원곡면·양성면 연대시위가, 4월 2일에는 이천군 6개 면 연대시위가, 4월 2~3일에는 수원군 장안면·우정면 연대시위가 각각 일어났다. 앞서 3월 28일 파주군 광탄면·조리면 연대시위에는 고양

군민 일부가 참여하여 군 단위 연대시위로까지 발전하였다. 이와 같은 연대시위 결과 시위대원 수는 증가하였으며 대규모 시위가 펼쳐질 수 있었다.

일제의 무자비한 진압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무장시위도 격렬해졌다. 시위군중은 몽둥이나 낫 등으로 무장하고 일제 식민통치 말단기구를 공격, 파괴하기도 하였다. 경기도에서는 경찰관서 17개소, 주재소(駐在所) 12개소, 군청·면사무소 35개소, 우편소 2개가 시위대의 공격을 받아 파괴되었다. 뿐만 아니라 일본인 및 친일파 가옥도 공격을 받았다. 3월 28일 수원군 송산면 사강리 시위 때는 군중들이 시위대원에게 총상을 입히고 달아나는 일본인 순사부장을 뒤쫓아 가서 돌과 몽둥이로 처단하였다.

이러한 무장투쟁은 처음에는 시위대의 자위 수단으로 이루어졌으나, 점차 시위대에서 먼저 공격하는 공세적 형태로 나아갔다. 4월 2~3일 수원군 장안면·우정면 연대시위는 시위 준비 단계에서 무장투쟁을 계획한 시위이다. 시위 주동자들은 군중들로 하여금 몽둥이를 하나씩 준비하고 시위에 참가토록 하였으며, 시위 때 주재소와 면사무소를 포위하고, 먼저 돌을 던지고 곤봉으로 문을 파괴한 후, 사전에 조직된 방화반이 방화를 하면, 살해반은 일본인 순사를 타살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한다. 시위가 시작되자 시위대는 장안면과 우정면 사무소, 화수리 주재소를 습격·방화하였으며, 시위대에 발포한 일본인 순사를 타살하였다.

한편 경기도내 여러 곳에서 전개된 무장시위 과정에서, 피검자가 발생하면 시위대는 경찰관서에 가서 석방을 요구하기도 하고, 때로는 경찰관서나 헌병주재소 등을 공격하여 체포된 동지를 탈환하였다.

경기도 최대의 무장 시위는 4월 1일부터 2일 새벽까지 전개된 안성군 양성면과 원곡면 주민의 연대시위이다. 2,000여 명의 시위대원들은 양성면과 원곡면사무소, 양성면 동향리 순사주재소와 양성우편소를 습격·방화하고 일본인 상점을 파괴하였다.

이어 경부선 철도를 차단할 계획까지 세웠으나 일본군의 진압으로 실행에 옮기

주재소

일제 강점기에 순사가 머무르면서 사무를 맡아보던 경찰의 말단 기관 8·15 광복 후에 지서(支署)로 고쳤다.

알아두기 안성 4·1만세항쟁

안성 4·1만세항쟁은 1919년 3·1만세운동에 이어 4월 1일과 2일 양성·원곡면 주민 2,000명이 주재소와 면사무소 등을 불태우고 일본인들을 몰아내 이틀간 해방공간을 만든 항쟁이다. 이 항쟁으로 주민 25명이 순국하고 195명이 투옥됐으며, 원곡면은 평북 의주군 옥상면, 황해 수안군 수안면과 함께 전국 3대 실력항쟁지로 알려졌다.

안성의 4·1만세항쟁은 민족대표 33인의 재판에도 인용될 만큼 격렬했던 것으로 유명했으며 일제의 재판기록에도 이와 같은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이 항쟁으로 인해 순국 24위, 피검 361명, 옥고 127명, 태형 42명, 민가소실 9동 이외 배상, 취학 방해 등 막대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겼지만 그 희생은 헛된 것이 아니라 조국독립의 연연한 의지로 계승되어 갔다.



안성 3·1운동 기념관 | 안성시 원곡면 칠곡리



제암리 3·1운동 순국기념관 | 화성시 향남읍 제암리

지 못하였다. 이렇게 시위가 거세어지자, 기세에 눌린 일본 관리와 민간인들로 하여금 안성읍과 산 속으로 피신토록 만들었다. 이 시위는 후에 3·1운동의 3대 투쟁의 하나로 기록되었다.

이처럼 시위가 확산되고 무장투쟁으로 발전하자, 일제는 시위운동자를 학살하거나 대량으로 체포하고 고문을 가하는 등 탄압을 가하였다. 경기도에서 일본 군경이 시위대에 발포한 회수도 58회 이상이었으며, 운동이 가장 집중적으로 전개되었던 3월 하순~4월 초순 사이에 104명의 조선인이 피살되고, 190명이 부상을 입었다. 체포된 수는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

일제의 탄압으로 경기도 내에서 가장 많은 희생자가 발생된 지역은 수원군과 안성군이다. 이는 3월 말~4월 초에 있었던 수원의 시위 과정에서 일본인 순사가 피살된 것과 안성군 원곡·양성면에서의 무장시위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탄압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일제는 4월 2일 검거반을 이곳에 파견하여 14일까지 64개 리·동을 수색하고 모두 803명을 체포하였다. 그리고 4월 6일부터 17일 사이에 수원군 내 328개 가옥을 방화하였으며, 45명의 조선인을 학살하고, 17명에게 부상을 입혔다. 3·1운동 사상 일제의 최대 만행으로 일컬어지는 제암리 학살사건도 이 시기에 이루어졌다. 이처럼 일제의 보복은 철저하고 잔인하게 진행되었다.

알아두기 제암리 학살사건

1919년 3·1운동에 대한 일제의 보복 행위로 일본 군경이 수원군(지금의 화성) 향남면 제암리에 사는 민간인 20여 명을 학살하고 민가 30여 호를 불태운 참변이다. 3·1운동이 전국적으로 퍼져나가던 당시 제암리교회 청년들과 천도교 김성렬 등을 비롯한 민족주의자들은 4월 5일 만세시위를 결의하고 발안주재소 앞에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 이에 당황한 일본 경찰은 무력으로 진압했으며 마을 사람들은 밤마다 봉화를 올리고 만세시위를 했다.

만세시위가 있은지 10일 후인 4월 15일 일본의 육군 중위 아리타 다케오(有田俊夫)를 중심으로 한 일본헌병들은 15세 이상의 남성들을 제암리교회에 모이라 하고 4·5만세시위 당시 일본군이 주민들에게 행한 만행에 대해 사과할 것처럼 하더니 총격과 함께 교회당 문을 걸어 잠그고 불을 질렀다. 밖으로 빠져나오려는 사람들에게는 무차별 사격을 가했으며 마을 32가구에 불을 지르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으로 숨진 사람은 안중후를 비롯하여 남자 21명, 여자 2명이며 인근 마을 팔탄면 고주리에서 김성렬 등 남자 6명이 학살당했다.

이 사건은 선교사 등에 의해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졌다. 1982년 9월 29일 문화공보부는 경기도 주관으로 합동장례식을 치르고 희생자들을 순국열사로 추서했으며, 이 지역을 사적 제 299호로 지정했다.

이와 같은 탄압으로 인해 3월 하순부터 4월 상순에 집중적으로 일어났던 경기도의 3·1운동은 4월 중순에 이르러 약화되었다. 전 민족이 거족적으로 봉기한 3·1운동은 일제로 하여금 무단통치를 포기케 하고 형식적이나마 ‘문화정치’를 실시하게 만들었다. 이로써 민족운동이 전개될 수 있는 여지가 만들어졌고, 이를 통하여 민중이 운동의 중심 세력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3·1운동은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수립시키는 원동력이 되었다. 이와 같은 의미를 지니는 3·1운동이 경기도에서만 282회 이상 펼쳐졌으며, 17만여 명 이상이 시위에 참여하였다. 이는 당시 전국 13개 도 가운데 가장 활발한 것이었다.



| 폐허가 된 제암리 마을 |

■ 경기도 부·군 별 3·1운동 일지

부·군	일자	3.1~10	3.11~20	3.21~31	4.1~15	계
인천		1 / 30			1 / 20	2
고양		2 / 360		33 / 8,860 이상		35
부천				10 / 1,800 이상	4 / 230	14
시흥		1 / 불명		22 / 9,580	1 / 1,000	24
수원				21 / 6,420 이상	5 / 3,700 이상	26
진위			2 / 20 이상	1 / 400	5 / 3,610 이상	8
안성			1 / 50 이상	3 / 5,500	9 / 7,300 이상	13
용인				10 / 8,200	3 / 800	1
이천				1 / 1,000	6 / 1,350 이상	7
김포				8 / 3,253		8
강화			3 / 20,000 이상	3 / 2,200	6 / 600	12
파주		1 / 100		10 / 8,600 이상		11
개성		5 / 4,500 이상		5 / 2,200 이상	8 / 2,810	18
포천				6 / 7,200	2 / 1,400	8
연천				10 / 1,020 이상	4 / 1,800	14
광주				11 / 7,600	1 / 400	12
양평		1 / 200		4 / 3,300	10 / 17,350 이상	15
양주			5 / 1,750 이상	18 / 6,563 이상		23
가평			3 / 980 이상			3
여주					7 / 6,401 이상	7
장단				5 / 350 이상	4 / 5,800	9
계	횟수 / 인원	11 / 5,460 이상	14 / 22,800 이상	181 / 84,046 이상	76 / 54,571 이상	282 / 166,877 이상

※ 출처 : 『경기도항일독립운동사』, 500~503쪽을 재구성

비고 : ① 칸 ‘/’의 왼쪽은 시위횟수, 오른쪽은 참가인원을 표시한 것임.

② 행정구역과 지명은 당시의 것에 따랐음.

③ 선언서만 배포하였거나 시위 계획 중 적발된 경우는 시위 횟수에서 제외하였고, 1개 지역에서 동일 2회 이상 시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1회로 간주하였음.

1920년대 이후의 항일운동

3·1운동 이후에도 국내외에서 독립운동은 지속적으로 전개되었다. 1920년대 국내의 민족운동은 경제·사회·문화적 면에서 민족의 실력을 양성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었다. 물산장려운동(物産獎勵運動)을 전개하여 민족 자본을 육성, 경제적 자립을 꾀하고, 학생들은 야학을 통해 문맹퇴치와 민족의식을 고취시키는 데 노력하였다. 한편 농민과 노동자들은 일제의 경제적 착취에 대응하여 소작쟁의(小作爭議)와 총파업(總罷業) 등 노동쟁의를 일으켰다.

① 학생·청년운동

3·1운동 이후에도 국내외에서 독립운동이 지속적으로 전개되었다. 경기도 지역의 학생·청년운동은 1920년대 초부터 활발히 일어났다. 학생운동이 주로 비밀결사와 동맹휴학 형태였다면, 청년운동은 청년회를 통한 사상활동과 야학활동, 그리고 다양한 계몽활동으로 나타났다. 1920년 9월 수원에서 혈복단(血復團)지부인 수원혈복단이 결성되고, 1920년대 후반에는 수원고등농림학교 학생들의 건아단(建兒團)과 조선개척사(朝鮮開拓社)가 만들어졌다. 수원고농 학생들은 1927년 6월 건아단을 조직, 농민대중의 계발을 통한 새로운 조선 건설을 강령으로 삼는 한편, 기독교 관련 명사 등을 초청하여 강연회와 좌담회 등도 개최하였다.

학생들의 항일운동은 동맹휴학(同盟休學)으로도 나타났다. 1920년대 경기도 지역 동맹휴학의 발행 원인은 대부분 민족차별적인 학교 당국의 대우와 학교설비 개선 및 학교승격에 대한 요구 등이었다. 특히 개성 호수돈여고의 1920년과 1927년 두 차례에 걸친 동맹휴학을 비롯하여, 안성·광주·인천·수원·부천·오산·이천·강화·양주·포천 등 경기도 전역에서 동맹휴학이 일어났다.

청년운동은 경기지방에서도 일찍부터 활발히 전개되었다. 1919년 이전에 이미 구락부(俱樂部)·당(黨)·회(會)등의 명칭을 가진 청년단체가 조직되었고, 1920년대 들어 주로 청년회라는 이름으로 각지에 생겨났다. 경기도 지방에 있었던 청년운동 단체는 200여 개가 넘었다. 청년단체들은 주로 야학회(夜學會), 강연회, 토론회 등을 개최하는 활동을 전개하였다. 야학회는 무산(無産) 아동들을 대상으로 시행했으며, 강연회와 토론회는 청년들 간의 지식계발과 일반민중의 교화·계몽을 위한 것이었다.

② 농민·노동운동

소작쟁의

소작권과 소작료 따위의 이해 관계를 둘러싸고 지주와 소작인 사이에 벌어지는 투쟁

일제강점기 농민운동은 식민지 농업·농민 지배구조의 근간인 지주·농업회사 등에 대한 소작쟁의를 비롯하여 수리조합(水利組合) 반대투쟁, 식민지 농업정책 반대 투쟁 등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었다. 그 가운데 일제 및 지주층의 수탈에 대항하는 소작인회 중심의 농민단체의 활동과 1920년대 중반 전국 규모의 조선노동총동맹(朝鮮勞農總同盟)의 창립으로 이어지면서 조직이 확대·강화되었다. 1920년대의 경기도 지역의 소작쟁의 건수는 90여 건이 발생하였고 1930년대에는 7천여 건이 발생하였다.

3·1운동의 진행되면서 노동자들은 아직 독자적인 힘을 갖고 나서지는 못하였으나, 일제의 무단적인 식민통치정책에 반대하는 파업투쟁에는 적극적으로 나섰다. 1919년 6월 24일 고양군 동막리에 있는 정미소에서 운반인부와 벼건조부 200여 명이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을 시작으로 서울 부근 공업지대에서 결성된 노동단체들은 1920년대 초부터 점차 활동범위를 넓혀나갔다. 이때부터 자본주의적 관계의 정착과 함께 노동운동은 독자적인 사회운동으로 자리 잡기 시작하였다. 각지에서 노동단체들이 결성되어 활동하면서 파업투쟁은 대중적인 성격을 띠고 전개되었다. 1920년 4월 최초의 대중적 노동단체인 조선노동공제회(朝鮮勞動共濟會) 지부가 인천·강화·개성에서 결성되었고, 이러한 하부조직의 출현으로 노동자들의 진출이 매우 활발해졌다.

1920년대 중반까지 경기도에서는 다른 지방보다 활발한 파업투쟁이 전개되었다. 파업투쟁은 공장이 많았던 인천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으며, 이외 시흥·파주·양주 등지에서도 빈번히 일어났다.

1930년대 들어서면서 노동자들의 동맹파업은 더욱 활기를 띠었다. 1930년대 말이 되면서 일제는 파쇼적 악법 설치와 탄압기구를 확대하여 조선 노동자들의 투쟁에 대해 탄압의 강도를 극대화하였다. 1941년 12월 일제가 태평양전쟁(太平洋戰爭)을 도발한 이후 노동자들의 반전투쟁(反戰鬪爭)은 생산장에서의 집단도주, 시설파괴, 공사방해 등으로 계속 이어졌다.

| 제6장 | 현대

1. 광복과 분단, 6·25전쟁

광복(光復) 직후 경기도 지역의 건국활동(建國活動)



| 광복의 기쁨 |

1945년 8월 15일 우리 민족은 암울한 일제 치하에서 몸부림치며 고대하던 광복을 맞이하였다. 그러나 일제 패망의 직접적인 계기는 연합군이 일본군을 물리치고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데 있었다. 일제의 식민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해 끊임없이 투쟁한 대가이기도 했다. 광복은 우리 민족 앞에 자주독립국가 건설의 길을 활짝 열어놓았지만, 해방 그 자체가 일제 파쇼통치의 철저한 청산과 민족의 완전한 자주독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이는 우리 민족 스스로 원하는 방향으로 새로운 국가

를 건설하는 데 장애가 되었다. 한반도의 장래는 미국과 소련을 비롯한 강대국들의 이해관계나 정책에 크게 영향을 받았다.

일제의 갑작스런 항복 소식으로 사회는 커다란 혼란에 빠질 위험이 있었다. 그렇지만 곳곳에서는 이러한 혼란을 막고 새로운 사회를 준비하기 위한 움직임들이 자발적으로 일어났다. 서울에서는 1945년 8월 16일 여운형(呂運亨)이 안재홍(安在鴻) 등과 함께 조선건국준비위원회를 결성하고 치안 유지를 비롯한 건국사업에 착수하였다.

알아두기 여운형이 조선총독에게 요구한 5개 조항

1. 전국적으로 정치범·경제범을 즉시 석방할 것
2. 서울의 3개월 분 식량을 확보할 것
3. 치안유지와 건국운동을 위한 정치 운동에 대하여 절대로 간섭하지 말 것
4. 학생과 청년을 조직, 훈련하는 데 대하여 간섭하지 말 것
5. 노동자와 농민을 건국 사업에 동원하는 데 대하여 절대로 간섭하지 말 것

인민위원회

사회주의 국가의 행정 집행 기관

조선인민공화국

일제강점기가 끝나고 군정이 시작되기 직전인 1945년 9월 6일 전국인민대표자회의에서 선포된 한반도의 정부이다. 인공 내각에는 주석 이승만, 부주석 여운형, 국무총리 허헌, 내무부장 김구, 외무부장 김규식, 재정부장 조만식, 군사부장 김원봉, 사법부장 김병로, 문교부장 김성수, 경제부장 하필원, 체신부장 신익희 등 국내외, 좌우를 망라한 인사들이 선임되었다.

경기도는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운동의 동향이 빨리 전달되었으므로, 독립 국가를 건설하려는 열기가 다른 곳보다도 높았다. 경기도는 양평의 여운형, 평택의 안재홍, 인천의 조봉암(曹奉巖)과 같이 해방정국을 주도한 정치지도자들을 많이 배출한 지역이었다.

경기도 각지에서도 인민위원회(人民委員會) 형태의 조직이 자생하여, 미군정이 지방을 장악하기 전까지 일제를 대체한 권력으로 건국활동을 주도하였다. 포천·시흥·수원·용인·평택에서는 인민위원회가 군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포천에서는 1946년 5~6월경까지 활동하며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또한 개풍·장단·연천·파주·김포·이천·여주·부천·양주·안성·가평·양평에도 인민위원회가 조직되었다.

인민위원회는 군청사를 접수했는지 주변의 다른 지역에서 활동을 했으며, 대부분의 면사무소에 그들의 대표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양평의 인민위원회는 상당한 세력을 갖고 있었고, 용인에서는 경찰 및 군청 직원들의 과거를 다루기 위해 인민재판소를 설치하기도 했다.

인천의 인민위원회는 현지의 공산당 지부 및 시내 각 공장지대의 조선노동조합 전국평의회(朝鮮勞動組合全國評議會) 조직들에 기초를 두었으며 상당히 강력하였다. 포천 인민위원회는 1946년 5~6월 경까지 군내의 행정, 치안 및 교육에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미군정하 경기도의 상황과 좌·우 대립

1945년 9월 8일 남한에 진주한 미군은 중경임시정부(重慶臨時政府)는 물론, 미군정과 교섭할 목적으로 신속히 정부를 선포한 이른바 ‘조선인민공화국(朝鮮人民共和國)’도 인정하지 않고 직접통치를 실시하였다. 미군정은 한국인들이 만든 모든 행정기구와 그 활동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리하여 임시정부의 요인들은 개인 자격으로 귀국해야 했으며, 인민공화국이나 지방 인민위원회의 활동은 지장을 받았다. 더구나 이러한 여러 세력들은 새로운 국가 건설의 방향에 대해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며, 무엇보다도 정치적 이념의 차이가 커서 민족 국가를 건설하는 데 힘을 하나로 모으지 못하였다.



| 귀국환영대회에서 연설하고 있는 김구 | 1945년 11월 23일 서울

신한공사

1946년 2월 21일 남한에 설립된 미군정청의 재산관리회사. 동양척식주식회사의 소유농지와 약 10만 2,000여 정보의 일본인(회사 및 개인)소유농지는 법령 제52호에 의해 설립된 신한공사로 그 관할이 옮겨지면서 신한공사에서 이의 보전, 이용 및 회계 등을 담당하게 되었다.



| 미군정의 쌀 공출 |

경기도내의 인민위원회들도 미군이 진주한 뒤 빠른 속도로 제거되었다. 미군정이 실시되기 전까지 지방에서 좌·우의 대립은 서울만큼 격심하지 않았다. 그러나 1945년 12월 ‘모스크바 삼상회의(三相會議) 결정’이 국내에 전달되자 신탁통치(信託統治) 문제를 둘러싸고, 국내의 정치세력은 ‘모스크바 삼상회의 결정에 대한 총체적 지지’(좌익) 대 ‘반탁진영’(우익)으로 나뉘어 격렬하게 대립·투쟁하기 시작하였다. 좌우대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견잡을 수 없는 혼란은 해방 정국에서 일상이 되어 버렸다.

미군정은 식민지 경제구조를 대신하여 남한 사회에 자본주의 경제 체제를 도입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동양척식회사와 일본인이 소유하였던 토지를 인수하여 산하기관인 신한공사(新韓公社)에 속하게 하였다. 신한공사는 소유한 토지를 농민들에게 소작을 주고 소작료를 징수하였다. 일제 때 보다 소작료를 낮추는 등 소작조건을 완화하였으나 토지개혁, 소작료의 추가 인하와 금납제(金納制)를 요구하는 농민들과 갈등이 커져갔다.

또 일제말의 식량 배급제 대신 자본주의 원리에 토대를 둔 미곡 자유화 정책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일부 상인과 지주들의 매점매석(買占賣惜)으로 쌀값이 폭등하고, 다른 물가들도 크게 올랐다. 당황한 미군정은 1946년 1월 미곡 수집령을 반포하였으나 곡식이 부족한 춘궁기에 생산비에도 못 미치는 가격으로 쌀을 거두어들일겠다는 미군정의 방침은 도리어 농민들의 반발을 샀다. 더구나 일자리까지 부족하여 실업자는 나날이 증가하는 등 미군정에 대한 여론은 갈수록 나빠졌다.

1946년 9월에는 미군정의 사회·경제 정책에 반발하는 철도 노동자들의 총파업이 일어났다. 이들의 총파업은 다음 달 대구 등 여러 곳의 민중 봉기로 이어졌다. 수십만 명의 민중들은 쌀 공출의 폐지, 토지개혁 실시, 식민지 교육 철폐, 미군정 퇴진 등을 요구하며 시위에 돌입하였다.

경기도 각지에서도 1946년 9월 하순과 10월 사이에 공출반대투쟁과 시위·폭동 등이 곳곳에서 일어났다. 9월 하순 평택의 송탄면 가재리, 팽성면 계양리, 고덕면, 퇴박산 등지에서 시위가 일어났으며, 파주에서도 폭동 계획이 사전 탐지되어 42명이 체포되었다.

1947년 여름에도 각지에서 하곡수매 거부운동이 일어났다. 1946년 7월에 평택 서탄면에서 하곡 공출에 반대하는 농민시위를 경찰과 서탄면·진위면의 우익 청년대가 진압하였고, 1946년 10월 가평에서는 대동청년단원 80여명이 인민위원회 사무실을 습격하였다. 1947년 5월 안성에서는 남조선노동당(南朝鮮勞動黨)의 당원들이 이죽지서와 우익 인사들을 습격하는 등 점차 좌·우 투쟁의 양상으로 치달게 되었다.

5·10총선의 실시와 대한민국정부 수립

미·소 공동위원회가 결국 결렬되고 남북한 총선거가 불가능해지자 1948년 2월 유엔 소총회는 ‘가능한 지역만의 총선거’를 가결하여 사실상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을 확정지었다. 이승만(李承晩)과 한국민주당(韓國民主黨)은 이를 지지하였으나, 김구(金九)를 중심으로 한 중경임시정부 세력, 김규식(金奎植) 등의 중간파 세력은 이를 거부하였으며, 남조선노동당의 좌익 계열은 격렬하게 반대하였다. 남쪽만의 단독정부선거인 5·10선거를 반대하는 운동이 광범위하게 일어나는 가운데, 경기도 각 군에서도 구리·파주·고양·포천 지역을 비롯하여 농민들의 시위가 격렬하였으며, 수원·남양·우정·장안 지역과 반월·오산 등지에서는 투표함을 탈취하는 사건도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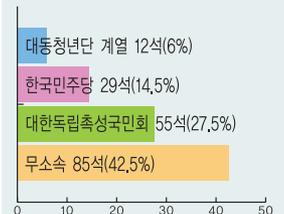
이러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예정대로 1948년 5월 10일 제주도를 제외한 남한의 전역에서 역사상 최초의 총선거가 실시되었다. 좌익진영과 김구·김규식 등 민족진영은 선거에 불참하였고, 경찰과 우익 청년단체의 삼엄한 경비 아래 긴장된 분위기에서 투표가 진행되었다. 우익 세력들 사이의 경쟁이었던 5·10총선거는 무려 47개 정당·단체에서 후보자를 내어 총 948명이 입후보하였다.

이같이 정당이 난립하는 가운데 전체 198석 가운데 무소속이 85석으로 전체의 42.5%를 차지하였으며, 이승만을 지지하는 대한독립촉성국민회(大韓獨立促成國民會)·한국민주당·대동청년단(大同青年團) 계열도 각각 55석(27.5%)·29석(14.5%)·12석(6%)을 차지하였다. 경기도에서 선출된 의원은 모두 29명이었다. 무소속이 18명(62.1%)으로 가장 비율이 높았고, 단독정부 수립에 적극 나섰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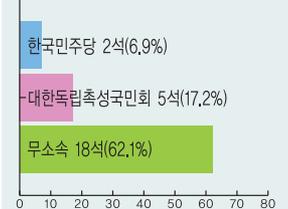


15·10 선거 기표소 모습

전국 정당 당선율



경기도 정당 당선율





| 초대 이승만 대통령 취임 | 1948년 8월 15일

독립촉성국민회와 한국민주당은 각각 5명(17.2%), 2명(6.9%)으로, 이들 정당의 당선율은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 총선 결과 198명이 국민의 대표로 선출되어 5월 31일에 최초의 국회가 열렸다. 이 제헌국회(制憲國會)는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결정하고 헌법제정에 착수하여 3권 분립과 대통령 중심제, 국회의 간접 선거에 의한 대통령 선출 등을 요지로 하는 헌법을 만들어 7월 12일에는 국회를 통과시켰고, 7월 17일 드디어 공포하였다. 그리고 국회의 간접선거에 의하여 이승만이 초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이어서 행정부가 조직됨으로써 광복된 지 3년만인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정부의 수립이 국내외에 선포되었다. 같은 해 12월에 대한민국은 한국에서의 유일한 합법정부로서 유엔총회에서 승인되었고, 뒤이어 미국을 위시한 50여 개 국으로부터 개별적인 승인을 받게 되었다.

광복 후 우리 민족은 독립의 불완정성과 미·소 양 군대에 의한 분할 점령을 극복하고, 통일된 자주독립국가를 세우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남·북에 각각 정부가 수립됨으로써 군사적 분단이 결국 정치적 분단으로 귀착되었다. 우리 민족의 통일노력은 새로운 단계를 맞이하였고, 경기도는 일부 지역이 북한으로 편입되어 분단의 고통을 간직한 땅이 되었다.

6· 25전쟁과 경기도의 상흔

광복의 기쁨 뒤에는 아무도 예견하지 못한 민족의 불행이 도사리고 있었다. 일본군을 무장 해제하기 위하여 미국과 소련이 합의한 군사분계선 38도선은 민족분단선으로 굳어 버렸고, 이로 인해 한국은 지금까지도 이념과 체제를 달리 하는 두 개의 국가로 분단되어 있다.

실제 지형을 고려하지 않고 북위 38도선을 기준 삼아 일직선으로 그은 38도선은, 한민족을 남과 북으로 갈라놓았을 뿐 아니라, 한 마을을 둘로 나누고, 심지어는 멀쩡하게 서로 왕래하는 길도 둘로 잘라 버렸다. 황해도 연백에서는 농지와 저수지를 남북으로 갈라놓는 어처구니없는 일도 일어났다. 38도선은



| 38도선 쫓말 |

서해안의 용진반도, 경기도에서는 장단·연천·포천·가평을 남북으로 가르고, 강원도에서는 화천·양구·인제를 자른 후 양양 바로 밑으로 지나갔다.

38도선을 경계로 남과 북에 각각의 정부가 들어선 현실이 동족상잔의 전쟁을 예고하고 있었지만, 한국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도 38도선 인근의 여러 지역은 이미 전쟁을 실감하는 현장이었다. 경기도 북부지역인 용진반도 지역과 개성에서도 소규모 무력 충돌은 끊이지 않았다. 용진 지구는 때로 대대급 규모의 전투로 확대되어 상대 지역으로 진격해 들어가기도 하였으며, 38도선 이남이었던 개성에서도 송악산을 장악하기 위하여 연대급 규모의 충돌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6·25전쟁은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용진반도를 비롯한 38선 전 지역에서 북한군이 전면 남침함으로써 시작되었다. 북한군은 사흘만인 28일 서울을 점령하였고, 8월 중순에는 낙동강 이남을 제외한 전역을 장악하였다. 용진반도에서 개성·문산·의정부에 이르기까지 서부와 중부의 38도선을 점령하고 있는 경기도는 전쟁 발발부터 격렬한 전쟁터였다. 경기도는 남과 북의 군대가 진격과 후퇴를 거듭하며 점령자가 두 번 바뀔 때마다 주요한 통로가 되었다. 1951년 7월 북측의 북한군·중국군과 남측의 유엔군 사이에 휴전 협상이 시작되어 전선이 교착된 뒤에도 한 치의 땅이라도 더 확보하려는 치열한 공방전이 계속된 격전지였으므로 이 지역은 초토화될 수밖에 없었다. 특히 경기북부지역은 피해가 더욱 컸다.

6·25전쟁은 민족 전체에게 헤아릴 수 없는 피해를 안겨준 참혹한 비극이었지만, 경기도민이 입은 손실은 인명 피해를 비롯해 모든 면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 막심하였다. 당시 우리나라 최대의 경공업지역이었던 경인공업지역(京仁工業地域)도 대부분 파괴되었다.

6·25전쟁이 끝난 뒤 남과 북을 가로지른 휴전선으로 경기도는 분단을 상징하는 지역이 되었다. 연천군·포천군의 일부를 비롯하여 38도선의 이북에 위치하였던 6개 군이 남한으로, 개성시를 포함한 연백군·개풍군·장단군이 북한으로 넘어가 현재에 이르렀다. 휴전은 말 그대로 전쟁을 쉬고 있을 뿐 아직도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지금도 남북한은 250km에 이르는 휴전선 전역에 병력과 무기를 밀집 배치하고 전선을 형성하고 있다.



┃ 군사분계선 설치 ┃

경인공업지역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를 중심으로 경인축을 따라 영등포·안양·부천·부평·인천 지역에 형성된 우리나라 최대의 종합적인 공업지대. 1920년 경부터 영등포에 방직공장·피혁공장·철도공작소 등을 건설했으며, 일제시대말에는 군수 산업을 중심으로 공업지대를 확장했다.

휴전선에 인접하고 비무장지대가 가로놓인 경기북부지역은 남북한이 군사력으로 대치하는 긴장이 반세기 이상 지속된 민족분단의 현장이었다. 국토의 분단으로 경기북부지역은 최전방이자 수도방위를 위한 전략 요충지가 되었고, 이는 지역의 개발과 발전을 오랫동안 가로막는 장애요소로 많은 문제점을 낳았다.

2. 민주주의의 시련과 발전

지방자치제의 실시와 4·19혁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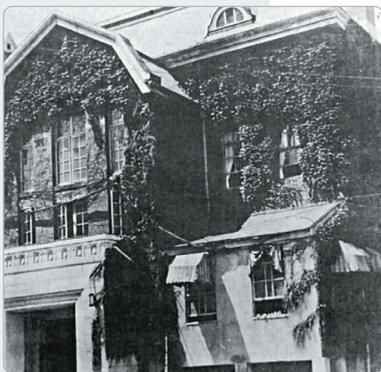
6·25전쟁을 거치면서 이승만(李承晩) 정권은 장기 집권을 모색하였다. 좌익 급진세력은 물론, 민족의 자주독립을 주장했던 민족주의(民族主義)세력과 중도세력도 전쟁의 과정 속에 급속히 약화되었다. 이승만 정권은 좌익 척결을 명분으로 군과 경찰을 대폭 증강하였고, 이러한 물리적 억압기구와 청년단체, 각종 주민통제 조직을 통해 이후 반공독재체제(反共獨裁體制)를 유지할 수 있었다.

이승만이 권력을 독점하려고 하면서 그와 손을 잡았던 보수적 정치인들과의 갈등도 심화되었다.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을 뽑는 선거방식으로 재집권이 어려워지자 이승만은 자유당(自由黨)을 만들고 1952년 폭력을 동원하여 대통령직선제(大統領直選制) 개헌(改憲)을 하였다. 나아가 1954년에는 초대 대통령에 한하여 횡수의 제한 없이 대통령에 출마할 수 있도록 헌법을 바꾸었다.

이승만과 대립하게 된 보수 정치인들은 민주당(民主黨)을 만들어 자유-민주의 양당체제가 성립하였다. 흔히 1950년대의 정치사를 이 두 정당의 대립체제로 보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중간세력이 소멸한 상태에서 보수세력 간의 권력 투쟁만이 전개된 시기였다는 평가도 있다.

민주당은 1956년 정·부통령 선거에서 신익희(申翼熙)와 장면(張勉)을 후보로 내세워 이승만 정권에 강력히 도전하였다. 이승만 정권은 신익희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대통령 선거에서는 승리하였지만 진보당(進歩黨)의 조봉암(曹奉巖)에게 30%의 득표를 허용하였고, 부통령은 민주당에게 내주는 등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다. 이에 이승만 정부는 반대세력에 대한 탄압을 더욱 강화하여 정권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한편 1950년대에는 지방자치제도(地方自治制度)가 시행되었다. 1949년 7월에 「지방자치법」이 공포되어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기 위한 법적



| 옛 경기도의회 의사당 |

근거가 만들어졌으나 전쟁으로 인해 1952년에야 비로소 시행되었으며, 그나마 경기·서울·강원은 1956년 8월 첫 선거가 치러졌고 9월에 초대 경기도의회가 개원하였다. 그러나 풀뿌리 민주주의로 정착하여야 할 지방자치제는 이승만 정부의 정치적 목적에 의해 크게 변질되었다. 1956년 이후 계속된 선거에서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야당인 민주당 후보의 당선에 두드러지기 시작하자 자유당은 시(市)·읍(邑)·면장(面長)을 임명제로 바꾸고 지방의회 의원의 임기를 1년 연장하며, 의장단에 대한 불신임제도의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제출하였고 1958년 12월 24일 국회에서 야당의원을 끌어낸 채 국가보안법(國家保安法) 개정안과 함께 통과되었다. 이처럼 이승만 정부의 지방자치는 주민자치라는 지방자치제의 본래 의미를 상실하고, 정권의 장기집권을 위하여 편의적으로 이용되었다. 경기도의회에서는 민주당을 중심으로 이 법안을 환원시킬 것을 요구하는 지방자치법 개정환원안(改定還元案)을 제출하였으나 부결되었다.

장기집권에 혈안이 된 이승만 정부는 1960년 3월 15일 정·부통령 선거에서 전국에 걸쳐 조직적으로 부정선거(不正選舉)를 자행하였다. 그러나 이는 국민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혔다. 선거당일 오후에 마산에서 부정선거를 규탄하고 선거 무

알아두기 경기도민증



도민증은 한국전쟁 직후 국내외 반국가적 행위자를 색출하기 위해 각 도의 규칙에 따라 도민에게 발급되었던 신분증 명서로 1962년 주민등록법이 제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사용되었다. 도외로 이주, 사망 등 도민증 기재내용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신고해야 했는데, 이사를 가는 경우에도 도민증 회수증을 발부받아 이사 가는 지역의 도나 시에서 도민증·시민증을 다시 교부 받아야 했다.

이 경기도 도민증은 종이로 만들었으며, 크기는 가로 12.3cm, 세로 9.1cm의 직사각형 모양이다. 도민증에는 본인의 이름과 생년월일, 거주지 등이 기재되어 있다.



4·19 혁명 당시 대학교수단 시위 |
1960년 4월 25일

효를 주장하는 학생과 시민의 시위가 벌어졌다. 정부는 시위를 공산당의 소행으로 몰아치면서 무력으로 탄압하였으나 오히려 부정선거 반대 운동은 전국 각지로 퍼졌으며, 언론계·법조계·학계 등 각계의 동조분 위기도 확산되었다. 마산에서 실종되었던 한 고등학생의 시체가 발견되고, 이 학생이 최루탄을 맞고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자 분노한 시민과 학생들은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경찰의 무력저지에도 불구하고 시위는 전국으로 급속히 확대되었고 4월 19일 절정에 달하였다. 이날 시위대는 재선거를 촉구하면서 대통령 집무실인 경무대(景武臺)로 향하였다. 당황한 경찰은 시위대를 향하여 발포했고, 100여 명의 희생자가 발생하였다. 이를 계기로 부정선거 반대운동은 정권 퇴진 투쟁으로 전환되었다. 결국 이승만은 미국마저 등을 돌리자 대통령직을 내놓고 하와이로 망명하였으며, 자유당 정권은 붕괴되었다.

경기도에서는 수원·인천 등에서 학생, 시민들의 시위가 있었다. 3·15 직전인 3월 10일 수원시내 장안문에서는 약 200명의 수원농고(水原農高) 학생들이 “학원 내에서의 간접적인 선거운동을 배격한다” 등 5개 결의사항을 등사한 유인물을 살포하면서 시위가 시작되었다. 선거 실시 이후 학생들의 저항은 더욱 격렬하게 전개되었다. 3월 19일에는 인천공고(仁川工高) 학생 300명이 부정선거 규탄 시위를 감행하였고, 4월 20일 수원에서는 서울대 농과대학생 약 600명이 시위를 벌였으며, 인천에서도 약 300명의 인천사범학교(仁川師範學校) 학생들이 “학원의 자유화와 민주적인 학생데모에 총을 쏘지 말라”고 외치면서 시위를 벌였다.

이승만 퇴진 후 등장한 허정(許政) 과도정부는 내각책임제로 헌법을 바꾼 후 신정부 수립을 위해 1960년 7월 29일 민의원, 참의원선거를 실시하였다. 자유당의 몰락 상황에서 치러진 이 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를 거두었다. 1960년 12월 26일에 실시된 지방자치단체선거에서도 경기도의회는 전체 46명 가운데 민주당이 21명, 무소속이 14명, 신민당이 11명 당선되었고, 수원·인천시장과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민주당 출신이 당선되었다. 그러나 민주당은 4·19 이후 분출한 사회적 각계의 개혁요구를 수렴하지 못하고 분열·파쟁을 되풀이하였다.

5·16 군사 정변과 유신 체제

1961년 5월 16일 박정희(朴正熙)를 중심으로 한 일부 군부세력(軍部勢力)은 쿠

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장악하였다. 정변(政變) 주체들은 전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국가재건최고회의를 구성하여 군정(軍政)을 실시하였다.

이들은 반공(反共)을 국시(國是)로 내걸고, 경제 개발과 사회 안정을 주창했다. 부정 축재자(蓄財者)를 처벌하고, 부랑배(浮浪輩)를 소탕하였으며, 농어민의 부채(負債)를 탕감하거나 농수산물 가격을 안정시키는 정책을 펴기도 하였다. 사회 전반을 장악한 군사 정부는 강력한 대통령 중심제와 단원제(單院制) 국회를 골격으로 하는 헌법 개정을 하였고, 이어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박정희가 당선되어 통치를 이어 나갔다. 박정희 정부는 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제개발과 반공을 국가 운영의 전면에 내세웠다. 한·일 국교정상화(國交正常化)와 베트남 전 참전은 이러한 정책의 일환이었다.

5·16은 지방행정상의 변화도 가져왔다. 정변 주도세력은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1961년 9월 1일 공포)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장을 임명제로 바꾸고 군(郡)을 기초적 지방자치단체로 하는 한편, 읍과 면을 군 하부 행정기관으로 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경기도도 1961년 10월 25일 경기도 규칙 제205호를 공포하여 새로운 직제(職制)를 확정하였다.

1967년 박정희는 대통령에 재선되었다. 이어 1969년에는 경제개발의 지속적 추진을 이유로 대통령을 세 번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3선개헌을 강행, 장기집권의 길을 열었다. 1970년대에 접어들면서 세계 경제는 불황을 맞았고, 미·소 냉전체제(冷戰體制)가 약화되면서 한반도 정세는 크게 요동쳤다. 나라 안팎에 불안감이 고조되었다.

알아두기 경기도청의 수원(水原) 이전

8·15 후 미군정은 1946년 8월 경성부(京城府)를 경기도에서 분리, 서울특별시로 승격·독립시켰고, 이때부터 경기도청이 서울시(중구 태평로)에 소재하는 불합리성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도청이전은 이전지(移轉地)를 둘러싼 각축(인천, 수원, 안양, 의정부)과 재정문제 등으로 인해 지체되었다.

1961년 5·16쿠데타가 일어나자 인천과 수원은 당시 정권실세와 인맥이 있는 인사들이 중심이 되어 사활을 건 유치운동을 전개하였다. 우여곡절 끝에 1963년 12월 경기도청의 위치를 수원으로 변경한다는 법령이 공포됨으로써 마무리되었다. 수원으로 결정한 이유는 수원이 비교적 도내 중심지역에 속하며, 발전 가능성이 예상되었기 때문이었다. 1964년 도청사 건립작업이

시작되어 1967년 6월 23일 도청 이전식 및 시민환영대회가 3만여 시민이 참여한 가운데 열림으로써 경기도청 수원시대가 시작되었다. 이것은 경기도가 서울의 행정체계에서 이탈하여 명실상부하게 행정의 독립성을 확보하였음을 의미하였다.



| 수원 거리의 경기도청사 신축기공식 축하 아치(1964) |



| 제6대 대통령선거 인천공설운동장 유세(1967) |

김대중(金大中)을 물리치고 3선에 성공한 박정희는 국가 안보와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정치적 안정이 중요하다는 구실을 내세워 1972년 10월 이른바 ‘10월 유신(維新)’을 선언하고, 헌법을 개정하여 모든 권력을 대통령에게 집중시켰다. ‘한국적 민주주의’라는 이름아래 독재 정권을 구축한 것이 유신 체제였다. 유신헌법은 부칙(附則) 제10조에서 지방의회의 구성을 조국통일시까지 유예(猶豫)함으로써 지방자치제는 사실상 폐지되었다.

유신을 통해 무소불위(無所不爲)의 권력을 장악한 박정희 정부는 초기부터 국민적 저항에 직면했다. 1973년 이후 재야세력과 학생들은 헌법개정을 비롯한 민주화 추진 투쟁을 벌였고, 정권은 긴급조치(緊急措置)를 발동하여 탄압하였다. 1970년대 말, 제2차 석유 파동(波動) 등으로 경제마저 어려워지자 국민들의 불만은 점차 고조되었고 1979년 10월, 부산과 마산·창원 등에서 유신 체제에 반대하는 학생과 시민의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다. 시위의 진압과 사태의 해결을 둘러싸고 정부 내부에서 갈등이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10월 26일 중앙정보부장 김재규(金載圭)가 박정희를 살해함으로써 유신 체제는 종말을 고하였다.

민주주의의 발전과 지방자치의 부활

유신 체제 붕괴 이후 억눌렸던 민주화 요구가 봇물처럼 터져 나왔다. 그러나 1979년 12월 정치무대에 등장한 전두환(全斗煥)을 비롯한 신군부(新軍部) 세력은 정권을 장악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1980년 5월 17일 전국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 학생운동세력과 김대중을 비롯한 주요 정치 인사들을 체포·구속하였다. 민주화 열기는 순식간에 사그라졌다.

그러나 광주(光州)에서는 비상계엄 확대와 김대중 체포에 반대하는 대학생들의 시위가 계속되었고 계엄군(戒嚴軍)의 무자비한 진압이 뒤따랐다. 이에 분노한 광주시민들이 대거 거리에 쏟아져 나오면서 시위는 확대되었고, 진압군의 발포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광주시민들은 군에 대항하기 위해 경찰서나 파출소에 보관된 총기로 무장하고, 시민군(市民軍)을 조직하여 치열한 교전을 벌인 끝에 계엄군을 시내에서 몰아냈다. 시민군은 계엄군과 협상을 벌이는 한편, 투쟁의 정당성을 알리고 다른 지역으로 확산시키고자 하였다. 그러나 병력을 증강

한 군은 광주를 완전히 봉쇄하고 무력진압을 시도하였다. 결국 5·18 민주화 운동은 처음 시위가 일어난 지 열흘 만에 막을 내리고 말았으나 항쟁에서 보여준 독재에 맞선 저항과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은 1980년대 민주화 운동의 토대가 되었다.

5·18 민주화 운동을 저지한 신군부세력은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國家保衛非常對策委員會)를 구성하여 통치권을 장악하였다. 정치적 반대세력을 무력화한 가운데 선거인단(選舉人團)의 간접 선거로 7년 단임의 대통령 선출을 핵심으로 하는 헌법 개정을 하고, 1981년 전두환을 대통령에 선출함으로써 제5공화국이 출범하였다. 전두환 정부는 '정의사회 구현'과 '복지사회 건설'을 내세우고 1982년 야간 통행금지 폐지, 중·고등학생 머리 모양과 교복 자율화, 장발 단속 완화, 해외 여행 자유화 등의 개방정책을 추진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것은 전두환 정부의 취약한 정통성을 보완하기 위한 회유책이었으며 사회 통제와 반대 세력 탄압을 통해 정권을 유지하였다.

광주 민주화 운동 진압 후 잠시 주춤했던 민주화 운동은 1980년대 중반에 이르러 학생운동을 필두로 활기를 띠게 되었다. 1985년 초 정치 활동 금지에서 풀려난 옛 야당 정치인들은 신민당(新民黨)을 조직하고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제1야당으로 부상하였으며 학생, 재야 민주화 세력과 결합하여 대통령 직선제 개헌 운동을 전개하였다. 전두환 정부는 개헌 요구를 수용하려는 태도를 취하다가 정치권의 합의 실패를 이유로 1987년 4월 호헌(護憲)을 선언하였다. 이에 대한 국민의 저항은 6월에 접어들어 더욱 거세졌다. 6월 항쟁이라 불리는 전 국민적 시위가 전개되자 집권세력은 6월 29일 대통령 직선제 개헌과 구속 인사 석방, 지방자치 및 교육자치의 실시, 정치활동 규제의 철폐를 약속하였다. 이에 따라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 이루어졌다.

1988년 이후 우리나라는 정치적인 굴곡과 시련 속에서도 민주주의의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어냈다. 1992년 12월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김영삼(金泳三)이 당선됨으로써 5·16 이후 처음으로 '문민정부(文民政府)'가 출범하였다. 5공비리 청산, 금융실명제·지방자치제의 전면 실시 등 일련의 개혁 정책이 시행되었다. 뒤를 이어 1998년 야당 출신의 김대중 정부가 들어섬으로써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다. 김대중 정부는 외환 위기의 극복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으며, 사회 개혁과 민주화의 지속적인 추진을 표방하였다.

금융실명제(金融實名制)

금융기관과 거래를 함에 있어 가명이나 차명이 아닌 본인의 실지명의, 즉 실명으로 거래해야 하는 제도. 한국의 금융실명제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 명령'에 의거, 1993년 8월 12일 이후 모든 금융거래에 도입되었다.

지방자치제도 부활되었다. 1988년 「지방자치법」 제7조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지방자치제 실시의 법적 토대가 마련되었다. 1995년 6월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회의원을 주민의 직접 투표에 의해 동시에 선출하였다. 이른바 ‘민선자치제’의 시작으로, 명실 공히 지방자치 본래의 의미에 가장 근접한 주민 참여를 시작한 것이다.

경기도의 지방자치는 1991년 기초·광역의회 의원선거와 1995년의 4대 선거의 동시 실시로 본 궤도에 들어섰다. 1991년 선거에서는 여당인 민자당(民自黨)이 압승하였으나 1995년에는 도지사 선거에서만 민자당의 이인제(李仁濟)가 당선되었으며 기초단체장 선거와 광역의회 의원선거에서는 민주당(民主黨) 및 무소속 후보가 과반수 이상을 차지했다.

지방자치제도의 전면 실시로 활짝 열린 지방화시대가 지방경영의 자주성(自主性), 지역발전의 균형성(均衡性), 활동기회의 공평성(公平性) 등으로 특징지어진다면 각 지역 민선자치단체장의 등장은 지방경영의 자주성을 확보한 첫 단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 30년 만에 부활된 지방의회는 그동안의 관료주의적 중앙집권제를 타파하고 지방분권적 자치행정체제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의 정치·행정·사회 등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알아두기 지방의회(地方議會)의 긍정적 성과

첫째, 각 지역주민의 권익을 위한 조례(條例)의 제정, 행정편의주의적인 불합리한 조례의 개폐, 그리고 지역의 현안문제나 민원의 해결에 앞장섬으로써 지방행정 민주화의 기틀을 마련했다.

둘째, 지방행정 감시에 크게 기여하였다. 특히 예산심의와 행정사무 감사를 통해 예산을 완전 공개하고, 단체장의 판공비 등에 대해 사용처를 명시하게 함으로써 합리적 예산편성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셋째, 의회 개원 이후 공무원들이 행정업무를 보다 철저히 하고 신중하게 처리하였으며, 대민봉사 자세도 크게 향상됨으로써 새로운 지방공무원상(象)을 정립하게 하였다.

넷째, 지역 현안문제가 지방의회를 중심으로 쟁점화됨에 따라 토론의 장이 조성되고, 합리적 의사결정이 가능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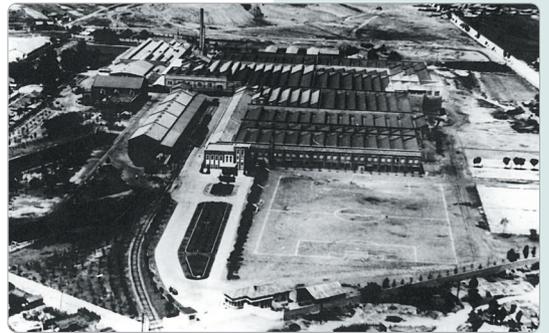
3. 경제발전과 사회 변화

전후 복구와 경제 성장

6·25전쟁은 한국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주었다. 제조업의 생산시설은 절반 가까이 파괴되었다. 물자부족에 따른 국민 일상생활은 피폐하였고, 물가는 폭등하였다. 이승만 정부의 전후 경제 정책은 상당 부분 미국의 원조(援助)에 의존하는 것이었다. 전쟁 중 구호물자(救護物資)를 통해 제공되던 미국의 경제 원조는 전쟁이 끝난 후 무상(無償)원조로 계속되었다. 미국의 원조는 주로 식료품과 의복, 의료품 등의 생활 필수품과 면방직·설탕·밀가루와 같은 소비재 산업의 원료에 집중되었으며, 이를 통해 발전한 제분·제당·면방직공업을 가리켜 삼백산업(三白産業)이라고 불렀으며, 경인공업지대에 집중되었다. 삼백산업을 통해 성장한 자본가들은 관료와 유착하여 각종 특혜금융과 환율정책에 의지하여 자금을 마련하였고, 저렴한 원료와 독점에 의한 높은 시장가격을 통해 부를 확대하였다.

1950년대 후반부터 세계경제의 침체로 미국의 경제원조가 감소하자, 미국의 원조에 의존하던 한국의 경제상황도 급격히 악화되었다. 경기는 하강하고 성장률은 둔화하였으며 물가는 치솟았다. 그나마 경제를 유지해주던 삼백산업의 가동이 멈추었으며, 국민총생산(國民總生産) 증가율도 1958년의 8.7%에서 1960년에는 2.1%로 떨어졌다. 그 결과 중소기업의 도산이 잇따랐고, 실업자가 크게 증가했다. 이에 위기를 느낀 이승만 정부는 비로소 생산재 공업에 투자하기 시작하였으며, 경제 자립을 위한 경제개발계획을 세웠다.

4·19 이후 집권한 민주당 정부는 경제 제일주의(第一主義)를 내세워 경제개발



| 금성방직 안양공장 | 1960년대

알아두기 근대화(近代化)

일반적으로 근대화는 두 가지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하나는 봉건사회로부터 근대 자본주의사회로 이행해가는 역사적 개념이고, 다른 하나는 산업화를 토대로 현대사회가 전통사회로부터 어느 정도 벗어났는가를 측정하는 도구로서의 개념이다. 1960년대 한국의 근대화론은 미국의 대(對)후진국정책의 일환으로 등장한 후자의 근대화론에 기반한 것이었다. 1950년대 한국을 비롯하여 친미적 경향이 있는 후진국의 낙후성을 미국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었다는 점과, 소련 및 신흥 사회주의 국가의 경제발전에 대응할 새로운 이념체계의 필요성이 근대화론의 배경이었다.

5개년 계획을 마련하였으나 5·16으로 중단되었고, 박정희 정부 하에서 이를 계승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박정희 정부의 경제개발계획은 확고한 반공체제 확립과 ‘조국근대화’라는 구체적인 지향 하에 입안(立案)된 것이었다.

1962년 1월 ‘사회·경제적 악순환의 시정과 자립경제 달성의 기반 구축’이 기본 목표인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1962~1966)을 발표함으로써 한국경제는 계획적이며 종합적인 경제개발시대에 접어들었다. 이 계획은 경제성장과 대외지향적(對外指向的) 공업화를 기조로 하고, 전략부문과 취약부문의 집중개발을 중요한 전략으로 채택하였다.

1차 계획의 성공적인 수행을 계기로 한국경제는 개발가능성에 대한 자신감과 근대화를 위한 정책의지가 더욱 굳게 다져졌다. 따라서 제2차 경제개발계획(1967~1971)에서는 ‘산업구조를 근대화하고, 자립경제의 확립을 더욱 촉진’시키는 데 기본목표를 두고, 대외개방전략(開放戰略)을 더욱 강화했다. 공업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기계·전자 등 특정산업을 진흥시키려는 특별법들이 제정되었고, 기업들은 앞 다퉈 외자(外資)를 도입하였다.

이 기간 동안 한국의 경제는 ‘한강의 기적’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외형적으로 눈부시게 발전하였다. 연간 경제 성장률은 두 자릿수에 가까웠으며, 수출은 20배 이상 늘어났다. 1인당 국민총생산은 2배가 되었으며, 저축률도 크게 높아졌다. 그러나 이 사이 한국의 경제는 더욱 외국에 의존하게 되었고, 1960년대 말 국제경기의 악화로 경공업 제품의 수출이 부진에 빠졌으며 많은 기업이 문을 닫거나 은행 관리로 넘어갔다. 정부는 일부 부실기업을 정리하고, 환율을 올리고 금리를 낮추어 기업의 부담을 줄였으며 빚을 줄이거나 상환 시기를 늦추어 주는 특혜 조치도 취하였다.

경공업 중심의 경제 발전이 한계에 부딪히자 정부는 제3차 경제개발계획(1972~1976)과 제4차 계획(1977~1981)에서 중화학공업 중심으로 경제발전의 방향을 전환하였다. 중화학공업에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졌으며, 관련 기업에는 각종 세금과 금융혜택을 주었다. 그 결과 1970년대 말에는 중화학공업의 생산이 경공업 생산을 넘어서 중심산업으로 부상하였다.

중화학공업에 대한 지나친 투자와 제2차 석유파동으로 1970년대 말에서 1980년대 초 우리 경제는 다시 어려움에 빠졌다. 전두환 정부는 산업구조 조정으로 위기에 대처하였으며, 1986년부터 시작된 저금리·저유가·저달러의 ‘3저(低)

호황'으로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다.

경제성장과 산업구조의 고도화(高度化)는 농촌의 변화도 가져왔다. 1차산업의 비중은 크게 줄어들어 농수산업은 침체되었고 인구가 도시로 몰림에 따라 농촌은 피폐되었다. 이로 말미암아 도시노동자의 식량공급이 어려울 정도였고, 나아가 공업 발전을 저해할 단계에 이르렀다. 따라서 1970년대 초 정부는 몰락 직전인 농업의 부흥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했고, 이는 '새마을운동'의 추진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1970년 4월 새마을운동 우선 시범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새마을가꾸기사업'을 시작으로 이 운동을 추진하였다. 새마을가꾸기사업은 소득증진을 위한 공동생산 및 편의시설(便宜施設) 확충에 기본목적을 두었다. 이와 함께 농촌을 자족적 생산도시로 개발한다는 취지의 '소도읍가꾸기사업'도 실시하였다. 이외에도 '저소득마을육성사업', '우수새마을특별지원사업', '새마을소득종합개발사업' 등을 추진하였다. 새마을운동으로 주택 개량, 농지 정리, 하천 정비 등 농촌의 생활 환경이 개선되고, 소득이 높아지는 효과가 나타났다. 농업생산성도 향상되어 미곡생산량(米穀生産量)이 크게 증가하였다.

경인공업지역의 확대·발전

서울을 중심으로 한 경기도의 수도권 지역은 경제개발 초기부터 한국의 산업화를 이끌어가는 중심지였다. 1950년대를 전후해서는 소비재생산 중심의 경공업 지역이었으나, 1970년대 이후 정부의 정책과 맞물려 중화학공업이 본격화하였다. 경기도의 산업화는 경인공업지역(京仁工業地域)의 형성·확대과정과 직결되었다. 1960년대부터 빠르게 성장하기 시작한 경인공업지역은 1981년 통계에서 보듯이 전국 공장 수의 45.3%, 종업원 수의 44.9%, 부가가치에서 41.8%를 점한 한국최대의 공업지역으로 자리 잡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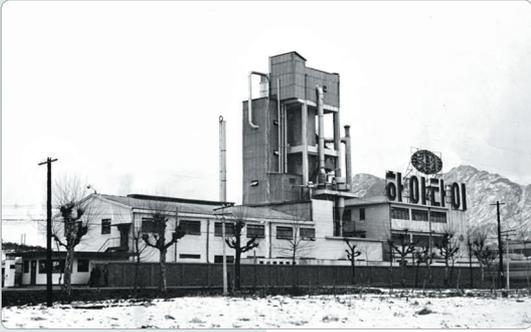
경인지역은 공업용수(用水)·동력공급과 관련된 기반시설(基盤施設) 및 도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社會間接資本)이 비교적 잘 조성되어 있다는 점과, 서울이라는 대규모 소비지역에 인접해 있는 이점 때문에 일제강점기 이래 공업발달이 두드러진 곳이었다.



| 새마을사업 | 이천읍 증포리(1972년)

경공업(輕工業), 중화학공업(重化學工業)

경공업은 제조공업을 제조되는 생산물의 중량에 따라 2가지로 나눌 경우, 주로 섬유·잡화(雜貨)·식품 공업 등을 말한다. 중화학공업은 제철업, 조선업, 기계 제조업 등 중공업에 화학 부문을 추가시킨 용어이다. 경공업의 경우는 설비자본이 적게 들고, 따라서 자본의 유기적 구성이 낮은 데 반하여, 중화학공업은 설비를 위해 거액의 자본이 필요하고 유기적 구성은 고도화되어 있다.



| 력기화학 안양공장 | 1970년대



| 경수산업도로 개통(1973년) |

1·2차 경제개발계획 기간인 1960년대 경기도는 섬유·의복·가죽제품 제조업 등 노동집약형 경공업을 기반으로 고속성장을 이어나갔고, 이와 같은 산업구조는 1960년대 수도권 지역에 인구를 집중시키는 가장 큰 요인이었다. 초기 공업화 과정에서 경제성장의 중추구실을 한 섬유공업은 수출산업으로 전환하면서 크게 성장하였다. 1980년대 들어 기술·원자재 등의 원가상승으로 국제경쟁력이 약화되었으나, 시흥·안양 등지에 종래의 영세적인 중소기업과는 다른 대규모 기업체들이 들어섰다. 식품공업의 경우 1차 가공은 항만 지역에서, 최종 가공은 서울주변에서 발달하였다. 피혁공업은 성남·의정부·화성, 제재·목재·가구공업은 성남, 제지·인쇄·출판업은 안양 및 시흥에 주로 분포하였다. 1970년대 이후에는 경공업 분야가 감소하고 금속·기계·장비공업 부문이 현저히 증가했고, 성남·부천·안양을 중심으로는 화학 부문의 비율이 높아졌다.

공업화의 진전과 맞물려 사회간접자본의 확충도 이루어졌다. 1965년 경인선의 복선화와 1968년 경인고속도로의 개통은 경기도 서부지역 성장의 토대가 되었다. 전철화(電鐵化)사업도 활발히 추진되어 1974년 8월 경인선과 경수선(서울-수원) 전철이 개통되었다. 이것은 1973년 11월 경수산업도로의 개통과 함께 서울-인천 이외에도 시흥·안양·수원 등에서 공업지대가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다.

항만시설의 확장 and 현대화도 가속화 되었다. 인천항은 포항항, 부산항에 이어 우리나라 3번째 하역(荷役)능력을 보유한 항만으로서, 1979년 인천항의 하역능력은 연간 872만 톤에 달했다.

경제개발기 경기도 사회의 변화

경기도의 급속한 산업화는 교통망의 구축과 함께 바로 도시화로 이어지며 수도권(首都圈)을 형성하였다. 교통의 발달은 인구의 도시집중을 가져왔다. 1970년대 이전 경기도에서 도시는 인천·수원·의정부 3개에 불과했으나, 경인고속도로가 개통된 뒤인 1973년 안양·부천·성남이, 1980년대 들어서는 동두천·송

탄·광명에 이어 1986년 구리·평택·과천·안산 등이 시로 승격하였다. 이로써 1980년대 중·후반에 이르면 경기도내 시·군의 반 이상이 도시형태를 갖춰, 전국 9개 도(道) 중 읍과 시의 숫자가 가장 많은 도가 되었다. 1974년 전철이 개통되면서 '수도권'이라는 용어가 일반화되었다. 또한 1970년대 이래 고속도로·국도와 같은 기간(基幹) 도로망이 확충됨으로써, 전철망과 함께 수도권의 산업화를 진척시키며 수도권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는데 중요한 구실을 하였다.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인구가 급증했다. 경기도는 1970년대 이후 인구증가율이 연평균 20%에 달해 서울·부산을 제외하고는 전국 최고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특히 서울과 인접한 안양·광명·부천·성남·고양·남양주 등지의 증가추세가 높았다.

한편 경기도의 산업화와 도시화는 지역개발의 편중(偏重)과 불균등발전(不均等發展)을 가져왔다. 경기도는 동부·북부지역이 소외된 채 서부·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산업화가 진행되었다. 경기도의 서남부와 동북부는 균형 있게 발전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양상은 1970~1980년대는 물론이고 1990년대에 들어서도 지속되었다. 경기도의 서남부 지역이 행정중심지 또는 공업지역으로 개발된 반면, 동북부 지역은 여전히 환경보존과 군사안보의 목적에서 '보호구역'으로 묶여 성장이 정체되었다.

또 산업지대의 형성과 발전은 이촌향도(離村向都) 현상을 가져왔고, 단기간의 개발과 성장위주의 정책은 각종 사회 문제를 불러왔다. 노동 문제, 공해 등 환경 문제, 인구와 교통·주택 문제, 도시빈민 문제 등이 대두되었다.



| 수도권 경수전철 개통(1974년) |

알아두기 광주(廣州)대단지사건

1968년 서울시는 시내의 무허가 판자집을 정리하면서 철거민들을 경기도 광주군(지금의 성남시)에 대단지를 만들어 집단 이주시켰다. 위성도시를 만들어 생활기반을 조성하고, 경제적 자립을 준다는 서울시의 약속을 믿고 이주한 철거민들은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음에 따라 생활고에 크게 시달렸다. 결국 1971년 8월 10일 광주 대단지 주민 수 만명은 분양지의 무상 불하와 각종 세금 면제 등을 요구하면서 서울시장 면담을 요구하였다. 서울시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관용차를 불태우고 광주단지 사무소와 파출소를 파괴한 후 버스와 트럭을 빼앗아 타고 서울시청으로 향하다가 출동한 경찰에 해산되었다. 이 사건은 위성도시화 과정에서 소외계층의 불만이 표출된 대표적 사례이다.





4. 지방화 · 세계화 시대의 경기도

서해안 시대의 개막

1990년대 국내외의 조류를 한마디로 말하면 지방화(地方化, Localization)와 세계화(世界化, Globalization) 시대의 도래라고 할 수 있다. 1980년대 후반부터 불기 시작한 세계화 열풍이 국가 사이의 장벽을 낮추며 각국 경제를 통합해 가자 전 세계 소비시장에서 국경개념이 무너지면서 다른 한쪽으로 지방의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었다.

1990년대 부활된 지방자치제도의 정착은 민주화의 진행과 함께 지방분권(地方分權)을 이루고, 지역의 특성에 어울리는 독자 개발을 세계화로 연계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성과는 국외의 탈냉전(脫冷戰) 추세와 맞물리면서 남북화해의 길을 열어놓았다. 1992년 8월에는 한중(韓中)수교가 체결되었고 1990년대 이후 남북관계도 굴곡은 있었지만 전향적(轉向的)인 방향으로 나아갔다. 이같은 추세는 우리나라가 서해안 시대를 개막하며 동북아 지역의 중심국가로 발돋움 할 수 있는 배경이 되었다. 이 중심에는 경기도가 자리잡고 있다.

‘서해안 시대’란 바로 개방된 중국의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서해안 일대를 거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뜻에서 생긴 말이다. 경기도는 인천국제공항을 필두로 인천항·평택항을 거느리고 경기 남부지역의 산업벨트와 임해(臨海)산업단지가 발전하고 있으며, 중국과 마주보고 있어 대(對)중국교역의 중심지로 발전하였다. 특히 이곳은 관련 제조업체가 많아 활발한 하청관계를 유지할 수 있으며, 원료 부품의 공동구입, 제품의 공동출하, 기술서비스, 유통기능의 공동이용 등과 같은 기존 생산체계에 의한 집적이익을 얻을 수 있는 지역이다.

2001년 완공된 서해안고속도로는 인천남동공단·안산산업기지·시화공단·아산공단, 대불산업단지 등 대규모의 공단과 인근 시도에 조성하는 수십 개의 소규모 공단과 연결되어 있어 서해안시대의 인프라를 구축하였다.

옛날부터 경기도의 곡창지대로 유명한 평택지역은, 아산만 개발계획에 따라 포승면 일대에 대규모 항만과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되면서 새로운 산업지역으로 부상하였다. 평택항은 수도권에 가정용 액화천연가스(LNG)를 도입하



| 시화조력발전소 조감도 |

기 위하여 1986년 12월 개항하였다. 2013년 현재 컨테이너 7선석, 자동차 4선석, 일반잡화 등 모두 61선석이 운영되고 있으며 오는 2015년에는 68선석으로 확충돼 물류중심항으로 발전될 전망이다. 2008년 1월에는 서해항만 최초로 미국행 항로를 개설하였다. 평택항은 거대시장인 중국의 다롄[大連, 451km], 칭다오[靑島, 538km], 톈진[天津, 736km]과 최단거리에 위치하여 대중국 교역의 핵심 거점으로 발전하고 있다.

또 인천부터 시흥-안산-화성-평택을 잇는 경기 서해안공업지대가 확대·성장하고 있다. 반월공업단지를 기반으로 한 안산시는 서해안공업벨트의 중심 도시로 떠올랐고, 인근 시흥 지역에는 기계공업이 중심이 된 시화공업단지가 조성되었다.

경기도가 서해에서 개최하는 경기국제보트쇼와 코리아매치컵 세계요트대회는 우리나라 해양레저산업의 잠재력을 세계 각국에 전파했고 미개척 분야를 고부가가치 신(新)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는 시금석(試金石)으로 작용하였다. 전곡항 및 제부항을 중심으로 해양레저 SOC 마arina(Marina)를 구축해 경기 서해안을 해양레저산업단지로 집중 육성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테마파크인 유니버설 스튜디오, 선감해양체험관광지구 등을 함께 조성해 중국은 물론 많은 해외 관광객을 끌어 들일 수 있는 최고의 관광 명소가 되도록 조성할 계획이다.

21세기 경기도의 발전전략과 미래

경기도는 지정학적(地政學的)으로 한반도의 심장부이자 동북아 교류협력의 요충지(要衝地)이다. 2010년 통계에 따르면 전국 벤처기업 29.4%, 외투기업 20.8%, 연구기관 30%, 바이오산업 30.6%, 자동차 23.3%가 경기도에



| 경기국제보트쇼 |

알아두기 통일시대의 전진기지 경기도

경기도는 민족통일의 전진기지이자 나아가 서해안 시대를 열어 동북아 지역의 중심지로 발전하고, 마침내는 시베리아를 건너 유럽까지 진출할 거점으로 나아가고 있다. 경기도가 동북아지역의 중심 거점이 되는 루트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서해안 환해경제권의 중심이 되는 전략이고 또 하나는 김포-고양-파주로 이어지는 북서부 지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으로, 남북교류 확대와 유라시아 실크로드 구축에 따른 배후 물류도시의 필요성을 고려한 것이다. 경기도는 대륙횡단철도와 연결될 경의선·경원선의 남북철도 분기점이자 대륙을 연계 수송할 수 있는 교두보가 될 것이다.



|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



|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

집중되어 있으며 국가주력 수출산업을 주도하고 있다.

경기도는 향후 세계적인 조류에 맞춰 태양광(太陽光) 등 신(新)재생에너지, 해양·항공레저산업 및 의료관광산업 등 신(新)성장 동력산업 육성에 집중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IT(정보기술)·BT(생명공학)·NT(나노기술) 등 다른 지역에 비해 비교 우위가 있는 신(新)산업분야의 첨단기술들을 육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경기도에서 운영 중인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나노소자특화센터, 바이오센터 등 첨단연구소들과 도내 관련 기업들의 협력도 추진 중이다. 또한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뛰어난 의료기술을 기반으로 서해안의 풍부한 자연환경과 결합된 의료관광산업 육성계획도 있으며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해양과 항공레저산업은 경기도의 미래를 이끌어줄 신성장 동력으로, 경기국제항공전을 개최하며 이 분야의 저변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해양복합산업단지와 항공복합단지 건설도 추진 중이다. 또한 수도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경기도 어디서나 서울도심 30분대 진입이 가능한 획기적인 교통수단의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를 추진하고 있다. GTX는 고양~수서(46.2km), 송도~청량리(48.7km), 의정부~금정(45.8km) 3개 노선으로 총 길이는 140.7km이다. GTX가 완공되면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으며,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 강화에 견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자치역량의 확대 강화도 경기도의 전략이자 당면 과제일 것이다. 1990년대 이래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는 본격화되었고,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에서는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는 아직까지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민선 5기 지방정부에서는 실질적 지방분권을 위하여 도시계획, 교육, 치안(治安) 등과 같이 지역주민 생활과의 관계가 밀접한 성격의 사무 및 권한들을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결정하고 집행해 나가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또 중앙정

부 차원에서는 지방분권의 전제적(前提的) 요소인 자치조직 및 지방재정 관련 권한을 지방정부로 대폭 이양함으로써 지방의 창의성과 다양성을 존중하고 내실 있는 지방자치의 실현을 유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경기도는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구체적 내용의 전략을 갖춰야 한다. 본격적인 지방분권화의 국제적 흐름에 따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책임주체가 과거 중앙정부 중심에서 해당 지역의 지방정부 중심으로 변화되고 있다. 지방정부에서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역주민들이 현재 처해 있는 사회적 환경적 상황과 이에 대한 수준의 정도를 파악해 다양하고 객관적인 지표(指標)를 만들고 주민만족도와 같은 주관적 지표와 결합하여 효율적이고 실현가능한 정책들을 개발해내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

그리고 지방정부 차원의 사회통합에도 앞장서야 한다. 서민, 비정규직, 노인, 여성, 장애인, 외국인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와 빈곤층을 사고하고 배려하는 다양한 정책과 장치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경기도에 많이 거주하는 외국인 노동자 등 이주민(移住民)을 위해 언어교육, 직업교육, 구직 알선, 그리고 여성 이주자들을 위한 젠더(Gender) 평등정책 실시 등 지역사회 차원에서의 풀뿌리 통합을 적극 지원하는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무한돌봄’과 같은 적극적 복지시책도 계속 추진해 나가야 한다.

경기도는 민족분단을 화해와 협력으로 이어나가 통일시대를 이끌며, 동북아시아의 경제 중심지로 도약하는 역사의 현장으로 인식되고 있다. 경기도는 접경지역이라는 지리적 특성상 한반도 평화체제가 구축되는 과정에서 중앙정부와의 역할분담이 필요하며 이 역할은 크게 ‘남북 화해와 교류의 전진기지’, ‘한민족 동질성 회복의 시험장’, ‘남북경제협력의 거점이자 중심 통로’, ‘궁극적으로는 한반도의 정치경제 중심지로의 재부상’ 등에서 찾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경기도는 한반도 평화체제가 구축되는 단계별로 다음과 같은 전략을 수립 및 추진해야 할 것이다. 한반도 평화체제의 제1단계 전략은 남북교류의 지속 추진 및 신뢰 구축과 남북경제협력의 기반 조성 등이다. 제2단계에서는 남북 경제협력의 확대와 남북간 사회문화 통합 그리고 경기북부지역의 변환 등이 뒤따라야 한다. 마지막 제3단계에서는 북한사회의 변화유도와 경기도의 위상 제고(提高)가 중점전략이 되어야 한다. 경기도는 이와 같은 단계별 전략

무한돌봄

위기가정을 ‘무기한·무제한’으로 돕는 경기도의 복지정책이다. 현물위주의 지원방식에서 벗어나 수혜자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고 자립할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 2008년 11월부터 시행되어 2013년 12월까지 8만 7천여 가구에 생계비·의료비·주거비 등 952억 원을 지원하였다.



| 광고신도시(CBD(Central Business District) 마스터플랜 |

의 수립과 추진을 통해 한반도 분단의 최대 피해자에서 한반도 통합의 주체 및 수혜자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경기도는 21세기 지식기반 산업의 절대조건인 세계 수준의 통신·IT인프라를 구축하였고, 동북아지역의 물류중심지로서 성장할 잠재력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 서쪽 413km의 해안선을 따라 새롭게 열리는 서해안 시대는 가시화되었고, 남북한의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가 통일로 이어진다면, 통일한국 동북아경제권의 중심지가 되어 시베리아를 넘어 유럽까지 진출하는 꿈이 현실로 다가올 날이 머지않았다.



제3부 경기도 문화

제1장 경기도의 산하에서는 도의 지형, 지질, 강·하천, 해안선 등을 간략하게 수록하여 자연환경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또 경기도가 내세울 수 있는 천혜의 자연 깃벌의 현황과 그 가치를 서술하고 한강을 중심으로 산업과 교통의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나무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제2장 문화유산에서는 경기도 곳곳에 산재해 있는 뛰어난 문화유산에 대해 서술하였다. 경기도 북부 지역에 다량 존재하는 고구려유적과 그 보호 필요성을 살펴보았으며 고려, 조선을 거쳐 축적된 우수한 불교·유교문화유산을 필수적인 것을 중심으로 수록하였다. 그밖에 경기도의 수도방비 성격을 보여주는 성곽과 역대 임금들의 혼을 모신 많은 왕릉에 대해 서술하였다.

제3장 민속에서는 경기도의 얼과 문화를 면면히 계승한 도민들의 생활상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의식주 생활을 비롯하여 민속신앙, 그리고 각종 세시풍속과 놀이문화 등을 항목별로 서술하였다.

제4장은 왕실 도자기의 본산이었던 경기도의 도자문화를 알아보았다. 고려청자의 발생에서부터 그 순수미를 뽐내는 조선백자에 이르기까지 경기도 도자기만의 특징과 아름다움을 성찰하였다.

제5장에서는 경기도의 수많은 인물 중 가장 유명할 뿐 아니라 공직자의 표상이 될 만한 위인을 엄선하여 수록하였다. 윤관, 최영, 황희, 이항복, 이덕형, 이이, 허목, 이익, 정약용, 이항로, 최익현, 여운형, 안재홍, 신익희는 애국심과 청렴함, 학식과 덕망을 두루 갖춘 대표적 경기도 인물이다. 본 장에서는 이들의 생애와 후세에 남긴 발자취를 자세히 수록하였다.

|제1장|

경기도의 산하(山河)



1. 자연환경

지질(地質)

경기도는 한반도의 지체구조상(地體構造上) 경기지괴(京畿地塊)에 자리하고 있어서 선(先)캄브리아기(Precambrian time)의 변성암류가 넓게 분포한다. 중생대에 관입한 화강암(花崗巖)은 강원도의 금강산 지역에서 김화·포천을 거쳐 서울의 북한산에 이르는 북부 화강암대와 강원도의 간성에서 원주를 거쳐 여주·이천·천안에 이르는 남부 화강암대를 따라 대상(帶狀)으로 분포한다.

화강암은 일반적으로 침식을 많이 받아 여주·이천에서처럼 저지대를 이루지만 북한산과 같이 높은 산봉우리로 나타나기도 한다. 경기도 북동쪽을 흐르는 한탄강 하곡을 따라 강원도의 김화·철원 방면에서 흘러내린 현무암이 분포한다. 이 현무암은 신생대 제4기에 서울-원산 간의 추가령구조곡에서 분출한 것이다.

지형(地形)

우리나라의 비대칭적인 경동지형(傾動地形)에 의해 동쪽이 높고 서쪽이 낮다. 도의 남동쪽 주변에서는 마식령·광주·차령의 3개 산맥이 북동에서 남서 방향으로 지나고 있다. 마식령산맥은 황해도와 경기도의 경계를 이룬다.

광주산맥은 북동에서 남동쪽으로 비슷하게 도의 중앙부를 가로지르고 있다. 산맥은 경기편마암복합체(경기변성복합체)의 암석으로 두 화강암대의 사이를 지나며 높은 산을 이루는데 춘천의 광덕산(1,046m)·벽운산(904m), 가평의 국망봉(1,168m)·운악산(935m), 남양주의 천마산(812m)의 산들이다. 광주산맥은 한강을 광주지방으로 뺏어 남한산(606m)에서 용인지방으로 이르면서 낮아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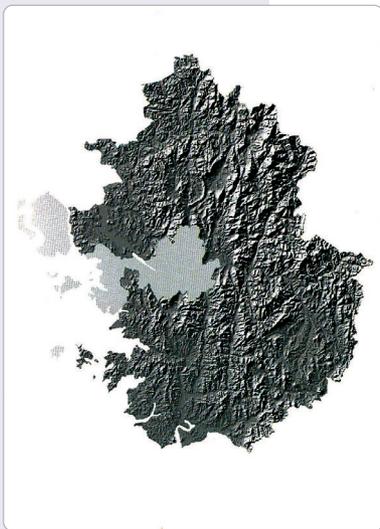
차령산맥은 충청북도의 경계를 이루며 여주 남쪽의 오갑산(609m), 안

선캄브리아기

약 46억 년 전 지각이 형성된 때 시작되어 약 5억 7,000만 년 전 캄브리아기가 시작될 때까지 계속된 지구 역사상 가장 장구한 지질시대

잔구

기복이 낮은 준평원에서 고립된 언덕을 말한다. 우리나라와 같이 오랜 침식을 받은 나라에서는 계룡산·무등산·지리산·남한산·관악산 등이 모두 잔구이다.



| 경기도의 지형 |

성의 칠현산(516m)·서운산(543m) 등이 500개 안팎으로 높은 산을 이루고 있다. 그 외에 인천의 계양산(395m), 김포의 문수산(376m), 안양의 수리산(475m) 등의 잔구(殘丘)가 서해안의 낮은 구릉지와 평야지역의 곳곳에 고립적으로 솟아 있다.

평야는 한강·임진강·안성천 등의 주요 하천과 그 지류를 따라 발달해 있다. 임진강 하류의 문산평야, 한강 하류의 김포평야와 고양평야, 안성천의 평택평야는 우리나라 대표적 평야의 하나이다. 이들 평야는 주로 한천 유역의 범람원과 충적지로 이뤄졌으며, 관개시설(灌溉施設)이 잘된 수리안전담(水利安全壩)으로 이용되고 있다. 충적지 주변의 구릉지는 밭·과수원·목장으로 이용되며, 나머지는 임야이다.

강(江)·하천(河川)

도 대부분이 한강 유역에 속하며, 임진강과 안성천 유역에 속한 부분은 좁다. 한강은 양평군의 양수리에서 북한강과 남한강이 합류해 경기도의 중앙부를 횡류해 서북 끝에서 임진강과 합쳐져 황해의 경기만으로 흘러든다.

북한강은 가평천과 홍천강이 합류해 청평호에 이르고 이어 금당천·북하천을 합류해 흐르는 남한강과 경안천을 합류해 팔당에서 팔당호를 이뤄 수도권의 상수원이 되고 있다. 팔당 하류에서는 왕숙천·탄천·중랑천·안양천·모래내·굴포



! 두물머리 | 남한강과 북한강이 합치는 곳으로 양수리의 우리말이다.

알아두기 경기도 도립공원(道立公園)

경기도에는 현재 남한산성(南漢山城) 도립공원과 가평 연인산(戀人山) 도립공원, 안양·군포·안산시에 걸쳐 있는 수리산(修理山) 도립공원이 있다. 남한산성은 광주시 중부면에 위치한 해발 약 460m의 고원지대에 자연적으로 형성된 요새지로서 외부로부터의 침략을 막기 위하여 축성된 높이 7.5m, 성 주위 9.5km의 국내 최고 석성(면적 36.4km²)이자 천혜의 자연공원이다.

1971년 3월 도립공원으로 지정되었다. 연간 150만 명의 관광객이 찾아오는 남한산성은 수도권 주민의 자연휴식처로서 크게 애용되고 있으며, 역사체험의 장이자 관광명소이기도 하다. 연인산(해발1,068m)은 2005년 12월 도립공원으로 지정되었으며, 가평읍 승안리와 경반리, 북면 백둔리, 하면 마일리 일원 37.5km²에 이르는 연인산 도립공원조성사업은 2007년부터 오는 2014년까지 추진한다. 2009년까지 1단계 공사로 방문자센터, 숙박·상업시설, 들꽃테마공원, 자연체험시설, 생태탐방로, 주차장 등의 편의시설이 설치되며 2010년부터는 2단계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생태조사와 보존사업을 하고 있다.

수리산은 군포시 속달동(4.3km²), 안양시 안양동(2.55km²), 안산시 수암동(0.12km²)에 걸쳐 있고 연간 140만 명이 이용하는 도심 속 녹색섬이다. 도립공원의 조성목적을 '자연을 지키고 숲을 배우는 공원'으로 정하고 공원구역을 적극보존공간, 산림휴양공간, 체험학습지원공간 등으로 나누어 '숨 쉬는 숲, 자연을 느끼는 숲, 건강이 넘치는 숲, 만남이 있는 숲, 배움이 가득한 숲' 등 5개 테마로 조형해 이용자들의 휴식과 학습공간으로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2009년 7월 도립공원으로 지정하였다.



| 한강 | 뒤에 보이는 곳이 남양주 덕소이다.

천·곡릉천 등으로 유입되는데, 수도권의 도시화에 따른 공장폐수·축산폐수·생활하수로 이들 지류의 수질이 오염되어 각별한 오염방지 수질관리가 요구된다. 또한 골재 채취와 각종 토목공사로 이들 지류가 인위적으로 조절되어 자연상태의 모습을 잃고 인공적인 모습으로 바뀌었다.

한강은 유량이 풍부해 조선시대에는 서해안으로 흘러드는 하천 유역 평야지역의 농산물과 수산물을 수도 서울로 운송하는 수상교통로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현재는 수도권 광역 상수도권의 용수원으로서 서울·의정부·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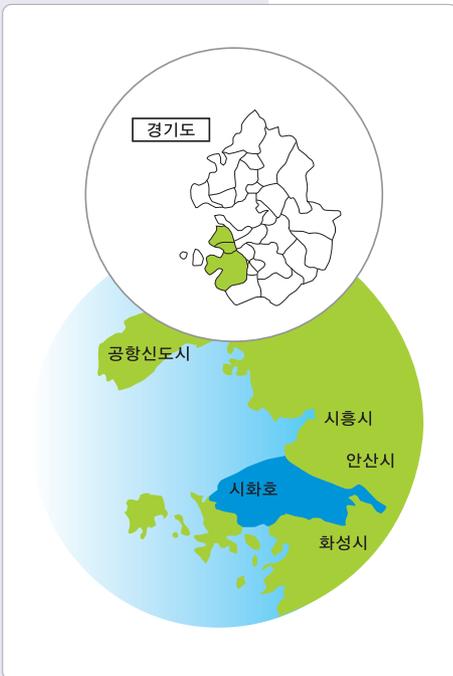
양·부천·안양·과천 등 한강 유역과 인천·시흥·안산 등의 서해안지역은 물론 수원·평택 등 안성천 유역까지 물이 공급되고 있다.

임진강은 전곡 부근에서 한탄강·영평천과 합류하고, 하류에서 문산천을 합해 한강과 만나서 경기만으로 흘러든다. 안성천은 유역 면적이 좁으나 황구지천·진위천·안성천의 지류가 합류해 아산호를 이루면서 아산만으로 흘러든다.

호수(湖水)

경기도에는 대규모의 인공호수(人工湖水)인 시화호와 화성호가 있다. 시화호는 시흥시, 안산시, 화성시에 둘러싸인 호수로 1970년부터 계획된 반월특수지역개발계획에 따라 조성되었다. 대단위 간척종합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1987년 4월에 시작한 시흥시 정왕동 오이도와 안산시 대부동 방아머리를 잇는 시화방조제 공사가 1997년 1월에 완공되면서 생성되었다.

시화방조제의 길이는 12.7km이고, 면적 423.5km²의 시화호가 형성되고 주위에 1,336.8km²의 간척지(북측 365.9km², 남측 970.9km²)가 형성되었다. 시화호의 총저수량은 332백만톤, 관리수위는 -1.0m, 최대수심은 18m에 달하며, 해수유입량은 380백만톤/년(해수유통 30백만톤/일중 100만톤 순수유입, 체류일수 300일)이다. 시화호는 본래 간척지에 조성될 농지나 산업단지의 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담수호(淡水湖)로 계획되었다. 하지만 방조제 완공 이후 시화호 유역의 공장오폐수 및 생활하수의 유입으로 수



| 시화호의 위치 |

질이 급격히 악화되어 1997년 이후 해수를 유입하기 시작했고 2000년 12월에 정부는 시화호의 담수화(淡水化)를 포기하고 해수화(海水化)를 확정하였다.

화성호는 화성시 우정읍 매향리와 서신면 궁평리 구간을 9.8km 길이의 제방으로 막고 내부에 간척농지와 담수호를 조성하기 위한 대규모 간척사업으로 조성된 호수이다. 1991년부터 방조제 공사를 착공하여 2002년 3월 방조제 끝막이 공사를 완료하였다. 2016년 완공 예정이다.

매립면적은 6,212ha(간척지 4,482ha, 담수호 1,730ha)이며 해안선은 32km가 단축된다. 방조제는 2개소(9.8km), 배수갑문 1개소, 양수장 1개소, 용수로(54.0km) 등의 시설이 들어선다. 2005년 7월 웅진지구의 개발을 포기하게 되면서 화옹호에서 화성호로 이름이 바뀌었다.

섬 · 해안선(海岸線)

경기만(京畿灣)은 해안선의 굴곡이 심하고 만 · 반도 · 섬 등이 많다. 경기도의 주요 섬은 안산의 풍도와 육도, 화성의 제부도 · 국화도 · 입파도 등이며, 유인도는 5개, 무인도는 52개이다. 경기만은 조차(潮差)가 매우 커서 아산만과 인천의 대조차가 각각 8.5m, 8.1m에까지 이른다. 조차가 이처럼 큰 데다가 해안선의 출입이 심하고 섬이 많으며 한강 · 임진강 · 안성천 등의 큰 하천들이 대량의 토사를 유출하여 경기만에는 간척지(干潟地 : 갯벌)가 넓게 발달되어 있다. 과거의 간척사업은 농경지와 염전(鹽田)개발을 위하여 추진되었으나, 근래에는 특히 임해공업단지의 조성을 위하여 대대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2. 갯벌

우리나라에서 가장 넓은 갯벌



| 갯벌의 일몰 |

우리나라 갯벌의 넓이는 남한의 경우 2,800km²로 남한 전체 면적의 3%에 해당한다. 남한의 경지면적이 2010년 기준 175만9,000ha, 이와 비교하면 갯벌의 규모가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다. 갯벌의 분포도를 보면 전체 면적의 83%(2,300여 km²)가 서해안에 분포하고 나머지 17%(480km²)가 남해안에 분포한다. 남해안이 섬도 많고 해안선이 더욱 복잡함에도 불구하고 갯벌의 면적이 적은 것은 조차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

경기도 해안에는 약 1천km²에 가까운 갯벌이 발달되어 있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갯벌의 37%에 해당한다. 이곳에는 강화갯벌, 인천갯벌, 시화갯벌, 남양갯벌이 대표적이다. 특히 강화도·석모도·불음도·영종도·용유도·무의도 등의 섬 주변에 대규모 갯벌이 발달돼 있으며, 장봉도·영흥도·자월도·덕적도·대부도에도 독립적인 갯벌이 산재해 있다.

약 3백km²에 달하는 강화갯벌은 한강·임진강·한탄강·예성강 하구에 이들 강으로부터 유입된 토사가 쌓이는 곳이다. 평균조차가 약 8m로 매우 크고 섬이 많아 갯벌이 넓게 발달한 곳이다. 이곳은 지금까지 개발의 손이 미치지 않은 몇몇 갯벌의 하나였으나 최근 영종도 신공항 건설로 인해 매립되어 버렸다.

인천갯벌은 김포갯벌·송도갯벌·남동갯벌로 나누어지는데, 김포갯벌은 쓰레기 매립지로 사용되고 있으며, 송도갯벌은 전형적인 모래갯벌로 우리나라에서 동죽조개가 가장 많이 나는 곳이다. 남동갯벌은 염전을 끼고 있던 곳이었으나 이미 매립되어 공단이 들어서 있고, 신도시 매립공사로 인해 16km²의 갯벌이 사라졌다. 총 2백km²에 달하는 시화갯벌은 시화공단 조성과 시화호 건설로 인해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오염돼 있다.

남양갯벌은 움푹 팬 내만이기에 빨리 이루어진 갯벌이다. 하지만 남양만 방조제로 인해 60km²가 사라지고 작은 규모로 남아있지만 빨갯벌이기에 가리맛조개가 많이 나는 곳이다. 우리나라 가리맛조개의 90%가 이곳에서 채취되고 있다. 대부도와 제부도 부근에는 간척사업이 진행 중이며, 이로 인해 약 40km²의 갯벌이 사라지고 있다.

갯벌 간척의 허와 실

갯벌은 아주 특수한 환경조건에서 만들어진다. 즉 우리나라와 같이 간만의 차이가 커서 간조시 물이 빠지는 정도가 커야 하며 지형이 완만해야 한다. 서해는 평균수심 50m의 얕은 바다로 지형이 완만하고 또 산둥반도, 발해만 북쪽이 막혀 있어 조차가 매우 크다. 인천지역의 간만의 차이는 최대 약 9m, 목포지역은 4~5m이다. 이러한 환경에서 만들어진 서해안 갯벌은 그 규모가 북해연안의 네덜란드, 독일 갯벌에 버금간다. 이 외에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갯벌로는 미국 북서부 해안, 동부 캘리포니아만 등이 있다.

남한의 갯벌 면적 약 2,800km² 중에서 국토개발연구원(『해안편람』, 1990)의 자료에 따르면 갯벌을 포함하는 수심 5m까지의 면적은 9,689km², 5~10m 수심역은 3,790km², 수심 20m 이하의 해역면적은 21,362km²이다. 농어촌진흥공사(『한국의 간척』, 1996) 통계를 보면 남한의 간척 가능 면적은 약 4,000km²이다. 이 중에서 15%에 해당하는 620km²이 1994년까지 이미 간척이 완료되었으며, 1996년 이후 현재진행중인 면적은 전체의 약 20%인 760km²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12세기 이후 연해안의 저습지(低濕地)와 간척지가 개간되어 경작지가 확대되었다. 특히 고려의 강화 천도 이후 강화지방을 중심으로 간척사업이 활발히 추진되었다. 또한, 일제강점기에도 많은 갯벌이 쌀 증산을 위해 매립되었다. 1917~38년에 걸쳐 매립된 면적이 405km²에 달하며 염생식물(鹽生植物)이 서식하는 부분이었다. 1960~70년대 이후의 매립면적(60년대 170km², 70년대 190km²)을 합쳐도 일제 때 매립된 면적에 미치지 못한다. 1980년대의 총 매립면적은 약 100km²이므로 1960~70년대의 절반에 지나지 않으나 1990년대에 들어서서는 다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현재 간척사업이 진행 중인 면적만도 600여만 km²에 달한다. 수도권 쓰레기 매립장 건설, 시화지구 농공단지 조성, 영종도 신공항 건설, 새만금 간척 등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훨씬 규모가 큰 간척공사들이 진행되었거나 되고 있다.

이처럼 서해안에 널려있는 천혜의 자산인 갯벌이 위기를 맞고 있다. 간척과 오염이 그 주요한 원인이다. 지금까지 간척은 '농토확장'과 '산업시설을 위한 토지창출'이라는 두 가지 수요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경기만의 갯벌 | 안산시 대부도

우선 농토확장을 위한 간척사업을 평가해 보자. 갯벌을 간척 후 농지로 전환하는 것은 사실 수산업을 농업으로 전환하는 사업에 다름 아니다. 따라서 수산업을 반드시 농업으로 바꾸어야 하는가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더구나 환경부 보고서에 의하면 간척 후의 에이커당 미곡 생산가치는 247만 원이었으며, 갯벌을 그대로 두고 수산물을 생산할 경우는 에이커당 365만 원의 가치가 발생했다. 농업과 수산업을 순전히 경제적 가치로 직접 비교해도 수산업이 우위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로는 산업시설을 위한 토지창출에 있어서도 몇 가지 대안적 사고가 필요하다. 우선 토지는 왜 하필이면 ‘갯벌’에서 얻어야 하는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갯벌은 ‘쓸모없는 땅’이라는 잠재의식이 작용하지 않았다면 아마 갯벌을 선택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갯벌이 가진 수산업적인 가치(경제적 가치)에 환경적, 심미적(審美的) 가치를 더한다면 갯벌은 어느 것보다도 귀하게 보전해야 할 소중한 자산이다.

독일은 갯벌을 모두 국립공원으로 지정한 국가이다. 독일의 연근 해안 복해가 오염의 징후가 보인다는 보고서들이 발간되면서 이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갯벌을 보전하는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이에 북해연안 3국, 즉 네덜란드·독일·덴마크가 공동 선언문을 채택하여 각 국가가 이에 대처하였다. 이런 맥락에서 독일은 1988년에 갯벌을 국립공원화하기 시작했고, 그 면적은 우리나라 남북한이 가진 갯벌 규모이다.

지금도 2년마다 이들 3국회의가 열리고 있으며 백년의 역사를 가진 갯벌연구소를 가지고 있다. 갯벌국립공원관리청은 갯벌의 건강상태를 파악할 뿐 아니라 관광객에 대한 안내도 담당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갯벌이 세계적으로 희귀하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우리가 갯벌을 가졌다는 것은 희귀한 자연자산(自然資產)을 가졌다는 뜻이다. 독일이 갯벌 국립공원화에 성공한 것 역시 갯벌의 이 같은 심미적 가치를 높이 평가한 결과이다.

우리나라의 간척공사를 외국과 비교하면 규모가 매우 크다. 대표적인 지역으로 영종도 국제공항, 수도권 매립지, 남동공단, 시화지구, 아산만 지역, 천수만 A·B 지구, 군장지역, 새만금, 영산강 지구 등을 꼽을 수 있다.

간척 후 토지의 소유가 분명한 것도 또 다른 특징이다. 천수만 A·B지구처럼 개인이 소유하는 곳도 있다. 인천 연안의 동아매립지 역시 동아건설이라는 기업 소

유이다. 간척 전에는 우리 모두의 공유지였으나 이제는 모두 사유지로 변해버린 것이다. 농업진흥공사, 토지개발공사 또는 수자원공사와 같은 공사에서 사업을 수행하더라도 이들 공사에서 소유권을 가지고 간척지를 분양한다.

갯벌을 간척하는 이유가 간척 후의 토지매매를 통한 이익, 즉 간척 차익을 취하는 당사자가 있다는 사실도 문제다. 그러나 이러한 차익은 환경을 팔아 얻은 것이므로 언젠가는 환경에 돌려주어야 할 차익이다. 한번 변형된 자연은 영원히 복구할 수 없다는 사실에 주목하면서, 간척사업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3. 나루

개념과 역할

강가나 냇가 또는 좁은 바닷목의 배가 건너다니는 곳으로 한자로 표현할 때는 도(渡)·진(津)이라고 하고 좀 큰 것을 포(浦), 대규모의 바다 나루는 항(港)이라고 한다. 그 중에서 중요한 강이나 바닷목에 군사시설을 설치하고 군대가 주둔하면서 지키는 것을 진(鎭)이라고 나타내기도 하였다. 특히 큰 강 하구나 바다 항구에는 포를 많이 썼다. 제물포(濟物浦)가 좋은 예이다.

진이 들어간 지명으로는 노랑진(鷺梁津)·삼랑진(三浪津) 등을 들 수 있는데 한문으로 굳이 진·포·도라고 하지 않고 강인 경우에는 ‘나루’라고 통용하였는데 임진강의 임진나루, 한강의 팔당나루·양화나루 등이 그러한 예이다.

원래 나루는 수운(水運), 곧 물을 이용하는 교통의 요지이므로 시대에 따라서 물을 이용하는 교통수단의 변화나 연결되는 육로의 개설, 교량의 건설 등의 요인에 의해 그 중요성이 변화하고 혹은 영영 사라지는 경우도 있다.

나루에는 나룻배가 있어서 강을 낀 마을 사람들이 이 나룻배로 강 건너로 장 보러 가기, 관청일 보기, 학교 다니기, 농사짓기, 물건 싣기 등을 한다. 사공이 없을 때는 양쪽 강안에 튼튼한 쇠뿔줄을 걸어서 그 줄을 잡아당기며 나룻배를 움직이기도 한다.



나룻배 | 사람이나 짐 따위를 실어 날랐다.

경기도의 주요 나루

경기도의 주요 나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조강포** : 김포시 월곶면 조강리에 위치. 고려·조선시대 충청도와 전라도의 세곡·화물선이 개성과 한양으로 가기 위한 나루터로 상업, 어업, 농업 등의 왕성한 경제활동을 했던 곳이었으나 현재는 철조망이 설치되어 있음
- **강령포** : 김포시 월곶면 용강리에 위치. 주로 화물선이 왕래하였던 포구로 조강포, 영정포, 마포, 문산포와 함께 한강 5포로 불렸으나, 현재 철책이 설치되어 있고 인근에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음
- **반석나루** : 파주시 교하읍에 위치. 임진강·한강으로 운항하는 배는 이곳에 기항하여 고깃배가 밀려 들었고 양곡의 집산지로 제2의 인천이라 불릴 만큼 번성하였으나 현재는 군사제한구역으로 통행이 불가능함
- **쇠곶나루** : 파주시 금촌2동에 위치. 상선이 지나가는 주요 길목에 있어 시장이 형성되었고, 많은 돈이 모여 쇠곶이라 칭하게 될 정도로 번성하였으나 현재는 잡초만 무성함
- **문산포** : 파주시 문산읍에 위치. 황해도와 연천 고랑포 지역으로 가는 수화물 집산지로 대규모 상권이 형성되어 지방특산물을 수송하는 황포돛배가 끊이지 않았으나 현재는 포구로의 기능을 상실함
- **임진나루** : 파주시 문산읍에 위치. 고려, 조선시대 개성과 한양을 오가는 주요 길목으로 임진진을 두어 관리하였으며, 외국 상인들과의 무역도 활발히 이루어진 곳으로 현재도 고깃배가 드나드는 곳임
- **고랑포** : 연천군 장남면에 위치. 임진강에서 가장 번창했던 포구로 수산물, 곡물 교역이 활발하였으며 고랑포 상권을 형성. 경기북부 농특산물 집하장 역할을 하였음
- **우천나루** : 광주시 남종면에 위치. 우천리 세대의 30%가 배를 소유하였으며 화물을 운송하던 직업에 종사하였고 강원도 정선에서 서울 광나루·마포·독섬으로 가는 배가 정박하여 규모가 큰 재래시장이 형성되었던 곳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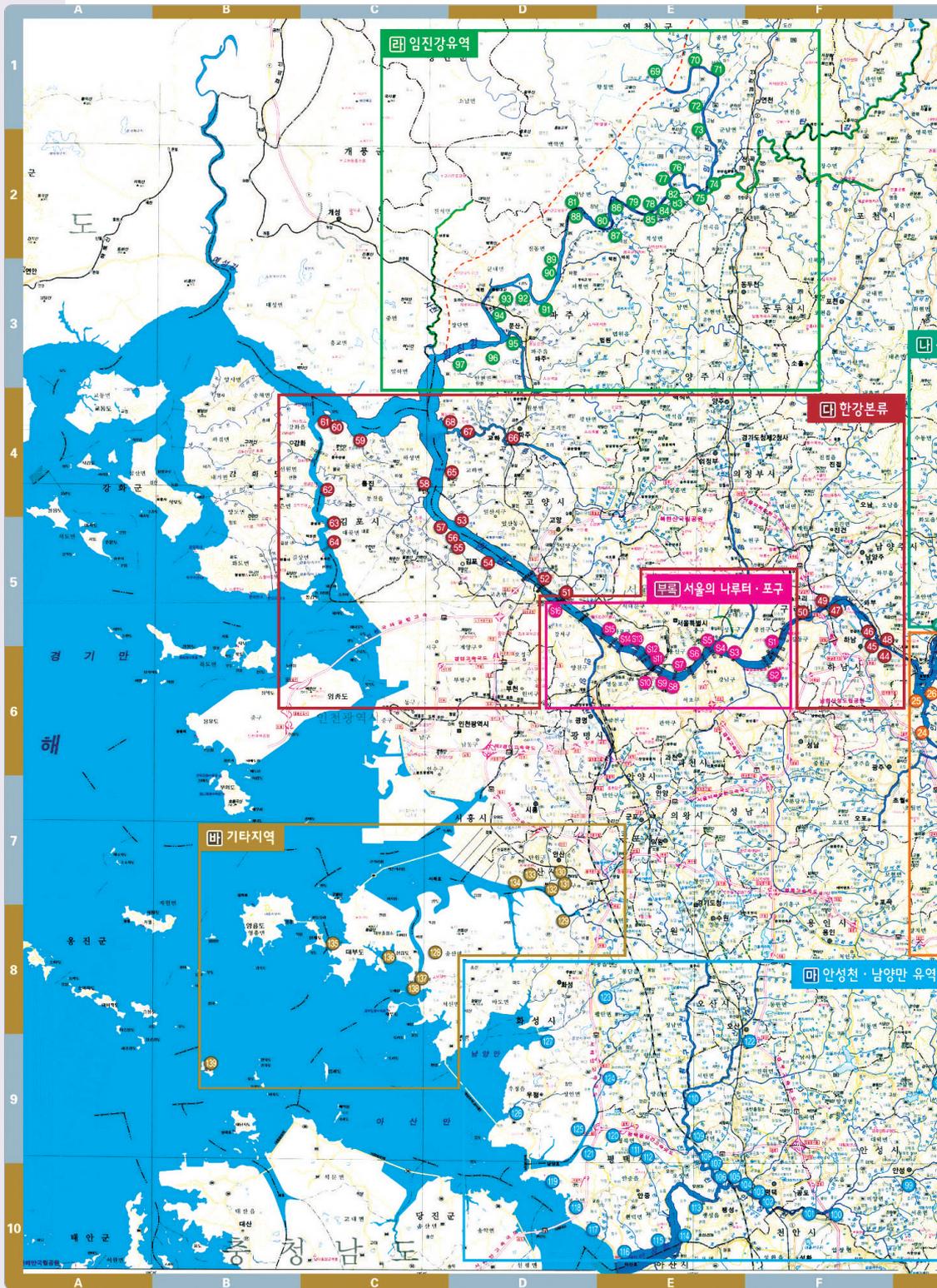
- **이포나루** : 여주군 금사면에 위치. 예로부터 개성, 한양을 연결하는 수상 요충지로 조선초 천령현이 설치될 만큼 큰 규모의 교역이 활발히 이루어진 곳으로 일본상인도 내왕하였음
- **조포나루** : 여주군 여주읍에 위치. 고려 때부터 남한강 5대 나루로 한양을 잇는 물류 중심지이자 세곡 운반의 관문이었음. 조선시대 4대 나루로 불릴 만큼 번성한 곳임. 현재 여주대교 개통으로 이용하지 않게 됨
- **두물머리나루** : 양평군 양서면에 위치. 남한강 상류인 강원도 정선, 충북 단양 등지에서 한양으로 가는 곡물과 땔감을 실은 범선이 정박하여 주막거리가 형성되는 등 상당히 번창한 곳이었음
- **화랑포** : 가평군 청평면에 위치. 북한강과 구운천이 합류하는 삼각지대로 “봄날 진달래꽃 물결같다”고 하여 화랑포라 유래되었으며, 뗏목·목선을 이용하여 화물을 수송하였고 크게 번성한 곳이었음
- **팔당나루** : 남양주시 와부읍에 위치. 팔당리 주변 강 양쪽 산세가 험준하고 수려하여 팔선녀가 내려와 놀던 자리가 여덟 곳이 있어 팔당이라 불리게 되었다고 함. 30여 년 전까지만 해도 광주(현 하남시)로 사람을 수송하였음

알아두기 임진나루와 관련한 전설 : 지혜로운 뱃사공

임진나루는 옛날 한양에서 송도를 거쳐 의주로 가는 국도로서 교통이 빈번한 곳이었다. 여기에서 뱃사공을 하는 사람들은 여러 사람을 상대하다보니 옷차림과 거동만 보아도 어떤 사람인지 잘 알아 맞히기로 유명하였다. 하루는 다른 곳에서 뱃사공을 하는 사람이 이곳 사람들이 얼마나 사람들을 잘 알아보는지 시험해 보려고 신분을 속이고 양반 의관을 갖추고 임진나루 뱃사공을 찾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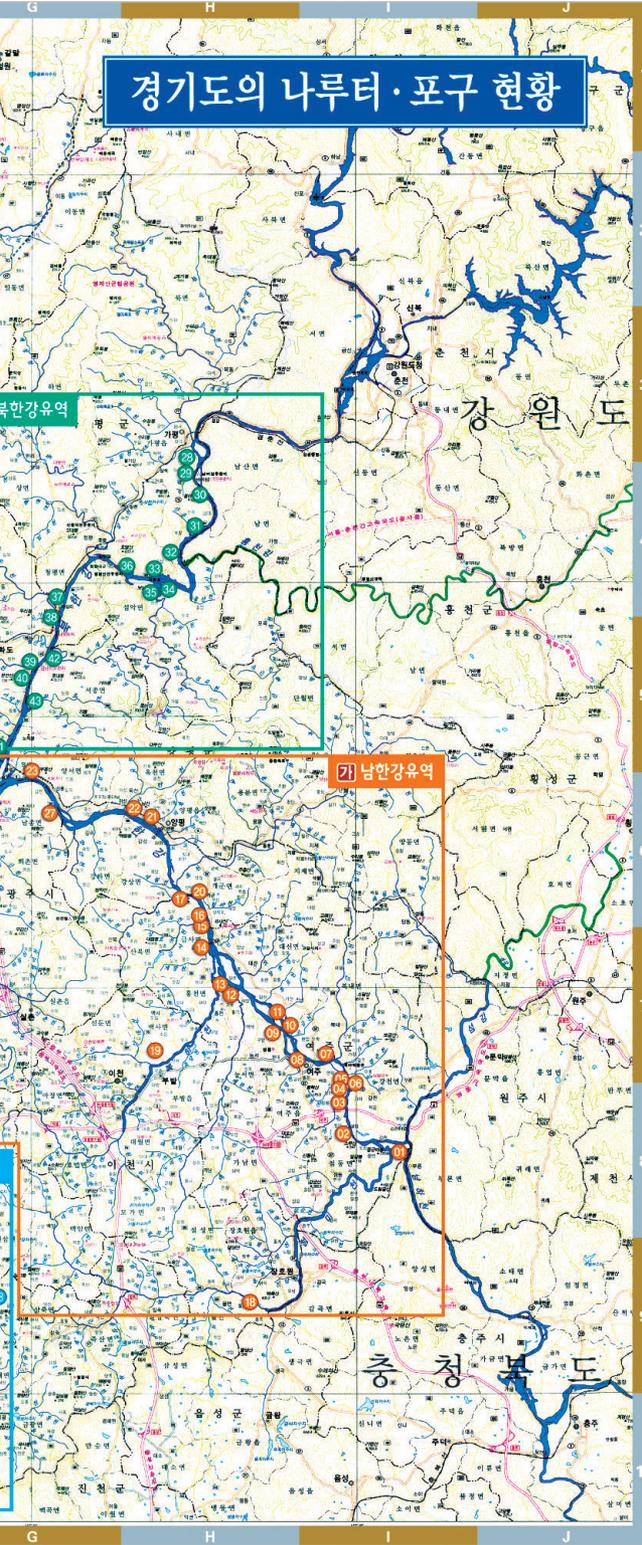
“여보게! 나를 좀 배로 건네주게”라고 애걸 하자, 그 뱃사공은 부지런히 배를 대면서 “아무 것도 아닌 것이 누구보고 반말이냐”며 화를 내었다. 그러자 변장한 양반이, “이 놈아! 감히 누구 안전에서 행패냐?”라고 호령하자, “너는 양반인 체 하여도 나와 같은 뱃놈에 불과하다”라고 답하였다.

변장한 양반이 깜짝 놀라며, “그래! 어찌 그리 잘 아느냐?” 하고 반문하자, 임진강 뱃사공이 하는 말이, “너는 수염이 한쪽으로 구부러졌고 고개는 돌아가 있다. 노를 젓느라 고개가 돌아간 것이며 강바람에 수염이 구부러진 것이니 너는 나와 같은 뱃사공이 아니냐?” 하였다. 변장한 양반은 그만 “참으로 귀신같이 맞춘다”면서 깔깔대며 서로 웃었다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다.



| 나루·포구 분포도 |

경기도의 나루터·포구 현황



남한강 구역 (가)

- | | | |
|----------|----------|-----------|
| 01 창남나루 | 10 천남나루 | 19 배죽개포 |
| 02 혼암나루 | 11 재가나루 | 20 구 미 포 |
| 03 우안리나루 | 12 양화나루 | 21 덕구실나루 |
| 04 부리우나루 | 13 천우물나루 | 22 양근나루 |
| 05 새나루 | 14 이포나루 | 23 두들머리나루 |
| 06 이호나루 | 15 금사나루 | 24 신흥리나루 |
| 07 조포나루 | 16 하지포나루 | 25 무수리나루 |
| 08 여주나루 | 17 양덕나루 | 26 우천나루 |
| 09 왕터나루 | 18 퇴포 | 27 수청리나루 |

북한강 구역 (나)

- | | | |
|-----------|----------|----------|
| 28 달전리나루 | 34 자잠나루 | 40 내미연나루 |
| 29 염창나루 | 35 용문천나루 | 41 용진 |
| 30 비령대나루 | 36 범우리나루 | 42 무드리나루 |
| 31 산우리나루 | 37 화랑포 | 43 문호리나루 |
| 32 북장리나루 | 38 사기막나루 | |
| 33 배나들이나루 | 39 금남리나루 | |

한강분류 (다)

- | | | |
|----------|----------|----------|
| 44 도미나루 | 53 이산포 | 62 원머루나루 |
| 45 청모루나루 | 54 싹골나루 | 63 대명나루 |
| 46 당정진 | 55 감암나루 | 64 신덕포 |
| 47 진촌진 | 56 운양나루 | 65 신흥나루 |
| 48 팔담나루 | 57 전류정나루 | 66 쇠재나루 |
| 49 이음나루 | 58 마근포 | 67 능거리나루 |
| 50 토막나루 | 59 조강포 | 68 반석나루 |
| 51 해포 | 60 강령포 | |
| 52 행주나루 | 61 갑곶나루 | |

임진강 구역 (라)

- | | | |
|----------|----------|----------|
| 69 장경대나루 | 79 거여울나루 | 88 용산나루 |
| 70 장군나루 | 80 재영나루 | 89 정개나루 |
| 71 고미포나루 | 81 고랑포 | 90 임진나루 |
| 72 지미도나루 | 82 석은소나루 | 91 덕진나루 |
| 73 스루소나루 | 83 토막포 | 92 저포나루 |
| 74 도감포 | 84 밤개나루 | 93 문산포 |
| 75 마포나루 | 85 독나발나루 | 94 식목나루 |
| 76 당개나루 | 86 강산정나루 | 95 낙하나루 |
| 77 이미나루 | 87 두지나루 | 96 칠오물나루 |
| 78 신지개나루 | 88 자지포 | |

안성천·남양만 구역 (마)

- | | | |
|-----------|-------------|----------|
| 98 이보나루 | 108 다라고비진나루 | 118 대진나루 |
| 99 안성읍내나루 | 109 동척포 | 119 한나루 |
| 100 하개정나루 | 110 향곶포 | 120 용포 |
| 101 공말나루 | 111 신포 | 121 호구포 |
| 102 군문포 | 112 토진포 | 122 황새포 |
| 103 신덕포 | 113 곤지진 | 123 금천포 |
| 104 고잔포 | 114 경양포 | 124 해창포 |
| 105 삼교포 | 115 신흥포 | 125 장안포 |
| 106 이포진 | 116 계두진 | 126 고은포 |
| 107 해창포 | 117 신진포 | 127 신창 |

기타 구역 (바)

- | | | |
|----------|-----------|-----------|
| 128 마산포 | 138 사리포 | 148 말부흥나루 |
| 129 빈정포 | 139 둔배미나루 | 149 진두나루 |
| 130 성머리포 | 140 초지나루 | 150 탄도항 |
| 131 조구나루 | 141 흥성리나루 | 151 풍도항 |

서울의 나루터·포구 현황 (부록)

- | | | |
|--------|---------|--------|
| 31 광진 | 37 서빙고진 | 38 서강 |
| 32 삼진도 | 38 동척진 | 39 양화도 |
| 33 독도 | 39 육석진 | 40 울도진 |
| 34 입석포 | 40 노랑진 | 41 광암진 |
| 35 두모포 | 41 율신진 | |
| 36 한강진 | 42 마포진 | |

|제2장|

경기도의 문화유산

경기지역은 한반도의 중심지역으로 역사적으로 선사시대(先史時代) 이래 사람이 살았던 곳이다. 연천 전곡리 구석기 유적지의 발굴을 계기로 한탄강 유역의 구석기 유적 등 경기도 북부일대 유적이 계속 출토됨으로써 구석기시대(舊石器時代)부터 사람의 거주 흔적이 있었음을 알게 해준다. 또한 경기지역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농경문화 기원지 중 하나로, 한강유역에서 신석기시대(新石器時代) 주거지와 곡식 낱알들이 발견되어 농경문화가 이루어졌고, 사람이 모여살면서 취락도 발달하였다.

또한 경기지역은 정치적 중심지 및 경제의 중심지가 되어 물자유통이 활발히 이루어졌다. 역대 왕조들은 전국에서 세금을 거두어 다시 분배하는 체제를 취했기 때문에 고려시대 이래 수도를 둘러싼 경기지역은 역로(驛路)와 조운(漕運)이 발달하여 물자유통의 중심지가 되었다. 이러한 정치적인 측면이 아니더라도 경기지역은 국토의 중심에 위치해 있고 한강·임진강 등의 수로교통이 발달하여 지리적으로 경제발전에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중국과의 교통이 편리하여 일찍부터 대외무역을 비롯한 상업이 발달할 수 있었다. 남양만의 당항성(黨項城)은 고대로부터 중국으로 통하는 관문이었으며, 고려

역로

역마(驛馬)를 바꿔 타는 곳과 역참(驛站)으로 통하는 길

조운

전근대사회에서 국가가 조세로 징수한 곡물 등을 선박으로 운송하던 제도. 이때 세곡을 실어나르는 선박을 조선(漕船), 조선이 항해하는 뱃길을 조운로(漕運路), 조선이 출발하는 강변이나 해안에 설치한 창고를 조창, 서울의 세곡을 수납하는 창고를 경창(京倉)이라고 했다.

알아두기 경기도의 문화재 현황

경기도에는 총 929점의 국가·도 지정문화재가 있다.(2012년 12월 31일)

국가지정문화재는 총 300점으로서 고달사지 부도(국보 제4호), 용주사 범종(국보 제120호) 등 11점의 국보가 있으며, 보물은 신륵사 조사당(보물 제180호), 안중근의사 유묵(보물 제569-21호) 등 145점을 보유하고 있다. 이외에 천연기념물 18점, 중요무형문화재 8점, 중요민속문화재 20점, 등록문화재 33점 등이 있다

도지정문화재는 총629점으로서 유형문화재 231점, 무형문화재 46점, 기념물 186점, 문화재자료 155점 등이 있다.

<국가지정>

계	국보	보물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중요무형문화재	중요민속문화재	등록문화재
300	11	145	64	1	18	8	20	33

<도지정>

계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문화재자료
629	231	46	186	11	155

시대에는 예성강의 벽란도를 중심으로 국제무역이 번성하였으며, 조선시대에 ‘송도상인’·‘경강상인’의 활동이 활발하여 인근의 광주·송파·오산 등지에서 상업이 크게 발달하였다.

경기지역은 일찍이 하남위례성(河南慰禮城)이 백제의 도읍지였던 것에서 시작하여 고려·조선을 거쳐 대한민국에 이르기까지 수도를 품어온 지역이다. 그러므로 경기지역은 일종의 왕실직할지(王室直轄地)로서의 성격을 강하게 지니고 있다. 이러한 역사적 특성은 경기지역에 다양성과 함께 질적인 측면에서 우리 역사상 최고의 문화유산이 나타났다. 이는 경기지역이 한반도 역사의 중심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하다.

고려와 조선의 수도였던 개성·한양을 잇는 축 주위에는 수많은 왕릉(王陵)과 원(園)·묘(廟)·태실(胎室)과 고위관직을 지냈던 인물들의 묘(墓)가 많이 분포하고 있다. 왕실문화유적이 다수 분포한 곳에는 능행로(陵幸路)가 정비되어 있어 사람과 물자의 유통을 활발하게 해주는 역할도 하였다.

또한 경기지역은 역사상 각 시대가 표방한 정치이념에 따라 문화적 경관(景觀)도 집중적으로 발달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즉 불교가 왕성했던 고려시대에는 사찰이 번성한 반면 조선시대에는 유교와 관련된 문화유적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을 볼 수 있다.



1. 경기도 구석기 유적

경기도에는 구석기 유적이 여러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다. 주로 한강을 비롯하여 한탄강·임진강 주변과 이들 강으로 흘러드는 크고 작은 물줄기 근처에서 구석기 시대의 유적이 발견되고 있다. 한탄강의 연천 전곡리·남계리, 임진강의 파주 금파리·주월리·가월리, 한강의 양평 병산리와 고양 일산 등이 대표적인 유적지이다. 또한, 최근 바닷가 근처에 있는 평택 원정리의 멩거니산에서 구석기 유적이 발견되어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이는 세계적으로도 매우 흔치 않은 경우인데 경기도 지역 전반에 구석기시대의 인류가 살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좋은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연천 전곡리 선사유적



| 전곡리 선사유적지 입구 |

연천군 전곡면 전곡리에는 한반도에서 가장 오래된 구석기 유적이 있다. 이 유적으로 인하여 한반도에 전기 구석기 시대부터 인류가 존재하였음이 확인될 뿐만 아니라 경기도 북부지역의 한탄강 일대가 우리 역사의 시원(始原)이었음을 알 수 있다.

한탄강을 끼고 있는 전곡리 선사유적은 그 중요성으로 인하여 사적 제268호로 지정되었으며 지정면적은 778,296km²이다. 10만 년 전부터 인류가 살기 시작한 전곡리 일원을 포함한 한탄강 연안지역은 한탄강을 감싸고도는

현무암 대지 위에 분포해 있으며, 추가령 지구대의 서남부에 해당되는 지역이다.

한탄강이 현무암대지 위에서 퇴적층을 형성하고 있는 동안 단속적(斷續的)으로 고인류가 출현해 사냥과 채집을 하는 구석기 유적이 형성되었을 것이다. 아직까지 그들의 집터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이 유적의 범위와 이곳에서 나온 여러 종류의 석기는 한국의 구석기 문화를 살피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된다.

7차에 걸친 발굴에서 나온 전곡리 구석기 유물은 3,000점 이상의 석기가 출토되었고 이보다 많은 수가 지표에서 채집되었다. 석기는 주로 석영맥암과 규암을 이용한 것이 거의 대부분이며 이 외에 현무암·편마암·운모편암도 소량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재료들은 거의 모두 당시의 한탄강가 위에 존재하던 강자갈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1m 정도 크기의 냇돌[川石]도 있다.

가장 특징적인 석기는 아슐리안형의 주먹도끼(hand-axe)들로 양면가공된 것과 외면가공된 것이 있다. 평면이 타원형인 것과 첨두형인 것이 모두 있으며 이들 중 일부는 몸통이 두텁고 큼직한 박편흔(薄片痕)으로 덮여 있어서 아프리카의 상고안(Sangoan) 석기공작과 지형적 유사성이 있음이 지적되고 있다.

주먹도끼 외에도 가로날도끼와 뾰족끝찍개(pick) 등의 대형 석기도 존재하고 있다. 찍개(chopper)는 양면가공과 외면가공의 것들이 있는데 대부분 냇돌 또는 냇돌조각으로 만들었다. 소형 석기로는 굽개가 주류를 이루고 소량의 첨두기와 홈날 석기 등이 채집되었다. 굽개는 직선날·볼록날·오목날 등의 형식이 보인다. 몸통이 두툼하고 급경사인 볼록날의 굽개가 보다 정형화한 형식이다.

전곡리에서 발견된 아슐리안형 석기들은 세계 고고학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1970년대 말까지 아슐리안 석기의 존재유무로 동아시아와 아프리카·유럽으로 구석기문화를 2분하던 모비우스의 학설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증거이다. 이로써 세계 구석기학계의 고인류의 문화적인 발전과정에 대한 이해에 새로운 면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동아시아에서도 구석기공작에 대해 새로운 각도에서 이해하려는 시도들을 불러일으키게 되었다. 한반도 내에서는 빈약한 전기 구석기공작 이해에 풍부하고도 획기적인 자료가 되었을 뿐 아니라 중부 홍적세(洪績世) 동안 고인류의 서식양상을 연구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였다.

파주 금파리 선사유적

파주 금파리 선사유적 역시 연천 전곡리 선사유적과 닮은 석기 종류가 발견되는 등 우리 구석기 문화를 밝혀주는 매우 중요한 유적이다. 이 유적에서는 일부러 파낸 것으로 보이는 움구덩이가 여러 곳에서 나타났는데, 움구덩이 가운데 하나는 타원형으로 길이가 5m, 너비가 3.5m, 깊이가 50~60cm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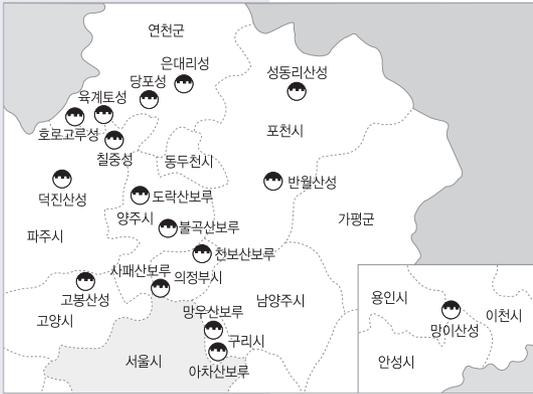
금파리 유적은 1989년에 처음 발견되어 1992년까지 발굴하였으며 주먹도끼·찍개·다각면원구·긁개·찌르개·박편 등 구석기 유물 2,000여 점이 나왔다. 이후 2004년에 이 지역에서 250m 떨어진 지점에서 주먹도끼·찍개·석핵 등 5만 년 전으로 추정되는 구석기 유물 1,500여 점이 또다시 발굴되었다.

금파리에서 발견된 유물 중에는 당시 석기 제작방식을 보여주는 접합석기 4세트가 들어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길이 35cm에 달하는 접합석기는 모암(母巖)의 원형을 거의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발굴돼 구석기 복원에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충북 단양 수양개 등 일부 구석기 유적지에서 접합석기가 발견됐지만, 대형 접합석기가 원형 상태로 출토되기는 금파리 유적이 처음이기에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금파리 유적은 경기도 파주 일대의 임진강 하구가 한탄강변의 전곡리 유적과 함께 자갈돌 구석기 문화의 중심지였음을 확인시켜주는 것이고, 시기적으로는 5만 년 전의 중기와 전기 구석기를 연결시켜주는 유적이다.



2. 경기도의 고구려 유적



| 경기도내 고구려 유적지 분포도 |

경기지역은 임진강과 한강을 아우르고 있는 한반도의 중심지역이자 고구려·백제·신라의 국경이 마주대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삼국의 가장 치열한 각축장(角逐場)이었다. 삼국은 경기지역을 차지하기 위하여 크고 작은 전쟁을 지속하였고 자국에 가장 유리한 전략적 요충지에 성곽을 축조하였다.

처음 한강과 임진강은 백제의 영토였으나 고구려 장수왕(長壽王)의 남하정책 이후 한강과 임진강 유역은 고구려의 영토가 되어 한반도 삼국 쟁패의 중심역할을 하였다. 고구려는 대륙 진출을 위하여 국내를 안정시킬 필요가 있었고, 이에 임진강 이남의 백제와 신라의 동요를 막아야 했다. 따라서 고구려는 이 지역에 성곽 등 필요한 관방시설을 집중적으로 설치하였다.

경기도의 고구려 유적 현황을 살펴보면 연천군이 임진강 북안에 위치한 호로고루 등 15개소, 파주시가 칠중성과 덕진성 등 5개소, 양주시가 불곡산 보루와 천보산 보루 등 26개소, 포천시가 반월산성 등 2개소, 의정부시 사패산 보루 3개소, 고양시 고봉산성 1개소, 안성시 망이산성 1개소를 보유하고 있다.

남한 내 고구려 유적의 70%가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으니 경기도는 고구려 유적의 보고라고 할 수 있으며, 이때 쌓은 관방유적들이 후대에까지 전략적 요충지로서 역할을 하였다. 또 오늘날까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주요 군사 전진기지로 이용되고 있기도 하다.

중국 요동지역과 집안 일대에 분포하는 고구려 산성들은 대체로 수 km에서 10km가 넘는 것들인데 반해 임진강 유역에서 발견되는 관방유적들은 모두 해발 20~30m의 저평지에 축조되어 있다. 이들 성곽은 임진·한탄강의 바위 절벽면 상부에 축조되어 있어서 강쪽에서 보면 거대한 성채의 모습을 하고 있으며, 주변 지역을 살피기에 유리한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이중 가장 대표적인 고구려 성은 호로고루·당포성·은대리성이다. 이는 고구려 중심부인 평양·개성 방면에서 한강 유역 일대로 접근하는 가장 빠른 교통로가 개성에서 장단을 거쳐 호로고루성 앞의 고랑포를 건너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호로그루(瓠蘆古壘)

연천군 장남면 원당리의 고랑포 북변에 위치한 호로그루는 약 28m 높이의 삼각형 현무암 수직절벽 위에 축조된 강안평지성(江岸平地城)이다. 호로그루가 위치한 곳은 임진강과 지천이 합류하는 지점으로 매우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이다.

임진강은 삼국시대에 백제와 고구려, 고구려와 신라의 국경역할을 하였으며, 현무암 대지를 따라 형성된 10m를 넘는 단애는 공격의 장애물이자, 천혜의 요새를 구축할 수 있는 자연환경을 제공해 주었다. 임진강을 따라가다 보면 석벽이 없는 지점이나 도강이 편리한 여울목 지점은 공격의 루트이자, 전력을 기울여 사수해야 할 방어의 대상이기도 했다. 임진강은 호로그루 동쪽의 두지나루에서부터 크게 곡류(曲流)하면서 이곳에 이르면 강심이 얇은 여울목을 이루는데, 장마철을 제외하고는 물의 깊이가 무릎 정도 밖에 되지 않아 말을 타거나 걸어서 건널 수 있다. 이곳에서부터 임진강 하류 쪽으로는 강폭이 넓고 강심이 깊어진다. 따라서 이 여울목을 통제할 수 있는 호로그루는 전략적 매우 중요한 곳이다.

호로그루의 전체 둘레는 401m 정도이다. 그중 남벽은 161.9m, 북벽은 146m, 동벽은 현재 남아 있는 부분이 89.3m이고 진입로 부분을 포함하면 93.1m에 달한다. 성 내부의 전체규모는 6,600㎡ 가량이지만 성벽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과 외곽 일부를 제외하면 사용가능한 면적은 약 5,290㎡ 정도이다. 현재 성내부는 전체적으로 훼손되어 건물지의 흔적을 찾을 수는 없지만 성의 외곽부분에 초석으로 보이는 방형의 석재들이 산재하고 있으며, 성내에 많은 양의 와편들이 발견되는 것으로 보아 여러 동의 건물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호로그루의 정확한 축성시기를 알 수는 없지만 성벽의 판축토 내에서 발견되는 유물을 고려할 때 대략 4세기 말경에 토루(土樓)나 목책(木柵) 등 초보적인 형태의 방어시설이 구축되었다가 국경이 남쪽으로 확장되면서 임진강 일대에 대한 본격적인 지배가 이뤄지는 시점에 현재의 모습으로 축성된 듯하다. 또한 고구려가 이 지역을 상실하게 되는 시점이 대략 고구려의 멸망시점임을 고려하면 4세기 말부터 7세기 후반까지 대략 250년 정도 고구려의 영역에 속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당포성(堂浦城)

연천군 미산면 동이리에 위치한 당포성은 삼화리에서 마전리로 가는 당개나루터 동쪽의 현무암 수직절벽 위에 축조된 강안평지성이다. 이 성은 임진강의 당개



| 호로그루 | 연천군 장남면 원당리



당포성 | 연천군 미산면 동이리

나루터로 흘러드는 하천과 임진강 대안 단애(斷崖) 위에 삼각형 모양으로 축조돼 기본적인 형태가 호로그루성이나 은대리성과 거의 같다.

내성과 외성으로 이뤄진 당포성은 약 13m 정도 높이의 단애 위에 축조됐는데 성의 서쪽 끝에서 내성까지의 길이는 200m이며, 높이는 6m, 길이는 50m 정도이다. 내성에서 70m 거리에 있는 외성은 높이 4m, 길이 150m이나 동쪽부분이 평탄하고 서쪽부분은 경사면으로 형성돼 있다.

현재 성벽이 무너진 지점에 성벽의 일부가 노출돼 있다. 노출된 외벽은 폭 2m, 높이 1.6m 정도이며, 바른층 쌓기로 정연하게 쌓았다.

특히 입구부분 성벽 동쪽부분엔 면석이 노출된 곳이 있는데 돌틈 사이에서 신라계의 기와편들이 상당수 발견되고 있는 점으로 미뤄 당포성은 고구려에 의해 처음 축성되고 신라에 의해 개축(改築)된 것으로 추정된다.

은대리성(隱垞里城)

은대리성은 한탄강과 장진천이 합류되는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은대리성은 한탄강의 북안에 돌출돼 있는 단애의 한쪽 끝을 막아서 만든 강안평지성으로, 삼각형 모양이다. 성의 규모는 동서의 길이가 400m 정도이고 지상구조물인 동벽의 길이가 120m 정도여서 전체 규모는 952m에 달한다. 성의 내부면적은 약 7천 평 정도이다.

성벽은 토석혼축(土石混築)으로 쌓았는데 양쪽 기단부만 석축을 하고 안과 기단 윗부분은 토축을 하였다. 토축부분이 쉽게 무너지는 것으로 보아 판축방법으로 축조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점토를 다져서 쌓은 것으로 보인다. 동벽은 남벽에 비해 경사가 완만한 북벽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성벽의 길이는 120m 정도이다. 북벽은 현재 높이 2m, 폭 5m 정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성내부는 평탄지이다. 성내에서는 수습되는 유물의 양은 많지 않으나 수습된 유물 중 일부는 고구려토기편으로 회색 연질이며 표면에는 점열문(點列文)이 찍혀있다. 와편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천보산 2보루(天寶山 二堡壘)

천보산 보루군(堡壘群)은 양주분지의 동쪽을 감싸고 있는 외곽 보루군으로 포천

천로에서 양주분지로 이어지는 고개를 통제하기 위해 축조된 것으로 보이며 양주 분지의 동쪽에 남-북 방향으로 형성된 천보산맥을 따라 형성돼 있다. 양주분지 동반부에 해당하는 천보산 보루는 모두 5개소가 확인됐다.

2보루는 해발 336.8m의 천보산 정상부에 해당한다. 유적이 위치한 곳은 주변지형 중 가장 높은 곳으로, 사방의 조망이 뛰어나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요충지였음을 알 수 있다.

유적은 본래 가늘고 긴 타원형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전체 유적의 90% 이상이 군사시설물과 이동통신시설로 인해 이미 파괴된 상태여서 정확한 형태를 알 수가 없다. 현재 확인되는 유구(遺構)는 북쪽 말단부로 성돌이 1단 정도 남아있으며, 보루 정상부에서 북동쪽으로 약 5m 지점에는 집수시설로 추정되는 방형유구(方形遺構)가 남아있다. 보루 주변에서는 많은 양의 고구려 토기편이 발견되고 있으며, 백제토기로 추정되는 연질토기편도 확인된다.

덕진산성(德津山城)

파주시 군내면 정자리에 있는 고구려성으로 『대동여지』, 『신증동국여지승람』 등에 기록이 있고 『조선왕조실록』에 여러 번 등장한다. 하지만 조선 이전의 기록은 발견되지 않고 있어 대체적으로 삼국시대에 축조하여 사용하다가 광해군(光海君) 말기인 1622년 경에 재수축(再修築)한 것으로 보고 있다.

내성과 외성으로 나누어져 있고 내성은 해발 85m 봉우리와 임진강변 쪽의 해발 65m 봉우리를 가운데 두고 산 능선을 따라 표주박 형태로 구축되어 있으며, 내성의 성곽 길이는 481m이고 내성의 넓이는 축구장 1.5배 정도의 규모로 좁은 편이다. 외성 길이는 948m 정도 되며 내성 북벽의 동단지점에서 북동쪽으로 이어지는 능선을 따라 가다가 다시 임진강 방향으로 돌아서 내성 남단 쪽으로 이어져 있다.

삼국시대에서 조선시대에 이르는 다양한 기와편이 다량 채집되었고, 특히 고구려의 토기편과 와편도 포함되어 있다. 대체로 서쪽에 있는 성벽이 완전하게 남아 있지만 하층부와 상층부의 축조 방식이 다를 뿐만 아니라 석재도 차이가 있어 두 차례 이상 대대적인 개축 공사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덕진산성은 임진강가의 성으로 북쪽에서 내려오는 적으로부터 덕진나무를 보호하고 남쪽에서 올라오는 보급선을 연결하는 요충지로 보인다. 고대나 현대도 전략적 요충지 개념이 비슷해서 전망과 방어가 유리한 곳이 요충지가 되는 것처럼 이

보루

적의 침입을 막기 위하여 돌이나 콘크리트 따위로 튼튼하게 쌓은 건축물

유구

옛날 토목건축의 구조와 양식을 알 수 있는 실마리가 되는 자취

곳 서쪽 성벽에는 6·25전쟁 당시 성벽 위에 다시 참호를 만들었던 흔적이 남아 있다.



3. 경기도의 불교문화유산

경기도는 고려(高麗)의 수도인 개성(開城)과 조선(朝鮮)의 수도인 한양(漢陽)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일찍부터 다양한 사상과 문화가 발달하였다. 특히 고려의 국교였던 불교의 발달은 타 지역과는 비교할 수 없었다. 고려시대에는 개성을 중심으로 왕실의 국찰(國刹)이 창건되어 고승대덕(高僧大德)과 찬란한 불교조형물이 만들어졌다.

조선이 건국되어 억불숭유(抑佛崇儒) 정책이 국가 기본이념으로 정해졌음에도 경기지역의 사찰들은 왕실의 원찰로 지정되며 법맥을 이어왔다. 따라서 이 사찰들을 중심으로 부모은중경(父母恩重經) 등 경전 발간과 조선시대 불교조형물이 전형을 이끌어냈다. 더불어 조선시대 사찰들은 국가의 주요 전략적 요충지에 거주하면서 승군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하였다. 이로서 경기지역의 불교문화는 왕실불교와 호국불교가 결합한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었다.

용주사(龍珠寺)



| 용주사 대웅보전 | 화성시 태안읍 송산리

용주사는 대한불교 조계종 제2교구의 본사이면서 우리 역사에서 가장 대표적인 효(孝)의 원찰(願刹)로 평가받고 있다. 용주사는 조선후기 문예군주인 조선의 22대 국왕 정조(正祖)에 의해 만들어진 국가 사찰이다. 특히 용주사는 사도세자(思悼世子)의 원찰임에도 조정의 지원으로 건립되지 않고 백성들의 시주금으로 지어진 특별한 사찰로서 평지에 건립된 왕실 원찰의 정형을 이루고 있다. 정조는 1789년(정조 13) 배봉산에 있던 부친 사도세자의 영우원(永祐園)을 수원 화산으로 옮겨 현릉원(顯隆園)이라 하고, 이듬해 현릉원 원찰 용주사(龍珠寺)를 창건하였다. 사도세자의 명예회복과 새로운 도시 건설을 통해 왕권을 강화하고자 했던 정조는 현릉원의 원찰 건립을 시도하였다. 정조의 현릉원 원찰 추진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세조의 원각사(圓覺寺) 건립 이후 근 300여 년만의 일이었다.

정조의 용주사의 창건은 현릉원 천봉(遷奉) 직후에 이루어졌고 원찰 건립계획은 원(園)의 천봉과 동시에 추진되었다. 현릉원 공사가 완공된 직후 현릉원 공역 책임자인 이문원(李文源)이 원찰을 설치하자는 주장을 하였다.

창건할 당시 용주사의 건물 구성은 사도세자를 위한 제각(祭閣) 6칸, 법당인 대웅보전 9칸, 선당(禪堂) 39칸, 천보루 15칸, 삼문의랑 모두 17칸 등 249칸이나 되는 매우 큰 가람을 조성하였다. 특히 용주사는 일반 사찰에서 보이는 일주문(一柱門)이 없이 유교식 정문이자 국왕이 출입하는 삼문(三門)이 설치되어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용주사의 창건 비용은 전국적인 모금에 의해서 마련되었다. 즉 조정의 주관하에 관료와 백성들의 시주를 받아 건립비용을 충당하였다. 용주사 창건에 큰 시주를 한 고위관료의 명단을 보면 당대의 주요관료들이 상당수 동원됐음을 보여준다. 여기에는 경기감사 서유방(徐有防) 등 각 도의 감사 9명, 군수·현감·부사·만호 등 지방관료 87명, 도합 96명에 달하는 관료의 관직명과 이름이 실려있다. 또한 각 궁과 중앙 관청 그리고 지방 감영(監營)의 이름과 액수가 적혀 있다. 더불어 각 지역에서 백성들과 사찰에서 걷은 비용이 모두 적혀 있다. 이 내용을 보면 조정에서 시주한 금액보다도 백성들과 사찰에서 시주한 비용이 훨씬 많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당시 전국에서 거둔 시주금은 총 87,505냥의 돈과 필요한 물품들이었다. 이때 각 도의 백성들이 시주한 금액은 52,273냥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각 지역의 사찰에서 시주한 금액이 13,779냥 등으로 총 87,505냥 가운데 57,388냥은 용주사 건축비로 썼으며, 28,116냥은 용주사의 생활 기반에 필요한 전답 매입비로, 2,000냥은 화주승(化主僧)들의 여비로 각각 충당하였다.

정조는 용주사의 격을 높이기 위해 당파를 불문하고 신하들에게 용주사의 상량문(上樑文)과 권선문(勸善文 : 시주를 권하는 글) 그리고 주련(柱聯) 등을 짓게 하였다. 상량문은 좌의정으로 있던 남인의 영수인 채제공(蔡濟恭)에게 짓게 하였고, 권선문과 주련은 불교를 배척하였던 노론의 문신 이덕무에게 짓게 하였다. 그리고 본인은 『봉불기복계(奉佛祈福偈)』를 직접 지어 더 이상 용주사 창건에 대한 잡음을 없애고자 하였다.

용주사는 창건된 이래 조선시대 사찰로는 최대의 격을 지니게 됐다. 당대 왕의



| 용주사 천보루 |

상량문

집을 신축할 때 연·월·일·시·좌향(坐向)·축원문 등을 적은 글. 기둥에 보를 얹고 그 위에 마룻대(상량)를 놓을 때 행하는 제의가 상량고사인데, 집 짓는 고사 가운데 가장 성대하게 지내며 이때 상량문도 올리게 된다.

주련

기둥이나 벽에 세로로 써 붙이는 글씨로 기둥(柱)마다 시구를 연달아 걸었다는 뜻에서 이런 이름이 붙었다.

생부인 사도세자(장헌세자로 추존)의 위패를 봉안하고 명복을 빌어주는 원찰로서의 기능뿐만이 아니라 군사적인 측면에서도 용주사의 위세는 조선 제일이었다.

정조는 용주사가 창건된 후 1790년 10월에 용주사의 주지인 철학(哲學)을 승통(僧統)에 임명하였다. 승통이라 함은 조선후기 승군의 최고 책임자로 남·북한 산성의 총섭보다도 한 등급 높은 지위이다.



| 용주사 범종 |

정조의 용주사 창건은 정조 자신의 왕권 강화를 보여주고자 했던 의도임과 동시에 자신의 불교인식의 변화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용주사의 창건은 외적으로는 불교의 효순사상(孝順思想)이라는 명분을 통하여 집권 유생층의 반발을 막으며 생부인 사도세자의 명복을 빌어주게 하는 것이었고, 내적으로는 사도세자의 신원(伸冤)을 통한 정조 자신의 정통성 확보라는 왕권강화의 일환이었다. 그리고 자신이 창건한 용주사로 하여금 전국 사찰을 다스리고 의승군(義僧軍)을 통솔하게 하여, 의승군 전체를 왕의 직속부대로 만들어 군사적 힘을 증가하게 하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용주사의 창건은 조선후기 불교사상의 발전을 가져오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곳에는 고려초기에 만들어진 거대한 범종인 용주사 범종(국보 제120호)이 있다.

신륵사(神勒寺)

신륵사는 여주군 북내면 봉미산에 있는 사찰로서 조선시대 왕실 원찰로서 가장 오래된 사찰이다. 신륵사는 특히 남한강변에 위치하여 아름다운 경관으로 고려시대 이래 시인묵객(詩人墨客)의 발길이 끊이지 않은 사찰로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강변 사찰이다. 더불어 극락보전(極樂寶殿)과 조사당(祖師堂), 보제존자(普濟尊者) 나옹(懶翁)화상의 부도 등 각종 보물이 있어 고려말 조선초기의 가장 대표적인 문화유산이 자리 잡은 문화의 보고이기도 하다.

신륵사는 천년고찰로 일컬어지고 있으나 정확한 역사를 확인하기는 어렵다. 더욱이 고려말 이전의 신륵사의 역사는 안개 속에 파묻혀 있는데 흔히 절의 창건에 대해 막연하게 신라시대일 것이라고 하는가 하면 혹 신라 진평왕(眞平王) 때에 원효대사(元曉大師)가 창건했다고도 한다.

신륵사의 절 이름은 여러 가지 전설로 나타나고 있다. 첫째는 신기한 미륵 또는

나옹선사가 신기한 굴레로 용마를 막았다는 전설에 의한 것'이라는 설과 둘째는 고려 고종(高宗) 때 건너편 마을에서 용마가 나타나 견잡을 수 없이 사나우므로 사람들이 붙잡을 수 없었는데 이 때 인당(印塘)대사가 나서서 고삐를 잡으니 말이 순해졌으므로 신력(神力)으로 제압하였다 하여 절 이름을 신륵사라 했다'고 하는 설이 그것이다.

신륵이란 절 이름이 생겨난 것은 이 지방에 나타난 사나운 용마를 누군가 신력으로 제압함으로써 이름을 얻었다는 것은 확실하다. 그런데 그 날뛰는 용마를 제압했다는 인물이 신기한 미륵, 인당대사, 나옹대사 등으로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차이 뿐이다. 이러한 전설을 상징적으로 해석하여 용마의 출현을 강물의 범람으로 보면서 그 풍수지리적 산천비보사상(山川裨補思想)에 의하여 지세(地勢)가 약한 곳에 절을 세움으로써 강물의 범람을 막고자 해서 신륵사가 세워진 것이라 보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실제 일반인들은 신륵사나 보은사(報恩寺)라는 명칭보다 고려 때부터 벽절이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불려왔던 것 같다. 이는 경내의 동대 위에 9.4m 높이의 벽돌로 쌓은 다층전탑(多層塔)이 있기 때문이다. 또 '옛날 공민왕(恭愍王)의 왕사 나옹과 목은 이색(李穡) 두 사람이 서로 이어 와서 신륵사에서 놀았다. 이로부터 이 절이 드디어 경기좌도에서 가장 유명한 절이 되었다'는 기록에서 알 수 있듯이 나옹화상과 관련하여 유명하게 되었다.

즉 신륵사는 고려말 이후에 유명해진 사찰이다. 기록에 보이는 나옹과 신륵사와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그가 이 신륵사에서 입적했다는 것이다. 나옹이 많은 이적을 보이며 입적하였던 이곳은 끊임없는 흠모의 대상이 되었다.

이후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신륵사가 빛을 발하기 시작한 것은 영릉(英陵 : 세종대왕의 능)의 원찰이 된 때문이다. 조선 예종 때 광주(廣州)의 대모산(현 서울시 서초구)에 있었던 영릉을 이곳 여주로 옮기고 신륵사를 영릉의 원찰로 삼아 여러 번 중수(重修)하였고 그 영향으로 여주목(驪州牧)으로 승격되는 행정상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 신륵사 전경 | 여주군 북내면 천송리



| 신륵사 다층전탑과 다층석탑 |



나옹 부도와 석등 |

전탑

벽돌을 구어 층층이 쌓아올린 탑. 전탑은 전국적으로 크게 유행하지는 못하였다. 탑을 세우기에 앞서서 벽돌을 생산해야 하기 때문에 일부 지역에서만 세워졌을 뿐이다. 안동 신세동 7층전탑, 칠곡 송림사 5층전탑, 여주 신륵사 다층전탑이 대표적이다.

부도

고승(高僧)의 사리(舍利)나 유골을 안치하는 묘탑(妙塔)



신륵사 조사당 |

그리하여 성종(成宗) 3년에 시작된 신륵사의 대규모 중창불사는 공사가 시작된 지 8개월만에 옛 것을 수리하고 새로 지어 모두 200칸 건물의 완성을 보게 되었다. 이에 이름을 보은사(報恩寺)라 고쳐 부르게 했다. 다시 신륵사의 이름을 되찾은 것은 임진왜란 때 불 탄 것을 다시 현종·숙종·철종 때 중창하면서였다. 조선초기 불교의 탄압이 날로 심화되어 가던 상황에서 왕실과 특별한 관계를 갖고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었던 사찰은 그리 많지 않았다. 이 신륵사는 그 중에 하나였던 것이다. 신륵사는 특

히 문화유산의 보고이다. 극락보전 앞에 있는 다층석탑(多層石塔)은 흰 대리석으로 쌓은 탑으로 보물 제225호로 지정되어 있다. 2층의 기단부를 구성하고 그 위에 여러 층으로 쌓아올린 탑신부는 신라나 고려시대의 일반형 석탑의 기본 양식을 따르고 있음을 곧 알 수 있으나 각 부재의 세부 조형은 전혀 감각을 달리하는 석탑이다.

신륵사에는 국내에서 보기 드문 전탑(塼塔)이 건립되어 있다. 경내 동남쪽 강가에 솟은 동대(東臺) 위에 있는데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전탑이다. 이 전탑은 고려시대 만들어진 전탑으로 보물 제226호로 지정되어 있다. 이 전탑은 단순히 탑으로서의 기능만이 아닌 남한강을 통해 교통하는 다양한 사람들의 이정표 기능까지 담당하였을 것으로 여겨진다.

조사당 뒤편 언덕 전망이 좋은 곳에 신륵사에서 입적한 고려말 공민왕의 국사인 나옹화상의 부도와 석등(石燈)이 있다. 이 부도는 높이 1.9m 크기로 종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석종이라고도 하며 신라시대 이래의 일반적인 팔각원당형(八角圓堂型) 부도와는 달리 라마탑의 형식을 지닌 최초의 부도로 보

물 제228호로 지정되어 있다. 이 부도의 건립으로 인하여 소위 석종부도가 탄생케 되었고 오늘날 사원 근처 숲속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부도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나옹화상 부도 앞에 있는 높이 1.94m의 화려한 석등은 매우 귀한 납석제(蠟石材)를 사용하고 있으며 각 모서리 부분에는 용을 양각하였고, 창구(窓口)마다 비천상(飛天像)이 있다. 이 석등은 고려말 나옹화상이 입적한 후 부도를 세웠

던 1377년 함께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며 보물 제231호로 지정되었다. 이외 보물 제229호로 지정된 보제존가 석종비와 보물 제230호로 지정된 대장각기비(大藏閣記碑), 보물 제180호로 지정된 조사당, 경기도유형문화재 제128호로 지정된 극락보전 등 다양한 문화재가 있다.

회암사지(檜巖寺址)

양주시 회천면 회암리 천보산(天寶山)에 있는 회암사지는 우리나라 절터 가운데 매우 큰 편에 속한다. 회암사는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 걸쳐 국사(國師)와 왕사(王師)가 주석하는 국찰임과 더불어 조선시대 행궁과 같은 왕찰(王刹)이었고, 조선 왕족의 안위와 보위를 기원하였던 왕실의 원찰이기도 하였다.

사적 제128호로 지정된 회암사지는 원래 1328년(충숙왕 15) 인도에서 원나라를 거쳐 고려에 들어온 지공(指空)이 인도의 나란타사(羅爛陀寺)를 본떠서 266칸의 대규모 건립된 회암사가 있던 곳이다. 고려말 전국 사찰의 총본산이었던 이 절의 승려 수는 3,000명에 이르렀으며, 조선초기까지만 해도 전국에서 규모가 가장 컸던 절로, 조선의 태조가 왕위를 물려주고 수도생활을 했을 뿐 아니라 효령대군도 머물렀던 적이 있었다. 1424년(세종 6)의 기록을 보면 이 절에는 250명의 승려가 있었고, 경내가 1만여 평에 이르렀다고 한다.

1472년(성종 3) 정희왕후가 정현조(鄭顯祖)에게 명하여 중창하였으며, 명종 때 문정왕후가 불교 중흥정책을 펼 때 전국 제일의 수선도량(修禪道場)이 되었다. 그러나 왕후가 죽고 유신(儒臣)들에 의해 나라의 정책이 다시 억불정책으로 바뀌자 1565년(명종 20) 사월 초파일에 보우대사가 잡혀 가고 절은 불태워짐으로써 폐허화되었다.

1821년(순조 21) 지공(指空)·나옹·무학의 부도와 탑비가 고의적으로 훼손되었으나 조정에서 1828년에 다시 중수하였으며, 옛터 옆에 작은 절을 짓고 회암사라는 절의 명칭을 계승하였다. 1922년에 봉선사(奉先寺) 주지 홍월초(洪月初)가 새로 보전을 짓고 불상을 봉안했으며 지공·나옹·무학의 진영을 모셨다. 이렇게 오랜 시간 역사에서 잊혀져 있던 회암사지는 1960년대 사적 제128호로 지정되면서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이때부터 이곳에 대한 조사들이 몇 차례 실시되었으나 모두



| 회암사지 | 양주시 회암동

부분적인 조사에 그쳤을 뿐 중요한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였다. 1997년 경기도박물관에서 실시한 시굴조사(試掘調査)를 시작으로 회암사지는 드디어 그 속에 묻힌 역사의 비밀들을 드러내기 시작하였다. 이를 통해 회암사지의 거대한 절터가 드러났고, 대략적인 가람배치가 확인되었다. 1998년부터는 사찰 구역을 일정하게 구획하여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아직까지도 진행되고 있는 장기간의 발굴조사로 대가람의 건물지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여기서 쏟아져 나온 수많은 유물들로 미루어 보아 매우 큰 사찰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회암사지 쌍사자 석등 |

출토되는 유물 가운데에도 왕실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조선초기의 것들이 많다. ‘효령대군(孝寧大君)’의 이름이 정확하게 새겨진 막새기와들은 효령대군이 회암사를 중창하였다는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의 기록을 뒷받침한다. 또 용·봉황과 같이 왕이나 왕실을 상징하는 문양이 새겨진 기와들과 청기와도 볼 수 있다. 특히 청기와는 태조가 머물렀을 것으로 생각되는 정청(正廳) 주변에서 다량 출토되어 주목된다. 청기와는 궁궐이나 국찰 규모의 사찰에서만 사용하던 것으로 제작기법이 어려워 매우 귀하게 쓰였다.

이러한 청기와가 회암사에 쓰였다는 사실은 이 절이 매우 중요하였음을 보여준다.

이 사찰은 평지가 아닌 산간에 세워졌으면서도 회랑(回廊) 등을 마련한 것은 특기할 만한 사실이다. 절터 내에는 고려시대에 세운 나옹의 행적을 새긴 회암사지 선각왕사비(보물 제387호)가 있고 회암사를 창건한 지공의 부도 및 석등(경기도유형문화재 제49호)과 회암사지 부도(보물 제388호), 그리고 중창한 나옹의 부도 및 석등(경기도유형문화재 제50호)이 있다.

또한, 조선초기에 건립된 쌍사자석등(보물 제389호)과 무학대사비(경기도유형문화재 제51호), 회암사지 부도탑(경기도유형문화재 제52호), 맏돌(경기도민속자료 제1호) 외 당간지주(幢竿支柱), 건물의 초석 등 석물들이 남아 있다.

고달사지(高達寺址)

고달사지는 고려시대 3대 사찰의 하나로 경기도 일대에서 가장 큰 사찰 중의 하나인 고달사의 절터이다. 고달사는 여주군 북내면 상교리에 있으며 일명 고달선원(高達禪院)이라고 불렸는데 764년(신라 경덕왕 23)에 창건되었다고 전해진다.

당간지주

당간을 지탱하기 위해 당간의 좌우에 세운 기둥. 통일신라시대부터 사찰 앞에 설치했던 건축물로서 그 주변지역이 사찰이라는 신성한 영역을 표시하는 역할을 하였다. 돌로 만드는 것이 보통이지만 철·금동·나무로도 만든다. 2개의 기둥을 60~100cm 간격으로 양쪽에 세웠다.

신라말 고려초기에 남한강변에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찰들이 건립되었다. 이 지역은 경기도·강원도·충청도가 서로 만나는 지역으로 수운 교통의 요지였기 때문에 인구가 밀집되고 물산이 풍부하였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국가와 지역의 호족들에 의해 대형 사찰들이 건립되었는데 그중 가장 대표적인 곳이 바로 고달사였다.

고달사지는 폐사지(廢寺址)임에도 불구하고 사적 제382호로 지정되었는데 이는 고려시대 가장 큰 사찰이었던 것과 더불어 신라말에 건립된 팔각원당형 부도가 최초로 만들어진 역사적 의의가 있기 때문이다.

고달사는 다음과 같은 창건 전설이 전해지고 있다. 본명이 고달이라는 원종대사(元宗大師)가 새로운 절을 창건하기 위해 각 지방을 돌아다니며 절터를 물색하였다. 그러던 가운데 지금의 행치고개에서 피로를 풀다가 고달사가 있는 마을의 산세를 보고 절터로 적합함을 알았다. 그러나 대사가 생각한 바는 99골이었는데 마을에 와서 자세히 살펴보니 100골(계곡)이었다. 앞으로 이곳에서 장사가 날 것을 확신하고 장사가 나면 잘 키워서 국가에 공헌하고자 하여 절을 짓고 이름을 자기의 본명을 따서 고달사라고 하였다.

고달사 원종대사는 찬유(璨幽, 869~958)로 고달사를 고려시대 3대 사찰로 키운 장본인으로 고려초 광종대 국사(國師)였다. 고달사는 조선중기 이후 폐사되었지만 현재 가장 뛰어난 가치의 불교문화유산이 존재한다. 고달사터에는 국보 제4호로 지정된 고달사지 부도가 있는데 정제되고 세련된 조각으로 이루어져 있어 팔각원당형으로 된 가장 우수한 부도로 평가받고 있다.

고달사터의 금당지로 추정되는 곳에 정방형의 4각 석불대좌(石佛臺座)는 높이 1.6m로 매우 큰 대좌이다. 고려초기 10세기 후반의 것으로 추정되는 이 대좌는 보물 제8호로 지정되어 있다. 석불대좌 위로 보물 제6호로 지정된 '원종대사 혜진탑비(慧眞塔碑) 귀부(龜趺) 및 이수(螭首)'가 있는데, 비는 일찍이 무너져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 귀부의 거북머리는 용머리 모양으로 눈을 부릅뜨고 앞을 바라보고 있으며, 눈꼬리가 길게 치켜올라간 괴상한 모습이다. 거북의 네 발과 발톱은 실제 살아있는 듯 격정적이고 사실적으로 조각되어 있다.



| 고달사지 | 여주군 북내면 상교리



| 고달사지 부도 |



| 원종대사 혜진탑과 혜진탑비 귀부 및 이수 |



고달사지 오른쪽 산능선에는 보물 제7호로 지정된 원종대사의 부도가 자리잡고 있다. 고달사지 부도와 유사한 형태로 조각되었다. 아마도 제자인 원종대사가 스승의 부도를 받드는 모습을 한 것으로 보인다. 탑신부의 용머리가 고달사지 부도를 향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며, 지대석이 8각이 아닌 4각으로 되어 있어 고려 초기의 부도임을 확인할 수 있다.



4. 경기도의 유교문화유산

유교문화유산의 대표적인 것은 서원(書院)과 향교(鄕校)라고 할 수 있다. 유교가 한반도로 유입된 이후부터 우리 민족은 성리학을 비롯한 유교의 여러 학문을 익혔다. 이를 위해 유교를 학습할 교육기관과 선현을 제향할 향교와 서원을 건립하였다.

향교와 서원은 설립 주체나 배향(配享) 인물, 설립 시기 등에서 지역별로 차이를 보이지만 형태나 기능면에서 많은 공통점을 지니고 있어 쉽게 비교 설명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향교는 공자(孔子)와 그 제자들의 제사를 지내면서 지방 자제들을 교육시키던 관립학교이다. 『고려사(高麗史)』 인종 20년(1142) 2월조에 “시험에 응시하는 지방 학생들은 계수관 향교의 도회(都會)에서 증명을 주도록 했다”는 기록에서 향교가 처음으로 나타나고 있다. 조선이 건국되면서 국가의 지도이념으로 채택된 성리학을 전국적으로 보급하기 위한 ‘1읍 1교(一邑一教)’의 원칙에 따라 전국의 모든 군현에 향교를 배치하였다.

서원은 선현봉사(先賢奉祀)와 강학(講學)을 목표로 건립되었다. 즉 선현을 제사 지내면서 동시에 학문을 추구하기 위하여 마련된 장소로 사립학교로 보면 된다. 더불어 서원은 유교문화의 보급과 창달이라는 측면과 함께 사림들의 정치·사회적 공론(公論)을 형성하기 위한 집회소가 되기도 하였다.

경기지역은 고려시대부터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중심지로서 향교와 같은 교육기관이 발달하여 국가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인물이 많이 배출되고 이들을 배향하는 서원이 발달하였다.

고려·조선시대 사상을 주도했던 포은 정몽주, 율곡 이이, 우계 성혼, 청음 김상

현, 성호 이익, 다산 정약용, 순암 안정복 등이 대부분 경기지역에 거주하며 학문을 익혔고, 이들의 후예들이 서원을 건립하여 선현들의 위업을 계승하고자 하였기에 경기지역의 학문과 사상의 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따라서 경기지역의 서원 원장(院長)은 유림의 종장(宗匠)으로 추앙받아 조선의 유학을 대표하였다.

자운서원(紫雲書院)

자운서원은 파주시 법원읍 동문리에 위치한 율곡 이이(李瑀)를 배향한 서원으로 한국 서원사에 있어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서원이다. 1615년(광해군 7)에 지방 유림들이 이이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해 창건하여 위패를 모셨다. 1650년(효종 1)에 ‘자운(紫雲)’이라고 사액되었으며, 그 뒤 김장생(金長生)과 박세채(朴世采)를 추가 배향하여 선현배향과 지방교육의 일익을 담당하여왔다.

1868년(고종 5)에 흥선대원군(興宣大院君)의 서원철폐령으로 훼손되어 위패는 좋은 터에 묻고 서원터에 단을 설치하여 향사를 지내왔다. 그 뒤 1969년에 지방유림의 기금과 국비 보조로 복원하고 1975년과 1976년에 걸쳐 보수하였다.

정문으로 들어가면 왼편에 율곡 이이의 신도비가 있고 조금 더 안쪽에 율곡기념관이 건립되어 운영되고 있다. 기념관을 지나서 왼쪽으로 들어가면 자운서원이 있고, 가운데 안쪽 능선으로는 율곡 이이와 어머니 신사임당을 비롯한 집안의 인물 13기의 묘소가 위치하고 있다.

이 중 몇 기의 묘소는 그 위치가 특이한데, 이이의 부친인 이원수(李元秀)와 모친 신사임당(申師任堂)의 묘 위쪽에 대형 이선(李璿)의 묘가 있고, 그 위에 이이의 묘가 위치하고 있다. 이는 통상 역장(逆葬)이라고 하는데, 능선의 위쪽으로부터 차례로 윗대에서 아래대로 묘를 쓰지 않고 자손이 선조의 위쪽에 위치하였기에 붙여진 이름이다. 세간에는 이이의 학문이 워낙 위대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전한다. 그러나 이는 바른 설명이 아닌 듯하고, 이이가 살던 시기에는 소위 성리학적 질서가 조선후기보다 상대적으로 약하였기 때문에 분묘의 위치 선정이 비교적 자유로워서 그렇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

사우에는 이이를 주벽(主壁)으로 하여 좌우에 김장생과 박세채의 위패가 봉안되



| 자운서원 | 파주시 법원동 동문리



| 자운서원 묘정비 |

서원철폐

조선 말기 대원군이 지방 양반들의 거점이던 서원을 훼손(毀撤)한 일. 지방양반들이 서원을 거점으로 백성들을 토색질하고 지방관청에 피해를 준다는 이유와 함께 왕권의 권위를 높이고 민폐를 줄이는 한편 국가재정에 도움이 되는 정책의 하나로 1864~71년에 걸쳐 단행하였다. 이 조치로 전국에 47개소의 서원만 남기고 나머지 서원·사묘(祠廟) 등이 모두 훼손되었다.

기묘사화

조선 중종 14년(1519)에 일어난 사화. 남근, 심정, 홍경주 등의 훈구파가 성리학에 바탕을 둔 이상 정치를 주장하던 조광조, 김정 등의 신진세력을 죽이거나 귀양 보냈다.

어 있다. 이 서원은 경기도기념물 제45호로 지정되어 있고, 묘정비는 경기도유형문화재 제77호로 지정되어 있다.

심곡서원(深谷書院)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에 위치한 심곡서원은 조선 중종대 사회 개혁을 추진하다가 기묘사화(己卯士禍)로 죽은 조광조(趙光祖)의 학덕과 충절을 추모하기 위해 지방 유림의 공론에 의하여 설립되었다. 그리고 그해에 국왕으로부터 편액을 하사받았다.

조광조의 무덤이 이곳에 있기 때문에 일찍부터 서원을 세우기 위한 논의가 있었으나, 재력이 부족하여 모현면에 있는 정몽주 제향의 충렬서원(忠烈書院)에 입학하였다가 조광조가 부친의 장례 후 여막을 짓고 시묘살이를 하던 곳에 위패를 옮겨오게 되었다. 따라서 이 자리는 조광조의 학문적 위업과 효심을 밝혀주는 곳이었다.

조선시대 내내 조광조만을 배향하다가 조광조가 전남 화순 능주에서 사약을 받고 죽었을 때 그의 시신을 수습하여 이곳에 장례를 치루어준 양팽손(梁彭孫)을 1958년에 추가 배향하였다.



| 심곡서원 |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 심곡서원 일조당 |

심곡서원은 대원군의 서원철폐 당시 훼손되지 않고 존속한 47개 서원 중의 하나로, 선현 제향과 지방교육의 일익을 담당하여왔다. 뿐만 아니라 심곡서원은 규모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조광조를 받드는 서원이었기 때문에 조선 전체 유림의 존경을 받는 서원이었다. 따라서 심곡서원 원장이 곧 조선 유림의 종장을 추앙받아 유림들 대부분은 심곡서원 원장의 결정에 따라 행동하기도 하였다.

경내의 건물로는 사우·일조당·재실·장판각·내삼문·외삼문 등이 있다. 사우에는 조광조와 양팽손의 위패가 봉안되어 있으며, 지붕의 좌우에 방풍판을 달고 겹쳐마로 되어 있다. 정면 4칸, 측면 반칸의 합각 홑처마로 된 재실은 원생이 기거하며 공부하던 곳이다. 맞배지붕에 홑처마로 된 장판각에는 67종 486책이 소장되

어 있었으나, 1985년에 도난을 당하여 현재는 『정암집(靜庵集)』·『조선사(朝鮮史)』 등만 남아 있다.

해마다 2월과 8월의 중정일(中丁日)에 향사를 지내며 분향일은 매달 음력 초하루와 보름날이다. 그리고 서원 내에는 수령 500년 된 느티나무가 보호수로 지정되어 있으며 서원 앞에는 하마비(下馬碑)가 있고 송시열(宋時烈)이 쓴 강당기가 전해진다.

충렬서원(忠烈書院)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능원리에 있는 충렬서원은 고려 후기 충신이자 동방성리학의 시조인 포은 정몽주(鄭夢周, 1337~1392)의 학덕과 충절을 기리기 위하여 지은 서원이다. 1576년(선조 9)에 이계(李槩)·이지(李贄)를 비롯한 지방 유림의 공의로 정몽주와 조광조의 학덕과 충절을 추모하기 위하여 서원을 건립하였다. 처음에는 이 서원을 정몽주와 조광조의 묘소 중간 지역인 지금의 죽전에 세웠고 이름도 죽전서원(竹田書院)이라고 하였다.

임진왜란(1592) 때 서원이 불타 없어져 1605년(선조 38) 경기도관찰사 이정구(李廷龜)가 현감 정종선(鄭從善), 이시윤(李時尹) 등과 논의하여 정몽주의 묘소 아래 증건하기로 하였다. 이에 3년여의 공사 끝에 사우 정면 3칸, 측면 3칸, 동·재 각 2칸, 문루 3칸을 지었다. 1608년(광해군 1)에 임금으로부터 충렬이라는 이름을 사액받아, 나라의 공인과 경제적 지원을 받았으며, 이때 정보와 이시직을 같이 배향하였다.

선현배향과 지방민의 유학교육을 담당하였으나 1871년 서원철폐령으로 없어졌으며, 1924년에 복원하였다. 마을 뒤쪽의 야산 기슭에 남서향으로 자리하고 있으며, 공부하는 강당을 앞쪽에 배치하고 사당을 뒤쪽에 배치한 전학후묘(前學後廟)의 양식을 따르고 있다. 입구의 홍살문과 내삼문·외삼문·사당이 거의 일직선으로 배치되어 있지만, 강당이 축에서 벗어나 사당과 나란히 보이는 점이 특이하다. 또한 재실이나 장경각·교직사 등 부속건물이 없이 사당과 강당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8세기 이후에 서원이 가진 교육적 기능은 사라지고 제사 기능 중심의 시설로 바뀌어 갔음을 보여 준다. 강당도 교육공간보다는 제향 때 모임 장소로 쓰였다. 전하는 유물로 『유한집(遺翰集)』과 단심가(丹心歌) 등을



충렬서원 |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능원리

서원에서 보존하고 있다. 강당과 사당만으로 이루어진 소규모 서원의 형식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건축물이다.

수원향교(水原鄉校)

수원시 교동에 위치해 있으며 현유의 위패를 봉안, 배향하고 지방민의 교육과 교화를 위해 1291년(충렬왕 17)에 설립되었다. 고려시대에 설립된 수원향교는 가장 오래된 향교 중의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처음에는 화성시 봉담읍 와우리에 있었으나 1789년(정조 13) 현재의 위치로 이전한 것이다. 수원 신읍치를 현재의 팔달산 일대로 정하여 이전하면서 수원향교도 현 위치로 옮겨 건립하고 공자·맹자의 위패를 봉안하게 되었다. 그러나 옮겨 세운 건물이 협소하고 작아서 1796년(정조 20)에 개축하였다.

1959년에 대성전(大成殿)과 명륜당(明倫堂)을, 1978년에 대성전과 외삼문(外三門)을 보수하였으며, 이듬해 사무실과 수복청을 신축하였다. 1980년에는 담장을 쌓고 1983년에 유림회관을 증축하였다. 현존하는 건물로는 명륜당과 대성전·동무(東廡)·서무(西廡)·내삼문(內三門)·외삼문·수복청(守僕廳)·유림회관 등이 있다.



| 수원향교 | 수원시 팔달구 교동

향교 앞에 하마비(下馬碑)가 있고 나무로 조성된 홍살문이 있다. 외삼문은 솟을삼문의 형태이며, 명륜당은 정면 5칸, 측면 2칸의 팔작지붕이고 장대석으로 축대를 쌓았으며 건평이 57,75㎡(17.5평)이다. 명륜당 뒤에 조그만 연못이 있고 동재(東齋)와 서재(西齋)는 현재 남아 있지 않다.

돌계단을 오르면 내삼문이 있다. 내삼문은 솟을삼문에 좌·우 각 1칸씩의 문이다. 대성전은 정면 5칸, 측면 3칸의 맞배지붕으로 장대석으로 축대를 쌓고 좌·우 중앙에 계단이 있으며 용마루에 귀면(鬼面) 기와가 있는 건물로 건평이 150,48㎡(45.6평)이다. 좌우에 동무와 서무가 배치되어 있는데, 동·서무는 각각 맞배지붕으로 정면 3칸, 측면 2칸의 건물이다.

수원향교에는 중국의 5성(聖)·10철(哲)·송조6현(宋朝六賢)과 우리나라의 18현(賢)의 위패를 봉안하고 있다. 조선시대에 국가로부터 토지와 전적·노비 등을 지급 받아 교관이 교생을 가르쳤으나 갑오개혁(甲午改革) 이후 신학제 실시에 따라 교육적 기능은 없어진 채 매년 봄·가을에 석전대제를 거행하고 초하루·보름에 분향을 하고 있다.

수원향교는 경기도유형문화재 제1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현재 전교(典校) 1명과 장의(掌議) 여러 명이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매년 방학 때는 지방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충효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여주향교(驪州鄕校)

여주지역은 예로부터 남한강의 수운(水運)문화가 발달하여 인재들이 많이 양성되었다. 따라서 조선 건국 직후에 현재 여주읍 상리 마암(馬巖) 근처에 여주향교가 건립되었다.

임진왜란 때에 여주향교가 타버린 후 1685년 여주읍 흥문리의 잣나무 고개에 다시 건립하였다. 그런데 그 후부터 마을 백성들이 자주 괴질에 희생되고 풍수상 불길하다 하여 교리(校里) 현 위치로 이전하여 건축하였다.

현존하는 건물로는 5칸의 대성전, 8칸의 명륜당, 내삼문, 각 8칸의 동무와 서무 등이 있다. 대성전에는 중국의 5성·10철·송조6현과 우리나라의 18현의 위패를 봉안하고 있다. 동·서무는 정면 3칸, 측면 1칸의 익공계 맞배집(박공집)인데 대성전의 옆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익공계의 형태와 가구 수법으로 미루어 대성전과 함께 18세기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시대에는 국가로부터 토지와 전적·노비 등을 지급받아 교관 1명이 정원 30명의 교생을 가르쳤으나, 갑오개혁 이후 신학제 실시에 따라 교육적 기능은 없어지고 봄·가을에 석전(釋奠)을 봉행하며, 초하루·보름에 분향하고 있다.

여주향교는 강학공간이 명륜당으로만 축소되어 규모가 크지 않으나 건물들은 부재의 형태나 결구법에서 지역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 향교는 경기도문화재자료 제3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현재 향교의 운영은 전교 1명과 장의 6, 7명이 담당하고 있다.



| 수원향교 대성전 |

5. 경기도의 성곽

경기도 지역은 남북과 동서의 문화가 교차하는 지역임과 동시에 1,500년 이상 국가의 중심지역인 도성과 그 주변지역으로서 역사의 중심 무대였다. 오늘날의 경기도는 조선시대 한양도성(漢陽都城)을 중심으로 설정된 것이지만, 고려시대 개경

중심의 경기가 그 중심적 위치를 넘겨준 것이었으며, 고려가 후삼국을 통일한 것도 이 지역을 중심적 위치로 기반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역대의 국가들은 경기지역에 다양한 성곽을 축성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지역은 시대의 변화에 따른 축성기법이 도입되었고, 산성(山城)과 평지성(平地城) 등 지형에 따른 성곽들이 나타났다. 결국 경기지역의 성곽은 곧 우리 역사 전반에 걸쳐 축성되는 수많은 성곽의 대표라고 할 수 있으며, 가장 우수한 성곽들 대부분이 경기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화성(華城)



| 팔달문 | 화성의 4대문 중 남쪽 대문으로 보물 제402호이다.

1997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화성은 조선 성곽문화의 백미이자 군사건축물의 모범이기도 하다. 화성은 조선 왕조 제22대 정조대왕이 아버지 사도세자(思悼世子)의 능침을 배봉산에서 조선 최대의 명당인 수원의 화산으로 천봉하고 화산부근에 있던 읍치를 수원의 팔달산 아래 지금의 위치로 옮기면서 축성되었다.

화성은 정조의 효심이 축성의 근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봉당정치 근절과 강력한 왕도정치의 실현을 위한 원대한 정치적 포부가 담긴 곳이다. 또 수도 남쪽의 국방요새로 활용하기 위해 건립되었다.

화성은 정약용(丁若鏞)의 기본설계서인 『성설(城說)』에 기초하여 수원의 중심부에 있는 143m의 팔달산 동쪽에 자리 잡았다. 동쪽과 서쪽은 자연지형을 그대로 이용하고 북쪽과 남쪽은 평지에 성을 쌓아 올렸다. 축성은 김종서(金宗瑞)·유성룡(柳成龍)·유형원(柳馨遠) 등의 성제를 연구한 바탕 위에 중국 성제의 벽돌 사용과 같은 장점을 채택하였다. 축성에 참여한 인부들에게는 일한 만큼 돈을 지불하는 성과급제를 시행하였고 문루, 도로, 수문, 교량, 연못, 식목사업 등 도시기반시설을 마련하고 저수지인 만석거(萬石渠)를 건설하고 둔전(屯田)을 경영함으로써 산업기반시설도 완비하였다. 이후 1799년 저수지 축만제(祝萬堤: 서호)를 축조함으로써 우리나라 과학영농의 중심지가 되게 하였다. 또한 종로를 중심으로 상업자본을 유치하여 수원은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상업 중심지가 되었다.

총 공사기간은 10년을 계획하였으나 34개월(1794. 1~1796. 9)로 단축하였는데,

유형거(高澗)

정약용의 건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수레의 일종. 짐을 싣고도 경사지를 쉽게 올라갈 수 있어서 석재·전돌·목재 등을 운반하는데 편리하고 바퀴가 튼튼한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보통의 수레 100대로 324일 걸려서 운반할 짐을 이 유형거로는 70대를 사용하여 154일에 나눌 수 있었으므로 공기단축은 물론 인력과 재용 절약에도 큰 보탬이 되었다.

거중기·녹로·유형거 등의 과학기기를 이용한 점과 인부들에게 성과급제로 인한 동기부여를 한 결과라고 하겠다.

축성 후 1801년에 발간된 『화성성역의궤(華城城役儀軌)』에는 축성계획, 제도, 법식뿐 아니라 동원된 인력의 인적사항, 재료의 출처 및 용도, 예산 및 임금계산, 시공기계, 재료가공법, 공사일지 등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그러므로 성곽축성 등 건축사에 큰 발자취를 남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역사적 가치가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상세한 기록이 있었기에 일제시대와 6·25전쟁에서 폭격으로 파괴된 화성을 1970년대 후반 복원할 수 있었다.

성의 둘레는 5,744m, 면적은 130ha로 동쪽지형은 평지를 이루고 서쪽은 팔달산에 걸쳐 있는 평산성의 형태로 성의 시설물은 문루 4, 수문 2, 공심돈 3, 장대 2, 노대 2, 포(鋪)루 5, 포(砲)루 5, 각루 4, 암문 5, 봉돈 1, 적대 4, 치성 9, 은구 2등 총 48개의 시설물로 일곽을 이루고 있으나 이중 수해와 전란으로 7개 시설물(수문 1, 공심돈 1, 암문 1, 적대 2, 은구 2)이 소멸되고 4개 시설물이 현존하고 있다.

화성은 평산성(平山城)의 형태로 군사적 방어기능과 상업적 기능을 함께 보유하고 있으며 시설의 기능이 가장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며, 실용적인 구조로 되어 있다.

성벽은 외측만 쌓아올리고 내측은 자연지세를 이용해 흙을 돋우어 메우는 외축내탁의 축성술로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성곽을 만들었다. 특히, 당대학자들이 충분한 연구와 치밀한 계획에 의해 축성하였기 때문에 그 건축사적 의의가 매우 크다.



| 화성 공심돈 |

남한산성(南漢山城)

남한산성은 세계문화유산 잠정 목록에 등록되었을 만큼 성곽사(城郭史)에 있어 가치가 큰 문화재다. 역사적 측면만 생각하여 병자호란(丙子胡亂) 당시 조선의 국왕 인조(仁祖)가 남한산성에서 하산하여 삼전도(三田渡)에서 청(淸) 태종에게 항복을 하였던 치욕의 현장으로만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남한산성은 단순히 굴욕의 역사로만 평가받을 산성이 아닌 우리 건축사에 있어서 매우 뛰어난 성곽으로 인식되



| 남한산성 동문 |

어야 한다.

광주시 중부면 산성리에 있는 남한산성은 사적 제57호로 광주시와 하남시, 성남시에 걸쳐 있으며 성 내부는 광주시 중부면 산성리에 속해 있다. 남한산성이 위치한 광주시는 약 80%가 산이며 나머지 20%가 평야부에 속하는 경작지이다. 높고 낮은 산이 많으며 좁고 긴 하천이 한강을 향하여 북 또는 북동쪽으로 흐른다.

남한산성은 “백제 온조왕 13년에 산성을 쌓고 남한산성이라 부른 것이 처음”이라고 『고려사(高麗史)』와 『세종실록(世宗實錄)』 지리지에 기록되어 있다. 한강과 더불어 남한산성은 삼국의 패권을 결정짓는 주요 거점이었다. 백제가 하남위례성에 도읍을 정한 이후 백제인들에게 있어서 남한산성은 매우 중요한 방어처였다.



! 남한산성 송렬전 | 백제 시조 온조를 모신 사당이다.

남한산성 안에 백제의 시조인 온조대왕을 모신 사당인 송렬전(崇烈殿)이 자리잡고 있는 연유도 이와 무관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이후에도 남한산성은 행정과 군사 부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지속하였다. 최근 남한산성행궁 복원을 위한 발굴을 실시하였는데 정면 14칸(53.5m), 측면 4칸(17.5m) 규모의 통일신라시대 대형건물지에서 길이 64cm 내외, 두께 4~5cm, 무게 19kg에 달하는 초대형 기와 350여 점이 출토되었다.

남한행궁지에서 발견된 일부 기와는 ‘甲辰年 末村主’(갑진년 말촌주), ‘天主’(천주) 등의 명문이 새겨 있다. 이는 이 건물지가 『삼국사기』에서 672년(문무왕 12)에 축조했다고 기록한 주장성(畫長城)과 관련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곳에서 채취한 목탄 시료를 탄소연대 측정하고, 인화문토기 조각 등 출토유물과 제작기법 등을 분석한 결과 성의 축조시기는 대략 7세기 후반~10세기 전반으로 추정되었다.

이 대형 건물지는 처음에는 신전(神殿)으로 추정되었으나 군수품을 보관하는 창고로 판명되었다. 이 대형건물지는 벽체 두께가 2m나 되기 때문에 최대 20kg에 이르는 암키와나 15kg에 달하는 수키와를 올려 지붕을 쌓는다 해도, 그 하중을 견딜 수 있다. 이렇게 벽체를 두텁게 하고 대형기와를 올린 것은 유사시 적군이 쏜 불화살 공격에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으며, 나아가 벽체나 지붕을 통해 침입하려는 적을 지연시키거나 막을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다. 이처럼 남한산성은 한강유역을

장악하기 위한 백제와 신라의 대결구도에서 매우 중요한 정치적·군사적 요충지였으며 통일신라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신라의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로 유지되었다.

그 후 조선시대 들어와 신라 문무왕 때 쌓은 주장성의 옛터를 활용하여 1624년(인조 2)에 성을 쌓았다고 한다. 『남한지(南漢誌)』에 따르면, 원래 심기원(沈器遠)이 축성을 맡았으나 부친상으로 인하여 이서(李曙)가 총융사(摠戎使)가 되어 공사를 시작, 1626년(인조 4) 7월에 끝마쳤다고 한다. 남한산성의 축성은 대부분 승려들이 하였다.

공역을 담당했던 승군들 대부분은 그대로 성에 남아 승려 벽암(碧巖) 각성(覺性)을 도총섭(都摠攝)으로 한 항마군(降魔軍)으로 개편되어 성을 수비했다. 지금 산성안의 사찰들이 바로 항마군이 수행과 군사훈련을 겸하던 도량이다. 남한산성이 완공되면서 이미 있던 망월사·옥정사 이외에 개원사·한홍사·국청사·장경사·천주사·동림사·동단사 등 7개의 사찰이 건립되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찰들이 폐사되었으나 근래에 국청사·망월사·장경사 등이 세워졌다.

석축으로 쌓은 남한산성의 둘레는 약 8km로 15만 9,859평이나 된다. 축성기법은 조선시대 산성의 축성법인 자연석을 써 큰돌을 아래로, 작은 돌을 위로 쌓았다. 동서남북에 각각 4개의 문과 문루, 8개의 암문을 내었으며, 동서남북 4곳에 장대가 있었다. 남한산성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도 매우 드문 산성도시(山城都市)로 평가를 받아 2010년 1월에 세계문화유산 잠정목록으로 등재되었다. 경기도는 남한산성을 세계유산으로 등재시키기 위하여 고증에 따른 체계적 발굴과 복원 사업을 추진하였다.

남한산성의 핵심 공간인 남한행궁을 2012년 5월 24일 최종 복원하였으며, 이날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위원회를 결성하였다. 세계문화유산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세계문화유산 등재신청서를 작성하여 2013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 제출하였다. 현재 유네스코에서 심의 중에 있으며 2014년 6월말 제38차 세계유산 위원회에서 남한산성을 세계유산으로 결정될 예정이다.



| 남한산성 행궁 | 근래에 발굴조사를 한 후 복원하였다.



| 남한산성 성벽 |



1. 남문지
2. 저수지
3. 장방형건물지
4. 9각 건물지
5. 12각 건물지
6. 장방형 건물지
7. 장방형 부석건
8. 저수지
9. 장방형 건물지
10. 동문지
11. 9각 건물지
12. 장방형 건물지
13. 8각 건물지
14. 북문지
15. 장방형 건물지
16. 장방형 건물지
17. 서문지

| 이성산성 안내도 |

이성산성(二聖山城)

경기도의 성곽 중에서 고구려 양식을 받아들여 신라인들에 의해 쌓여진 가장 대표적인 산성이 바로 하남의 이성산성이다. 이성산성은 사적 제422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하남시 춘궁동·초일동·광암동의 분기점이 되는 이성산(209.8m) 정상과 남동쪽 골짜기를 감싸안은 포곡식(包谷式) 석축산성(石築山城)이다. 남쪽으로는 춘궁동과 교산동 등 비교적 넓은 평야지역이 남한산성에서 뺏어 내려온 금암산

과 객산 등으로 둘러싸여 분지를 이루고 있으며, 동쪽으로는 검단산이 가로 막혀 있다. 한편 북쪽으로는 한강 유역의 넓은 지역을 조망할 수 있고, 서쪽으로는 시야가 트여 있어 아차산(峨嵋山) 일대와 풍납토성, 몽촌토성 일대가 넓게 조망된다.

이와 같이 천혜의 지리적 위치에 축성된 이성산성 주위에는 보물인 춘궁리 삼층석탑과 오층석탑, 교산동 약사여래좌상 등 중요한 문화유산들이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이 지역이 삼국시대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한강 유역의 경기지역 일대가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중심지였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한강과 남한산으로 이어지는 이성산성 성벽의 높이는 4~5m이고, 둘레는 1,925m이다. 성내의 건물지에서는 장방형 건물 3동을 비롯해 8각, 9각, 12각 등 다각형 건물이 각각 1동씩 있다. 또 이성산성은 남한산 일대에서는 나지 않는 화강암을 강 건너에서 신고 와 약 2km나 되는 둘레를 옥수수 알처럼 표면을 다듬어 성을 쌓았다. 성들의 표면까지 조각품처럼 손질한 것은 고구려 성곽의 특징을 신라인들이 계승하여 만든 것으로 여겨진다. 더불어 S자 모양의 곡선을 이중으로 굽어지게 한 성벽의 모양은 우리 성곽사에 있어 곡선미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이성산성 안에서는 3차 저수지까지 발견되고 있는데 현



| 이성산성 성돌 |



| 이성산성 안 저수지 사진 |

재에 있는 저수지는 약 430㎡로 2차 저수지에 해당한다. 특히 1차 저수지의 규모는 992㎡ 정도로, 저수지의 규모가 큰 것으로 보아 많은 거주자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인위적으로 부러뜨려 놓은 토제(土製)·철제마(鐵製馬) 등이 발견된 것으로 보아 신앙유적 또한 풍부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성산성은 다른 산성과는 달리 규모에 비해 많은 대형 건물들이 확인되었다. 또한 2차에 걸친 대대적인 축성이 이루어졌음이 확인되어 6세기 중엽 신라가 한강 하류지역을 장악하고 설치한 신주(新州)의 읍성으로 축성되었다가, 이후 7세기 중엽 한산주(漢山州)의 읍지로 기능하였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북한산성(北漢山城)

북한산성은 고양시 덕양구 북한동에 있는 백제시대의 산성으로 사적 제162호로 지정되어 있다. 산성은 원효봉·영취봉·용혈봉·미륵봉 등 험준한 봉우리를 이어 구축한 포곡식 산성으로 축성되었으며, 체성의 둘레는 8.4km, 전체 길이는 9.73km이다. 성벽은 비교적 낮은 지대부터 해발 700m 이상되는 지점까지 축조되었으며, 현재 대서문(大西門)이 남아 있고 장대지(將臺址)·우물터·건물터로 추정되는 방어시설의 일부가 있다.



북한산성 중성문 | 고양시 덕양구 북한동

북한산성이라는 이름은 삼국사기에 이미 나타날 정도로 군사적 요충지였다. 백제가 위례성에 도읍할 때 도성을 지키는 북방의 성으로 132년(개루왕 5)에 축조한 것이다. 여기서 백제의 주력군이 고구려의 남진을 저지하였고, 근초고왕의 북진정책에 따라 북정군(北征軍)의 중심요새가 되었다.

그러나 고구려의 광개토왕(廣開土王)의 뒤를 이은 장수왕(長壽王)은 북한산성을 포위, 함락시켜 475년(개로왕 21) 왕을 죽이고 백제의 도성을 유린하였다. 이로 인하여 백제는 공주의 웅진성으로 도읍을 옮기고 신라와 힘을 합쳐 고구려의 남진을 막았다. 그러나 553년(진흥왕 14) 신라는 백제와의 동맹을 깨고 백제의 영토인 한성지역을 점령하였다. 진흥왕(眞興王)의 북한산순수비(北韓山巡狩碑)는 이 시기를 전후하여 세워진 것이다.

603년(진평왕 25) 8월 고구려 장군 고승(高勝)이 신라의 북한산성을 포위하자 진평왕(眞平王) 자신이 1만의 군사로써 이를 구원하였다. 또한 661년(태종무열왕



북한산 신라 진흥왕 순수비 | 비는 모형이고 원비는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8) 5월에는 고구려 장군 뇌음신(惱音信)이 말갈인 장군 생해(生偕)와 함께 20여일 간 포위하여 쌍방간에 치열한 공방전이 전개되었다. 이때 성주 동타천(冬陀川)은 2,800명의 군민과 함께 필사적으로 이 성을 방어하였다. 특히 이 전투는 신라가 백제를 멸망시키고 백제부흥군의 도전을 받고 있던 때이므로 만약 고구려에게 함락되었다면 신라의 삼국통일 계획에 큰 변화를 초래하였을 것이다.

11세기 초 거란의 침입이 있자 현종은 고려 태조의 재궁(梓宮 : 유해를 모신 관)을 옮겨오고 증축하였다. 1232년(고종 19) 이곳에서 몽고군과의 격전이 있었고, 1387년(우왕 13) 개축하였다.

조선시대에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등의 외침을 자주 당하자 비상시에 국왕이 안전하게 이어(移御)할 보장처를 만들어야 한다는 논의에 따라 축성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에 1659년(효종 10) 송시열(宋時烈)에게 명하여 수축하게 하고 1711년(숙종 37) 왕명으로 대대적인 축성공사를 하여 둘레 7,620보의 석성이 완성되었다. 성의 규모는 대서문·동북문·북문 등 13개의 성문과 시단봉 위에 동장대, 나한봉 동북에 남장대, 중성문 서북에 북장대가 있었다.



중흥사지

북한산성에는 처음에는 경리청(經理廳)을 두었다가 1747년(영조 23)에는 총융청(摠戎廳)에 속하여 관리하게 하였다. 또한 이듬해에 상원봉 아래 130칸의 행궁과 140칸의 군량미 창고를 건축하였다. 성내에는 승군을 위한 136칸의 중흥사를 비롯한 12개의 사찰이 있고, 99곳의 우물과 26곳의 저수지가 있었다.

현재의 북한산성은 삼국시대의 토성이 약간 남아 있기는 하나 대개 조선 숙종 때 쌓은 것으로 성곽의 담장은 허물어졌으나 성체는 잘 남아 있다.

행주산성(幸州山城)

고양시 덕양구 행주내동의 덕양산에 있는 삼국시대의 산성으로 사적 제56호로 지정되어 있다. 덕양산은 서울 도성의 터를 정하던 무학대사(無學大師)가 서울의 풍수에 있어 매우 중요한 곳으로 인정한 곳으로 서울 외사산(外四山)의 하나였다. 특히 덕양산은 해발 125m에 불과하지만 한강 옆의 평야지대에 우뚝 솟아 있어 그 어느 산성보다 중요한 곳이었다.

행주산성은 둘레가 약 1,000m로 그리 크지 않으나 강안(江岸)의 돌출된 산 봉우리를 택하여 산 정상부를 에워싼 소규모의 내성(內城)과 북쪽으로 전개된 작은 골짜기를 에워싼 외성(外城)의 이중 구조를 하고 있다. 정확한 축성연대와 목적은 알 수 없으나, 강안의 험한 절벽을 이용하고 동·북·서로 전개된 넓은 평야를 감싸안고 있는 것은 삼국시대 초기의 산성형식과 부합된다.

현재 성벽은 산 정상부의 동남쪽 사면과 외성부의 동북쪽 성벽뿐이며, 서쪽 방면은 내성은 확인되나 외성 성벽은 육안으로 식별하기가 어렵다. 성벽은 내성의 경우 정상부를 깎아내어 다듬은 뒤에 둘레 약 250m 정도의 토루(土壘)를 형성하고 있으며, 정상에서 동북쪽의 산등성이를 따라 외성의 자취가 남아 있는데, 이 외성은 자연능선을 이용하여 양쪽에서 석심을 두고 판축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행주산성은 1593년(선조 26) 권율(權擥)의 전적지로서 한산도대첩, 진주대첩과 함께 임진왜란 3대첩지의 하나로도 유명하다. 권율은 도성 탈환을 위해 승장 처영(處英)의 의승군과 연합해 한강 유역의 요충지인 행주산성에 1만여 명의 대군을 집결시켰다. 이들은 활·칼·창 이외에 화차·수차석포 등 특수 무기를 만드는 한편, 일본군의 조총에 대비해 흙으로 성곽의 담장을 쌓았다.

2월 12일 새벽 일본군은 3만여 명의 대군을 7개 부대로 나눠 고니시·이시다·구로다 등으로 하여금 지휘하게 해 성을 포위·공격했다. 권율을 비롯한 성 안의 관군과 의승군은 화차·수차석포·진천뢰·총통 등을 쏘아대며 용감히 맞섰고 권율은 직접 물을 떠 나눠주며 병사들의 사기를 북돋웠다. 화살이 다 떨어지자 차고 있던 재를 뿌리고 돌을 던지며 싸웠고 관·민과 남·여를 가리지 않고 모두 참여했다.

마침 경기수사(京畿水使) 이빈(李蘋)이 화살을 갖고 한강을 거슬러 올라



행주산성 권율 동상 | 고양시 덕양구 행주내동



행주대첩비 |

알아두기 행주치마 이야기

‘행주치마’는 여자들이 일할 때 치마(옛적의 새하얀 ‘롱스커트’를 말한다)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 그 위에 덧입는 작은 치마를 말한다. 그리고 ‘행주’란 그릇을 훔치거나 씻을 때 쓰는 헝겊을 말하는데, ‘행주치마’는 이러한 용도(用度)를 겸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으로 추정된다.

‘행주치마’의 어원(語源)은 행주대첩(幸州大捷)으로 유래되었다는 설이 있다. 당시 항전(抗戰) 시 부녀자들이 긴 치마를 잘라 짧게 만들어 입고, 돌을 날라 적에게 큰 피해를 입힌 데서 이때의 앞치마를 ‘행주치마’라 했다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다.

한편 이것은 행주산성(幸州山城)의 ‘행주’와 행주치마의 ‘행주’가 음(音)이 같은 데 근거하여 만든 이야기에 불과하다는 설도 있다. ‘행주치마’는 ‘행(·)자(·)초마’ 또는 ‘행(·)자(·)치마’라 불리어 오던 것으로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부터 있었던 말이고 물건이라는 것이다. 행주대첩 때 화살이 떨어져 여자들이 치마로 돌을 운반해줬다는 이야기 자체가 근거가 없다는 주장도 있다.

와 일본군의 후방을 칠 기세를 보이자, 이미 큰 피해를 입은 일본군은 사방의 시체를 불태우면서 도망치기 시작했다. 권율은 도망하는 적들을 추적해 130여 명의 목을 베고 총사령관 우키타와 이시다 등 일본군 장수에게 부상을 입혔으며, 갑옷·창·칼 등 많은 군수물자를 노획했다. 이 전투가 아니었다면 일본군의 위력이 다시 평양을 재점령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에 역사적 의의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성안에는 1603년에 세운 행주대첩비와 1963년에 다시 세운 대첩비가 있다. 1970년에 대대적인 정화작업을 벌여 권율을 모시는 충장사(忠莊祠)를 건립하고 정자와 문도 세웠다.

6. 경기도의 왕릉



| 현릉 | 태종의 능

조선시대 왕릉(王陵)은 국가의 권위와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총체적 역량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공간이다. 왕릉은 그 시대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지만 조선시대 왕릉은 이전의 시대와 다르게 화려하거나 웅장하지 않으면서 성리학에 담겨있는 검소함이 엿보인다. 조선의 국왕들은 선대왕들의 능을 행차하면서 백성들의 생활상을 파악하여 위민정책을 추진하였고, 왕릉 가는 새로운 도로를 개설하면서 교통로의 다양성을 추구하고 상업을 활성화시키기도 하였다.

왕릉은 하나를 완성하는 데 1만 명 이상이 수개월씩 작업을 해야 한다. 또한 임금의 관을 실은 대여의 발인 행렬도 수천 명이 된다. 태종의 국상 때 현릉으로 가는 발인 행렬에 참가한 수는 무려 9천 명이었다고 한다. 이처럼 국상(國喪)은 단순히 왕실의 행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왕실의 권위와도 관련되기 때문에 다른 일과는 달리 비교가 안될 정도로 장엄하고 중요하게 다루어졌다. 더욱이 그 기간이 한정되어 있고 일시에 많은 인력과 물자의 동원을 수반하기 때문에 사회·경제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국상의례는 단순히 예(禮)의 범주를 넘어 유교적 정부의 표방이자, 통치 능력을 과시하는 수단이 되었다.

조선시대의 왕릉은 27대 왕과 왕비 혹은 계비(繼妃), 그리고 추존된 왕들을 포함해 전체 42기의 능이 구성되어 있다. 이 중 태조의 비 신의왕후의 제릉(齊陵)과 정종과 비 정안왕후를 모신 후릉(厚陵)은 북한의 개성시에 있다. 또한 강원도 영월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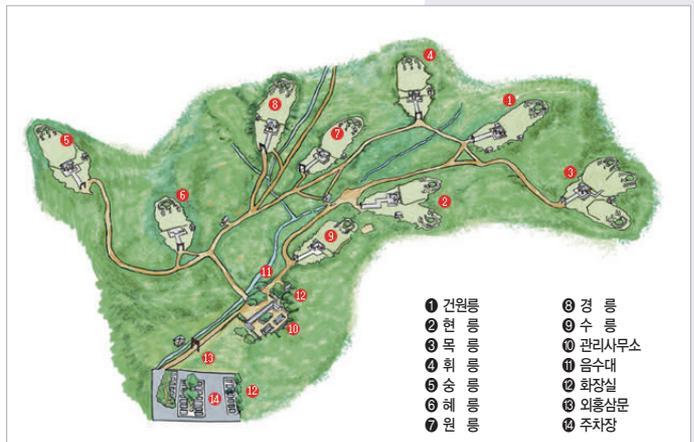
조성된 단종의 장릉(莊陵)과 서울의 선정릉(宣靖陵), 헌인릉(獻仁陵), 의릉(懿陵), 정릉(貞陵)을 제외하고는 모두 경기도에 존재한다. 따라서 경기도는 가히 왕릉의 고장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구리시의 동구릉(東九陵)이나 고양시의 서오릉(西五陵), 서삼릉(西三陵)은 왕릉군(王陵群)을 이루고 있는 왕릉의 보고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조선 왕릉’ 40기 전체는 2009년 6월 26일 스페인 세비야에서 열린 제33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다. 유네스코는 조선 왕릉이 유교적(儒教的)·풍수적(風水的) 전통을 근간으로 한 독특한 건축과 조경양식으로 세계유산적 가치가 충분히 인정되며 지금까지 제례의식(祭禮儀式) 등 무형의 유산을 통해 역사적인 전통이 이어지는 점, 조선 왕릉 전체가 통합적으로 보존·관리 되는 점 등이 세계유산이 되기에 손색이 없다고 평가하였다. 조선 왕릉은 이제 한국인만의 유산이 아닌 세계인의 유산으로 그 가치가 상승했다. 왕릉의 대다수인 31기를 보유한 경기도는 이를 문화 아이콘(icon)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조선왕릉문화관광자원화 방안’을 적극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와 구리시는 동구릉의 문화적 가치를 알리기 위해 매년 5월 어가 행렬을 재현하고 있다.

동구릉(東九陵)

사적 제193호로 지정된 구리시에 위치한 동구릉은 조선조 초대 태조의 건원릉(健元陵)이 조성되면서 왕릉군의 면모를 갖추기 시작하였다. 태조의 건원릉 선정은 태조가 생전에 무학대사를 시켜 길지를 택하라는 명에 의해 이곳을 결정했다는 전설도 있으나 실제로 태종의 명으로 도성 가까운 곳에서 길지를 물색하다가 의정부사 김인귀(金仁貴)의 추천으로 결정되었다. 하지만 그 후 총 9개의 능에 17위의 왕과 왕후를 모신 것으로 볼 때 현재 59만 평의 광대한 동구릉의 경내가 풍수학 상으로 길지임은 자명한 일이다.

동구릉에서 가장 중요한 능은 단연코 태조의 건원릉이다. 건원릉은 고려 왕릉 중 가장 화려하고 잘 정비된 경기도 개풍군에 있는 공민왕과 노국공주의 현정릉(玄正陵)양식을 따랐으며 이후 조선 왕릉제도의 표본이 되었다.



동구릉 안내도 | 문화재청 사이트

유네스코(UNESC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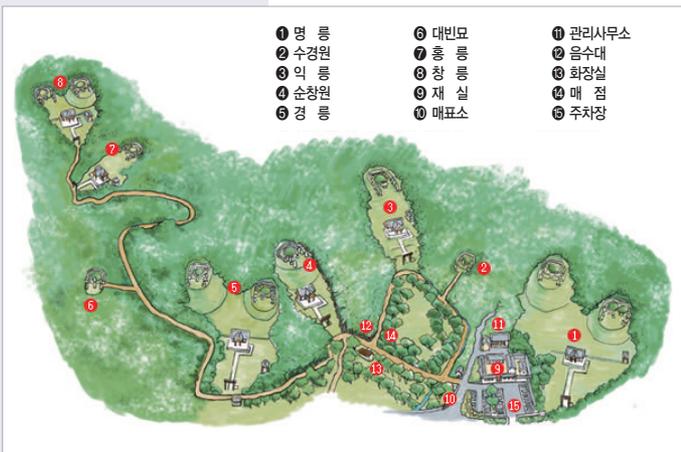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 기구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의 약칭이며 1946년 국제연합의 특별 전문 기구로서 창설되었다. 유네스코 헌장에 명시된 국민간의 상호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모든 필요한 국제 협력, 대중 교육과 문화 보급 촉진 및 장려, 지식 유지·증대·전파 등을 활동 범주로 규정하고 있다. 본부는 프랑스 파리에 있다.

건원릉은 다른 왕릉들과는 달리 봉분에 갈대를 입혔는데, 이는 고향인 함경도 영흥을 그리워하며 그곳의 갈대로 자신의 봉분을 덮어 달라고 한 태조 이성계(李成桂)의 유언을 태종이 따랐기 때문이라고 한다. 건원릉에는 태조의 업적을 기록한 신도비가 세워져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왕릉의 신도비는 건원릉의 태조 신도비와 서울의 내곡동 대모산 기슭에 자리잡은 현릉의 태종 신도비뿐이다.

건원릉의 기본 능제는 전체적으로 고려 공민왕의 현릉을 따르고 있으나 세부적으로는 석물의 배치와 장명등의 조형 등에서 일정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봉분 주위로 곡장을 두르는 방식은 조선시대의 능제에서 새롭게 추가된 것이며, 석물의 조형은 남송(南宋)말기의 중국풍을 많이 따르고 있다.

동구릉에 있는 9곳의 능은 아래와 같다.

- 건원릉(健元陵) - 초대 태조 [단릉(單陵)]
- 현릉(顯陵) - 5대 문종과 비 현덕왕후 권씨 [동원이강릉(同原異岡陵)]
- 목릉(穆陵) - 14대 선조와 비 의인왕후 박씨, 계비 인목왕후 김씨 [동원이강릉(同原異岡陵) 변형]
- 숭릉(崇陵) - 18대 현종과 비 명성왕후 김씨 [쌍릉(雙陵)]
- 휘릉(徽陵) - 인조(16대)의 계비 장렬왕후 조씨 [단릉(單陵)]
- 혜릉(惠陵) - 경종(20대)의 비 단의왕후 심씨 [단릉(單陵)]
- 원릉(元陵) - 21대 영조와 계비 정순왕후 김씨 [쌍릉(雙陵)]
- 경릉(景陵) - 24대 헌종과 비 효현왕후 김씨, 계비 효정왕후 홍씨 [삼연릉(三連陵)]
- 수릉(綏陵) - 추존 익종과 비 신정왕후 조씨 [합장릉(合葬陵)]



서오릉(西五陵)

고양시 덕양구에 있으며 사적 제198호이다. 도성 서쪽에 5개의 능이 있다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5릉(경릉·창릉·익릉·명릉·홍릉), 2원(순창원·수경원), 1묘(대빈묘)가 있다. 경기도에서는 구리의 구릉 다음으로 큰 묘역이다. 경릉은 덕종과 소혜왕후 한씨(인수대비), 창릉은 예종과 계비 안순왕후 한씨,

익릉은 숙종의 원비 인경왕후 김씨, 명릉은 숙종과 계비 인현왕후 민씨와 제2계비 인원왕후 김씨, 홍릉은 영조의 원비 정성왕후 서씨의 능이다. 또 순창원에는 명종의 만아들 순희세자와 그의 부인 윤씨가, 수경원에는 사도세자의 어머니 선희궁 영빈 이씨가, 대빈묘에는 경종의 어머니 희빈 장씨가 묻혀 있다. 창릉(昌陵)의 주인공인 예종(1450~1469)의 재위 기간은 1468~1469년이다. 세조와 정희왕후와의 사이에 둘째 아들로 태어나, 형이었던 의경세자가 18세에 죽자, 1457년(세조 3) 세자로 책봉되었고 1468년 9월 7일 19세의 어린 나이에 왕위를 이어 받았다. 성년이 되지 않아 모친 정희왕후가 수렴청정을 하였으나 재위 1년 2개월 만에 요절하였다. 짧은 재위 기간 동안 각도의 병영에 속한 전담인 둔전을 일반 농민이 경작하게 하여 백성들을 경제적 곤궁에서 벗어나게 하는 등의 업적을 세웠다.

명릉(明陵)의 숙종(1661~1720)은 재위기간이 1674~1720년이다. 1661년 현종과 명성왕후의 원자로 태어났다. 1667년(현종 8) 세자로 책봉되었고, 현종이 승하한 1674년(현종 15)에 즉위하였다. 재위 기간은 46년으로 재위 기간 중 붕당 간의 정쟁이 극에 달하였다. 숙종 즉위 당시 정권을 장악하고 있던 남인은 1680년 경신환국(庚申換局)을 통해 대거 실각하였고, 남인을 물리치고 실세를 얻은 서인은 다시 노론과 소론으로 나뉘어 대립하였다. 당시 숙종은 아들이 없었는데, 숙종의 총애를 받던 소의 장씨(장희빈)가 아들을 낳았다. 남인은 이를 기회로 삼고자 소의 장씨의 아들을 원자로 추대하였고, 이에 반대하는 노론의 무리들을 처결, 다시 정권을 잡게 되었으니 이것이 기사환국(己巳換局)이다. 숙종은 이러한 붕당의 소용돌이 속에서 대동법(大同法)을 전국에 확대 실시하여 백성들의 부담을 덜고, 상평통보(常平通寶)를 주조하는 등 많은 업적을 쌓았다.

명릉은 숙종의 명에 의해 간소하게 조영하였는데, 이는 조선 능제의 분수령을 이루게 되었다. 8각 장명등도 4각으로



| 창릉 | 예종의 능



| 명릉 | 숙종의 능



| 서오름 홍릉 | 영조의 원비 정성왕후의 능

바뀌었으며, 능침에는 병풍석을 두르지 않았다.

홍릉(弘陵)은 영조의 비인 정성왕후의 뒷자리를 정하면서 능 오른쪽(바라보아 왼쪽)을 자신의 자리로 잡아놓으면서 쌍릉으로 예상하여 배치해 놓았으나 영조 승하 후 정조가 능의 위치를 동구릉에 정했으므로 한 쪽이 빈 채로 남아 있다. 병풍석이 없는 능침에 12칸의 난간석, 2쌍의 석양과 석호, 3면의 곡담, 4각의 장명등 옥개 등으로 이루어졌다.

영릉(英陵)

경기도의 왕릉 중에서 가장 품격 있는 왕릉을 꼽자면 세종(世宗)과 그의 비인 소헌왕후가 함께 묻혀있는 영릉일 것이다.

세종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조선조 4대 임금으로 1397년(태조 6년) 4월 10일 태종의 셋째 아들로 태어났다. 이름은 도(禔)요, 자는 원정(元正)이다. 1408년(태종 8) 11살에 충녕군으로, 4년 뒤에는 충녕대군으로 봉하였으며, 1418년(태종 16) 맏아들 양녕대군이 폐위되면서 세자로 책봉되었다가 그해 8월에 경복궁 근정전에서 왕위를 물려받아 즉위하였다. 세종은 침묵(沈默)하여 말이 적고 제왕의 품위를 지녔을 뿐 아니라 민족문화의 금자탑이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을 이루었다. 또한 개인적으로도 매사를 처리할 때 강하고 뚜렷한 주관을 가지고 있었으며, 또한 사물에 대한 관찰력과 분별력이 있었다. 그리고 효성이 지극하였다. 세종대왕은 우리 문화의 황금기를 만든 최고의 성군이라고 할 수 있다.

원래 세종과 세종비 소헌왕후가 안장된 영릉은 태종의 능이 있는 현릉(서울 강남구 내곡동)의 서쪽 언덕에 위치하였다. 그후 예종 즉위년에 이 자리가 풍수적으로 불길한 땅이라 하여 지금의 여주 영릉 자리로 이장하였던 것이다.

공교롭게도 태조를 비롯하여 태종·세종·문종 등은 왕비가 먼저 승하하였다. 그러다 보니 능도 먼저 조성하게 되었다. 세종은 소헌왕후가 1446년(세종28) 7월 19일 승하하자 “산릉제도는 마땅히 무덤은 같이 하고, 현실은 다르게



영릉 | 세종의 능



세종대왕릉 석물들 | 세종대왕 기념사업회

해야 한다”고 하며 동분이실(同墳異室)로 축조하도록 하였다. 즉, 능 하나에 봉분 속 석실은 둘로 하는 합장을 하도록 하여, 오른쪽 석실은 자신(세종)의 수릉으로 하게 하고, 왼쪽의 현실은 왕비 소현왕후 심씨를 안장하였다. 조선조에 있어 이러한 합장 형식은 영릉이 처음이다.

그러나 세조의 집권과정에서 세종의 자식들 상당수가 죽음을 당하자 영릉을 옮길 것을 논의하기에 이르렀다. 세조 때 한 번 논의가 있다가 세조가 승하한 뒤 예종이 즉위하면서 다시 영릉의 천장 문제가 거론되어 실행에 옮겼던 것이다. 즉 1469년(예종 원년) 2월 30일 세종이 승하한 지 19년 만에 구 영릉을 천장하기 위해 능을 팠다. 당초 천릉 작업은 부역꾼 5천 명과 석공 등 공장(工匠) 150명이 20일 동안 작업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여기에 소요된 식량은 쌀이 2,646가마 5말이고, 소금이 82가마 3말로서 여주에 보관 중인 것을 사용하였다. 하지만 능 이전 작업은 35일 동안 하였으니 실제 들어간 비용은 이보다 훨씬 많았다. 1469년 3월 6일 능 이전 작업 35일 만에 구영릉을 여주 영릉으로 옮겨 안장하였다. 이 때 상여군(喪輿軍)은 1천5백 명이었는데, 3교대로 하여 서울에서 여주까지 옮겼다.

영릉의 현실은 세조의 광릉의 예에 따라 석실(石室)에서 회격(灰隔)으로 바꾸었다. 현실을 석실로 할 경우 심지어 광중(擴中)의 작업에만 인부가 6천 명이 들어가나 회격으로 할 경우에는 인부의 수가 그 절반인 3천 명으로 줄게 된다. 이처럼 석실묘에서 회격묘로 묘제 변천은 엄청난 비용과 시간의 절감을 가져왔다.

능의 석물과 잡상은 강을 건너는 데 힘이 든다 하여 새로 제작하여 설치하였고, 옛 것은 보이지 않는 데다 묻어 버렸으나 현재 서울의 세종대왕기념관에 전시되어 있다. 그리고 지석(誌石)과 애책(哀冊), 명기(明器) 등도 오래되어 사용할 수 없어 사람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묻었다.

한편, 이곳에는 이름은 같으나 한자가 다른 영릉(寧陵)이 있는데, 조선 17대왕 효종과 정비 인선왕후의 능이다. 특이하게 왕릉과 왕비릉이 상하로 구성되어 있는 동원상하릉(同原上下陵)이다.

용건릉(隆健陵)

조선시대 왕릉의 대부분이 경기 북부지역에 자리잡은 데 비해 용건릉은 화성시 태안읍 안녕리에 조성되었다. 용건릉은 정조의 생부인 장조(莊祖 : 사도세자)와 그의 비 경의황후(혜경궁 홍씨)의 능인 용릉과 정조와 효의황후의 합장릉인 건릉(健

회격

하관(下官)을 한 후, 성분(成墳)을 할 때, 석회 등의 혼합물로 광중을 메우는 것을 말한다. 관과 내광(內壙)사이의 틈이나 내광(內壙)과 외광(外壙)의 사이를 석회:모래:황토를 3:1:1의 비율로 느릅나무 껍질 삶은 물로 섞은 것이다. 이것이 굳으면 시멘트보다 단단해진다 고 한다.

지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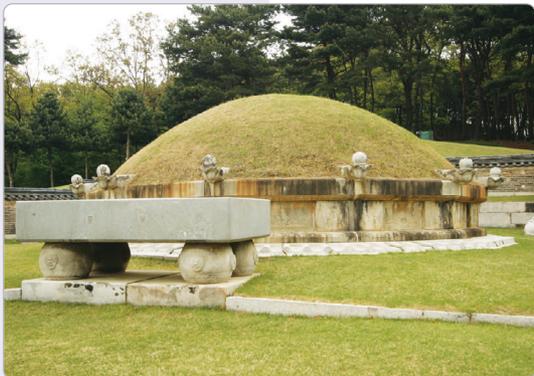
죽은 사람의 인적 사항이나 무덤의 소재를 기록하여 묻은 판석이나 도판. 조상의 계보, 생일과 죽은 날, 평생의 행적, 가족 관계, 무덤의 소재와 방향 등이 기록되며 무덤 앞이나 옆에 묻혀 있다.

애책

죽은 사람의 공덕을 기록한 책

명기

장사 지낼 때 죽은 사람과 함께 묻는 기명(器皿). 그릇, 악기, 생활 용구 따위의 기물을 무덤에 함께 묻으려고 실물보다 작게 상징적으로 만든다.



| 용릉 | 사도세자의 능

陵)으로 사적 제206호로 지정되어 있다.

용건릉은 왕실원찰인 용주사 인근에 조성되었으며, 현존하는 왕릉 중에서 가장 원형의 자연경관을 지니고 있다. 특히 용릉과 건릉에 있는 소나무는 정조시대 조성된 식목정책으로 심어진 나무로서 조경사에 있어 매우 의의가 있다. 정조는 장헌세자의 현릉원(용릉의 전 명칭)을 조성하고 그 일대에 소나무를 많이 심었다.

장조는 1735년(영조 11) 창경궁에서 탄생해 그 이듬해에 세자에 책봉되고, 1762년 28세 때 창경궁에서 죽었는데, 영조가 뒤에 사도(思悼)라는 시호를 내렸다. 그 뒤 정조가 즉위하자 장헌세자(莊獻世子)라 하고 고종 때 장조로 추존되었다가 1899년 의황제(懿皇帝)로 다시 추존되었다. 헌경의황후는 영의정 홍봉한의 딸로서 1744년 세자빈에 간택되었다가 세자가 죽은 뒤 1762년 혜빈(惠嬪)의 호를 받았다. 1776년(정조 즉위년) 아들 정조가 즉위하자 궁호가 혜경(惠慶)으로 올랐다.

용릉은 배봉산에 있었던 영우원(永佑園)을 수원의 옛 도읍 뒤의 화산으로 옮겨 현릉원(顯隆園)이라 하였다. 정조는 현릉원을 조성할 때 지극한 효심으로 전국에서 가장 뛰어난 장인들을 모아 온갖 정성을 기울였다. 그 결과 조선시대의 어느 왕릉보다도 후하고 창의적인 석물이 만들어졌으며, 이에 용릉은 조선후기 진경문화(眞景文化)의 표본으로 평가되고 있다.

용릉의 조형은 조선시대 왕릉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첫째로 봉분이 장릉(長陵)에서와 같이 목단·연화문을 새긴 병풍석을 두르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는 병풍석의 팔각 모서리에 특이하게 꽃봉오리 모양의 석물을 조각하였다. 셋째는 장명등이 조선전기의 팔각장명등과 숙·영조 연간의 사각장명등의 양식을 합하여 구름 무늬를 다리에 새겨넣었고, 대석(臺石)에는 꽃을 새겨넣어 새로운 양식을 창조하였다. 넷째는 병풍석 아래 지붕 모양의 돌기왓을 장식하여 장헌세자의 영혼이 비록 저승이지만 집안처럼 편안하게 살아가길 기원하였다. 다섯째는 당시 세자 신분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인석을 세워 화려한 조각을 하였다라는 점이다. 다만 정조는 세자의 원(園)을 조성할 때 사용되지



| 용릉 병풍석 |

않는 병풍석을 만들면서 “수교에 따라 난간석만은 쓰지 않겠다”고 하여 왕릉 제도 까지에 이르지 않는았다. 다만 세자의 원임에도 불구하고 역대 국왕의 왕릉보다 더 깊은 배려를 했음을 알 수 있다.

정조와 효의황후가 묻힌 건릉은 용릉의 서쪽 언덕에 위치해 있다. 문예군주 정조는 1752년(영조 28) 9월 22일 장헌세자의 둘째 아들로 태어나 1759년에 세손으로 책봉이 되고, 아버지 장헌세자가 비극적인 죽음을 당하자 영조의 맏아들인 효장세자의 후사가 되었다. 이후 1776년 영조가 승하하자 뒤를 이어 조선의 국왕이 되었다. 정조는 규장각을 설치하여 인재를 양성하고 학문을 장려하였으며, 탕평정책을 추진하여 정국을 안정시켰다.

새로운 개혁정책을 추진코자 국왕 친위도시를 건설하기 위하여 생부인 장헌세자의 묘소를 수원으로 옮기고 팔달산 인근에 수원신읍치를 건설, 화성을 축성하였다. 정조의 재위 기간 동안은 그의 학자적 소양에서 기인하는 문화정책의 추진과 선진문화인 청(淸)나라의 건륭문화(乾隆文化)의 수입이 자극이 되어 조선시대 문예부흥기를 이루었다고 평가되고 있다.



| 건릉 | 정조의 능

1800년 6월 28일 49세의 나이로 돌아가신 그는 처음의 유언대로 용릉 동쪽의 두 번째 언덕에 안장되었다. 이후 풍수지리상 좋지 않으므로 길지를 찾아서 천장해



| 건릉 무인석 |



| 건릉 문인석 |

야 한다는 주장이 있어 여러 길지를 물색하던 중, 정조의 비인 효의황후 김씨가 승하하자 1821년(순조 21) 현 위치로 천장되었다.

건릉은 정조의 검소함을 존중하여 용릉처럼 병풍석과 지붕석을 설치하지 않고 난간 석만 들렸으며, 나머지 양식은 용릉의 예법을 따랐다. 그래서 합장릉인데도 상석을 하나만 놓고, 장명등은 용릉의 것과 같이 꽃문양을 새겨 넣었다. 문인석과 무인석은 등신대에 가까우며, 사실적이며 안정감이 있는 빼어난 작품으로, 19세기

능석물제도(陵石物制度)의 새로운 표본을 제시하였다. 이 능의 보호와 관리를 위하여 영(令) 1인과 참봉 1인을 두었다.

홍유릉(洪裕陵)



| 홍릉 | 고종황제의 능

홍유릉은 고종황제와 순종황제의 능으로 조선 왕릉의 건립양식과 다른 황제의 예법을 따르고 있는 곳이다. 남양주시 금곡동에 위치하여 금곡릉(金谷陵)이라고 불리기도 하며 현재 사적 제207호로 지정되어 있다.

홍릉(洪陵)은 조선의 제26대 국왕이자 대한제국의 초대 황제이기도 했던 고종과 명성황후(明成皇后)의 능으로 새로운 양식의 능 제도로 이루어졌다.

능역 조성은 처음 명성황후가 1895년에 시해된 뒤 우여곡절을 겪고 동구릉 내에 숙릉(肅陵)으로 조성했다가, 대한제국 수립과 함께 서울 청량리로 옮겨 홍릉(洪陵)으로 조성하였다. 그 후 1919년에 고종이 승하하자 현재의 위치로 다시 천장해 합장릉의 형식을 이루게 된 것이다.



| 홍릉 석물 |

홍릉의 능제는 유릉(裕陵)과 함께 이전의 조선 왕릉 제도와 많이 다른 모습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고종이 대한제국의 황제로 승하했기 때문에 명나라 태조의 효릉(孝陵)을 본떠 황제릉으로 조성된 것이다. 즉 종래의 능원 앞의 정자각(丁字閣)을 대신해서 정면 5칸, 측면 4칸의 침전(寢殿)을 세웠고 봉분 주위에 있던 문인석·무인석과 석수(石獸)들이 아래로 내려와 침전 앞에 놓이게 되었다. 거대한 크기의 석인(石人)이 좌우로 도열해 있는데, 문인석이 금관을 쓰고 있는 모습이 특이하고 대체로 조선 왕릉 석인의

전통적인 방법으로 만들었다. 그 아래 양쪽의 석수들 역시 종래의 석인 뒤에 석마(石馬)만 세웠던 것과 달리 좌우의 문무인석과 같은 열로 홍살문까지 기린, 코끼리, 해태, 사자, 낙타, 말 두 마리의 순서로 세워놓았다. 봉분에는 화려한 병풍석을 감싸 장조의 용릉과 같은 연화(蓮花)와 모란무늬를 조각했고 난간석으로 둘레를 보호하고 있다.

상석 앞의 장명등은 사각 형식은 동일하나, 대석이 기존 방식과 다른 변화된 형태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홍릉의 새로운 능제는 조선이 망한 이후에 조성되어 종래의 왕릉 제도가 발전된 모습으로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를 것이다. 특히 석물들이 새로운 형태이기는 하나 웅장함이 떨어지는 아쉬움이 있다.

유릉(裕陵)은 조선 제27대 국왕이자 마지막 임금이며 황제인 순종과 순명효황후 민씨와 계후 순정효황후 윤씨를 모두 함께 합장한 능이다. 역시 고종의 홍릉과 함께 황제릉으로 이루어져 있다.

유릉의 조성은 처음 순명황후가 순종 즉위 전인 1904년에 황태자빈으로 승하해 서울 독섬 근처에 유릉으로 장사를 지냈는데, 순종이 승하한 후에 현재의 위치로 옮겨 합장을 했고 그 뒤 계후인 순정황후가 1966년에 승하하고 유릉에 함께 합장을 해서 지금에 이르고 있다.

능의 제도는 홍릉과 마찬가지로 종래의 정자각 대신 정면 5칸, 측면 4칸의 침전을 세웠고 그 앞에 양쪽으로 문무석을 세우고, 홍살문까지 기린, 코끼리, 해태, 사자, 낙타, 말 두 마리의 순으로 석수를 세워놓았다. 역시 문인석은 금관을 쓰고 있는데, 석물들이 보다 사실적인 모습을 하고 있고 봉분에도 홍릉과 같이 병풍석과 난간석을 두르고 있다.

광릉(光陵)

남양주시 진전읍 부평리에 있다. 사적 제197호로 조선 7대 세조(世祖, 1417~1468)와 정희왕후(貞熹王后) 윤씨의 능이다. 광릉 자리는 원래 다른 이의 뒤틀자리였으나 풍수상 길지라 하여 뒤틀자리의 주인이 세조에게 바쳤다고 전해지며 일부 풍수가들은 광릉 자리가 좋아 조선 500여 년을 세조의 후손들이 통치하였다고 전하기도 한다.

세조는 세종의 둘째 아들로 1445년 수양대군으로 책봉되었다. 권력에 대한 야심이 컸던 세조는 1452년 단종 즉위 후 계유정난(癸酉靖難)을 일으키고 권력을 장악하였으며,



| 유릉 | 순종황제의 능



| 광릉 | 세조의 능

1455년 단종에게서 왕위를 건네받았다. 재위 시절에는 국력을 크게 강화해 두 차례나 북방의 여진족을 정벌하고, 안으로는 『경국대전(經國大典)』을 편찬하는 등 국가의 모든 제도를 정비하는 많은 치적을 쌓았다.

정자각을 중심으로 좌우 언덕에 세조릉과 정희왕후릉이 각각 단릉 형식으로 조성되어 있다. 정희왕후 승하 후 세조릉과 다른 언덕에 왕후릉을 조성하다가 성종이 먼저 건립한 세조릉의 정자각을 두 언덕 사이로 옮겨 함께 제사 지내도록 하였다. 이러한 새로운 배치양식은 이후 큰 영향을 미쳤다.

장릉(長陵)



장릉 | 인조의 능

파주시 탄현면 갈현리(葛峴里)에 있는 조선 제16대 인조(仁祖)와 비 인열왕후(仁烈王后) 한씨(韓氏)의 능이다. 사적 제203호, 현재 비공개 능이다.

인조(1595~1649)는 조선의 제16대 왕(재위 1623~1649)으로 선조의 손자이고 아버지는 정원군(定遠君 : 元宗으로 추존), 어머니는 인헌왕후(仁獻王后)이다. 1623년 김자점 등의 반정으로 왕위에 올랐다. 즉위한 후 이듬해 이괄의 난이 있었으나 극복하였다. 광해군과는 달리 친명배금정책으로 일관하여 1627년 후금의 침입을 받게 되었고(정묘호란), 계속된 반청정책으로 결국 1636년 병자호란을 맞이하였다. 국호를 청(淸)으로 고친 태종이 10만 대군으로 조선을 침입하자 남한산성에서 항전하였으나, 결국 패하여 청과 군신(君臣)의 의를 맺었다. 이어 소현세자(昭顯世子)와 봉림대군(鳳林大君)이 볼모로 잡혀가는 치욕을 당하였다.

그러나 1634년 양전(量田 : 토지조사)을 실시하여 토지제도를 시정하였으며, 연등9분(年等九分)의 법을 정비하여 세제(稅制)를 합리화하였다. 또 군제(軍制)를 정비하여 총융청(摠戎廳)·수어청(守禦廳) 등을 신설하였으며, 여러 곳에 진(鎭)을 신설하여 침입에 대비하였다. 처음에는 파주 북운천리에 장사하였으나 1731년(영조 7) 현재의 위치에 옮겼다. 봉분 아래에 화문(花文)의 병석(屏石)을 두르고 밖에는 석난간(石欄干)을 둘렀다.

서삼릉(西三陵)

고양시 원당동길(원당동)에 있는 능으로 사적 제 200호이다. 서삼릉은 도성 서쪽에 있는 세 개의 능을 의미하는 것으로 중종 제1계비 장경왕후(章敬王后)의 희릉(禧陵), 인종과 동비(同妃) 인성왕후(仁聖王后)의 효릉(孝陵), 철종과 동비 철인장왕후의 예릉(睿陵)이 있다.

조선 25대 철종(哲宗, 1831~1863)은 장조(사도세자)의 증손자로 강화도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았다. 헌종이 후사 없이 승하하자 19세에 순조의 비 순원황후에 의해 왕으로 즉위하였다. 처음 3년간 순원황후의 수렴청정이 이루어졌고, 그 후에 친정을 하긴 했지만 왕후 집안의 세도정치로 왕권은 약했다. 철종이 죽자, 고종은 철종의 능을 거창하고 웅장하게 꾸며 왕실의 권위를 나타내고자 하였으므로 석물과 부속 건축물들은 웅장한 규모로 조성되었다. 조선 왕릉의 상설제도에 따라 조성된 마지막 능으로 봉분은 병풍석을 세우지 않고 능을 둘러친 난간석으로 쌍릉을 연결하고 있다. 장명등은 능 앞으로 많이 나와 있으며 문양이 섬세하게 조각되어 있다.



| 서삼릉 안내도 | 문화재청 사이트

| 제3장 | 경기도의 민속

민속(民俗)이란 한민족의 민족성을 담고 있는 기층문화(基層文化)를 뜻한다. 민중에 의해 전승되어 온 전통문화로 통시성(通時性)과 공시성(共時性), 역사성(歷史性)을 가지고 당대의 사회 속에 전승되고 있는 것으로 한 민족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대표적인 척도가 된다.

한 민족의 전통적인 생활문화를 그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매우 광범위한 범주를 갖는다. 이러한 민속을 연구하는 민속학의 영역을 보면 먼저, 의·식·주 생활을 기본으로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통과하게 되는 일생의례(출산의례, 관례와 계례, 성년식, 혼례, 축수의례(祝壽儀禮), 상례, 제례. 축수의례는 백일, 돌과 생일, 수연례가 대상), 1년을 주기적으로 마디 짓는 세시풍속과 한 민족의 고유한 신앙인 민속신앙(마을신앙, 가정신앙, 무속신앙, 풍수신앙, 속신, 민간의료 등), 민속놀이가 있다. 민속예술은 민속음악(무속음악, 민요, 농악), 민속춤(양주별산대놀이, 농악춤 : 평택농악, 재인청춤, 굿춤, 교방춤), 민속극(꼭두각시놀음, 산대놀이, 발탈)등이 포함된다.

알아두기 돌 복

머리의 관모(冠帽)로 굴레나 '복건(福巾)'을 씌우고, 옷은 기본으로 바지와 저고리 외에 포류(袍類 : 사규삼[四袂衫], 두루마기 등)나 전복(戰服)을 입었다. 이때 포의 옷고름은 길게 하여 가슴을 한바퀴 돌려 매는데 이를 "돌 띠"라고 했다. 옷고름의 기능은 좌와 우를 여미어 속옷이 드러나지 않도록 정돈함에 있는데, 돌 띠는 성인용 옷고름과는 다르다. 허리를 한바퀴 돌려 매는 실용과 함께, 거침없이 돌아가는 무한(無限)한 연속으로서의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홍색이나 청색으로 하는데 "홍색은 '관(官) 발', 청색은 '훈인 발' 받으라는 의미"라 한다. 이 '돌 띠'는 당상관(堂上官)이 통상예복(通常禮服)을 입을 때 '홍색 띠'를 띠는 것처럼 자라서 높은 벼슬에 오르기를 바라는 염원을 담고 있다.

남·여아에게 색동저고리나 '색동' 또는 '오방장두루마기'를 입히기도 했다. 이는 우주만물의 모든 아름다움과 사방팔방의 동기(動氣)를 모으고 또 퍼져나가는 운세(運勢)를 담고자 함이다.



또한 생업기술(농업, 어업, 수공업, 상업), 민속공예(목공예, 금속공예, 칠공예, 직물공예, 짚·풀공예), 구비전승(설화, 무가, 민요, 생활언어, 구비단문, 방언 등)도 중요한 대상이 된다.

경기 민속은 편의상 경기도에서 오랫동안 거주해온 사람들이 전승하고 있는 경기 지역의 민속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지역의 자연, 지리적인 위치, 역사·정치적인 요인 등은 다양한 민속 문화에 지역적 특징을 갖게 하였다.



1. 의·식·주 생활

의생활(衣生活)

경기지역민들의 의생활은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외곽도시라는 입지적 여건으로 서울과 비슷한 맥락을 안고 있다. 한 예로 초상이 났을 때 여자의 친정에서 상복을 마련해 오는 것을 ‘거성’이라고 하거나 첫 친정나들이에서 시댁으로 돌아올 때 시어머니나 시할머니에게 주머니와 허리띠를 드리는 ‘중등풀이’는 서울을 포함한 경기지역에서 나타나는 풍습이다.

경기도는 서울과는 달리 빈부(貧富)차나 계층에 따라 토착성(土着性)이 나타나고 있으며, 반상(班常)의 구별이 뚜렷하게 반영되고 있는 면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의례복을 제외하고는 우리나라 옷의 기본 형태를 벗어나지 않았다.

의례복은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치르게 되는 여러 차례 크고 작은 의례를 행할 때 그에 맞게 갖추어 입는 복식을 말한다. 특히 의례복에는 일반 의복이 가지고 있는 실용성 외에도 사상이나 주술(呪術)적 성격이 내포되어 있으며, 각기 처해진 상황에 따라 나름대로 최상의 예(禮)와 차례를 나타내고자하는 의도도 들어있다.

알아두기 상복

부모상(父母喪)에는 굴건제복을 입는다. 부친상에 쓰는 석새베는 이 세상에서 옷감 중에서 가장 거친 것이다. 하늘같은 아버지를 잃었으니 가장 큰 죄인이고 따라서 가장 거친 옷감으로 해 입을 것이다. 바느질도 가장 거칠게 하는데, 솔기는 밖으로 내놓는다. 하늘이 무너진 경황 중에 바느질을 하니 곱게 될 수가 없다. 굴건(屈巾)과 상(裳)에는 “전삼후사(前三後四)”가 있다. 상은 아래에 입는 치마로 길이는 무릎까지이고 끈을 달아 허리에 앞과 뒤로 오게 나누어 입는다. 앞 것에는 삼베 세폭을 잇고[前三], 뒤쪽 상은 네폭[後四]을 이으며, 각기 앞쪽으로는 배를 가리고, 뒤쪽은 엉덩이를 가릴 너비로 주름을 잡고 끈을 만들어 허리에 띠다. 앞의 세폭의 의미는 앞으로 3년(喪)을 모실 것이고, 뒤의 네폭은 ‘사대봉사(四大奉祀)’ 할 것을 의미한다. 굴건의 전삼후사도 같은 이치이다. 신은 짐신을 신는데 손질을 하지 않은 생짚을 왼새끼로 꼬고, 신날은 세(3)날만 넣는다.

출생복은 생후 처음 입는 옷이고, 혼례복은 이 세상에서 가장 호사치레거리이며, 수의는 망인(亡人)에게 입혀지는 내세(來世)의 옷이며, 상·장례복은 망인을 위해서 후손들이 입는 옷으로 각기 그 과정마다 부여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상복은 살아 있는 자가 망자(亡者)를 위해 입는 옷이었으며, 유교를 생활의 근본으로 했던 시대는 효(孝)사상에 의해 죄인이 입는 옷이었다. 따라서 망자와의 친소(親疎)여부에 따라 오복제(五服制)를 따르는데 삼베의 품질이나 입는 기간을 달리하였다.

알아두기 경기도 사람의 기질과 성정

경기도민의 특질은 한편으로는 지역적 기질(氣質)을 뜻하는 것인 동시에 전체의 균집을 이루는 한국인의 성정(性情)이기도 하다. 타 지역 사람들이 미처 교통이 발달하지 않은 때에 경기도에 와서 겪은 사연들이 전국적으로 유포되고, 그 과정에서 경기도민의 기질과 성정을 판단하는 속언(俗言)들이 만들어졌다. 그러므로 경기도민에게는 스스로 거스르는 부분도 있겠고, 아니면 그러한 약점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민의 자부심을 갖게 하는 요소가 되기도 한다. 그중에서 대표적인 몇 개를 살펴보자.

경중미인(鏡中美人)

경기도 사람을 총칭해서 흔히 '경중미인'이라고 한다. 거울 속에 있는 미인이라는 말이다. 심성이 단아하고 암전하며 바르다는 뜻으로 여겨진다. 이 말이 나오게 된 역사적 배경이나 의미는 확실치 않고, 말 자체가 사라지고 있는 형편이다.

개성 사람은 오줌도 맛보고 산다.

개성 사람은 수완이 뛰어나서 상술과 이재(理財)에 밝다는 상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오줌은 하찮은 것이다. 그런데 개성 사람들은 하찮은 것일지라도 이리저리 살펴볼 정도로 꼼꼼하다는 것이다.

낙살좋은 강화년(연)

이 말은 강화도에서 연에다 낙 살을 댔기 때문에 유래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것은 표면적인 이야기이고 오히려 강화도 여성들의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기질을 이렇게 표현했다고 보는 편이 더 정확하리라 생각한다. 사통팔달로 막힘이 없이 두루 통하는 강화도 여성의 기질이 구비전승된 것으로 보인다.

안성맛춤

안성의 유기 만드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다. 안성 유기는 마음에 쏙 들 정도로 엄밀하고도 정확한 것이라는 상당한 신뢰를 안겨 준다. 안성 사람의 기질이나 안성 유기장의 장인정신은 높게 평가할 만하다.

수원 사람 앉은 자리에는 삼년 풀이 안 난다.

이 말을 들으면 '최영 장군의 무덤에 풀이 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생각난다. '지독하다'는 뜻이 강하다. 그러나 수원 사람들이 고집도 세고 지독해서 과연 이러한 말이 생겼을까 하는 의문이 생긴다. 이를 현실적으로 해석하면, 아마도 각쟁이처럼 절약하고 깔끔하게 사는 모습을 자칭해서 나온 말이 아닌가 한다.

여주, 이천 사람은 참새에 굴레 씌운다.

참새는 약아서 좀처럼 잡기가 힘들다. 그런데 이 참새에다 굴레를 씌운다고 했으니 여주와 이천 사람들은 매우 민첩하고 치밀했음을 알 수 있다. 모질지는 않으나 사고나 기질이 자신의 것을 지켜나가는 정서를 반영한다.

암 강화 솜 통진

이 말은 강화도에서 머느리를 얻는 일은 흔해도, 사위를 얻는 것은 드물다는 말이다. 강화도 여성들이 매우 부지런하고 아무저서 통진(김포)에서 이들을 머느리로 많이 삼았다는 뜻이다. '낙살좋은 강화년' 과도 상통한다.

1900년대 전후와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우리의 고유 전통 생활풍속과 의식이 말살되어 가는 과정을 겪게 된다. 이 시기는 의생활에서 고유 한복의 생활영역이 점차 쇠퇴하는 시기였으며, 광복과 6·25전쟁 이후 신식 학교교육과 기계화한 의료(衣料) 생산의 발달에 의해 서양화(西洋化)로의 급속한 변화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

식생활(食生活)

경기도의 음식은 서해안의 해물과 산골의 산채·밭곡식 등 여러 가지 식품이 골고루 있어 다양하고, 음식의 품은 소박하여 간은 중간 정도이며, 양념도 수수하게 쓰는 편이다. 또한 지리적으로 강원도·충청도·황해도와 접해 있어 이들 지역과의 공통점이 나타나며, 음식명도 같은 것이 많다.

범벅이나 풀피죽·수제비같이 호박·감자·강냉이·밀가루·팥 등을 섞어서 만든 것으로 양이 많고 구수한 음식이 많다. 서울의 음식이 예전에 비해 맵고 짠 것이 많아진 것에 비해 경기도 음식은 간이 중간 정도이며, 덜 자극적이다. 김치류도 채소의 본래 맛이 살아 있는 느낌이고, 시원한 맛이 강조된 우리나라 중부지방 음식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일반적으로 음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식품재료·기후·조리기구·연료 등을 들 수 있다. 교통, 조리기구, 연료 사용의 발달 등으로 식생활이 동질화(同質化)되어 가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주생업과 환경에 따른 약간의 지역적 차이는 남아 있다. 한 예로 젓갈류의 이용을 들 수 있다. 농촌인 김포와 여주의 경우 대부분의 가정에서 젓갈을 자주 먹지는 않고, 먹을 경우에도 사서 먹는다. 산촌인 가평지역의 경우에는 집에서 젓갈을 담는 집도 없을 뿐만 아니라 즐겨 먹지도 않는다. 이에 비해서 화성의 어촌에는 집에서 젓갈을 담는 집도 많고 젓갈의 종류도 산촌이나 어촌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아울러 국수를 만들 때에도 농촌과 산촌에서는 주로 멸치나 조미료로 국물을 만드는 데 비해서 어촌에서는 맛이나 조개·새우 등으로 만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사실도 이러한 지역적 차이를 반영하는 예라고 할 수 있다.

‘절식’으로는 설날에 떡국과 만두국 등을 해먹는데, 다른 지역과 달리 가평에서는 만두 속의 재료로 꼭 무를 넣는 것이 특징이다. 이 외에 당면을 넣는 지역도 있다. 정월 열나흘날 저녁에 오곡밥·묵은나물·부럼을 먹고, 단오에는 쑥개떡과 밀전병을 먹는다. 8월 추석에는 대개 흰송편과 쑥송편을 빚는데, 송편의 소로는 깨·녹두·



| 경기도 향아리 | 푸레독



| 돌상 | 1966년 광명시. 돈을 상 앞에 붙인 것은 부자가 되라는 의미이다.



| 환갑 잔치상 |

팥·해콩 등을 넣는다. 동지에는 대부분 팥죽을 쑤어 먹지 않으나 쑤는 경우에는 새알심을 넣는다. 지역에 따라서는 음식에 대한 금기가 전해지는데, 일반적으로 임신을 하면 닭·계·오징어와 감자의 푸른 부분, 그리고 참외와 계란 등을 먹지 않는다고 한다.

‘의례음식’ 중 지금까지도 비교적 잘 행해지고 있는 것은 돌 음식이다. 돌상에서는 백설기·수수팥떡·송편·인절미 등의 떡과 각종 계절과일, 잡채 등으로 잔치음식을 차린다. 그리고 돌잡이를 할 때 남자 아이에게는 활을, 여자 아이에게는 실패를 놓는 지역도 있다. 백설기는 백세가 되도록 희고 맑게 살라고, 수수팥떡은 붉은색으로 잡귀 등 온갖 나쁜 것을 막는다는 의미가 있으며 활과 실패는 각각 용맹과 손재주를 상징한다.

예전에는 환갑이 아주 큰 잔치였다. 김포와 가평에서는 망령이 난다고 하여 환갑이 넘은 사람의 생일에는 미역국을 끓이지 않고 무 소고기국을 끓인다. 제사 때에는 탕은 3탕을 원칙으로 하고는 있지만 대개는 한 가지 탕만 올리고, 나물은 숙주·고비·고사리·도라지 등의 나물을 3색 또는 5색으로

한다. 적은 3적을 쓰는 경우가 많고, 식혜와 수정과는 집에서 만들지만, 약과는 마을에 한집 정도 만드는 집이 있을 뿐이다. 따라서 대개는 유과와 같이 사서 이용한다. 의례음식은 그 지역적 차이가 줄어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점차 집보다는 음식점이나 뷔페에서 치르는 추세이기 때문에 점차 동질화되어 가는 추세이다.

특히, 오늘날 집에서 술을 빚는 일은 거의 사라져가고 있는 실정이나 몇몇 가정에서는 고사를 지낼 때 누룩을 사다가 술을 빚거나 명절에 집안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가양주를 담기도 한다. 경기도에서 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술은 계명주(남양주시)·부익주(화성시)·군포당정옥로주(용인)·광주산성소주(광주시) 등이 있다.

주생활(住生活)

경기도 민가(民家)는 그 문화가 다양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 형태도 다양하다. 경기도의 주거문화권은 크게 4가지 정도로 구분되는데, 첫째가 수원·과천 등 도시주거

일 것이고, 두 번째가 중부 평야지대권, 세 번째는 서해안권으로서 해안지대, 네 번째는 내륙산간지대로 들 수 있다.

현 경기도에서 주요 민속자료로 지정되어 있는 주택은 수원 광주이씨 월곡덕, 화성 정용채 가옥과 정용래 가옥, 여주 김영구 가옥, 어재연 장군 생가, 양주 백수현 가옥, 진접 여경구 가옥, 궁집 등 8곳이 있다. 이 가옥들은 ‘ㄱ’자, ‘ㄴ’자, ‘ㄷ’자 모양을 이루고 각각 지역에 맞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중부 평야지대권의 민가는 튼 ‘ㄷ’자 형태를 이루는 것이 특징이다. 안채는 곱은 ㄱ자집의 기본적 간접이를 하고 있는

데, 대청이 2칸인 집과 몸채쪽에 앞가이(전퇴)를 붙이는 정도의 차이를 보일 따름이다. 혹은 부엌쪽 날개채에도 앞가이를 간살이하는 경우가 후대로 올수록 많이 생긴다. 서해안권의 문화는 독특하다. 여기에는 파리집이라고 불리는 ‘ㄷ’자 집이 고식으로 어느 정도 남아있는데, 파리집과 유사한 ‘ㄴ’자 집이 있는가 하면 양통집도 꽤 존재한다. 심지어는 골대문집이라고 해서 평면은 곱은자 집이지만 양통집처럼 뒷마루 앞으로 벽을 치고, 대청 앞에는 대문을 해단 집도 있다. 반면에 튼 ‘ㄷ’자 집은 드물다. 이는 한말(韓末)에 도적이 많아서 외부에 대해 폐쇄적일 수밖에 없었으므로 생긴 형태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이곳의 양통집은 동쪽 산간지대의 간살이와 달라서 전면이 봉당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다. 현재는 이용치 않고 있지만, 이 봉당이 전에는 외양간으로 이용되었다. 농가의 가장 중요한 재산인 소를 외부에 놓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지금도 강화도 교동에서는 이 같은 집을 많이 볼 수 있다. 이런 양통집은 아산만을 거쳐서 남쪽으로는 진도에까지 점점으로 분포되어 있다.

내륙지대의 민가는 양통집이 꽤 많다. 이것이 평야지대로 내려오면 두줄배기집의 형식을 보이기도 한다. 이곳 양통집의 특징이 있다면 부엌 아래쪽에 건넌방(사랑방)을 배치한다는 점이다. 건넌방을 집의 머리쪽에 두는 방식과는 전혀 다르며, 보다 근대적인 실용주의적 간접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적기는 하지만, 가끔 사랑집(세마루집)도 분포하는데, 이는 태백산맥 줄기를 따라 문화가 전파되었음을 입증한다. 물론 곱은자 집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튼 ‘ㄷ’자 집보다는 주로 튼 ‘ㄴ’자 집이 많다고 할 수 있다. 조금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도시주거는 지금 남아 있는 유구가 별로 없어서 확실하지는 않지만 대체로 ‘ㄴ’자 혹은 ‘ㄷ’자 집임을 추측할 수 있다.



김영구 가옥 | 여주군 대신면 보통리

양통집

한 옹마루 아래에 앞뒤로 방을 꾸민 집이다. 백두대간을 따라 내려오면서 동해안지방·안동지방 등에 분포하며 드물게는 경기도 서해안까지 퍼져있다.

경기도 방언은 크게 보아 서울말을 포함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서울은 행정구역이 확대되기 전에는 한강의 북쪽에 한정되어 있었고 특히 사대문(四大門) 안이 그 중심 지역이었기 때문에 전통적인 서울말은 한강 북쪽 지역인 경기도 북부지역에서 사용하고 있는 말과 비슷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실제로 서울 토박이의 말을 조사한 결과, 밝혀진 서울말의 모습은 경기도 방언과 별 차이가 없다. 특히 음운현상 중에서 모음조화 현상과 관련하여 서울말은 경기도 북부지역의 말과 더 닮아 있으며, 어휘적인 면에서도 경기도 북부 지역의 말과 비슷한 면이 있다.

경기도 방언과 서울말

표준어	서울	경기도 북부	경기도 남부
맑아	맑어	맑아	맑어
가까워	가까와		가까워
짓는다	짓는다, 잔다		짓는다
맵다	매웁다, 맵다		맵다

서울말은 경기도 방언의 이질적이며 예외적인 것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 방언에 부속되는 하나의 하위 방언이면서도 특히 경기도 북부지역의 말에 조금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서울말이 경기도 방언에 포함되는 한 하위 방언이라면 표준어와 경기도 방언은 어느 정도의 차이가 존재할 것임을 알 수 있다. 실제의 자료에서도 표준어와 경기도 방언의 차이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표준어와 경기도 방언의 차이

표준어	경기도 방언	표준어	경기도 방언
벼룩	베룩	머느리	메느리
질경이	질갱이	퀘메다	꼬:매다
숯을	숯을/숯을	꽃을	꽃을/꽃을
침	칙	흙	흑
보습	보십	부스럼	부시럼
식스랑	소시랑	거스름돈	거시름돈
헝겂	흥:겂	계집애	가:집애
쓰레	쓰:레	계시다	가:시다
다리미	대리미	두드러기	두드레기
얼레	연강개	옹마름	옹구새
튀밥	(쌀)강정	오른손	바른손
게	그:이/괘:	구멍	구녃

표준어는 인위적인 정책에 의해서 규정되었기 때문에 실제 언어현실에서 쓰이는 경기도 방언과는 다른 모습을 띠는 경우가 흔히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 방언이 표준어를 선정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되면서 큰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경기도 방언이 곧 표준어일 수는 없는 것이다.

경기도 방언의 구획은 크게 내륙 지역과 해안 지역(강화, 김포, 옹진)으로 나눌 수 있으며, 내륙 지역은 다시 경기도 북부지역(연천, 포천, 가평, 양주, 파주, 고양)과 경기도 남부지역(시흥, 화성, 평택, 용인, 안성, 광주, 이천, 남양주, 양평, 여주)으로 나뉜다.



2. 민속신앙

민속신앙(民俗信仰)은 한 민족의 종교 또는 여러 종교의 기층을 이루기 때문에 항상 어떤 민족의 기층(基層) 문화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여 왔다. 이러한 민속신앙은 교조(敎祖)에 의한 인위적 종교와는 달리, 원초부터 인간 본연의 종교적 욕구에서 발생한 자연종교성을 갖는다. 곧 민속신앙은 인간생활의 가장 절실하고 기본적인 욕구를 반영하고, 또한 그것에 집중되어 있다.

이러한 민속신앙은 터, 부엌, 안방 등 집안 곳곳에 깃들여 있다는 집안 신을 섬기는 가정신앙과 마을의 산이나 강, 하늘 등 천지 자연을 섬기는 마을공동체 신앙, 그리고 무당(巫堂)이라는 종교 직능자를 통해 그 보다 더 폭 넓은 대상 신을 섬기는 무속신앙(巫俗信仰) 등이 있다.

마을신앙

마을신앙이란 마을 구성원들끼리 자발적으로 마을의 안녕과 풍농(豐農) 및 풍어(豐漁)를 빌기 위해 매년 한 두 차례씩 정기적으로 거행하는 의례를 통틀어 가리키는 말이다. 그 본질은 공동의 생활공간을 정기적으로 신성하게 하기 위한 세시의례(歲時儀禮)의 하나로 보여진다. 이때 풍물이나 집단놀이가 벌어져 마을 구성원끼리의 대동성과 협동성, 지연공동체를 강조하기도 한다. 이러한 마을 공동제의를 동신신앙(洞神信仰), 동신제, 동제, 마을 공동체신앙이라고 하며, 지역에 따라 그 마을에 모신 신의 성격을 대표로 삼아 산신제, 서낭제, 도당제, 당산제, 장승제, 용신제, 풍어제 등으로 부르기도 한다. 제의형태는 마을에서 선출한 제관들이 당주가 되어 유교식 제사 형식으로 조용히 지내는 제의가 있고, 보다 규모가 큰 제의는 여기에 무당을 청해 굿을 하기도 한다.

1967년 문화재관리국에서 전국적으로 조사한 '전국부락 제당' 질문지 조사의 결과에 의하면 경기도내에는 총 454 군데에 마을제당이 있다. 이 가운데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마을제당의 명칭은 '산제당'으로 29%에 달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산신당, 당, 도당, 서낭당이 10% 전후로 나타나고 있다. 산신당과 산제당의 성격이 같은 것을 고려했을 때, 그 비율은 52%에 이르고 있어 경기도의 마을신앙은 산신제가



도당 산제 | 제관헌직하는 모습, 과천시 과천동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하겠다. 그밖에 단순히 ‘당’ 이라고 나와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도당이 10%, 서낭당이 9%로 나타나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산신신앙(山神信仰)은 내륙지방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고, 도당신앙(都堂信仰)은 서울의 서북쪽이나 해안지방에서 주로 나타나고 있으며, 서낭당신앙은 내륙지방과 해안지방에서 같이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산신신앙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지역에서는 도당신앙이나 서낭당신앙이 거의 나타나지 않거나 상당히 약한 것으로 보아 도당신앙이나 서낭당신앙은 주로 해안지방에서 나타나는 신앙형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내륙지방과 해안지방을 함께 갖고 있는 경기도의 마을신앙은 산신신앙과 함께 도당신앙 및 서낭당신앙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시기적으로 경기도에서는 제의가 일반적으로 10월에 집중되는 특징이 있다. 10월에 제를 지내는 경우가 경기도 전 지역에 골고루 분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수확의례적인 속성이 강하다는 것을 엿볼 수 있다. 지역적으로는 광주시 이남에서는 정월 초에서 보름 사이에, 가평군·포천시·연천군 등지에서는 9월에 집중된다. 이러한 차이는 평야지역과 산간지역이라는 생활공간의 차이에 근거한다. 제의방식은 대개가 유교식 제의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유교식 제의방식은 고려시대와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정착된 것으로 보이며, 무당이 마을의례에 참여하는 곳은 전체의 1/9정도이다.

가정신앙

가정신앙은 집을 중심으로 한 개인 신앙적 속성이 강한 신앙형태로서 가택신·가신·가신신앙·집안지킴이·집지킴이 등 다양하게 불려왔다. 특히 집안을 중심으로 전승되어 왔다는 점에서 한국 고유 신앙의 기본적인 구조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가정신앙을 토대로 우리의 신앙형태가 발전하여 왔다고 할 수 있다.

마을신앙과 더불어 가정신앙은 1970년대 이래로 새마을운동에 의해 그 전승의 단절이 급속도로 진행되었다. 기독교 등 외래 종교의 유입, 주거문화, 가족 형태의 변화 등도 단절의 주요한 요인이 되었다.

경기도 지역에서 전승되던 가정신앙의 유형은 성주·터주·제석·조왕·업·조상·삼신 등이 대표적이다. 성주는 집안의 대주를 위해 모시는 신앙체다. 일반적으로는 대들보에 한지 등을 걸거나 붙여서 신체를 표현하기도 하지만, 종이에 쌀을 싸거나 글을 써서 마루의 한 벽면에 붙이는 방식도 남아있다. 고양시나 김포시의 경우에는 배 형질을 대청의 들보에 걸쳐 놓는 사례도 있다. 대개 집을 새로 지을 때에 성주

를 올리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3년에 한 번씩 무당을 불러 성주굿을 한 후에 성주신체를 모시는 집도 있다. 성주에 대한 제의방식은 지역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만, 대개는 명절 제사를 지내기 전에 성주상을 차려놓고 대주가 절을 하는 방식을 취한다. 이외에 10월 상달고사에 행하기도 한다. 현재까지도 경기도 내에서 성주신앙의 전승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성주의 존재에 대한 믿음이 강하게 남아있음을 확인시켜준다.

경기도내에서 성주 다음으로 가장 활발한 전승력을 보이는 가신이 터주이다. 터주는 집터를 관장하는 신격을 의미한다. 터주의 신체는 일반적으로 집 뒤에 위치하며 향아리에 쌀을 담고 그 위에 주저리를 덮는 방식과 밤나무 작대기를 세우고 그 위에 주저리를 덮는 방식 등이 있다. 해마다 일정한 제일에 현 주저리를 붙에 태우기도 하지만, 고양시에서는 주저리 위에 새로운 주저리를 얹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지역별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제의는 대개 10월 상달에 모시지만, 1월에 택일하여 모시는 경우도 있다.



| 정월 고사 상차림 | 화성시

삼신은 아기를 점지하고 보호하는 삼신할머니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형성된 가신이다. 일반적으로 삼신의 신체는 바가지에 쌀을 담고 한지로 덮은 형태나 작은 쌀자루에 쌀을 담아 벽에 걸어두거나, 종이나 형겔 등을 안방의 한 구석에 높이 매달아 놓는다. 백령도의 경우에는 나락섬을 그대로 모시기도 하고, 분당지역에는 닥나무껍질로 만든 창호지에 쌀을 싸서 매달아 놓는 방식을 취하기도 한다.

삼신에 대한 의례는 아기가 태어나면서부터 어린아이로 성장하기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 대개 아기가 태어나면 삼신상을 차리고, 초이레·두이레·세이레에도 상을 올린다. 또한 아이가 병에 걸리거나 약을 먹일 때에도 삼신에게 치성을 올려 아이가 빨리 낫기를 기원한다.

엷은 재물신격으로 모셔지며, 대개 뒤꼍의 주저리로 나타난다. 창고나 광의 귀퉁이에 쌀을 담은 향아리의 형식을 취하는 것도 있는데, 일반적인 것은 아니다.

조왕은 부엌에 위치하는 신격으로 ‘조왕할매’ 등으로 불리 운다. 경기도 지역의 조왕은 부엌에 그릇을 올려놓는 선반 위에 바가지를 엷고 그 속에 삼베조각을 넣어 두거나 부엌의 한쪽 벽에 백지나 형겔조각을 붙여 놓는 형태이다. 조왕은 12월 23일에 하늘에 올라 주인의 일년 동안 행적을 옥황상제에게 보고 드린 후 설날 새벽에 돌아

온다고 한다. 따라서 그 해에 좋지 않은 일을 했던 사람은 아궁이를 엮으로 발라놓아 조왕이 하늘로 오르지 못하도록 하는 풍습이 있다.

문전신은 대문을 지키는 신으로서 서울을 비롯한 경기도 지역에서 특징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신앙체다. 문전신은 정초에 대문에 세화(歲畵)나 입춘의 입춘축, 그리고 엄나무 등으로 나타난다. 문전신의 존재는 신라시대의 처용설화나 비형랑설화 등에서부터 그 흔적을 찾아 볼 수 있다. 한국적인 세화의 특징은 까치·호랑이나 닭 등의 그림형태로 나타나는데, 특히 호랑이의 경우 정월이 인월(寅月)이라는 인식과 결부되어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가정에 따라서는 정월고사(안택)나 10월 상달에 지내는 가을고사와 같이 해마다 같은 날 지내는 정기적인 의례가 있고 객귀 물리기, 삼신상 차림, 논고사 등 비정기적인 의례를 행하기도 한다.

무속신앙

무당은 입무·무업·계승의 방식에 따라 세습무(世襲巫)와 강신무(降神巫)로 양분된다. 경기도 무속은 남한강에서 한강에 이르는 경계선을 따라 그 이북은 강신무가 우세를 보이고, 그 이남은 세습무가 우세를 보이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세습무는 부가계내 고부계승이라는 무계 세습방식을 택하는 무당이다. 특히 사제권은 시어머니에서 며느리로 이어지지만, 계승의 기준은 남성계에 의해 규정되는 특징을 지닌다. 세습무 집단은 성적 역할 분담이 뚜렷하게 이루어지는데, 남성은 굿의 보조자와 후견인 역할을 하고, 여성은 굿을 주관한다. 반면에 강신무는 반드시 신내림이라는 무병을 거쳐서 입무하는 특징이 있다. 이들의 사제계승 역시 신어머니와 신딸 또는 신아버지와 신아들의 관계로 이루어진다. 이들 강신무는 세습무에 견주어서 훨씬 신앙적 체험을 중시하면서 신령의 힘에 의한 공수나 신점, 영검 등을 통하여 그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

세습무권은 전국적으로 보아 세 가지로 나뉘는데, 첫째는 경기도·충청도·전라도를 묶는 시나위권과 같은 권역이며, 둘째는 강릉에서 평해·울진·부산·통영에 이르는 동해안과 남해안 권역이며, 셋째는 제주도권이다. 경기도가 속해 있는 시나위권에서는 이에 사용하는 무속 제의나 용어 등이 대체로 일치한다. 특히 무당들의 호칭을 남자의 경우에는 '사니' 혹은 '산' 이라고 일컫고, 여자의 경우에는 '미지' 라 일컫는 점이 동일하고, 세습무의 관할권과 단골판이 일치하고 있다. 호남이나 경남지역의 단골무당과 비슷한 가계세습무 계열인 화랭이의 존재도 경기도 무속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곳에서 부르는 무가(巫歌)는 무속신앙의 교리를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굿의 중심이 되는 요소로 지역적 특성이 드러난다. 경기도 무가의 특징은 사방에



| 양주소놀이굿 |



| 경기도당굿 |

서 다른 모습으로 전승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서울시 인근도시는 서울무가를 수용하고 있으며, 경기 남부권은 예전의 세습무들이 부르는 성주무가가 전승되고 있고, 이 성주무가의 존재로 인해 경기 남부권은 독립성이 확보된다. 이는 경기지역의 세습무인 화랭이의 존재를 의미한다.

경기북부지역은 황해도굿과 서울굿이 혼합된 무가형태를 보이는데 특히 양주소놀이굿을 통해 구현된다. 경기동부지역의 경우 독경무가 중심인 것으로 보인다. 경기서부지역은 도서지방 특유의 무가가 존재했을 것으로 보이며 강화지역의 고창굿이 그 예이다. 또한 경기도 무가의 특징으로 강신무 무가의 전형성, 세습무가의 전형인 도당굿 무가, 경기도 서사무가(敍事巫歌)의 엄숙성, 소놀이굿 무가의 존재 가치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경기도 무속음악은 남도 무속음악이 갖는 선율적 아름다움과 동해안 지역의 무속음악이 갖는 장단적인 아름다움을 훌륭하게 결합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남다른 지역적 특성을 드러낸다. 특히 경기남부지역 세습무당의 음악은 주목할 만하다.

알아두기 경기도당굿

경기도당굿은 경기지역에 전승되는 대표적인 마을굿으로 화랭이와 무녀가 함께 굿을 이끌어가는 것이 특징이다. 마을에 따라 음력 정월과 10월에 마을의 안녕과 집안의 안과태평(安過太平) 그리고 생업에 따라 풍농(豊農), 풍어(豊漁)를 기원하기 위해 굿을 벌린다. 마을마다 거리가 조금씩 달라지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행하는 도당굿의 절차는 굿 전날 당주 집에서 하는 당주굿을 시작으로 부정청배→부정굿→당맞이(당굿)→돌돌이→장문잡기→시루굿→터벌림→제석청배→제석굿→손굿→군웅굿→당할머니굿→뒋전으로 진행된다. 굿거리 중 마을 경계를 돌면서 모든 부정을 막는 돌돌이와 줄타기와 같은 재주와 재담을 보여주는 장문잡기 그리고 화랭이의 춤을 볼 수 있는 터벌림 거리 등은 이 굿의 예술성이 드러나는 거리이다.

이러한 마을신앙은 자연(地緣)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여 마을 사람들에게 일체감을 부여하며, 마을의 불안을 공동의 힘으로 극복하고자 하는 신앙이자 한바탕 축제의 장을 마련하는 마을잔치로 기능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당굿의 경우 규모가 큰 마을굿에서는 삼현육각을 모두 동원하였을 뿐 아니라 쌍피리를 부르기도 하였으며, 여타의 굿에 비해 춤과 음악과 연희성이 풍부하여 예술적 가치가 높다. 중요무형문화재 제98호로 1990년 10월 10일에 지정되었으며 수원시 팔달구 매교동에 보존회가 있다. 보유자 오수복은 80세가 넘는 고령이나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직접 굿에 참여하였다.



3. 세시풍속

세시풍속(歲時風俗)은 일년을 단위로 매년 일정시기마다 반복하여 행하는 주기 전승적, 의례적인 생활양식을 말한다. 설·상원(上元)·한식·단오·추석·동지 등 일반적인 의미의 명절과, 특정한 날에 행하는 비일상적인 행위를 말하는데, 이는 일 년이라는 일상에 어느 특정한 날을 정해 생활의 주기를 마디지어 구분하고 의미를 부여한 것이다.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에서는 계절을 중심 기준으로 하여 일상을 구분 지었다. 그 명칭에서도 세시(歲時), 세사(歲事) 또는 월령(月令), 시령(時令)이라고 불려 그 시계성(時季性)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세시풍속의 문헌기록은 『삼국지(三國志)』 위서(魏書) 동이전(東夷傳)에 기록되어 있는 고구려의 ‘동맹(東盟)’, 부여(扶餘)의 ‘영고(迎鼓)’, 예(穢)의 ‘무천(舞天)’ 등에서 찾을 수 있다.

월별 세시풍속

음력 정월 1월 1일 설날의 풍속으로는 설빔과 차례, 도소주 마시기, 성묘, 세배, 설달 그믐날 밤의 북소리, 야광귀, 눈썹세기[守歲], 머리카락 사르기, 정초 첫 12지일의 금기로 쥐날 쥐불놓기, 소날 도마질 않기, 쇠붙이 연장 다루지 않기, 곡식을 집밖으로 내가지 않기, 사람날[寅日]에 여자들은 바깥출입 않기, 뱀날 머리빗지 않기, 매월 초 1, 8, 13, 23, 24일은 인동토일(人動土日)이라, 이날 사람이 들어 오면 동티가 난다고 금기하기 등이 있다. 이어서 입춘날의 입춘첩, 보리뿌리점, 씨앗볶기, 입춘굿이 있고, 정월 14일은 “작은보름”이라고 하여 9차례 행동하기, 오곡밥, 복쌈, 세집이상 타성(他姓)집 밥을 먹어야한다는 백가반(百家飯), 달불이, 타작놀이, 밤세우기, 비녀돌리기가 있다.

음력 정월 15일은 상원일(上元日) 또는 대보름, 큰보름이라 하여 설날 다음가는 큰 명절이다. 이른 새벽부터 부럼깨기, 귀밝이술 마시기, 더위팔기, 용알뜨기, 나무시집 보내기, 소 밥주기, 개 보름 쇠기, 두레놀이, 달맞이, 달집짓기, 개인 액막이, 불놀이(쥐불이) 등을 한다. 16일은 귀신날 또는 귀신불은 날이라하여 바깥출입을 삼가하고, 폭쉬는 풍속이 있다. 이 날 남자가 일을 하면 1년내 우환이 있고, 여자가 일을 하면 과부가 된다고 하여 일을 하지 않는다.

2월 1일은 영등할머니가 내려오는 날이며, 머슴날(노비날)이기도 하다. 또 초하룻

날에는 나이떡, 콩볶기 풍속이 있고, 2월 초 6일 저녁에는 좀생이 보기를 한다. 한식 일에는 찬밥을 먹고 성묘를 가며, 3월 3일 삼진날에는 처음 보는 곤충으로 점을 친다.(개구리[떡을 볶], 도마뱀[바쁜 일], 노랑·호랑나비[좋은 일], 흰나비[상제]) 4월 초 파일, 5월 단옷날 창포물에 머리감기, 그네뛰기, 씨름, 봉선화 물들이기가 있고, 음력 5월 10일경 태종우(太宗雨)라고 하여 “질레꽃 가뭄”을 해소하기위해 내리는 비가 있다. 6월 15일 유두날의 유두천신(流頭薦新)과 삼복날 하는 복다림과 7월 7일 칠석날 햇것을 천신하고, 농기구나 서책들을 정리하는 풍속이 있다. 7월 15일 백종일(百種日)은 망혼일(亡魂日)이라, 과일 채소 등을 천신하고 방생(放生) 한다. 또 이 날을 전후하여 호미씻이(호미걸이)를 한다.

8월 15일 추석에는 성묘를 가 별초를 하고 송편차례를 지낸다. 풍물놀이, 거북놀이(소놀이) 등을 하고 반보기(觀觀)를 한다. 9월 9일 중구(重陽節)에는 국화주, 국화전을 먹고, 구절초를 뜯는다. 음력 10월은 “상달”이라, 이 달 첫 말날에는 가을떡을 하여 고사를 지내고 안택굿을 한다. 시제, 손돌날, 김장 담그는 일이 이 달의 풍속이다. 11월 동지에는 팔죽을 쑤 동지시(冬至時)에 대문이나 담벽 등에 뿌리고 먹는다. 12월의 풍속으로 납정제(臘亭祭), 묵은 세배, 딱총(꼭죽)놀이, 선달 그믐날의 밤새우기(눈썹 세기, 守歲), 묵은 약 불사르기 풍속이 있다. 그리고 윤2월과 윤3월에 드는 윤달의 세시풍속이 있다.

이처럼 한국의 세시풍속은 정초와 상원에 이르는 기간에 절정을 이루다가 2월 초 하루를 전후한 시기에 마무리된다. 이 점은 현재까지 전승되고 있는 세시풍속에서도 알 수 있다. 기타 시기의 세시풍속은 대부분 소멸되었거나 극히 축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간의 풍속들은 간소화되기는 했지만 지금도 행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별히 주목되는 것은 음력 2월의 풍속이다. 2월 초하루 영등할머니와 머슴날, 그리고 나이떡 먹기가 주요한 2월 풍속인데, 지역에 따라 전승에 차이가 있다. 경기도 내에서 영등할머니에 대한 의례를 행하고 있는 지역은 드러나지 않는다. 또한 나이떡은 구리, 이천, 평택 등에서는 행하고 있었으나, 산간지역인 가평에서는 나이떡이 아니라 머슴날이라고 하여 떡을 먹는다.



4. 민속놀이

경기도는 서울을 중앙으로 하여 북쪽으로 군사분계선이 그어짐으로 인해 장단군 이북이 북한으로 들어갔지만, 황해도·강원도·충청남북도와 연결하여 있어 각 지역의 다양한 민속놀이가 한데 혼합되어 나타나고 있다. 또한 도시와 산, 바다 등 다양한 생태 환경으로 도시·농촌·산촌·어촌의 민속놀이도 골고루 분포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민속놀이는 전통적인 대동놀이, 세시놀이, 근래의 개인놀이 및 소집단 놀이로 구분할 수 있다. 경기도를 중심으로 볼 때, 경기북부지역 민속놀이는 북부와 남부문화의 특징이 혼합된 중간적인 모습을 보여 준다. 그러나 경기남부지역의 특징인 거북놀이 등이 전혀 나타나지 않은 것도 경기북부지역의 특징으로 주목할 수 있다. 경기남부의 민속놀이는 줄다리기, 두레놀이, 답교놀이, 장치기, 거북놀이 등을 특징으로 들 수 있다.

현재까지 전승이 잘되고 있으며 또한 연희되고 있는 놀이로 동북내륙권에서는 양주의 별산대놀이와 소놀이굿을 들 수 있다. 양주별산대놀이는 춤사위가 우리나라 탈춤 중에서 가장 분화 발전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몸의 마디마디 속에 멧을 집어넣은 엽불 장단의 거드름춤과 그와 대조적인 타령장단의 깨끼춤으로 구분되어 있어, 몸짓 내지 동작의 연극적 요소가 가장 잘 나타나 있는 탈놀이이다. 양주소놀이굿은 재수굿의 제석거리에서 분화된 과장으로 무당과 마부의 대화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놀이이다. 20세기 초에는 거의 전승이 끊기었다가 재현된 것으로 그 의의가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서북해안권에서는 강화용두레질노래를 예로 들 수 있다. 농사일을 각 과장으로 만들어 명칭을 붙인 것인데 숫자를 세지 않고 자유자재로 작사하여 흥겹게 노래를 부르며 물을 퍼 올리는 것으로 노래가 길게 울려 퍼지면 그 조화에 발맞추어 작업 능률을

알아두기 거북놀이

거북놀이의 분포권은 경기도와 충청남북도를 아우르는 중부지역이다. 경기도의 경우 동쪽의 여주에서부터 이천과 광주, 안성, 그리고 수원까지 분포하고 있다. 이 놀이는 추석에 주로 마을 어린이나 청년들이 모여서 농악과 어우러지는 집단민속놀이이다. 세시놀이의 특성상 마을과 가정의 안녕을 기원하는 제의적 성격을 지닌다. 놀이방식이 정초 지신밧기와 유사하나 거북이 등장한다는 차이가 있으며 발농사 지역권의 민속놀이라는 분명한 지역성을 가진 세시민속놀이이다.



축진시키는 노동요이다. 동남내륙권에서는 이천지역의 거북놀이를 특징으로 들 수 있다. 지금도 꾸준히 전승되어 8월 한가위 밤에 연희되고 있다. 이 거북놀이의 성격은 한 해의 풍년을 축하하기 위한 풍년제로서의 성격과 마을과 집안의 잡귀를 몰아내서 마을전체의 화목을 비는 무속신앙적인 성격을 지닌다. 또한 이천농악은 짝짝이 가락을 사용하며, 지신밟기를 할 때 행해지는 잡색으로 질라아비와 거북이·머슴·여종이 등장한다는 특징이 있다. 여주의 해촌낙화놀이는 일종의 불꽃놀이로서 조선 초엽부터 해마다 정월대보름을 전후하여 해촌과 소곡동 두 마을에서 행해오던 놀이로 풍년을 기원하는 제사도 함께 지낸다.

남부임해권을 살펴보면 현재는 행하지 않지만 안성의 남성도 놀이가 있다. 다섯 면의 주사위를 던져서 중국의 고적과 명승지를 빨리 도는 사람이 이기는 놀이로, 다른 지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놀이였다. 평택지역의 농악은 마을두레의 성격과 경기·충청지역을 넘나드는 연희패의 성격이 어우러진 놀이이다. 마을두레패는 정초에 지신밟기와 농사철에 두레굿을 행하며, 연희패들은 장터에서 보여주는 난장굿과 걸립비용 마련을 위한 걸립굿을 행한다.

경기도지정 무형문화재

■ 종목별 도 지정 무형문화재

종목	음악	무용	놀이와 의식	공예기술	음식/무예	기타
내용	광명농악/ 경기소리:가 휘몰이잡가,나 긴잡가 /(송서·울창) /파주금산리민요 /포천메나리 /풀피리 /안성금산리민요 /양주농악(8)	승무 (살풀이춤) /안성 향당무(2)	줄타기/구리 갈매 동도당굿/안성 남 사당놀이/고양 송 포호미걸이/김포 통진두레놀이/상 여회다지소리:가 양주,나)화성 다 양평/과천무동답 교놀이/(7)	백동연죽장/방자유기장/조 선장/소목장:가구,창호,백 골/지장/생칠장/옥장/입사 장/나전칠기장:가)칠장,나 나전장/자수장:가)민수,나 궁수/벼루장/단청장/화각 장/악기장:가)북메우기,나 현악기/대목장:가)각수,나 도편수/웅기장/조각장/서 각장/사기장(백자,청화백 자)/석장/금은장/주물장 (22)	계명주/부의 주/군포당정 옥로주/남한 산성소주(4)	

■ 종목별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

종목	음악	무용	연극	놀이와 의식	공예기술	음식/무예	기타
내용	평택농악 (제11호)		양주별산 대놀이(제 2호)/발탈 (제79호)	줄타기(제58호)/양 주소놀이굿(제70 호)/경기도도당굿 (제98호)	악기장(제42호)/궁시 장(제47호)/유기장(제 77호)/목조각장(제 108호)		

※ 경기도는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10건)와 도지정무형문화재(43건)만으로 대비해 볼 때 지정 수량에서 전국 2위를 득하고 있으며, 특히 도지정무형문화재의 지정건수는 1위를 차지하고 있다.

① 도 지정 무형문화재의 특징

타 시·도에 비해 음악, 무용, 연극, 놀이와 의식, 공예기술, 음식 등 다양한 종목을 지정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공예기술 종목의 수가 다른 종목보다 많고 지역적으로는 경기남부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음악종목에 지정된 평택농악, 광명농악, 파주 금산리농요, 포천메나리 종목은 농사와 관련된 노동요로서 경기소리와 함께 경기도의 특성을 찾아볼 수 있다. 특히 율창·송서는 문자에 가락을 실어 부르는 소리로 독특한 독서문화를 보여주는 종목인데 애초 지정보유자 사망 후 지정이 취소되어 아쉬운 부분이다.

무용분야에 지정된 안성향당무는 전문 춤꾼들에 의한 춤으로 지역성이 드러나며, 놀이와 의식분야에 지정된 구리갈매동도당굿, 김포통진두레놀이 등은 일의 휴식과 농사의 풍요, 또 마을 공동체의 안녕을 기원하는 의례 등 놀이와 의식이 함께한 내용들로 역시 해당 지역의 지역성은 물론 경기도 문화예술의 정수라고 할 수 있다. 공예기술 분야에 지정되어 있는 방자유기장, 조선장, 벼루장, 단청장, 악기장, 대목장 등도 각 분야를 대표하는 장인들로 경기도의 전통문화 상품개발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음식분야에는 타 지역에서는 볼 수 없는 양상으로 계명주, 부의주, 옥로주, 남한산성소주 등 술이 다수 지정되어 있다. 이는 경기도의 대표적인 음식문화로 풍류와 멋을 대표하는 술 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하고 있다.

② 종목별 대표적 지정무형문화재

(가) 평택농악

- 중요무형문화재 제11호로 1985년 12월1일에 지정되고 평택시 팽성읍 평궁리 283-1(평택농악보존회)에 소재.
- 평택지역은 넓은 벌판을 배경으로 농업이 발전해 왔으며 자연스럽게 농악도 함께 발전해 왔음. 평택 농악은 1985년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되면서 대표적인 윗다리농악으로 인정받게 되었음. 우리나라의 농악은 크게 윗다리농악, 전라우도농악, 전라좌도농악, 영남농악으로 나뉘어지는데 윗



| 평택농악 |

다리농악은 이 지역에서 오랫동안 행해지던 마을놀이 풍물의 두레패적인 전통과 경기지역을 순회하며 풍물과 재주를 보여주던 걸립패의 전문 연희적인 성격이 복합된 풍물놀이임. 두레패적인 성격의 풍물은 정초의 지신밟기, 농사철의 두레굿 등이 있으며, 전문적인 연희 풍물에는 장터의 난장굿, 큰 다리나 절의 건축비용을 모금하기 위한 걸립, 마을의 공공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각지를 순회하며 놀이와 재주를 보여주는 풍물놀이 등이 있음.

- 이곳의 풍물은 팽과리, 북, 징, 장구, 소고, 태평소 등을 중심으로 하여 다른 농악에 비해 가락의 종류는 많지 않으나, 10여 가지의 가락이 다양하고 변화 무쌍하게 변주되며, 풍물의 가락은 대체로 빠르고 역동적이며 경쾌한 특성을 지니고 있음.
- 독특한 가락으로는 칠채와 짝짝이 등이 있고 30여 명이 펼치는 판굿마당은 힘차고 화려하며 특히 다양하게 전개되는 무동놀이는 매우 뛰어나.

(L) 승무(살풀이춤)

- 수원시 장안구 신평동 123-57에 위치한 승무는 무형문화재 제8호로 1991년 10월 19일에 지정되었음.
- 승무는 한말을 전후하여 창우(倡優)나 기녀(妓女) 등 기방예술인들이 추던 춤으로, 사찰에서 행하는 승려무용, 살풀이 춤이나 또는 궁중무, 탈춤의 장삼춤에서 영향을 받아 교방예술로 발전된 것으로 보고 있음. 주된 춤사위가 살풀이 춤과 유사하며, 춤의 형태도 완벽한 독무(獨舞 : 홀춤)로 추어짐. 이러한 승무의 전승자로는 중요무형문화재 제27호로 지정된 승무의 기능보유자인 한영숙과 이매방이 있음. 한영숙의 춤은 한성준 계의 승무이고, 이매방의 춤은 호남지역에서 추어온 이대조 계의 승무임.
- 현재 경기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김복련은 처음 승무의 무형문화재인 정경파의 제자이다. 정경파와 이동안으로부터 화성 재인청 기본무와 승무를 사사하였고, 1996년 전주대사습놀이에 입상하였다. 2002년에 정경파 선생의 뒤를 이어 경기도 무형문화재가 되었다.
- 한편 승무와 함께 무형문화재 제8호로 지정된 살풀이 춤은 무속음악 가운데 살풀이라는 남도 무악 장단에 맞추어 추는 춤으로 원래 무당들이 신내리기 위한 수단으로 행했던 춤인데, 후에 광대나 기생들에 의해 교방예술로 발전하여



| 승무 |

춤의 내용이 한층 예술적으로 다듬어지고 아름다운 기법과 형식으로 계승 발전되고 있음.

- 이 살풀이춤은 고운 머리에 비녀를 꽂고 흰 저고리와 치마에 버선, 그리고 옷고름이 늘어진 복장에다 흰 수건을 가지고 추는 것이 특징임.

(㉔) 양주별산대놀이

- 중요무형문화재 제2호로 1964년 12월7일에 지정되었고, 양주시 주내면 유양리 262(양주별산대놀이 보존회)에서 계승 발전시키고 있음.

- 양주별산대놀이는 서울·경기도의 애오개[阿峴里], 녹번(碌番), 사직(社稷)골 등에서 전해져 오는 본산대(本山臺)놀이의 한 분파로 오늘날 산대놀이라 하면 바로 이 놀이를 가리킴. 이 놀이는 조선 순조 현종 대부터 양주목이 있던 양주읍에서 해마다 부처님 오신 날이나 단오, 한가위 등의 날에 치러졌으며, 놀이 전에 고사를 지내고 제물을 음복한 뒤 시작하였고, 선달 그믐날에는 가면을 쓰고 관아의 동헌(東軒)을 비롯한 육방(六房)을 돌아 귀신을 물리쳤으며, 초청이 있을 경우 다른 지방에도 돌아다녔음.

- 놀이 비용은 마을 유지들과 부잣집 혹은 상인들이 모아 내었고, 놀이 담당자는 원칙적으로 무보수였음. 예전에는 놀이 도구를 보관하는 당집 앞에서 치러졌는데 근래에는 당집이 없어져 마을 뒷산 솔밭의 잔디나 향교 앞뜰에서 놀다가 전수회관 건립 후에는 그 앞에서 치러지고 있음.

- 양주 별산대놀이는 전체 8과장으로 나뉘어져 있고, 도입 부분에 길놀이와 고사를 지내고 종강에는 지노귀굿을 함.

- 이 놀이는 양반사회를 풍자하고 서민생활의 애환을 담은 내용으로 진행되는데, 사악한 것을 물리치는 의식무와 굿의 형식을 가미하여 해학적으로 짜여지고 있음.

- 다른 탈놀이에 비하여 비교적 평범한 일상어로 표현되어 있고, 특히 취발이나 말뚝이의 재담은 서민들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어 관중의 흥미를 돋우고 있음.

- 등장인물은 모두 32명이지만 겸용하는 탈이 있어 실제 사용되는 탈의 수는 22개이며, 상좌(2개), 음중, 목중(4개), 연잎, 눈썹적이, 완보, 신주부, 왜장녀, 노장, 소무(2개), 말뚝이, 원숭이, 취발이, 샌님, 포도부장, 신할아비, 미얄할미 등이 있음.

(㉕) 김포통진두레놀이

- 김포시 통진읍 도사리 434 - 7에 보존회(상쇠 : 윤덕현)가 위치하며 도무형문



| 양주별산대놀이 |

화재 제23호로 1998년 4월 6일에 지정되었음.

- 이 놀이는 통진지역 농민들이 지역 노동공동체인 '두레'를 조직하여 김매기를 하면서 농요를 부르고 기싸움을 벌이고 파접 호미씻김을 하는 것을 민속놀이로 구성한 것임.
- 예부터 이 지역은 들이 넓어 농민들이 두레를 짜서 김매기를 크게 하였고 특히 용정리를 비롯하여 인근의 많은 마을들이 두레가 농요를 부르고 농악판굿 등을 크게 벌였던 곳으로 유명하였음.
- 이 놀이에서 부르는 소리에는 고사덕담, 모찌기소리, 모내기소리, 김매기 방아타령, 김매기 상사소리, 김매기 몸돌여가 있음. 고사소리는 농사를 짓기 전에 고사꾼들이 풍년을 기원하기 위하여 하는 축원 덕담임.
- 통진두레놀이의 특징은 농사를 짓는 전 과정을 세밀하게 놀이로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며 또한 농요가 발달되어 흥이 절로 난다는 것임.
- 1998년 제38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 출연하였을 때는 고사덕담, 모찌기, 모내기, 새참먹기, 물고싸움, 두레싸움(기싸움), 김매기, 벼베기, 탈곡하기, 섬썰기 마무리로 구성하였으며 이때 대통령상을 수상하였음.

(b) 조선장

- 무형문화재 제11호로 1993년 10월 30일에 지정되었고 하남시 배알미동 143에서 전수됨.
- 조선장(造船匠)은 우리 전통배를 만드는 장인(匠人)을 말함. 현재 남한강과 북한강이 교차하는 지점으로 오래전부터 교통과 상업의 거점이 되어 온 배알머리에서 그 제작기술이 이어져 오고 있음. 조선배의 특징은 물깊이가 무릎 정도밖에 안되는 강 상류를 오르내릴 수 있도록 배 바닥이 편편하고 탄력이 있게 만들어야 한다는 점임. 근대 한선(韓船)이라고 하면 일제강점 전후로 하여 강이나 바다에 떠다니던 배를 말하는데 거룻배·나룻배·야거리배·당두리 등의 배가 있었음. 그 중 야거리배는 돛대가 하나 달린 바닷배로 배밀이 평평하기 때문에 한강으로 거슬러 올라 다녔으며 한강의 모래밭에 그대로 올라 앉을 수 있었고 당두리라고 하는 배(唐道里船)도 원래 바다배이면서 한강을 거슬러 올라 다녔다고 함.



| 통진두레놀이 |



| 조선장 |

- 현재 만드는 배는 주로 황포돛배(늘배·엇거루라고도 부름. 농부들이 농사를 지으러 일터를 옮겨다닐 때 타던 배로 나무를 실어나를 때는 두척을 붙여 사용하는데 이를 쌍동이배라고 함)·놀이배(와생이라고도 하며 20~30명이 탈 수 있고 짐을 많이 실을 수 있음)·기관선(놀이배에 모터를 단 배)·메생이(마상이·된마라고도 하며 그물배·낙시배 등 용도가 다양함) 등이 있음.
- 배를 만들 때는 주로 마을 사람들이 동원되어 함께 일하며, 큰배는 2~3명, 작은 배는 1~2명이 배의 종류에 따라 일주일에서 한달 걸쳐 제작함.
- 현재 기능보유자는 김용운 사후 그의 장남 김귀성이 기능보유자로 지정되어 있음.



| 계명주 제조과정 |

(사) 계명주

- 도무형문화재 제1호로 1987년 2월 12일에 지정되었고 남양주시 수동면 지둔리 279에서 전승됨.
- 계명주는 술을 담근 다음날 닭이 우는 새벽녘에 벌써 술이 익어서 마실 수 있는 술이라고 하여 붙여진 이름임.
- 따라서 급하게 술을 빚을 필요가 있을 때 만들었던 속성주로 1일주(一日酒), 삼일주(三日酒), 계명주 등이 이에 속하며, 일명 옛탁주라고도 함.
- 원래 탁주는 고두밥에 누룩을 섞어 버무린 후 오지그릇 위에 정(井)자 모양의 나무 걸치계를 걸고 체로 걸러 뿌영고 텃텃하게 만든 술이며, 옛탁주는 쌀로 지은 고두밥이 아니라 옥수수과 수수, 옛기름으로 죽을 찌고 여기에 누룩과 술잎을 넣어 만든 것이 특징임.
- 제조공정은 술을 담기 5~7일 전에 누룩을 조청에 담아 흡수시킨 후, 옥수수과 수수의 3배로 물을 넣고 맥아를 넣어 잘 삭을 때까지 약하게 가열한 후 자루에 넣어 찌끼를 거르고 액체를 다시 끓인 후에 차게 식힌 재료에 조청을 흡수시킨 누룩을 술잎과 잘 배합하여 독에 담고 25~28℃로 8일간 발효시킴. 이것을 거른 것이 옛탁주임.
- 알코올 농도는 11%이며, 여기에 여덟 가지 약초를 넣어 알코올 농도 16%로 만든 술이 약계명주로 농림수산부 지정 전통식품 12호로 지정되어 있음. 현재 기능보유자는 최옥근이며 장성진이 전수자로 지정되어 있음.

우리나라의 현대적 대중문화의 효시는 누구일까? 예전에는 많은 이들이 서구문화로부터 우리 대중문화예술의 원류를 찾고자 했다. 그러나 현재의 대중문화예술은 서구에서 파생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민중예술을 통해서 발전해온 결과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러한 우리 대중문화의 원류를 찾는 중심점에는 항상 사당패가 자리잡는다. 그리고 바우덕이라는 유일무이한 여자 꼭두쇠가 사당패를 대표한다. 즉 바우덕이는 우리나라의 대중문화를 개척한 인물로서 연예의 효시가 되는 것이다.

조선 후기 신재효에 의하여 재정립된 판소리는 우리 음악의 중요한 부분이었으나 민중을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을 담당하지 못하였다. 연예로 발전시킬 수 있는 개성 있는 인물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판소리 연희 자체의 형식과 참여에 있어 제한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외에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전승된 궁중음악인 아악이 있지만 중요제례에 쓰이는 것일 뿐 대중문화와 연관을 지을 수 없었다.

그러나 사당패 중에서도 안성남사당패에는 바우덕이라는 특별한 영혼과 능력을 갖춘 개성 있는 여인이 있었다. 그는 탁월한 능력으로 경복궁 중건에 동원되어 사기가 떨어진 많은 공역자들과 백성들에게 신명의 힘을 불어넣어 주었다. 이렇게 하여 엄청난 규모의 경복궁 중건사업은 잘 마무리될 수 있었다. 아마 바우덕이가 없었다면 흥선대원군은 경복궁을 중도에 포기해야 했을지도 모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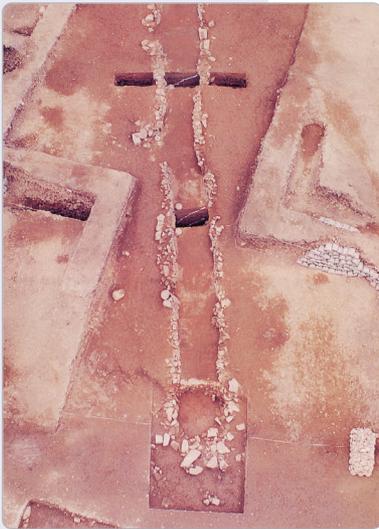
바우덕이가 공연을 할 때는 얼마나 신명이 났던지 공역자들은 등짐에 짐도 지지 않고 분주히 뛰어다니며 '얼썩 얼썩' 흥을 어우르기만 했다는 일화로 미루어 볼 때 당시의 감흥과 신명이 어떠했는지 짐작이 간다. 당시의 이 사건은 매우 큰 충격이었다. 민중이라는 개념도 없었고 대중이라는 개념도 없었던 시기에, 대중문화 특히 연예의 힘인 스타가 탄생한 것이다. 이러한 공로에 보답하기 위해 흥선대원군은 바우덕이가 이끈 천민 집단인 안성남사당패에 당상관 정3품의 벼슬을 내려 주었는데, 이것이 바로 안성남사당패 영기(令旗)에 걸여준 옥관자였다.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다. 유랑 천민집단이 당상관의 고관 벼슬을 받은 것도 그 러려니와 일개 놀이패에 벼슬을 내린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정3품을 받은 사당패 깃발을 앞세우고 가면 전국의 모든 사당패가 절을 드렸다(만장기를 숙여서 예의를 표시함-旗拜)고 하는데 당상관에 대한 예우의 사정을 미루어 볼 때 이 또한 사실이라 하겠다.

그러므로 전국 공연단체 중에서 대장 역할을 담당한 바우덕이가 이끄는 안성남사당패는 전국 어디에서건 공연이 가능한 최초의 전국구 공연단체가 되었다고 하겠다. 그리고 또한 이 때부터 바우덕이가 이끌던 안성남사당패는 '바우덕이'라는 인물명칭으로 불리게 되었다. "바우덕이가 왔다", "바우덕이다"로 불렸다고 하는데 이러한 이름의 대중화는 우리나라 문화에는 없었던 현상이었다. 바우덕이의 천부적인 예술적 능력과 스타 기질이 이러한 유행어를 파생시킨 것이다. 대중예술의 특징, 특히 연예의 특징은 스타가 있다는 것이다. 스타는 이름으로 불린다. 스타는 관중을 몰고 다닌다. 스타는 관중과 대중을 실망시키는 일이 없다. 바우덕이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스타로서 인정을 받는다. '남사당패'가 왔다가 아니라 '바우덕이'가 왔다는 그 시점이 바로 우리나라 연예가 시작된 것이며 민중에게 사랑과 동경의 대상이 형성된 일대 사건이라 할 것이다.





1. 도자의 탄생과 경기도



| 벽돌가마 | 여주군 북내면 중암리

경기도의 전통문화를 소개할 때 대표적이라 할 수 있는 것이 도자(陶器)이다. 고려시대 경기도에 중국 월주지방 벽돌가마와 청자(靑瓷) 제작 기술을 일찍 받아들여 경기도는 초기 청자의 발생지가 되었고, 조선시대 왕실 그릇을 담당하던 사옹원(司饔飮)의分院(分院)이 경기도 광주에 설치되면서 최상품의 백자(白瓷)를 생산하며 도자문화의 중심지가 된다.

또한 세계인에게 중국·일본과 다른 한국 고유의 아름다움을 설명할 때 도자공예만으로도 설명이 충분하다. 고려시대는 고려인의 세련된 미감과 높은 기술력으로 중국과 견줄 만큼 독특한 청자를 만들었고, 조선시대 백자는 유교이념 속에 꾸미지 않은 듯 소박한 고유의 미학으로 당당하게 자리 잡고 있다. 이것은 경지에 오른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표현에 있어 과장됨이 없고 순수한 인간미를 예술작품으로 승화한 것이다.

경기도에서 고려시대에 시작된 청자 제작부터 조선시대 백자의 흐름을 살펴보면 우리도 도자문화의 중요성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된다.

신석기시대에 초보적인 토기를 만들기 시작하면서부터 단단하고 쓰기 편하며 아름다운 그릇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이어져 연질토기, 경질토기 등 다양한 재질과 기능을 갖는 토기들이 탄생되었다. 삼국시대 후기부터는 저화도 연유(鉛釉) 도기

알아두기 도자기 이름 짓는 법

첫째, 전체적인 색깔을 본다. 흰색은 백자, 비색은 청자, 회청색은 분청 등으로 불린다. 둘째, 제작기법이나 안료의 색깔을 본다. 흑갈색은 철화, 구리는 진사, 코발트는 청화 등. 셋째, 문양에 따른 기법을 본다. 연꽃은 연화문, 모란은 모란문, 포도는 포도문, 구름 용 무늬는 운용문 등이다. 넷째, 형태에 따른 분류법이다. 주병인지 뚜껑이 있는 합인지, 어깨가 건설하고 허리가 잘록한 호인지, 매병인지 등을 구분해서 첫째부터 넷째까지를 짝 연결하면 도자기의 이름이 된다.

예) 청자 상감 문화문 매병
 ↳ 색깔 ↳ 제작기법 ↳ 문양 ↳ 형태

를 만들기 시작했고 통일신라시대 후기가 되면 고화도 회유(灰釉) 기술이 보편화 되기 시작한다. 이후 중국 당말오대(唐末五代) 월주(越州)지방 청자의 영향으로 표면을 유리처럼 매끄럽고 단단하며 옥(玉)과 같이 아름다운 자기(磁器)를 만들려는 노력이 이루어져 경기도에서 고려초 청자를 만들게 되었다. 경기도에서 청자를 만들게 된 최초의 흔적은 벽돌가마와 해무리굽에서 찾아볼 수 있다 대체로 도자기를 굽는 가마는 진흙으로 만들어져 있지만 처음 청자를 굽던 도자기 공장인 가마는 벽돌로 지어졌다. 이것은 중국 월주지방에서도 찾아볼 수 있어 중국 장인이 이주하여 도자기 제작에 도움을 주었을 것으로 보기도 한다. 벽돌가마의 흔적은 황해도 원산리, 용인시 서리, 시흥시 방산동, 고양시 원흥동, 여주군 중암리 일대에 위치하고 있어 경기도 도자문화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처음 만든 청자는 어떤 종류였을까? 찻잔, 찻주전자, 홍을 돋우는 장고 등이 있다.

통일신라말부터 선종이 유행하여 시작한 차를 마시는 풍습이 고려초로 이어지면서 그 수요가 증가하고 직접 만들 고자하는 욕구가 강해져 국내에서 생산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초기 청자 그릇형태의 대표적 특징인 해무리굽은 찻잔 굽의 두툼한 형태를 말하는 것으로 마치 초저녁 해가 지는 붉은 해무리의 모습과 같다고 해서 지어진 이름이다.

이렇게 시작된 청자의 제작은 당시 중국의 최첨단 선진 기술이었고, 맑고 푸른 빛깔의 청자를 만든 우리나라는 중국과 더불어 세계에서 유일한 청자 생산국이었다. 일본은 임진왜란 이후 우리 도공이 건너간 17세기에야 아리따에서 백자를 제작하기 시작했고, 유럽은 18세기 이후 독일 드레이텐에서 만들게 되었으니, 고려의 청자 제작 기술을 세계 최고 수준의 도자문화라고 자랑할 만하다. 이러한 초기의 도자제작의 흔적인 가마터들이 우리지역에 위치하니 후손들과 세계인에게 알릴만한 대표적 문화유산이라 하겠다.



| 심수관요 | 일본 가고시마현



| 해무리굽완 | 경기도박물관



| 해무리굽완 - 뒷모습 | 경기도박물관

상감(象嵌)청자

시문하고자 하는 문양을 파내고 그 자리에 태토와 색이 다른 붉은 흙(赤土)과 흰흙(白土)을 메우고 그 위에 유약을 씌워 굽는 것이다. 이것은 청동기의 은입사기법과 나전칠기의 입사기법을 도자기에 응용한 세계 유일의 기술이다.



청자참외모양주전자 | 경기도박물관



청자상감버드나무모란학무늬의자 | 경기도박물관

세계 최고, 고려 청자

고려시대 청자는 불교사회와 귀족문화를 배경으로 이루어진 세련되고 독창적인 모습으로 발전하게 된다. 그중 손에 꼽을 수 있는 것이 하늘빛과 닮은 푸른 비색(翡色)청자, 상감청자, 그리고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서정적인 무늬와 그릇의 형태이다.

중국 송나라 사람들은 청자의 색을 비색(秘色)이라고 불렀으며 고려인들은 빙얼이 없이 깊고 차분한 독자적인 비색을 개발하여 12세기 그 절정을 이룬다. 1123년 송나라 사람인 서공이 고려에 사신으로 와서 고려의 생활을 자세히 기록하여 이듬해 『고려도경(高麗圖經)』이란 책을 펴냈다. 여기서 “고려 사람들은 푸른색의 도기를 비색(翡色)이라 부르는데 제작이 공교롭고 색깔이 이롭다워 여요(汝窯) 청자와 비슷하다”고 남기고 있다. 여요청자는 현재까지도 중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청자로 손꼽히며 황실에서 사용하던 최고의 고급자기이다. 그 여요자기와 비교할 정도의 푸른빛 그릇이라면 가히 얼마나 대단한 기술인지 알 수 있다.

송나라의 태평노인(太平老人)은 『수중금(袖中錦)』이란 저서를 남겼는데, 여기에서 ‘천하제일론(天下第一論)’이라 하여 “고려의 비색이 천하제일이다”라고 하였다. 이후 13세기에는 나전칠기, 은입사기법에서 응용된 세계 유일의 기술인 상감기법의 청자가 유행한다. 전라도 강진·부안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제작되며, 고려왕실의 주문과 기술감독 등으로 세련된 청자를 만든다.

청자의 문양과 그릇의 형태는 중국 청자와는 다른 서정적이고 낭만적인 취향으로 특색있다. 구름



청자상감구름학버드나무무늬매병 | 경기도박물관

알아두기 유약(釉藥)의 역사

자기의 표면에 덧씌운 얇은 유리질막을 말하며 바탕의 흡수성을 없애고 도자기 자체의 강도를 높이며 광택과 색깔을 나타나게 하여 아름답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 중국 한나라때 회도(灰陶)라고 하는 초기 단계의 자기를 거쳐서 남북조시대에 들어와 월주(越州)라는 곳에서 AD 3세기경에 만들어 낸 것이 처음이다. 유약은 나무재의 잿물을 입힌 것으로, 처음 유약을 만드는 방법을 알아낸 건 도기를 만들면서 가마속에 나무장작의 재가루가 날아 앉아 유리질처럼 반짝이는 자연유라는 것에서 힌트를 얻기 시작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통일신라시대 도기에서 자연유가 보인다.

사이를 날고있는 학, 포도덩쿨에서 노는 천진한 어린아이 모습, 버드나무 있는 물가에서 여유로운 새들의 모습은 고려인의 넉넉한 착하고 심성이 묻어 있다. 또한 그릇의 형태를 보아도 아기를 안고 있는 어미 원숭이와 새끼오리를 등에 업은 오리연적, 당당한 어깨선에 부드러운 곡선과 균형감이 극치인 고려매병 등은 세련된 청자의 매력에 빠져들게 한다.

고려 청자의 흐름과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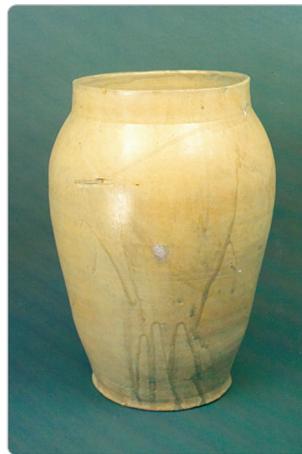
고려초기인 10세기 전반은 통일신라 토기 계통인 회청색 경질토기가 일상용기의 형태로 변형되어 계속 제작되었고, 회유(灰釉)의 기술이 계속 개발되어 갔다. 이것은 고려 청자의 탄생이 있게 한 기술적 밑거름이 되었다. 청자 제작 초기 상황을 알 수 있는 명문 도자로 '순화4년명(淳化四年銘)' 항아리가 있다. 그릇의 바닥에 음각으로 새긴 글씨가 남아있는데, 순화4년(成宗 12년, 993) 계사년에 태조 왕건을 위해 제사를 지내는 사당인 태묘 제1실에서 쓰는 의례용의 항아리로 최길회라는 장인이 만들었다는 내용이다.

이 항아리는 입이 넓고 곡선의 굴곡이 완만한 몸통을 가지고 있으며, 태토는 백토에 가까우나 유조(釉調)는 백자도 청자도 아닌 옅은 황·갈·녹색을 띠고 있다. 시유기술은 아직까지 발전되지 못해 흘러내려 뭉친 흔적이 있어 고려도자의 기술이 아직은 미숙한 단계임을 말해 준다.

고려의 사회와 문화가 안정된 12세기는 공예 기술이 더욱 성숙하여, 청자의 가장 큰 특색인 비색이 전성기를 맞이한다. 이 시기 청자는 북송과의 지속적인 문화교류를 통해 청자 기술이 향상되어

태토(胎土)

도자기의 원료가 되는 흙으로 보통 고령토를 말하며, 주로 점착성(粘着性)을 가진 미세한 입자의 집합체이며 규소, 알루미늄, 철 등으로 구성된 점토로 1200도 이상에서도 흠이 주저앉지 않고 형태를 유지하여 단단하고 매끄러운 그릇을 만드는 기본이 된다.



| 순화4년명항아리 |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 청자참의모양병 |
국립중앙박물관(중박 200809-927)

알아두기 도자기를 감상 및 감정할 때 고려할 점

일단 전체적으로 그릇 형태의 아름다움을 보고, 두 번째로 유약과 태토의 빛깔이 티가 없이 곱고 조화를 잘 이루는 가를 본다. 마지막으로 그릇의 문양이 적절하게 어우러졌는가를 본다. 대개 무늬가 없는 비색청자는 청자 고유의 빛깔의 아름다움을 전달하기 위해 빙열(氷裂 : 도자기 표면에 잔금이 가 있는 것)이 없고 고와야하며, 상감청자는 상감의 문양이 두드러지게 하기 위해 빙열의 효과를 높이기도 한다.



청자상감보상당초문대접 | 국립중앙박물관(중박 200809-927)

갑발(匣鉢)

그릇을 가마에 쌓을 때 그릇 위에 씌워서 그릇에 재가 앉는 것을 방지시키고, 불길이 직접 그릇에 닿지 않게 하기 위해 만든 것

도지미(陶枕)

그릇들을 가마에 넣고 구울 때, 가마 밑바닥에 성글게 깔 모래들이 그릇 바닥에 붙지 않도록 만들어 받침으로 사용한 도구

새로이 틀로 찍어내는 압출양각(押出陽刻) 기법이 도입 사용되고, 철화(鐵畵)·퇴화(堆花)·음각(陰刻)·양각(陽刻)기법 등의 다양한 기술의 청자가 등장한다. 대표적인 비색청자로 인종장릉(仁宗長陵) 출토 청자소문과형병(靑磁素文瓜形瓶)과 청자소문방형대(靑磁素文方形臺)가 있다. 인종 장릉은 경기도 장단군 장단면에 있으며 황통(皇統) 6년(1146) 인종 시책(諡冊)과 함께 일괄 출토되었다.

고려후기로 접어드는 13세기는 상감청자가 전성기를 이루는 시기이다. 최초의 상감청자로 볼 수 있는 것은 문공유(文公裕) 무덤에서 출토된 청자상감보상당초문(靑磁象嵌寶相唐草文)대접이다. 문공유가 죽은 1159년(의종 13)을 이 대접의 제작시기로 볼 수 있다. 대접 내면에 역상감된 보상당초무늬는 상감기법이 이미 상당히 발달된 수준임을 알려준다. 그리고 명종 지릉(智陵)에서 출토된 청자상감여지문대접은 문공유 무덤 출토 청자보다 세련된 모습이다. 명종이 1255년에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13세기 초에 제작된 상감청자의 수준을 짐작케 한다. 이렇게 상감기법은 무늬가 복잡 화려해지고 그릇의 내·외면에 빈틈없이 흑백상감이 된다. 여기에 붉은색 안료인 동화(銅畵)까지 함께 사용하여 더욱 화려해진 상감청자는 절정을 이룬다. 이 시기 생산지는 전남 강진과 전북 부안 두 곳에 대부분 집중되어 국가에서 운영한 관요(官窯)적 성격의 청자가 생산된다.

고려말 고려는 원나라의 부마국이 되어 안으로는 무신정권(武臣政權)하에서 실추되었던 왕권을 강화하는 한편, 중앙 관제의 개정에 따른 정치적인 변화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 속에 청자의 기형은 대형화하며 실용 위주로 변해가고 새로운 형태의 그릇들이 출현한다. 이전에 유행하던 상감기법이 생략되어 조잡하고 간략화 되는 경향이 있다. 원의 영향을 받아 파도무늬·용무늬·물고기무늬·쌍봉무늬·보상당초무늬 등이 등장한다.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연대를 알 수 있는



청자상감벼드나무오리무늬향아리 | 경기도박물관



청자인화 '정릉' 명국화무늬접시 | 경기도박물관

‘기사(己巳)·경오(庚午)·임신(壬申)·계유(癸酉)’ 등 간지명 대접의 등장이다. 그리고 화금자기(畵金磁器)에 대한 『고려사(高麗史)』의 기록에 따라 원나라에 금으로 그림을 그린 청자를 진현하였으며 당시 유행한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이렇게 고려말 정치적인 혼란, 잦은 왜구의 침입으로 등의 혼란과 변화의 시기로 인해 그동안 강진과 부안 두 곳에 집중되어 국가의 보호를 받아오던 관요적(官窯的) 성격의 요업은 14세기 후반 고려왕조의 쇠락과 함께 자유로이 전국 내륙 지방으로 확산되었다. 전국으로 확산된 가마에서 제작이 늘어나고 시장에 대량으로 유통되면서 민간에서도 청자를 사용하게 되었다. 『고려사』 기록에 은천옹주(銀鈞翁主) 임씨(林氏)가 등장하는데 사기(沙器) 판매를 업으로 하었다고 하여 민간에서 상당히 유통되었음을 보여준다. 이렇게 전국으로 확산된 쇠락한 청자의 제작은 고려말 조선초 분청사기 제작의 전신이 된다.



2. 분청사기

고려의 상감청자가 변모·발전하여 조선 세종 때에 전성기를 이루며 16세기 중엽경까지 약 200여년 간 생산되었던 분청사기(粉靑莎器)는 가장 한국적이면서 서민적인 정취를 담아낸 독특한 아름다움을 보이는 도자기이다.

분청사기라는 이름은 백토분장(白土粉粧)하여 표면이 백색을 띠고 유약을 바른후 전체 색조가 회청색을 보여 ‘분장회청사기(粉粧灰靑沙器)’라고 부르던 것에서 유래했다. 이전에 일본인에 의해 불리던 ‘미시마(三島)’라는 잘못된 용어는 사라지고 고유섭에 의해 붙여진 새로운 ‘분청사기’라는 이름으로 정리되었다.

분청사기는 15세기 전반 세종의 재위시기에 가장 다양하게 발전하였다. 청자나 백자와는 달리 전국에서 생산되었고 어존(御尊), 관아(官衙), 일반민들도 사용했던 가히 민족자기라고 할 수 있는 시대 산물이다. 조선초 상감청자와 성긴 인화기법(印花技法)의 분청사기가 제작되던 가마터가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다. 이렇게 확산·발전한 분청사기 요업은 세종 초년에 그 생산 상태가 정확히 조사되어 『세종실록(世宗實錄)』 지리지의 각 지방 토산조에 기록되었는데,



분청상감초화무늬네귀항아리 | 국립중앙박물관(중박 200809-927)



분청사기박지모란문편병 | 경기도박물관



분청사기상감정글무늬병 | 경기도박물관

전국적으로 자기소가 139개, 도기소가 185개 조사되고 이들은 토산공물로 중앙에 상납되었다.

분청사기는 그릇 표면을 백토로 씩우는 소위 백토분장 기법과 무늬를 새겨넣는 방법에 따라 따라 7가지로 나눌 수 있다. 상감분청사기, 인화분청사기, 박지분청사기, 음각(조화)분청사기, 철화분청사기, 귀얄분청사기, 담금(뜸병)분청사기로 고려의 청자 기법과 유사한 면도 있으며, 분청 고유의 귀얄·담금 기법 등 다양한 기법을 가진 것이 특징이다. 이렇게 다양한 기술로 만들어지는 이유는 전국적으로 제작되어 각각의 지방색을 가지고 다양하게 제작되었기 때문이다.

분청사기의 흐름과 변화

조선초 고려의 쇠운과 함께 고려 청자는 태도가 조잡하고 투박하며 색조도 암록색을 띤다. 이러한 상감청자의 전통이 이어지면서도 문양과 그릇형태가 간략화되고 생략화하며, 매병의 기형도 당당한 어깨선이 'S' 자형으로 변화하게 된다.

이후 세종 치세 년간은 조선전기 문화의 융성시기이며, 분청사기는 다양한 발전을 보여 상감·인화·박지·음각 등으로 참신하게 변모한 양상을 띠게 된다. 정소공주(貞昭公主) 무덤 출토 분청상감초화무늬네귀항아리(1424년)를 보면 마치 고

려 청자 전성기의 푸른색을 연상케 하며, 상감기법과 인화기법을 다양하고 화려하게 구사한 모습을 볼 수 있다.

이 시기가 지나면 점점 그릇을 만드는 양상이 해이해지고 유태에 잡물이 많이 섞여 그릇의 품질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이때에 귀얄 기법이 현저히 증가하고 전라도에서는 박지와 음각 기법이 특색을 이루며, 충청도 공주 학봉리 계룡산록 일대에서 제작된 특유의 철화(鐵畵)기법이 활발히 제작된다. 일명 '계룡산 도자' 라고도 하며 백토분장 위에 거침없이 그려 넣은 힘찬 철화 필치는 매우 호방하고 개성이 넘치는 익살스러운 맛이 있다. 경기도에서는 15세기 용인시 서리·학일리 일대,



분청사기철화당초무늬장군 | 경기도박물관

여주군 삼군리, 연천군 부곡리·도신리, 광주시 도수리 등지에서 분청사기 가마가 발견되는데 지방에서처럼 분청사기가 크게 유행하지 않았다.

이제 새로운 시대가 필요로 하는 백자가 유행하게 되면서 분청사기는 백자처럼 하얗게 변화하다가 사라지게 된다.



3. 조선 백자

조선시대 만들어진 백자(白瓷)는 고려시대 만들어진 백자와는 다른 것으로 매우 단단하고 잘 깨지지 않는 실용기로서의 기능이 강해진 것이다. 14세기 원대(元代) 경덕진(景德鎮)의 기술개발로 이루어진 난백유(卵白釉) 계통의 추부백자(樞府白磁)의 영향으로 명대(明代) 크게 유행하며 이것이 조선 도자제작에 영향을 주어 새로운 백자를 탄생시킨 것이다.

백자(白瓷)란 백토(白土)로 그릇의 형태를 만들고 그 표면에 여러 가지 장식을 한 다음 투명한 백색 유약을 입혀 구워낸 도자기를 말한다. 백자의 색은 눈같이 흰 설백색(雪白色), 우윳빛이 도는 유백색(乳白色), 약간 파르스름한 색을 머금은 청백색(靑白色), 푸른기가 짙은 청백색, 회백색(灰白色) 등 태토·유약·가마의 환경 등에 따라 그 색이 다양하다.

신흥 왕조는 나라의 이념을 고려의 화려했던 불교문화와 달리 유교로 정해 검약과 실질을 숭상하였고, 전 왕조의 유산인 청자 대신 백자를 하나의 상징물로 삼아 신속하게 백자 산업을 부흥시키고자 노력하였을 것이다. 유교적 애민 사상의 전형을 보여준 세종대왕은 왕이 사용하는 어기(御器)를 백자로 전용하였으며, 이런 왕실의 비호에 힘입어 조선 백자가 빠르게 발전되면서 일찍부터 조선 백자의 특질이 형성되었다.

즉, 유교를 기본 통치이념으로 새 왕조를 일으킨 조선은 고려의 청자와는 다른 실용적인 백자를 왕실의 그릇으로 채택하였고, 이것을 대량 생산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그 결과 1470년경 왕실용 그릇을 전담하는 사용원(司饗院)의 분원(分院)을 경기도 광주에 설치하고 전국에서 엄선된 380명의 장인을 중앙에 등록하여 양질의 백자와 청화백자 그리고 백자태토의 청자를 생산한다.



백자호 | 경기도박물관

사용원의 분원

왕실에서 식사와 잔치를 담당하던 관청인 사용원(司饗院)은 경기도 광주 도자 가마에 그 분원을 내어 책임자로 종8품의 관직인 봉사(奉事)를 내려보내 도자 제작을 감독하게 하였다.

하얀 그릇에 꽃핀 청화·철화 그림

조선초기 도자사의 최대 사건은 청화백자(靑華白瓷)의 발생이다. 현재 청화백자의 발생 시기를 15세기 중엽경으로 보고 있는데, 특히 파평윤씨 묘역에서 출토된 세조의 장모인 인천이씨의 청화묘지석이 1456년 제작된 것으로 밝혀져 가장 이른 시기 국내에서 제작된 청화백자로 보고 있다. 청화백자는 원·명대 청화백자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진 백자로 산화(酸化) 코발트(CaO)를 주성분으로 하는 원료로 문양을 그린 뒤 투명하고 파르스름한 백자 유약을 입혀 번조한 것이다. 당시 페르시아의 코발트 안료가 아라비아 상인을 통해 중국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청화 안료인 회회청(回回靑)의 값이 금값과 맞먹는 고가여서 특별한 용도로 드물게 번조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며, 그래서 현존하는 작품도 매우 귀하다.

이렇게 고가의 청화안료를 사용하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최상품의 백자에 그림을 그리고, 그 그림을 그리는 주인공은 바로 왕실에서 파견된 화원화가이며 그들이 직접 광주 가마에 내려와 최고 수준의 그림을 도자기에 그려 넣었다. 그 중에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진 조선후기 김홍도가 그렸다고 전해지는 청화그림도 있다.

조선후기 청화의 교류가 중단되고 청료를 구할 수 없게 되자 철화백자(鐵畫白瓷)가 유행하게 된다. 철화백자는 백자 표면에 철사(鐵砂) 안료로 문양을 그린 백자로 문양은 갈색이나 흑갈색을 띤다. 철화백자의 대표적인 예로 용·호랑이·포도그림이 그려진 항아리를 들 수 있다. 17세기 용무늬가 있는 항아리는 왕을 상징하며 왕실에서만 사용되던 것으로 매우 상징적이다. 그러나 조선전기 청화로 그려진 권위 있고 품격 높은 용의 형체가 아닌 다소 해학적인 모습의 용으로 변하기는 하나 힘이 넘치는 눈과 뿔, 곧게 뻗은 다리들 그리고 용수철처럼 탄력 있는 몸체의 표현은 감히 지방의 장인이 흉내낼 수 없는 경기도 광주의 최고 수준에서만 만들 수 있는 모습이다. 그리고 이화여자대학교가 소장하고 있는 백자철화포도문 호는 분명 수준 높은 화원화가가 그렸을 것으로 보이는 단정한 모습으로 그 격이 매우 높다.



| 백자청화 '홍치' 명송죽문호 |
동국대학교박물관

알아두기 경기도 광주에서 지방처럼 분청사기가 왜 활발히 제작되지 않았나?

1470년경 사옹원의 분원이 설치되어, 경기도 광주에서 왕실용 백자를 제작하게 되므로 경기도에서는 지방처럼 분청사기가 크게 유행하지 않고 백자생산에 전념하게 되었다.

조선전기 백자의 특징을 일괄해 보면, 우선 형태적으로 신흥 왕조의 활기찬 기풍을 반영하듯 전체적으로 기운이 넘치고 당당한 자태를 보이며, 내면의 높은 정신세계를 추구한 성리학자들의 안목을 과시하듯 엄정한 기품이 서려있다. 또한 고결한 인품을 대변하는 티 없이 깨끗한 순백의 아름다움에 탐닉하여 순백자 일변도로 나아갔으며, 간혹 청화나 철화백자를 통해 문인들이 즐겨 완상하던 수묵화를 방불케 하는 뛰어난 도화(陶畵)의 세계를 펼쳐 보이기도 하였다.



| 백자철화용무늬항아리 굽의 모습 | 경기도박물관

경기도 광주에 사용원의 분원을 설치하다

1470년경 왕실용 백자를 전담하여 제작하는 사용원의 분원이 경기도 광주(廣州)에 설치되면서 백자의 질과 형태, 제작체계 등에는 이전과 다른 새로운 변화가 생겼다. 이 시기에는 상감백자와 함께 눈같이 흰 순백자가 제작되는 한편, 청화백자(靑畵白瓷)를 본격적으로 제작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었다.

조선전기(15~16세기)에 해당하는 가마는 퇴촌면 우산리(牛山里), 도마리(道馬里), 번천리(樊川里) 등지에 위치한다. 이곳에서 중국의 백자나 금속기와 유사한 형태의 자기가 제작되었으며, 대접과 접시 이외에도 항아리, 병, 잔, 합(盒) 등 다양한 종류가 만들어졌다. 질 좋은



| 백자철화용무늬항아리 | 경기도박물관

알아두기 도공들의 생활

관영 사기공장으로 분원이 설립되던 시기인 조선전기에는 전국의 사기장들을 조사하고 등록하여 3개팀으로 나눈 다음 일정기간 분원에서 도자 만드는 일을 부여하게 하는 방식이었고, 조선후기에 이르러서는 이들이 봉급을 받는 형태로 아예 분원 근처에서 가족들과 함께 상주하는 형식을 취하게 되었다.

알아두기 조선전기 청화와 후기의 청화안료는 같은 걸까?

조선전기 사용된 회회청은 푸른색이 맑고 아름답기는 하나, 청화색의 농담을 조절하기 어려워 부분적으로 청화색이 진하게 묻쳐 유약 밖까지 나오는 경우가 있어 그런 특징을 굴껍질 문양이라 부르기도 한다. 조선후기가 되면 다시 청화안료가 다량으로 사용되게 되는데 이것은 중국에서 생산된 토청(土靑) 종류로 조선전기의 회회청보다는 저렴하고 그림에 문침이 없어 그릇에 다양하게 사용되었다. 19세기가 되면 도공중에 화청장이란 전문담당이 생겨 이들이 청화로 다양한 그림을 그리게 되는데, 일반인들도 모두 청화그릇을 가지게 되었다.

백자 바닥에는 ‘천(天) · ‘지(地) · ‘현(玄) · ‘황(黃) 명문이 음각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청화백자의 장식소재로는 매화와 대나무, 소나무와 인물, 용 등이 즐겨 사용되었다.

임진왜란과 광주의 분원이 남종면 분원리로 고정된 1752년 이전까지의 상황은 도자사에 있어 변화의 기점으로 볼 수 있는 큰 사건이다. 임란 이후 분원은 정상적인 조업을 못하여 왕실 연례에 사용되는 청화가 없어 백자에 가화(假畵)를 썼다고

한다. 하지만 요업의 복구는 비교적 신속하여 17세기 중엽의 선동리 가마의 경우 활발한 생산활동의 흔적을 남기고 있다. 조선에서는 만주족이 세운 청이 세워지자 ‘야만’이라 규정하고 ‘조선중화주의(朝鮮中華主義)’를 제창하면서 청과의 관계를 끊고 보다 확실한 조선적인 문화를 발전시킨다.

중기의 백자는 이러한 시대 분위기에 편승하여 가장 조선적인 도자미의 세계를 이루었으며 그 독특한 아름다움은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중기 백자의 문화는 백자질의 변화와 새로운 기형의 창출, 철화백자의 성행, 간결한 청화문의 유행 등으로 그 특징이 대표된다.

우선 백자질은 17세기 전반에는 회백색(灰白色)을 띠지만 점차 백자질이 좋아지다가 18세기 전반에는 눈같이 희고 아름다운 백자인 소위 ‘금사리(金沙里) 백자’를 생산하였다. 형태는 전기의 양감이 강조된 당당한

모습에서 위아래로 세장해진 준수한 형태로 변모하며, 몸체를 각지게 깎은 것이 새롭게 유행하고 조선 백자미학의 정수라 평가되는 ‘달항아리’가 이 시기의 후반에 완성된다. 문양 장식도 크게 변하여 17세기에는 철화백자의 전성기를 맞으면서 해학적인 운룡문과 간단한 필치의 추상적인 초화문이 성행하였으며, 18세기에 들면 청화백자가 새로운 경지를 이루어 한국적인 서정미와 고아(高雅)한 문기(文氣)를 짙게 내보이는 난초문 계통의 간결한 초화문이 성행하였다.

조선중기에는 질 좋은 백자 바닥에 ‘좌(左) · ‘우(右) + 간지명이 음각되어 있어, 명문을 통해 분원이 옮겨간 지역의 순서를 알 수 있다. 17세기 전반의 탄벌리와 상림리, 중반의 선동리와 송정리, 유사리 그리고 후반의 신대리, 탑립동, 궁평리 등



| 유사리 9호 백제가마터 | 광주시 퇴촌면



| 무감리 2호 백자편 | 광주시 초월면

이며 18세기 초반까지 운영되었던 곳으로는 관음리와 오향리를 들 수 있다. 금사리는 가마가 분원으로 이동하기 전 18세기 전반에 운영되었다.

분원 이설(移設)에 따른 갖가지 문제로 인해 고심끝에 영조(英祖)는 1752년에 수운이 가장 편리한 남한강과 북한강의 합류지점인 남종면 분원리에 분원을 고정시킨다. 이후 분원은 한곳에 정착하여 왕성한 활동을 벌이지만 19세기 말에 재원 조달의 어려움과 민간 자본의 유입이 심화되자 1884년 분원의 민영화가 결정되면서 중앙관료로서의 분원의 종말을 고한다. 후기는 분원리에서 정착·활동한 150여 년간을 말하며, 이 시기의 백자를 통칭 ‘분원자’라 부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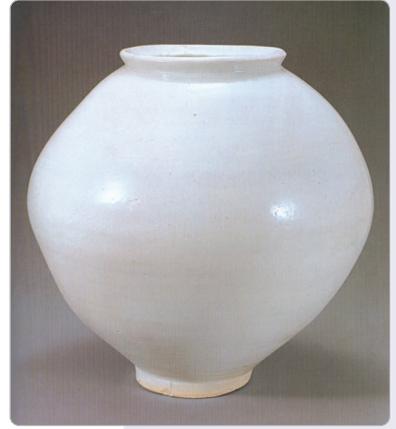
후기 백자가 시작되

는 18세기 중엽 이후의 조선 사회는 청의 발달된 문물에도 눈을 돌리기 시작하였으며 내부적으로는 상공업의 발달로 중인 계층이 부상하면서 유교적 신분 질서가

서서히 무너져 가고 있었다. 특히 정조(正祖)는 과감한 개혁과 중국을 통한 선진 문물의 수용으로 새로운 문예부흥기를 열었다. 그러나 19세기부터는 왕권이 약화되는 자본주의적 가치관이 확산됨에 따라 신분 질서가 붕괴되며 양반 계층이 확대되는데, 이런 사회 상황은 곧 미술의 민예화와 사치화를 불러 오게 된다.

조선후기 백자는 실용성과 장식성이 강화되어 ‘생활의 미’를 추구한 것이 두드러진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기형은 실용에 치중하고 기벽(器壁)이 두터워져 중후한 조형감을 보이지만, 유색은 ‘청백자’로 부를 정도로 벽옥 같은 화사한 색감을 보인다. 기종은 앞 시기에 비해 다양해지며, 특히 양반계층의 확산에 따라 문방구류의 생산이 급격히 많아졌다.

이 시기의 백자에서는 일찍이 볼 수 없었던 다양한 장식 문양이 등장하여 당시의 사치스런 풍조를 반영하고 있다. 순백자류에도 투각이나 양각 문양이 화려하게 장



백자달항아리 | 국립중앙박물관(중박 200809-927)



백자동화매죽무늬편병 | 경기도박물관



백자청화산수문사각병 | 경기도박물관



백자청화사자형연적 | 경기도박물관

길상문

장수나 행복 따위의 좋은 일을 상징하는 무늬. 한자가 지니는 표의적(表意的)인 성격으로부터 유래된 것으로 문학상상의 기풍이 체질화되었던 조선사회에서 크게 애호받았다. 특히 임진왜란 이후 오랜 전란과 정치적 혼란 속에서 재앙을 면하고 평안과 복을 구하고자 하는 민간의 염원이, 가구의 장식문양에까지 반영된 좋은 본보기이다.

식된 것들이 많아지며, 무엇보다 청화백자의 생산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히 ‘청화백자의 시대’라 부를 만하다. 18세기 후반에는 사군자·산수·운용문등이 유행하는데 궁중 화원의 출중한 회화적 기량을 보여 주는 불 만한 도화(陶畵)들이 많다. 19세기 이후에는 민예적인 성격이 강한 길상문(吉祥文)이 대거 등장하고, 화려한 색감의 진사 사용도 늘어난다. 또한 한 기물 위에 청화와 철화·진사를 혼용하여 화사하게 장식한 다채(多彩) 장식 백자도 성행하였다.

조선후기의 백자는 참으로 다양한 세계를 이루었다. 사회환경의 변화와 새로운 외래문물의 이입에 영향 받아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한층 풍부해진 내용을 보이며 서민 생활 깊숙이 침투하였다. 그러나 19세기 후반 무렵부터 국운이 쇠퇴하여 사회가 어지러워지면서 조선 백자도 정체를 잃고 혼탁하게 변하다가 분원이 혁파되고 일본의 신기술이 밀려들면서 급격히 몰락의 길을 걷게 되었다.

경기도 광주 분원 이외에 백자가마를 운영한 흔적은 여러 지역에서 살펴볼 수 있다. 조선전기에 운영된 곳으로는 군포시 산본동, 과천시 문원동·중앙동, 용인시 호동·운학동·대대리·천리, 남양주시 삼패동, 여주시 삼군리·상품리, 양평군 계정리, 연천군 동막리 등이 있다.

임진왜란 이후를 조선후기로 보았을 때 의왕시 학의동, 용인시 역북동·초부리·상하리·양지리, 여주군·오학리·상교리·석우리, 양평군·신북리·부안리·갈우리, 양주시 어둔리·울대리 등에 고루 분포하고 있다. 이들은 현재까지 사기막골이란 명칭을 쓰고 있는 지역이 많아 과거 가마를 운영하던 지역임을 알 수 있다. 백자의 제작된 양상을 보면 광주 분원의 백자 스타일을 따라하였으나, 그 품질은 약간씩 낮았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렇게 세계적인 문화 콘텐츠인 도자의 전통을 잇고 있는 경기도는 현재에도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그리고 광주지역 왕실가마로 중요한 지역 85개소가 국가사적으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으며, 여주와 이천지역에는 근현대 전통도자를 재현하고자 노력하는 도자연구소와 공방들이 생겨나면서 현대 도자산업에 기여하고

알아두기 조선시대 백자미학의 정수라 불리는 달항아리는 어떤 자기일까?

18세기 금사리에서 제작된 높이 40cm 이상의 우유처럼 하얀 유백색을 띤 대형 항아리이다. 은행알처럼 꺾인 입술에 몸체가 동그랗고 풍성해 달의 모습을 연상하여 달항아리라 부른다. 자세히 보면 달항아리들은 몸체가 완벽한 원형이 아니다. 항아리의 반쪽과 나머지 반쪽을 만들어 붙인 것인데 완벽한 기교를 부리지 않은, 후덕한 만며느리 같은 자연스러운 한국의 멋을 느낄 수 있는 대표 문화유산이다. 달항아리가 일본이나 중국에서 만들어졌다면 기계로 깎아낸 듯 정확하고 화려한 색채로 장식한 모습일 것이다.

있다.

특히 이천·광주지역은 『성종실록(成宗實錄)』, 『속대전(續大典)』에 관요백자를 생산하던 점토를 공급하는 산지로 기록되어 있으며, 현재도 이곳의 원료가 최고급으로 손꼽히며 사용되고 있다. 이제 이천·여주·광주에서 2년마다 열고 있는 세계도자엑스포가 과거의 화려한 도자문화의 메카 경기도를 다시 한 번 세계에 알리는 장이 되고 있다.



| 석우리가마터 백자 | 양주시 광적면



| 번도리가마터 백자 | 여주군 능서면

알아두기 | 광주 일대 가마터가 왜 300개소나 될까?

가마를 운용하는 데 막대한 양의 땀감이 소요되는데, 이를 조달하기 위해 수목이 무성한 곳을 찾아 10년마다 광주지역 내에서 이리저리 가마를 이동하게 되어 현재 조사된 가마만 300여 개소에 이른다.

| 제5장 |

경기도의 인물

경기도는 도성의 바로 외곽에 있는 지리적 위치로 인해 왕릉으로부터 일반 백성의 묘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인물들의 묘가 산재해 있다. 특히 경기는 인물이 많았고, 훌륭한 관료들과 문중들이 자기가 활동하였던 도성과 가까운 경기도 묘를 씀으로써 더욱 그러하다. ‘생거진천(生居鎭川) 사거용인(死居龍仁)’이란 말이 있듯이 경기도는 풍수상 좋은 곳이 많다. 여기에서는 경기와 밀접했던 선현들을 간략히 서술하고자 한다.



1.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고려를 지켜내다

윤관(尹瓘)



| 척경입비도 | 윤관이 여진족을 토벌한 후 비를 세워 경계로 삼은 일을 기린 것이다.
(고려대학교박물관)

태어난 시기는 확실치 않으며 1111년(예종 6) 돌아가셨다. 고려중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파평(坡平). 자는 동현(同玄). 태조를 도운 삼한공신(三韓功臣) 신달(莘達)의 현손이며, 집형(執衡)의 아들이다. 여진을 정벌하여 동북 9성을 축조, 고려를 외침으로부터 지켰다. 윤관하면 일반인들은 ‘장군’이라하여 무신으로 생각하는데 고려의 장군들의 대부분은 문신이 었다.

문종 때 과거에 급제하여, 1087년(선종 4) 합문지후(閣門祗候)로서 출추사(出推使)가 되어 광주(廣州)·충주·청주를 시찰하였다. 요나라와 송나라에 속종의 즉위를 통고하였다. 1101년에는 추밀원지주사를 거쳐, 1104년(숙종 9) 2월 동북면행영도통(東北面行營都統)이 되어 여진정벌의 임무를 맡았다. 고려는 1080년(문종 34)부터 여진(女眞)을 정벌하기 시작하여 세력을 크게 꺾었으나, 그후 점차 강성해지기 시작하여 1103년(숙종 8) 영가의 뒤를 이은 우야소[烏雅束]가 그 뒤를 이었을 때에는 그 세력이 함경도 부근까지 미쳤고, 여진의 기병이 정주관(定州關) 밖에 쳐들어오게

되었다. 처음 문하시랑평장사 임간(林幹)이 여진에게 크게 패하였고, 추밀원사로 있던 윤관이 동북면행영병마도통이 되어 3월에 여진과 처음 전투를 하였으나 기병에 부딪혀 패전을 당하였다. 그러나 임기응변으로 그들과 화약을 맺고 일단 철수하였다. 윤관은 보병으로는 여진의 기병과의 전투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그해 12월부터 여진 정벌을 위한 준비를 시작하여 전투력 확장에 전력을 기울여, 별무반(別武班)이라는 특수부대를 만들어 대비하였다.

윤관은 1107년(예종 2) 여진족의 동태가 심상치 않다는 보고를 받고, 원수가 되어 부원수 오연총(吳延寵)과 함께 17만 대군을 이끌고 정주로 출발하였다. 윤관은 여진과의 전투에서 적의 전략적인 거점을 135개 처를 차지하고, 4,940명을 죽였으며, 130명을 생포하는 전과를 거두었다. 이에 윤관은 탈환한 곳에 동북 9성을 축조하고, 이어 이곳에 남쪽으로부터 백성을 이주시켜 개척해 살게 되었다. 동북 9성의 위치에 대하여는 공험진(公險鎭)의 위치 비정이 확실하지 않아 함흥평야설과 백두산 너머의 만주 쪽이었다는 설이 있다.

고려의 승리에 분개한 여진족의 우야소는 1108년(예종 3) 초 다시 군사를 이끌고 고려군과 전투하게 되었다. 윤관은 이번에는 가한촌(加漢村) 전투에서 포위당하기도 하였으나 척준경(拓俊京) 등의 도움으로 구출되었고, 영주성 전투에서도 척준경의 힘으로 여진군을 격파하고 개경으로 개선해 추충좌리평용척지진국공신 문하시중 판상서이부사 지군국중사(推忠佐理平戎拓地鎭國功臣門下侍中判尙書吏部事知軍國重事)에 봉해졌다.

윤관의 9성 축조와 농업이주민으로 말미암아 농경지를 빼앗긴 토착 여진족들은 고려 정부에 ‘영원히 배반하지 않고 조공을 바친다는 조건’을 들어 9성을 돌려주기를 원하였다. 고려 정부로서도 여진족의 반항과 개척한 땅이 너무 넓고 거리가 멀어 안전을 기할 수 없다는 점 등으로 대립보다는 화평을 원하여 강화교섭을 개시하였다. 그리하여 1109년(예종 4) 7월 3일 회의를 열고 9성 환부를 결의해 7월 18일부터 철수하였다.

윤관은 9성을 되돌려 줌으로써 문신들의 시기 속에 관직과 공신호조차 삭탈당하고 명분 없는 전쟁으로 국력을 탕진했다는 등 모함을 당했다. 당시 왕이었던 예종의 보살핌으로 1110년 다시 수태보 문하시중 판병부사 상주국감수국사(守太保門下侍中判兵部事上柱國監修國史)가 내려졌으나 사의를 표하였



| 윤관 묘 | 파주시 광탄면 분수리

다. 1130년(인종 8) 예종의 묘정에 배향되었으며, 묘는 파주시 광탄면(사적 제323호)에 있다. 시호는 문경(文敬)이다.

최영(崔瑩)

최영은 1316년(충숙왕 3)에 태어나 1388년(우왕 14) 돌아가셨다. 최영은 안으로 수차례 역적의 무리를 진압하고 밖으로는 홍건적과 왜구를 소탕하여 국사(國事)를 보전하는 데 큰 업적을 남겼으나, 요동 정벌을 감행하다가 위화도에서 회군한 이성계(李成桂)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

본관은 창원(昌原)으로 평장사(平章事) 유청(惟淸)의 5세손, 원직(元直)의 아들이다. 호는 기봉(奇峰)이고 본관은 동주(東州)다. 그는 고려의 개국공신 최준옹(崔俊鬮)의 후손으로 처음 양광도(경기도) 도문순사의 휘하에 근무하게 되었는데, 두 번이나 왜적을 사로잡아 용맹을 떨침으로써 왕의 근위대원인 달치(達赤)로 보직되었다. 37세에 조일신의 난을 진압하여 호군(護軍 : 정4품 장군직)이 되었으며, 2년 후 종3품의 대호군으로 승진하여 원나라를 지원하였다.

당시 원나라는 홍건적 등의 전횡을 진압하기가 어려워지자 고려에 원군을 요청하였다. 이에 최영은 유탁, 염제신 등 40여 명의 장군과 함께 2천여 명의 정병과 원나라에 있던 고려인 2만여 명을 지휘하여 장사성, 육합성 일대에서 반군과 싸워 맹위를 떨쳤다.

1356년(공민왕 5) 최영으로 하여금 압록강 이서의 8참(八站)을 공격하게 하여 만주의 요양에 이르는 교통요지를 확보하고, 1360년 서북면병마사가 되어 여러 차례 홍건적을 물리쳤으나, 1361년에는 홍건적이 20여 만을 이끌고 쳐들어와 수도 개경을 함락하고 만행을 자행하였다. 그러나 다음해 정월 최영은 정세운·안우·이방실 등과 함께 홍건적 10여만 명을 물리치고 개경을 수복하여 일등 공신이 되었다가, 2년 후에는 김용의 반역을 진압하여 종2품 벼슬인 판밀직사사가 되었다.

1365년에는 원나라에 살고 있던 최유가 원나라 병력 1만 명을 이끌고 고려로 쳐들어왔을 때는 총사령관인 도순위사로 임명되어 안주로 가서 그 일당을 토벌하는 공을 세웠다. 또한 이해 왜구가 창릉(昌陵)에 들어와 세조(世祖)의 초상을 훔쳐간 일로, 신돈의 모함으로 계림윤(鷄林尹)으로 일시 좌천되었다. 1371년 신돈이 몰락하자 다시 소환되어 정2품의 벼슬인 문하찬성사가 되었다가 2년 후에는 일선 총사령관인 육도순찰사가 되어 그동안 문란했던 병적을 정리하였으며 군함을 건조

하고 장수들의 인사 이동을 단행하였다.

이러한 개혁의 추진과정에서 일시 다른 사람들의 원망을 받기도 하였으나 곧 양광·전라·경상도통사가 되어 제주도의 원나라 목양책임자 목호(牧胡) 일당의 세력을 토벌하였다. 최영이 제주도의 반란세력을 토벌하고 돌아왔을 때 공민왕은 환관 최만생, 홍윤 등에게 암살당하고 그 아들 우가 10세의 어린 나이로 임금에 올라 있었다.

우왕 2년 왜구를 토벌하기 위한 홍산전투에서 최영이 공을 세우자 왕은 공을 논하여 시중으로 영전 시키려 하였으나 최영은 “시중이 되어서는 군대를 지휘할 수 없으니 왜구가 다 평정된 후에라야 가합니다”라고 사양하였다. 그후 그는 문하시중이 되고 딸은 왕비가 되어 권력의 절정에 이르렀다.

이 무렵 중국대륙은 원·명교체기로 1388년 명나라는 전에 원나라가 차지했던 철령 이북의 땅을 내놓으라며 강계에 천여 명의 병력을 보내 철령위를 세웠다. 이에 조정은 최영의 주장에 따라 이성계를 우군도통사, 조민수를 좌군도통사로 하여 10만 병력을 출동시켜 요동정벌을 꾀하고, 최영은 8도도통사가 되어 평양에서 지휘하게 하였다. 정벌군이 압록강 어귀의 위화도에 도착할 즈음에는 무단 도망자가 많이 속출하고 갑자기 큰비가 내려 강물이 불어나므로 사상자가 많아졌다. 이에 북진을 반대했던 이성계는 4불가론을 내세워 회군을 건의하였다. 그러나 승인되지 아니하자 명을 어기고 역사상 유명한 위화도회군을 결행하여 최영을 실각시켰다. 그리하여 강직용맹하고 청렴했던 그는 이성계에게 잡혀 고향인 고봉현(高峯縣 : 지금의 고양)으로 유배되었다. 그 뒤 다시 합포(合浦 : 지금의 경남 마산)·충주로 옮겨졌다가 공료죄(攻遼罪 : 요동을 공격한 죄)로 개성에 압송되어 순군옥(巡軍獄)에 갇혔고, 그 해 12월에 참수(斬首)되었다. 이 소식을 들은 개성 사람들은 저자의 문을 닫고 슬퍼하였으며, 온 백성이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최영은 지극히 엄격하고 매우 청렴한 장수였다. 그는 전투에 임해서 몸소 전투의 선봉에 서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용감하게 싸우는 한편, 부하를 다스림에 있어서는 지극히 엄격하여 일보라도 물러서면 곧 목을 베는 군율로 다스렸다. 이러한 그의 청렴결백에 대한 유명한 일화를 소개한다.

최영이 젊었을 때에 그의 아버지가 항상 경계하기를 “황금 보는 것을 흙 보는 것과 같이 하여라 [見金如土]”고 하였다. 그는 항상 이 네 글자를 띠에 써 가지고 일생동안 가슴에 새겨 잊지 않았다. 비록 나라의 정권을 한 손에 잡고 위엄이 만방에 떨칠 때에 있어서도 털끝만큼이라도 남의 것을 취



| 최영 묘 |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

한 일이 없었다. 집의 형세는 겨우 먹고살기에 족할 정도였다. 최영 장군의 집에 어느 날 고위관리들이 모였다. 당시에는 고위관리들이 서로 상대방들을 초대해서 정사를 의논하다가 좋은 음식을 차려 대접하는 관례가 있었다고 한다. 최영은 이런 관례에 따라 고위관리들을 초청한 것이다. 최영은 그러나 한낮이 지나도록 음식을 내놓지 않았다. 모두들 시장했지만 체면 때문에 독촉할 수도 없었다. 날이 저물 무렵이 되어서야 음식이 나왔다. 차린 것은 기장과 쌀을 섞어서 지은 밥과 나물뿐이었다. 손님들은 그래도 배가 고팠던 참이라 남김없이 비웠다. 한 손님이 말했다. “장군의 집 밥맛이 참 좋았습니다.” 최영이 웃으면서 대답했다. “이것이 용병술(用兵術) 접대라는 방식입니다.”

무인(武人)다운 해학이었고, 그의 검소함을 보여주는 일화라 할 수 있다. 그의 무덤은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에 있다.



2. 조선을 이끈 청백리의 표상

황희(黃喜)



| 황희 신도비각 | 파주시 탄현면 금승리

1363년(공민왕 12)에 태어나 1452년(문종 2) 돌아가셨다. 조선 초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장수(長水), 초명은 수로(壽老), 자는 구부(懼夫), 호는 방촌(尙村)이다. 아버지는 판강릉대도호부사(判江陵大都護府使) 군서(君瑞)이다. 조선왕조 500여 년을 통해서 청백리 명재상으로 추앙받고 있다.

황희의 젊은 시절인 고려 말년, 그가 경기도 파주 적성현의 훈도(訓導)로 있을 때의 일이다. 하루는 서울인 송도(松都 : 개성)에 볼 일이 있어 가는 길에 누런소와 검정소 두 마리를 이끌고 밭을 가는 농부를 만나게 되었다. 그런데 그 농부는 방금 누런소와 검정소의 쟁기를 벗기고 나무

밑에서 쉬는 참이었다. 황희도 잠시 쉬어갈 겸 길가 나무에 말고삐를 매고 그 농부의 곁에서 쉬게 되었는데, 이때 황희는 농부를 보고 “저 두 마리의 소가 모두 살이 찌고 힘도 세어 보이는데 누런소와 검정소 중 어느 소가 일도 잘하고 힘도 셉니까?”하고 물으니 농부는 황희 옆으로 와 입을 귀에다 대고 낮은 목소리로 “누런 빛깔의 소가 낫고 검정빛깔의 소가 못하다오” 하지 않는가.

이에 황희는 “어찌 소를 두려워하여 이같이 귀엣말로 가만 가만이 말하시오”하니 농부는 정색을 하고 “그대는 나이 젊어서 들은 것이 없다한들 너무 심하구려. 짐승이 비록 사람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

지만 사람들이 하는 말이 좋고 나쁜 것은 모두 알아듣는다고. 만약 검정소가 누런소보다 못하다는 말을 듣는다면 마음에 불평스러운 것이 어찌 사람과 다르겠느냐. 젊은이여 그대는 아직 철이 덜 들었구려”하는 것이었다. 이 말을 들은 황희는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으며 순간 가슴이 후련하도록 탁 트이는 깨달음을 얻었다고 한다. 황희가 90세의 천수(天壽)를 누리는 일평생을 겸손과 너그러움, 그리고 큰 도량으로 일관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농부에게서 얻은 교훈이 컸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황희는 고려 공민왕 12년인 1363년 2월 12일 개성 가조리에서 태어났다. 27세 되던 해인 고려 창왕(昌王) 1년에 문과에 급제하여 습유우보궐(拾遺右補闕)이 되었는데, 성격이 곧아서 바른 말을 과감히 하였다.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개국되자 그는 조선왕조 창업에 반대하는 고려 유신과 함께 개풍군 광덕면 광덕산 서쪽 기슭에 있는 두문동에 들어가 숨어 살았으나 이성계(李成桂)의 간곡한 청으로 태조 3년인 1394년에 성균관학관이 되어 세자우정자(世子右正字)를 겸하였다.

황희는 그 후 경기도 도사(都事), 1400년에는 형조·예조·병조·이조의 정랑(正郎)을 거쳐 1404년(태종 4년)에 우사간이 되었다가 이듬해 지신사에 오르면서 더욱 태종의 예우를 받았다. 1408년에는 민무휼(閔無恤) 등, 임금의 처족들이 횡포를 부리자 이를 제거하였고, 그후 형조·병조·예조·이조·호조의 판서를 두루 역임하였다. 1418년 관한성부사(오늘의 서울특별시장)로 있을 때 세자 양녕대군이 폐출되고 충녕대군 세종이 세자로 책봉되자 이를 반대하였다가 이에 폐서인이 되어 교하·남원 등지로 유배되었다. 1422년(세종 4) 복직되었으며 환갑의 나이에 강원도관찰사로 민심을 수습하고 행정을 안정시켰으며, 1426년 이조판서와 우의정, 이듬 해인 1427년에 좌의정에 올랐으나 그해 9월 모친상으로 관직에서 물러나 반구정에 머물렀다, 1431년 69세에 영의정에 올라 87세로 관직에서 물러날 때까지 18년 동안 영의정 자리에 있으면서 농사개량, 예법의 개정, 천첩소생의 천역(賤役) 면제 등 세종을 보필하여 다방면으로 큰 업적을 남겼다. 황희는 의정부에 27년간 몸담고 있는 동안 힘써 나라의 법을 지키어 번거롭게 고치는 것을 반대하였고 매사를 소신껏 처리하였으며 그 규모 또한 원대하고 그 다스리는 도량(度量)이 커서 대신의 체모를 갖추고도 남음이 있었다.

황희가 만년(晩年)에 정계를 은퇴하여 유유자적으로 조용히 인생(人生)을 관조한 반구정(伴鷗亭)이란 정자가 파주시



| 황희 묘 |

문산읍 사목리 임진강 아래에 있다. 본래는 낙하정(洛河亭)이라고 한 이 정자는 임진강의 조수 때마다 백구가 강위로 모여들어 백구와 더불어 소일했다고 해서 반구정이 되었다고 한다. 묘는 경기도기념물 제33호로 파주시 탄현면 금승리에 있다.

이항복(李恒福)

1556년(명종 11)에 태어나 1618년(광해군 10) 돌아가셨다. 포천이 고향이다.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경주(慶州)이다. 자는 자상(子常), 호는 필운(弼雲)·백사(白沙)·동강(東岡) 등이며 고려의 대학자 제현(齊賢)의 후손이다. 참찬 몽량(夢亮)의 아들로 어머니는 결성현감 전주최씨(全州崔氏)로 윤(崙)의 딸이다. 오성부원군(鰲城府院君)에 봉군되어 이항복이나 백사보다는 오성대감으로 널리 알려졌다. 특히 죽마고우인 한음 이덕형(李德馨)과의 기지와 작희(作戲)에 얽힌 많은 이야기로 더욱 잘 알려진 인물이다.

9세 때 아버지를 여의고 어린 시절 부랑배의 우두머리로서 헛되이 세월을 보냈으나 어머니의 교훈으로 학업에 열중했다 한다. 1571년(선조 4) 어머니를 여의고, 3년상을 마친 뒤 성균관에 들어가 학문에 힘써 명성이 높았다. 이어 영의정 권철(權轍)의 아들인 권율(權慄)의 사위가 되었다. 1575년 진사에 오르고 1580년(선조 13) 급제해 승문원부정자가 되었다. 이듬 해 왕명에 따라 율곡 이이(李珥)에 의해 이덕형 등과 함께 5명이 천거되어 예문관 검열에 오르고, 이어 궁중의 경서(經書)·사적(史籍)의 관리, 문한(文翰)의 처리 및 왕의 자문에 응하는 일을 맡아보던 옥당(玉堂)에 들어갔다. 이후 1583년에는 인재 양성을 위해 일정 기간 휴가를 주어 학문에 전념하게 하는 사가독서(賜暇讀書)를 하였다. 재직 중 신료 사이에 비난이나 분쟁이 있을 때 중재하고 시비를 공평히 판단하였으나, 한 때 반대파의 비난을 받자 사직하려 했으나 선조가 허락하지 않았다. 그 뒤 여러 관직을 거쳐 1590년 호조참의가 되었고, 정여립(鄭汝立)의 모반사건을 처리한 공로로 평난공신(平難功臣) 3등에 녹훈되었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왕비를 개성까지 무사히 호위하고, 또 왕자를 평양으로, 선조를 의주까지 호종하였다. 그 동안 이조참판으로 오성군에 봉해졌고, 이어 형조판서로 오위도총부도총관을 겸하였다. 곧이어 대사헌 겸 홍문관제학·지경연사·지춘추관사·동지성균관사예문관



| 이항복 신도비 | 포천시 가산면 금현리

대제학·지의금부사 등을 두루 거쳐 의정부우참찬이 되었다. 임진왜란 당시 친구인 이덕형과 함께 명나라에 원병을 청할 것을 건의했으나 명나라에서는 조선이 왜병을 끌어들여 명나라를 침공하려 한다며 의심을 하였다. 이에 이항복은 일본이 보내온 문서를 보이며 설득하자 마침내 명의 구원병이 파견되었다.

1594년 봄 전라도에서 송유진(宋儒眞)의 반란이 일어나자 여러 관료들이 세자와 함께 환도를 주장하였다. 그러나 그는 반란군 진압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상소해 이를 중단시키고 반란을 곧 진압하였다. 이항복은 병조판서·이조판서, 홍문관과 예문관의 대제학을 겸하는 등 여러 요직을 거치며 안으로는 국사에 힘쓰고 밖으로는 명나라 사절의 접대를 전담한 능란한 외교가이기도 하였다.

1600년 영의정 겸 영경연·홍문관·예문관·춘추관사, 세자사(世子師)에 임명되고 다음 해 호종 1등공신(扈從一等功臣)에 녹훈되었다. 1608년 다시 좌의정 겸 도체찰사에 제수되었으나 이 해 선조가 죽고 광해군이 즉위해 복인이 정권을 잡게 되었다. 그는 광해군의 친형인 임해군(臨海君)의 살해 음모에 반대하다가 정인홍 일당의 공격을 받고 사의를 표했으나 수리되지 않았다. 이어 선조의 적자 영창대군(永昌大君)의 처형과 폐모론이 대두하자, 이를 극렬 반대하여 복인의 표적이 되었다가 결국 1613년(광해군 5) 인재 천거를 잘못했다는 구실로 물러나 동강노인(東岡老人)으로 자칭하면서 지냈다. 1617년 인목대비(仁穆大妃) 김씨(金氏)가 서궁(西宮: 경운궁, 곧 덕수궁)에 유폐되고, 이어 폐위해 평민으로 만들자는 주장에 맞서 싸우다가 1618년에 관작이 삭탈되고 함경도 북청으로 유배되어 그곳에서 세상을 떠났다. 죽은 해에 관작이 회복되고 이 해 8월 고향 포천에 예장되었다. 죽은 뒤 포천과 함경도 북청에 사당을 세워 제향했으며 1659년(효종 10)에는 화산서원(花山書院)이라는 사액(賜額)이 내려졌다.

1746년(영조 22)에는 후손을 관직에 등용시키는 은전이 있었다. 조선중기의 문신 이정구(李廷龜)는 그를 평하기를 “그가 관작에 있기 40년, 누구 한 사람 당색에 물들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였지만 오직 그만이 초연히 중립을 지켜 공평히 처세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그에게서 당색을 찾아볼 수 없을 것이며, 또한 그의 문장은 이러한 기품에서 이루어졌으니 뛰어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라면서 기품과 인격을 칭송하기도 하였다.

시호는 문충(文忠)이고, 묘와 신도비는 경기도기념물 제24



| 이항복 묘 |

호로 포천시 가산면 금현리에 있다.

이덕형(李德馨)

1561년(명종 16)에 태어나 1613년(광해군 5) 돌아가셨다. 조선중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광주(廣州)이다. 자는 명보(明甫), 호는 한음(漢陰)·쌍송(雙松)·포옹산인(抱雍散人)인데 한음으로 잘 알려져 있다. 할아버지는 증 좌찬성 진경(振慶)이고, 아버지는 지중추부사 민성(民聖)이며, 어머니는 현량 유예선(柳禮善)의 딸이다. 영의정 이산해(李山海)의 사위이다.



| 이덕형 영정 |

어려서부터 재주가 있고 침착했으며, 문학에 통달해 어린 나이로 명필가인 양사언(楊士彦)과 막역한 사이였다 한다. 1580년(선조 13) 별시 문과에 을과로 급제해 승문원 관원이 되었으며, 재주 있는 신하로 선발되어 왕으로부터 서적을 받았다. 이후 부수찬·정언·부교리를 거쳐 이조좌랑이 되었고, 1590년에는 동부승지·우부승지·부제학·대사간·대사성 등을 차례로 지내고, 이듬 해 예조참판이 되어 대제학을 겸하였다.

1592년 임진왜란 때 북상 중인 왜장 고니시[小西行長]가 충주에서 만날 것을 요청하자, 홀로 적진으로 향해 교섭을 했으나 목적을 이루지 못하였다. 왕이 평양으로 파란 갔을 때 왜적이 이미 대동강에 이르러 화의를 요청하자, 단독으로 겐소[玄蘇]를 만나 회담하고 대의로써 그들의 침략을 공박했다. 그 뒤 정주까지 왕을 호종했고, 청원사(請援使)로 명나라에 파견되어 파병을 성취시켰다. 이후 돌아와 대사헌이 되어 명나라 군대를 맞이했으며, 이어 한성판윤으로 명나라 장수 이여송(李如松)의 접반관(接伴官)이 되어 전란 중 줄곧 같이 행동하였다. 1593년 병조판서, 이듬해 이조판서로 훈련도감당상을 겸하였다.



| 이덕형 신도비 | 양평군 양서면 목왕리

1595년 경기·황해·평안·함경 4도체찰부사가 되었으며, 1597년 정유재란이 일어나자 명나라 어사 양호(楊鏞)를 설복해 서울의 방어를 강화하는 한편, 스스로 명군과 울산까지 동행, 그들을 위무(慰撫)하였다. 그 해 우의정에 승진하고 이어 좌의정에 올라 훈련도감도제조를 겸하였다. 이어 명나라 제독 유정(劉綎)과 함께 순천에 이르러 통제사 이순신(李舜臣)과 함께 적장 고니시의 군사를 대파하였다.

1601년 행판중추부사(行判中樞府事)로 경상·전라·충청·강원 4도체찰사를 겸

해 전란 뒤의 민심 수습과 군대 정비에 노력하였다. 이후 왜적의 소굴인 대마도 정벌을 건의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이듬 해 영의정에 올랐다. 1604년 친구 이항복(李恒福)이 그의 공을 들어 호성공신(扈聖功臣)에 녹훈할 것을 건의했으나 본인의 사양과 시기하는 자들의 반대로 책록되지 못하였다.

1606년 영중추부사가 되었다가, 1608년 광해군이 즉위하자 진주사(陳奏使)로 명나라에 다녀와서 다시 영의정이 되었다. 1613년(광해군 5) 삼사에서 영창대군(永昌大君)의 처형과 폐모론을 들고 나오자 이항복과 함께 이를 적극 반대하다 관직을 삭탈당하였다. 그 뒤 경기도 용진(龍津 : 지금의 남양주시 수동면 송천리)으로 물러가 국사를 걱정하다 병으로 죽었다.

남인 출신으로 북인의 영수 이산해의 사위가 되어 남인과 북인의 중간 노선을 지키다가 뒤에 남인에 가담하였다. 어렸을 때 이항복과 절친한 사이로 기발한 장난을 잘해 많은 일화가 전해진다. 글씨에 뛰어났고, 포천의 용연서원(龍淵書院), 상주의 근암서원(近巖書院)에 제향되었다. 시호는 문익(文翼)이고, 양평군 양서면 목왕리에 경기도기념물 제89호로 묘와 신도비, 영정각이 있다.



| 이덕형 묘 |

3. 성리학의 정점에 선 조선의 학자

이이(李珥)

1536년(중종 31) 태어나 1584년(선조 17)에 돌아가셨다. 조선 중기의 학자·정치가로 본관은 덕수(德水), 아명은 현룡(見龍), 자는 숙헌(叔獻), 호는 울곡(栗谷)·석담(石潭)·우재(愚齋)이다. 아버지는 증 좌찬성 원수(元秀)이며, 어머니는 현모양처의 사표로 추앙받는 사임당(師任堂) 신씨(申氏)이다.

이이의 집안은 명문 가문으로 아버지 이원수가 강릉 지역으로 장가를 가게 되어 외가인 강릉 북평촌에서 출생하



| 오죽헌 | 강원도 강릉시 죽헌동

였다. 지금의 오죽헌이 바로 그곳이다. 이이는 어머니 신사임당의 영향을 받아 어린 시절부터 시와 그림에 능통하였다.

8세 때에 파주 울곡리에 있는 화석정(花石亭)에 올라 시를 지을 정도로 문학적 재능이 뛰어났다. 도도히 흐르는 임진강과 한북정맥의 한 줄기인 파평단맥의 산줄기를 보며 호연지기(浩然之氣)를 키웠다. 큰 강에서 큰 인물이 나오고 큰 산에서 큰 사상이 나오듯이 파주에서의 삶은 그 자신에게 대인의 품모를 안겨주었다. 1548년(명종 3) 13세 때 진사시에 합격하였다. 16세 때에 어머니가 돌아가자, 파주 두문리 자운산에 장례를 치렀다, 그 뒤 불교에 심취해서 금강산으로 들어가 승려가 되기까지 하였다. 조선 성리학계의 사상적 태두인 그가 불교에 심취하여 승려가 되었다는 사실은 어찌 보면 그의 사상의 다양성을 보여 주는 것이다. 불교의 사상이 오히려 성리학만 못함을 느낀 그는 홀연히 금강산을 떠나 파주로 돌아와 독학으로 성리학을 공부하고 선배 유학자들을 찾아 다녔다. 20세에 하산해 다시



| 이이 신도비각 | 파주시 법원읍 동문리

유학에 전심하였다. 22세 때 성주목사 노경린(盧慶麟)의 딸과 혼인하였다. 1538년 예안(禮安)의 도산(陶山)으로 이황(李滉)을 방문했고, 그 해 겨울의 별시문과에서 「천도책(天道策)」을 지어 장원하였다. 이후 아홉 차례의 과거에 모두 장원해 ‘구도장원공(九度壯元公)’이라 일컬어졌다. 학문을 닦는 것이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절감한 이이는 9번의 과거 시험에서 모두 장원으로 합격하는 천재성을 보이며 당당히 조정에 출사하였다. 이이가 출사하던 시기는 정치적 격동기였다. 1545년 을사사화가 발생하여 수많은

사대부들이 죽거나 유배되었고, 사람은 출사할 수 없었다. 그러나 잘못된 권력은 오래 갈 수 없다는 역사의 진리는 당대에도 허언이 아니었다. 1565년(명종 20) 문정왕후의 죽음과 20년간 온갖 권력을 쥐고 백성들을 고통으로 몰아 놓은 윤원형을 유배 보냄으로써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 그의 출사는 바로 이처럼 시대의 격변기에 이루어졌고 그는 30세의 나이로 본격적인 관직생활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렇듯 상황이 변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구습이나 폐풍은 일시에 시정될 수 없었고, 근본적인 개혁 없이 유림의 특별간 활동은 볼 수 없었다.

더구나 1575년부터는 동서의 분당으로 인하여 사람은 분열되고 의미 없는 정쟁에 휘말리게 되었다. 이에 이이는 시대에 따라 마땅히 행하여야 할 일이 각기 다른

것이라며 역사의 큰 틀을 고민하여 시대에 따른 정책을 제시하였다. 어린 나이에 왕이 된 명종으로 인하여 문정왕후의 독단과 윤원형의 권력은 백성들의 극심한 고통이었기에 이를 해결하는 길은 경장정책 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선조에게 올리는 『동호문답(東湖問答)』에서 나라의 폐단이 크게 다섯 곳에서 있음을 명확히 지적하였다. 가난하여 한 가정이 서로 헤어지는 폐단, 나라의 진상품을 올리기 위해 백성들이 받는 고통, 나라의 물품을 가로채는 폐단, 국가의 대형 토목공사가 불균등하게 이루어지는 폐단,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방의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이서배들의 폐단을 든 것이다. 이이는 이와 같은 폐단을 극복하고 나라가 부강하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도자가 올바른 인식과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그래서 그는 선조에게 『성학집요(聖學輯要)』를 저술하여 가르쳤고 국세조사와 같은 전국적인 규모의 조사를 실시하여 실정에 알맞게 폐법을 개혁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그밖에도 이이는 「만언봉사(萬言封事)」 등 수많은 상소문을 통하여 정치·경제·교육·국방 등에 가장 절실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더 나아가 이이는 국정을 도모함에 있어서도 일개인이나 일부 지도층으로부터 하향식으로 수행될 것이 아니요, 언로를 개방하여 백성들은 모두 다 말할 수 있고, 위정자는 중지(衆智)를 모아야 한다고 보았다. 그에게 있어 언로의 열고 닫힘은 국가흥망에 관계되는 중대한 일로서 강조되었다. 즉, 공론(公論)은 백성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니 백성의 정당한 뜻이 곧 국시(國是)가 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국가 지도자인 국왕이 신하들과의 대화와 토론 그리고 백성들의 의사를 반영하여 사회의 실상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이는 당대에도 다른 학자들과는 차원이 다른 행동을 하였다. 이미 당파가 시작되어 반대당의 의견을 듣지 않고 권력을 잡기 위해 상대방을 해치고, 자기와 정견이 맞지 않다고 전원으로 들어가 출사하지 않는 이기적인 사회에서 그는 담담하게 국사에 임했고, 산간도피가 아닌 끊임없는 현실의 참여를 지속하였다.

물론 이이의 사상이나 정책이 실제로 집행되지 않은 것도 많았지만 그가 원했던 진정한 세상은 백성들이 부유해지고 문화가 풍요로우며 외세에 굴복하지 않는 나라였다. 이를 위해 자신의 몸을 낮추고 끊임없이 백성들의 삶을 고민하였다.



| 이이 묘 |

이이는 1584년 한성 대사동(大寺洞)에서 영면, 파주 자운산 선영에 안장되었다. 문묘에 종향되었으며, 파주의 자운서원(紫雲書院), 강릉의 송담서원(松潭書院), 풍덕의 구암서원(龜巖書院), 황주의 백록동서원(白鹿洞書院) 등 20여 개 서원에 배향되었다. 시호는 문성(文成)이다. 그의 묘는 파주시 법원읍 동문리에 있고, 율곡 기념관이 마련되어 있다.

허목(許穆)



| 허목 영정 |

1595년(선조 28) 태어나 1682년(숙종 8) 돌아가셨다. 남인의 총수로 17세기 후반 2차례의 예송(禮訟)을 이끌었으며 군주권 강화를 통한 정치·사회 개혁을 주장했다. 본관은 양천(陽川)이며 자는 화보(和甫)·문보(文父), 호는 미수(眉叟)·대령노인(臺嶺老人)이다. 아버지는 현감 교(喬)이며, 어머니는 임제(林梯)의 딸이다.

1617년 거창현감으로 부임한 아버지를 따라가서 그곳의 유학자 정구(鄭逵)를 찾아가 배웠다. 1624년(인조 2) 경기도 광주(廣州)의 우천(牛川)에 살면서 자봉산에 들어가 독서와 글씨에 전념해 그의 독특한 글씨 전서(篆書)를 완성하였다. 1636년 병자호란을 당해 영동으로 피난했다가 이듬해 강릉·원주를 거쳐 상주에 이르렀다. 1638년 의령의 모의촌(慕義村)에서 살다가 1641년 다시 사천으로 옮겼다. 그 뒤 창원·칠원(漆原) 등지로 전전하다가 1646년 마침내 경기도 연천의 고향으로 돌아왔다.

1650년(효종 1) 정릉참봉에 제수되었으나 1개월 만에 사임하였다. 1651년 내시교관, 공조좌랑 등을 거쳐 용궁현감에 임명되었으나 역시 부임하지 않았다. 1657년 공조정랑에 이어 지평에 임명되었으나, 효종을 만나 소를 올려 군덕(君德)과 정폐(政弊)를 논하고 다시 사임을 청하였다. 그 뒤 사복시 주부로 옮겼으나 사직하고 다시 고향인 연천으로 돌아왔다. 이처럼 그는 벼슬을 마다하고 고향에서 학문에 정진하였다.

1660년(현종 1) 효종이 죽자 인조의 계비인 조대비(趙大妃)의 복상문제로 당시 집권 세력인 서인 계열의 송시열(宋時烈) 등이 주장한 기년복(募年服: 만 1년상)에 반대하고 자취삼년(齊衰三年)을 주장했다.(제1차예송, 기해예송) 곧 송시열을 비롯한 서인들은 효종이 둘째 아들로 왕위를 계승하였으므로 3년상이 아닌 1년상을 입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허목을 비롯한 남인은 왕실에서 왕통을 계승하였으므로

족통으로 인정해야 한다며 3년 상을 주장한 것이다. 이 예송은 성리학적 이상 국가에서 본보기가 되어야 할 왕실의 예법을 논한 것으로 당시 사회에서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었다. 그러나 결국 서인의 주장이 채택되어 남인 계열은 많은 타격을 받았으며, 그도 삼척부사로 좌천되었다. 허목은 삼척에 있는 동안 향약을 만들고, 「동해송(東海頌)」을 짓고, 그의 독특한 전서체(篆書體)로 ‘척주동해비(陟州東海碑)’를 세웠다. 비는 유실되어 뒤에 다시 건립했지만 이 비문은 ‘동해(東海)’라는 용어가 오래전부터 사용되었음을 알려 주고 있다.

1674년 현종의 모후인 효종비 인선왕후(仁宣王后) 장씨가 죽자 조대비가 상복을 몇 년간 입어야 하는 복상문제가 다시 제기되었다.(제2차 예송, 갑인예송) 이번에는 서인의 주장에 따라 정해진 대공복(大功服 : 만 9개월)의 모순이 지적되어 앞서 허목의 설이 옳았다고 인정됨에 따라 대공복은 기년복으로 고쳐졌다. 이로써 서인은 실각하고 남인이 집권하게 되자 허목은 대사헌에 특진되고, 이어 이조판서를 거쳐 우의정에 올랐다. 허목은 과거를 보지 않고도 유일(遺逸)로서 삼공(三公)에 올랐다. 반면 송시열은 유배를 가게 되었다.

1679년 역모설에 연루되었고, 이듬해 경신대출척(庚申大黜陟)으로 남인이 실각하고 서인이 집권하자 관작을 삭탈 당하고 고향에서 제자를 양성하고 저술 활동을 하면서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 사후 1688년 관작이 회복되고, 숙종은 예장(禮葬)의 명령을 내려 승지를 보내어 치제(致祭)했으며, 자손을 등용하도록 하고 문집을 간행하게 하였다. 그림·글씨·문장에 모두 능했으며, 글씨는 특히 전서에 뛰어나 동방 제1인자라는 찬사를 받았다.

1691년 그의 신위(神位)를 봉안하는 사액서원으로 미강서원이 마전군에 세워졌고, 나주의 미천서원, 창원의 회원서원(檜原書院)에도 제향되었다. 시호는 문정(文正)이다. 그의 묘는 고향인 연천군 왕징면 강서리 민간인 통제선 안에 있는데 석물들이 검정색을 띠고 있으며, 답사가 가능하다.



척주동해비 | 강원도 삼척시 정상동. 허목의 독특한 글씨체를 보여준다.



허목 묘 | 연천군 왕징면 강서리



4. 실학을 구상하고 완성하다

이익(李瀼)



| 첨성사 | 안산시 상록구 일동. 이익을 모시는 사당이다.

1681년(숙종 7) 태어나 1763년(영조 39)에 돌아가셨다. 본관은 여주(驪州)이고, 자는 자신(自新), 호는 성호(星湖)이다. 1681년(숙종 7) 10월 17일, 평안도 운산에서 이하진(李夏鎭)과 어머니는 권씨(權氏)사이에서 5남 4녀의 막내로 태어났다. 증농학자로 실학의 싹을 틔운 인물이다.

그의 부친은 대사헌까지 역임한 고위관료였으나 이익이 태어나기 1년 전에 일어난 경신대출척으로 평안도 운산으로 유배되었다. 그는 이 유배지에서 태어났고, 이듬 해에 부친이 사망하자, 어머니 권씨는 어린 아들을 데리고 선영

이 있던 안산(安山) 첨성리(瞻星里)로 이주하였다. 이익은 이곳에서 성장하여 이곳에서 생을 마쳤다. 현재 안산시에 남아있는 이익의 생가터인 성호장(星湖莊)이 바로 이곳이다.

그가 향촌에 칩거하며 학문에만 전념할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가 1678년에 진위겸 진향사(陳慰兼進香使)로 연경(燕京)에 들어갔다가 귀국할 때에 청제(淸帝)의 궤사은(饋賜銀)으로 사 가지고 온 수천 권의 서적 때문이었다. 이를 통하여 당시 중국을 통해 전래된 서학(西學)에 학문적인 관심을 기울여 천문(天文)·역산(曆算)·지리학과 천주교서 등 한역서학서(漢譯西學書)를 널리 열람하고 만국전도(萬國全圖)·시원경(視遠鏡)·서양화(西洋畵) 등 서양문물에 직접 접하면서 세계관·역사의식을 확대, 심화시킬 수 있었다. 그것은 그로 하여금 종래 중국 중심의 화이관(華夷觀)·성인관(聖人觀)에서 탈피해 보다 합리적이고 실증적인 시야를 지닐 수 있게끔 하였다. 또한 역사인식도 종래의 주관적이고 의리·시비위주의 인식태도를 벗어나 객관적이며 비판적·실증적인 태도를 지녀야 한다고 믿었다.

이익의 가계는 아주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생계에 연연해야 할 정도로 쪼들리지도 않았다. 그러나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노비와 세간 살림 모든 재산을 종가(宗家)에 돌려보내게 되었으며 이후로 집안 형편이 점점 기울어 생계가 궁핍하게 되었다. 하지만, 원래 그의 성품은 검소함을 좇았다. “나는 가난하게 사는 것을 좋아해서”라고 했듯이, 성호는 걸치레와 사치를 기피하는 ‘청빈낙도(淸貧樂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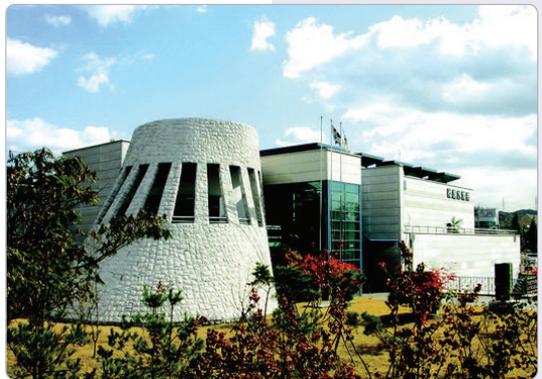
道)를 선호하였다. 그는 언젠가 삼두회(三豆會)를 연다면서 가까운 친척들을 불러 식사를 대접한 일이 있다. 그런데 내놓은 요리인즉, 모두가 콩을 재료로 한 음식으로 콩을 갈아 쏘 콩죽에 콩으로 담근 두부, 콩에 소금을 절여 만든 된장이었다. 그렇게 남녀노소가 세 가지 콩 요리를 나눠 먹고 밤이 이슬하도록 담소를 즐긴 다음 헤어졌다.

이러한 생활상의 큰 변화는 그의 학문적 입장이 몰락하는 소토지 농민 일반의 이해를 대변하게 된 근본적인 계기가 된 것 같다. 그의 처지는 실상 몰락하여 가는 농민들의 그것과 조금도 다름이 없는 것이었다. 그는 재부(財富)의 원천을 토지에 두었으므로 전지(田地)에서 힘써 일해야 재부가 창출된다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그의 관심은 토지제도에 있었다. 이 토지제도는 전지측량을 철저히 하여 호세가(豪勢家)에 의한 전지광점(田地廣占)을 막도록 하였다. 그러기 위해서 전지점유를 제한하는 이른바 한전법(限田法)의 실시를 주장하였다.

당시 몰락해가는 농민에 대한 그의 애착은 「해거방축(海居防築)」이란 시에 잘 나타나 있다. 버려진 황무지라 하더라도 삶의 터전을 일구어 내기 위해 땀 흘리는 백성들의 노력 앞에서는 풍요를 가져다 주는 농토로 바뀌는 현실을 나타내고 있다.

그는 무능한 자신을 탓하며 글이나 읽지 아무런 생산능력이 없는 자신은 사회의 짐이라고까지 한탄했다. 그것은 단순한 자기 비하가 아니라 써먹을 수도 없는 글공부나 하며 평생을 놓고 먹는 양반, 선비층의 존재, 사회적 체면 때문에 관혼상제에 가산을 탕진하고 몰락해 가는 그들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의 소리이기도 했다. 그러나 자기 자신도 그들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무언가 사회와 풍습의 불합리하고 모순된 면을 보지만, 그렇다고 그것을 무시하고, 일탈해서 살 수도 없는 지식인의 고뇌가 느껴진다. 사실 이익의 삶 자체가 그러했다.

초야에 묻혀 생활하는 그의 눈앞에서 세상은 무섭게 변하기 시작했다.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하면서 시골 아이들까지 동전을 알기 시작했다.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면서 가난한 농민, 세상 물정에 어두운 선비들이 먼저 몰락하지만, 간혹 약삭빠르고 날렵한 친구들은 손쉽게 돈을 벌어 부자들의 틈에 끼고, 양반이 되고, 권력을 휘두르기 시작했다. 관과 정치는 더욱 타락하였다. 경제가 발달하니깐 옛날



| 성호기념관 | 2002년 5월에 개관하였다.

에는 횡령이나 하던 향리들도 아예 상인들과 결탁하기 시작했다. 결국 이런 현상이 심해지다가 19세기에 가면 대규모 농민반란이 발생하고 국가가 붕괴상황으로 빠지게 되는데, 이런 징조들이 급속히 드러나기 시작한 때가 바로 이익이 살았던 때였다.

남달리 풍부한 독서량과 예리한 사고력을 지녔던 그는 변화를 거부하지 않았다. 그러나 현실의 변화는 지극히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이익은 자신의 안타까움과 분노를 수많은 글로 남겼다. 그렇게 쓴 글이 무려 3천여 편이나 된다. 그의 글들은 짤막하지만 모든 주제를 다 포용할 정도로 광범위하였고, 어투는 점잖지만 지식은 풍부하고 분석은 정곡을 찔렀다. 구태의연한 기성 지식인의 글에서는 볼 수 없는 시각과 발상의 전환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는 명분, 의리, 도덕적 당위론으로 사회현상을 해석하는 세태를 비웃고 이해관계를 개입시킨다. 이 시대 지식인의 최대 관심사는 역시 당쟁이었다. 봉당은 쟁투(爭鬪)에서 일어나고 쟁투는 이해관계에서 일어나는 것이라 하였다. 또한 이해가 절실하면 그 당이 뿌리 깊고, 이해가 오래 계속되면 그 당이 견고하게 되는 것은 세(勢)가 그렇게 만든다는 것이다. 즉, 이(利)가 하나이고 사람이 둘이면 두 당이 생기고 이가 하나인데 사람이 넷이면 네 당이 생기게 마련이나, 이(利)는 고정되어 변함이 없는데 사람만 더욱 늘어나면 십봉팔당(十朋八黨)으로 분열되지 않을 수 없다 하였다. 그리하여 정치를 개혁하려면 어느 당의 리더가 도덕군자이며, 정통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잘못된 관료제도를 고쳐서 문벌과 세습제를 폐지하고 능력에 따른 관료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인간은 타고나면서부터 관작이나 부귀를 몸에 지니고 나오는 것은 아니며, 천자로부터 일반서

민에 이르기까지 애초에 빈천하기는 매양 마찬가지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양반들도 무위도식하지 말고 농토로 돌아가 생산에 직접 종사하는 사농합일(士農合一)을 주장하였다.

학자로서 이익의 위상도 크다. 일례로 그는 자연법칙과 사회법칙을 동일시하는 천인합일설을 배제하고, 자연현상은 자연현상으로 파악하는 단서를 열어 놓았다. 이런 자연관은 제자 권철신을 통해 정약용으로 이어져 근대적 자연관과 과학정신을 배태하는 계기를 제공했다. 물론 그렇다



| 이익 묘 |

고 그의 저술이 모두 전통적 사고에서 일탈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후세의 실학자들에게 그만큼 광범위한 영향을 남긴 사람도 없을 것이다. 안정복, 이가환, 이중환, 권철신이 다 그의 제자이며 정약용도 이익에게서 상당한 영향을 받았다. 이익은 1763(영조 39)년에 83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비록 살아 생전에 업적에 걸맞은 명성을 얻지는 못했지만 그는 자신의 삶에 당당한 자부심을 가졌다.

정약용(丁若鏞)

1762년(영조 38) 태어나 1836년(헌종 2)에 돌아가셨다. 조선 후기의 실학자이다. 본관은 나주(羅州), 자는 미용(美鏞), 호는 다산(茶山)·사암(俟菴)·여유당(與猶堂)·채산(菜山)이다. 항진(恒鎭)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지해(志諧)이고, 아버지는 진주목사 재원(載遠)이며, 어머니는 해남윤씨(海南尹氏)로 덕열(德烈)의 딸이다.

정약용은 1762년 6월16일 경기도 광주(현 남양주 능내)에서 태어났다. 아버지 정재원은 그가 태어날 무렵에 대다수의 남인들과 마찬가지로 당쟁으로 관직에서 물러나 향리에 묻혀 살고 있었다. 그러나 1776년 정조가 즉위하여 정권에서 쫓겨 난 남인들이 다시 등용되자, 정재원도 호조좌랑에 임명되어 한성으로 올라가게 되었다. 정약용은 9살이 되던해에 어머니 윤씨를 여의었다. 그리고 1776년 정조가 등극하던 해에 승지 홍화보의 딸과 결혼했다.

한양에 올라온 그는 외가를 자주 찾았다. 그의 외조부 윤두서(尹斗緒)는 문인으로 명망이 높았고, 잘 알려진 문인화가이기도 했으며 장서가로도 유명했다. 정약용이 외가를 드나들었던 이유는 바로 윤두서가 소장했던 책들을 읽기 위해서였다. 그는 열정적인 독서를 통하여 고전을 섭렵하는 한편, 친형 정약전(丁若銓)과 그 친구들과의 교류를 통해 많은 지식을 쌓았다. 이승훈(李承薰)은 정약용의 매형이었고, 또 이승훈의 소개로 이익의 증손 이가환을 알게 되었다. 이가환은 이익의 실학을 계승한 유능한 학자로 당시 젊은 유생들의 선망의 대상이었다.

1781년 스무 살 때 과거를 치렀지만 떨어졌고, 이듬해 다시 응시하여 초시와 회



| 정약용 생가 | 남양주시 조안면 능내리



| 정약용 동상 |

시에 합격하여 생원이 되었다. 생원으로서 벼슬길에 오른 지 3년 뒤인 1784년 정조의 부름을 받아 경연석에서 ‘중용’을 강연하면서부터 파란 많은 삶이 시작된다.

정약용은 생원이 된 후 1789년 3월에 정조 앞에서 치른 전시에서 합격하여 초계문신의 칭호를 얻었으며, 그해에 종7품의 부사정을 거쳐 가주서에 임명되었다. 그는 이때 큰 배를 한강에 나란히 띄워 가교를 만들 수 있는 설계도를 그리고 배다리를 준공해 주위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그리고 1791년 정6품의 사간원 정언에 제수되고, 이듬해에는 홍문관 수찬에 임명되었다. 1792년 아버지 정재원의 상중(喪中)이었음에도 그는 수원 화성 수축에 동원되어 설계도를 도맡았으며, 거중기를 제작해 공사기간을 단축하기도 했다.

1792년 아버지 정재원이 임지 진주에서 세상을 뜨자 그는 이듬해 7월까지 상을 마치고 다시 정5품의 성균관직강에 임명되었다. 그리고 그해 10월에 왕의 특명을 받아 경기 암행어사가 되어 연천지방의 경기도관찰사 서용보와 그 밑의 못된 벼슬아치들의 범죄사실을 낱낱이 임금에게 보고하였다. 정조는 이들을 쫓아내거나 멀리 귀양 보내 버렸다.

암행어사 일을 마친 그는 1795년 정3품의 병조참의에 오른다. 하지만 이때 청나라 신부 주문모 잠입사건이 발생해 충청도 금정의 찰방으로 좌천되었다. 그후 규장각 교서관으로 돌아와 편찬과 교정업무에 종사했고, 천주교 문제가 다시 정쟁의 핵심으로 떠올라 1797년 6월 재차 황해도 곡산부사로 갔는데 그는 뛰어난 목민관의 자질을 드러내어 군민들의 추앙을 받게 된다. 또한 이때 전국적으로 천연두가 유행하자 서학에서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적절한 치료책을 세우고, 『마과회통(麻科會通)』이라는 의학서를 편찬, 보급하였다. 그때까지 천연두에 대해 전혀 무방비 상태였던 민간에서는 그의 치료 대책에 힘입어 많은 환자를 구할 수 있었고, 이것이 조정에 알려져 전국적으로 이 책을 보급하게 되었다.

1799년 그는 다시 중앙으로 돌아와 병조참지에 올랐다. 하지만 그가 요직을 제수받는 것을 반대한 정적들은 그를 천주교인이라고 몰아갔다. 이 때문에 그는 해명서인 「자명소(自明疏)」를 제출한다. 그는 「자명소」에서 자신은 천주교에 관심을 가졌던 것이 아니라 서양의 학문, 특히 천문·지리·건축·수리·측량·치료법 등의 과학적 지식을 얻기 위해 서학에 접근했다면서 이를 위해 서학에 능통한 천주교 신부를 만났다고 밝힌다. 그리고 사퇴 건의서를 함께 제출했다. 정조는 애써 그를 달래어 조정에 머무르게 했지만 그의 사의는 완고하여 1800년 봄 처자를 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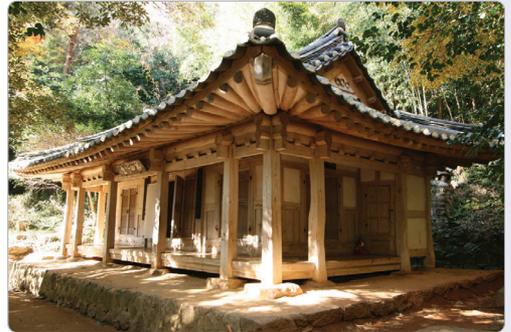
느리고 낙향했다. 그후 정조의 재촉으로 일시 상경하였지만 정조가 그해 6월 죽는 바람에 그는 다시 향리로 돌아왔다.

조정은 노론 벽파가 완전히 장악하였고, 1801년 신유사옥이 일어나 정약전, 정약종을 비롯한 이가환, 이승훈 등이 투옥되어 이가환·정약종·이승훈 등이 죽고 서용보의 간언으로 정약용도 유배된다.

1801년 유배지에 도착한 그는 오로지 독서와 창작에 몰두 하였다. 그리고 그해 10월 황사영(黃嗣永) 백서사건이 터져 다시 서울로 압송되어야 했다. 이 사건으로 대부분의 서학 관련자들이 처형되지만 정약용과 형 정약전의 공적을 존중한 조정 내부 사람들에 의해 유배형으로 끝났다. 그래서 정약전은 전라도 흑산도로, 정약용은 전라도 강진으로 떠났으며, 정약전은 유배지 흑산도에서 생을 마감하게 된다. 정약용은 유배기간 동안 학문연구에 매진했고, 이를 자신의 실학적 학문을 완성시킬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였다. 그의 강진 유배기는 관료로서는 암흑기였지만, 학자로서는 매우 알찬 수확기였다고 할 수 있다.

유배지 강진에 도착한 그는 1801년 11월부터 1805년 겨울까지 약 4년간 유배지의 주막에서 거처하게 된다. 이 기간동안 그는 만덕사(萬德寺)의 혜장선사(惠藏禪師)와 인연을 맺는다. 1803년 봄 소풍길에 혜장선사를 알게되어 유교와 불교를 서로 교환할 기회를 맞는다,

이후 혜장선사의 주선으로 1805년 겨울 거처를 고성사로 옮기고, 다시 9개월 후에 목래 이학래의 집에 들어 갔다가 그곳에서 1808년 봄 다산초당으로 옮길 때까지 약 1년 반 동안 머물게 된다. 1808년 봄 정약용은 다산에 있는 한 정자를 얻게 되었는데, 그곳은 윤박이라는 선비의 별장이었다. 거기에는 천여 권의 장서가 있어 그가 책을 집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이 초당에서 기거하면서 그는 자신의 아호를 '다산'이라고 붙였다. 그리고 자신이 머물던 곳을 '다산초당'이라고 하였다. 이로부터 11년 동안 다산초당은 정약용 학문의 산실이 되었다. 이곳에서 그는 『목민심서』·『경세유표』등을 비롯한 『시경강의보』·『춘추고징』·『논어고금주』·『맹자요의』·『대학공의』·『중용자감』등 수많은 책들을 저술하였다. 그리고 1818년 유배가 풀



| 다산 초당 | 전남 강진군 만덕리



| 정약용 묘 |

리자 고향으로 돌아왔다.

고향에 돌아와서 정약용은 유배 생활중에 쌓은 학문적 성과를 바탕으로 『흙흙신서』·『상서고훈』 등을 비롯한 많은 책을 집필했다. 가히 한마디로 업적을 평가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저작물을 남겨놓은 정약용은 1836년 75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그는 어릴 때부터 시재(詩才)에 뛰어나 사실적이며 애국적인 많은 작품을 남겼고, 우리나라의 역사·지리 등에도 특별한 관심을 보여 주체적 사관을 제시했으

며, 합리주의적 과학정신은 서학을 통해 서양의 과학지식을 도입하기에 이르렀다. 18세기를 전후하여 우리나라 사회에서 강력히 제시되고 있던 개혁의 의지를 집대성했고, 개혁의 당위성을 명백히 해주었다. 1910년(융희 4) 규장각제학(提學)에 추증되었고, 1959년 정다산기념사업회에 의해 마현(馬峴) 묘전(墓前)에 비가 건립되었다. 저서에 『정다산전서(丁茶山全書)』가 있고, 그 속에 『목민심서(牧民心書)』·『경세유표(經世遺表)』·『흙흙신서(欽欽新書)』·『마과회통(麻科會通)』 등이

실려 있다. 그의 묘는 남양주시 조안면 능내리에 있으며, 경기도기념물 제7호로 지정되어 있다. 그의 생가와 유물전시관도 이곳에 함께 있다.



| 다산기념관 |

5. 조선말 외세의 침입에 항거하다

이항로(李恒老)

1792년(정조 16)태어나 1868년(고종 5)에 돌아가셨다. 조선말기의 성리학자이며 본관은 벽진(碧珍), 초명은 광로(光老)였으나 철종 사친(私親)의 이름을 피하여 개명하였다. 자는 이술(而述), 호는 화서(華西)이며, 양평 출신이다. 회장(晦章)의 아들이며 어머니는 전의이씨(全義李氏) 의집(義集)의 딸이다.

3세 때 『천자문』을 떼고, 6세 때 『십구사략(十九史略)』을 읽고 「천황지황변(天皇地皇辨)을 지었다. 12세 때 신기령(辛耆寧)에게서 『서전(書傳)』을 배웠다. 1808년(순조 8) 반시(泮試 : 한성초시)에 합격하였다.

그러나 당시 권력층의 고관이 과거급제를 구실로 자기 자식과의 친근을 중용하자, 이에 격분하여 과장의 출입마저 수치스럽다 하여 끝내 과거에 응하지 않았다.

과거를 포기한 뒤 당시 학문으로 이름이 높았던 서울의 임로(任魯)와 지평의 이우신(李友信) 등을 찾아가 학우의 관계를 맺었다.

25~26세 때 아버지와 사별한 뒤 학문에 전념하였다. 30세 때 그의 학문과 인격을 흠모한 청년들이 많이 모여들었으나, 세속을 피해 쌍계사·고달사 등 사찰을 옮겨다니며 사서삼경과 『주자대전(朱子大全)』 등 성리학연구에 힘을 쏟았다.

그의 학덕이 조정에 알려지면서 1840년(헌종 6) 휘경원참봉에 제수되었으나 사양하였으며, 그 뒤에도 지방수령 등에 제수되었지만 고사하고 향리에서 강학을 위해 여숙강규(閭塾講規)를 수정하여 실시하였다. 이 무렵 한말의 위정척사론자로 유명한 최익현(崔益鉉)·김평묵(金平默)·유중교(柳重敎) 등이 문하에서 수학하였다.

1862년(철종 13) 이하전(李夏鎭)의 옥사에 무고로 체포되었다가 곧 풀려났다. 1864년(고종 1) 당시 권력자 조두순(趙斗淳)의 천거로 장원서별제(掌苑署別提)·전라도사·지평·장령 등에 임명되었으나 건강상의 이유로 모두 거절하였다.

1866년 병인양요가 일어나자 동부승지의 자격으로 입궐하여 흥선대원군에게 주전론을 건의하기도 하였다. 그 뒤 공조참판으로 승진되고 경연관(經筵官)에 임명되었으나, 대원군의 비정(秕政)을 비판한 병인상소와 만동묘(萬東廟) 재건 상소 등으로 대원군의 노여움을 사서 삭탈 관직당한 뒤 낙향하였다.

그의 학문은 주리철학(主理哲學)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호남의 기정진(奇正鎭), 영남의 이진상(李震相)과 함께 침체되어가는 주리철학을 재건한 조선조 말기 주리철학의 3대가의 한 사람이다. 그의 주리철학은 이기합일설(理氣合一說)을 주장한 중국의 나흠순(羅欽順) 일파의 우주론을 반대하고, 이(理)와 기(氣)를 엄격히 구별하는 동시에 그것을 차등적으로 인식하였다.

즉, ‘이’가 주가 되고 ‘기’가 역(役)이 되면 만사가 잘 다스려져 천하가 편안할 것이나, 만일 반대로 기가 주가 되고 이가 버금(倂)이 되면 만사가 어지러워져 천하가 위태로울 것이라 하여 이·기를 차등적으로 보았다.

또, 주리론에 기초를 둔 심전설(心專說), 즉 심즉리(心卽理), 심즉기(心卽氣)설을 반대하고 심합이기설(心合理氣說)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존기비(理尊氣卑)를 고수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중교가 비판하였듯이 이리단심(以理斷心)의 이론이라 할 수 있으니 그의 심설은 심전설이 되는 것이다.



노산사 양평군 서중면 노문리. 이항로를 모신 사당이다.

그러므로 그의 사상은 심전주리론에 바탕을 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그의 심전주리론은 존왕양이(尊王攘夷)의 춘추대의(春秋大義)라는 윤리와 아울러 임금 사랑하기를 아버지처럼 하고, 나라 걱정하기를 내집처럼 한다는 애국사상과 자주의식을 강조함으로써 조선조 말기의 민족사상인 위정척사론의 사상적 기초가 되고, 나아가서 민족운동의 실천적 지도이념으로 승화되었다.

저서로는 『화서집』·『화동사합편강목(華東史合編綱目)』 60권, 『주자대전차의집보(朱子大全筭疑輯補)』, 『화서아언(華西雅言)』 12권 등이 있다. 시호는 문경(文敬)이다.

최익현(崔益鉉)

1833년(순조 33) 태어나 1906년에 돌아가셨다. 조선말기의 애국지사로 본관은 경주(慶州), 자는 찬겸(贊謙), 호는 면암(勉菴)이며, 포천 출신이다. 어릴 때 김기현(金琦鉉) 문하에서 유학의 기초를 공부하였다.

14세 때 경기도 양근(楊根) 벽계(蘗溪)에 은퇴한 성리학의 거두 이항로의 문하에서 『격몽요결(擊蒙要訣)』·『대학장구(大學章句)』·『논어집주(論語集註)』 등을 통해 성리학의 기본을 습득하였다. 이 과정에서 이항로의 ‘애군여부 우국여가(愛君如父 憂國如家)’의 정신, 즉 애국과 호국의 정신을 배웠다.

1855년(철종 6) 명경과에 급제해 승문원부정자로 관직생활을 시작한 이후 순강원수봉관(順康園守奉官)·사헌부지평·사간원정언·신창현감(新昌縣監)·성균관직강·사헌부장령·돈녕부도정 등의 관직을 두루 역임하고 1870년(고종 7)에 승정원동부승지를 지냈다.

수봉관·지방관·언관으로 재직시 불의와 부정을 척결해 강직성을 발휘하였다. 특히 1868년에 올린 상소에서 경북궁 재건을 위한 흥선대원군의 비정을 비판, 시정을 건의하였다. 이 상소는 그의 강직성과 우국애민정신의 발로이며

막혔던 언로를 연 계기가 되었다.

1873년에 올린 「계유상소(癸酉上疏)」는 1871년 신미양요를 승리로 이끈 대원군이 그 위세를 몰아 만동묘(萬東廟)를 비롯한 서원의 철폐를 대거 단행하자 그 시정을 건의한 상소다. 이 상소를 계기로 대원군의 10년 집권이 무너지고 고종의 친정



최익현 영정 |



최익현 생가터 | 포천시 신북면 가채리

이 시작되었다.

이후 고종의 신임을 받아 호조참판에 제수되어 누적된 시폐를 바로잡으려 했으나, 권신들이 반발해 도리어 대원군 하야를 부자이간의 행위로 규탄 당하였다. 이에 「사호조참판겸진소회소(辭戶曹參判兼陳所懷疏)」를 올려 민씨 일족의 옹폐를 비난했으나 상소의 내용이 과격, 방자하다는 이유로 제주도로 유배되었다. 1873년부터 3년간의 유배생활을 계기로 관직생활을 청산하고 우국애민의 위정척사의 길을 택하였다. 첫 시도로서 1876년 「병자지부복궤소(丙子持斧伏闕疏)」를 올려 일본과 맺은 병자수호조약을 결사 반대하였다. 이 상소로 흑산도로 유배되었으나 그 신념과 신조는 꺾이지 않았다.

유배에서 풀려난 뒤 1895년 을미사변이 일어날 때까지 약 20년 동안 침묵을 지켰다. 이 시기는 일본과의 개국 이래 임오군란·갑신정변·동학운동·청일전쟁 등이 연이어 일어나 국내외 정세가 복잡했던 때이다. 특히 1881년에 신사척사운동이 일어나면서 위정척사사상이 고조되고 있을 때 그가 침묵을 지켰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그러나 일본의 침략이라는 역사적 위기상황 속에서 그의 위정척사사상은 항일투쟁의 지도이념으로 성숙하였다. 이것은 그의 사상이 고루하거나 보수적이지 않은 것은 보여준다. 또, 항일정치투쟁방법도 이제까지의 상소라는 언론 수단에 의한 개인적·평화적인 방법이 아닌 집단적·무력적인 방법으로 바뀌었다.

동시에 위정척사사상도 배외적인 국수주의로부터 민족의 자주의식을 바탕으로 한 자각된 민족주의로 심화되었다. 이러한 그의 항일구국이념은 1895년 을미사변의 발발과 단발령의 단행을 계기로 폭발하였다. 긴 침묵을 깨고 「청토역복의제소(請討逆復衣制疏)」를 올려 항일척사운동에 앞장섰다.

이 때 여러 해에 걸쳐 고종으로부터 호조판서·각부군선유대원(各府郡宣諭大員)·경기도관찰사 등 요직에 제수되었으나 사양하고 오로지 시폐의 시정과 일본을 배격할 것을 상소하였다.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곧바로 「청토오적소(請討五賊疏)」와 재소를 올려서 조약의 무효를 국내외에 선포하고 망국조약에 참여한 박제순(朴齊純) 등 오적을 처단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 사건을 계기로 위정척사운동은 집단적·무력적인 항일의병운동으로 전환하였다.

1906년 윤4월 전라북도 태인에서 쫓기하였다. 「창의토적소(倡義討賊疏)」를 올려 의거의 심정을 피력하고 쫓기를 촉구하는 「포고팔도사민」을 돌렸으며, 일본 정부



채산사 | 최익현을 모시는 사당이다.

에 대한 문죄서 「기일본정부(寄日本政府)」를 발표하였다. 74세의 고령으로 의병을 일으켜 최후의 진충보국하고자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적지 대마도 옥사에서 순국하였다. 그의 우국애민의 정신과 위정척사사상은 한말의 항일의 병운동과 일제강점기의 민족운동·독립운동의 지도이념으로 계승되었다. 위정척사운동에 비해 그의 학문은 큰 업적을 남기지는 못하였다.

그는 성리학에 기본을 둔 이항로의 학문을 이어받았으나 이기론(理氣論)과 같은 형이상학보다는 애국의 실천 도덕과 전통질서를 수호하는 명분론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의 이기론은 이항로의 심전설(心專說)을 계승했을 뿐이다. 그러나 그의 사상과 이념은 역사적 현실에 바탕을 둔 실천성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구국애국 사상으로, 민족주의 사상으로 승화, 발전할 수 있었다. 여기에 위정척사사상의 역사적 역할과 의의가 있는 것이다.

1962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이 추서되었다. 최익현의 대의비인 춘추대의비(春秋大義碑)가 현재 충남 예산군 광시면 관음리에 있다. 제향은 모덕사(慕德祠 : 충남 청양군 소재)와 포천·해주·고창·곡성·순화·무안·함평·광산·구례 등에서 봉향되고 있다.



6. 현대사의 3주역

여운형(呂運亨)



| 여운형 |

1886년(고종 23) 태어나 1947년에 돌아가셨다. 일제강점기의 독립운동가이자 8·15광복 이후 정치가로서 활동했다. 본관은 함양(咸陽)이며 양평 출생이다. 아버지는 정현(鼎鉉)이며 어머니는 경주 이씨이다. 그는 14세 때에 용인 유세영(柳世永)의 장녀와 혼인하였으나 4년 만에 사별하고, 그 뒤 충주의 진씨(陳氏)와 재혼하였다. 15세에 배재학당(培材學堂)에 입학하였으나 1년도 못 되어 사립흥화학교(私立興化學校)로 옮겼다가 1903년 다시 관립우체학교(官立郵遞學校)로 옮겼다.

그러나 졸업 한 달을 앞두고 그 학교마저 그만두었다. 그 뒤 1907년부터 시작한

성경공부를 하여 기독교를 믿게 되었고, 1908년경에는 미국인 선교사 곽안련(郭安連, Clark, C.A.) 목사와 친분을 맺었으며, 그의 도움을 받아 1909년 사립기독교광동학교(私立基督光東學校)를 세웠다. 1910년 봉제사(奉祭祀)의 집안 전통을 혁신하고 노복들을 풀어주는 등 안팎으로 변혁을 일으켰으며, 1911년 평양장로교신학교에 입학하였다.

그러나 또 중퇴하고 1914년 중국으로 건너가 난징의 금릉대학(金陵大學)에서 영문학을 전공하였다. 1917년 상해로 활동무대를 옮기면서 이 학교 역시 중퇴하였다. 1918년 상해에서 청년 동포들을 규합하여 민단(民團)을 조직하여 광복운동의 터전을 마련하였고, 또한 신한청년당(新韓靑年黨)을 조직하여 총무간사에 취임하기도 하였다. 1919년 3월 임시정부 수립에 가담하여 임시의정원 의원을 역임하였다.

그 해 12월 일본이 우리 나라의 자치문제를 타진해오자 찬부양론이 있는 가운데 동경으로 건너가 당시 척식국장관(拓殖局長官)인 고가[古賀廉次造]를 비롯하여 노다[野田] 체신대신, 무단정치가의 중심인물인 다나카[田中義一], 그리고 미즈노[水野鍊太郎] 정무총감 등과 일련의 회담과 의견교환을 하고 돌아온 일도 있다.

1920년 소련공산당에 가입하였고, 1921년 모스크바에서 열린 원동민족근로자대회(遠東民族勤勞者大會, 또는 遠東被壓迫民族大會라고도 불림)에 참석하였고, 상해에서 한중호조사(韓中互助社)를 조직하고, 1922년 노병회(勞兵會)를 조직하기도 하였으며, 1924년 중국국민당에 가입하여 한중상호협조를 위한 남방혁명군(南方革命軍)을 위하여 활동하였다. 1929년 영국의 식민정책을 비난하였다가 영국경찰에 체포되어 일본에 인도, 3년간 복역한 뒤 1932년 출옥하였다.

1933년 조선중앙일보사(朝鮮中央日報社) 사장에 취임하여 언론을 통한 항일투쟁도 하였다. 1934년 조선체육회장직에 취임하였으나 1936년 손기정(孫基禎) 선수의 일장기말살사건으로 『조선중앙일보』가 폐간되자 사장직에서 물러났다. 1944년 9월 일본의 패전을 예상하고 조선건국동맹(朝鮮建國同盟)의 지하조직을 전국적으로 조직하여 그 위원장에 취임하여 광복에 대비하였으며, 10월에는 양평 용문산 속에서 농민동맹(農民同盟)을 조직하기도 하였다.



이 여운형 생가터 | 양평군 양서면 신원리

1945년 광복이 되자 조선건국준비위원회(朝鮮建國準備委員會)를 조직하고 그 위원장이 되었고, 9월에는 조선인민공화국(朝鮮人民共和國)을 선포하여 스스로 부주석(副主席)에 취임하였으며, 10월에는 인민당(人民黨)을 결성하여 당수직에 앉았다.

그러나 인민당은 인민공화국 선포, 모스크바삼상회의 결정(1945. 12.27), 민주주의민족전선(民主主義民族戰線, 1946. 1.19 결성), 미소공동위원회 등에 대한 노선에서 공산당과 보조를 같이하였고, 또한 1946년 5월 좌우합작운동(左右合作運動)이 일어났을 때 좌익을 대표하여 중간적인 위치에 선 일이 있다.

이 좌우합작운동은 우익의 강력한 반탁운동과 공산당의 반대에 부딪혔는데 북한 공산당의 지령을 받은 조선인민당의 비여운형계가 조선공산당·남조선신민당과 합동하여 남조선노동당(南朝鮮勞動黨)을 결성하였던 것이다.

이에 여운형은 1946년 10월 15일 신민당과 공산당과의 공동명의로 '좌우합작지지', '입법기관설치 반대' 라는 3당합동 결정서를 발표하고 11월 12일 사회노동당(社會勞動黨)을 조직하였다. 그러나 당시의 정치정세로서는 사회노동당이 좌우양쪽의 공격을 받지 않을 수 없게 되어 큰 활동은 하지 못하였다.

미·소 공동위원회가 다시 열리게 됨에 따라 1947년 5월 24일 사회노동당을 근로인민당(勤勞人民黨)으로 개편하였는데 밖으로는 영국 노동당좌파의 노선을 모색하였고, 안으로는 좌우 중간노선을 모색하려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노선은 현실적으로 정치적 입장을 강화시켜 주기가 어려웠다. 또, 이러한 노선의 추구 때문에 자연히 인물분위의 정당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는 1947년 7월 19일 서울 혜화동 로터리에서 한지근(韓智根)이라는 19세 청년으로부터 권총사격을 받고 절명하였다. 그는 호방 담대하면서도 관용적이고 인자하였다는 평을 받았다.

안재홍(安在鴻)

1891년(고종 28) 태어나 1965년에 돌아가셨다. 정치가·사학자로서 본관은 순흥(順興), 호는 민세(民世)이며 평택 출신이다. 윤섭의 아들로 어머니는 남양 홍씨이다. 1907년에 단발을 하고 상경하여 황성기독교청년회(皇城基督教青年會) 중학부에 들어갔다. 이때 이상재(李商在)·남궁억(南宮憶)·윤치호(尹致昊) 등과 교분을 가졌다.



| 안재홍 |

1910년 일본 동경으로 건너가 조선인기독교청년회에 계속 관여하여, 조선인유학생학우회를 조직, 활동하면서 1911~1914년 와세다대학[早稻田大學] 정경학부를 졸업하였다.

그 뒤 귀국하여 1915년부터 1917년까지 중앙고등보통학교 교감직을 역임하고, 그 해부터 조선 중앙기독교청년회 교육부 간사를 지냈다.

1919년 3·1운동 만세시위를 지도하는 한편, 비밀결사인 대한민국의청년외교단에 가담하여 상해 임시정부의 연통부(聯統府) 역할을 수행하다가 일본 경찰에 붙잡혀 3년간 옥고를 치렀다.

1923년 『시대일보(時代日報)』 창간에 참여하여 이사와 논설위원을 지내고, 1924년 『조선일보』 주필을 거쳐 부사장(1929~1931)·사장(1931~1932)을 역임하는 등 10년 동안 언론인생활을 하였다.

이 동안에도 1925년에는 조선기자대회 부의장을 거치고, 조선사정연구회·태평양문제연구회에 참여하였으며, 1927년 신간회 총무간사로 활약하다가 잡혀 8개월 동안 투옥되었다. 같은해 재만주동포옹호동맹(在滿洲同胞擁護同盟) 위원장, 1929년 생활개선운동·귀향학생문자보급운동을 벌이면서 광주학생사건 진상보고를 위한 민중대회를 주관하였다.

1932년에는 만주동포조난문제협의회의 조사·선전부 책임을 맡기도 하였다. 『조선일보』 시절에 겪은 일들은 글로 옮겨져 사설 980편, 시평 470편이 게재되었다. 이후 『여유당전집(與猶堂全集)』의 간행 등 조선실학연구에 몰두하였다. 1936년 임시정부와의 긴밀한 활동이 탄로나 2년 동안 복역하였고, 1942년에는 조선어학회사건으로 다시 2년 동안의 옥고를 치르기도 하였다.

1937~1944년 틈나는 대로 평택군 향리의 도릉산방(桃陵山房)에서 우리 나라 상고사와 조선철학에도 정진하였다. 이는 일본학자들의 식민사관을 극복하기 위한 연구였으며, 1945년 4월 일본의 패망을 눈앞에 두고 여운형(呂運亨)이 일본과 치안권인수문제에 관한 접촉을 진행할 때 그 대안으로 민족대회의 결의를 받자는 주장을 폈다.

그는 8·15광복과 동시에 생겨난 조선건국준비위원회의 부위원장이 되었으나



안재홍 생가 | 평택시 고덕면 두릉리



| 신익희 |

이 위원회가 공산주의자들에게 좌우되자, 같은 해 9월 독자적으로 국민당(國民黨)을 결성하고 당수가 되었다.

그 뒤 한국독립당(韓國獨立黨) 중앙위원, 신탁통치반대 국민총동원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였고, 1946년 한성일보사(漢城日報社) 창립 사장, 비상국민회의 의원, 민주의원 의원, 좌우합작위원회 의원으로 활약하였다. 1947년 입법의원 의원이 되고, 미군정청 민정장관(民政長官)이 되어 한인체계에 의한 행정기반을 굳혔다. 정부수립 후 평택군에서 무소속으로 제2대 국회의원에 당선되었으나, 1950년 9월 21일 납북되어 1965년 3월 1일 사망한 것으로 전해진다. 저서로는 『조선상고사감(朝鮮上古史鑑)』·『신민족주의와 신민주주의』·『한민족의 기본노선』 등이 있다.

신익희(申翼熙)

1894년(고종 31) 태어나 1956년 돌아가셨다. 정치가·독립운동가이며 호는 해공(海公), 경기도 광주 출생이다. 조선시대 때의 판서를 지낸 신단(申壇)의 다섯 아들 중 막내로 태어났다. 어려서 사서삼경을 비롯한 한학을 익혔고, 1908년 한성관립외국어학교를 졸업한 뒤 일본 와세다대학 정경학부에 유학하였다.

1913년 와세다대학을 마치고 귀국하여 중등학교(中東學校)에서 교편을 잡았으며, 1917년부터는 보성전문학교(普成專門學校)의 전신인 보성법률고등학교에서 비교헌법 등의 강의를 맡기도 하였다.

1918년 미국 대통령 윌슨(Wilson, T.W.)의 민족자결원칙이 발표됨과 더불어 독립운동에 뛰어들어, 만주·북경·상해 등지를 드나들면서 해외독립운동원과의 연락을 맡아보고, 안으로는 민족지도자들과 독립운동의 방법을 토의하여 3·1운동의 도화선을 당기는 데 일역을 담당하였다.

만세시위에 가담했던 그는 1919년 3월 다시 상해로 떠나 그로부터 26년간의 망명생활을 시작하였다. 상해에 있는 동안 대한민국임시헌법을 기초하고 임시정부의 초대 대의원과 초대 내무차관을 지냈으며, 그 뒤 내무총장·법무총장·문교부장·외무부장 등을 두루 맡았고 국무원 비서실장과 의정원 부의장을 겸임하였다.

그는 독립운동에 몸담기 시작하면서부터, 독립운동이 처음에는 평화적인 방식으로 시작되더라도 나중에는 반드시 군사행동에 의하여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임시정부에 있으면서도, 정부는 상징적인 것에 불과할 뿐 실력은 저항군에 있다는 믿음 아래, 중국 각지를 돌아다니며 한국청년들에 의한 군대조직을 시도해 보기도 하고 당시 상승기에 있던 중국혁명군과 연결하여 한중합작에 의한 군사행동의 실현을 추진해 보기도 했지만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였다.

광복이 된 뒤 1945년 12월 임정요인의 한 명으로 귀국한 그는 곧바로 대한독립촉성국민회를 만들어 부회장을 맡았으며, 국민대학 학장과 『자유신문』 사장직도 맡았다. 그 뒤 미군정하의 남조선과도입법의원 의장을 거쳐, 정부수립과 함께 제헌국회에 진출하였고, 대통령으로 뽑힌 초대 국회의장 이승만(李承晩)의 뒤를 이어 국회의장이 되었다.

1947년에는 대한국민당(大韓國民黨)을 결성하여 대표최고위원이 되었으며, 1950년 한국민주당과 합당, 개편된 민주국민당(民主國民黨)의 당 위원장으로 뽑혔다. 그 동안 그는 3선 국회의장으로 정치적 비중을 더해갔으며, 권력의 연장을 위하여 이른바 ‘4사5입개헌’ 까지 단행한 이승만이 민심에서 멀어지자, 1956년 야당의 대통령후보로 출마하였다.

그 해 5월 2일 한강백사장에서 열린 그의 유세에는 무수한 인파가 모여 그 인기를 증명하였다. 그러나 그로부터 사흘 뒤인 5월 5일 호남지방에서의 유세를 위하여 전주로 가다 기차 안에서 심장마비로 급서(急逝)하였다. 그는 추모표로서 185만여 표를 얻었다. 5월 23일 국민장으로 장례가 치러졌으며 서울 우이동에 안장되었다. 1962년 대한민국장이 추서되었다.



| 신익희 장례식 광경 | 국민장으로 치러졌다.

찾·아·보·기



가로날도끼	230
갑오의병	174
강감찬	139, 140
강령포	224
강신무	280, 281
강화도	2~4, 30, 121, 132, 141, 145, 155 156, 170, 171, 212, 220, 269, 272, 275
강화 분견대	175
강화용두레질노래	284
강화학과	164
개로왕	127, 255
개발제한구역	24, 44, 59~62, 7277~82, 85, 87, 88, 91, 102, 104
개성부	14, 15, 137, 139, 150, 178
개성상인	160
거북놀이	283, 284, 285
거중기	162, 251, 324
건릉	263, 264, 265
건아단	190
견훤	134
경공업	197, 206~208
경강상인	160, 229
경국대전	149, 150, 268
경기국제보트쇼	210
경기국제항공전	212
경기도당국	281
경기도민증	199

경기도의회	25, 26, 198~200
경기만	29, 117, 170, 218, 219
경기바이오센터	32
경기우도	138, 148
경기의병	173, 175
경기제	28, 137
경기좌도	138, 148, 149, 239
경기좌우도	14, 138, 139, 149
경기좌우도성	149
경기지괴	216
경기편마암복합체(경기변성복합체)	214
경통관	163
경릉	260
경리청	256
경복궁	147, 157, 172, 262, 291, 328
경성부	15, 177, 185, 201
경세유표	168, 325, 326
경세치용	30, 166, 167
경세치용학과	167
경순왕	136
경신대출척	319, 320
경수산업도로	208
경수선	208
경신환국	261
경안천	217
경인고속도로	208
경인공업지역	183, 197, 198, 207
경제개발 5개년 계획	205, 206
계명주	274, 285, 286, 289, 290
계유정난	267
고구려	3, 27, 125~135, 139, 140, 146

.....	232, 233~235, 254, 256	구연영	172, 173
고구려 관방유적	128	국권회복운동	175
고구려 보루 유적	128	국가보안법	199
고구려 석실분	128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203
고국원왕	127	국가재건최고회의	201
고니시 유키나가	151	국망봉	216
고달사지 부도	242, 243, 244	국민당	331, 334, 335
고달사지	228, 242~244	국채보상운동	174
고대국가	126	국화도	219
고량포	160, 224, 232, 233	군대해산	175
고려도경	294	군사분계선	17, 19, 83, 104
고봉산성	232	196, 197, 232, 284
고산리	114, 115	군사시설보호구역	59~61, 83~86, 102
고양평야	217	군사정전위원회	19, 20
고이왕	125	군산 직도사격장	81
고인돌	118, 119, 121	궁예	28, 133, 134~136
고종	137, 149, 172, 185, 237, 245, 256	권문세족	146
.....	265~267, 269, 326~330, 332, 334	권율	154, 257, 258, 312
고증학	165, 166	권징	152
공릉장	29, 160	권철신	167, 171, 322, 323
공민왕	144, 146	귀속처	179
공장입지 규제	70, 102	귀주대첩	140
공장총량제	63, 73	균전론	167, 169
과밀억제권역	60, 63, 64, 67~71, 73, 74, 100	근구수	127
과전법	28, 138	근기	28, 29, 166, 171
관방	28, 232	근기학과	166
광릉	263, 267	근대화	205, 206
광주대단지사건	209	근로인민당	332
구비전승	271, 272	근왕사상	173, 174
구석기	110, 113, 228~230	금융실명제	203
구석기시대	110	근초고왕	127, 255

쿡개 230, 231
 금당천 217
 금파리 유적 231
 기내 137
 기리영 125
 기묘사화 246
 기사환국 261
 기정진 172, 327
 기현 12, 137
 기호학과 27
 기원 133~135
 긴급조치 202
 김구 193, 195
 김군관 130
 김규식 193, 195
 김득배 144
 김대중 202, 203
 김명원 151, 150, 152
 김백선 173
 김범문 132
 김시민 155
 김여물 151
 김영삼 203
 김윤후 142
 김장생 27, 245
 김재규 202
 김준룡 163
 김천일 154
 김포갯벌 220
 김포통진두레놀이 285, 286, 288
 김포평야 217

김하락 172~174
 김헌창 132



나노소자특화팝센터 212
 나루 160, 161, 223, 224, 225, 226
 233, 234, 235
 나루터 160, 224, 233, 234
 나룻배 223, 289
 나옹 238, 239, 240, 241, 242
 나옹화상 부도 240
 나제동맹 127
 낙남헌 163
 낙랑 123
 낙랑군 125
 난개발 38, 40, 41, 44, 61
 72, 76, 88, 94, 95, 100
 남방한계선 19
 남성도 놀이 285
 남양갯벌 220
 남조선노동당 195, 332
 남천주 129, 130
 남평양성 132
 남한강 9, 87, 94, 121, 133, 151, 153
 184, 217, 225, 238, 240, 243
 249, 280, 290, 303
 남한산 216, 254
 남한산성 130, 141, 156~158, 172~174
 219, 251~254, 268, 285, 286
 남한산성행궁 252

남한산주	130
남속책	157
노래당	163
농업진흥지역	41, 97~99, 105
뇌음신	256
능곡동	117
능행로	229

ㄷ

다각면원구	231
다루가치	141
다산초당	325
단발령	29, 172~174, 329
당성	129, 132, 133
당성진	132
당은군	132
당포성	232~234
당항성	129, 228
대동법	157, 261
대동청년단	195
대방군	125, 126
대성동 자유의 마을	19
대학규제	70, 72
대한국민당	335
대한독립촉성국민회	195, 335
대형 토광묘	126
덕진나루	235
덕진산성	235
덧무늬토기	114~116
도농복합형태의 시	16

도당신앙	278
도평의회	182
독립협회	174, 175
독산성	154
동구릉	259, 260, 262, 266
동성왕	127
동맹휴학	190
동안출장소	16
동타천	256
동탄 신도시	37
동학운동	184, 329
동해송	319
동호문답	317
두물머리나루	225
둔전	164, 250, 261
득중정	163
파리집	275

ㄹ

마과회통	324, 326
마제석검	119
마제석기	110, 114, 118
마진	133
마한(馬韓)	124, 125
마한왕	125
만년제	164
만석거	164, 250
만안출장소	16
만주사변	182
망이산성	232

매소(초)성	131
명릉	260, 261
명성황후	173, 266
모비우스	112, 113, 231
모스크바삼상회의	332
무녕왕	127
무열왕	130, 254
목릉	260
목민심서	168, 325, 326
목책	119, 154
문무왕	130, 131, 252, 253
문민정부	203
문산천	217
문산포	224
문산평야	217
문수산	154, 217
문전신	280
문화정치	181, 182, 189
물산장려운동	190
미곡수집령	194
미소공동위원회	332
민무늬토기	114, 118
민속공예	271
민속극	270
민속놀이	270, 284, 289
민속신앙	270, 277
민속예술	270
민속음악	270
민속춤	270
민자유치(BTL)방식	82
민자당	204

민주당(民主黨)	198, 204
민족자결주의	185
민주국민당	335
민주주의민족전선	332
민진후	158

ㄴ

바이오센터	212
바우덕이	291
박기오	134
박세당	164
박세채	245
박적오	134
박제가	166, 169
박지원	166, 169
박정희	200~202, 206
박편	231
반구정	311, 312
반석나루	224
반월산성	232
반월공업단지	211
반제리	122, 123
방화수류정	162, 163
배현경	136
백애촌	160
백자	285, 292, 293, 295, 297, 299~305
백제	3, 27, 125~131, 135, 154, 229 232, 233, 235, 252~256
백제국	125
벽돌가마	293, 294

변응성 154
 별무반 307
 병인양요 170, 182, 327
 병자호란 29, 155, 156, 251, 256, 268, 318
 복내당 163
 복지검 136
 복하천 217
 봉수당 163
 북방한계선 19, 20, 21
 북벌론 158, 169
 북학파 166
 북한강 85, 88, 92, 121, 184
 217, 225, 289, 303
 북한산성 129, 130, 255, 256
 북한산순수비 255
 북한산주 129, 132
 분구묘 124
 분당 신도시 16, 41
 분청사기 297~300
 불곡산 보루 232
 비뇌성 133
 비류 125
 비무장지대 19, 20, 198
 비파형동검 118, 119
 빗살무늬토기 115~117
 뽕족끝짜개 230



사도세자 161, 236, 237, 238
 250, 261, 263, 264, 269

사옹원의 분원 29, 159, 300~302
 사패산 보루 232
 사평장 29, 160
 산신신앙 278
 살리타이 141, 142
 삼국사기-지리지 한주조(漢州條) 127
 삼목도 147
 삼별초 142, 143
 삼신 278, 279
 삼전도 157, 251
 3선개헌 201
 상감청자 213~298
 상례 270
 상복 271, 272, 319
 삼백산업 205
 상평통보 261
 생해 256
 서북한 지역 123
 서삼릉 259, 269
 서오릉 259, 260, 261
 서운산 217
 서원 28, 138, 184, 185, 186
 244~248, 328
 서원철폐령 245, 247
 서진 125
 서학 7, 30, 166, 167, 171
 320, 324, 325, 326
 서해안고속도로 210
 서해안공업지대 211
 석관묘 123
 석유 파동 202

석해	231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212
선덕왕	130	수도권정비계획법	35, 53, 54, 59, 60, 63, 64, 72~75, 84, 85, 87, 89, 92, 95, 103
선조	29, 150	수도권정비권역	23
성덕왕	131	수도권정비위원회	66~69
성설	162, 250	수령철사	150
성왕	128	수리산	217
성장관리권역	60, 63, 64, 67~71, 73, 74, 100	수어청	158, 268
성학집요	317	수운	223, 241, 249, 303
세계도자엑스포	305	수원농고	200
세계요트대회	211	수원 진위대	175
세계화	210	수원향교	248, 249
세마대	154	수원혈복단	190
새마을운동	207, 278	수질오염총량관리제	95
세습무	280, 281	수혈식석곽묘	126
세시의례	277	숙종	158, 240, 256, 261, 306, 318~320
세시풍속	270, 282, 283	순종	266, 267
세조	146, 236, 261, 263 267, 268, 300, 308	술천성	130
세종	7, 14, 241, 262, 263, 267, 298, 311	승릉	260
세형동검	123	슴베	112
소배압	140	시국업무	182, 183
소손녕	140	시화갯벌	220
소작쟁의	190, 191	시화공업단지	211
소화의식	165	시화호	105, 106, 218~220
송도사개문서	161	신군부	202, 203
송문주	142, 143	신각	151, 152
송방	160	신경진	156
송상현	151	신남성	158
송시열	29, 247, 256, 318, 319	신도시	16, 22, 31, 34~41, 46, 47, 49, 68, 104
송과장	29, 160, 161	신돈	146, 308
쇠곳나루	224		

신록사 다층전담 243, 244
 신록사 228, 238, 239, 240
 신립 151
 신미양요 29, 30, 170, 328
 신민당 200, 203
 신사임당 245, 316
 신사척사운동 172, 329
 신석기 116, 117
 신석기시대 116, 117, 228, 292
 신익회 193, 198, 334, 335
 신주 129, 147, 156, 255
 신진사대부 146, 147
 신탁통치 194
 신평루 163
 신한공사 194
 신한청년당 331
 신할 152
 심기원 253
 심곡서원 246
 심상회 173
 13도제 14, 15
 십제 125



5·18 민주화운동 203
 아달성 130
 아슬리안형 주먹도끼 112, 113
 안성 4·1만세항쟁 187
 안성 읍내장 160
 안성천 217~219

안승우 172~174
 안우 144, 308
 안재홍 192, 193, 332, 333
 안정복 4, 29, 167, 245, 323
 암사동 115
 애국계몽운동 174, 175, 176, 184
 애노 134
 야별초 142
 양길 133~135
 양명학 29, 30, 164
 양전 157, 268
 양주소놀이굿 281, 284, 285
 양주별산대놀이 270, 284, 285, 288
 양통집 275
 양팽손 246
 어영청 159
 여운형 192, 193, 330~333
 여전제 169
 여주향교 249
 연담화 77, 78
 염생식물 221
 염제신 308
 영우원 236, 264
 영조 256, 260~262, 264, 265, 268
 261, 303, 313, 320, 323
 영종도 145, 171, 220, 221, 222
 영평천 216
 예릉 269
 예종 239, 260, 261, 262
 263, 306~308
 오갑산 216

오곡지원	128	유신	200, 202
5도양계	139, 148	유여택	163
오연총	307	유인석	172, 173
은조	3, 27, 125, 252	유약	294, 295, 297, 299, 300
왕건	2, 28, 133~136, 295	유탁	308
왕기	28, 136, 137	유형거	162, 250, 251
용암대지	113	유형원	161, 166, 167, 169, 250
용연서원	315	육도	219
용주사 범종	228, 238	윤관	306, 307
용주사 천보루	237	윤두서	323
용주사	164, 236, 237, 238, 264	윤선도	161
우성전	163	윤휴	164
우키타 히데이에	152	울곡학과	30
우하영	166, 167	용건릉	263, 264
운악산	216	용릉	161, 163, 263, 264, 265, 266
운요호	172	은대리성	232, 234
응진도독부	130	을미사변	172, 173, 174, 329
원두표	156	을미의병	173
원릉	260	을사늑약	175, 329
원종	134	의례음식	274
원행을묘정리의궤	164	의병운동	172~176, 184, 329, 330
원종대사	243, 244	의병전쟁	29
원호	151, 153	의지왕	130
위성도시	22, 53, 209	이가환	171, 323, 325
위정척사	171, 172, 329	이광	152, 153
위화도회군	146, 148, 309	이덕형	312~315
유극량	152	이문원	237
유릉	266, 267	이방실	144, 308
유림세력	172	이빈	257
유수부	150	이색	239
유수원	166, 169	이서	253

이성계 138, 144, 146, 147
 148, 260, 308, 309, 311
 이성산성 129, 130, 131, 254, 255
 이세화 142
 이순신 140, 155, 314
 이승만 193, 195, 196, 198~200, 205, 335
 이승훈 323, 325
 이시언 151
 23부제 14
 이여송 154, 314
 이용후생학과 169
 이이 244, 245, 312, 315, 316, 317
 이익 29, 30, 166, 167, 320~322
 이일 151
 이정구 247, 313
 이중환 32, 323
 이천수창의소 33, 172
 이춘영 174
 이촌향도 209
 이포나루 160, 225
 이필희 174
 이항로 172, 174, 326~328, 330
 이항복 312, 313, 315
 이혼 151, 152
 익릉 260, 261
 인민위원회 193~195
 인조 155~157, 251, 254, 260, 268, 318
 인천부 14, 15, 177
 인천공고 200
 인천사범학교 200
 인천항 208, 210

일산 신도시 16
 일생의례 270
 임경업 156
 임보 141
 임진강 3, 4, 6, 20, 27, 113, 114, 121, 124
 127~131, 135, 149, 151, 152, 159, 184
 217~220, 223~225, 228, 229, 231~235
 임진나루 223~225
 임진왜란 28, 148, 151, 152, 154, 155
 157, 240, 247, 249, 256, 257
 293, 302, 304, 313, 314

 자운서원 245, 318
 자연보전권역 54, 60, 63, 64, 67~75
 87~91, 94, 95, 100, 101
 자유로 21
 자유당(自由黨) 198~200
 자족성 36
 장락당 163
 장릉 259, 264, 268, 295
 장묘관리시설 36
 장면 198
 장수왕 127, 232, 255
 장시 29, 159, 160
 장안문 162, 164, 200
 저습지 221
 적석분구묘 124
 적석총 126
 적현 14

전곡리	111, 113, 228~231	조선건국동맹	331
전두환	202, 203, 206	조선건국준비위원회	192, 332, 333
전시과	14	조선노동총동맹	191
절식	273	조선노동공제회	191
점토대토기	119, 120, 123	조선인민공화국	193, 332
정도전	147	조선인민당	332
정동행성	146	조선장	285, 286, 289
정명가도	151	조심태	162
정몽주	147, 244, 246, 247	조왕	278~282
정묘호란	155, 268	조일수호조규	29, 171
정발	151	종묘	147, 156
정세운	144, 308	조포나루	225
정약용	27, 28, 162, 166, 167, 169 171, 245, 250, 322, 323, 324, 325, 326	좌우합작운동	332
정약전	167, 323, 325	주구토광묘	124
정유재란	155, 314	주먹도끼	112, 113, 230, 231
정전론	169	주장성	130
정계두	29, 164, 165	죽주산성	133, 142
정조	154, 161, 162, 163, 167 236, 237, 238, 248, 250 262~265, 303, 324, 325	준농림지	34, 37, 40, 41, 43
정족산성	170	줄타기	281, 285
정한론	170	중경임시정부	193, 195
제례	270	중일전쟁	182
제부도	219, 220	중화학공업	206, 207
제암리 학살사건	188	지방개량강습회	181
제한국회	196, 335	지방의회	25, 45, 181, 204
조강포	224	지방화	17, 74, 199, 202
조광조	246, 247	지방자치법	17, 25, 199, 204
조봉암	193, 197	지방자치제도(地方自治制度)	198, 204 210, 212
조선개척사	190	지역혁신센터(RIC)	32
		지역협력연구센터(GRRC)	32
		지정면	178, 180, 181, 182

지평의병 173
 직주분리 36
 진평왕 129, 238, 255
 진흥왕 27, 129, 255, 256
 진보당(進步黨) 200
 징파나루 160
 찌르개 231
 찌개 113, 230, 231

ㄷ

창룡문 162
 창릉 260, 261, 308
 채제공 161, 162, 237
 책계왕 125
 처영 257
 처인성 142
 척사위정론 174
 척준경 307
 천마산 216
 천보산 보루 232, 234, 235
 천일록 167
 천진암 171
 천천리 121
 철기시대 118~120
 철종 240, 269, 326~328
 철화백자 300~302
 청동기 118, 119, 122, 294
 청동기시대 118~121
 청자 292~299
 청토오적소 329

청평호 217
 청화백자 285, 299~302, 304
 초광역 행정 48
 초기철기시대 118~120, 122, 123
 총량규제 60, 64, 69, 73
 총명 133
 총액인건비제 45, 48
 총융청 256, 268
 총파업 190, 194
 최서천 134
 최승규 134
 최영 144, 147, 272, 308, 309, 310
 최우 141, 142
 최익현 172, 327, 328, 330
 최혜국대우 171
 축만제 164, 250
 축수의례 270
 출생복 272
 충렬서원 246, 247
 충장사 258
 충적대지 117
 칠중성 130, 131, 232
 칠현산 217
 침상도시 36
 청기즈칸 141

ㅌ

타제석기 110, 114
 태봉 133
 태평양전쟁 191

택리지 29
 토요토미 히데요시..... 151
 토지조사사업 178, 184

교

판교테크노벨리 32
 팔당나루..... 223, 225
 팔달문 162, 250
 팔당상수원특별대책지역 24
 팔당호 수질개선종합대책 96
 팔당호..... 87~90, 95, 96
 8도제 14, 148
 패총 116, 117
 평택농악..... 270, 285, 286
 평택항 32, 210, 211
 평화시 20
 평화촌 19
 포구..... 160, 224, 226
 포구시장 29
 포천 영평사격장..... 85, 86
 표준정원제 45, 46
 풍도 24, 219

흥

하남위례성 27, 229, 252
 한(漢) 123
 한강수계 59, 62~64, 72, 73
 87~90, 92, 94~96
 한강유역 27, 114, 125, 127, 128

..... 133, 134, 228, 252
 한강하구 19, 20, 21, 132
 한경대 51
 한국나노기술원 32
 한국독립당 334
 한국민주당 195, 196, 335
 한봉성 159
 한산주 28, 129~133, 255
 한선 289
 한성부 4, 14, 15, 177
 한영서원 184, 186
 한·일 국교정상화..... 201
 한응인 152
 한전론 167, 169
 한주 131
 한탄강 114, 121, 220, 228~230, 232, 234
 해거방축 321
 해무리급양 293
 해상북방한계선 19
 해유령진투 152
 해촌낙화놀이 285
 해주대첩 154, 155, 257, 258
 해주산성 154, 155, 256, 257
 향교 28, 244
 허목..... 318, 319
 허선문 134
 허정 200
 허옥 154
 헌덕왕 132
 현릉..... 258, 260, 262
 현릉원 161, 236, 237, 264

현릉	260	형혈식석실분	126
혜공왕	132, 134	효릉	266, 269
혜경궁홍씨	161, 164	효순사상	238
혜릉	260	효종	158, 245, 256, 263, 313, 318
혜장선사	325	후고구려	135
호로고루	232, 233, 234	후백제	135, 136
호수돈여고	190	훈련도감	158
호족	28, 126, 133, 134, 136, 243	휘릉	260
흔레복	272	흙흙신서	168, 326
홍건적	139, 144, 308	희릉	269
홍계남	153, 154		
홍대용	166		
홍릉	260, 261, 262, 266, 267		
홍산전투	309		
홍언수	153, 154		
홍유	136		
홍유릉	266		
홍천강	94, 217		
화랑포	225		
화랭이	280, 281		
화서문	162, 164		
화석정	316		
화성	2, 3, 5, 6, 29, 161~164, 167188, 250, 264, 324		
화성성역의궤	164, 251		
화성행궁	163		
화성호	105, 107		
환경기초시설	35, 36		
환호	119, 122, 123		
황희	310, 311		
회암사지 부도	242		

사 · 진 · 제 · 공

고려대학교박물관

p.306

국립중앙박물관

p.256, p.295, p.296, p.297, p.303

경기도박물관

p.162, p.293, p.294, p.296, p.298, p.299, p.300, p.301, p.303

동국대학교박물관

p.300

서울대학교 규장각

p.148, p.168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p.295

장득진 제공

p.13, p.26, p.27, p.33, p.37, p.50, p.52, p.60, p.90, p.115, p.116, p.118, p.119, p.120, p.121, p.122, p.124, p.125, p.126, p.127, p.128, p.130, p.132, p.135, 138, p.139, p.143, p.146, p.147, p.149, p.151, p.152, p.153, p.154, p.156, p.157, p.158, p.159, p.160, p.161, p.162, p.166, p.167, p.169, p.171, p.172, p.174, p.179, p.180, p.181, p.184, p.188, p.189, p.190, p.192, p.193, p.213, p.214, p.226, p.229, p.230, p.233, p.234, p.235, p.236, p.237, p.238, p.239, p.240, p.241, p.242, p.243, p.245, p.246, p.247, p.248, p.249, p.250, p.251, p.252, p.253, p.254, p.255, p.256, p.257, p.258, p.260, p.261, p.262, p.263, p.264, p.265, p.266, p.270, p.271, p.289, p.290, p.298, p.303, p.306, p.307, p.308, p.309, p.310, p.311, p.312, p.313, p.314, p.315, p.316, p.318, p.319, p.321, p.322, p.324, p.326, p.327, p.330

최춘일 제공

p.221

한국고고학회

p.110, p.111, p.113, p.114, p.115, p.116, p.117, p.118, p.110

국립중앙박물관

p.119

호남문화재연구원

p.120

이형원

p.120, p.121

한신대학교박물관

p.121

증원문화재연구원

p.122

경기문화재연구원

p.122

경기문화재단

p.123, p.124, p.126, p.128, p.130, p.132

한국토지주택박물관

p.128

한양대학교

p.128

한양대박물관

p.130, p.131

| 감수

정옥자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김호일 도시편찬위원회 위원장
이은순 도시편찬위원회 부위원장

| 연구 집필

강대옥 전 경기도박물관장
김명우 경기문화재단 경기문화재연구원 책임연구원
김영미 경기도미술관 학예연구팀 책임연구원
김준혁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김지옥 경기문화재단 경기문화재연구원 수석연구관
이지훈 경기문화재단 경기문화재연구원 책임연구원
이형원 한신대학교박물관 학예연구사
양정석 수원대학교 사학과 교수
정진각 전 도시편찬위원회 상임위원(이상 가나다순)

| 교정 교열

장득진 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관

| 기획 총괄

경기도

최원호 자치행정국장
박덕순 인사과장
이정화 인재양성팀장
이철규 주무관

경기문화재단

조유전 경기문화재연구원장

경기도 바로알기

발행일 2008년 9월(1쇄), 10월(2쇄), 11월(3쇄), 2009년 12월(4쇄)
2010년 8월(5쇄), 2012년 1월(6쇄), 2013년 6월(7쇄), 2014년 3월(8쇄)

발행처 경기도

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도청앞길 63(매산로3가 1번지)
경기도청 인사과

전화 031-8008-4496~9(인사과)

편집제작 도서출판 우일(031-242-9001)

(비매품) 발간등록번호 71-64100000-000345-01

※ 이 책에 수록된 내용을 전재하거나 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경기도청 인사과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600년
통일한국의 미래를 엿니다

